6·25전쟁사 2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 서 문



광복 60주년, 6·25전쟁 발발 5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우리는 전쟁의 역사적 교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되새기며,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측면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기에 지금까지 국내외 학계와 관련 기관에서는 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저술과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었고,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1967년부터 13년간에 걸쳐 편찬한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11권)가 대표적인 공식 전쟁사로서,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나 학계에서 귀중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6·25전쟁에 관한 사료가 추가로 많이 발굴되고, 또한 참전 국가들 가운데서도 다수의 기록 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이들 자료를 두루 포함한 새로운 전쟁사의 편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공산권의 구소련과 북한(미군 노획문서)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군사편찬연구소가 새롭게 드러난 자료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6·25전쟁사를 재발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6·25전쟁사』 제2집은 북한의 전면남침에서부터 서울 함락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남침기도와 각 군 및 각 축선별 전투상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사에서는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침략을

당한 우리 정부와 군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또 어떻게 방어하였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의 전쟁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북한군 관련 내용은 공산권 자료를 근거로 매우 정밀하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양측 모두에 대한 사실 고증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출간되는 이 책이 이런 면에서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내에서나 국내·외의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6·25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계속해서 편찬될 6·25전쟁사가 그 분들뿐만 아니라 참전자들 모두의 분전 상황을 더욱 진솔하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러한 실증에 바탕을 둔 전쟁사 편찬이 아직도 정전체제하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전쟁사 편찬을 위해 수고한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국방부장관 **윤 광 웅**

윤 광 웅

# 발 간 사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6·25전쟁사의 완결판을 목표로 10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6·25전쟁사』 재발간(총 18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의 전쟁사는 당 연구소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가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으로 발간한 것입니다만, 발간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일찍이 군과 학계에서 증보 편찬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당 연구소는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의 증언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쟁사를 재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6월에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내용으로 한 『6·25전쟁사』 제1집을 편찬한데 이어 이번에 제2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사』 제2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에서부터 6월 28일 서울 함락까지 4일 간의 초전 상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전쟁사를 새롭게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공개된 구 소련문서 및 북한 노획문서 등 공산군측 1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남침 초기 적의 기도와 부대운용, 축선별 기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축선별 현지의 전적지를 답사하여 문서자료와 증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전사 연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현지 정찰과 추가적인 증언청취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과의 토의와 워크숍을 통해 객관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수시 토의를 통해

자료의 타당성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또 군 원로와 학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군내 전쟁사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각 군 군사연구실, 각 군 대학 및 사관학교 교수 등 많은 분이 참여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6·25전쟁사 제2집은 내용 구성상 기존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술방식 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년체 방식을 지양하고 기사본말체 방식을 채택하여 기술하였고, 또 전투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상황도를 1950년대 당시 군사지도를 활용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축선별 전투를 전장 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평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당시 작전상황을 입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전쟁사는 국방을 담당한 장병들에게 군사적인 전문성과 함께 야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방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쟁사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와 정부의 전쟁지도,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자 양영조·남정옥·손규석·박동찬 연구원과 전술토의에 도움을 준 서규화·김주흡 중령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원고를 보완하기 위해 애써 주신 연구소 자문위원(백선엽 위원장, 김동호·정용근 위원)을 비롯하여 군 원로와 관련학자 등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투 분석에 도움을 준 육·해·공군 교육기관 전문가들과 전쟁 당시의 군사지도를 제공해 준 육군지도창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선학제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5년 12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안 병 한

안 병 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9. 이 책의 내용은 국방 군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었으며, 상황도는 1950년대의 1 : 5만 군사지도를 사용하였다.

10.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 목 차


▌장관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북한군의 개전 초기 작전기도 / 1

제 1 절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작전단계 ·····3
제 2 절 북한군 제1단계 작전 ·····12
제 3 절 북한군의 공격준비태세 돌입 ·····40

제 2 장 북한의 전면남침과 대응 / 53

제 1 절 북한군의 기습공격 ·····55
제 2 절 국군 지휘부의 조치 ·····61
제 3 절 정부의 대응과 조치 ·····71
제 4 절 분석 및 평가 ·····95

제 3 장 서부지역 작전 / 105

제 1 절 작전 개요 ·····107
제 2 절 북한군 및 국군 상황 ·····112
제 3 절 옹진반도 전투 ·····135
제 4 절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169
제 5 절 강화—김포 전투 ·····244
제 6 절 분석 및 평가 ·····266

제 4 장 중서부지역 작전 / 281

제 1 절 작전 개요 ·····283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288
제 3 절 연천—동두천—의정부 전투 ·····305
제 4 절 운천—포천—의정부 전투 ·····344
제 5 절 백석천—내촌 전투 ·····382
제 6 절 분석 및 평가 ·····397

제 5 장 중동부지역 작전 / 411

제 1 절 작전 개요 ·····413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418
제 3 절 춘천—가평 전투 ·····442
제 4 절 인제—홍천 전투 ·····490
제 5 절 분석 및 평가 ·····527

제 6 장 동부지역 작전 / 547

제 1 절 작전 개요 ·····549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554
제 3 절 양양—강릉 전투 ·····567
제 4 절 정동진·임원진 전투 ·····597
제 5 절 대관령 철수와 강릉 역습 ·····612
제 6 절 분석 및 평가 ·····622

제 7 장 수도 서울 방어작전과 함락 / 635

제 1 절 창동－미아리－시가지 전투 ·····637
제 2 절 정부의 철수와 북한군의 서울 점령 ·····673
제 3 절 국군의 한강이남 철수 ·····681
제 4 절 서울방어작전 종합 평가 ·····690

제 8 장 초기 해·공군 작전 / 705

제 1 절 해군작전 ·····707
제 2 절 공군작전 ·····744

제 9 장 총 평 / 777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779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785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787

부 록 / 797

1. 연 표 ·····799
2. 국군 작전명령 ·····802
3. 북한군 전투명령 ·····812

▌참고문헌 / 818

▌찾아보기 / 823

# 〈표 목 차〉


<표 1－1> 북한군 3단계 작전계획 ····· 8
<표 1－2> 북한군의 서울방면 공격부대 방향 및 목표 ····· 13
<표 1－3> 전쟁 당시 북한군 수뇌부 현황 ····· 15
<표 1－4> 북한군 사단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현황 ····· 15
<표 1－5> 북한군 제1군단 부대표 ····· 16
<표 1－6> 북한군 제2군단 부대표 ····· 17
<표 1－7> 북한군 최초 공격제대 편성 ····· 19
<표 1－8> 총참모부 통제방법 ····· 20
<표 1－9> 북한군 제1군단 축선별 전투 편성 ····· 24
<표 1－10> 제1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25
<표 1－11> 제6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6
<표 1－12> 제1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7
<표 1－13> 제4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8
<표 1－14> 제3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9
<표 1－15> 제105전차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0
<표 1－16> 제3경비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1
<표 1－17> 북한군 제2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 33
<표 1－18> 제2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34
<표 1－19> 제12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5
<표 1－20>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6
<표 1－21> 제2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7
<표 1－22> 제1경비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8
<표 1－23> 제5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39
<표 1－24>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 전개(1950. 6) ····· 42
<표 1－25> 전쟁 직전 피아 병력 비교 ····· 46
<표 1－26> 피아 각종 화포 제원 비교 ····· 47
<표 3－1>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 6) ····· 113
<표 3－2> 서부지역 북한군 전투편성 ····· 113
<표 3－3> 서부지역 북한군 포병화력 ····· 114

<표 3－4> 서부지역 북한군 지휘관 현황 ····· 115
<표 3－5> 제3경비여단(서해안방면 타격) ····· 116
<표 3－6> 제6사단(개성－김포 방면 타격) ····· 118
<표 3－7> 제1사단(고랑포－문산－서울 서측방면 타격) ····· 120
<표 3－8> 제203전차연대(-1) (고속종심기동부대) ····· 121
<표 3－9> 국군 제17연대 주요 지휘관 편성 ····· 126
<표 3－10> 국군 제1사단의 3선 방어계획 ····· 130
<표 3－11> 국군 제1사단 주요 지휘관 편성 ····· 131
<표 3－12> 국군 제1사단 배속부대 지휘관 ····· 132
<표 3－13> 국군 제1사단의 방어배치 조정 ····· 133
<표 3－14> 제17연대의 종합전과 및 손실(장교/사병) ····· 163
<표 3－15> 국군 제1사단 최후방어선상의 부대 배치(27일 오전) ····· 218
<표 4－1> 중서부지역 작전 전개(6. 25～27) ····· 285
<표 4－2>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전투편성 ····· 289
<표 4－3>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포병화력 ····· 289
<표 4－4>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지휘관 현황 ····· 290
<표 4－5> 북한군 제4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92
<표 4－6> 제3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93
<표 4－7>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295
<표 4－8> 동두천－포천 축선 피아 병력 비교 ····· 296
<표 4－9> 국군 제7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 ····· 298
<표 4－10> 수도경비사령부의 동두천－포천 축선 증원 현황 ····· 299
<표 4－11> 포천－백석천 축선에 증원된 국군 제2사단의 지휘관 및 참모 편성 ··· 300
<표 4－12> 국군 제7사단의 3선 방어계획 ····· 301
<표 4－13> 국군 제7사단의 책임지역 및 부대배치 ····· 303
<표 4－14> 개전 초기 의정부－포천 방면 국군 증원부대 현황 ····· 320
<표 4－15> 육사생도대대 전투편성 ····· 388
<표 5－1> 중동부지역 북한군 전투편성 ····· 418
<표 5－2>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편성 ····· 419
<표 5－3> 중동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 ····· 420
<표 5－4> 중동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 421
<표 5－5> 북한군 제2보병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424
<표 5－6> 북한군 제12보병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426

<표 5－7> 북한군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428
<표 5－8> 국군 제6사단 편성표(1950. 6. 25 현재) ····· 436
<표 5－9> 국군 제6사단 병력 현황(1950. 6. 25～6.28) ····· 438
<표 5－10> 국군 제6사단 장비 현황(1950. 6. 25～6.28) ····· 439
<표 5－11> 국군 제6사단 전과 현황(1950. 6. 25～6. 28) ····· 529
<표 5－12> 국군 제6사단 전사상자 현황(1950. 6. 25～6. 28) ····· 529
<표 6－1> 제1경비여단 편성(1950. 6) ····· 554
<표 6－2> 제766부대 편성 ····· 555
<표 6－3> 동부지역 북한군의 전투편성 ····· 555
<표 6－4> 동부지역 북한군 포병화력 ····· 556
<표 6－5> 동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현황 ····· 556
<표 6－6> 제1경비여단(동해안 방면 타격) ····· 558
<표 6－7>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상륙부대) ····· 559
<표 6－8> 국군 제8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 ····· 562
<표 6－9> 제8사단 주요 장비 ····· 566
<표 7－1> 한강교 폭파 이후 국군의 방치 차량 현황(1950. 6. 30 현재) ····· 662
<표 7－2> 국군의 한강 도하상황 통계표(1950. 6. 30 현재) ····· 668
<표 8－1> 북한 해군 총사령부 조직(1950. 6. 25 현재) ····· 712
<표 8－2> 북한 해군 제599부대 조직(1950. 6. 25 현재) ····· 713
<표 8－3> 북한 해군 병력현황 ····· 714
<표 8－4> 북한 해군 제599군부대 각 구분대 조직통계(1950. 3. 24현재) ····· 715
<표 8－5> 경비기지별 육상 및 해상경비구역 현황 ····· 717
<표 8－6> 6·25전쟁 직전의 대한민국 해군 편성 ····· 720
<표 8－7> 대한민국 해군 주요 직위자(6·25개전 직전) ····· 721
<표 8－8> 6·25전쟁 직전의 해군 병력 현황 ····· 722
<표 8－9> 6·25전쟁 직전의 해군함정 배치세력 현황 ····· 722
<표 8－10>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세력 ····· 723
<표 8－11> 개전 당시 북한 공군 주요 항공기의 전술·기술 제원 ····· 747
<표 8－12> 북한 공군 편성 ····· 748
<표 8－13> T-6 및 L-형 항공기 출격 현황(1950. 6. 25～6. 27) ····· 757

# 〈상황도 목차〉


<상황도 1－1> 북한군 3단계 작전 상황도 ····· 10
<상황도 2－1> 북한군의 전면 남침 ····· 56
<상황도 3－1> 서부지역 상황도 ····· 109
<상황도 3－2> 옹진반도 경계진지 상황 ····· 137
<상황도 3－3> 옹진반도 전투 ····· 143
<상황도 3－4> 청단－연백 전투 ····· 177
<상황도 3－5> 개성 전투 ····· 181
<상황도 3－6> 고랑포 전투 ····· 187
<상황도 3－7> 임진강 방어선 전투 ····· 205
<상황도 3－8> 봉일천 전투 ····· 217
<상황도 3－9> 한강이남으로의 철수 ····· 233
<상황도 3－10> 김포반도 전투 ····· 247
<상황도 3－11> 장림－운유산 전투 ····· 256
<상황도 4－1> 중서부지역 작전 ····· 286
<상황도 4－2> 제1연대 경계진지 전투 ····· 309
<상황도 4－3> 제1연대 주저항선 전투 ····· 323
<상황도 4－4> 동두천 역습 ····· 329
<상황도 4－5> 제9연대 경계진지 전투 ····· 347
<상황도 4－6> 제9연대의 주저항선 전투 ····· 361
<상황도 4－7> 제3연대의 송우리 전투 ····· 365
<상황도 4－8> 축석령－금오리 전투 ····· 373
<상황도 4－9> 제25연대의 백석천 전투 ····· 384
<상황도 4－10> 육사생도대대의 내촌 전투 ····· 392
<상황도 5－1> 중동부지역 작전 ····· 415
<상황도 5－2> 제7연대 경계진지 전투 ····· 451
<상황도 5－3> 제7연대 주저항선 전투 ····· 462
<상황도 5－4> 제7연대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 ····· 467
<상황도 5－5> 제7연대 최후저항선 전투 ····· 473
<상황도 5－6> 제7연대 가평 전투 ····· 479

<상황도 5－7> 제2연대 경계진지 전투 ····· 499
<상황도 5－8> 제2연대 주저항선 전투 ····· 503
<상황도 5－9> 제2연대 최후저항선 전투 ····· 514
<상황도 5－10> 제2연대 현리 전투 ····· 521
<상황도 6－1> 동부지역 작전 ····· 551
<상황도 6－2> 제2대대 경계진지 전투 ····· 572
<상황도 6－3> 제1대대 경계진지 전투 ····· 576
<상황도 6－4> 연곡천 전투 ····· 585
<상황도 6－5> 광원리 부근 전투 ····· 587
<상황도 6－6> 옥계 전투 ····· 602
<상황도 6－7> 군선강 전투 ····· 609
<상황도 6－8> 제8사단의 강릉 철수 ····· 615
<상황도 6－9> 제8사단의 강릉 공격 ····· 619
<상황도 7－1> 창동 전투 ····· 645
<상황도 7－2> 미아리－회기동 전투 ····· 655
<상황도 7－3> 서울시가지 전투 ····· 665
<상황도 8－1> 남북한 해군 배치도 ····· 724
<상황도 8－2> 남북한 공군부대 배치도(1950년 6월 현재) ····· 752



# 제 1 장 북한군의 개전 초기 작전기도*


| | |
|---|---|
| 제 1 절 |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작전단계 |
| 제 2 절 | 북한군 제1단계 작전 |
| 제 3 절 | 북한군의 공격준비태세 돌입 |

# 제 1 절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작전단계

## 1. 남침계획의 수립과정[1)]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은 1950년 4월 15일경 북한 '인민군'을 육성한 스미르노프 소장을 비롯한 소련군사고문관이 소련으로 모두 철수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 독·소전의 영웅이자 작전전문가로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예프 중장 등 새로운 군사고문관이 북한에 들어와서 남침 공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2)]

특히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하고 모스크바에서 복귀한 후 남침공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북한군 총참모부에 지시하였다.[3)] 이에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5월 29일 이를 완성하였으며 공격개시일을 6월말로 결정하여 건의하였다.[4)]

이때 북한군의 남침공격 계획은 총 3단계로 작성되었다.[5)] 스탈린과 김일성은 이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6월말 공격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공격개시일이 더 늦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남쪽에 누설될 수 있고, 또 7월에는 장마로 인해 부대기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의 6월말 선택에는 소련군사고문관들도 동의하였다.

한편 남침공격계획은 6월 16일에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고되었고 그도 이 계획에 동의하였다.[6)] 이와 같이 북한의 남침계획은 김일성·스탈린·모택동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최종적인 남침 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 일요일을 남침공격일로 정한 것은 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습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兪成哲)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7]으로서 러시아어 작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러시아로 된 이 문서의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군사고문관이 주동이 되어 남침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당시 북한의 '인민군총사령부' 간부들의 군사경력으로 볼 때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반면 소련군사고문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소전(獨·蘇戰)에서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작전 전문가들이었다. 유성철은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하에 소련군 출신인 포병사령관, 공병국장 등이 극비리에 이를 한글로 옮겼음을 증언하고 있다.[8] 이로써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이 완성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남침공격계획이 완성된 약 1주일 후인 1950년 6월 7일에 조국통일전선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8월 5~8일 사이에 전 조선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 입법기관을 창설하며 8월 15일 해방 5돌 기념일에 서울에서 최고입법기관회의(국회)를 소집할 것. 이를 위하여 6월 15~17일에 해주(海州) 또는 서울에서 …… 평화통일을 위한 제 조건과 총선거 실시의 절차문제를 토의결정할 것"이라는 요지의 '남한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9] 이때 김일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자"[10]는 대표자 회의에 참가시키지 않으며, 유엔한국위원단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관들은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한국의 새 공산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알맞게 남한 점령을 완료하고 소비에트 방식의 선거를 끝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즉,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고, 그 후 선거를 거쳐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1]

## 2. 남침계획의 기본 개념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전쟁 개시 2일차에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12)]

이를 위해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전쟁 개시 2일차에 신속히 점령하고, 한강이북에 전개된 국군 전방사단의 주력을 격멸하도록 하였다. 그 후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전쟁 모의 단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기 이전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것이 그들의 작전목적이었다.[13)]

이처럼 작전목적에서 드러났듯이 김일성·스탈린·모택동이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었다.[14)]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고 특히 핵무기 개발에서 뒤져있던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단독으로서는 미군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사전에 유도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은 태평양상의 미국 극동방위선을 발표하였으나 남침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국이 참전 결정을 하더라도 미군의 한반도 도착 이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전제로 남침을 최종 결정했다.[15)]

다시 말해서 남침전략의 기본개념은 미군의 증원부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속전속결로서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여 조기에 승세를 굳힌 다음,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남해안의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6·25전쟁 공간사인 『조선전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16]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남한인민은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일격을 가하기만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 인민의 권력이 승리할 것"이라며 '인민봉기론'을 들어 전쟁 조기 종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17] 유성철도 김일성과 북한지도부는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잠복해 있는 20만 남로당 당원이 봉기하여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전쟁개시 2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과 정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상조(李相朝)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1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헌영의 주장은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부추긴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동시에 후에 그가 숙청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19] 따라서 남침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북한군의 공격과 더불어 남로당원을 주축으로 민중봉기를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김일성은 남침을 개시한 다음날 방송을 통하여 '남한인민'의 봉기를 촉구하였다.

> "공화국 남반부 동포들은 이승만 괴뢰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말고…… 남반부 노동자들은 도처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며 …… 남반부 농민들은 적들에게 식량을 주지 말고, 빨치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 문화인 인테리들은 인

민대중 속에서 미제와 이승만 역도의 죄악을 철저히 폭로하여 대중적 폭동조직의 선동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20]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군의 남침 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봉기'가 남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훗날, "미국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은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 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 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 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건의 폭동도 없었다. 만일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단 몇 천 명이라도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까지 해방시켰을 것이고 미국 놈들은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21] 이는 김일성이 '인민봉기'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전쟁을 도발했는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 3. 3단계 작전계획

### 1) 기본 개념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은 전(前) 북한군 작전국장인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명령서, 부대이동계획, 병참보급계획, 기만계획 등으로 구성된 대단히 완벽한 공격계획이었다.[22] 전쟁 중 노획된 북한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에 의해 밝혀진 작전단계와 이에 따른 정보계획 목표, 그리고 주북한소련군사고문단장이 소련군총참모부에 보고한 라주바예프 보고서에서도,[23] 남침계획은 그들의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2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하는 것이었다.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하에 세 가지 단계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24]

제1단계는 최초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격멸하는 단계로서 전쟁 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전종심은 38도선으로부터 수원－원주－삼척을 연하는 선까지 약 90㎞를 5일 만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제2단계는 국군 증원 병력을 격멸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군은 작전종심을 군산－대구－포항을 연하는 선까지 약 180㎞를 14일 만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대편성이나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단계는 국군의 잔류병력을 소탕한 후 신속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여 주요 항구를 점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군은 부산－여수－목포를 연하는 선까지의 작전종심 80㎞를 10여일 만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전쟁 모의과정에서 스탈린이 우려했던 미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미군이 증원이 이루어질 때에 대비하여 남해안의 주요항구를 신속히 점령하여 미군이 한반도에 교두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본적인 작전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단계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편성이나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25]

이렇듯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 총참모부가 참여하여 작성한 남침공격계획에는 38도선으로부터 남해안까지의 작전종심 350㎞를 3단계로 구분하여 한 달 만에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북한군 3단계 작전계획

| 단 계 | | 진출선 | 작전종심 | 작전기간 |
|---|---|---|---|---|
| 1단계 | 국군 주력 포위격멸단계 | 수원－원주－삼척 | 90㎞ | 5일 |
| 2단계 | 국군 증원병력 격멸 및 전과확대단계 | 군산－대구－포항 | 180㎞ | 14일 |
| 3단계 | 남해안 진출 및 국군 잔적소탕단계 | 남해안 지역 | 80㎞ | 10여일 |
| “38도선 남해안까지 작전종심 350㎞을 한 달 만에 수행하여 제1단계 작전 완료” | | | | |

### 2) 제1단계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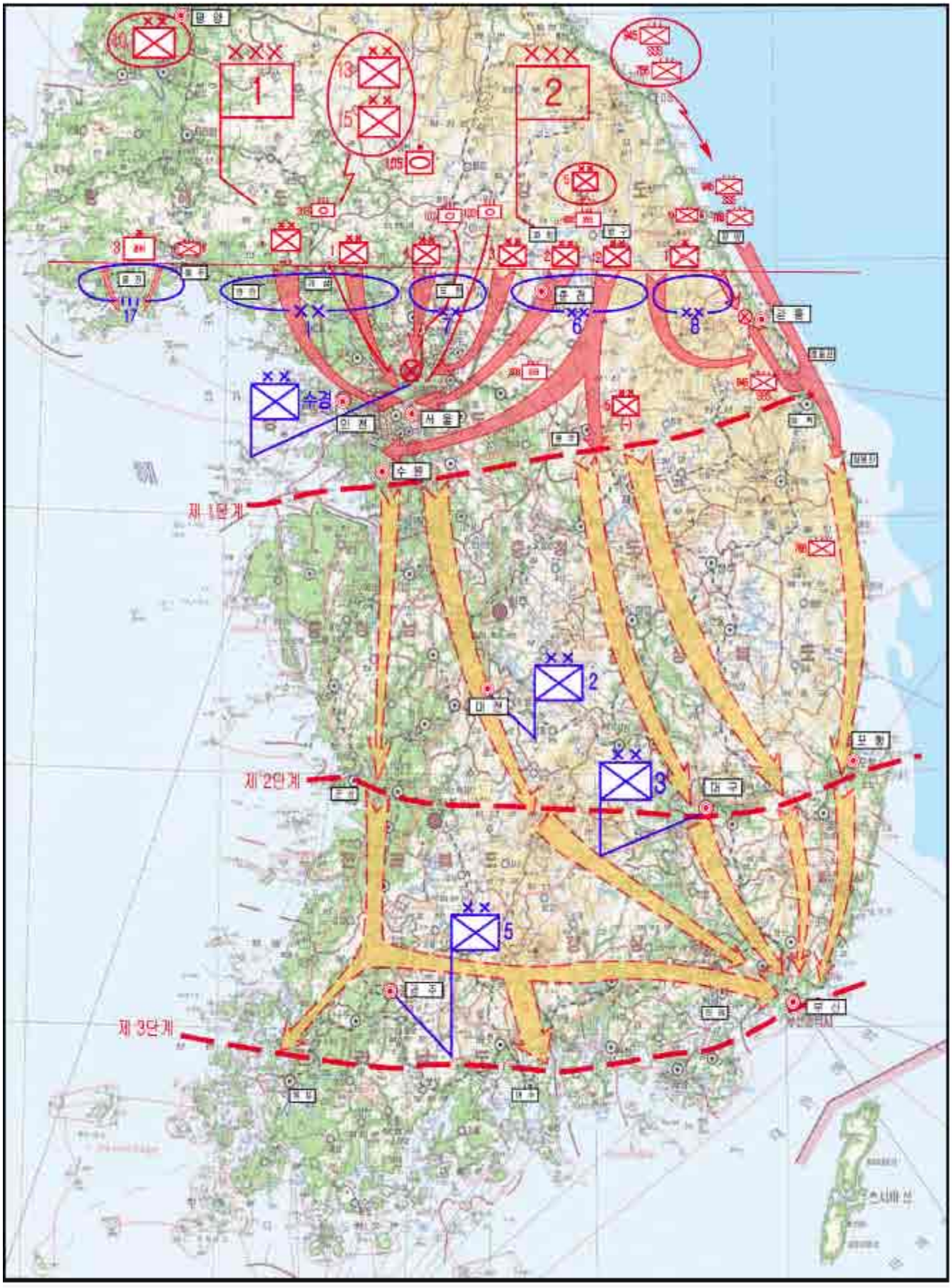
제1단계 작전을 위해 북한군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북한군은 서울 점령을 위해 제1군단에 의해 한강이북에서 1차 양익포위를 하고,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서로 협조된 공격하에 한강이남에서 다시 한번 2차 양익포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방에 배치된 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2일차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고속기동부대를 통해 한강교 조기점령과 수원이남 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2일차에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되는 1개 보병사단이 국군 전선을 동서로 양단시켜 국군이 상호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각개격파 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산악침투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가운데, 7번 국도를 따라 지상군이 북에서 남으로 공격하고, 강릉 남쪽에서 해상으로 상륙한 상륙부대가 남에서 북으로 국군을 협공하여 완전 격멸하도록 하였다.[26]

이를 위해 총참모부는 북한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였다.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써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써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27]

### 3) 제2・3단계 작전

제2・3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에 이어 실시되나, 전략계획 자체가 서울이 점령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전과확대로 들어가 예비부대를 격파하며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어 제3단계로 전환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고 부산－마산－여수－목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28] 그러나 제2・3단계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부대 운용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북한군은 제1단계 작전을 전쟁의 승패를 좌우

<상황도 1-1> 북한군 3단계 작전 상황도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2·3단계 작전은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미 증원군의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부대배치를 끝낸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기동에 중점을 두어 제1단계 작전과는 달리 각 군단간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종심지역으로 깊이 진입하도록 하였다.[29]

실제로 제1단계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계획목표도 대체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제2·3단계 작전은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군의 저항도 완강하였으며, 특히 전쟁모의 단계에서 스탈린이 가장 우려했던 미 증원군이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상황이 그들의 최초 전략 판단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30]

# 제 2 절 북한군 제1단계 작전

## 1. 총참모부의 작전 기도

### 1) 작전 개념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작전을 크게 3단계로 계획하였다. 제1단계는 서울 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제2단계는 전과를 확대하며, 제3단계는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국군의 나머지 병력을 소탕하는 것이었다.[31]

북한군 총참모부의 제1단계 작전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38도선 접경지역으로부터 한강이북 지역에 배치된 국군 주력을 격멸하고, 둘째, 한강이북 지역의 국군 퇴로 및 후방 3개 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며, 셋째, 북한이 1948년 9월 정권수립 후 그들의 헌법에 수도로 명시한 서울을 점령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다음 수원－원주－삼척선까지 진출하여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해방전쟁"의 제1단계 작전목표를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총참모부는 38도선으로부터 수원－원주－삼척선까지의 1단계 작전종심 90㎞을 5일 만에 달성하도록 계획하였다.[32]

북한군 총참모부의 제1단계 작전기도는 서울 점령 및 한강이북 지역에서 국군 주력 격멸을 위해 보병 3개 사단(제1・제4・제3보병사단)을 배치하고,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1)을 투입하여 서울 조기점령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의 국군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국군의 후방 3개 사단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제－홍천 축선에서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배치하여 한강이남의 수원을 점령하기 위해 전략적 기동을 하도록

하였다.[33]

이를 위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포위소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을 2중·3중으로 포위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주력을 격멸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군은 서울을 직접 공격하는 제1·제3·제4보병사단으로 하여금 한강이북에서 1차 포위를 시도한 다음, 2차로 개성－김포로 진출하는 북한군 제6보병사단과 춘천－가평－하남으로 진출하는 제2보병사단이 한강이남에서 다시 한번 국군 주력을 포위 격멸하는 것이었다.

이때 서울 동측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제105전차여단(-1)이 한강교를 조기 점령하여 국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홍천－수원으로 진출하는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인 수원이남 지역을 신속히 점령하여 다시 한번 국군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후방사단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또한 주공집단인 제1군단은 중서부지역인 연천－동두천 및 운천－포천, 그리고 서해안 축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쪽에서 서울을 압박한 후 일부는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영등포와 인천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조공집단인 제2군단은 중동부지역의 화천－양구 및 동해안축선에서 38도선 돌파하여 서울 동측방 및

<표 1－2> 북한군의 서울방면 공격부대 방향 및 목표

| 구분 | 제1군단 | | | | | 제2군단 | |
|---|---|---|---|---|---|---|---|
| | 제1사단 | 제4사단 | 제3사단 | 제105 전차여단 | 제6사단 | 제2사단 | 모터사이클 연대 |
| 공격 방향 | 문산-서울 서쪽(수색) | 동두천-서울 북쪽(수유리) | 포천-서울 동쪽(상봉동) | 1·43·47번 도로 | 개성-김포 (영등포) | 춘천-한강 이남(하남) | 홍천-수원 |
| 목표 | 서울 서측 점령 | 서울 북측 점령 | 서울 동측 점령 | 한강교 점령 | 한강 이남 포위 | 한강 이남 포위 | 수원 이남 포위 |
| 비고 | 1차 양익포위(한강이북) | | | 1차 퇴로 차단(한강) | 2차 양익포위 (한강이남) | | 2차 퇴로 차단(수원) |

수원방향으로 우회 공격하고, 일부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특수상륙부대인 766부대와 549부대는 동해안에서 국군 후방지역인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하여 국군 제8사단의 퇴로차단 및 협공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군의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한강교 조기 점령과 수원이남 차단이라는 임무를 각각 부여받았다. 즉, 고속기동부대는 최초 38도선에서 국군의 방어지대가 무너지면 2일째 되는 날 양호한 기동로를 따라 서울 점령에 절대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국군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강교를 조기에 점령하고 수원이남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총참모부는 전략예비로 평양에 제10보병사단을 두어 평양위수임무를 부여하였다.

### 2) 북한군 부대 현황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무력을 관장하는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의 민족보위상(民族保衛相)에 당시 '인민군총사령관'이었던 최용건(崔庸健) 대장을 임명하였다. 이때 임명된 북한군 주요 간부 편성을 보면, 부상 겸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 중장, 포병부사령관 무정(武亭) 중장, 총참모장 강건(姜健) 중장, 부총참모장 최인(崔仁) 소장, 전투훈련국장 김웅(金雄) 소장, 작전국장 유성철(兪成哲) 대좌, 정찰국장 최원(崔遠) 대좌, 통신국장 박영순(朴英順) 대좌, 공병국장 박길남(朴吉南) 대좌, 간부국장 이림(李林) 대좌, 군의국장 이동화(李東華) 대좌, 문화부국장 김일(金日) 소장, 포병부국장 김봉율(金鳳律) 대좌, 전투경험연구부장 유신(柳新) 대좌, 정치보위처장 석산(石山) 대좌였다.[34]

전쟁 당시 북한군의 수뇌부는 민족보위상 최용건 대장을 비롯하여 총참모장 강건 중장,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 중장, 공군사령관 왕연(王連) 중장, 해군사령관 한일무(韓一武) 중장, 포병사령관 무정 중장, 작전국장 유성철 소장, 포병국장 김봉율 소장, 통신국장 박영순 대좌, 공병국장 박길남 대좌, 정찰국장 최원 대좌, 문화국장 김일(金日) 소장, 안전국장 석산 소장, 후방국장 김영수(金英洙) 소장, 검찰국장 김학인(金學仁) 소장이었다.[35] 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전쟁 당시 북한군 수뇌부 현황[36]

| 직 책 | 이 름 | 계급 | 나이 | 주요 경력 |
|---|---|---|---|---|
| 내 각 수 상 | 김일성 | 원수 | 38세 | 제88여단 제1대대장, 소련군 대위 |
| 민족보위상 | 최용건 | 대장 | 50세 | 제88여단 정치부 지도원, 소련군대위 |
| *전선사령관 | 김 책 | 대장 | 47세 | 제88여단 제3대대 정치부대대장, 소련군 대위 |
| 총 참 모 장 | 강 건 | 중장 | 32세 | 제88여단 제4대대장, 소련군 대위 |
| 해군사령관 | 한일무 | 중장 | ? | ? |
| 공군사령관 | 왕 연 | 중장 | 38세 | 제88여단 정치부 지도원, 소련군대위 |
| 포병사령관 | 무 정 | 중장 | 45세 | 팔로군 포병단장, 조선의용군 사령원 |

<표 1-4> 북한군 사단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현황[37]

| 직 책 | | 이 름 | 계급 | 나이 | 주요 경력 |
|---|---|---|---|---|---|
| 제 1 군 단 | 군 단 장 | 김 웅 | 중장 | 38세 | 중국 중앙군관학교 제10기생, 중공 팔로군 연대장 |
| | 제1사단장 | 최 광 | 소장 | 32세 | 제88여단 제4대대, 소련군 중위 |
| | 제3사단장 | 이영호 | 소장 | ? | 제88여단, 소련군 상위 |
| | 제4사단장 | 이권무 | 소장 | 36세 | 팔로군 여단참모부 작전훈련견습 참모 |
| | 제6사단장 | 방호산 | 소장 | 37세 | 중공 독립4사 166사 정치위원 |
| | 제105전차여단장 | 유경수 | 소장 | 35세 | 제88여단 제1대대 제1중대 제1소대장, 소련군 중위 |
| | 제3경비여단장 | 최 현 | 소장 | 39세 | 제88여단 제1대대 경리소대장, 소련군 상위 |
| | 제13사단장 | 최용진 | 소장 | 39세 | 제88여단 제1대대 제1중대장, 소련군 상위 |
| | 제15사단장 | 박성철 | 소장 | 38세 | 제88여단 분대장, 소련군 중위 |
| 제 2 군 단 | 군 단 장 | 김광협 | 소장 | 35세 | 제88여단, 소련군 상위 |
| | 제2사단장 | 이청송 | 소장 | ? | 제88여단 특무장, 소련 한인 2세 |
| | 제5사단장 | 김창덕 | 소장 | 48세 | 조선의용군 출신, 독립11사 164사 부사장 |
| | 제12사단장 | 전 우 | 소장 | 36세 | 조선의용군 출신, 독립156사 부사장 |
| | 제1경비여단장 | 오백룡 | 소장 | 39세 | 소련군 정찰부대 |
| | 제766부대장 | 오진우 | 총좌 | 34세 | 제88여단 전사 |
| 전략 예비 | 제10사단장 | 이방남 | 소장 | 34세 | 조선의용군 출신 |

* 전선사령부는 1950년 7월 5일 창설.

공격제대 지휘관 및 참모로는 제1군단장 김웅 중장, 문화부군단장 김재욱(金在郁) 소장, 참모장 유신(柳新) 소장이었다. 제2군단장은 김광협(金光俠) 소장, 문화부군단장 임해(林海) 소장, 참모장 최인(崔仁) 소장이었다. 사단장으로는 제1사단장 최광(崔光) 소장, 제2사단장 이청송(李靑松) 소장, 제3사단장 이영호(李英鎬) 소장, 제4사단장 이권무(李權武) 소장, 제5사단장 김창덕(金昌德) 소장, 제6사단장 방호산(方虎山) 소장, 제12사단장 전우(全宇) 소장, 제10사단장 이방남(李芳南) 소장, 제13사단장 최용진(崔勇進) 소장, 제15사단장 박성철(朴成哲) 소장이었다. 여단장으로는 제105전차여단장 유경수(柳京洙) 소장, 제1경비여단장 오백룡(吳白龍) 소장, 제3경비여단장 최현(崔賢) 소장, 제7경비여단장 이익성(李益成) 소장이었다. 그리고 특수부대장으로 제766부대장 오진우(吳振宇) 총좌가 있었다. 이들 북한군 여단급 이상 지휘관들을 군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전쟁 직전 민족보위성은 총 10개 보병사단, 1개 전차여단, 그리고 내무성 산하의

<표 1-5> 북한군 제1군단 부대표

| 구 분 | | 주요 부대 | 비 고 |
|---|---|---|---|
| 보병부대 | 제1사단 | 제2·3·14보병연대, 포병연대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br>• 포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br>* 구경 : 76㎜ / 122㎜ |
| | 제3사단 | 제7·8·9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4사단 | 제5·16·18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6사단 | 제1·13·15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13사단 | 제19·21·23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15사단 | 제45·49·50보병연대, 포병연대 | |
| 전차부대<br>(고속기동부대) | 제105<br>전차여단 |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br>독립전차대대 | • 전차연대는 3개 대대<br>• 전차대대는 3개 중대<br>• 전차중대는 전차 4대로 편성<br>* 대대(13대), 연대(40대) |
| 포병부대 | 군단 제17<br>포병 연대 | 제1·제2·제3포병대대 | • 122㎜ 평사포대대/곡사포대대로 편성 |
| 경비부대 | 제3<br>경비여단 | 제1·2·3·4·5·6·7대대 | • 대대는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로 편성 |

경비여단을 모두 통합하여 지상군을 2개 군단으로 편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서울방면의 제1・제3・제4사단, 개성방면의 제6사단, 옹진지역의 제3경비여단,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을,[38] 그리고 제2제대로 제13・제15보병사단을 두었다(<표 1-5> 참조).

제2군단은 춘천방면에 제2사단, 인제방면에 제12사단, 홍천방면에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 동해안 지역에 제1경비여단, 그리고 제2제대로 제5보병사단을 두었다. 북한군 보병사단은 3각 편제로 1개 보병연대(2,794명)는 3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었고, 포병연대는 4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는데, 76㎜ 곡사포 2개 대대, 76㎜ 자주포 1개 대대, 122㎜ 곡사포 1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사단 예하에는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수색중대 등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가 편제되어 있었다(<표 1-6> 참조).

<표 1-6> 북한군 제2군단 부대표

| 구 분 | | 주요 부대 | 비 고 |
|---|---|---|---|
| 보병부대 | 제2사단 | 제4・6・17보병연대, 포병연대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br>• 포병연대는 3개 대대<br>• 포병대대는 76㎜ 2개 대대(12문), 122㎜ 1개 대대(12문) |
| | 제5사단 | 제10・11・12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12사단 | 제30・31・32보병연대, 포병연대 | |
| 모터사이클 부대 | 제603 모터사이클 연대 | 모터사이클 4개 대대<br>장갑차 1개 대대(BA-64형 54대)<br>대전차포 1개 대대(45㎜ 16문) | • 모터사이클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br>• 모터사이클중대는 사이클 45대로 편성 |
| 경비부대 | 38경비 제1여단 | 제1・2・3・4・5・6・7대대 | • 대대는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로 편성 |
| 특수지원 부대 | 제766 유격부대 | 제1・2・3대대, 강・표대대<br>포병대대, 통신대대 | 편성병력 3,000여명 |
| | 제945육전대 | 3개 대대 | 편성병력 3,000여명 |

한편 북한은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성(內務省)에도 경비대 병력을 두고 있었다. 내무상 박일우(朴一禹)가 지휘하는 내무상 산하의 경비부대로 한만국경경비대, 38경비여단, 철도경비여단, 해안경비대가 있었다. 이 중 38경비여단은 여단본부 예하에 7개 보병대대와 본부중대, 위생중대, 수송중대, 정찰중대, 45㎜ 대전차포중대, 경비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대는 대대본부와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 대전차포소대, 근무대로 편성되어 있었다.[39]

### 3) 부대 운용 및 공격제대 편성

북한군은 제1단계 작전을 위해 지상 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과 해군 및 공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상군 10개 사단 및 1개 전차여단을 2개 군단과 2개 고속기동부대, 해안상륙부대, 산악침투부대, 그리고 전략예비로 편성하고, 서울, 개성, 춘천 방면과 동·서해안에서 전면기습으로 공격하여 작전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40]

제1군단은 서해안에서 가평 서쪽의 서부전선을 책임지역으로 부여받았다. 군단은 주공 군단으로 서울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한강이북과 이남에서 이중 양익포위로 격멸하고, 전쟁 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단 자체의 전력으로 한강이북에서 국군을 1차로 양익포위한데 이어, 한강이남에서 제2군단과 협조하여 2차로 국군을 양익포위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고속기동부대로 한강교를 조기에 점령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서해안에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경비여단을 투입하여 옹진반도를 점령한 후 위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군단은 가평서쪽에서 동해안까지를 책임지역으로 부여받았다. 군단은 조공 군단으로 서울지역을 점령하는 제1군단의 작전에 기여하고, 고속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수원이남을 신속히 포위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 병력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 1개 사단을 홍천－원주 축선에 투입하여 국군 전선의 중앙을 분리하여 중앙선 및 5번 도로로 증원되는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경비여단을 북쪽에서 공격하도록 하고, 제945육

전대와 제766유격부대를 해상으로 상륙시켜 강릉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 격멸하도록 하였다.

북한 해군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게릴라부대의 국군 후방지역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군 고유임무인 대함전(對艦戰) 및 북한 연안지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41] 북한 해군은 원산·청진·진남포에 3개 위수사령부를 두고 예하부대를 지휘 통제하였다. 북한 해군은 30여 척의 함정과 1만 5,57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 공군은 남한 지역의 주요 도로, 비행장, 교통시설 등 기간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 공군은 1개 항공사단 예하에 1개 추격기연대, 1개 습격기연대, 1개 교도연대로 편성되었다. 북한 지역에는 신안주·평양·연포·선덕·함흥·평강·신막·해주 등에 9개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예하부대를 지휘 통제하였다. 북한 공군은 226대의 항공기와 2,8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42]

이를 위해 총참모부는 지상군의 공격제대 편성을 제1제대와 제2제대 등 2개 제대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제1제대에는 6개 보병사단 및 2개 경비여단이 편성되었다. 제1군단은 제1·제3·제4·제6보병사단(-1), 제3경비여단(+)이 있었고, 제2군단은 제2·제12보병사단, 제1경비여단(+)이 있었다. 제1제대로 편성된 공격부대의 배치상황을 보면 서해안에서부터 제3경비여단(+), 제6사단(-1),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2사단, 제12사단, 제1경비여단(+) 순으로 배치되었다. 제2

<표 1-7> 북한군 최초 공격제대 편성[43]

| 구 분 | 제1제대 | 고속기동부대 | 상륙부대 | 산악침투부대 | 제2제대 |
|---|---|---|---|---|---|
| 제1군단 | 제1·3·4·6사단(-1)<br>제3경비여단(+) | 제105전차여단 | — | — | 제13사단<br>제15사단 |
| 제2군단 | 제2·12사단<br>제1경비여단(+) | 제603모터<br>사이클 연대 | 제945육전대<br>제766유격부대 | 제1경비여단<br>4개 대대 | 제5사단(-1) |
| 비 고 | 6개 보병사단<br>2개 경비여단 | 2개 부대 | 2개 부대 | 1개 부대 | 3개 보병사단 |

제대는 3개 보병사단으로 제1군단에는 제13·15보병사단이 있었고, 제2군단에는 제5보병사단(-1)이 있었다. 이들 북한군의 공격제대 편성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그리고 작전 개시 2일차에 운용되는 고속기동부대로는 제1군단지역에서 운용되는 제105전차여단과 제2군단 지역에서 운용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있었다. 이외에도 동해안에서 운용되는 상륙부대로는 북한 해군의 제945육전대와 육군의 제766유격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지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동해안 내륙 산악지역에서는 제1경비여단 소속의 경보병부대가 침투부대로 운용되었다.

### 4) 통제 방법

북한군 총참모부는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제대에 다양한 통제방법을 활용하여 부대를 지휘 통제하였다. 먼저 각 군단의 주공사단과 조공사단에는 상이한 전투지대를 부여하였다. 즉, 주공사단에는 20㎞라는 협소한 전투정면을 부여한 반면, 조공사단에는 보통 45~60㎞에 달하는 비교적 광정면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사단별로 최근임무계선과 차후임무계선, 그리고 1일차 진출목표를 설정하여 예하공격부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였다.[44] 이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사단에 부여된 최근임무계선은 38도선으로부터 통상 3~5㎞ 후방에 위치한 지점으로 국군 전방 사단의 주방어지대 후방에 위치한 지점에 설정하였고, 차후임무계선은 38도선으로부터 통상 13~15㎞ 후방에 위치한 국군 전방사단 예비연대가

<표 1-8> 총참모부 통제방법

| 구 분 | 최근임무계선 | 차후임무계선 | 1일차 진출목표 | 전투지대(폭) | |
|---|---|---|---|---|---|
| | | | | 주공사단 | 조공사단 |
| 거리/폭 | 3~5㎞ | 13~15㎞ | 18~35㎞ | 20㎞ | 45~60㎞ |
| 진출선 | 전방 사단<br>주방어지대후방 | 전방 사단<br>예비연대 지역 | 작전 목표<br>달성 기여지점 | | |

위치한 지역에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단별 부여된 1일차 진출목표는 총참모부가 지형, 기동로, 부대임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데, 통상 38도선으로부터 18~35㎞ 지점에 위치한 지점으로 1단계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연하여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45] 북한군 총참모부가 최초 공격사단에 부여한 1일차 진출목표를 연결하면 서에서 동으로, 문산이남－덕정－축석령 북쪽－홍천 이북－주문진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로 진격하는데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 5) 작전 수행 개념

#### (1) 1일차 작전 수행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쟁 1단계 작전을 위해 전쟁 개시 1일차에 최초 보병사단을 투입하여 국군의 방어지대를 돌파한 후 국군 전방사단을 조기에 와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부대를 운용하였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제945육전대와 제766유격부대인 특수부대로 하여금 해상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이 지역의 국군을 남북에서 협공함과 동시에 후방에서 올라오는 국군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2) 2일차 이후 작전 수행

북한군 총참모부는 2일차에도 서울 점령을 위해 보병사단을 계속 공격하도록 하여 서울을 한강이북과 이남에서 양익 포위로 국군을 압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병사단이 1일차 진출목표에 도달하면, 2일차에 포천 축선으로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을 투입하여 한강교를 조기 점령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46]

또한 제2군단의 1개 사단을 홍천－원주 지역에서 투입하여 국군의 전선을 한반도 중앙지역에서 분리하여 국군이 상호 증원하지 못하도록 쐐기역할을 하였다. 특히 홍천축선으로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투입하여 경부선과 1번 도로가 지나는 수원이남 지역을 차단하여 국군 전방사단의 퇴로와 후방

의 국군 증원 병력을 차단하도록 하였다.[47]

총참모부는 작전수행 간 각 제대별로 일익 또는 양익 포위로 국군의 방어지대를 돌파하는 기동형태를 주로 사용하였다.

## 2. 제1군단 작전기도

### 1) 군단장 작전의도

군단의 제1단계 작전목적은 전투정면의 국군 2개 보병사단 및 1개 보병연대를 조기에 격멸하고, 2일차에 총참모부가 부여한 작전목표인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여 한강 교량을 확보하여 한강이북의 국군의 퇴로 및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또한 5일차까지는 총참모부가 제시한 제1단계 작전목표인 수원－원주－삼척선을 점령한 후 제2단계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48]

군단장은 서울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한강이북과 이남에서 이중 양익포위로 격멸하고, 전쟁 개시 2일차 서울을 점령할 수 있도록 부대를 편성하였다. 군단장은 자체의 전력으로 한강이북에서 국군을 1차로 양익포위한데 이어, 한강이남에서 제2군단과 협조하여 2차로 양익포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으로 하여금 한강교를 조기에 점령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서해안에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제3경비여단을 투입하여 옹진반도를 점령한 후 위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군단장은 제1단계 작전을 통해 정면에 배치된 국군 2개 보병사단과 1개 보병연대를 격멸하고, 후방에서 증원되는 국군 병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전간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 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2단계 작전을 준비함으로써 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부대 운용 및 전투편성

북한군 제1군단장 김웅 중장은 제1단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초 5개 축선에서 제1제대로 4개 보병사단 및 1개 경비여단을 투입하여 국군의 방어편성을 무력화시킨 다음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 주력을 2일차에 투입하여 조기에 서울을 점령한다는 개념하에 부대를 운용하였다.

군단은 총참모부로부터 군단에 배속된 군단 예하 6개 보병사단, 1개 전차여단, 1개 경비여단, 군단 포병연대를 서울을 압박하는 주공방향에 제1・제4・제3사단을 배치하고, 이들 사단에 군단포병연대의 예하 대대를 각각 배속하였다. 작전 2일째에 의정부지역에서 투입되는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은 군단에서 집권화 통제로 운용하였다. 연안－개성지역에서 김포반도로 진격하여 서울의 한강 대안을 차단한 후, 영등포와 인천으로 진격하는 군단의 조공방면에는 제6보병사단과 제3경비여단, 그리고 내무성 예하의 치안대대가 공격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성－김포반도를 거쳐 영등포로 진출하는 제6사단은 춘천－가평을 거쳐 하남으로 진출하는 제2군단의 제2사단과 함께 한강이남에서 국군을 다시 한번 양익포위가 가능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49]

군단에 배속된 6개 사단・1개 전차여단・1개 경비여단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로는 제1・제3・제4・제6보병사단과 제3경비여단을 두었고, 제2제대로는 제13보병사단과 제15보병사단을 두었다. 군단은 서울 점령의 신속한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단에 배속된 제105전차여단을 고속기동부대로 운용하였다. 제1군단의 축선별 전투편성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또한 사단의 최초 공격부대에는 주・조공별로 전투정면을 달리 부여하고, 전투지경선도 도로망 및 지형을 특성, 그리고 임무를 고려하여 부여하였다. 군단 예하의 각 사단 및 경비여단의 전투지경선을 서해안에서부터 살펴보면, 제3경비여단은 서해안에서 예성강까지를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고, 제6보병사단(-)은 제3경비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와룡대(개성 동북쪽 16㎞)－대원리(개성 동북쪽 6㎞)－고두산리(개성 동쪽 6㎞)－사천 하구를 연하는 선을 전투지경선으로 부여

<표 1-9> 북한군 제1군단 축선별 전투 편성[50]

| 구분 | 옹진/연안축선 (조공) | 개성 축선 (조공) | 문산 축선 | 동두천 축선 | 포천 축선 | 제2제대 |
|---|---|---|---|---|---|---|
| 주요 부대 | 38경비 제3여단 (7개 대대) | 제6사단(-1) | 제1사단 | 제4사단 | 제3사단 | 제13사단<br>제15사단 |
| 배속 | • 제6사단 1연대<br>• 치안대대 | – | – | – | – | – |
| 직접 지원 | – | 17포병연대<br>제2대대 | – | 17포병연대<br>제1대대 | 제17포병연대<br>제3대대 | – |
| 후속 | – | - | 203전차연대<br>(-1) | 203전차연대<br>제3대대 | 제105전차여단<br>제107·109전차연대 | |

받았다. 제1보병사단은 제6보병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354고지(고왕산)-주월리(문산 동북쪽 17㎞)-금곡리(문산 동북쪽 10㎞)-가좌미 고개(문산 동남쪽 8㎞)-신기리(서울 북쪽 3㎞) 선을 연하는 선을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 제4보병사단은 제1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부곡동(신망리 남동쪽 5㎞)-종현산(신망리 동남쪽 14㎞)-535고지(칠봉산, 포천 서북쪽 11㎞)-금오리(의정부 동북쪽 3㎞)를 연하는 선을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 제3보병사단은 제4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도평리(신망리 동남쪽 28㎞)-628고지(포천 동북쪽 18㎞, 사직리 부근)-운악산(936m, 포천 동쪽 10㎞)-수택리(서울 동쪽 15㎞, 현 구리시 수택동)를 연하는 선을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51] 또한 이 선은 북한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이기도 하다(<표 1-10> 참조).

특히 군단은 제1단계 작전의 최대 목표인 서울 점령을 위해 제1·제4·제3보병사단을 서울의 서부·북부·동부 등 3개 축선에서 공격하도록 하고, 이들 주공 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정면을 타 사단에 비해 협소한 20㎞ 정면을 부여하였다.

또한 군단은 사단별로 일일 진출 목표를 설정하여 작전부대의 진출을 통제하였다. 군단이 설정한 1일차 진출선은 38도선 남쪽 23~26㎞로서 국군 전방사단의

<표 1-10> 제1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구 분 | | 우측 경계선 | 전투정면 (㎞) | 국 군 방어지역 |
|---|---|---|---|---|
| 제1군단 | 제3경비여단 | 서해안-예성강 | 115㎞ | 제17연대 |
| | 제6보병사단 (-) | 와룡대(개성 동북쪽 16㎞)-대원리(개성 동북쪽 6㎞)-고두산리(개성 동쪽 6㎞)-사천 하구 | 25㎞ | 제1사단 제12연대 |
| | 제1보병사단 | 354고지(고왕산)-주월리(문산 동북쪽 17㎞)-금곡리(문산 동북쪽 10㎞)-가좌미 고개(문산 동남쪽 8㎞)-신기리(서울 북쪽 3㎞) | 21㎞ | 제1사단 제13연대 |
| | 제4보병사단 | 부곡동(신망리 남동쪽 5㎞)-종현산(신망리 동남쪽 14㎞)-535고지(칠봉산, 포천 서북쪽 11㎞)-금오리(의정부 동북쪽 3㎞)를 연하는 선 | 20㎞ | 제7사단 제1연대 |
| | 제3보병사단 | 도평리(신망리 동남쪽 28㎞)-628고지(포천 동북쪽 18㎞, 사직리 부근)-운악산(936m, 포천 동쪽 10㎞)-수택리(서울 동쪽 15㎞, 현 구리시 수택동)를 연하는 선 | 20㎞ | 제7사단 제1연대 |

예비연대가 위치한 지역이었다. 2일차 진출선은 계속 서울방향으로 남진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교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 2) 예하부대 부대 운용

#### (1) 제6사단(개성-김포 축선) 작전계획

사단은 개성-영정리 방면으로 공격한 후, 첫째 날 한강을 도하하여 국군 주력부대들이 서울 서남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사단 주력은 영등포로 공격을 확대하고, 사단의 일부부대로 인천을 점령하도록 하였다.[52] 사단의 최근 임무계선은 개성 남쪽 8㎞인 강리-고두산리까지이고, 차후임무계선은 개성 남쪽 14㎞인 고척리-대룡리를 연하는 선까지이다. 사단은 1일차 진출 목표인 개성 일대를 장악한 후, 한강을 도하하도록 하였다. 2일차에는 통진-백선현을 연하는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후,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영등포로 진출하는

<표 1－11> 제6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공격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일부 한강도하 교두보 확보, 김포－영등포선으로 진출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br>• 공격 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일부 한강도하 교두보 확보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br>• 제1제대<br>－ 15연대 : 1개 포병대대, 자주포 포대, 전차중대(-1)<br>－ 13연대(-1) : 1개 포병대대, 자주포 포대, 전차소대<br>• 제2제대 : 제13연대 제3대대, 사단 교육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개성 남쪽 8㎞ 강리－고두산리 점령<br>• 차후임무 : 개성 남쪽 14㎞ 고척리－대룡리 점령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개성반도 장악, 일부 한강 도하<br>• 2일차 목표 : 통진－백석현－영등포 진출 |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제3경비여단에 배속된 1개 보병연대를 제외하고, 최초 2개 연대(-1)로 병진 공격하도록 편성되었다. 제1제대로는 제15・제13연대(-1) 및 1개 포병대대와 1개 자주포 포대를 두었고, 제2제대로는 제13연대 3대대 및 사단 교육대대를 두었다(<표 1－11> 참조).

### (2) 제1사단(고랑포－문산－서울 서부 축선) 작전계획

제1사단은 문산－금촌－서울 서북쪽 축선으로 주력을 투입하고, 제4사단과 협조하여 서울 서부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제1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어룡리－장단간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차후임무계선은 문산 남쪽 4㎞인 사창동－이천리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53]

사단의 1일차 진출 목표는 문산 남쪽 10㎞인 성동리－신산리까지 진출하는 것이었고, 2일차 진출목표는 한강북쪽 강변을 따라 공격한 후, 서울 서북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고, 1개 연대를 제2제대로 두었다.

<표 1－12> 제1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공격개시 당일 고랑포－장단－문산 축선을 돌파하여,<br>• 제203전차연대와 협조하여 문산에서 서울 서측으로 진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를 예비<br>• 제1제대<br>－ 3연대(주공) : 1개 전차대대(-1), 자주포 대대(-), 공병중대<br>－ 2연대(조공) : 1개 전차중대, 자주포 포대, 공병중대<br>• 제2제대 : 제14연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어룡리－장단선(38선이남 5～8㎞)으로 진출<br>• 차후임무 : 문산 남쪽 4㎞인 파주지역으로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문산 남쪽 10㎞인 성동리－신산리선으로 진출<br>• 2일차 목표 : 한강변을 따라 공격 서울 서북 점령 |

사단의 제1제대로는 주공인 3연대에 1개 전차대대(-1), 1개 자주포대대(-1), 1개 공병중대를 두었고, 조공연대인 제2연대에는 1개 전차중대·1개 자주포포대, 1개 공병중대(-1)를 두었다. 제2제대인 제14연대는 주공인 제3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표 1－12> 참조).

### (3) 제4사단(동두천－의정부 축선) 작전계획

제4사단은 신망리－의정부－서울북부 지역으로 주력을 투입하여 공격하고, 제1사단과 제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제4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마지리－초성리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계선은 오현리(의정부 북쪽 15㎞)－하패리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사단의 1일차 진출목표는 마장리－마전리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2일차에는 계속하여 서울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54]

<표 1－13> 제4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신망리－의정부－서울북부 축선에서 공격,<br>• 의정부 점령 후 제1·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 서울 점령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br>－ 16연대(주공) : 사단포병연대(-1), 2개 전차중대, 공병대대(-1)<br>－ 18연대(조공) : 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대대, 공병 1개 중대<br>• 제2제대(5연대)<br>－ 연대(-1)는 16연대(주공연대) 후속, 2대대는 18연대 후속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마지리－장현리－초성리선을 점령<br>• 차후임무 : 오현리(의정부 북쪽 16㎞)－하패리로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마장리－-마전리(의정부 동남쪽 9㎞) 점령<br>• 2일차 목표 : 서울방향으로 공격 전개 |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고, 1개 연대를 제2제대로 두었다. 사단의 제1제대로는 주공인 제16연대에 사단포병연대(-1), 2개 전차중대, 공병대대(-1)를 두었고, 조공인 제18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대대, 1개 공병중대를 두었다. 사단의 제2제대인 5연대는 연대(-1)가 제16연대를 후속하고, 제2대대는 18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표 1－13> 참조).

### (4) 제3사단(포천－의정부 축선) 작전계획

제3사단은 후포－서파－퇴계원－서울 동부 축선을 따라 진격하고,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 동부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계류리－유동리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계선은 의정부 북쪽의 마산리－서파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55]

사단의 1일차 진출목표는 무봉리－건단리까지 진출하는 것이었고, 2일차 진출목표는 서남방면으로 진격하여 서울 동북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고, 1개 연대를 제2제대로 두었다.

<표 1－14> 제3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일동－서파－퇴계원－서울 동부 축선으로 진격,<br>• 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 동부지역 점령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br>－ 7연대(주공) : 1개 자주포대대(-1), 1개 전차중대, 기관총대대(-1)<br>－ 9연대(조공) : 2개 전차중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기관총중대<br>• 제2제대 : 8연대<br>－ 연대(-1)는 7연대 후속, 1대대는 사단 우측 엄호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계류리－기지리－유동리 진출<br>• 차후임무 : 장승거리－마산리－서파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무봉리(의정부 동북쪽 9㎞)－마명리－검단리 진출<br>• 2일차 목표 : 서남방면 진격, 서울 동북지역 점령 |

사단의 제1제대에는 주공인 7연대에 1개 자주포대대(-1), 1개 전차중대, 기관총대대(-1)를 두었고, 조공인 제9연대에는 2개 전차중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기관총중대를 두었다. 사단 제2제대인 제8연대는 연대(-1)가 제7연대를 후속하고, 제8연대 제1대대는 사단 우측지역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표 1－14> 참조).

### (5) 제105전차 여단(고속기동부대) 작전계획

제105전차여단은 전쟁개시 둘째 날 아침부터 의정부 지역의 돌파에 투입된 후 공격을 전개하여 서울 동측으로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차여단은 서울 공격에 가담한 제1・제4・제3사단과 개성 지역에서 공격하는 제6사단에 38도선 돌파를 위해 사단별로 1～2개 전차중대를 배속해 준 반면, 여단(-) 주력은 전선 돌파 후 연대별로 3개 축선에서 투입되어 한강 교량을 조기에 점령함으로써 국군 주력의 퇴로 차단에 기여하도록 하였다.[56]

<표 1－15> 제105전차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여단은 전쟁개시 둘째 날 아침에 의정부 지역 돌파에 투입,<br>• 서울 동측에서 서울로 진입한 후,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기 한강 교량 점령 |
| 부대 운용 | • 여단은 서울 공격에 가담한 제1·4·3사단 및 개성에 투입된 제6사단에 최초 38도선 돌파를 위해 사단별로 1~2개 전차중대를 배속 운용<br>• 여단(-)은 전선 돌파 후 연대별로 3개 축선에 투입되어 서울 진입 후,<br>• 한강 교량을 점령함으로써 국군 주력의 퇴로 차단 임무 |
| | ○ 서울을 직접 공격하는 제1·제3·제4사단 지역에 투입되어 공격<br>• 제107전차연대 : 3사단 주공연대(7연대) 후속, 포천－의정부－서울 동북쪽<br>• 제109전차연대 : 3사단 조공연대(9연대) 후속, 일동－서파－서울 동쪽<br>• 제203전차연대(-1) : 1사단 주공연대(3연대) 후속, 개성－문산－서울 서쪽 |

각 전차연대의 기동로는 제107전차연대가 제3사단 주공연대인 제7보병연대를 후속하다가, 포천－의정부－서울 동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제109전차연대는 3사단 조공연대인 제9보병연대를 후속하다가, 일동－서파－서울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제203전차연대(-1)는 제1사단 주공연대인 제3보병연대를 후속하다가, 개성－문산－서울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표 1－15> 참조).[57]

### (6) 제3경비여단(서해안 축선 공격)의 작전계획

제3경비여단은 옹진·연안지역의 국군 방어지대를 돌파하고 그 일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경비여단의 최근임무는 옹진반도에서는 옹진 북쪽 4㎞ 지점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연안지역에서는 연안 북쪽 5㎞ 지점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차후임무계선은 옹진－강령－연안선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여단의 1일차 진출 목표는 옹진－강령－연안 남쪽 4㎞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고, 2일차 진출목표 는 옹진반도 및 연안지역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비여단은 제6사단 제1연대와 내무성 소속의 치안대대를 배속 받아 여단 및 배속부대의 모든 부대를 주요 도로를 따라 6개 지역에서 최초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이었다.[58]

<표 1－16> 제3경비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여단은 공격개시 당일 옹진－연안지역을 6개 방향에서 각개돌파로 진출, 이때 1연대가 강령으로 진출, 아17연대 진지를 양분<br>•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를 점령하고 이후 점령임무 수행 |
| 부대 운용 | ○ 최초 여단 예하 7개 대대와 제1연대가 병진공격<br>• 제1제대: 제1경비여단 제1, 2, 3, 4, 5, 6, 내무성 치안대대, 제6사단 제1연대<br>• 제2제대: 제1경비여단 제7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옹진북쪽 4㎞, 연안북쪽 5㎞ 점령<br>• 차후임무: 옹진, 강령, 청단, 연안, 배천 점령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옹진, 연안 남쪽 4㎞ 지점 진출<br>• 2일차 목표: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 점령 |

여단 예하의 제5·제6보병대대는 태탄도로－구석동 지역에서, 제2·제4보병대대는 옹진방면의 사동－국사봉 지역에서, 제6사단 제1연대는 작산－작산동－금병동 지역에서, 내무성 소속의 치안대대는 노동리－신릉동－연안 지역에서, 제3보병대대는 연안방면에서, 제1보병대대는 배천 지역에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표 1－16> 참조).

### (7) 제2제대의 작전계획

군단 제2제대는 제13사단과 제15사단의 2개 사단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단에 대한 임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사단 중 제13사단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 한 후인 6월 30일 서울에 투입되어 서울 점령 및 위수임무를 수행하였고, 제15사단은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후 홍천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되어 중부지역인 음성방면으로 진출하였음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 3. 제2군단의 작전기도

### 1) 군단장 작전의도

군단은 제1단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군단 정면의 국군 2개 보병사단을 격멸하고, 이후 총참모부가 제시한 작전목표인 서울을 우회 포위하기 위해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전쟁개시 2일차에 홍천에서 투입하여 수원으로 진출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퇴로 및 후방사단의 전방전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후 군단은 제1군단과 협조하에 총참모부가 제시한 제1단계 작전목표인 수원－원주－삼척선을 점령하여 제1단계 작전에 기여한다는 개념하에 부대를 편성하였다.[59]

군단장은 군단에 배속된 3개 사단, 1개 모터사이클연대, 1개 경비여단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군단의 제1제대로는 제2·제12보병사단과 제1경비여단을 두었고, 제2제대로는 제5보병사단을 두었다. 군단장은 서울을 우회 기동으로 포위하기 위해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고속기동부대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결국 군단장은 1단계 작전을 통해 정면에 배치된 국군 2개 보병사단을 격멸하고 원주－삼척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국군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2단계 2작전을 위한 전투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 2) 부대 운용 및 전투편성

북한군 제2군단장 김광협(金光俠) 소장은 총참모부의 제1단계 작전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인제－홍천 축선에 주공을 두고, 이 지역에 고속기동부대를 2일차에 투입하여 수원이남에서 수도 서울을 포위하여 한강이남으로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국군의 후방사단 증원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춘천－가평지역에 1개 사단을 투입하여 제1군단의 작전을 우측방에서 지원하고, 동해안에서는 특수부대인 제766유격부대와 제945육전대를 국군 후방지역의 정동진과 임원진 해안으로 상륙시켜 이 지역에 배치된 국군 제8사단의 퇴

로를 차단하고, 38도선에서 남진하는 제1경비여단과 함께 국군의 주력을 남북에서 협공으로 격멸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백두대간인 태백산맥 이서(以西) 지역에서는 경보병 4개 대대를 산악침투부대로 조기에 투입하여 대관령방향으로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강릉지역으로 증원되는 국군 부대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단에서는 최초 3개 축선에서 제1제대로 3개 보병사단 및 1개 경비여단을 투입하여 국군의 방어체계를 붕괴시킨 후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투입하여 조기에 수원이남을 점령하여 총참모부의 제1단계 작전목표에 기여하도록 부대를 편성하였다. 제1제대로는 제2사단과 제12사단, 그리고 제1경비여단이 있었고, 제2제대로는 제5사단(-1)이 있었다. 그리고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해안상륙부대인 해군 소속의 제945육전대와 육군 소속의 제766유격부대가 있었다.[60] 이를 정리하면 <표 1-17>과 같다.

또한 군단에서는 최초 공격부대에 주·조공별로 전투지대를 달리하여 부여하였고, 임무 및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투지경선을 부여하였다. 군단에서는 주공 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정면을 타 사단에 비해 협소한 20㎞ 정면을 부여하였다. 이들 군단 예하의 사단 및 경비여단의 전투지경선을 보면, 제2보병사단은 제1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사명산(화천 동남쪽 17㎞)-청평리(춘천 동북쪽 11㎞)-춘천-발산리(가평 동남쪽 13㎞)을 연하는 선을 전투

<표 1-17> 북한군 제2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 구 분 | 춘천 축선<br>(조공) | 홍천 축선<br>(주공) | 동해안 축선<br>(조공) | 예 비 |
|---|---|---|---|---|
| 주요부대 | 제2사단 | 제12사단 | 38경비 제1여단<br>제766·549부대 | 제5사단(-1) |
| 배 속 | - | • 제5사단포병연대<br>• 제603모터사이클포병 | 제5사단 10연대 | - |
| 후 속 | - | • 제603모터사이클연대<br>• 제5사단(-1) | - | - |

<표 1－18> 제2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구 분 | | 우측 경계선 | 전투정면 (㎞) | 국 군 방어지역 |
|---|---|---|---|---|
| 제2군단 | 제2보병사단 | 사명산(화천 동남쪽 17㎞)－청평리(춘천 동북쪽 11㎞)－춘천－발산리(가평 동남쪽 13㎞) | 25㎞ | 제6사단 제7연대 |
| | 제12보병사단 | 인제－부소현(인제 서남쪽 8㎞)－홍천 | 24㎞ | 제6사단 제2연대 |
| | 제1경비여단 | 동해 연안 | 60㎞ | 제8사단 제10연대 |

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 주공인 제12보병사단은 제2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인제－부소현(인제 서남쪽 8㎞)－홍천을 연하는 선을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 제1경비여단은 제12사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동해안까지를 전투지경선으로 부여받았다.[61] 이를 정리하면 <표 1－18>과 같다.

또한 군단은 사단별로 일일 진출 목표를 설정하여 작전부대의 진출을 통제하였다. 군단이 설정한 1일차 진출선은 38도선 남쪽 23~35㎞로서 국군 전방사단의 예비연대가 위치한 지역이었다. 2일차에는 고속기동부대의 수원이남 진출을 보장하고, 초월부대의 원주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군의 전선 중앙을 차단하여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 2) 예하부대 부대 운용

#### (1) 제12사단(인제－홍천 축선 공격) 작전계획

제12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서 크게 두 가지 임무가 부여되었다. 첫째는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간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수원 방면으로 진격하여 국군의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사단 최근임무계선은 청평리－내평리－신풍리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계

선은 하천전리(춘천 동북 7㎞)－가리산(춘천 동쪽 21㎞)－역내리(홍천 북동 20㎞)를 연하는 선까지 점령하는 것이었다. 사단의 1일차 진출목표는 석사리(춘천 동남 2㎞)－대룡산－내삼포리(홍천 동북 9㎞)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62]

또한 사단은 2일차에 원주－여주간 도로를 차단하여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홍천－여주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1개 제대 전투대형으로 편성하여 3개 연대를 동시에 병진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31연대는 추곡리－대곡리 방향에서, 제30연대는 계명산－하수내리 방향에서, 제32연대는 응봉산－부소현 방향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단에는 제5보병사단의 포병이 배속되어 사단 포병화력을 크게 증강시켜 주었다.

<표 1－19> 제12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사단은 주공으로서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격,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간 간선도로를 차단하고 모터사이클연대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방면으로 진격, 국군퇴로 및 증원 차단 |
| 부대 운용 | ○ 최초 1개 제대 전투대형 구성, 3개 연대 병진공격<br>• 보병연대 공격대형<br>－ 31연대 : 추곡리－대곡리 선 공격<br>－ 30연대 : 계명산－하수내리 선 공격<br>－ 32연대(주공) : 응봉산－부소현 선 공격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청평리－내평리－창막동－신풍리 진출<br>• 차후임무 : 하천전리－품걸리－가리산－역내리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석사리(춘천 동남쪽 2㎞)－대룡산－수철대－내삼포리(홍천 동북쪽 9㎞) 진출<br>• 2일차 목표 : 원주－여주 간선도로 차단 및 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 엄호, 홍천－여주방면 진격 |

### (2) 제603모터사이클연대(고속기동부대) 작전계획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전쟁개시 둘째 날 홍천 남쪽과 서남쪽 지역에서 투입되어 양평－이천－금량장(용인)리 도로를 따라 신속히 진격하여 서울방면에서 남쪽으로 퇴각하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수원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수원을 점령한 한 후에는 국군의 주력 및 병참선을 차단하도록 하였다.[63]

모터사이클연대는 제12보병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이를 후속하여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국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과 합류하여 국군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특히 모터사이클연대는 전쟁 2일차에 홍천 5㎞ 부근에서 투입하도록 사전 계획되었다.

<표 1－20>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연대는 고속종심기동부대로서 전쟁개시 2일차에 홍천지역에서 투입되어 이천－수원 방면으로 진격, 국군 퇴로 차단 |
| 부대 운용 | 연대는 제12사단이 방어선을 돌파하면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국군 후방으로 진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격부대와 합류 및 국군 병참선 마비 및 국군의 퇴로차단 |
| | • 전쟁 2일차 홍천 북쪽 5㎞ 인근에서 전투투입<br>• 양평－이천－김량장리－수원 축선으로 진격<br>• 국군 퇴로 차단하고 수원을 점령 |

### (3) 제2사단(춘천－가평－서울 축선 공격) 작전계획

군단 조공인 제2사단은 춘천－가평－송현(성남) 방면에서 공격하여 남동부로부터 국군 증원 병력을 차단하면서 주공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춘천 북쪽 10㎞ 직교－청평동을 연하는 선까지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계선은 가평 동북 7㎞ 석장리－춘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사단의 1일차 진출 목표는 가평을 점령한 후고, 2일차에 가평－서울

<표 1-21> 제2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사단은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을 공격, 적 예비전력 접근차단 및 주력의 좌측방 엄호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로 병진 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 : 6연대(주공) : 2개 포병대대, 2개 독립대전차중대<br>4연대(조공) : 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공병중대<br>• 제2제대 : 17연대, 사단 교육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38선 남쪽 3㎞ 직교-세밀고개-청평동<br>• 차후임무 : 38선 남쪽 14㎞ 석장리-계관촌-춘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춘천방면의 적 병력을 격파 후 가평 점령<br>• 2일차 목표 : 가평-서울간 도로를 따라 진격, 덕소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

축선으로 진격하여 덕소리에서 도하하여 송현리를 점령하는 것이었다.[64]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고 1개 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로는 주공연대인 제6연대에 2개 포병대대, 2개 독립대전차중대를 두었고, 조공연대인 제4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공병중대를 두었다. 제2제대에는 제17연대 및 사단 교육대대를 두었고, 제17연대는 주공인 제6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

### (4) 제1경비여단(동해안 방면 공격)의 작전계획

여단은 동해연안의 도로와 소로를 따라 진격하여 강릉을 점령한 후 점령 및 위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경비여단은 최초 양양-강릉 방면을 공격하고, 공격개시 당일 강릉 남쪽 10㎞ 지점에 상륙하는 부대와 합류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원일전리(양양 남쪽 11㎞)-동산리을 연하는 선까지

<표 1-22> 제1경비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작전 개념 | 여단은 동해연안의 도로/소로 따라 진격, 강릉 점령 후 위수 임무 수행 |
|---|---|
| 부대 운용 | ○ 여단은 제5사단 예하 제10연대, 포병대대 및 자주포포대 배속받아 여단 7개 보병대대를 제1제대로, 제10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 후, 4개 방향에서 최초 38도선 돌파에 투입<br>• 제1제대<br>– 제1·2·3보병대대 : 귀둔리–공수전리–내현리 지역<br>– 제6보병대대 : 원대리–갑둔리 지역<br>*산악침투부대로 내린천에서 속사리로 진출 국군 퇴로 및 증원차단 임무<br>– 제4·5보병대대 : 하추리·귀둔리–하남리 지역<br>– 제7보병대대 : 기사문리–주문진<br>• 제2제대(제5사단 제10연대) : 동해연안을 따라 진격 전과 확대 |
| | ○ 최근임무 : 원일전리(양양 남쪽 11㎞), 동산리 점령<br>○ 차후임무 : 양양 동남 482고지, 향동(주문진 서북쪽 9㎞), 지경리(주문진 북서 4㎞)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 : 퇴곡리(강릉 서북 18㎞), 동덕리(주문진 동남쪽 5㎞) 점령, 강릉 서북쪽에서 육전대와 합류 |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계선은 양양 동남 482고지–향동(주문진 서북쪽 9㎞)–지경리(주문진 북서 4㎞)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경비여단의 1일차 진출목표는 퇴곡리(강릉 서북 18㎞)–동덕리(주문진 동남 5㎞)을 연하는 선까지 점령하여 강릉 서북쪽에서 제945육전대와 합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단은 예하 7개 보병대대 및 배속 받은 제5사단 제10연대와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를 제1제대로, 제5보병사단 제10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한 후, 4개 방향에서 최초 38도선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제1·제2·제3대대는 귀둔리–공수전리–내현리 지역에서, 제6보병대대는 원대리–갑둔리 지역에서, 제4·제5보병대대는 하추리–귀둔리–하남리 지역에서, 제7보병대대는 기사문리–주문진 지역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는 동해안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전과 확대임무를 부여받았다.[65]

특히 제1·제2·제3·제4대대는 산악침투부대로 운용되어 강원도 현리 내린천

으로부터 서울－강릉 간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속사리 지역으로 신속히 진출시켜 국군 제8사단의 원주 지역으로의 퇴로 및 제8사단의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제2제대인 제5사단(홍천－원주 방면 공격)의 작전계획

제5사단(-)은 군단의 제2제대로서 제12보병사단을 후속하다가 홍천지역에서 투입된 후, 횡성－원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66] 따라서 사단은 최초 군단의 제2제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군단의 지시에 의거 작전 1단계 목표인 수원－원주－삼척선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표 1－23> 제5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사단은 제2제대로서 제12사단 후속 후, 홍천에서 횡성－원주 방면으로 전과를 확대 및 국군 증원 차단 |
| 부대 운용 | • 제12사단 후속, 홍천지역에서 전투에 투입<br>• 홍천－횡성－원주 방면으로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br>• 원주－삼척선에 진출, 국군 증원 차단 |

# 제 3 절 북한군의 공격준비태세 돌입[67]

## 1. 38도선으로 부대전개 및 전투 배치

북한군은 1950년 3월부터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이어 5월 중순부터는 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부대정비와 이동을 개시하였다. 모란봉극장의 회의(1950. 5. 16)가 개최된 직후 북한의 민족보위성과 소련군사고문관들은 전쟁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에서는 매일 고위 군 수뇌부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민족보위상 최용건, 북한군총참모장 강건 등의 사무실과 중요한 국, 과, 그리고 소련군사고문단 사무실에는 외인 출입금지라는 표식이 붙게 되었다. 전쟁 개시 2주전인 6월 10일 민족보위성은 전방 사단장과 여단장을 평양으로 긴급 소집하여 비밀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총참모장 강건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68]

이에 따라 신편 양개 군단의 통제하에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이 실시되었다. 북한군 사단은 1950년 6월 11일 경부터 공격출발진지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지도부는 공격부대의 전개로 인한 전쟁기도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가 약 2주간에 걸친 대기동 연습을 실시한다고 부대전개를 위장하였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쪽 10~15㎞ 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주둔지가 38도선 가까운 부대는 도보로, 먼 부대는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사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였다.[69] 그리고 지원부대도 피(被)지원부대 전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제766부대와 제945부대는 해상침투 준비를 하였다. 이동은 6월 23일까지 명령대로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북한군은 작전계획대로 2개 군단으로 재편성이 완료되고 공격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북한군의 배치상황을 보면, 서부지역의 제6사단은 사리원(沙里院) 지역에서 기차로 이동, 1950년 6월 18일에는 금천 동남쪽 6㎞ 750고지, 국사봉, 개성동북 18㎞ 와룡대(현 장풍)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서해 연안에서 예성강까지를 경비하고 있던 제3경비여단 지역에 투입되었다. 제1보병사단은 6월 17일 구화리 북쪽 4㎞ 고야동, 개성동북 구화리에 집결하였다.[70]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6월 19일 평강을 출발하여 운천리로 이동하여 6월 23일 야미리, 산정리 지역에 재배치되었다. 제4사단은 6월 22일 진남포(鎭南浦)를 출발하여 평양과 남천을 거쳐 연천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사단은 6월 21일 돌고개(석현), 선곡리, 신망리 지역에 집결하였다. 최강부대로 알려진 제105전차여단은 이미 109전차연대가 평양에서 남천으로, 제203전차연대는 철원으로 각각 이동하여 동 6월 22일에는 38선 접경 깊숙이 진출하고 있었다. 이로써 중부지역과 의정부 정면을 주공방향으로 계획한 북한군은 전투훈련과 장비가 충분한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내에서도 최강부대인 제203전차연대를 이 방면에 배치하였다.

중동부지역의 제12사단은 1950년 4월 15일 중공군 제20사단과 중국각처에 산재하고 있던 중공군출신 한인 약 1만 명을 모집하여 극비리에 북한으로 이동한 후 원산에서 개편된 부대이다. 동 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 동부 산악지역인 인제 서쪽 14㎞ 대목리, 선수리 지역에 1개 포병연대를, 그리고 사단 예하의 나머지 부대를 인제와 고사리에 집결시켰다. 제2사단은 함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동하였고, 6월 17일 춘천 서북 추곡리, 화천 북서 장촌리, 춘천 북서 원천리 등지로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에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표 1-24>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 전개(1950. 6)[71]

| 부 대 | 주둔지 | 도착지 | 부 대 | 주둔지 | 도착지 |
|---|---|---|---|---|---|
| 제1군단 | 금천 | | 제2군단 | 화천 | |
| 제6사단 | 사리원 | 계정 | 제2사단 | 원산 | 화천 |
| 제14연대 | 남천점 | 해주·죽천 | 제12사단 | 원산 | 양구 |
| 제1사단 | 남포 | 구화리 | 제5사단 | 나남 | 양양 |
| 제4사단 | 평강 | 연천 | 제15사단 | 회령 | 화천 |
| 제3사단 | 신의주 | 운천 | 독립전차연대 | 나남 | 인제 |
| 제13사단 | 평양 | 금천 | 제12MTSP연대 | 길주 | 양양 |
| 제105전차연대 | 평양 | 연천 | 제766부대 | 회령 | 원산·간성 |
| 제203전차연대 | 평양 | 남천 | 제945부대 | 갑산 | 성진 |
| 제10사단은 군예비로서 숙천에 주둔 | | | | | |

위하여 투입되었다.[72]

한편 회령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대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동해안지역 간성으로 이동하였다. 이 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출신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주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강릉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또한 제6사단 제1연대가 사리원에서 개성 정면의 계정으로 이동하고, 제6사단(-)은 해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옹진 정면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0, 제13, 제15의 3개 예비사단은 후방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 2. 정찰명령 및 전투명령 하달

북한 민족보위성은 남침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계획대로 진전되자, 소련군사고문관들이 러시아로 작성한 전투명령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총참모부에 하달하였

다. 총참모부는 1950년 6월 18일 각 사단장 앞으로 '정찰명령 제1호'(Reconnaissance No. 1)를 하달하였는데, 이는 공격 직전 국군의 주력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찰행동을 개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명령은 공격부대 정면의 국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이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이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73]

정찰명령에 이어 부대기동이 완료되자, 소련군사고문단은 6월 22일 민족보위성에 명하여 전투명령 제1호를 전방 사단장에게 하달하게 하고, 1950년 6월 23일 12 : 00시까지 그들이 이른바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총참모부는 38도선의 공격대기지점에 전개된 공격부대에게 6월 22일 전투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74]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예하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4사단의 전투명령 제1호는 사단이 서울 공격의 주공부대로서 1950년 6월 23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격을 지원할 각 부대에 대한 임무도 상세히 기술되어 공격작전에 필요한 신호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75]

이렇듯 북한은 정찰명령과 전투명령을 하달한 상황에서 6월 21일 최종적으로 스탈린에게 "6월 25일 전 전선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알렸고, 스탈린도 이날 "김일성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76]

스탈린은 공격직전 주북한 소련대사관의 암호전문도 기밀유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일체의 암호전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군에 배속되어 남침준비에 참여했던 소련군사고문단 약 150여 명도 김일성의 끈질긴 잔류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격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후방으로 잠적하였다.[77]

## 3. 북한군의 공격준비태세 분석

북한군은 국군이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에 따라 방어형 군대를 지향하고 있을 때 남침을 위해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공의 동의 및 협조하에 전쟁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북한은 남침계획단계에서부터 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가며 완벽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군은 '인민해방전쟁' 완수를 위해 3단계 작전에 의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38선에서 수원－원주－삼척 선에 이르는 종심 90㎞를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제1단계 진출 선에서 전주－대구－포항 선에 이르는 종심 180㎞를 14일만에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제3단계작전은 제2단계 진출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종심 80㎞를 10여일 만에 완수한 후 한 달 만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제1단계 작전간 북한군은 작전 목표인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이북의 국군 주력을 격멸하기 위해 최상의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군은 2차에 거친 양익포위(한강이북과 한강이남)와 고속기동부대(제105전차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통해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2중·3중으로 차단하여 제1단계 작전에서 승세를 완전히 굳힌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강이북의 국군 전선을 양단시킬 차단부대를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는 현지 지형에 밝은 제1·3경비여단에 1개 보병연대를 각각 배속시켜 옹진반도와 강릉지역을 점령한 후 그 곳에서 점령 및 위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병력 운용 면에서도 공격제대를 2개 제대 및 전략예비로 편성하고, 작전목표 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속기동부대, 산악침투부대, 차단부대, 상륙부대 등을 작전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총 10개 사단, 2개 경비여단, 2개 고속기동부대 중 제1제대로 6개 사단 및 2개 경비여단을 두었고, 제2제대로 3개 사단을 두었다. 고속기동부대로는 제1군단에서 운용되는 제105전

차여단과 제2군단지역에서 운용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두었다. 그리고 국군의 전선을 동서로 분리하는 차단부대로는 제2군단의 제2제대로 편성된 제5사단에게 두었다. 해안 상륙부대로는 제766유격부대와 해군 육전대인 제945육전대를 두었다.

셋째, 작전통제 면에서도 북한군 총참모부는 계획단계에서 주공지역에 운용되는 부대에는 비교적 협소한 정면인 20㎞를 부여하였고, 조공부대에 대해서는 보통 40㎞ 이상의 광정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최초 공격사단 및 여단급 부대에는 최근임무계선과 차후임무계선 및 1일차 진출목표를 부여하여 작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북한군은 계획단계부터 부대를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기까지 사전 치밀한 공격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작성된 남침공격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부대를 38도선으로 전개하고, 공격에 앞서 사단별로 국군의 방어태세를 확인하기 정찰명령을 하달한 후, 최종적으로 전투명령을 하달하여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 전쟁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한 공격계획은 작전목표 측면에서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 격멸”이라는 두 가지로 아주 간명하게 압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울 점령을 위해 제1군단에 의해 한강이북에서 1차 양익포위를 하고,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서로 협조된 공격하에 한강이남에서 다시 한번 2차 양익포위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군을 격멸하기 위해 2일차 고속기동부대를 통해 한강교 조기점령과 수원이남 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2일차에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되는 1개 보병사단이 국군 전선을 동서로 양단하여 국군이 서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 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산악침투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가운데, 7번 국도를 따라 지상군이 북에서 남으로 공격하고, 강릉 남쪽에서 해상으로 상륙한 상륙부대가 남에서 북으로 국군을 협공하여 완전 격멸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전쟁직전 북한군의 전력은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에 비해 월등하

였다. 북한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직전의 총 병력이 19만 8,380명에 달함으로써 국군의 10만 5,752명에 비하여 2 : 1로 우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5>와 같다.

또한 전방방어지역에서의 축선별 피아 병력 비율도 주공방향인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은 1 : 6.7이었고, 개성－문산－서울 축선은 1 : 2.2였다. 조공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은 1 : 3.6이었고, 양양－강릉 축선은 1 : 2.2로 북한군이 훨씬 우세하였다.[78] 특히 화력면에서 북한군은 122㎜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728문의 곡사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105㎜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120㎜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해 국군은 81㎜ 박격포와 60㎜ 박격포를 합하여 총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포의 사거리면에서도 북한군의 포병이 국군의 포병에 비해 훨씬 긴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었다. 국군 105㎜ 곡사포의 사거리가 6,500m인데 비해 북한군의 122㎜ 곡사포는 11,710m, 76㎜ 곡사포는 9,000m, 76㎜ 자주포는 11,260m, 76㎜ 평사포는 13,090m로 국군의 화포에 비해 사거리가 1.5~2배가 넘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최초 진지변화 없이도 국군의 예비대가 위치한 후방 깊숙이까지 포병지원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6>과 같다.

일곱째, 북한군 사단의 전투편성의 특징은 국군의 경(輕) 보병사단에 비해 중(中) 보병사단이라는 것이다. 북한군 사단은 보병 3개 연대에 3개 포병대대를 보유

<표 1－25> 전쟁 직전 피아 병력 비교

(단위 : 명)

| 구 분 | 계 | 육 군 | | | 해 군 | 공 군 |
|---|---|---|---|---|---|---|
| | | 소 계 | 전투 병력 | 지원 및 특수병력 | | |
| 국 군 | 103,827 | 94,974 | • 67,416<br>* 8개 사단(22개 연대) | 27,558 | 6,956 | 1,897 |
| 북한군 | 201,050 | 182,680 | • 120,880<br>* 10개 사단(30개 연대) | 61,820 | 15,570 | 2,800 |

<표 1-26> 피아 각종 화포 제원 비교[79]

| 구 분 | 국 군 | 북 한 군 |
|---|---|---|
| 야 포 | • 105㎜(M-3) 곡사포 : 6,525m | • 122㎜ 곡사포 : 11,710m<br>• 76㎜ 곡사포 : 9,000m<br>• 76㎜ 자주포 : 11,260m<br>• 76㎜ 평사포 : 13,090m |
| 대전차포/<br>무반동총 | • 37㎜ 대전차포 관통력<br>– 457m 거리에서 36㎜<br>– 914m 거리에서 26㎜<br>• 57㎜ 무반동총(유효사거리) : 3,930m<br>• 2.36인치 로켓포<br>– 유효사거리 : 110m<br>– 관통력 : 12.7㎝ | • 45㎜ 대전차포<br>– 최대사거리 : 5㎞<br>– 관통능력 : 500m 거리에서 66㎜ |
| 박 격 포 | • 60㎜ : 3,500m<br>• 81㎜ : 4,737m | • 82㎜ 박격포 : 3,041m<br>• 120㎜ 중박격포 : 5,700m |

하고 있는 포병연대 외에도 보병연대에도 76㎜ 1개 포대가 편제되어 있고, 사단 직할부대로 수송대대, 병기대대, 공병대대, 정찰중대를 보유함으로써 독자적인 통합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었다. 결국 북한군 1개 보병사단의 전투력은 국군 2개 사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북한군의 연대급 이상 간부들은 대부분 중공군 및 조선의용군 출신이거나, 김일성과 함께 하바로스크에서 멀리 떨어진 바크에 위치한 소련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제88특별여단의 출신들이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북한군 사단장급 이상 간부들은 국군의 고급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30대였다. 먼저 제88여단 출신들 중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내각수상 김일성은 38세였고,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50세이며, 총참모장 강건, 공군사령관 왕연, 제2군단장 김광협, 제1사단장 최광, 제2사단장 이청송, 제105전차여단장 유경수, 제13사단장 최용진, 제15사단장 박성철, 제3경비여단장 최현 등은 모두 30대였다. 또한 팔로군 및 조선의용군 출신 간부들도 포병사령관 무정(45세)을 제외하

고, 제1군단장 김웅, 제5사단장 김창덕, 제6사단장 방호산, 제12사단장 전우 등도 모두 30대이었다. 이들 북한군 고급 간부들은 연령이 말해주듯, 대부분 대부대 지휘경험이 없는 소련 및 중공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한 비정규전 부대의 빨치산 출신들이었다.

아홉째, 북한군 지휘부와 소련군사고문단은 전체작전을 신속히 완료하는데 있어 고속기동부대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고속기동부대를 배치하면서 중요 작전, 목표, 지형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한 뒤 보유하고 있던 제105전차여단은 수도 서울로 향하는 회랑지역인 포천－의정부－서울, 일동－서파－퇴계원－서울 축선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자 했다. 이에 그들은 도로사정을 고려하여 제1・제3・제4사단 지역에 제203전차연대와 제107 및 제109전차연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그리고 개성을 공격하는 제6사단지역에는 별도로 1개 독립전차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홍천을 거쳐 수원지역에서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2일차에 홍천에서 투입하고자 하였다.

열째, 제1단계 작전 간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에게 주어진 “둘째 날 아침부터 서울에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라는 임무는 제1단계 작전에서 차후 단계로 중단 없이 넘어가기 위해 국군이 한강교를 파괴하기 전에 이를 신속히 점령한다는 작전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련의 도하작전교리에 대부대가 도하작전을 예견할 경우 전차부대가 기습적으로 적의 교량을 조기에 장악한다는 교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군은 전쟁 직전 치밀한 공격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6월 25일 여명을 기해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

# 주 (註)

* 제2권의 제1장(북한군의 개전초기 작전기도) 내용은 1977년 국방부에서 발간한 6·25전쟁 공간사인 『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7)의 내용을 최근 입수한 공산측 자료 및 노획된 북한 문서에 의해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리·분석하였다. 주요 공산측 자료와 북한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정찰명령서」(북한 인민군총사령부) ; 「인민군 전투명령서」(북한 인민군총사령부) ; 「인민군 정보계획」(북한 인민군총사령부) ; 「북한군 전투서열」(미극동군사령부) ; 「북한군의 역사」(미극동군사령부) ; '남침공격계획(일명 선제타격계획)'(연합통신에서 1992년 입수) ; 『한국에서의 전쟁, 1950-53』(또르쿠노프, 2000년) ;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3권(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2002년) ; 『조국인민해방전사 25-27권』(북한사회과학원, 1968년). 이외에도 유성철(전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이상조(전 북한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증언 등을 참고로 하였다.

1) 1949년부터 1950년 5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일성·스탈린·모택동간의 전쟁모의와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중에서 제6장(북한군의 남침준비)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제2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전쟁 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남침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東京 : ユリア評論社, 1979), pp. 223-224, 245-248.
3)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 5. 12)
4)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 5. 27);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 6. 16)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도서출판 열림, 1997), p. 75. 북한군의 서울 2일차 점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서울 : 군인공제회, 2001), p. 11(이하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로 약칭).
5) 대한민국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6) 대한민국 외무부, 소련자료[2], pp. 27-28; 드미트리 볼코그노프 著, 한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 譯, 『스탈린』(서울 : 세경사, 1993), pp. 372-373; 유성철, 「나의 증언(8)-(9)」, 한국일보, 1990. 11. 9.
7) '선제'라는 용어는 북한이 북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외 위장 및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이 '선제'라면 남한의 북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인 '선제타격계획'을 언급한 것은 소련이나 북한이 남침을 은폐하기 위해 공격명칭까지도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곳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선제타격계획' 대신에 '남침공격계획' 이나 '남침계획' 또는 '선제타격계획(남침공격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 11. 9.
9) Roy E. Appleman, *U. 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GPO, 1986), p. 19 ; 북한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66; 스탈린이 북한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1950. 6. 17).
10) 북한이 '이승만 정권을 지칭'한 표현임.
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 ;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87, p. 4.
12)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5-137; 러시아 국방부 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오비기획, 2002), p. 31.
13)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6-137;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 3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서울: 寶晉齋, 1970), p. 63, p. 112. 북한군의 작전목적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을 통해 정리한 것임.

14) 스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50. 5. 12);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 5. 16).

15)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pp. 367-368.

16)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85.

17) *Khrushchev Remembers*, p. 145.

18) 유성철, 「나의 증언」(10), 한국일보, 1990. 11. 13; 「나의 증언」(2), 한국일보, 1990. 6. 18;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각, 1961), p. 145; 박갑동, 『한국정쟁과 김일성』(서울: 바람과 물결, 1990), pp. 80-84.

19) 사실상 박헌영은 김일성의 기본적인 의도에 맞추려고 하였으나, 남한 상황을 과장한 면이 많이 있었다. 또한 김일성도 박헌영의 발언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남한 내 좌파세력과의 연합을 하기 위함이었다.

2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 83.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서울: 서울신문사, 1977), 145쪽; 육군본부, 『북괴 6·25남침분석』, p. 318; 유성철, 「나의 증언」(10), 한국일보, 1990. 11. 13.

22) 유성철, 「나의 증언」(8), 한국일보, 1990. 11. 9.

23) 이 문서의 원본은 러시아로 작성되었다. 국방군사연구소는 이 원본의 사본과 영문번역본을 소장하고 있다.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 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24)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 107; 유성철, 「나의 증언」(8), 한국일보, 1990. 11. 9;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 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국방군사연구소 소장자료).

25)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6-137.

2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p. 112, p. 116;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5-177;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기 본 한국전쟁』, p. 31.

27) 인민군 정찰명령 끝 쪽 추가사항; 북한 인민군 제2·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남침공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유성철, 「나의 증언」(9), 한국일보, 1990. 11. 1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p. 131.

28) 북한인민군총사령부,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1950. 6. 2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p. 85-86.

29)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침공격계획 수립시 제1단계 작전에서 국군 주력을 완전 격멸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2·3단계 작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대편성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0)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 54.

3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의 6·25남침분석』. p. 112.

32)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 136.

33) 위의 책, pp. 135-177;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기 본 한국전쟁』, p. 31; 북한인민군총사령부,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1950. 6. 20. 이 내용은 앞의 자료에 대한 연구소 내부 토의 후 각군 사관학교 및 각군대학 6·25전쟁사 교수, 그리고 참전 원로 및 학계 교수들 간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이다.

34)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p. 126.

35)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서울: 서문당, 1991), pp. 235-236.

36) 林隱, 『北韓 金日成 王朝秘史: 金日成 正傳』(서울: 한국양서, 1982), pp. 114-120;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pp. 370-387;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20-135.

37) 林隱,『北韓 金日成 王朝秘史 : 金日成 正傳』, pp. 114-120 ; 장준익,『北韓人民軍隊史』, pp. 370-387 ;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20-135.

38) 제105전차여단은 8,800명의 병력과 T-34형 전차 258대, 장갑차 54대, 모터사이클 560대, 트럭 380대 등의 막강한 병력과 장비로 무장되었다. T-34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 육군의 표준 중형 전차로 그 제원은, 중장갑 철판으로 보호된 중량 32톤(완전 탑재시 35톤)이며, 85㎜ 전차포 이외에 7.62㎜ 기관총 2정이 장착, 전차포탄은 55발을 탑재, 전차 엔진 출력은 디젤기관 493마력, 속도는 시간당 30~40마일, 전차승무원 탑승은 5명 등이다.

39) 38경비여단의 정원은 8,312명이었으나, 인원 부족으로 완전보충을 못하고 전쟁 직전 병력은 제1여단이 5,000명, 제3여단과 제7여단은 각각 4,000명을 유지하다가 전쟁 직후 제1여단은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제3여단은 북한군 제9사단(사단장 박효삼), 제7여단은 북한군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으로 증편하여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40) 러시아 국방부 편,『러시아기 본 한국전쟁』, p. 3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3-177. 이 내용은 앞의 자료에 나타난 북한군 부대 배치, 각 사단 및 여단에 대한 임무와 부대 운용, 그리고 적 전술에 입각하여 분석된 내용이다.

41)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 제1집, 2002, pp. 37-38.

42) 「한국에서의 전투행동일지」(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astjrns 139, 목록 133, 문서철 2830)에 의하면 북한 공군은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항공기가 29대였다.

43)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5-177. 이 표는 앞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44) 북한군 제1제대로 편성된 각 사단과 경비여단의 전투정면은 라주바예프에 나타난 전투지경선을 군사지도에 도식한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46-158).

45) 이 전술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군 전술개념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독・소전에서 소련군의 최근임무계선은 3~5㎞였고, 차후임무계선은 6~8㎞였으며, 1일 진출목표는 18~20㎞였다(육군대학,『소련군 공격전술』, 1979, p. 56).

46)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2, p. 11.

47) 위의 책, p. 13

4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51-155.

49)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9-147, pp. 151-155;『라주바예프보고서』 2, pp. 11-12.

5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7-139.

51) 위의 책, p. 141, pp. 146-147, p. 153, p. 155.

52) 위의 책, pp. 146-147.

53) 위의 책, pp. 151-152.

54) 위의 책, p. 138, pp. 153-154.

55) 위의 책, p. 138, pp. 154-155.

56) 위의 책, pp. 137-138.

57)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2, pp. 11-12.

5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9-142.

59) 위의 책, pp. 138-139;『라주바예프보고서』 2, p. 12.

6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보고서』 1, pp. 138-139.

61) 위의 책, pp. 156-157, p. 174.
62) 위의 책, p. 157.
63)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기 본 한국전쟁』, p. 31;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2, p. 12.
64)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 156.
65) 위의 책, pp. 174-175.
66) 위의 책, p. 139.
67) 제3절의 1항과 2항은 내용상 전개상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에서 제6장(북한의 남침준비)을 부분적으로 요약하였다.
68) 외무부, 『소련 외교문서』 제2권, 1994, p. 28.
69)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SN. 792.
70)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 134.
7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 pp. 108-109.
72)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1, p. 135.
73)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되었다(Enemy documents, GHQ FEC, 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Issue No. 6, Copy No. 11, Item 2 200564).
74) 이 명령의 명칭은 노획문서(한글 필사체)에는 '전투명령'으로 되어 있다. 영문 번역에는 'Operation Order'라고 표기하고 있어 '작전명령'으로 번역된다.
75) 총참모부가 하달한 북한군 전투명령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보다 2일 후인 6월 22일에 하달한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한글 필사본)이 1950년 7월 16일 대전부근에서 노획되고, 역시 동일 부로 하달된 제2사단 전투명령이 노획되었다.
76) 김광린 역, 『소련비밀문서로 본 한국전쟁』, pp. 59-60.
77) 외무부,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핀시가 평양대사에게」(1950. 6),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73.
78) Appleman, *South to the Nactong, North to the Yalu,* pp. 11, 15.
79) 합동참모본부, 『韓國戰史』(서울 : 교학사, 1984), p. 327.



# 제 2 장 북한의 전면남침과 대응


| | |
|---|---|
| 제 1 절 | 북한군의 기습공격 |
| 제 2 절 | 국군 지휘부의 조치 |
| 제 3 절 | 정부의 대응과 조치 |
| 제 4 절 | 분석 및 평가 |

# 제 1 절 북한군의 기습공격

## 1. 북한군의 전면 남침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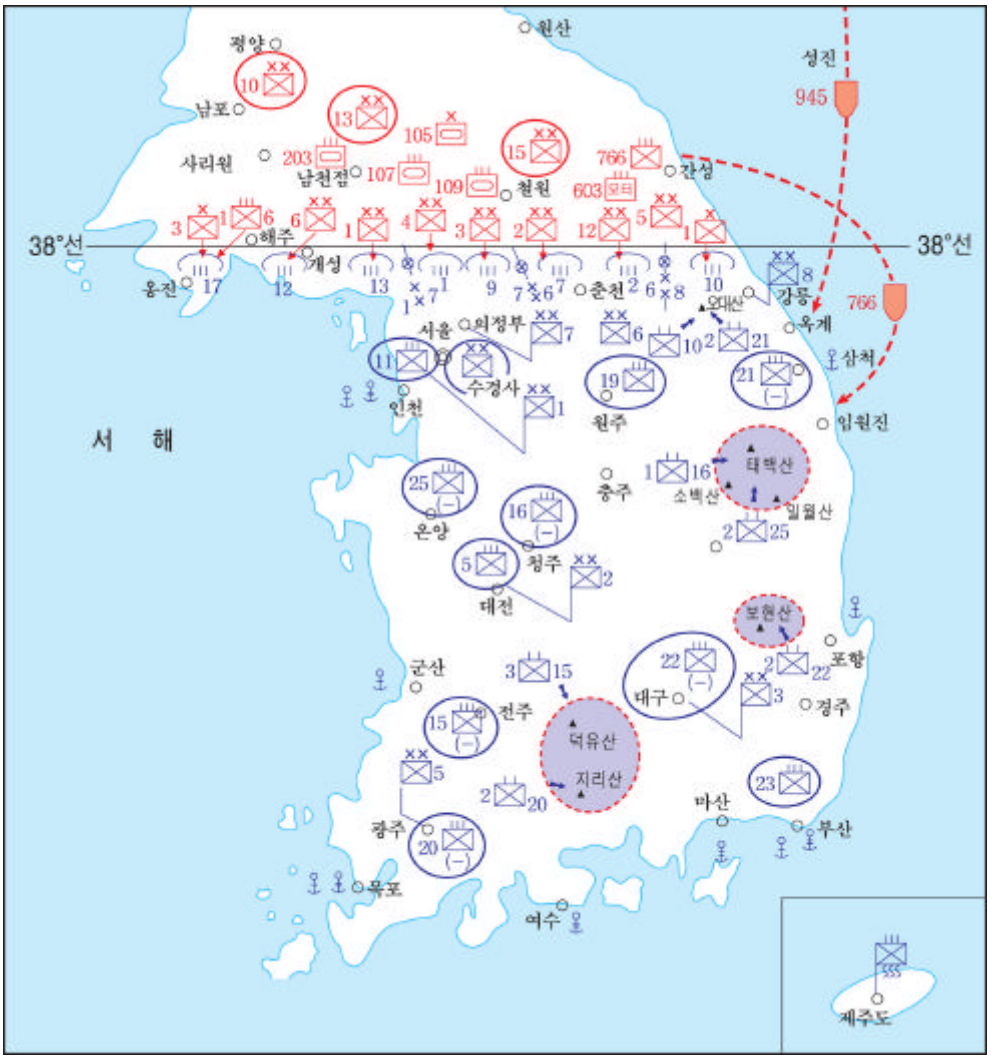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04 : 00를 전후하여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포격이 개시되었다. 기습 남침이 야포와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정한 북한군의 주공 제1군단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으며, 춘천, 강릉을 목표로 한 조공 제2군단은 화천-춘천 접근로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축선을 따라 일거에 국군의 38도선 방어진지를 돌파하였다.

당시 국군은 일선인 38도선 부근에 전개된 제17연대는 육지와 격리된 옹진반도에, 제1사단(제11, 제12, 제13연대)은 서부인 고랑포-개성-연안-청단 정면에, 제7사단(제1, 제9 2개 연대)은 그 서쪽 동두천-포천 정면인 중서부에, 제6사단(제2, 제7, 제19연대)은 어론리-춘천-가평 정면의 중동부 산악지역에, 제8사단(제10, 제21 2개 연대)은 동해안 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후방지구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각지에 분산 배치된 후방사단 가운데 수도경비사령부 예하의 제3, 제8, 제18연대와 독립 기갑연대는 서울에 배치되었으며, 제2사단(제5, 제16, 제25연대)은 청주, 대전, 온양 등지에, 제3사단(제22, 제23 2개 연대)은 대구, 부산 지역에 그리고 제5사단(제15, 제20 2개 연대)는 전주, 광주 등지에 각기 분할 배치되어 있었다.

국군은 각 전선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군의 막강한 전차 앞에 속수무책

<상황도 2-1> 북한군의 전면 남침



이었으며 전차를 파괴시킬 수도 없는 대전차화기 대신 육탄으로 적의 전차 위에 뛰어올라 수류탄으로 전차를 파괴하는 등 피어린 격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10:00 적기가 김포와 여의도 기지를 정찰한 후 정오경에는 북한군의 YAK 전투기 4대가 서울상공에 출현하여 용산역, 서울공작창, 통신소, 육운국 청사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불안은 더 해졌다.[1)]

북한 정권은 그들의 남침 기습달성이 확실해지자 11:00경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인민군은 자위조치로써 반격을 가하여 정의의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 후 13:35 방송에서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각본을 만들어냈다.[2)]

## 2. 북한군의 공격 양상과 아군의 대응

### 1) 지상군의 작전활동

북한군은 옹진반도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300㎞의 38도선 전선에서 일제히 남침하였으나, 아군은 종래부터 38도선 상에서 그들의 도발이 잦았던 만큼 이날 새벽의 포격 및 병력기동 또한 종전과 같은 것이라고 오판하고 최초부터 각 부대별로 산만한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또한 당일 육군본부에서도 적의 공격준비사격과 공격개시가 04:00 전후 간에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아심을 가졌으나 05:15에 동두천-포천지구에서 보전포병행으로 북한군이 급속히 공격하고 있다는 긴급보고에 따라 05:30에 비로서 전군에 비상령을 하달하는 한편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3)]

채병덕 총참모장은 즉시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앉아 짚차를 타고 장관 관사로 가서 07 : 00 적의 침공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때 배석한 그의 비서의 회고에 의하면, “자못 놀라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으며 짐작은 하였지만 적이 일요일에 기습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4] 그러나 적의 보포화력으로 말미암아 통신 소통이 여의치 않게 되어 전선의 각 부대간 연락이 서로 두절되는 상태가 빈발하고 더구나 육군본부에 단편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만으로는 전면남침의 여부마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일 10 : 00,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자신이 의정부지구의 제7사단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고 전황을 파악한 연후에야 북한군의 전면남침으로 추인한 듯 하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대의 즉각적인 투입과 후방 3개 사단의 이동을 명령하고 필요한 군수지원을 조치하였지만 이때는 북한군이 침공한지 이미 4시간 뒤인 08 : 00였다.[5]

북한군은 기습과 기동 그리고 집중 돌파를 꾀하여 4~5㎞의 아군진지 후방까지 공격하였으며 계속 진출속도를 늦추지 않고 남하하였다. 아군은 그것을 저지할 기회를 상실한 채 주저항진지에서의 결전을 일단 단념하고 임시로 대응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작전계획대로 주공을 의정부 축선에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총참모장의 작전지도와 아군의 전투력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 2) 해·공군과 국립경찰의 활동 상황

남침의 급보에 접한 해군은 25일 09 : 00, 해군본부「작전명령」갑 제18호로 예하대에 비상경계돌입과 전투준비에 임하도록 명령하여 서해의 제1정대와 동해의 제2정대 및 각 경비부에 대해 해상경계를 강화시키고 적의 상륙에 대비하였다.[6]

개전초의 해군은 묵호－포항－부산－목포－군산－인천 각 경비부 내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고 제1(인천), 제2(부산), 제3(목포) 함대 및 훈련함대(여수와 진해)가 근해에 출동하여 철수작전 지원과 적 게릴라부대 공격을 격파하고 저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제2함대는 진해의 훈련함대와 합동하여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6월 25일 야간에는 대한해협에서 적 게릴라부대 요원 600명을 태운 선박을 격침시키고, 옥계(강릉 남쪽 25㎞) 근해에서도 25, 26 양일간에 북한군 제766게릴라부대와 제945육전대의 상륙선박을 격파하여 이곳의 해상침투를 저지하였다. 또 인천의 제1함대는 역내의 해상경비와 더불어 옹진지구의 국군 제17연대의 해상철수를 지원하였다.

국군 공군은 여의도－김포－수원－대전－군산－대구－진해－김해－여의도 등에 기지를 두고 있었으나 보유 항공기는 겨우 24대이었으며, 이중에서 훈련용인 10대는 국민들의 헌납으로 1950년 5월에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즉각 가동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여의도기지 하나만을 사용중에 있었다.

국군 공군은 적기의 정찰이 시작된 25일 10:00, 같은 시간에 여의도 기지 내에 공군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당면한 전황을 검토한 후 신속한 전투태세를 갖추는 한편, T-6 및 L형 항공기로 적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공권이 북한 공군이 장악하고 있음으로 일몰 경에야 T-6가 편대를 짜서 적의 접근로에 대한 정찰을 나설 수가 있었다.

북한의 Yak전투기가 25일 12:00, 김포와 여의도기지를 폭격하였으므로 우리 공군기들이 즉각 출격하여 문산 지역과 동두천·포천－의정부 지역의 적 보병, 차량, 그리고 보급품 등을 폭격하고 26일에도 계속 출격하여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눈물어린 활약을 하다가 상황의 급변에 따라 27일 그 기지를 수원으로 옮기고 다시 한강선 방어를 지원하면서 미 공군의 참전에 협조하였다.[7)]

이와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이근석 대령 등 10명의 조종사가 10대의 F-51전투기(Mustang) 인수를 위하여 일본의 이타츠케 기지로 갔다. 이때 수원에 있는 비행단은 한강선 방어를 계속 지원하다가 7월 1일 대전기지로 이동하고 F-51편대는 대전기지보다도 그 규모가 큰 대구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립경찰은 동년 6월 10일 경찰비상사령부(내무부 치안국)가 판단한 '북

한의 대거 남침 징후 포착'에 따라 접경 38도선 일대의 경찰에 대하여 갑호 비상경계령을 하달하고 적 남침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경찰 작전의 지휘계통이 경찰사령부에 속해 있든 관계로 군과의 첩보 교환이 원활치 못하였으나 25일 적의 전면남침이 개시되자 전방의 경찰국장들에게 "즉각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각 지서는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하여 대처하되 경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각 경찰대대는 해 지역의 군부대와 협조하라"는 지시로써 일부 군경 협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8)]

특히 26일 미명에 의정부 정면에서 반격이 있을 무렵 서울 시경 소속의 1개 전투경찰대대는 군에 증원되어 육사 생도대대와 함께, 또한 퇴계원 및 부평지구의 전투경찰대대가 김포지구전투사령부와 협조하며 전투하다가 이후 후방치안 및 주요시설 경비임무로 전환하였다.[9)] 이후 경찰과 군의 작전지휘 계통이 일원화 되지 못한 관계로 전황의 추이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 제 2 절 국군 지휘부의 조치

## 1. 육군본부의 조치

### 1) 최초 상황 접수

1950년 6월 24일 육군본부 정보상황실은 6월 22~23일 2일간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여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10] 채 총참모장은 "첩보대를 포천-동두천-개성 등지에 파견하여 계속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 08:00까지 보고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하달하였을 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4일 긴급 편성된 첩보대(김병수 소령)는 7개조로 조를 편성하여 옹진, 백천, 개성, 고랑포, 동두천, 포천, 강릉에 급파하였으나 활동 첫날인 25일에 적침을 받아 무용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국에서는 이에 앞서 북한 사정에 밝은 요원들로 편성된 이른바 보국대대 소속 1개 중대를 제6사단에, 잔여 1개 중대(75명)를 제7사단에 배속하여 적정을 정찰하게 하였다.[11]

이에 관하여 박창암 중위는 후일 "우리 중대는 제7사단에 배속 즉시 G-2 참모인 이세호 소령의 구호를 받아 적의 대남공작을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중대는 24일 당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박영철(북한 대위)의 제보에 따라 사단 정면에 추진되었다는 적 대부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급거 출동한 바 있으나 제1연대 전방 지휘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전면 남침에 당면하여 뜻을 이루기도 전에 분산 철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12]

1950년 25일 01:00, 제17연대로부터 "현재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부터 병력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긴급보고가 들어왔고, 03:00에는 제1사단으로부터 "적은 구화리에서 도하용으로 보이는 주정(舟艇)을 그들 전방으로 운반하

고 있다"라는 요지의 보고가 보고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는 제7사단으로부터 "적 포탄이 현재 전 진지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다급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상 내용에 대하여 당시 육군본부 상황실 당직이었던 조병운 대위는 "강릉 북쪽 38도선 지역과 춘천의 수리봉, 그리고 옹진의 까치봉에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긴급보고가 거의 동시에 입수되어 충격을 받았다"라고 술회하고 있다.[13]

어쨌든 육본 상황실은 전방부대로부터 입수되는 상황이 전 전선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니만큼 적의 활동에 심상치 않은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당직사령에 보고하여 전군의 비상조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당직사령이 채 총참모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급히 출발하였고 동시에 당직상황장교 등은 정보국장 및 작전국장을 비롯한 각 부처장들에게 전화가 통하는 대로 전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알렸다.

이 비상통보에 의하여 작전국의 이치업 대령은 05 : 30,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은 10분 후인 05 : 40에 각기 육군본부에 황급히 출두하고 뒤이어 일반참모 및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였으나 연락망 및 통신 미비로 그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어 비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 2) 육군 지휘부의 조치

채병덕 총참모장은 전날 밤 있을 육군회관 연회로 말미암아 늦게 귀가하여 취침 중에 기습남침보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상황장교를 불러 긴급 상황을 보고받고 05 : 00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비상소집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어서 그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할 수 없게 되자 즉시 장관비서인 신동우 중령을 전화로 호출하여 장관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그와 같이 짚차로 장관 관사(마포장)로 달려갔다. 채 총참모장은 07 : 00 준비한 상황도로 국방장관에게 적의 침공상황을 보고하였다.[14]

총장의 「비상발령」 명령을 수령한 작전국은 06 : 00~07 : 00에 전군에 비상령을

하달하고 동시에 육본장병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다.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급보를 받은 참모장교 가운데 제일 먼저 도착한 이치업 대령이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후에 "급보를 받고 육군본부에 나오니 상황실은 일선 부대들로부터의 상황보고가 폭주하여 야단법석이었으며 상황판을 보니 전선은 여기저기 터져 있었다. 나는 직감으로 이것이 종래와 같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채 총참모장이나 김백일 대령, 그리고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아직 등청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부득이 작전국의 선임자로서 상황처리에 책임을 지고 임할 수밖에 없어 전군에 비상령을 내렸다"고 술회하였다.[15]

이와 같이 첫 명령은 하달되고 육군본부를 비롯한 각 부대의 비상소집이 동시에 실시된 셈이지만, 바로 이틀 전 23일 24:00를 기하여 전군에 내려져 있든 비상경계가 해제됨으로써 전장병들은 휴가와 외출·외박으로 대부분 부대를 비우게 되었고 각급 부대에는 당직 근무자만이 남게 되어 혼란을 면치 못하였으며, 장병소집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육군본부의 경우 장병소집에는 전화, 전령, 방송 등 각종 수단이 강구



국군 수뇌부의 모습

되고 심지어는 국방부 제2국(정훈국) 주관으로 가두 마이크 방송이 실시되어 종일토록 장병들의 원대복귀를 독촉하는 요란한 소리가 서울 시내는 물론 각종 집회장에까지 울려 퍼졌는데, 이날 14:00가 넘어서야 80~90%의 장병이 소집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시된 비상소집에 대해서 당시 작전국장과 수도경비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서대문 쪽으로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직통전화를 미처 가설하지 못하였는데, 이날 09:00에야 우리 집 부근에서 실시하는 가두방송을 듣고서야 급히 육본에 출두하였다"라고 하였고,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시간은 분명하지 않지만 부대에 나오니 제3연대가 이미 제7사단에 배속된 연후였다"고 증언하였다.[16] 이와 같이 장병들은 고사하고 지휘관 및 일반참모들까지도 비상소집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일선부대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선 잔류하고 있는 장병들을 긴급 출동시켜 적에 대비하도록 하고 그 후에 귀대하는 장병들을 수습하여 임시중대 및 대대규모로 부대를 급편, 축차로 전선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군에 비상명령을 하달한 채병덕 총참모장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육군본부로 직행하였다. 이 무렵 상황실은 전선의 각 부대로부터 긴급보고와 증원요청의 수신, 그리고 비상령 발신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으며, 더구나 상황을 처리할 요원 부족 때문에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적의 침공상황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적의 침공기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하였다. 이치업 대령은 일선 부대로부터 상황을 접하자마자 즉시 반격을 지시하는 형편이었다.

채 총참모장은 육본에 도착한 후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육군본부 정훈감 겸무)를 육군본부로 호출하여 "전군에 비상을 이들이 알리고 신속히 소집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채 총참모장이 관계자의 도착이 늦어짐으로써 초조한 나머지 사전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도착한 행정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작전참모부장 겸무)과 협의하여 후방 3개 사단의 출동과 수도경비사 예하 제3, 제18 2개 연대 및 기갑

연대에 대해 출동대기를 명령하였다. 이때가 08 : 00로서 중앙방송(KBS)이 북한의 남침을 보도한 직후이며 또 일선 부대 전초진지가 북한군에 의해 유린되었을 무렵이었다.[17]

후방사단에 대한 출동명령은 최초에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 이 명령은 곧 작명 제84호로 정리된 바 있다. 채 총참모장은 후방부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기에 앞서 이날 부로 제5사단이 담당 수행중인 지리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의 승계를 위하여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이형석 대령)를 창설하였다.[18]

채 총참모장은 후방사단의 출동명령을 하달한 후 곧 제1사단사령부(수색)를 불시에 방문하고 동 사단의 전방상황과 예비대인 제11연대의 출동상황을 격려한 후, 즉시 미 고문단 연락장교인 하우스먼(James W. Hausman) 대위를 동반하고 10 : 00경 제7사단사령부(의정부)를 방문하였다. 그가 제7사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선에 배치된 2개 연대가 각 1개 대대의 병력만으로 진전으로 밀려오는 적과 격돌하고 있었고 더구나 포천 정면은 적 전차에 의해 진지가 돌파된 다음이었다.[19] 이에 채 총참모장은 “육박공격으로 적 전차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다음 병력증원을 약속하고 육군본부로 돌아갔다. 이때의 상황은 당시 측근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채 총참모장은 이때 제7사단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군의 전면남침이라 판단하고 매우 당황하는 것 같았다”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육군본부에 복귀한 채 총참모장은 즉시로 참모학교 및 보병학교 고급반에 입교중인 피교육자의 원대복귀를 명령하고 동시에 작명 제85호를 하달하여 즉시 제7사단에 대한 증원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에 있는 유휴 병력의 집결을 명령하였다.[20]

이와 같이 조치한 채 총참모장은 14 : 00부터 재개된 긴급 국무회의에 출석을 요구받고 그곳에 나가 당면의 전황을 설명하였다. 이때 각의에 참석한 문교부장관 백낙준과 비서 민복기가 밝힌 바에 의하면, 채 총참모장은 그 전황설명의 요지에서 “적은 전면남침이 아니라 공비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탈취하기 위한 책략 같으며 곧 남쪽의 부대를 집중하여 적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의 보고를 마친 채 총참모장은 다시 의정부 전선을 방문하고 전세를 살피면서 진두지휘에 나섰으며 유해준 중령이 지휘하는 임시 연대를 문산지역에 급파하여 제1사단 정면에서 서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을 저지하게 하였다. 또한 15 : 20에는 옹진에 배치된 제17연대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즉시 해상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명령의 하달은 채 총참모장이 전선시찰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의 지시에 의하여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하달한 것이었다.

이 무렵에 이르러서야 채 총참모장이나 김백일 부장 모두가 적의 침공이 전면전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작전명령이 연발되면서 육군본부의 분위기는 충격과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통신의 불통으로 제8, 제6사단과는 연락이 단절되고 전반적인 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작전을 지도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여유도 없이 우선 적을 격퇴하는 임시조치에만 집착하고 이를 위한 조치라면 즉시 시행에 옮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12 : 00경 적 Yak기는 서울 상공에 출현하여 김포공항과 용산 부근에 기총사격을 자행하였고,[21] 한편 일간신문들에는 국군이 반격하여 해주로 돌입하였다는 오보를 보도함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즉 옹진에서 돌아온 연합신문의 최기덕 기자가 국방부 정훈국에 들려 "내가 옹진을 떠날 무렵 육본에서 철수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제17연대 장병들의 사기는 해주로 진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가 와전되어 "국군 북상, 반격전을 전개, 제17연대 해주로 돌입"이라는 제하의 오보를 일제히 게재하였던 것이다.[22] 이로 말미암아 서울 시민들은 물론 군당국자까지도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이어 13 : 00경 국방부는 전방의 상황을 알리는 담화문을 공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각 신문이 그 내용을 호외로 보도함으로써 모두가 긴장과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 2. 국방부의 조치

### 1) 군 원로 회의

의정부 전선의 작전에 있어서 혼선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군사 경력자들의 자문을 받아 난국을 타개하라"는 특명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장관은 26일 10:00에 국방부로 긴급히 현역 및 재야원로급 군사경력자를 초치하였는데 이에 출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 해군 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 김홍일 소장(참모학교장), 송호성 준장(전 경비대총사령관, 청년방위대 고문단장), 유동열(전 통위부 부장), 이범석(전 광복군참모장 및 전 국무총리), 이청천(전 광복군사령관), 김석원 (예)준장(전 제1사단장) 등이었다.

이 회의에서 신 장관과 채 총참모장이 설명한 전황의 요지는 "현재 군은 의정부에서 북한군을 반격하고 있으며 전황은 유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홍일 소장은 작전지도 방침의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의정부 정면에서의 공세이전을 위험시하고 한강 이남에서의 결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석한 이범석·김석원 두 사람도 이에 동조하고 현 한강선 방어 이외에는 승산이 없음을 강력히 제안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에 신 장관이나 채 총참모장의 의견을 꺾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내에 폐회되었다.

이 회의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뒷날 밝힌 증언 가운데 김석원은 "26일 아침 국방부에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있기에 나가 보니 7~8명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군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신장관이 전황을 설명하기를 '동해안에서는 300명의 적이 투항하였고 제17연대는 해주에 진격하고 있다'며 낙관하고 있어서 나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확인해 보라'라고 하였으나 채 총참모장은 '반격, 북진한다'고 하며 그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홍일 소장은 "나는 이 회의 벽두에 작전지도 방침을 확립하는 것이 급무이며 결전을 기도한다면 어느 선에서 병력을 집중하느냐, 지연작전을 취한

다면 어디까지 철수하느냐를 조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조차 없었으며, 두 사람의 보고는 국지적인 것에 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후일에 술회한 요지이다.

또한 이 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던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뒷날 "26일 아침 작전지도 회의를 연다고 하면서 채 총참모장이 나와 협의하러 왔기에 나는 서울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동요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채 총참모장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군의 원로들은 한강선에서 군을 정비하고 새로운 태세에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선장출신의 장관은 적의 공격은 위력정찰일 것이므로 이를 격퇴하고 북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였다. 나와 채 총참모장은 '서울고수'론을 주장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종찬 대령이 채 총참모장의 서울고수 방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UN군이 참전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작전방침으로는 서울고수에 전념하든지 한강선으로 철수하든지 양자택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강선으로 철수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동력을 갖지 못한 관계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양자 공히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돌보지 않고 퇴각하다가 결국에는 패하였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을 고수하는 것을 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서울고수를 고집한 것은 정치적 체면을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전술을 무시한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하는 사후의 혹평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채 총참모장이 한강선으로 철수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민이나 정부기관의 소개를 위하여 27일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따라서 이때까지는 서울을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고 하여 이 회의에서 채 총참모장이 어쩔 수 없이 '서울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경위를 설명하였다.

군사경력자 회의가 끝나자 신 장관과 채 총참모장은 11 : 00부터 중앙청에서 개최된 비상 국무회의에 출석을 요구받아 전황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에서 신장관은 "3~5일 이내에 평양까지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강력한 군대를 가

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채 총참모장은 "적을 의정부 밖으로 격퇴하였다. 3일 안으로 평양까지 점령하겠다"라는 낙관론을 다시 전개하였다.

채 총참모장은 국무회의에서 증언을 마치자 즉시로 육군본부로 복귀하여 의정부 정면에서의 반격 결과를 학수고대 하였는데, 이 무렵 의정부의 전황은 적의 포성이 점차 가까워졌고 제2사단의 반격실패와 제7사단의 반격전 역시 상황 판단이 빗나가면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 2) 국방수뇌 연석회의

창동선의 위기가 임박하였을 무렵인 이날 심야에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국무회의와 국회출석에 앞서 각 군 총참모장을 국방부로 소집하고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육·해·공 총참모장이 참석하여 의정부가 실함되어 전세는 낙관만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금후 작전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회의참석자 모두는 미국이 현 시점에서 긴급 탄약을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미군의 직접 지원이 없는 한 사태가 절망적이라는 점에 일치하였고, 첫째로 육군이 철수만을 거듭할 경우 마지막으로 유격전으로 전환하여 끝까지 항전한다. 둘째로 해·공군은 육군 작전에 협동하고 최후에는 정부의 망명 시에 대비하여 그 요인들의 수송을 담당한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채 총참모장은 이때에 이미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서울방어에 자신을 잃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신 장관은 채 총참모장을 동반하고 심야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채 총참모장이 계속 전황을 낙관적으로 설명한데 반하여 장관은 "정부의 수원이동"를 발의하고 각료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또 회의가 끝나자 두 사람은 심야 국회에도 참석하여 채 총참모장은 전황 설명에서 "서울만은 고수한다. 그리하여 반격으로 전환하여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되풀이 하였고 신장관은 총리 자격으로 정부의 이동이 전황으로 미루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신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을 마치자 05 : 00경 국방부에 등청하였는데 즉시 제2국장(정훈국)을 불러 정부의 이동을 방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부 이동에 대한 발표"는 정훈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공보과가 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으나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이 자청하여 발표하였다. 되어 정부의 이동 결정은 이날 06 : 00에 중앙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공식으로 보도되었으나 이 방송은 곧 취소되고 정부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다시 정정 발표하였다.

채 총참모장은 심야회의에 참석한 다음 곧장 창동선으로 나가 전황을 살핀 뒤 육군본부에 복귀하였다. 신 장관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이날 09 : 00에 국방부로 군 수뇌들을 소집하였는데 이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차관 장경근, 제1국장 손성겸 대령, 제2국장 이선근 대령, 제3국장 김일환 대령,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해군총참모장(대리) 김영철 대령,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준장 등이었다.

신 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비서인 신동우 중령에게 술을 가져오라하고 참석자를 육군 총참모장실로 인도하여 착석하게 하고 술(Conadian Whiskey) 한 잔씩을 권한 후 "충성스러운 장병들이 지금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으나, 미국의 특별 긴급 원조가 없는 한 우리들의 힘으로 수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비통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이곳에 참석한 군 수뇌들에게 절망과 낙담을 주는 무익한 발언으로서 이에 대하여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그 분위기를 재빨리 눈치챈 장관은 "그런게 아니고 여하간 열심히 싸워 서울을 사수하자는 이야기야" 하며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채 총참모장은 "정부는 남쪽으로 이동할지라도 군은 서울을 고수하자"라는 결심을 피력하게 됨으로써 국방부와 해·공군의 수원으로의 철수는 이렇게 결정되었으나 육군본부만은 서울에 잔류하여 계속 서울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 제 3 절 정부의 대응과 조치

## 1. 정부의 최초 대응과 외교 활동

### 1) 정부의 최초 대응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채병덕 총참모장은 즉시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짚차를 타고 장관 관사로 가서 07 : 00에 적의 침공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때 배석한 그의 비서의 회고에 의하면 "장관은 자못 놀라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으며 짐작은 하였지만 적이 일요일에 기습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았다"고 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비원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든 중 10 : 00경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대거 남침" 소식을 듣고 경무대 관저로 돌아왔으며, 같은 시간에 경무대에 도착한 신성모 국방장관(국무총리 겸무)으로부터 "이미 개성이 함락되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이 춘천 근교에 도착하였다"는 최초의 전황보고를 받고 곧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23]

11 : 00에 국무총리 서리 신성모 주재하에 진행된 국무회의는 그때까지의 정보에 의한 신 장관의 전황설명으로는 국지적 무력충돌인지 전면적인 남침인지 분명하지 않자 전선에 나간 채 총참모장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산회하였다.

산회된 국무회의는 14 : 00에 대통령 주재하에 속개되었고, 채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38도선 전역에 걸쳐 4만~5만명의 북한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남침을 개시하였으나 각 지구의 국군은 대전차포로 적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 중에 있다(중략) 후방사단을 진출시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24]

이 대통령은 전황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음인지, 곧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 공포의 특례에 관한 건)를 공포하고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여 전시를 맞아 반민족적 반인도적인 범죄자를 엄벌키로 하였다.[25] 이는 당시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의 발동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까지 헌법 제64조에 의거한 계엄령도 선포하지 않았고 전시체제로의 전환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11 : 35 무초 주한 미대사의 방문을 받고 우선적으로 탄약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임병직 외무부장관도 장면 주미대사로 하여금 유엔과 미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훈령을 내리는 한편, 미 국무성·국방성 그리고 극동군사령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주한 미대사와 유엔한국위원단과의 협조도 유지하였다. 무력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관련된 모든 사태의 감시와 보고를 주기능으로 한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의 남침통보에 접하자 14 : 00경부터 대처할 방책의 논의를 시작하였다.[26]

## 2. 남침상황 보도

중앙방송(KBS)은 07 : 00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남침 제1보를 보도하였다.[27] 이때에는 적이 남침을 개시한 지 이미 3시간여가 경과하여 38도선의 방어일선이 무너졌을 때인데도 매우 낙관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의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즉, “이때 이미 전방 경계진지가 무너졌는데도 북한이 남침공격을 하였음을 알리면서 10만 국군이 건재하니 전 국민은 염려하지 말라는 낙관적 문구를 넣어 방송하였다. 왜냐하면 방송의 목적이 일반국민에게 남침사실을 알리는 데도 있었지만 휴가 또는 외박중인 장병을 긴급히 원대 복귀시키는데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크게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고 술회하였다.[28]

이와 함께 국방부 정훈국이 중심이 된 가두 방송반이 서울 시내를 누비며 장병들의 부대복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보도와 가두방송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동시에 전란과 시련을 많이 겪어온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정훈국장은 뒤이어 이날 12 : 00에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은 동일한 시각에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각 지구의 우리 국군 부대들은 이를 격퇴하여 적절한 작전을 전개중에 있으며, 특히 의정부정면에서는 내습하는 대전차포로 격퇴하였다. 북한집단은 자기의 태세를 만회하려는 의도아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통하여


朝鮮日報

以北傀儡不法南侵

25日早曉 三八全線에걸쳐

國防部政訓局長 李瑄根大領은 二十五日早曉부터 三八線 全域에걸쳐 以北傀儡集團이 大擧不法南侵하여싸워 戰鬪가 벌어지고있다고 二十五日正午 다음과같은 談話를發表하였다

【國防部政訓局長談】

英政府의 政策轉換

國軍作戰 傀儡

남침보도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모략 방송하다가 하등의 반응도 없으므로 조급한 끝에 감행하게 된 공산도당의 상투수단임에 틀림없다. 전 국민은 우리 국군장병을 신뢰하여 미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직장에서 만반의 태세로 군의 행동과 작전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군에서는 명령이 없어 38도선을 넘어 공세작전을 취할 수 없는 고충이 있으니 전 국민은 안심하고 소소한 전황에 특히 동요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국방부에서는 "옹진의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는 오보(誤報)를 했고 일간신문들도 이를 보도함으로써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 군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일순간이나마 고무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연합통신의 최기덕 기자가 옹진에서 돌아와 정훈국에 들러 내가 옹진을 떠나 올 무렵 "제17연대 장병들의 사기는 해주를 공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가 와전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북한에 의해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였다는 구실로 악용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전황에 대하여 혼란이 일고, 오보로 인한 판단착오를 일으키자 국방부는 13 : 00 공식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것이 경향신문의 호외로써 전국에 전파되었다.[29] 방송에서는 대체로 25일에 있어서는 임시 뉴스방송을 좀 늘렸을 뿐으로 정규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26일부터는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과 방송계장 홍천 중위 등이 중앙방송에 파견되어 실질적으로 방송을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26일 06 : 00에는 주한 미대사 무초가 그 내용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국민을 격려하는 방송을 한 데에 이어, 08 : 00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짤막한 생방송을 하였으나 보도과의 발표문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보도의 정책방송은 민심 동요를 방지하는 데에 두고 전황을 비롯한 군 관계 보도를 일원화하기 시작함으로써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는 보도 내용은 시민들이 피난민으로부터 청취하는 상황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긴박감과는 너무나도 유리된 감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황의 호전만을 바라는 시민들의 심리는 거듭되는 낙관적인 보도에 끌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옹진을 철수한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하였다는 보도가 계속되었고 제7사단이 이날 08:00에 반격을 감행하여 동두천 정면에 다소의 진전을 보이자 "의정부를 탈환하고 북진중이다"고 하였으며, 저녁 무렵에는 "내일(27일) 아침에는 100대의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지원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방송은 이날부터 08:30에 아침방송이 끝나면 11:30에 낮방송을 시작하였다가 저녁 17:00부터 자정까지 방송하든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명사를 초빙하여 강연하게 함으로써 민심수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7일에 중앙방송은 06:00 방송으로 정부의 수원이동을 보도하여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이때까지의 전황보도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부의 이동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이철원 공보처장은 즉각 중앙방송에 지시하여 "정부 각 기관은 수원이동을 취소하고 중앙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편 국회는 국민과 더불어 서울을 사수키로 결의하였다"라고 발표하여 06:00의 보도를 취소하게 하였으나 거리에는 피난민 대열이 부쩍 늘기 시작하였다.

방송국 자체도 어수선한 가운데 방송은 그런대로 계속 되었는데 27일 22:00부터 23:00까지 3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녹음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그 요지에 이르기를 "UN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공중수송으로 무기와 물자를 날아와서 우리를 도우니까 국민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방송 관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의 사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마침 생방송을 위하여 방송국에 와 있던 사회명사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의 방송을 더 이상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고 만류함으로써 중단되었다.[30] 이와 같은 대통령 녹음방송의 배경에 관하여서는 당시 경무대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든 황규면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27일 03:00에 경무대를 떠난 대통령은 이날 12:30에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여 16:30

에 대전에 도착한 다음 철도국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때에 주한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트(E. F. Drumwright) 참사관이 내려와서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위와 그 결과로 얻어진 UN의 결의,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다(This is not your war but ours)'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 말에 생기를 되찾은 대통령은 충남지사 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마침 그 곳에 도착한 이철원 공보처장에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 원고를 구술하는 것을 내가 받아쓴 다음 이것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전화방송기에 대고 읽으셨는데 이것이 그날 밤에 나간 대통령의 녹음방송이었다"고 하였다.[31]

위의 증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녹음방송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미국이 제안한 동의안의 가결 사실과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의 제한 철폐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우고자 한 충정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방송이 이날 정오에 공보처에서 발표한 "정부는 수원이동을 중지하고 중앙청에서 근무중"이라는 보도에 이어 거듭 방송됨으로써 100만 시민이 결정적인 순간에 피난의 길을 독촉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 밤을 보내다가 적 치하에서 온갖 고초와 화를 겪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군이 한강교보다 그 전략적 가치가 못지않은 유일한 방송국을 방치함으로써 적이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즉, 북한은 서울 공격과 동시에 방송국을 선점하였는데 02 : 00가 지나서야 정훈국의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이 방송시설을 파괴하고자 단독으로 달려갔으나 이보다 먼저 침투한 적 유격대에 의하여 전사함으로써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군이 매스컴으로서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송을 관장하였다면 적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였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였다. 더구나 한강교 폭파에 앞서 방송국과 그 시설들을 파괴하지 못하여 적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다.

### 3) 미국과 유엔에 대한 외교 활동

외무부장관 임병직은 주미대사 장면에게 미국과 유엔에 대한 외교활동에 관한 훈령을 긴급히 하달하였다. 아울러 그는 미 국무부과 극동군사령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주한 미 대사 무초와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협조도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남침소식이 미국에 전달된 것은 주한 미 대사관 및 무관, 군사고문단 그리고 외신 기자들을 통하여 전쟁발발 5시간 후인 6월 25일 09 : 30(미국 시간 6. 24, 20 : 30)이었다. 무초대사의 본국 보고서는 10 : 26에 국무부에 도착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6월 25일 09 : 00 개성피탈 상황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은 그 양상으로 보아 남한에 대한 전면공격임에 틀림없다"[32]는 것이었다. 인민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평화가 파괴되자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였다.

미 국무부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 조치만을 유엔에 제기하기로 하고 유엔사무총장(트리브그 리)에게 통고하는 한편, 애치슨 국방장관은 25일 12 : 20에 주말 휴가 중인 트루먼의 결재를 받아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다.[33] 미국은 군사대응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26일 정오경 블레어 하우스에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국방·각군 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미 합동참모본부가 극동군사령관에게 준비명령으로 하달한 바 있는 제한적 군사조치, 즉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반을 파견하고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해·공군을 운용하라는 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곧 정식명령으로 하달되었다.[34]

한편 서울에서는 25일 11 : 35분 무초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사태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결전 의지를 밝히고 "10일 이내에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 모두가 일어나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라도 싸울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탄약이 있

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민들의 사기를 더욱 올려 줄 것이다"라고 탄약 지원을 특별히 요청하였다.[35] 미 대사와의 요담 후 이 대통령은 13 : 00경 주미대사 장면과 참사관 한표욱에게 미국 정부에 직접 원조 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36] 무초 대사는 즉각 미 군사고문단 우드(Walter G. Wood, Jr.) 중령에게 지시하여 미 국동군사령부에 105㎜ 포탄을 비롯한 박격포탄 그리고 소총실탄을 긴급 요청토록 하였다.[37]

이날 한국 국회도 미국 대통령과 국회로 즉각 북한의 남침사실을 통고하고 "이러한 세계평화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즉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38] 장대사 일행은 25일 14 : 10에 국무부를 방문하고 본국의 지원요청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39]

서울 주재 유엔 한국위원단도 25일 14 : 00 회의를 갖고 대응방책을 논의한 다음, 21 : 00에는 중앙방송을 통하여 "북한군은 즉각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한 다음 평화회의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40]

한편 호주(Australia)－엘살바도르(ElSavador)－프랑스(France)－필리핀(Philippines)－터키(Turkey) 그리고 자유중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에서는 북한의 남침통보를 받자, 25일 14 : 00부터 18 : 00까지에 걸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불법남침에 대처할 방안을 협의하였다.

동시에 동 위원단은 유엔에 "전면침략의 성격을 띤 중대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전문을 발송하여, 현지시간 25일 14 : 00 (한국시간 26일 04 : 00)에 안보리를 소집하고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미국의 노력과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41]

또한 주미대사 장면은 정부의 계속되는 긴급훈령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무기원조와 해·공군 참전결정에 이은 작전지역 제한의 철폐 그리고 지상군 참전 결단을 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미국의 유

엔 부대사 그로스(Gross)와 연락을 유지하여 안보리에서 참관자로서의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안보리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자에 정전과 38도선 이북으로서의 철수를 명령할 것"이라고 호소하여 미국의 제안-정전과 북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서의 철퇴 그리고 유엔 한국위원단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케 한다-을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로 통과케 하였다. 그는 또한 유엔 각국대표와 미 의회 그리고 조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현지시간 27일 11 : 00에 안보리에서 제2차 결의안의 통과를 보았다.[42]

미 극동군사령관은 25일 09 : 25분에 주한미대사관 무관 및 연락장교단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으며, 21 : 35분에 그때까지 상황을 요약하고 "한국으로 탄약수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조치로써 제7함대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을 미 육군성에 보고하였다.[43] 당시 맥아더에게 부여된 임무는 주한미대사관과 군사고문단에 대한 군수지원과 유사시 비전투원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서울로부터의 지원요청, 유엔한국위원단의 상황보고, 미 대사관 및 극동군사령부의 보고 등 미국과 유엔의 시급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전문이 빗발치는 가운데 유엔에서는 미국에 의해 공식으로 요청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6일 03 : 00에 개최되었다.[44] 이 결의안은 전쟁에 있어 첫 번째 유엔 결의로서 의미를 가진다.[45]

이와 같은 이승만의 지원요청,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극동군사령부의 군사조치가 시작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무초대사의 결정에 따라 26일 01 : 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미국인 비전투원을 해·공군을 동원하여 수송 및 호송하였다. 이들은 그 외 주한외국인들과 함께 29일까지 일본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극동군사령관은 미 합참의 지시에 따라 비전투원 철수작전 시행과 더불어 해·공군의 지원하에 탄약지원도 서둘렀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6월 27일에는 처치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ADCOM)을 구성하였으며, 이날 주한미군에 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받았다.[46]

주한 미 군사고문단도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하고 고문단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일부만이 잔류하였는데, 27일부터는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한강을 도하, 수원으로 이동하여 전방지휘소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국군작전의 지원을 계속하였고, 이미 철수한 요원들도 후에 지상군 전개시 재투입되어 작전을 지원하였다.[47]

북한군이 '6·26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계속하고 27일에는 서울 외곽까지 진출하여 서울을 위협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6·26 유엔결의'를 따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27일 10:00에 제2차 블레어 하우스 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48] 이 회의에서의 결정은 미 해·공군에 가해진 제한사항 철회,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전차·포병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군에게 가능한 지원을 최대로 제공하도록 결정하고, 즉시 극동군에 훈령으로 하달하였다.[49]

이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26 결의'에 토대한 2단계 군사조치인 해·공군의 한국참전 결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해·공군의 지원 조치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이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6월 28일 찬성 7, 반대 1(유고), 기권 2(인도·이집트)로 가결되었다.[50]

유엔의 '6·28 결의'는 '6·26 결의'와 더불어 유엔 창설 이후 국제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군과 유엔군이 해·공군과 아울러 지상군도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은 국제전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2. 비상사태하의 법령 공포 및 시행

### 1) 치안확보와 민심수습

6월 25일 05:00경 내무장관은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남침보고를 받고 06:30에 전국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하였으며, 대통령「긴급명령」제1호(비상사태하의 특별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한 특별범죄자를 집중 단속하게 하였다.[51]

또한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명령 제26호를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하여 통행금지 시간 연장과 등화관제를 실시토록 하고 주요기관과 산업시설의 경비를 강화하게 하였다.

내무부는 26일 생필품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매점매석행위가 증가하게 되어 시민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담화를 발표하여 전 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백미 소두 한말에 2,600원 이상 받는 자를 구금하고 매점매석자는 극형에 처함을 경고하고 집중단속에 나서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민들의 소개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정부가 수원으로 이동키로 결정하는 비상 국무회의에서마저 시민철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백성욱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6월 25일 아침에 장석윤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38도선 일대의 지서와 경찰초소가 유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여 군과 협조해서 질서 있는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다. 전선 상황이 더욱 복잡하여지고 피난민이 증가하여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26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치안국에 들러 경찰계통으로 들어온 전선 상황을 알아보고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26일 14:00에 의정부가 실함되었다고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탄약 등 상당수 보급품을 한강 이남으로 미리 후송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 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곧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전방에서는 국군과 경찰이 계속 싸우고 있었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만큼 싸우지도 않고 보급품을 후송한다는 것이 그때 형편으로 보아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선 상황은 더욱 불리해져 갔고 북쪽에서 밀려드는 피난인파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26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느니 안하느니 하다가 결국 수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시민들의 철수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나는 끝까지 수도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27일 야반까지 남아 있다가 '육군본부가 철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서 한강까지 나왔으나 이미 한강교가 폭파된 후여서 서빙고쪽으로 가서 나룻배를 타고 28일 07 : 00에 도강한 다음 수원쪽으로 향하였다"고 하였다.[52)]

한편 서울특별시는 전쟁 이전 2월 25일부로 직제를 개칭하여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산업국, 건설국, 사회국 그리고 경찰국 총 7개국과 중구-종로구-동대



북한군의 서울 점령 모습

문구－성북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그리고 영등포구의 9개 구청을 산하에 두고 수도행정을 관장하는 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45만 명의 시민이 31만 9,000세대를 이루고 19만 1,200동의 주택에 주거하고 있었다.[53] 전쟁이 발발하여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을 빚어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농림, 상공, 교통의 각부와 협의하여 정부 보관미를 긴급히 방출하게 하는 한편 생필품 조달을 촉진케 하고 이들 물자수송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 다음 관계직원을 각 시장에 파견하여 유통질서와 가격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담당케 하였다.

이 무렵 서울시의 상수도는 뚝섬－광장－구의－대현－노량진의 각 수원지 등에서 1일 17만 7,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의 태업 또는 불순분자의 테러에 대비하여 경찰에 수원지 경비를 강화토록 지시하는 한편 건설국 수도과의 직원을 총동원하여 현지감독과 독려를 계속함으로써 27일 야반까지의 급수에 큰 지장이 없었다. 또한 이때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차의 계속 운행을 위하여 조선전업과 경전(京電)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우선 배전케 하였다.[54]

한편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후방치안의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전 수사력을 여기에 집중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단속에 나서 거족적인 임전태세 확립에 앞장섰다. 그런데 26일 09 : 00부터 공판이 무기연기되기에 이르자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양곡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하고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에 따라 곡가단속이 이루어졌다.

정보담당 검사진은 오제도 부장검사의 지휘하에 보도연맹의 지도에 나서,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반공활동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시국을 틈탄 일탈이나 재전향을 막기로 하였으며 보련 의무실에서는 비상구호반을 편성하여 청량리 역전에 있는 서울대학교 예과 자리의 교실과 교정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이주영 검사의 지휘아래 피난민의 부상자와 병약자를 진료하기도 하였다.[55] 보도연맹은 원래 여순 10·19사건을 계기로 1949년 1월 19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봉쇄하면서 그 조직근원을 분쇄하기에 이르자 신원이 노정되거나 자의로 전향한 자 중에서 그 전과가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들을 선도

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그 조직은 시·도 단위로 지부를, 구·군단위로 분회를 편성하고 각 지방검찰청의 정보담당 검사가 그 지도를 담당하였으며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전황이 급박하여지고 서울 철수가 강요되기에 이르자 검찰청에서는 각 지검에 긴급지시하여 동 연맹의 조직점검과 아울러 반공계몽의 선봉에 서게 하여 이탈을 예방토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구의 형무소에 수감 중인 국가보안사범과 기타 죄인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강구되지 못하였다.[56]

한편 사법부는 25일에 대법관을 비롯한 사무직원들이 라디오방송과 신문, 벽보를 통하여 적의 전면남침 사실을 알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날을 보냈다. 다만 전황을 궁금히 여긴 일부의 사무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자진 숙직하면서 자체경비를 담당하였다. 다음날인 26일 09 : 00에 대법원에서는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전날에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명령 제1호(별첨)에 따라서 각급 법원의 일반 민형사 재판을 이날 09 : 00를 기하여 무기연기하고 긴급명령에 따른 특별범죄 재판에 만전을 기하도록 결의한 다음 이를 긴급히 시달하였다.[57]

그러나 전황의 추이를 알 길이 없으므로 노용호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총무처장 전규홍과 연락을 유지하게 하여 전황과 아울러 행정부의 동향을 파악했는데, 27일 아침, 행정부의 수원이동이 통보되자 수일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대법원장 김병노를 비롯한 5명의 대법관 전원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수원이동이 잠정적인 것으로서 요인만의 일시적인 대피지시로 알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에 대하여 조직적인 철수지시는 물론 주요문서(재판기록, 호적원본,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긴급조치도 강구하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의 법관과 사무직원들은 일반시민들과 같이 개별행동하게 되었다. 27일 15 : 00를 전후하여 서울지법 수원지청에 도착한 대법원 일행은 행정부의 각료들과 대통령이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으로 또다시 내려감으로써 뒤따라 대전으로의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대전에 도착한 사법부는 28일부터 대전지법에 사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요인들은 지방법원장 관사에 여장을 풀었는데, 이때에 개별행동으로 남하하여 합세한 직원들이 13명으로서 그야말로 명목상의 이전일 뿐으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었다.[58]

### 2) 피난민 통제와 조치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과 함께 서울로 계속 밀려드는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6월 25일 새벽 이미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축선, 동두천·포천 축선, 춘천 축선, 주문진 축선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남침 직후 정부의 조치는 전방에서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후방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에 주력하였다. 대통령은 6월 25일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고 치안안정을 위해 각종 범죄를 자행할 경우 사형에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질서유지와 민심동요 예방에 전력하였다.[59]

이날 05 : 00 내무장관은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고 06 : 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여 전투태세로 돌입케 하였으며,[60] 아울러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명령> 제26호를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하여 통행금지 시간 연장과 등화관제를 실시토록 하고 주요기관과 산업시설의 경비를 강화케 하였다.[61] 또한 26일에 이르러 생필품 품귀현상과 매점매석 행위마저 겹쳐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담화를 발표하여 전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매점매석자는 극형에 처함을 경고하는 한편 집중단속에 나서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자 하였다. 6월 28일 정부는 <긴급명령> 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도 전쟁으로 인한 예금 인출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62]

6·25 당일부터 38도선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밀리고 밀려 서울까지 이르러 부상자와 병약자를 포함한 피난민이 다수 발생하자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철수에 따른 피난민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철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서울 철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63] 서울-수원간 국도에서도 군경이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도로상의 군 수송 작전이 방해를 받았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적의 전면 남침시에 자연 장애물로써 양호한 지연 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의 악화는 군 병력과 피난민의 신속한 철수의 장애 요인이 되었고 또 적시에 한강을 도하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었다.

한편 서울은 적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울 이북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시내는 더욱 혼잡하였다. 38선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25일 새벽 북한군이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자 포격소리에 놀라 황급히 피난길에 나섰다. 38선 접경지 주민의 피난상황은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64]

38선 접경지 주민들의 피난 상황에 대해, 당시 경기도 장단서장 홍은식 경감에 의하면, 25일 "상오 10시쯤 벌써 고량포지서를 비롯한 모든 지서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피난민이 열을 지어 내려왔다"고 하였으며,[65] 당시 고대 조지훈 교수는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지만, 기분 나쁜 것은 분명히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에서 오는 피난민 대열을 보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66] 유진오 박사는 "바깥 큰 길에 피난민들이 들어왔으며, 청량리거리는 피난민으로 떠들썩하였다"고 하여,[67] 개전 당일부터 서울 이북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꽉 메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이북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경기도지사는 관할 각 군에 지시하여 급식과 치료대책을 마련케 하였으나 계속 그 대열이 서울로 쇄도하자 사회·보건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찾아 이들의 수용과 치료대책을 긴급히 강구토록 건의하였다.[68]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 당일부터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모든 서울 시민들은 길거리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정부는 피난민에 대한 비상계획이나 구호, 철수계획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분주하였다.[69]

보건부는 시내의 모든 개업의와 간호원에게 비상대기명령을 하달하는 한편 동두천과 의정부 방면으로부터의 피난민환자를 서울대부속병원과 서울시립병원 등에, 개성방면으로부터의 환자는 세브란스와 철도병원에, 옹진방면으로부터의 환자는 인천도립병원에 각각 수용하여 치료토록 하였으며, 임시 방역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70]

사회부는 서울시에 긴급히 지시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비롯한 돈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등 시내 6개소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게 하여 침구와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난민 대열이 계속 남쪽으로 밀리기에 이르자 내무부와의 협조를 거쳐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하여 피난민의 수용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일정 지역으로의 집중 이동을 견제하고 각 지방으로 분산 남하를 지도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긴급조치로 충북 37개소, 충남 55개소, 전북 43개소, 전남 162개소, 경북 66개소, 경남 117개소 그리고 제주 24개소, 합계 504개소의 수용소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전황의 악화로 피난민이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자 보건부는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하여 공공의료기관을 개방하고 개업의 및 간호원으로 의료방역반을 편성, 피난민에 대한 진료와 방역을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 결과로 200개의 의료방역반이 활동하기에 이르렀다.[71]

그러나 28일 아침까지 38선 접경지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황의 도가니였다. 서울 이북지역 주민의 소개 계획 없이 시행된 피난행렬은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피난민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행해 피난길에 나서고 있었다. 주민들은 탈출로를 찾아 아우성쳤고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다.[72] 모든 도로는 이들 피난민들과 전방부대에 보급할 탄약 및 보급품 추진차량과 뒤섞여 대단히 혼잡하였다. 예기치 않던

수십만의 피난민 인파가 몰려들어 모든 도로를 점하게 되자 병력과 보급품을 잔득 실은 수송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도착한 병력이 전선으로 적시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방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한편 적의 남침을 맞이하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여 피난민 구호를 담당하고 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남침 당일로 각급학교 교정에는 학도호국단원들이 모여 적의 남침을 규탄하고 김일성도당 타도궐기대회를 열어 마침내는 학도결사대 조직을 결의한 다음 그 대원에 앞장서 지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단지혈서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의과대학생들은 가운으로 갈아입고 부상병의 치료에, 여학생들은 적십자완장을 두르고 간호에 각각 나서게 되었다.

다음날 국방부 정훈국을 찾은 학생대표들은 학도결사대의 참전을 간청하였으나 군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체로 학도위문대를 조직한 다음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창동-미아리선에서 장병들을 위문하는 한편 진지구축과 탄약운반을 돕기도 하였다. 서울이 실함되기에 이르자 학도병들은 부상병을 찾아 지하에 숨겨주고 미처 후퇴하지 못한 장병들에게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 입혀 한강의 도하를 돕기도 하였다.

## 3. 전시 산업과 금융 통제 조치

### 1) 전시 기간산업의 통제 조치

북한이 불의의 기습을 자행하자 교통부는 이날 08 : 20을 기하여 개성에 이르는 경의선을 비롯하여 경원선, 경춘선의 정기열차를 운휴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중앙선은 잠정적으로 원주를 종착역으로 하여 운행을 계속키로 한 다음 국장회의를 소집하여 비상체제로서 전시수송본부를 설치키로 하였다.[73]

급편된 전시수송본부(총무부・운전부・운수부・조달부・시설부・공작부)는 산하 지방철도국에 긴급 지시하여 지방수송본부로 개편케 하는 한편 일반 화물열

차와 혼합열차(객화차 혼합)를 운영하는 전시체제를 갖추었다. 수송본부는 군량미 이외의 화물수탁을 즉각 정지시키고 전 철도원을 비상 동원하여 선로와 구내 경비를 강화토록 한 다음 수송본부의 별도지시에 따라 기관차, 화차 그리고 객차를 회송할 수 있게끔 대기케 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중앙청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군의 수송요청에 즉각 대응하게 하였다.[74]

전시수송본부의 통제 하에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25일 하루 동안에 동원된 차량은 기관차 30량, 객차 300량 그리고 화차 850량으로서 60개의 임시열차가 운행되었는데 북상열차와 회송열차로 혼잡을 이루자 육운국장을 비롯한 전 간부진이 진두지휘에 나서기도 하였다. 25일에 이어 다음날에도 임시열차의 운행이 강행되어 기관차가 40량, 화차가 1,000량에 이르렀다. 그런데 26일 오후부터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피난민이 밀려들기 시작하자, 남쪽으로의 회송열차를 소개열차로 개방하기로 하고 편승토록 하였는데 27일까지 그 수는 30개 열차에 달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점차로 악화하고 정부의 수원이동이 발표된 뒤인 27일 09 : 00에는 부산으로 떠나는 급행열차를 마지막으로 일반열차는 전면 운행 중지되었다.[75]

전시수송본부에서는 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가족 피난을 위한 특별열차를 마련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시의 농림부장관 윤영선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도를 사수할 것이냐 철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때 김석관 교통부장관이 '그러면 가족들만이라도 먼저 내려 보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김 장관이 '몇 시까지 열차를 서울역에 대기시킬 터이니 부녀자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싶은 분은 나오라'라고 하여 몇몇 장관들은 가족을 먼저 그 열차로 내려 보냈다"라고 하였다.[76]

또한 총무처 김덕보 비서관은 "26일 야반부터 27일 새벽까지에 걸쳐 장·차관 및 사회 각계의 주요인사 가족들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27일 07 : 00에 용산역에 대기 중인 열차 편으로 부산까지 피난시켰는데 서울역을 피하고 용산역에서 출발시킨 것은 시민들의 이목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77]

전시수송본부는 서울철수에 따라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내려가 대전철도국에 임시청사를 두었다가 대구－부산으로 내려가 계속 전시수송에 임하였는데 9·28 수복시까지 인명 155명을 비롯하여 선로 312㎞, 교량 152개소에 8.6㎞ 그리고 수도 29개소에 5㎞의 손실을 보았다.[78]

한편 전쟁이 발발하자 38도선 접경지역의 각 우체국에서는 군 통신을 보조하여 작전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25일 10 : 00에는 개성－장연우체국과의 통신이 두절된데 이어 26일에는 파주－동두천－의정부－덕정우체국과의 통신마저도 단절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지역의 우체국원들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직장을 고수하여 군 통신을 유지하였다.[79]

중앙전신국과 중앙전화국에서도 폭주하는 행정통신과 군사통신의 소통에 전력하였다. 특히 중앙전화국에서는 한점인 교환과장이 100명의 교환원을 독려하여 한강교가 폭파되기 직전인 28일 02 : 00까지 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그곳을 경비 중이던 육군의 1개 소대 병력이 철수하면서 동력실을 폭파함으로써 부득이 교환업무를 중단하였으나, 계속 직장을 고수하던 한점인 과장은 적들에게 납치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이동에 따라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한 체신부는 대전체신청에 임시본부를 두고 남하한 몇몇 간부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기구를 재편하여 전신전화시설을 보수 유지하면서 군통신망으로서의 활용에 주력하였다.[80]

한편 상공부는 발전과 배전의 원활을 기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오열의 난동과 태업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전업과 경성전기에 긴급히 지시하여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경비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연락관을 파견하여 현지 독려를 계속함으로써 27일까지 서울 배전에 큰 지장을 초래치 않았다.[81]

### 2) 전시 금융과 양곡 통제 조치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야기된 문제는 은행예금의 인출문제였다. 국방부 정훈국의 낙관적인 전황보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월요일인 26일 아침부터 각 은행문전에는 인파가 쇄도하였다.[82] 이 상황에 관하여 당시의 한국은행 총재인 구용서는 "25일 16 : 00에 한은간부급을 비상소집하여 다음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즉 은행정문을 열면 예금인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발권과 출납에 사전준비를 잘 시키고 금융계가 동요하지 않도록 일러두었다"고 하였다. 그는 "26일 10 : 00에 경제 관계장관과 금융계 인사들의 연석회의가 재무부에서 열렸을 때 나는 재무부장관 최순주에게 예금인출 증가에 대비하여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융자를 건의하고 나에게 재량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루 더 참아보자는 것이었다. 27일에 이르러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시민들이 은행문전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서 그 길로 재무장관을 찾아갔더니 예금지불을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불만이었으나 할 수 없이 1인당 10만원씩으로 제한하여 지불토록 하였다"고 술회하였다.[83]

그런데 이와 같은 긴급금융조치는 북한이 서울을 강점하고 정부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을 무렵인 28일에 긴급명령 제2호(별첨)의 발동으로서 형식요건을 갖추고 합법화하였다.

한편 이 무렵의 정부보유 달러 2,000만 달러가 일본 동경에 있는 외국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인출을 위한 서명권자가 한은총재를 비롯하여 부총재, 국장, 부장, 대리 등으로 예치은행에 통보되어 있었는데 만약 이중의 한 명이라도 적에게 잡혀 서명을 강요당할 경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용서 한은총재는 26일 21 : 00에 한은 동경지점장 천병규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서명권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동경주재 이사 김진형으로 하여금 예치한 정부 보유달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 무렵 공무원들의 봉급일은 매월 20일이었지만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쌀값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하자 재무부 일각에서 봉급의 가불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은행과장 이치녕은 공무원들이 20일 월급을 타기는 했지만 만약의 경우 그대로 피난을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제기하였으며, 이에 이재국장 송인상이 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뒷날 이에

대해 “세관국장 강성태, 회계국장 박희현, 사세국장 인태식 등과 상의하여 전공무원에게 2개월분의 봉급을 더 주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대하여 금고금에서 즉각 지출토록 한 다음 각 부처에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때가 27일 정오여서 이미 자리를 비운 공무원들이 많고 지휘계통 또한 문란하여져서 이 돈이 각 부처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여 둘 것은 국장회의에서 결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재국장으로서는 월권적인 행위였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주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술회하였다.[84]

이처럼 정책지도 내지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장 또는 은행의 총재선에서 당면한 주요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것은 정책의 빈곤에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순주 장관이 비상 국무회의가 끝난 27일 아침 관계자에게 적절한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나마 재무부와 한은의 주요간부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긴요한 업무를 처리한 것은 다행이었다.

특히 구용서 총재는 국방예산을 조기 인출케 하여 각 군에 영달케 함으로써 전쟁수행에 이바지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한은보유 금은을 27일 14 : 00에 긴급 반출하였다. 그러나 군에서 제공된 트럭으로 89상자로 포장된 금 1,070kg와 은 2,513kg만을 반출하였지만, 나머지 금 223kg과 은 15,788kg은 미발행 한국은행권의 일부는 지하금고에 그대로 두고 미처 반출하지 못하였다.[85]

서울 사세청 산하의 각 세무서에 보관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측량원도 등은 조직적인 철수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부득이 이것들은 방화, 방습장치가 되어 있는 각 세무서의 지적창고에 보관하고 문을 자물쇠로 잠근 채 그대로 철수하여야만 하였다.[86]

한편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으로 시민생활이 위협을 받자 각 시도에 지시하여 각 생산공장의 최대 가동과 재고품의 출하를 독려토록 하면서 시장가격의 통제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그러나 생산의 지연과 수송력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한 손실은 다른 생산부문에서도 컸지만 전력시설에 있어

서는 더욱 심하여 청평이 50%, 섬진강 30%, 보성강 30%, 영암 50%, 영월 40% 그리고 당인리 20%의 발전시설의 파괴 또는 손상을 보여 전력사정은 한때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일반시민들의 가수요 현상이 급증하는 반면에 지방미의 반입이 급감 또는 중단되면서 곡가의 폭등은 고사하고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87]

이에 농림부는 정부양곡 수매와 관리대행기관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긴급히 지시하였다. 먼저 시내 풍국제분회사(용산구 문배동 소재)에 보관중인 정부양곡 전량 4,800석을 26일 오전 중으로 방출케 하고, 아울러 각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미와 각 지방에 분산보관중인 정부양곡의 반출을 독려하였다. 또한 농림부는 양곡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주일 이내에 외국산 잡곡 6만 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라디오와 신문보도를 통하여 시민에게 호소하면서 쌀값을 2,600원대로 제한토록 하였다.[88]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과 경찰에서는 일제히 은닉미의 색출에 나서면서 매점매석자를 극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절대량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농림장관 윤영선은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서는 양곡파동이 일어나 농림부에서는 이의 조절을 위하여 안간힘을 썼는데 그 방법은 서울에 있는 정부보유미 방출과 영세민에 대한 배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수원까지 내려갈 때에는 군량미의 공급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사이도 없었지만 대전에 내려가서부터는 이의 공급이 농림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89]고 하였다.

그는 "국방부의 제3국장 김일환 대령이 이를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국방부측에서 요구하는 양을 농림부는 각 시도에 할당하여 이를 공급한 것이다. 특히 나의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서울을 떠날 때 주석균 차관과 농정국장이 '우리는 여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시민에 대한 양곡배급을 계속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나왔는데, 뒤에 알고 보니 차관은 간신히 남하하였으나 농정국장은 북한에 납치되고 실무를 담당하였든 최규하 양정과장은 향리인 강원도로 피신하여 갖은 고초를 겪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90]

정부에서는 월남한 피난민과 일부 영세민에게 1일 백미 2합씩의 배급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서울에서는 지방미의 반입에 그 수요를 의존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곡가는 상승추세에 있어서 6월로 접어들면서 백미 중품(2등품) 1두(소두)가 2,3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무렵 농가호수는 247만호로서 논 123만 정보와 밭 83만 정보를 경작하고 있었으나 수리안전답이 43%에 지나지 않아 농업생산이 기상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농림부에서는 외국산 양곡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소두 한말에 620원에 매입한 쌀을 1,400원씩 일부 업자에게 4,000석을 경매하여 곡가조절을 꾀하였으나 큰 구실을 하지 못하여 제2대 국회의 개원벽두에 대정부 공격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91]

# 제4절 분석 및 평가

## 1.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미비

남침 첫날 정부와 국군 수뇌부가 보여준 전쟁지도, 전술부대 지휘관들이 행사한 작전지휘, 그리고 소부대 지휘관들이 수행한 지휘는 각각 다른 성격과 양상을 드러내었다.[92] 국가정책차원에서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실질적인 비상계획과 구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사작전과 대외관계 및 국내정치 등 제요인을 적절히 조화시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체계화된 안보정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남침 당시 군 최고통수권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의 군사문제를 보좌하는 직무를 띤 사람은 신성모 국방장관이었으나, 불행히도 이들은 군사문제에 어두워 전쟁지도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민간인 철수계획이나 국가동원 계획 등 비상계획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혼란 상황은 극에 달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였으며 간혹 전달되는 전선 상황은 위급하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들 뿐이었으나, 적절한 대책을 짜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의와 협의를 거듭할 따름이었다. 대책을 결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었으나 그는 군사 분야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지도는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었다.

## 2. 북한군 남침 조기경보체제 미흡

전쟁대비차원에서 조기경보체제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훈련을 가장해 기동함으로써 남침 조기경보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우리 첩보원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촬영한 T-34 전차의 사진과 전방부대의 전쟁임박 상황보고마저도 '북한군의 부대교체 징후'정도로 판단하는 등 지극히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말았다.

6월 23일 24:00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군 수뇌부는 일요일(25일) 북한군의 전면 침공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월 25일 07시부터, 국군지휘부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작전지도가 시작되었다.[93]

## 3. 국군 수뇌부의 비현실적인 전황 분석과 조치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이 전 전선에 걸친 전면남침이란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사실을 곧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남침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그것도 북한군의 공격사실을 전하면서도 이미 그들을 '국군이 격퇴하고 추격 중'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보도를 전하였다. 이 기간동안 국군 수뇌부는 전쟁 전 대비와 전략, 전술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94] 채 총참모장은 작전명령 85호를 하달하여 후방사단의 북상을 지시하고, 서울지역에 위치한 모든 학교 및 부대병력의 집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춘천의 제6사단 및 강릉의 제8사단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옹진반도의 제17연대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즈음, 6월 25일 12시경, 북한군 야크 전투기는 용산과 김포부근에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서울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13시경, "북한군의 전면침

공을 받아 이를 격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요지의 국방부 담화문에 서울시민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육군본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95]

북한군의 침공으로 빚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채 총참모장은 당시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적의 침공은 전면남침이 아니라 붙잡힌 공비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곧 남쪽의 부대를 집중하여 적을 공격할 것이다"고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채 총참모장은 의정부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전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15 : 20경 옹진반도의 제17연대의 해상철수를 명하고, 16 : 00경에는 육본예비의 기갑연대와 포병학교가 보유한 장갑차를 각 사단에 배속하였으며, 후방 3개 사단의 북상을 재촉하였다. 후방 병력 중 대전의 제2사단 지휘부와 제5연대 제2대대가 18 : 00경 서울에 도착하였다.

## 4. 축자적인 병력투입으로 전력 소모

전방에 배치된 국군 부대의 연대장 및 사단장 등 지휘관들은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그렇게 감행되리라고 판단하지는 못했으나, 초기 전투에서 그들이 보여준 지휘력은, 군 수뇌부가 직접 관여한 의정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이들 전술지휘관들은 실제로 방어지역을 담당하여 열세하고 부족한 병력이나마 이들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공격해올 경우에 이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지휘관들은 후방의 증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 지연시키려 하였으나, 중

과부적의 논리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지역에서의 작전지휘는 여러 가지 되새겨볼 요소가 많았다. 먼저, 북한군의 철저한 기도비닉으로 이 지역의 지휘관들은 북한군의 전면공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7사단은 최소한의 병력만 전방에 배치해 놓고, 외출·외박·휴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6월 25일 새벽 지휘관들 역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만으로 북한군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부족한 병력으로 실시한 반격은 병력의 소모만 가져와 부족한 병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포천쪽에서 남하한 북한군 3사단이 의정부를 점령하자, 동두천 지역에서 싸우고 있던 병력의 퇴로가 차단되기도 하였다. 의정부 지역에서의 국군의 작전지휘는 준비태세 미비, 지휘계통의 혼선, 축차적이고 단편적인 역습에 의한 병력소모, 병력보존을 위한 적극적 고려와 조치의 부재 등과 연관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 5. 소부대 전투지휘자들의 헌신적인 전투지휘

초기 전투과정에서 나타난 일선 지휘자들의 지휘는 필사적이었고 헌신적이었다. 북한군이 앞세우고 내려오는 전차와 자주포를 멈추게 할 효과적인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군 병사들과 초급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파괴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한 병사들, 분대장, 중대장들은 특공대와 결사대를 조직하여 박격포탄 및 수류탄 뭉치와 화염병을 손에 들고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를 공격하여 이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38선 전역에 걸쳐서 적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십수 명으로 구성된 특공대, 결사대 등이 조직되었고, 이들의 활약과 희생으로 일반 병사들이 "우

리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일말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축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이 확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급 지휘관들과 자원한 병사들이 감행한 이러한 육탄공격만으로 절대적으로 열세한 병력과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보유하고 있던 57㎜ 대전차포나 2.36″로켓포를 가지고도 북한군이 몰고 내려오는 전차나 자주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초급지휘자들은 특공대나 결사대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해야만 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육탄공격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산화했으며, 생존한 경우에도 다음 전투에서 이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예외 없이 38선 초기전투에서 발휘되었다.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병력과 화력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으나 이들의 희생으로 그 열세를 부분적으로나마 만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급지휘관들이 몸으로 보여준 지휘는 가히 헌신적이고 결사적이었다고 평가된다.

# 주 (註)

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787.
2) 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권, 1981, pp. 69-72.
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3호(1950. 6. 25, 06 : 00)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577.
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08 : 00), 제85호(1950. 6. 25, 11 : 00).
6) 해군본부 「작전명령」 갑 제18호(1950. 6. 25, 09 : 00).
7)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788.
8)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1973, p. 54.
9) 위의 책, p. 55.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575.
11) 위의 책.
12) 육군 정보국 첩보대 박창암 중위 증언록.
13) 육군본부 상황실 당직사령 조병운 대위 증언록.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577.
15) 육군본부 작전국 이치업 대령 증언록.
16)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증언록;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 증언록.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08.
18) 이형석 대령은 참모장 박승일 중령, 인사참모 박남표 소령 등 7명의 참모진만을 인솔하고 다음날 아침에 급거 광주로 부임하여 제5사단이 출동한 이후 그곳에 사령부를 신설, 이날부터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 증언록.
2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2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1951, B11.
22) 『한국전쟁사』 제1권, p. 4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21.
23)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1973, p. 18.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11.
25)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 공포의 특례에 관한 건)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였다.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14.
27) 위의 책, p. 608. 이것은 당시 방송국장 대리 문정호와 정훈국 보도과장이 방송 원고를 다듬어서 당직 아나운서인 위진록으로 하여금 방송하게 한 것이었다.
28)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 증언록.
29) 이때 경향신문 1950. 6월 25일자 호외의 내용은 "금일 04 : 00에서 08 : 00 사이에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불법남침을 자행하였다. 옹진, 개성, 장단,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강릉 등 각 지구 정면에서 북한은 거의 동시에 남침을 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상륙을 기도하였다. 국군은 전역에 걸쳐 이들을 요격하기 위하여 긴급하고도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동두천 정면에서 그들은 전차까지 동원하여 공격하였으나 우리 대전차포에 의해 격파되고 말았다.(중략) 군은 이들에게

단호한 응징태세를 취하고 각 지구에서 용감무쌍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전 국민은 군을 신뢰하고 미동함이 없이 각자의 직장을 고수하면서 군 작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30) 정훈국 홍천 중위 증언록.

31) 대통령비서실 황규면 비서관 증언록.

32) Sawyer, 앞의 책, pp. 114-119.

33)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N.Y.: Double day & Company, 1955, p. 332.

34) 「필립대사의 메모」(1950. 6. 26), *FRUS 1950*, Vol.Ⅶ Korea, 1976, p. 157.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14.

36)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p. 76-78.

37) 1950년 7월 1일에는 키드리(Keethly)호 편으로 105㎜ 포탄 10,500발, 81㎜ 박격포탄 265,000발, 60㎜ 박격포탄 89,000발, 소총실탄 2,480,000발이 부산으로 급송되었는데 이것은 트루먼이 맥아더 원수에게 대한 무기원조명령이 하달되기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3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1951, p. A69.

39) 한표욱, 앞의 책, pp. 76-78.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875.

41) 유엔 한국위원단은 27일에 서울을 떠나 수원에서 동경으로 일단 이전하였고, 다시 7월 3일에 소수의 연락위원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전에 복귀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였다.

42)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 중 지지국을 7월 4일 현재로 41개국을 확보하였으며,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는 26일에 5,000만 달러의 대한추가원조를 가결한데 이어 29일에는 상원세출위원회에서 대한경원(對韓經援)으로 1억 달러의 지출을 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합동참모본부사』(상), p. 62.

44) 위의 책, p. 69.

45) Paige, *The Korean Decision* (N.Y.: Pantheon Books, 1968), pp. 116-121.

46) Appleman, 앞의 책, p. 43.

47) Mag, CH KMAG 080 to DA(1950. 6. 25); 『미합동참모본부사』(상), p. 466 재인용.

48) 「제섭의 각서」(1950. 6. 26), *FRUS 1950*, Vol.Ⅶ Korea, pp. 178-183.

49) 위의 자료. 그 내용은 "국동 해공군부대에 가해진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그들은 한국군에게 재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50) Paige, 앞의 책, pp. 202-206. 안보리는 그날 아침에 열도록 예정되었으나, 인도와 이집트 대표가 그들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기 위하여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그 회의의 결의는 미국이 해·공군에게 한국전쟁 작전참가를 명령한 후에 나오게 되었다.

5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1951, p. C48.

52) 내무부장관 백성욱 증언록.

53)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D7-D11.

54) 위의 책, 1951, pp. D23, D27.

55)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p. 55.

56) 그 결과 6월 30일에 인천형무소에서 경비 미흡을 틈타서 탈옥사건이 일어나 폭동의 효시가 되고 뒤이어 다음날에는 대전형무소에서 탈옥 일보 전에 진압되었다.

5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1951, pp. C48-49.

58) 위의 책, p. C49.

59) 앞의 책, pp. CC48-49; 경찰 발표에 의하면 당시 불순분자들이 저지른 태업활동은 없었지만 도시지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수없이 증가되었다.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p. 2-3.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31.
61) 위의 책.
6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C48-C49.
63)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June 1950 and December 1950 to January 1951*. p. 2. 당시 한국 정부의 각 기관들이나 육군 또는 경찰에서 서울 철수작전이나 민간인 철수계획의 필요성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한국군이 서울을 통과하여 협조된 철수를 한다는 계획도 없었다.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93; 「갑판사관 정원석소위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65) 「장단경찰서장 홍은식 경감 증언」,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p. 69.
66) 「고대 교수 조지훈 증언」, 위의 책, p. 41.
67) 유진오, 「서울탈출기」, 『고난의 90일』, p. 12.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33.
69)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p. 2-3; 서울시 인구는 1950년 2월 25일부로 145만 명의 시민이 319,000세대, 191,200동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사』 제1권, p. 632.
70) 위의 책, p. 633.
7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D36-D37.
72)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p. 33.
73)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D19-D20.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28-629.
7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D19-D20.
76) 농림부장관 윤영선; 교통부장관 김석관 증언록.
77) 총무처 김덕보 비서관 증언록.
7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pp. D19-D20.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29-630.
80) 북한은 통신 전화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고, 북한의 통신부상의 통제하에 서울체신청을 본부로 하여 통신을 유지하였다. 체신부 산하의 인적손실은 사망 67명에 납치 63명 그리고 행방불명 76명과 부상 28명으로서 합계 234명에 이르렀으며 체신부 본관을 비롯한 25동의 건물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다. 또 자동식 전화교환기 77대를 비롯하여 4,771점의 기재손실과 47,000㎞의 전선 그리고 82,000본의 전신전주가 절단·도괴 또는 소실되었다.
81) 1949년에는 청평-섬진강-영암-보성강의 수력발전소에서 23,000㎾, 영월-당인리 화력발전소에서 37,000㎾, 부산 및 인천항의 발전함에서 15,000㎾, 계 75,000㎾의 전력을 얻게 되어 국내수요량 10만㎾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민의 절전으로 이를 감내하고 있었다.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23-626.
83) 한국은행 총재 구용서 증언록.
84) 이재국장 송인상 증언록.
85) 이때 지하금고의 금은과 미발행권은 적의 서울 침공과 더불어 약탈되었는데 북한은 이 미발행권을 대한민국의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남발함으로써 정부는 이해 9월에 통화 교환조치를 취하였다. 반출된 금은은 헌병 20명과 한은직원 2명의 호송 하에 29일 진해해군통제부로 이송하여 보관하였다가 동년 8월 1일에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기탁하였는데 뒷날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입할 때에 금 지분출자로 충당하였다.

86) 이것은 수복 후에 확인한 결과 종로세무서에서 남산의 임야도 1매만이 없어졌을 뿐으로 전량이 그대로 있었다.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26-627.
88) 위의 책, p. 627.
89) 농림장관 윤영선 증언록.
90) 농림부 양정과장 최규하 증언록.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28.
92) 평가부분은 온창일, 「한국군 지휘관의 리더십」,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1, pp. 71-88 ; 육군대학, http://college.army.mil/koreanwar/html 참고.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578.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상), p. 108.
95) 위의 책, p. 608.



# 제 3 장 서부지역 작전


| | |
|---|---|
| 제 1 절 | 작전 개요 |
| 제 2 절 | 북한군 및 국군 상황 |
| 제 3 절 | 옹진반도 전투 |
| 제 4 절 |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
| 제 5 절 | 강화 - 김포 전투 |
| `제 6 절 | 분석 및 평가 |

# 제 1 절 작전 개요

서부지역 작전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공격이 개시된 25일 미명부터 28일까지 서부전선에서의 방어작전이다. 서부전선에서 아군은 국군 제17연대가 적을 저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해상 철수하였으며, 국군 제1사단이 1개 전차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1,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임진강을 연한 주저항선과 봉일천 일대의 최후저항선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그 결과 중과부적으로 국군은 수도권 일원에서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조기에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옹진방면의 제17연대 정면에서 북한군은 옹진반도를 조기에 장악할 기도로 제3경비여단에 제6사단 제1연대를 배속하여 국군 제17연대 정면을 공격하였다. 당시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45㎞의 38선상에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옹진부근에 배치하여 불과 7~8㎞의 종심을 가진 전투지대를 방어하고 있었다. 본래 육군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면공격을 받았을 경우 연대는 전황에 따라 해상철수를 단행하여 그 병력을 요소에 중점 전용하는 것이었다.

제17연대는 북한군이 23일부터 병력과 차량을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격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비하던 중 25일 04:00 전면포격과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병력과 지형의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예비대를 투입하면서 분투하였으나, 적 제1연대가 13:00 대대간의 전투지경선인 취야-양원 및 취야-강령의 국도를 통하여 진출함으로써 방어지대가 양분되고 말았다.

따라서 철수명령에 따라 연대본부와 포병부대를 포함한 우측 제3대대는 연대장의 지휘하에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이미 계획된 부포항으로 집결하였고, 이들은 26일 14:00에 해군에서 지원한 LST편으로 인천까지 해상 철수하였다. 또

좌측 제1, 제2 양대대는 적이 옹진읍－부포항의 중간지구를 돌파하였으므로 부득이 사곶항을 목표로 철수한 다음 민간 선박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개성, 고랑포 방면의 국군 제1사단 정면에서 북한군 제1군단은 제6사단(-), 제1사단과 제203전차연대를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북한군이 서울 북쪽 동두천, 포천의 주력부대와 비견할만한 병력을 이곳에 투입한 것은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기갑부대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축선으로써 서울의 서측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개전 당시 94㎞ 정면의 38도선 상의 제12, 제13 2개 연대를 배치하였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수색에서 교육 훈련 중이었다. 이중 제12연대는 사단 전초부대임과 동시에 전군의 측방경계부대로써 연백지구－개성에 배치되어 임진교의 유일한 철수로를 측배에 두고 광정면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적을 저지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 밑에 있었다.

25일 04 : 00 북한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은 개성과 고랑포 지역에 대하여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전차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전선부대들은 경계진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준비된 주저항진지로 철수하였다. 개성 방면의 제12연대는 김포반도로 도하 철수하였으며, 고랑포 방면의 제13연대는 임진강 도하 가능지점에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또 예비대인 제11연대가 문산돌출부 일대에 배치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주진지 전면에 걸쳐 적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임진교 동북 4㎞ 지점에서 급속 도하를 시도하면서 문산돌출부 일대를 공격하였다. 제11연대는 26일 정오 역습을 실시하여 일시적이나마 주진지를 회복하였으나, 제13연대는 가여울 지역으로 전차와 함께 도섭한 적으로부터 퇴로를 위협받았다. 사단장은 의정부 실함소식을 전해 듣고 점차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주진지에서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봉일천 최후저항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27일 사단장은 제13연대와 제15연대(-)를 전방에, 제11연대를 예비로 종심 배치하고, 아울러 주진지를 회복할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8일 미명

<상황도 3-1> 서부지역 상황도


38°선
금촌
구촌리
어현
차남산
개성
영룡동
대련리
대덕산
고랑모
거여불
지하리
적성
송현동
감룡동
견봉산
아곡동
잠파리
덕현리
금파리
파평산
장단
수유리
요촌동
마정리
임진강 철교
화석동
금곡리
고천리
신속리
대룡리
거곡리
돈산
송산리
직전리
굴촌리
동암리
파주
창만리
휴조강리
석휴포
위전리
금촌
강포
수색
중림천
강 화 도

예정대로 단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듯하였으나, 이날 아침 적이 서울 시내로 공격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지면서 사단은 다시 전선을 재정비해야 했다.

전황은 급변하여 28일 오전부터는 적의 기마대가 방어선 좌측에 출현하여 반격부대의 후방을 위협하는 한편, 27일부터 출격하기 시작한 미 공군은 전선을 판별하지 못한 채 대지공격을 감행하였으므로 사단은 이날 오후 봉일천 선에서 철수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행주와 이산포 2개 지점의 도선장으로 나누어 한강을 도하하였다.

한편 봉일천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강 하구지역인 강화, 김포지역에서 적 제6사단(-)이 김포-영등포 방면으로 서울의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었다. 적은 개성점령 후 곧바로 국군을 추격하여 영정포와 석류포에 집결하여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시급히 김포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그곳으로 도하한 제12연대 제2대대를 포함하여 남산학교와 보병학교 후보생, 공병학교 학생, 보국대대, 그리고 기갑연대 일부 부대를 통합 편성하여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김포지구사는 통진을 중심으로 한강하구와 염하수로를 이용하여 김포반도를 방어하도록 진지를 편성하였다.

김포지구사 예하부대들은 26일 16:00부터 시작된 적의 도하정찰을 저지하였으나, 27일 미명부터 적의 본격적인 도하가 시작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김포지구사는 육본으로부터 증원부대를 배속 받아 운유산-73고지선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방어부대는 28일 미명 적이 공격을 재개하자 2.36″로켓포와 장갑차의 37㎜ 직사포 등을 집중하고 소총탄이 소진될 때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방어선의 일부가 무너지고 말았으며 결국 김포로 물러나 적을 계속 지연하게 되었다.

# 제 2 절 북한군 및 국군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북한군 전투편성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서울 북쪽을 공격하게 하고, 제6사단(-1)을 금천－개성축선으로,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1)의 지원 하에 구화리－고랑포－문산 축선으로 투입하여 서울 서측으로 각각 공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6사단 제1연대와 38경비 제3여단으로 옹진반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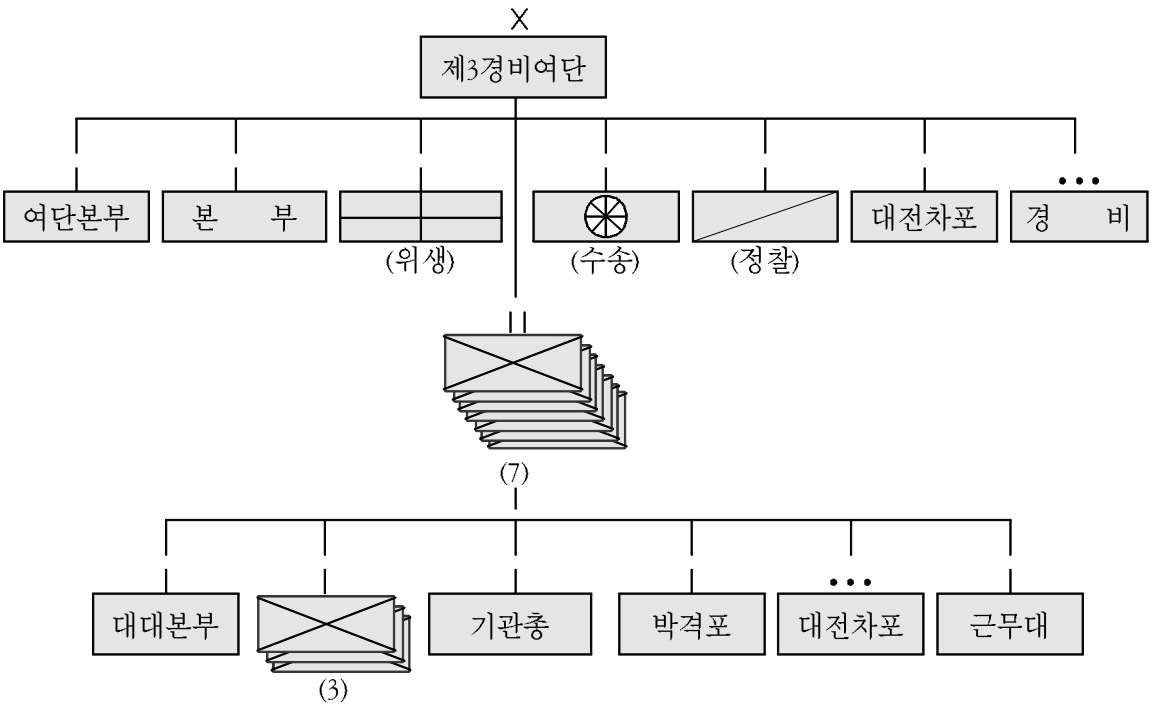
제3경비여단의 편성은 여단본부 예하에 7개 보병대대와 본부중대, 위생중대, 수송중대, 정찰중대, 45㎜ 대전차포중대, 경비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대는 대대본부와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 대전차포소대, 근무대로 편성되어 있었다.[1)]

북한군 제6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1・제13・제15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통상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북한군 제1사단도 보병사단 편제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2・제3・제14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고, 각 대대는 3개 중대,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고속기동부대로 운용되는 제203전차연대는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되었으며, 제2

<표 3-1>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 6)




<표 3-2> 서부지역 북한군 전투편성[2]

| | 구 분 | 주요 부대 | 비 고 |
|---|---|---|---|
| 제1제대 | 제3경비여단 | 제1·2·3·4·5·6·7대대 및<br>제6사단 제1연대, 치안대대 배속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br>• 포병연대는 76㎜(2개 대대), 122㎜(1개 대대)로 편성 |
| | 제6사단(-1) | 제13·15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1사단 | 제2·3·14보병연대, 포병연대 | |
| 고 속<br>기동부대 | 제203<br>전차연대(-1) | 제1, 제3전차대대<br>제2전차대대 : 동두천 축선 | • 전차연대는 3개 대대<br>• 전차대대는 3개 중대<br>• 전차중대는 전차 4대로 편성<br>* 대대(13대), 연대(40대) |

<표 3-3> 서부지역 북한군 포병화력[3]

| 방면 | 부대 | 계 | 122㎜ 견인포 | | 76㎜ 곡사포 | | 45㎜ 대전차포 | 박격포 | |
|---|---|---|---|---|---|---|---|---|---|
| | | | 평사포 | 곡사포 | 자주포 | 견인포 | | 120㎜ | 82㎜ |
| 옹진, 연안 | 제3경비여단 포병 | 131 | - | - | - | 20 | 33 | 10 | 68 |
| | 제1연대 포병 | 66 | - | 4 | 5 | 12 | 12 | 6 | 27 |
| 개성 | 제6사단 포병 | 149 | - | 8 | 11 | 28 | 36 | 12 | 54 |
| | 제17포병연대 제2대대 | 12 | 8 | 4 | - | - | - | - | - |
| 고랑포 | 제1사단 포병 | 211 | - | 12 | 16 | 36 | 48 | 18 | 18 |

대대가 동두천 방면의 제4사단 지역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따라서 국군 제17연대의 방어정면의 북한군 전력은 완전편성의 1개 경비여단 및 1개 보병연대에 1개 자주포중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의 북한군 전력은 북한군 제6사단(-1) 및 북한군 제1사단에 제203전차연대(-1)가 있었으며 군단·사단·연대포병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옹진, 연안 방면의 제3경비여단 및 제1연대 포병화력으로는 122㎜ 곡사포 4문, 76㎜ 견인포 32문, 76㎜ 자주포 5문, 45㎜ 대전차포 45문 등 197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개성 방면의 제6사단 포병 및 제17포병연대 제2대대 화력도 122㎜ 평사포 8문,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28문, 76㎜ 자주포 11문, 45㎜ 대전차포 36문 등 161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부지역의 제1군단, 제3경비여단, 제6사단, 제1사단 등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는 군단장에 김웅(金雄) 중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김재욱(金在郁) 소장, 참모장 유신(柳新) 소장이 있었고, 제3경비여단장은 최현 소장이었으며, 제1사단은 사단장 최광 소장을 비롯하여 제2연대장 김양춘 대좌, 제3연대장 이창권 대좌, 제14연대장 황석 대좌, 포병연대장 현학봉 대좌였으며, 제6사단에는 사단장 방호산, 제1연대장 김후진 대좌, 제13연대장 한일래 대좌, 제15연대장 조관 대좌,

<표 3-4> 서부지역 북한군 지휘관 현황[4)]

| 구 분 | | 계 급 | 이 름 | 비 고 |
|---|---|---|---|---|
| 제1군단 | 군 단 장 | 중장 | 김 웅 | 조선의용군 출신 |
| | 부군단장 | 소장 | 김재욱 | |
| | 참 모 장 | 소장 | 유 신 | |
| 제3경비여단 | 사 단 장 | 소장 | 최 현 | 제88여단 출신 |
| 제6사단 | 사 단 장 | 소장 | 방호산 | 조선의용군 출신 |
| | 제1연대장 | 대좌 | 김후진 | |
| | 제13연대장 | 대좌 | 한일래 | |
| | 제15연대장 | 대좌 | 조 관 | |
| | 포병연대장 | 중좌 | 이 민 | |
| 제1사단 | 사 단 장 | 소장 | 최 광 | 소련군 출신 |
| | 제2연대장 | 대좌 | 김양춘 | |
| | 제3연대장 | 대좌 | 이창권 | |
| | 제14연대장 | 대좌 | 황 석 | |
| | 포병연대장 | 대좌 | 현학봉 | |
| 제203전차연대 | 연대장 | 대좌 | 최율석 | • 소련거주 한인 2세<br>• 전차병으로 독소전쟁 참전 경험자 |

포병연대장 이민 중좌였으며, 제203전차연대장은 최율석 대좌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 2) 공격준비태세

### (1) 북한군 제3경비여단(옹진-연안 방면)

서부지역의 북한군은 1950년 6월 10일부터 동 23일 사이에 훈련을 가장하여 전개함으로써 남침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제3경비여단은 옹진반도 및 연백

지구로 예하 7개 대대를 재배치하였으며, 제6사단 제1연대는 동일 사리원에서 옹진 북쪽 취야로 이동하고 제6사단(-)은 개성 북쪽으로, 제1사단은 6월 23일 남천에서 구화리로 이동하여 각각 전개하였다.

먼저 옹진지구에서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아군과 대치한 북한군 제3경비여단(소장 최현)은 사령부를 옹진 북쪽 22㎞ 지점인 죽천에 두고, 개성 서북쪽 백천에서 옹진반도 서쪽까지의 38도선 접경에 공격부대를 배치하였으며, 1개 대대는 죽천에 두고 있었다. 여단은 예하에 7개 대대가 있었으며 전쟁 직전에 제6사단 제1연대 및 치안대대를 배속 받아 공격력을 보강하였다.[5)]

제3경비여단은 공격개시 당일 옹진－연안반도를 6개 목표로 각개 돌파하며, 이때 제1연대가 강령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17연대 진지를 양분하여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를 점령하고 이후 점령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제3여단은 최초 여단 예하 제1・제2・제3・제4・제5・제6・치안대대와 여단에 배속된 제6사단 제1연대가 병진공격하고 제7대대를 예비로 하였다. 여단의 최근임무는 옹진북쪽 4㎞, 연안북쪽 5㎞ 점령하는 것이었으며, 차후임무는 옹진, 강령, 청단, 연안, 배천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일 옹진, 연안

<표 3－5> 제3경비여단(서해안방면 타격)

| | |
|---|---|
| 작전 개념 | ○ 여단은 공격개시 당일 옹진－연안반도를 6개 목표로 각개돌파 진출,<br>이때 제1연대가 강령으로 진출, 국군 제17연대 진지를 양분<br>○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를 점령하고 이후 점령임무 수행 |
| 부대 운용 | ○ 최초 여단 예하 7개 대대와 제1연대가 병진공격<br>• 공격부대 : 제1・2・3・4・5・6・치안대대 및 제1연대<br>• 예비 : 제7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옹진북쪽 4㎞, 연안북쪽 5㎞ 점령<br>• 차후임무 : 옹진・강령・청단・연안・배천 점령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옹진, 연안 남쪽 4㎞ 지점 진출<br>• 2일차 목표 :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 점령 |

남쪽 4㎞ 지점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공격 2일차에 옹진반도 및 연안반도 전체를 석권한다는 것이었다.[6]

여단장은 전쟁직전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옹진 서북쪽에 제5, 제6대대, 옹진 북쪽에 제3, 제4대대를 배치하고, 옹진 동북쪽 양원방면에 제1연대를 배치하였으며, 청단북쪽에 치안대대를, 연안북쪽에 제3대대, 그리고 백천북쪽에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제3여단장은 여단이 담당하는 전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부 해안까지 진출하는 주요 도로들을 따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하였다. 즉, "2개 보병대대(제5, 제6대대)는 태탄도로, 읍저리 방면의 오만동, 구석동 지역을 공격한다. 2개 보병대대(제2, 제4대대)는 옹진 방면의 사동(은동), 527고지(국사봉) 지역을 공격한다. 제6사단 예하 제1연대는 358고지(까치산), 강령리 방면의 작산동(까치산), 금병리 지역을 공격한다. 마전동, 마소오 선까지 진출한 후 남서 방면을 공격하는 병력 일부와 북쪽을 공격하는 대대들이 합동으로 옹진을 점령한다. 치안대대는 노동리, 신릉동선에서부터 석천리, 한기동 방면으로 진격한다. 대대는 간선도로 및 철도선까지 진출한 후에 막례리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를 따라 진격, 연안을 공격하는 대대와 협조하여 연안을 점령한다. 제3대대는 중성, 연안 방면으로 진격한다. 제1대대는 361고지의 적을 격파하고 서북쪽으로부터 백천을 공격, 점령한다. 이후 배천 남쪽 토현리, 창동리 방면으로 공격을 확장한다. 병력 일부는 백천 동남 삼가리 동쪽 2㎞ 지역에 위치한 한강 도선장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여단의 좌측 전투지경선은 와룡대(개성 동북쪽 16㎞), 대원리(개성 동북쪽 6㎞), 고두산리(개성 동쪽 6㎞), 사천(판문점 서쪽을 지나 임진강으로 흐르는 하천)하구이며, 와룡대와 사천 하구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지점들은 제6사단(-1)이 통제하도록 부여되었다.

### (2) 북한군 제6사단(개성 방면)

개성－김포방면의 제6사단(-1)은 전면의 적을 격파한 후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이어 김포－영등포선으로 진출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며 공격 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2일차에 영등포로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 병진으로 제15연대와 제13연대(-1)가 병진공격하게 하고, 제13연대 제3대대, 사단 교육대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사단의 최근임무는 개성 남쪽 8㎞ 강리－고두산리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차후임무는 개성 남쪽 14㎞ 고척리－대룡리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공격 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일부부대는 한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공격 2일차에는 통진－백석현－영등포로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개성반도를 점령하기로 한 북한군 제6사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 받았다.[7] 최근임무는 개성을 점령하고 강리(개성 서남 12㎞), 개풍(토성, 개성서쪽 9㎞), 고남리(개성 남동 2㎞), 고두산리(개성 동쪽 6㎞)선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이후 계속하여 고척리(개성 서남쪽 13㎞), 풍덕리(개성 서남쪽 14㎞), 상도리(개성 남쪽 12㎞), 대룡리(개성 동남 15㎞)선까지 진출한다고 계획하였다.

<표 3－6> 제6사단(개성－김포 방면 타격)[8]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전면의 적을 격파한 후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이어 김포－영등포선으로 진출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br>○ 공격 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2일차에 영등포로 진출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br>• 제1제대<br>－ 15연대 : 1개 포병대대, 자주포 포대, 전차중대(-1)<br>－ 13연대(-1) : 1개 포병대대, 자주포 포대, 전차소대<br>• 제2제대 : 제13연대 제3대대, 사단 교육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개성 남쪽 8㎞ 강리－고두산리 점령<br>• 차후임무 : 개성 남쪽 14㎞ 고척리－대룡리 점령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개성반도 장악, 일부 한강 도하<br>• 2일차 목표 : 통진－백석현－영등포 진출 |

첫째 날 오후 늦게 병력 일부로 하여금 개성 반도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하조강리(개성 남쪽 20㎞)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고, 둘째 날 아침에 통진(강화 동남 6㎞, 현 김포시 통진면 군하리), 백석현(통진 서쪽 2㎞) 고개, 마곡리(통진 서쪽 8㎞) 선을 따라 강의 남쪽 강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서울의 적 병력이 서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영등포로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갖춘다고 계획하였다. 병력 일부는 인천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좌측 전투지경선은 와룡대(개성 동북쪽 16㎞), 대원리(개성 동북쪽 6㎞), 고두산리(개성 동쪽 6㎞), 사천 하구이며, 와룡대와 사천 하구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지점들은 제6사단이 통제한다고 하였다.

제6사단장은 1개 제대 전투대형을 구축하였다. 제15연대는 고령리(개성 서북 6㎞)와 488고지(송악산)의 남쪽 구역에서 적을 섬멸하고 풍덕리(개성 서남 13㎞) 방면으로 공격을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13연대는 488고지(송악산) 동쪽과 산직동(송악산 서쪽 14㎞) 지역에서 개성－덕산리(개성 동남 16㎞) 방면으로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제13연대 예하 제3대대와 교육대대는 사단 예비로 하였다.[9)]

### (3) 북한군 제1사단(고랑포－문산 방면)

고랑포－문산 방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공격개시 당일 고랑포－장단－문산 축선을 돌파하고 제203전차연대와 협조하여 문산에서 서울 서측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최초 2개 연대로 병진 공격하되 제3연대를 주공으로, 제2연대를 조공으로 공격하게 하고 제14연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사단의 최근임무는 38선 남쪽 5~8㎞ 어룡리－장단선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으며 차후임무는 문산 남쪽 4㎞ 파주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공격 당일 문산 남쪽 10㎞ 성동리－신산리선까지 진출하며, 공격 2일차에 한강변을 따라 공격하여 서울 서북부를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10)]

제1사단은 민족보위상의 명령에 따라 제105전차여단 예하 1개 전차대대, 1개

<표 3-7> 제1사단(고랑포-문산-서울 서측방면 타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공격개시 당일 고랑포-장단-문산 축선을 돌파하여,<br>○ 제203전차연대와 협조하여 문산에서 서울 서측으로 진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를 예비<br>• 제1제대<br>-제3연대(주공) : 1개 전차대대(-1), 자주포 대대(-), 공병중대<br>-제2연대(조공) : 1개 전차중대, 자주포 포대, 공병중대<br>• 제2제대<br>- 제14연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어룡리-장단선(38선 남쪽 5~8㎞)으로 진출<br>• 차후임무 : 문산 남쪽 4㎞ 파주 지역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문산 남쪽 10㎞ 성동리-신산리선 진출<br>• 2일차 목표 : 한강변을 따라 공격 서울 서북부 점령 |

부교대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11] 오음리(문산 북쪽 20㎞)-문산방면에 대한 공격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임무는 어룡리(개성 동쪽 12㎞), 금릉리(문산 서북쪽 9㎞), 장단(문산 북쪽 8㎞, 백학산 동남 1㎞)선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후 사창동(문산 서쪽 8㎞), 문산, 이천리(문산 동쪽 4㎞) 선까지 진출한다.

첫째 날 오후 늦게까지 공격을 확장하여 성동리(문산 서남 11㎞), 영태리(영대리, 문산 남쪽 9㎞), 신사리(문산 남동 10㎞) 지역을 점령하고, 둘째 날 아침부터 한강 북쪽 강변을 따라 공격을 개시, 제4사단 예하부대들과 합동으로 서북쪽에서부터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한다.

좌측 전투지경선은 354고지(고왕산, 신망리 서쪽 14㎞), 주월리(신망리 서남 20㎞, 문산 동북 17㎞), 금곡리(문산 동북 10㎞), 가좌미 고개(문산 동남 8㎞), 신기리(서울 북쪽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대)이다. 345고지와 신기리를 제외한 여타 모든 지점들은 제1사단이 통제한다.

제1사단장의 결심에 따라 좌익의 고랑포리(문산 동북 14㎞), 문산, 금촌리(문산

남쪽 10㎞, 파주시)축선에 주공을 가하여 고랑포리, 율동(문산 서북 7㎞, 임진강 북쪽강변), 강정리(문산 서쪽 7㎞) 지역에서 적을 격파하고, 임진강을 도하하여 문산지역을 확보한다. 이후 문산, 금촌리 방면으로 공세를 확장하여, 공격 첫째 날 오후 늦게 석곶리, 금촌리, 신산리선까지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사단의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조직되었다. 제1제대인 제2연대는 공병대대 예하 1개 중대(-), 제3자주포대대, 1개 전차중대 등과 협동으로 문산 방면을 공격한다. 제3연대는 제1, 제2자주포포대, 1개 전차대대(-), 독립대전차대대 예하 2개 중대, 1개 공병중대 등과 협동으로 고랑포리, 도장동(문산 서북 12㎞)선으로부터 가야리 방면으로 공격한다. 제2제대인 14연대는 해촌(문산 북쪽 20㎞) 지역에 집결하였다가 공격개시와 함께 제3연대를 따라 진격하기로 되어 있었다.[12)]

### (4) 북한군 제203전차연대(-1) (문산 방면)

북한군 제203전차연대(-1)는 고속종심기동부대로써 군단장의 직접 통제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 연대는 제6사단(-1)이 개성반도를 장악하면 1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문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문산에서부터 제1사단과의 협조하에 고속으로 종심기동하여 서울 서측 방면을 장악함으로써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연대는 1개 대대를 동두천방면의 제4사단에 배속하고, 연대 주력은 전차 기동로를 고려하여 최초 개성 북쪽에 배치하여 제6사단이 공격당일

<표 3-8> 제203전차연대(-1) (고속종심기동부대)

| | |
|---|---|
| 작전 개념 | • 제6사단(-1)이 개성반도를 장악하면 1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문산 방면으로 이동<br>• 문산에서 서울 서측방향으로 고속 종심기동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 |
| 운용 개념 | • 연대는 1개 대대를 동두천 방면의 제4사단에 배속하고, 최초 주력은 개성 지역에 배치<br>• 공격개시 2일차부터 작전에 투입 |
| 부대 운용 | • 제203전차연대(-1)는 문산에서 제1사단과 협조하여 서울 서측으로 신속히 기동<br>• 서울서측을 점령함과 동시에 국군주력 퇴로 차단 |

개성반도를 장악하면 신속히 문산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공격개시 2일차부터 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13]

### 3) 전투력 수준

옹진－연안방면의 제3경비여단은 주요 장비가 자주포와 장갑차 각 8대, 122㎜ 곡사포 4문, 76㎜ 견인포 32문, 45㎜ 대전차포 45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원된 병력은 8,000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개성－고랑포 전면에 전개된 북한군 제6, 제1 2개 사단 병력은 도합 2만 1,000명 내외이며 장비는 122㎜ 유탄포 24문, 76㎜ 유탄포 72문, 45㎜ 대전차포 168문, 그밖에 그들의 총사령부 직할의 제105전차여단에서 지원된 제203전차연대의 전차 40대와 기타 자주포 32문이 사단 지원거리 내에 집결되었다. 이밖에도 우마차를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추진하고 전투 간에 노무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무공작대가 뒤따라 다니며 활동하는가 하면 편의대를 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의 우인접 부대는 제3, 제4사단으로서 동두천 및 포천－의정부－서울간을 공격축선으로 정하여 제105전차여단(-1)과 함께 국군 제7사단 정면을 공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 2. 국군 상황

### 1) 국군 제17연대 부대 현황

옹진반도 정면을 담당한 제17연대는 방어정면 45㎞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방어정면은 통상 사단 방어정면 10㎞에 비하여 약 4.5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옹진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

은 국사봉(527m)을 비롯하여 계명산(279m), 은파산(283m)이 위치해 있었고, 그 남쪽에는 두락산, 421고지, 충무고지, 녹달산, 까치산(鵲山, 350m) 등이 있었다.

연대는 옹진반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지대, 주저항선, 최후저항선과 같은 종심 깊은 방어지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제17연대는 38도 분계선 남쪽의 두락산－412고지－충무고지－녹달산－까치산－초동을 연결하는 방어선이 주저항선이자 최후저항선이었다.[14]

백인엽 대령은 사령부를 강령에서 옹진광산(옹진 북쪽 2㎞)의 폐시설로 옮기고, 각 대대본부는 천막으로, 중대급 이하는 각기의 진내에 벙커를 구축하게 하여 그들 진지와 같이 있게 하고, 군기를 엄정하게 하는 한편 지금까지 징발 사용해온 각종 시설들을 지방관서에 환원시켜 민폐를 근절하게 하였다. 노약자와 극빈자에 대한 대민진료 및 대민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때 군의 옹진철수설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는데 힘썼다.

한편 연대장은 진지공사에도 주력하여 전 병력의 동원은 물론 농한기를 맞은 주민들까지도 동원하여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교통호와 산병호의 구축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 공사기간 중 적의 방해사격으로 주민 5명이 희생당하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주민들은 이 진지공사에 협조하여 진지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에 동원된 연인원은 6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기관장들과 협조하여 지금까지 세력다툼에만 일삼아온 땍별단, 백골단,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의 단체를 단일체제로 통합하여 향토방위대라 명명하게 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교육문제도 협의하여 간부요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군에서 2주간의 단기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이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마을을 지키고 불순분자의 색출과 신고는 물론 유사시 군 작전에도 적극 협조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옹진반도는 38도선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차단되어 교통을 해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옹진반도 중앙부인 옹진광산에 배치하였다.

육군본부의 옹진반도 방어계획은 장차 전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제1단계 작전은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시에는 북한군에게 손실을 가하면서 38도 분계선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국부적으로 38도 분계선 남쪽으로 침공할 시에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면서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을 지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3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전면 공격을 할 때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하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15] 즉, 작산지대를 확보함으로써 강령을 장악하고 최후의 경우에는 부포항을 사수하여 증원병력을 기다려 적을 반격하거나 또는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포항에서 연대병력을 인천방면으로 해상 철수하는 것이었다.[16]

연대장은 제1, 제2단계 작전에 대비하여 지역 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락단위 대피훈련을 군민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었으나, 전면철수를 뜻하는 제3단계 작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발설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부포를 통하여 철수할 복안만을 세우고 있었다. 별도로 주민철수계획은 없었으나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은 군과 같이 행동하기로 하고, 일반 주민은 상황과 선박의 수용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철수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만은 강구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11 : 00에 3개 대대장과 배속부대장 그리고 참모들을 집합시켜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취야에서 강령, 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적의 제1접근로로 보았고, 또 지금까지 밝혀진 적정을 보더라도 이 지역에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3대대 지역에 치중하여 부대배치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만일 적이 주력으로 조기에 강령 또는 양원을 장악하면, 사령부의 전투력은 동서로 양분되고 철수로가 차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고려에서 평소에도 연대장의 작전개념은 동측방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에는 예비대까지도 이 지역에 배치하려는 복안이었다.

전선에 대한 일단의 조치를 취한 연대장은 육군본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옹진전면의 적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적이 금명간 옹진침공을 꾀하고 있는

것 같으니 병력증원 조치를 속히 취하여 달라"는 요지의 요청을 전화와 전문으로 보고하였다.

남침직전 제17연대 전투병력은 동 연대의 2,719명(96%), 제7포병대대의 526명(100%), 대전차포중대의 129명(100%)으로서 3,300여 명이며, 기타 지원부대 병력을 합하면 3,600여 명에 달하였다. 주요 장비로는 105㎜ 곡사포(M-3) 15문(그중 3문은 사용불능), 57㎜ 대전차포 6문, 81㎜ 박격포 12문, 60㎜ 박격포 18문, 2.36″ 로켓포 60문 외에 각종 기관총 25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옹진정면의 적은 1950년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일을 전후하여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들 진지의 여러 고지상에 간부급으로 보이는 자들이 자주 나타났으며, 22일 밤부터 그 익일 여명시까지 해주방면에서 취야로 이동하는 차량대열이 계속되었는데, 해주와 취야의 중간지점부터는 전조등을 소등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부대이동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적의 움직임과는 달리 육군본부에서는 5월말부터 내려진 특별경계령을 6월 23일 24 : 00부로 해제하고, 그간 영내에 묶여있던 장병들에게 휴가,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였다. 연대장은 그간 적의 동향을 육군본부에 수차 보고한 바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UN 한국위원단 요원 5명이 연대를 방문하였다. 동 위원단은 연대장으로부터 근간 적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각 관측소를 시찰하였다. 이때 동 위원단은 아군의 각 중화기중대 중기관총과 81㎜ 박격포가 전방으로 추진 배치된 것을 보고, "38도선상이 이렇게 평온한데 긴장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역효과만 날뿐 특별 경계태세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불가피하게 전방에 배치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비상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국군 제17연대의 국군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제17연대는 연대장 백인엽 대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6월 25일 전사),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 제3

대대장 오익경 소령, 제7포병대대장 박정호 소령이었다. 이들 국군 제17연대의 지휘관 편성을 보면 <표 3-9>와 같다.

연대장은 45㎞에 달하는 광정면에 2개 대대로서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며 전후방 근무와 전투력 균형유지를 위하여 매 2개월마다 부대를 교대시켰다.[17]

연대 우일선은 제3대대(오익경 소령)로서 동은 해안인 초동부터 서는 녹달산 서단까지의 18㎞를, 좌일선인 제1대대(김희태 소령)는 제3대대와의 협조점에서 서해안까지 27㎞의 정면을 맡게 하였으나, 실제 부대가 점령한 것은 두락산까지로서 그 서쪽 해안지역은 경찰병력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제2대대(송호림 소령)는 예비로서 사령부지역에 배치하여 교육에 임하게 하였다.

배속된 제7포병대대(박정호 소령)의 1개 포대씩을, 그리고 대전차포 중대(노경억 대위)의 1개 소대씩을 각각 제1, 제3대대에 배속시키고, 잔여포대와 대전차포 소대는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대본부 지역에 배치하고 공병대(박준희 중위)는 병력이 40명에 지나지 않아 탄약작업 소대요원을 여기에 통합하여 연대에서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대대본부를 강령에 설치하고, 제11중대(김종윤 중위)를 초동-우현간에, 제9중대(한홍 중위)를 작산에, 그리고 제10중대(안제휘 대위)를 녹달산에 각각 배치하고, 제12중대(정규한 대위)의 박격포는 각 소총중대에 2문씩, 기관총소대는 제9, 제10중대에 1개 소대씩 배속 운용하였다.

<표 3-9> 국군 제17연대 주요 지휘관 편성

| 직 책 | 계 급 | 성 명 | 직 책 | 계 급 | 성 명 |
|---|---|---|---|---|---|
| 연대장 | 대령 | 백인엽(白仁燁) | 대전차포중대장 | 대위 | 노경억(盧敬億) |
| 제1대대장 | 소령 | 김희태(金禧泰) | 공병대장 | 중위 | 박준희(朴俊熙) |
| 제2대대장 | 소령 | 송호림(宋虎林) | 야전병원장 | 대위 | 지세강(池世康) |
| 제3대대장 | 소령 | 오익경(吳益慶) | 병참보급소장 | 소령 | 신선균(申先均) |
| 제7포병대대장 | 소령 | 박정호(朴廷鎬) | 헌병대장 | 대위 | 함성렬(咸成烈) |

배속된 제2포대(서정선 중위)는 도동(강령 북쪽 7㎞)에서 대대를 일반 지원하게 하고 대전차포소대는 제9중대에 배속하여 동 중대의 좌우측방에서 취야에 이르는 도로를 견제하게 하였는데, 이때 제2포대장 김찬복 대위가 포병학교 교육중이어서 대대 S-3 서정선 중위가 제2포대장을 겸무하였다.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은 대대본부를 마현(옹진 북쪽 4㎞)에 설치하고, 제3중대를 429고지(충무고지)에, 제2중대(한혁 중위)를 은동(옹진 북서쪽 8㎞)과 두락산 간에 전개하고, 제4중대(손창술 중위)의 박격포 2문을 제3중대에, 4문은 제2중대에, 기관총소대는 제2, 제3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 운용하였으며, 제3포대(김원길 중위)는 동곡동(옹진광산 서쪽 1.5㎞)에 포진하여 주로 충무고지－은동간을 엄호하게 하고, 김동근 중위가 지휘하는 제3대전차포소대는 대대본부가 있는 마현에 두고 태탄(옹진 북쪽 18㎞)－옹진간의 도로에 지향하게 하였다.

예비 대대장인 송호림 소령은 대대의 기초 훈련에서부터 소부대 전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헌병대(함성렬 대위), 병참보급소(신선균 소령), 특무대(나공성 중위) 및 야전병원(지세강 대위) 등이 있었으며, 경비행장이 냉정리(옹진 동쪽 3㎞)에 설치되어 있었다.[18]

## 2) 국군 제1사단의 부대 현황

국군 제1사단 지역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전쟁발발 2개월전인 4월 20일 사단장으로 부임해온 백선엽 대령은 현재 부여된 작전지역의 특징과 가용병력, 적정 등을 고려하여 약 94㎞에 이르는 광정면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개념에서 정규전에 대비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문산－봉일천－서울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방어편성이었다.[19]

제1사단의 방어정면은 청단－연안－개성－적성에 이르렀다. 이 정면 역시 연안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불리하므로, 청단, 배천, 연안 부근에는 경계부대 정도를 배치하여 적정을 수집하게 하고 적의 공격 시에는 백석포로 철수하여 이곳에

서 해군함정으로 문산 부근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개성방면은 상황에 의하여 예성강 철교를 파괴하는 동시에 남하하는 적을 최대한으로 저지시키는 한편 장단 예비방어선에서 제12연대는 예성강 남쪽에서 철수하여온 경계부대와 합류하여 지연전을 하고 상황이 급할 때에는 진봉산에 집결한 후 여기서 영정포로 이동한 다음 다시 선박으로 문산 부근에 상륙하여 우일선 부대인 제13연대 주력과 합류하여 사단 주저항선인 문산－적성간의 임진강 남안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3연대는 고랑포 일대의 진지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임진강 남쪽의 좌일선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며 사단 예비대 및 증원부대의 지원을 받아 주저항선에서 적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20] 이 계획은 개성, 연백, 청단 등의 주요 지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됨으로 백선엽 사단장은 육군본부로 출두하여 총참모장 채병덕 장군의 승인을 받았다.[21]

이렇듯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적의 주공방향을 문산－봉일천－서울 축선 방면으로 예측하고 제1사단 방어계획을 3선 개념에 의한 방어지대로 편성하였다. 제1선은 38도선 분계선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의 접근로 및 침투로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에 소대 또는 분대단위 거점과 진지를 준비하여 전투전초 임무와 주민통제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으로 임진강 남쪽의 문산리－208고지－파평산－적성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북한군이 공격하면 38도선 경계지대에 배치된 제1사단 병력을 철수시킨 뒤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며,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때에는 사단 예비로써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방어선이었다. 최후저항선은 원룡산－119고지(금촌 북쪽 3.4㎞)－151고지를 연결하는 선이었다.

백선엽 사단장은 이러한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 1950년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서울에서 학도호국단 1,000여명 이상을 동원하여 주저항선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이 방어선의 개인호와 교통호는 무개호로 구축되었고, 공용화기진지 및 관측소만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장

벽자재가 지급되지 않아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다. 임진강 철교 폭파계획은 준비되어 있었다.[22]

제1사단은 2개 연대를 제1선에 배치하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본부를 개성 남쪽 4㎞ 지점인 강릉에 두고 2개 대대가 65㎞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연대본부와 함께 있었다. 제13연대(김익렬 대령)는 25㎞ 정면에 1개 대대를 배치한 다음 연대본부를 문산에 두고 나머지 2개 대대는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서울 근교의 수색에 위치하였고, 최경록 대령이 지휘하는 예비연대인 제11연대는 사단사령부 지역에서 정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23]

이리하여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선의 새로운 방어준비에 들어갔는데 당시의 사단병력은 1만 100명 내외이며, 장비는 105㎜ 곡사포(M3) 15문, 57㎜ 대전차포 18문, 81㎜ 박격포 36문, 60㎜ 박격포 54문, 이밖에 편제상의 2.36″로켓포와 각종 기관총 43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제11연대가 장비한 공용화기의 30%가 육군본부 지시에 의하여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 간에 후방기지창으로 후송 정비하게 되어 동 연대는 주로 개인화기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서부 38도선 지역의 북한군에 대한 무력시위와 주민의 선무를 위하여 개전 1개월 전인 5월 25일부터 1개월간의 예정으로 수도경비사령부(이종찬 대령) 예하의 기갑연대(유흥수 대령)에서 박도경 대위가 지휘하는 기갑 1개 중대(장갑차 9대)를 동원하여 개성, 백천, 연안, 청단지방을 순회한 뒤 6월 24일에 서울로 복귀시켰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이보다 10일 앞서 시흥 보병학교의 고급지휘관과정에 입교명령을 받아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에게 부재간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사단을 떠났다. 6월 23일에 이르러서는 이 무렵까지 실시되었던 비상경계(조만식의 신병 인수문제로 취하여진 조치)가 해제되어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그간 영내 대기 중이던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실시되어 사단의 1/3 병력이 영외로 나갔다. 또한 동일 밤에는 용산에 세워진 육군회관 낙성식에 많은 고급지휘관이 초대되었는데 사단장 대리근무 중인 최경록 대령도 이에 참석하기 위

하여 잠시 부대를 비우게 되었으며,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도 외출 중에 있었다. 이러든 중 그 이튿날인 25일 미명을 기하여 포격과 더불어 북한군의 전면 기습남침이 시작되었다.

국군 제1사단 우측방으로 제7사단이 인접해 있었으며 그 예하 제1연대가 적성 동쪽에서 제13연대와 경계를 이루면서 그 이동지역의 38도선 경비와 감악산(675고지)－마차산(587고지) 등의 감제 고지군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다.

사단장은 1950년 5월초에 사단 책임지역 내의 38도선 경비와 적의 남침에 대비하는 사단의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때의 방어개념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입각한 지역고수개념을 채택하되, 주저항선을 방어에 유리한 임진강변에 형성하며, 이 강의 북쪽 지역을 전투전초지대로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곧 일단 유사시에는 청단, 백천, 개성을 포함한 1,200㎢에 달하는 지역을 포기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단장이 직접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새 방어계획을 설명하고 채병덕 총참모장의 재가를 받았다.

국군 제1사단의 새로운 방어계획은 38도선상에서 발생하든 국지적인 분쟁에 대처하는데 그치는 방어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전면적인 전쟁에 대비하는 방어로 전환되었으며, 문산－봉일천－서울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방어편성이었다.

사단의 전투지역인 개성－문산 지역에 투입된 국군의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제1사단은 사단장 백선엽 대령을 비롯하여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 제12연대장

<표 3－10> 국군 제1사단의 3선 방어계획

| 구 분 | 작전 개념 | 비 고 |
|---|---|---|
| 제1선(38도선 경계선) | • 전술적 요지에 소대단위 거점 설치<br>• 적 접근 조기경고, 지연, 침투방지 | |
| 제2선(주저항선) | • 임진강－파평산 연하는 선<br>• 대대단위 거점 설치<br>• 교량 파괴계획, 도로대하구 및 장애물 설치계획 | 장애물<br>미설치 |
| 제3선(최후저항선) | • 봉일천 북쪽 문산천을 연하는 선 | |

전성호 대령,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 등이었다. 이들 국군 제1사단의 주요 지휘관 편성을 보면 <표 3-11>과 같다.

국군 제1사단은 새로운 방어계획에 따라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좌일선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제2대대(한순엽 소령)를 대원리-송악산-예성강 동안(20㎞)간에, 제3대대(이무중 소령)를 예성강 서쪽의 연백-청단(42㎞)간의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제1대대(신현홍 소령)를 연대본부와 같이 개성 남쪽의 강릉동에 배치하여 연대예비로서 유사시에 대비하게 하였다.

<표 3-11> 국군 제1사단 주요 지휘관 편성

| 직 책 | | 계 급 | 성 명 |
|---|---|---|---|
| 제1사단장 | | 대 령 | 백선엽(白善燁) |
| 제11연대 | 연 대 장 | 대 령 | 최경록(崔慶祿) |
| | 제1대대장 | 대 위 | 고한조(高漢祚) |
| | | 대 위 | 고림현(高林鉉)<br>(6월 26일부) |
| | 제2대대장 | 소 령 | 정영홍(鄭永洪) |
| | 제3대대장 | 소 령 | 김재명(金在命) |
| 제12연대 | 연 대 장 | 대 령 | 전성호(全盛鎬) |
| | | 중 령 | 김점곤(金點坤)<br>(6월 26일부) |
| | 제1대대장 | 소 령 | 신현홍(申鉉洪) |
| | 제2대대장 | 소 령 | 한순화(韓順華) |
| | 제3대대장 | 소 령 | 이무중(李茂重) |
| 제13연대 | 연 대 장 | 대 령 | 김익렬(金益烈) |
| | 제1대대장 | 소 령 | 김진위(金振暐) |
| | 제2대대장 | 소 령 | 윤천봉(尹千奉) |
| | 제3대대장 | 소 령 | 유재성(劉載成) |
| 제6포병 | 포병대대장 | 소 령 | 노재현(盧載鉉) |
| 공 병 대 | 공병대대장 | 소 령 | 장치은(張治殷) |

<표 3-12> 국군 제1사단 배속부대 지휘관

| 직 책 | | 계 급 | 성 명 |
|---|---|---|---|
| 제15연대 | 연 대 장 | 대 령 | 최영희(崔榮喜) |
| | 제3대대장 | 소 령 | 최병순(崔炳淳) |
| 제20연대 | 제3대대장 | 소 령 | 박희동(朴熙東) |
| 서울특별연대 | 연 대 장 | 중 령 | 유해준(兪海濬) |
| | 보교교도대 | 소 령 | 김병화(金秉化) |
| | 육사교도대 | 소 령 | 김응용(金應勇) |

우일선 제13연대는 예하 제3대대(유재성 소령)로서 고랑포-대원리(28㎞)의 38도선 경비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한편 화석동의 연대본부지역에 위치한 제1대대(김진위 소령)를 연대 우일선으로 삼아 마지리(파평산 : 적성 남쪽)-금파리간에 배치하고, 제2대대(장, 윤천봉 소령)를 연대 좌일선으로서 금파리 서단-율곡리(△208)간에 배치하여 각각 주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적 기계화부대의 접근로로 예상되는 방어전면 동서를 횡단한 320번 도로와 주진지 전방에 돌출된 자하리부터의 적의 접근을 방해하는 한편 임진강 북쪽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고 제3대대가 임진강 남쪽으로 철수한 다음 연대예비로서 금곡리(파평산 측후방) 부근에 배치하도록 하였다.[24]

예비인 수색의 제11연대(최경록 대령)는 현 부대교육을 계속하되 유사시 즉각 사단 좌일선 방어를 맡도록 하였다. 예하 제2대대(정영홍 소령)를 연대 우일선으로 삼아 화석동-율곡리 간에 배치하여 임진강 나루터 서쪽의 적의 예상 도하지점을 방어하게 하고, 제1대대(고한조 대위)를 연대의 좌일선으로 하여 임진강교 남안의 마정리 일대에 배치하여 임진강 북쪽 부대의 철수엄호와 동 교량을 통하는 적의 접근을 맡도록 하였다.

개성에 위치한 제6포병대대(노재현 소령)를 새로운 방어개념에 따라 대대본부와 함께 2개 포대를 수색의 사단사령부 부근에 이동시키고 그 예하 제3포대는 계속 문산에서 제13연대 지역에 있는 105㎜ 탄약고 관리와 적 침공시 동 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단 공병대대(장치은 소령)는 수색에 대대본부를 두고 예하 제2중대를 개성의 제12연대 지역에 계속 주둔시켜 동연대의 공병 지원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3중대는 이 무렵부터 시작된 사단 후방 보급시설에 대한 공병 건설공사를 위하여 봉서리(문산 남쪽 1㎞)에서 공사에 임하게 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서 임진강교에 대한 폭파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25)]

사단 우측은 제7사단과 인접하여 그 예하의 제1연대가 적성 동쪽에서 제13연대와 경계를 이루면서 그 동쪽지역의 38도선 경비와 감악산(△675)－마차산(△587) 등의 감제고지군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다. 또한 좌측 옹진반도에는 제17연대(백인엽 대령)가 육본직할로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표 3－13> 국군 제1사단의 방어배치 조정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 : 수색
좌전방부대 : 제12연대, 청단－개성－대원리 간의 38선 분계선 경계임무 수행
연대본부 및 직할대 : 강릉동(개성 남쪽 3.6㎞)
제3대대 : 대대본부, 연백
제11중대 : 청단, 제10중대 : 연백 , 제9중대 : 백천
※ 제3대대는 남침시 최대한 지연후, 석포리－김포반도를 경유 문산리로 철수한다.
제2대대 : 대대본부, 개성 103고지
제5중대 : 여현 남쪽, 제6중대 : 사직동, 제7중대 : 영전동
제1대대 : 연대 예비, 강릉동에 집결 주둔, 교육훈련 실시
※ 연대본부, 직할대 및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북한군 남침시 최대한 출혈을 강요한 후 임진강철교로 철수하거나, 영정포－김포반도를 거쳐 문산으로 이동한다.
우전방부대 : 제13연대, 북한군이 남침하면 의명, 화석동－적성간의 주저항선을 방어
연대본부 및 직할대 : 화석동
제3대대 : 대원리－적성간 38도 분계선 경계임무 수행
대대본부 및 제9중대 : 아곡동 , 제11중대 : 대덕산 남쪽, 제10중대 : 반정리
제1대대 및 제2대대 : 연대 예비, 화석동에 집결 주둔, 교육훈련 실시
사단예비 : 제11연대(수색), 북한군 남침시 의명, 문산리－화석동 주저항선을 방어

한편 당시 김포반도가 사단의 후방지역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 대한 방어책임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육군본부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았으며, 국군 제1사단은 “적의 전면 공격시는 개성지역을 철수하여 문산 부근에 집결한 다음, 임진강 남안에서 적을 격멸한다”는 자체방어 개념을 가지고 임진강선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

# 제 3 절 옹진반도 전투

## 1. 전투 개요

### 1) 개 요

북한군은 옹진지구를 조기에 장악할 기도로 제6사단 제1연대를 전용하여 제3경비여단을 증원하게 하여 국군 제17연대 정면을 공격하였다. 개전당시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45㎞의 38선상에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옹진부근에 배치하여 불과 7~8㎞의 종심을 가진 전투지대를 방어토록 하였다. 본래 육군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면공격을 받았을 경우 연대를 전황에 따라 해상철수를 단행하여 그 병력을 요소에 중점 전용하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옹진지구를 조기에 장악한 다음 연백-개성-문산 방면으로 그 병력을 전환하여 서울 공격을 증원하겠다는 기도하에 당일 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23일부터 병력과 차량을 공격대기지점에 이동하는 등 공격 징후를 보이고 있었으며 25일 04 : 00를 기하여 전면포격과 동시에 공격하였다.

제17연대는 병력의 열세와 지형의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분투하였다. 07 : 00에 옹진정면이 위급하게 됨으로써 예비대를 투입하여 적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적은 대대간의 전투지경선인 취야-양원, 취야-강령 국도를 통하여 제1연대를 투입함으로써 아군의 방어지역은 이날 13 : 00부터 동서로 양분되고 말았다.

따라서 연대본부와 포병부대를 포함한 우측 제3대대는 연대장 지휘하에 적의 공격을 계속 저지하면서 이미 계획된 부포항으로 집결한 다음 26일 14 : 00에 해군에서 보내온 LST편으로 인천까지 해상철수하였다. 좌측 제1, 제2 양 대대는 적이 옹진읍-부포항의 중간지구를 돌파하였으므로 사전계획이 없는 사곶을 목표

로 철수한 다음 민간 선박편으로 나누어 이동하였으며, 29일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철수한 병력을 수습하여 대전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고 재편성하였다.

### 2) 작전 지역의 특징

38도에서 가장 서측에 위치한 옹진반도는 인천에서 해로로 90㎞ 거리이며, 38도선과 해주만에 의하여 내륙과의 육로가 차단되어 있다. 옹진반도 남동 끝자락 위치한 부포항은 제17연대의 생명선과도 같은 지역으로서 병력과 보급품을 지원하는 유일한 관문을 이루었으며, 인천까지는 정기연락선으로 9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제17연대는 일단 유사시 이 지역을 고수하지 못하는 한 해상으로 철수해야 하는 전술적 취약점을 지닌 지역이었다.[26]

옹진 북쪽 8㎞에 위치한 국사봉(△527)은 반도의 중앙부에 있어서 그 지맥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지대 내를 감제하고 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에는 주봉인 국사봉에서 동으로 수대고개와 은파산(△283) 서로는 달명산과 계명산 등이 솟아 있어 적의 근거지를 제공하고, 은파산 동쪽에는 취야평야가, 달명산 서쪽에는 태탄평야가 있어 그들 후방지역에 대한 관측을 용이하게 하였다. 취야와 태탄은 적 보급시설들이 있는 곳이었으며, 특히 취야(옹진 북동)는 강령(옹진 동쪽)과 양원(옹진 동쪽)에 이르는 도로의 분기점을 이루고, 해주－옹진을 연결하는 해옹선이 있으며, 해주－죽천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38도선 남쪽에는 국사봉 부근에 충무고지(△429)가 있으며 그 동으로는 녹달산, 작산, 그 남쪽에는 수대산 광산, 백운봉, 그리고 서쪽에는 은동의 412고지와 두락산 등이 동·서로 뻗어있어 충무고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서 적 지역을 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도와 같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으로 불리를 극복해야 하였다.

작전지역 내의 교통망은 취야－양원－옹진으로 이어진 50번 도로와 해옹선철도(단선 협궤)과 취야－강령－부포로 통하는 무명도로가 있으며, 특히 이 도로는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접근로로서, 만약 양원 및 강령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제17연대의 방어지역이 양단되는 위험에 처하게

<상황도 3-2> 옹진반도 경계진지 상황


경
대단
측천리
국사동
두락산
은파산
까치산
허야
해주
초동
우현
38°선
사등
전장산
적유봉
본당산
녹달산
소미동
치마산
석계리
양원
냉정리
판서
270
217
검형
조촌
측교리
중리동
강촌
부포
사곶
용호도

된다. 또한 태탄－옹진간의 502번 도로는 북한군의 조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접근로였다. 이밖에도 소강동－옹진－강령으로 이어지는 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가 있어 보급지원 및 횡적협조 등 작전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기간 중의 평균 기온은 20～28℃로서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때가 많아 09 : 00까지는 시계에 제한을 주어 방어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며, 밝은 월광은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곳은 간만의 차가 심해 LST와 같은 대형 선박의 입항은 1일 2회로 한정되고 있었다.

## 2.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남침 전날 백인엽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선부대 전 병력은 진지를 점령하여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연대본부 지역에 있던 제1포대와 제2대전차포소대도 제3대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각종 탄약도 추진 분배하여 긴장되었던 24일의 밤에 대비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5일 04 : 00 별안간 38도선 상공에 적·녹의 신호탄이 빛을 발하며 동서로 교차하자 포성이 터지면서 적막한 38도선의 새벽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옹진지구에 투입된 적은 북한 제3경비여단(소장 최현)과 제6사단 예하의 제1연대(대좌 한일래)였다. 그들의 주요 장비는 자주포와 장갑차 각 8대, 122㎜ 곡사포 12문, 76㎜ 곡사포 36문, 기타 각종 포를 합하여 총 196문이었고, 이에 동원된 병력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였다.[27] 북한군은 04 : 00에 지원포병으로 하여금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게 하는 한편, 제1연대로서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선두로 하여 동측에서, 그리고 제3경비여단으로서는 기마대를 앞세우고 서측에서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백인엽 대령은 수 주간에 걸친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옹진 전역에 직접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태 진전에 따라 그들의 주력 방향에 예비대를 운용할 복안으로 04 : 40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에게 "출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는 준비명령을 하달하고, 포병대대장 박정호 소령에게는 제1, 제3대대 전면에 지원사격을 하도록 조치하였다.[28]

05 : 30에 연대장은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으로부터 "05 : 00 현재 자동-은동 전면에 2개 대대, 두락산에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이 침공하여 교전중이나, 05 : 10부터 각 중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대대 예비인 제1중대를 자동 방향으로 전환시켜 이들을 저지하게 할 계획이니, 제2대대의 지원을 요청한다"라는 요지의 보고에 이어 작전주임 안동엽 대위로부터도 "05 : 30 제3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하였다.[29]

그러나 연대장은 취야에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대대의 전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까닭에 06 : 00에 작전장교를 작산의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에게 급파하여 "현 진지를 고수하고, 통신연락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이르는 한편, 06 : 10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이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예비 제2대대에 제1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단안을 내리게 된 까닭은 적이 제3대대 정면에 새로운 부대를 투입하여 양동작전을 펴면서 주목표는 옹진 탈취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에게 구두로 "1개 중대를 사령부 예비로 확보하고, 대대(-)는 지체 없이 제1대대를 지원하여 전선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대대가 07 : 00에 출동한지 2시간이 지난 뒤 제3대대에 갔던 작전장교가 "제3대대는 주진지로부터 2~3㎞ 철수한 곳에서, 수 십대의 자주포를 선두로 한 1개 연대로 추산되는 적을 저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증원병력이 갈 때까지 현 확보선을 고수하라"고 이르고, 제2대대의 작전을 지원중인 제3포대와 제8중대의 박격포소대를 차출하여 사령부의 유일한 예비인 제6중대와 같이 강령을 확보하게 하였다.

10 : 00가 지나면서부터 전선에서 종심이 5㎞도 안되는 사령부 주변에도 적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2대대의 반격과는 반대로 제3대대는 11 : 00에 석계리(강령 북쪽 5㎞)－치마(양원 북쪽 4㎞) 선마저 돌파 당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시 연대본부를 강령으로 이동하게 하여 제3대대 본부와 같이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동 중에 있는 제6중대와 제3포대를 부암리(강령 북쪽 3㎞)로 전환시켜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진출을 지연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발대로 남은 본부요원과 제1대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제2대대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 속에서 동과 서에서 혼전과 혈전이 전개되었다.

백인엽 연대장은 이미 05 : 00에 적의 침공상황을 육군본부 작전국에 보고하고 병력증원도 요청하였다. 이곳에 파견된 미 군사고문관 브라운(Frank Brown) 소령도 06 : 00에 미 군사고문단(KMAG)에 "제17연대는 적의 강력한 침공에 부딪쳐 전선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렸다.[30]

연대장은 작전초기에 그들의 주공방향이 좌일선에 지향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대인 제2대대를 이곳에 지원하게 하였는데 적은 자주포와 장갑차로 구성된 1개 연대규모로 우일선 정면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좌일선에서 제2대대의 진격과는 반대로 우일선의 제3대대는 분산된 상태에서 철수만 거듭하였다.

연대장은 10 : 00 위급한 전황을 육군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육군본부에서는 "적을 무찌르면서 육지를 돌아서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만을 하달하였다. 이때 옹진에 취재 차 왔던 연합신문사 소속의 최기덕 기자가 다녀갔고 10 : 35에는 고문관 일행 5명도 서울에서 스윈크(Lloyd Swink) 소령과 브라운 중위가 조종하는 2대의 L-5 경비행기에 분승하여 옹진에 도착했는데, 연대장은 이들 조종사를 통하여 북한군이 전 전선에서 침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31]

이 무렵부터는 연대본부 지역에도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자주포와 장갑차를 선두로 한 북한군은 거의 무저항상태의 우일선 정면을 뚫고 강령과 양원으로 육박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 그리고 옹진거리에는 부상 장병과 피난민들로 길을 메웠으며, 이때에 의무대장 추형섭 중위와 군의관 안기섭 소위는 군청의

방재선 후생과장과 지방의료요원을 동원하여 부상병의 응급처치와 후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냉정리의 야전병원에는 벌써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육군본부로부터의 증원을 바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된 연대장은 연대본부를 강령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고 11 : 00에 사령부를 강령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특히 이동전에 기밀서류와 각종 보급품, 시설물품들을 적이 사용 못하도록 파기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옹진을 떠나기 전 군수 김태원에게도 사령부를 강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통고하고 관계기관장과 주민들도 일시 안전지대로 피난시키도록 일렀다.

인사, 정보, 작전요원과 군수요원의 일부를 먼저 출발하게 하고 의무대장에게는 2.5톤 차량 5대를 배당하여 야전병원에 수용된 환자수송을 지원하게 하였는데, 보행이 곤란한 중상자만이 우선적으로 후송되고 제2차로 계획된 환자들은 양원이 차단되어 강령 남쪽까지 나올 수 있는 자만이 구출되었다.

후방대를 지휘한 선우중위는 사령부 내의 유류저장고와 탄약고 기타 시설물들을 정리하고 14 : 00에 105㎜ 포탄을 가뜩 실은 2.5톤차 5대를 인솔하여 사곶으로 나가 주민들의 피난선에 포탄과 사병 10명을 태워 이날 21 : 00에 부포항으로 상륙, 본대와 합세하였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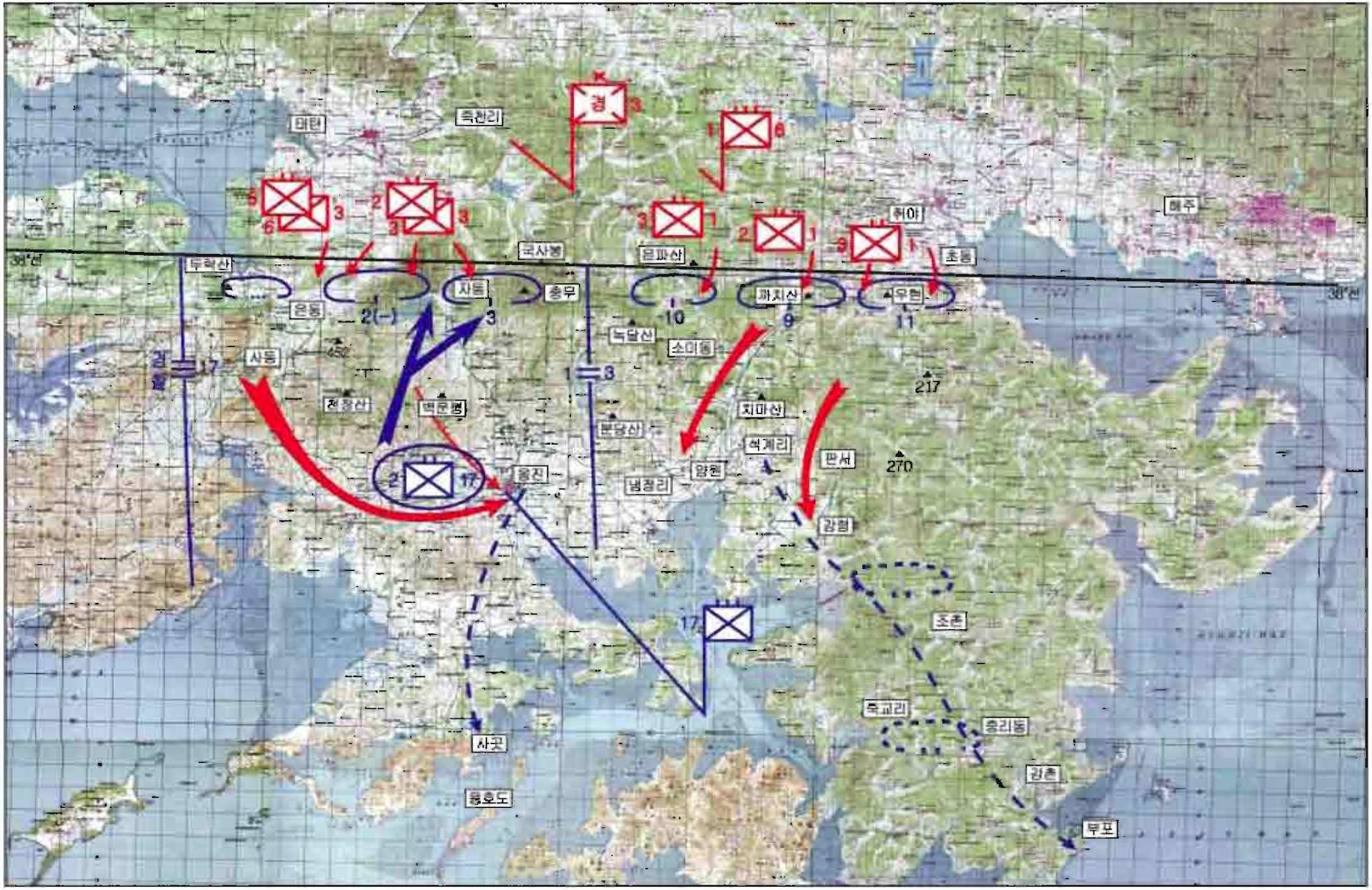
## 3. 주저항선의 붕괴

### 1) 좌전방 제1대대 상황

25일 04 : 15 적의 포성에 잠을 깬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은 근간 적의 활동이 활발해진데다 미명의 포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급히 상황실로 달려갔다. 이때 상황실은 전화통마다 사병들이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였다.

교육관 김희제 중위는 대대장에게 “04 : 00를 기해 적이 포격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낙탄 빈도가 심하고 대대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황도 3-3> 옹진반도 전투


대탄
측천리
국사봉
은파산
취야
해주
초동
38°선
두락산
은동
자동
충무
과치산
우현
녹달산
소미동
사동
천장산
백운평
본당산
치마산
석계리
딴서
270
217
암현
냉정리
공진
강령
조촌
죽교리
승리동
감촌
투포
사곶
용호도

포격이 더욱 심해져 대대 본부지역까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아직 적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없어 좀더 사태를 관망키로 하고 전방에 배치된 제2, 제3중대장에게 전화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 포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였다.[33]

04 : 40 대대장은 제3중대장으로부터 중대의 좌정면 토끼고지의 사각지대에 적 1개 소대병력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대장은 곧 "놈들을 남김없이 생포할 터이니 잘 지켜보고 있으라. 내가 거기에 직접 나가겠다"고 이르고, 탄우를 뚫고 제3중대본부가 있는 자동(마현 북쪽 1.5㎞)을 향해 출발하였다.

대대장이 자동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중대본부의 벙커가 파괴되어 수라장을 이루고, 본부요원도 볼 수 없었는데 토끼고지가 있는 동쪽 정면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대장은 운전병과 차를 엄폐된 곳에 있게 하고 적이 숨어 있는 토끼고지를 향해 700m 가량 걸어갔을 때 부상자와 이를 부축한 제3중대원이 내려가면서 적 대대 병력의 공격으로 제2소대장 김호경 소위가 전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그제야 수주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그들의 움직임이 침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대지역에 있는 제1중대를 투입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대대본부로 달려갔다.

이때의 상황을 김희제 중위는 "05 : 30 대대장은 교육관에게 제1중대를 빨리 자동에 배치하라고 이르고 인사장교에게는 도로로 나가 철수병력을 수습하도록 지시한 다음 연대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제2대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였다.[34] 이에 앞서 제2, 제3중대와는 05 : 00를 지나면서 유무선 소통이 두절되어 그 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나, 제2중대장 한혁 중위의 최종 보고는 은동 정면에서 1개 대대, 두락산 정면에서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과 교전 중에 있다고 하였다.

06 : 00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은 제1중대의 출동을 확인하고서도 흥분이 진정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제1중대를 직접 지휘 하겠다"고 하고 10여m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김 소령은 적의 82㎜ 박격포의 직격탄에 맞아 산화한 것이며, 그의 팔목에 찼던 시계

만 남아서 그의 전령에게 전해졌는데 이때가 06 : 10이었다.

한편 이때의 각 중대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전방에 배치된 제2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공격준비사격에 순식간에 방어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초전부터 유무선 소통이 단절되어 각 소대는 독자적으로 물밀듯이 밀어닥친 2개 대대규모의 적을 상대로 혈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소대장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제2소대장 빈구현 중위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은 05 : 00에 38도선을 남침하여 은동을 방어하고 있는 제1소대를 유린하고, 05 : 40에는 함성을 올리며 소대 전면을 급습하였으며 소대는 사력을 다하여 방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제3소대가 점령하고 있는 좌측전면의 두락산에는 적기가 펄럭이고, 소대 전면의 도로에는 기마대를 선두로 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도보로 유유히 중대본부가 있는 옹진서북 유성동을 향해 행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35]

곧이어 빈 중위는 제2대대장으로부터 양원－강령간의 적정을 살피라는 요지의 명령을 받고, 1㎞를 전진하였을 때, 철수병력으로부터 양원과 강령은 적 수중에 있으니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비행장 동쪽 해안으로 향하였으며, 어선을 이용하여 26일 06 : 00 부포로 상륙하였다.

우전방에 배치된 제3중대도 적의 공격준비사격에 집중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중대장은 부임한지 3일째 되는 날인 25일 토끼고지의 김호경 소위로부터 적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05 : 00 중대를 떠났다. 당시 제3소대장 윤종한 중위는 "이날 04 : 00 적의 포격은 중대본부를 포함한 제2소대지역에서 가장 치열하여 05 : 00에 유무선이 두절되었고, 06 : 00에 수미상의 적의 대병력이 침공하여 소대진지를 유린하고 자동으로 남하 중에 있으며, 토끼고지에서 중대장과 양 소대장이 전사하였다"고 하였다.[36] 또 중대의 우1선인 제3소대를 지원한 박격포 소대장 이홍근 중위는 "나는 4문의 81㎜ 박격포를 마현에 방렬하여 포탄에 의해 벌겋게 달은 포신에 물을 부어가며 사격에 열중하였다"고 하였다.[37]

한편 06 : 00에 출동한 제1중대(강은덕 대위)가 대대본부 동측 능선을 따라 07 : 30에 자동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적은 벌써 대대본부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

다. 그때까지는 안개가 걷히지 않아 원거리 관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이 밝으면서 그들 포위망에 들게 된 것을 알았다. 진퇴유곡에 빠진 중대는 전후방에서 협격하는 적을 좌충우돌로 무찌르는 2시간여의 혈투를 계속하였다. 이때 별안간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퍼지면서 적들은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제5중대(김교석 중위)가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중대 역시 제5중대와 연계하고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서 역습에 가담하였다.[38]

### 2) 우전방 제3대대 상황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전날 추가로 배속된 제1포대를 광동(양원 북쪽 3㎞)에, 1개 대전차포소대를 제11중대에 배속하여 취야-강령가도를, 그리고 제9중대에 배속한 바 있는 1개 대전차포소대에게는 취야-양원가도를 견제하도록 임무를 분담시켜 전원 진지를 점령 경계토록 하였다.

날이 밝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적·녹의 신호탄이 공중에 떠오르는 동시에 포탄이 작렬하면서 고요한 산천을 진동하였다. 작산의 대대관측소에서 대대장은 일상적인 포격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관측하였다. 대대장은 곧 각 중대에 확인한 결과 적 포탄의 집중으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대장은 3개 중대장에게 "적의 공격이 예상되니 경계를 계속 철저히 하고, 적이 나타나면 진전에서 저지, 격퇴하여 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사태의 긴박성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포병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39]

당시 105㎜ 포병에 대한 운영은 미 고문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의 승인이 있어야 사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한 것은 국군의 선제공격을 억제하여 미·소간에 야기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생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연대에는 브라운(Frank Brown) 소령을 포함한 3명의 고문관과 운전병, 통신병 각 1명을 합하여 5명이 나와 있었다. 이들도 사태의 긴박성을 직감하고 연대장의 사격요청을 즉각 승인하여 제7포병대대 예하의 각 포대에서도 05 : 00를 기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고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빗발치듯한 적의 포격으로 05 : 30에 대대관측소가 파괴되는 동시에

유무선 통신 기재가 파손되어 순식간에 지휘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인접한 제9중대장의 지휘망인 무전기(SCR-3000)로서 각 중대와의 연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대와는 유무선이 단절되었던 까닭에 상황보고나 구원요청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각 중대는 안개 속을 이용하여 침공한 적과 혼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북한군 제1연대는 취야에서 출발하여 자주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강령과 양원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침공하였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혀감에 따라 이들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38도선에서 각각 1~2㎞ 남쪽으로 진출하였던 때라 그들은 자주포와 45㎜ 대전차포 그리고 기관총 등 각종 포의 화력을 구사하여 제3대대 예하의 각 중대에 집중하고, 즉 봉오리 지역으로 고립시키고 있었다.[40]

이때 전면의 적을 상대로 열전을 벌이고 있던 각 중대는 전세가 불리하여 남으로 향하여 분산하였고, 작산에서 제9중대와 같이 석계리(강령 북쪽 4㎞)로 철수한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제9중대장의 무전기로 각 중대를 호출, 현 위치를 확인하였다. 우일선의 제11중대는 217고지(강령 북쪽 7㎞)에, 제9중대의 1개 소대는 석계리에, 2개 소대는 치마산(양원 북쪽 4㎞)에, 그리고 우제1선의 제10중대는 녹달산에서 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다른 2개 중대는 분산된 상태였다.

이때가 08 : 00 상황인데 대대장은 때마침 강령가도를 남하하는 짚차를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연대장의 명령을 휴대한 조 중위가 작산으로 가던 도중 자주포와 조우하여 연대본부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조 중위는 "제3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고, 빨리 통신 소통을 이루게 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대장은 "지금 대대 정면에는 수십 대의 자주포와 1개 연대가 넘는 적의 대병력이 강령과 양원가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 빨리 예비대를 이곳에 보내주도록 하라"고 하면서 급히 돌려보냈다.

대대장은 강령과 양원 북쪽에서 적을 저지할 복안을 세우고 다시 각 중대에 무전으로 "제11중대는 판서(강령 북쪽 4㎞)에서, 제9중대는 석계리에서, 제10중대

는 치마산에서 각각 진지를 편성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울러 다음 증원부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침체된 부대 사기를 고무시키고 적의 기갑부대를 파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였다.

한편 각 중대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대 좌일선 제10중대는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불응하고 고수하려 하였으나, 명령을 재삼 거역하지 못하고 09 : 30 양원가도에 연한 치마산 서쪽 능선에 3개 소대를 일선 배치하여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중대는 10 : 40 우일선 제1소대장의 '전차 발견' 신호(당시는 전차와 자주포를 구분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계획된 전 화력을 집중하여 자주포 파괴에 전력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포화에 제압당하여 장갑차 1대만을 파괴하고 각개 분산되고 말았다.[41]

제9중대는 석계리로 이동하게 하여 09 : 30 석계리 북쪽 200고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11 : 00 적의 자주포와 장갑차량이 석계리 입구까지 다가서자 중대는 발사신호와 동시에 포탑위의 적을 사살하고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6문의 2.36″ 로켓포로 선두 자주포의 앞부분에 명중시키고 후속하는 장갑차 2대도 파괴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적의 공격재개로 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강령으로 향하여 각개 분산하였다. 또한 우일선 제11중대는 11 : 30 방어정면으로 나타난 적 자주포의 공격을 받고 각개 분산 철수하였다.

### 3) 예비 제2대대의 역습

대대는 이미 하달된 준비명령에 따라 공격 대기지점을 제1대대 본부 부근으로 정하고, 각 중대를 차량화하여 06 : 40에 출동하였다. 선두 차량이 마현(속칭 말재)에 이르렀을 때, 북한 제3경비여단 예하로 믿어지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이 행군대형으로 남하하고 그 선두는 제1대대 본부 앞에 이르고 있었다. 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06 : 20 예하 중대장을 집합시키고 명령을 하달하였다.[42]

대대장은 병력을 하차시켜 수대산에서 서측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제5중대를 도로 우측에, 제7중대를 그 좌측에 전개하게 하고, 정각 07 : 00에 공격개시 신호를 올렸다. 제1대대 본부에는 아무도 없는 듯, 그들은 아

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속속 영내로 들어가고,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닥치는 대로 방화하고 있었다.[43]

대대 관측소로 정한 마현 도로변에는 제4중대의 81㎜ 박격포 4문과 대전차포 2문, 그리고 5문의 105㎜ 곡사포가 있었다. 여기에 제8중대 81㎜ 박격포 6문이 가세하여 17개의 포문은 적이 집결하고 있는 제1대대의 연병장을 목표로 일제히 화염을 토하기 시작하자, 적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소용돌이로 변하였다.

적에게 일침을 가한 제2대대장은 제5중대로 하여금 역습하게 하고, 제7중대로 하여금 사동으로 진격을 서두르게 하였는데, 09:00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마현 관측소로 진출하여 대대의 작전을 격려하고 "제3대대의 전황이 위급하니 1개 중대를 더 차출하라" 하였는데 승세를 잡고 공격 중에 있는 중대를 뺄 수가 없어 제8중대의 박격포소대와 제3포대만을 강령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송호림 대대장이 10:00에 관측소를 제1대대본부의 동측능선으로 추진, 반격하는 제5중대를 격려하고 있을 때 소총탄이 그의 좌측 안면부를 스쳐 귀를 관통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위생병을 불러 응급치료하게 한 다음 계속 작전을 지휘하여 14:00에는 제5중대를 자동으로, 제7중대를 사동으로 각각 진출시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게 하고, 대대 보급관으로 하여금 탄약과 건빵 등을 추진시켜 부대의 사기를 진작하게 하였다.[44]

이 무렵 정훈장교가 연대장이 서명한 철수명령을 가지고 와 말하기를 "지금 적은 대병력으로 옹진 전역을 휩쓸었고, 그들의 자주포가 곧 양원에 도달할 거리에 있으며, 연대본부는 12:00에 강령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며 철수를 서두르게 하였다. 이에 대대장이 대노하여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무슨 철수야 하며 계속 항전의 뜻을 나타내고 그를 돌려보냈다.

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연대본부가 12:00 강령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사태의 심각함을 직감하고 부대를 안전하게 철수시켜야겠다는 일념에서 우선 가까이 있는 제5중대장을 선발대로 하여 철수로를 개척하게 하는 한편, 정보 교육장교에게는 제7중대와 아직 작전지역에 있을 지 모르는 제1대대의 각 중대에게도 철수명령을 전달하게 하였다.

제5중대장은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를 마현으로 철수시켜 선임장교 겸 화기소대장에게 병력을 지휘하게 하고, 15 : 00 자신은 2.5톤 차량 1대에 제2소대장과 2개 분대병력을 탑승시켜 야전병원 앞에 이르렀다. 이때 어느 주민이 고함을 지르면서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으나 차량은 그대로 지나갔다. 바로 그때 중대장 일행은 보리밭에 잠복하고 있던 적의 기습 사격을 받아 중대장 등 5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생존자 15명은 비행장 남쪽 해안으로 철수하여 어선을 타고 26일 새벽녘에 연평도에 상륙하였고 27일 밤 인천에 도착하여 본대와 합세하였다.

중대 2개 소대 병력은 해안을 따라 25일 20 : 00에 중기동(강령 남동쪽 8㎞)에 도착,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 지휘하에 들게 되었다. 중대는 이날 전투에서 적 300여 명을 사살하고, 많은 전상 포로와 각종 장비를 노획하였다. 반면에 중대에서도 중대장 김교석 중위, 제3소대장 이춘만 중위 외에 사병 20여 명이 전사하고, 유홍식 중위를 포함 30명이 전상을 입는 손실이 있었다.

제7중대는 은동으로부터 침공한 적을 격퇴하고 13 : 00에 중대의 제1목표인 사동을 확보하였다. 제2목표인 은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대오를 정비하고 대대에서 탄약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14 : 00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대장은 대대가 철수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접적을 유지하고 있는 제1소대를 엄호부대로 하고, 제8중대 기관총소대, 화기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순으로 철수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소대장 조유동 소위가 적의 저격으로 즉사하였고 소대선임하사 고용출 중사도 소총을 난사하며 적진으로 과감히 공격하다가 두부 관통상을 입고 전사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1, 제3소대 병력은 중대 주력과는 만나지 못한 채 냉정리로 철수하였다.

제8중대장은 부대대장을 겸임하여 이날 제1기관총소대를 제5중대에, 제2기관총소대를 제7중대에 각각 배속하고, 10 : 30 전선에 탄약과 급식지원을 감독하였다. 12 : 00에 연대본부가 철수할 때 빈 건물에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쪽지를 붙이고 15 : 00 전선에서 철수한 제1기관총소대와 기타 병력 등 70명을 지휘하여 그날 21 : 00에 사곶(옹진 남쪽 13㎞)에 도착 본대와 합세하였다.[45]

## 4. 해상 철수

### 1) 제3대대 부포방면으로 철수

#### (1) 제3대대 철수 상황

제17연대는 이날 적의 기습적인 전면침공을 맞아 중과부적인 열세 속에서도 분투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나 그들의 자주포와 장갑차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개전 8시간만에 양원이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본부와 지원부대를 강령으로 이동시키고, 제1, 제2대대의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적을 강령 북쪽에서 저지, 격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개 소총중대와 1개 105㎜ 포대, 그리고 81㎜ 박격포소대를 좌일선으로 전환시켰으나, 우일선인 제3대대가 11 : 00를 전후하여 와해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3대대 철수를 엄호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46]

연대장은 분산된 제3대대 병력의 수용과 재편성을 서둘게 하였는데, 14 : 00에는 적 자주포가 부암리까지 진출하였다는 급보에 따라 우선 연대본부를 부포로 이동시키고 강령으로 나오지 못한 제1, 제2대대는 송호림 소령 지휘하에 사관으로 철수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여 임시방편으로 부대를 2개 방향에서 철수키로 결심하였다.[47]

그리고 당면한 적에 대하여는 강령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적할만한 곳이 못되었으므로 방어에 유리한 중기동(강령 남쪽 7㎞)－죽교리(중기동 서쪽 1㎞)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을 전멸시켜 부포항 확보를 도모키로 하였다. 전선에서 각개 분산된 제3대대는 12 : 00～14 : 00 사이에 3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강령의 대대본부에 수용되었다. 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집결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든 도중 부암리에 적 기갑부대가 출현하여 다시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중기동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대전차포와 이를 조작하는 사수와 부사수 요원만을 제외한 전

전투병력을 제3대대장 지휘하에 중기동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중기동-죽교리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낙오병을 수집하여 전투병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연대장은 기관총(Cal 50)이 장치된 3/4톤 차에 탑승하여 대전차포 중대장를 지휘, 4문의 대전차포를 강령 하천 동안에 배치하고 적의 기갑부대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들 자주포는 몇 차례 아군 방어선을 돌파할 때마다 대전차포와 2.36″로켓포의 위협을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은 강령입구에까지 와서 일단 정지하여 주위를 살펴보는 기세였다. 호기를 포착한 대전차포 중대장의 "사격 개시!"의 명령과 함께 4문의 대전차포에서는 불을 뿜으면서 자주포의 가장 취약한 측방을 강타하여 자주포 3대와 장갑차 2대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격으로 캐터필터(Caterpillar)가 끊어져 기능이 마비되어 탑승병들이 탈출을 꾀하였으나 이들도 기관총(Cal 50)의 표적이 되었다.

옹진전투 이래 처음으로 자주포 파괴의 개가를 올린 연대장은 대전차포와 사수 요원들을 중기동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다음 작전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들은 파괴된 자주포로 길이 막혀서인지 추격하지 않았다. 이때 중기동에 당도한 연대장은 도보부대의 이동 완료를 확인한 다음, 방어에 유리한 중기동-죽교리선을 최후방어선으로 하여 부포항 확보를 위한 배수의 교두보를 치기로 결심하고, 16 : 00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장은 무전으로 제2대대를 호출하였으나 응신이 없었다. 이어 육군본부에 현재상황을 보고할 때 육본으로부터 "병력철수를 위한 함정이 곧 도착할 것이니 철수하라"는 전문회신을 받았다. 그 후 중기동으로 철수한 제5중대 2개 소대병력은 차량화하여 부포로 이동시켜 방어력을 보강하고, 제3대대의 낙오병 100여명을 수집, 각기 소속대로 유도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게 하였다. 공병대는 조촌의 교량을 파괴하고 20 : 00에 부포에 도착, 군수주임 지휘하에 부포항 방어에 임하였다. 연대장은 옹진을 탈취한 적이 여세를 몰아 계속 추격을 강행한다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병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야간기습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였다.[48]

그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장과 포병대대장(박정호 소령)에게 박격포에서 야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로서 날이 밝을 때까지 요란사격을 계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송관에게는 부포항에 집결시킨 전 차량(100대중 15대는 옹진에서 나오지 못함)을 빈 차량으로 중기동까지는 헤드라이트를 켠 채 가고, 돌아올 때는 불을 끄게 하여 반복 왕래를 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군 병력이 증원되는 것처럼 기만작전을 전개하였다. 연대장의 이러한 계책이 주효하였음인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들의 야습 기세는 없었고, 인근 주민이나 아군에게까지 사기를 고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23 : 30 부포항에는 해군 LST-801함이 접안되고, 함장 김옥경 대위가 연대장을 방문하여 병력 철수임무를 띠고 왔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08 : 00에는 배가 모래위에 얹히게 되므로 그 전에 떠날 수 있도록 승선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장은 "다음 일몰시까지는 승선 완료하도록 조처할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대답하고 다시 전선으로 떠났다.

26일 00 : 30 전선으로 돌아간 연대장은 제3대대장과 포병대대장을 불러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해군 함정이 와 있음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이 시간을 기하여 병력을 철수한다. 각 부대는 적이 계속 사격을 실시하면서 1개 중대씩 차량으로 철수하라. 부포까지는 월광을 이용하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다. 이로서 각 부대는 총포의 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01 : 00부터 1개 중대씩 철수하기 시작하여 05 : 00에는 제3대대에서 1개 중대, 포병대대에서 1개 포대와 대전차포중대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적이 05 : 00부터 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재개한 까닭으로 차량이동을 중지시키고 기동력이 없는 제11중대를 도보로 철수하게 하는 한편, 대전차포와 105㎜ 곡사포로서 사격을 계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주포는 탄우를 뚫고 06 : 00에는 조촌의 교량 파괴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우회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량복구를 위해 주민을 동원한 듯 주민들이 모여들어 작업을 서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아군의 포격이 심한 탓으로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주포의 움직임이 관측되었다.[49]

연대장은 박정호 소령에게 남아있는 전 병력과 포를 부포로 이동하게 하고, 노대위에게 2문의 대전차포를 부포로 들어서는 진입로의 은폐된 곳에 배치하게 하였다. 09 : 30 그들의 자주포는 중기동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고 아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인지 다시 방향을 부포입구로 전환하려 하였다. 이 기회를 포착하고 2문의 대전차포가 200m 전방에 보이는 선두 차량과 2번 차량의 측면에 연속 사격을 가하였다.

각개 분산된 대대 병력들은 광탄리 일대로 집결하였고, 여기에서 제11중대장 김동석 중위가 1차 집결한 병력을 지휘하여 어선으로 철수하였고 나머지 병력 20여명은 선임하사 오태구 상사가 지휘하여 15 : 30 부포를 철수하였다.[50]

### (2) 해군 함정의 지원

제801함(김옥경 대위)은 부포항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05 : 00부터 썰물인 해수를 따라 08 : 00에는 5㎞ 떨어진 양상에 닻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철수병력은 제801함의 VP 4척과 주변에서 수집한 대소 어선으로 20~50명씩 승선하여 LST에 옮겨 타게 되었다.

부포의 총지휘를 맡은 전우영 대위는 헌병대장으로 하여금 철수병력의 정리와 승선장으로 유도를 담당하게 하고, 인사장교에게는 승선병력의 파악, 정보장교에게는 보안업무를, 통신보좌관 등에게는 탄약고, 유류저장고, 차량과 보급품 등을 소각, 파기하게 하면서 최종 승선을 목전에 두고 연대장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51]

연대장이 부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전 병력이 철수한 후였으나,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100여 명이 남아 있었고, 멀리 바다위에는 2척의 LST가 정박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정보주임 유창훈 대위를 시켜 1척의 LST는 사곶으로 보내 제1, 제2대대의 병력을 수송하게 하고, 부두에 정렬하고 있는 105㎜ 곡사포와 대전차포는 분해하여 바다 속으로 버리게 하였다.

10 : 30이 지나면서 부포항 주변에 적 포탄이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최종 철수병력을 실은 어선들이 연대장의 승선을 기다리며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대

장과 박정호 소령은 아직 파기하지 않은 1문의 105㎜ 곡사포로서 적의 접근로를 향하여 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포화는 더욱 치열해지고, 멀리 바다위에까지 포탄이 날아갔다. 이때 연대장은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내가 너희들의 철수를 엄호하겠다"고 말하고 연대장 자신은 직접 격발하며 박 소령에게 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포사격을 계속하였다.

연대장의 결심을 꺾지 못한 제3대대장 및 참모요원, 그리고 최종 승선원은 눈물을 흘리며 11 : 00에 부포항을 떠나 대기하고 있는 LST로 향하였다. 이들 최종 철수선이 위험지대 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연대장은 남은 1문의 포도 분해하여 바다 속으로 밀어 넣고, 마지막 죄책감에 권총으로 자결하려 하였다. 이에 박소령이 연대장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간 후일을 도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진정시킨 다음 인근 섬에까지 수영하여 표류하고 있는 조각배 1척을 끌고 왔다.

그리하여 연대장과 박 소령은 외로운 패장의 모습으로 돛도 없는 조각배에 몸을 싣고 26일 14 : 00를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남긴 채 물결치는 대로 흘러갔다. 이리하여 이들은 망망대해로 밀려가다가 어선의 구조로 그날 19 : 00에 연평도에 도착하였고, 연평면 향토방위대원들과 함께 연평도의 방위책을 강구하였다.

이때 연평도와 해주사이의 어둠 속을 맴돌고 있는 군함 2척을 발견하였다. 잠시 뒤에 태극기가 나부끼는 함정이 접근하여 닻을 내리고, 해군 장교 2명이 "사령관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다가왔다. 두 해군 장교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백인엽 대령을 구출하라"는 특명을 받은 JMS-302함장 염봉생 대위와 JMS-307함장 백운기 대위였다. 그리하여 백대령과 부하 41명은 해군 소해정의 구출을 받게 되었다. 백대령은 옹진의 재탈환을 계획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7일 02 : 00에 연평도를 떠났다.

한편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유창훈 대위는 대기하고 있는 다른 1척의 LST에 옮겨 타고 선수를 사곶으로 돌리게 하였는데, 이 배는 해군 함정이 아니라 부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타고 온 해양대학 실습선이었다. 이 실습선은 인천지구 헌병대장 조홍만 대위에게 연락하여 획득한 것이었다.

25일 18 : 00에 이 함정은 인천을 출항하여 26일 04 : 00에 옹진 전양에 이르렀으나 썰물 때문에 부포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마침 본대의 철수선인 해군 LST-801함을 만나 옮겨 탄 것이었다. 그 뒤 유대위는 14 : 00에 사곶 전양으로 나가 망원경으로 부두를 세밀히 관찰하였으나 북한군이 순찰하는 기마대만 보이고, 제1, 제2대대의 거취를 알지 못한 채 인천으로 갔다.

LST-801함(김옥경 대위)의 김희준 중령과 1,200여 명의 철수병력들은 혹시 연대장이 뒤늦게라도 나오기를 기다리며 전양에서 16 : 00가 지나도록 기다렸으나, 연대장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인천으로 항진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김희준 중령이 지휘한 본대는 27일 04 : 00 인천에 상륙하여 영등포 방적공장 창고를 집결지로 정하고, 배속 및 파견부대들을 해체시켜 원대복귀 조치하는 한편, 700여 철수병력에 대하여는 오익경 소령으로 하여금 재편성하게 한 다음 김 중령 자신은 철수결과 보고 차 육군본부로 갔다.

해군 함정의 구조를 받은 백인엽 대령은 이날 08 : 00 인천에 상륙하고,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 채병덕과 국방부장관에게 철수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에게 "제17연대로서 대전에 피난중인 정부 경호임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52)]

이보다 앞서 육군본부는 제17연대를 미아리 또는 김포반도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여기에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어떻든 백인엽 대령은 그날 16 : 00 영등포 방적공장에서 그의 부하들과 상봉하고, 침통에 잠긴 그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임무를 띠고 대전 선화초등학교로 이동 집결시켰다.

### 2) 제2대대의 사곶 방면으로 철수

#### (1) 제2대대의 철수 상황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제1대대 방어지역으로 침공한 북한 제3경비여단 예하의 2개 대대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14 : 00에는 전선의 회복단계에 이르러 연대본부에 탄약지원을 촉구하였으나 연대본부는 이미 강령으로 철수한 뒤였다.

이 무렵 북한군 제1연대는 양원을 점령하고 그 여세로 옹진으로 육박하였는데, 제3여단이 기동방향에서 옹진을 협공하였기 때문에 대대장은 14 : 30 전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여 냉정리에 집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강령으로의 철수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적의 자주포 4대가 양원 3거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로를 사곶으로 정하고, 건제가 흩어진 제1, 제2대대와 제3대대 및 연대의 일부병력을 규합하여 통합 지휘하였다.[53]

송 소령은 제5중대장에게 철수로 타개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적의 자주포 제압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먼저 81㎜ 박격포 2문으로 냉정리에서 자주포를 제압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대대장은 15 : 00에 차를 돌려 다시 마현으로 가는 도중 오히려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냉정리의 불당산 남쪽에 이르러 철수병력과 만났다. 각 대대병력이 혼합된 400여 명의 철수병력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

송호림 소령은 큰 소리로 "대대장은 여기 있다. 제1대대장은 전사했고, 적은 옹진으로 육박, 우리의 퇴로를 차단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과 내가 한데 뭉쳐 힘을 합하여 적을 무찌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절대 복종하라"라고 하였다.[54] 그리고 우선 장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확인한 바, 모두 45명이고 그중 선임자는 제1대대 부대대장 박주용 대위가 있었다.

송호림 소령은 4월에 제2대대장으로 전임되기 전까지 제1대대장으로서 은파산 공격, 진지공사 등으로 제1대대의 장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사관급 이상은 개개인의 성격, 능력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여·순 10·19사건 진압시에 적진 속에 포위된 김백일 대령이 "이러한 때는 활동이 간편하고 기동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분대의 구성을 5명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여 부대를 재편하고 포위망을 무사히 뚫고 나온 그때의 일을 연상하여 1개 분대를 5명, 3개 분대를 1개 소대, 5개 소대를 1개 중대로 하는 7개 중대로 재편성하였다. 이때 북한 제1연대는 강령과 양원을 이미 점령하였고, 제3경비여단은 2개 대대를 앞세워 옹진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다.[55]

송 소령은 철수로를 사곶으로 정하고 7대의 2.5톤 차량에는 기관총을 거치하게 하여 선두에서 5대는 전투병력, 2대는 부상환자, 그리고 김충구 중위가 인솔하는 탄약차를 뒤따르게 하였다. 박주용 대위를 선두로 하여 옹진거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각 차량의 기관총과 소총으로 일제사격을 가하면서 돌진하게 하였다. 도보부대들은 조경학 중위 지휘하에 옹진시가를 피해 집결지에서 바로 연근산(옹진 남쪽 3㎞)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박주용 대위가 지휘하는 차량화 부대는 폐허와도 같은 시가를 돌진하면서 사격을 가하였다. 선발대로 보이는 적은 당황하여 미처 응사도 못하고 기동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대대장은 차량을 사곶으로 나가는 삼거리에 정차하게 하고, 병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후속차량과 도보부대의 이동을 엄호하고 있었다. 18 : 00경 대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송호림 소령 지휘 하에 사곶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19 : 30경 차량화부대가 연근산에서 도보부대와 합세하였을 때에는 제4중대의 1개 소대와 제7중대의 2개 소대병력, 기타 개별적으로 철수한 병력이 모여 700여 명 정도가 되었다.[56]

대대장은 제7중대와 제4중대의 박격포소대를 연근산에 잔류시켜 엄호부대로 하여 본대는 사곶으로 철수하게 하고, 엄호부대로서는 그들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옹진을 향하여 전 화기를 집중하게 하였다. 그후 대대장 송소령은 제1중대에 양명동(사곶 북쪽 2㎞)에서 경계에 임하게 하여, 21 : 00에 부대를 사곶(옹진 남쪽 13㎞)으로 철수하게 하였다.

사곶은 작은 항구로서 암석이 깔려 있어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나 1㎞ 바다 건너에는 용호도가 있었다. 거기에는 어업조합연합회, 해사국, 세관, 해산물검사소, 수산학교, 초등학교, 경찰지서와 동남면 출장소 등의 기관과 군부대로는 정보대, 헌병대의 파견대가 있어서 이곳과 왕래하는 배가 많았다.

사곶은 수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어선들이 많아 부포 다음가는 항구였다. 그러나 이날은 오전부터 이곳 각 기관원과 그들 가족들이 피난하는데 모두 동원되어 1척의 배도 없는 상황이었다. 해가 진 부두에는 그 뒤로 밀어닥친 군인, 경찰, 피난민들이 서로 배를 찾느라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700여 명이 뛰어들었으니 이곳의 혼잡상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송호림 소령은 큰소리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공중을 향하여 연속 5발을 쏘며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제563부대장(17연대 통상명칭) 송호림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안전을 내가 맡을 터이니 떠들지 말고 내 명령에 복종하시오"라고 하였다. 이때 군인, 경찰, 민간인을 따로 따로 정렬하게 하여 질서를 바로 잡게 하였는데, 군인은 제1중대를 제외하고도 1,100명을 초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뗏목이나 빈 드럼통을 엮어 활용하기도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으며 이미 시간은 23 : 00를 지났다.

그때 경찰간부 한사람이 찾아와 서장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진 경감임을 밝히고, "이 건너 용호도에는 지서용 경비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내라고 하여도 보내주지 않으니 대대장께서 요청해 보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용호지서주임을 전화로 호출하여 "내가 제563부대장 송호림이다. 여기에는 군·경·민을 합하여 2,000여 명이 있는데 빨리 이곳을 빠져 나가야 한다. 빨리 배를 보내 달라"고 설득하여 천만다행으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대장은 부두에 세워진 차량 15대를 불태우게 하고 배의 접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은 제각기 먼저 타려고 대오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대대장은 다시 권총을 쏘아 진정시키고 또 한 차례 강조하기를 "질서를 어기고 먼저 타려는 자, 또는 정원을 무시하고 타려는 자는 총살에 처한다. 승선순위는 군인, 경찰, 민간인 순으로 하되, 여기 있는 사람은 전원 수송할 것이니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라"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군중의 소동으로 접안하지 않았던 배가 대오가 정돈되는 것을 보고서야 서서히 육지에 닿았다. 여기에는 지서주임 김두의 경사, 신태원 선장, 기관장 이재현 외에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선명은 대성호, 배수톤수는 20톤의 소형 기관선으로서 90명을 태울 수 있었다.

당시 이 배는 지서주임의 요청으로 이날 12 : 00부터 21 : 00까지 옹진의 관사와 경찰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안전지대로 수송하고, 이들도 선주 임훈근을 포함한 선원 가족들을 태우고 23 : 00에는 이곳 용호도를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선원의 승선지연으로 대기중 지서주임이 찾아와 "우선 국군장병부터 안전지대로 옮겨야 하니 빨리 짐들을 내리고 사곶으로 가자"는 독촉에 이기지 못하여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57]

### (2) 민간선박 대성호의 지원

사곶에 집결한 병력은 제1, 제2대대와 제3대대 및 본부요원의 일부를 합한 1,300여 명이며, 경찰 및 민간인 등 도합 2,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것을 수용인원 90명의 대성호로 용호도까지 해상 1㎞를 1회 왕복 30분을 20여 회, 적을 지근에 두고 왕복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송호림 소령은 안전을 고려하여 1회에 80명씩 태우고, 하선시는 선착장이 아닌 수면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송 도중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처의 고통을 참으며 매회 직접 선두에서 지휘하였다.[58]

이리하여 26일 07 : 00에는 부두에 있는 군인, 경찰의 해상철수가 끝나고 백경석 중위 지휘하에 경계에 임하고 있던 제1중대가 승선할 무렵부터는 적의 포탄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대의 해상철수가 끝날 무렵에는 그 낙탄 빈도가 심하여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500여 피난민을 철수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 무렵 1척의 기관선이 이끄는 목선 2척에 60명을 태우고 용호도에 상륙한 제3중대의 윤종한 중위와 기타 개인적으로 철수한 병력 등 100여 명이 더 늘어났다.

용호도로 철수한 장병은 지서주임 김두의 경사의 배려로 2일만에 처음으로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 송소령은 식사를 마친 이들에게 경계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포에 있을 본대와의 합세가 시급한 까닭에 보급관 박원근 중위를 시켜 이곳에 철수한 전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배를 구하도록 명령하였다. 박중위는 09 : 00에 대성호를 타고 나가 그로부터 4시간 뒤인 13 : 00에 20t급 기관선 1척과 대형화물 운반선 6척을 끌고 돌아왔다.

그 후부터 출발준비를 서둘게 하여 기관선 1척에 화물선 3척씩을 로프로 연결하고, 각 화물선에는 200명씩을, 각 기관선에는 환자와 김두의 경사 및 대성호 요원의 가족들을 타게 하여 15 : 00에 부포로 향해 출항하였다. 그로부터 4시간

뒤 부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고함을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오는 소형 배를 발견하고 이를 확인한 바, 제3대대의 병사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포에는 적이 들어와 있어 갈 수 없다고 제지하였다.[59]

그런데 이들을 태운 선단은 배들이 낡았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스며드는 물을 철모로 퍼내면서 어려운 항해를 계속하였다. 연평도 근해에 접어들 때부터 물결이 거칠어지고 비바람마저 심해져 매었던 로프가 끊어져 천행만고 끝에 27일 07 : 00 연평도에 도착하였다.

### (3) 제17연대 예하부대의 인천 집결

송호림 소령은 연평도에서 전 병력에 식사하게 하고 기관선의 급유와 로프의 교체, 고장부분의 수리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총 3척의 기관선에 병력수송선 2척씩을 연결 조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해상에서 적과의 조우를 피하기 위해 이날 20 : 00에 연평도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는 항해도중 해군의 무전으로부터 "인천으로 가는 모든 선박은 적의 함선과 조우할지도 모르니 분산하여 항해하라"는 내용을 청취하고, 이때부터 각 선단간의 거리를 1시간 노정으로 조정하여 항진하게 하였다. 선두의 대성호는 송호림 소령이 직접 지휘하고, 둘째 배는 이동호 대위가, 셋째 배는 박주용 대위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던 까닭으로 이후 각 선단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전날과는 달리 항진속도도 빨랐고 로프도 끊어지지 않아 선두로 달린 대성호는 28일 06 : 00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잠시 뒤 제2선단이 입항하였다.[60]

송소령은 군경 1,500명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공로가 큰 김두의 경사와 대성호 선원 일동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아울러 난국에 처한 그들의 앞날에 행운을 빌면서 작별하였다. 이들은 제3선단의 안착을 바라며 해가 지도록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그날 20 : 00 항로를 남으로 하여 항진중 덕적도 근해에서 해군 YMS-513함(박경철 대위)를 만나 정부가 대전에 있음을 알았다. 그는 배를 군산으로 돌리게 하여 29일 07 : 00에 상륙하였다. 그곳에서 식사를 마친 이들은 준비된 열차로 대전으로 가서 집결지인 선화초등학교에서 본대와 합세하였다.

<표 3-14> 제17연대의 종합전과 및 손실(장교/사병)

| 구분 / 부대 | 전과 | | | | 손실 | | |
|---|---|---|---|---|---|---|---|
| | 사살 | 노획 | 파괴 | | 전사 | 부상 | 실종 |
| | | 82㎜포 | 자주포 | 장갑차 | | | |
| 제1대대 | 92 | 1 | | | 5/ 33 | 3/126 | 2/ 60 |
| 제2대대 | 353 | | | | 4/ 23 | 2/101 | |
| 제3대대 | 136 | | | 3 | 3/ 45 | 4/135 | |
| 본부 | | | 5 | 2 | | | 2/ |
| 계 | 581 | 1 | 5 | 5 | 12/101 | 9/362 | 4/ 60 |

한편 29일 11:00 인천에 상륙한 일부병력은 철시상태인 시가를 보고 갈 길이 막연하여 인천경찰서로 찾아갔다. 이때 경찰서는 마치 이사하는 집과 같이 혼잡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28일 수원으로 철수하였다가 UN군이 참전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이 주선한 차량으로 일부는 수원을 경유하여 대전으로, 다른 일부는 선편으로 당진에 상륙하여 6월 30일 선화초등학교에서 합세함으로써 6일간의 철수작전을 끝냈다.[61]

이상 옹진 전투를 서술하였으나, 이 전투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 문제이다. 북한은 북침을 주장하면서 그 주요 근거로써 국군의 해주진공설과 옹진포격설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주진공설' 문제이다. 국방부는 개전초기인 6월 25일 "옹진의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고전하고 있는 군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고무시키고자 하였으나, 전세는 악화일로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 요인이 되었고, 북한이 북진설을 날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오보가 나돌게 된 경위는 당시 연합신문사 최기덕 기자가 이 지구의 북한침공실태를 취재차 이날 옹진에서 백인엽 대령과 만난 다음 그날로 서울에 돌아와, 그와의 대화내용을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에게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방송과정에서 '해주진격'으로 와전되었던 것이다. 당시 최기자가 보도

과장에게 전하였던 요지는 “백인엽 대령이 서울에 가거든 이말 한마디만 전해주소.. 백인엽이는 부대를 지휘하여 해주로 진격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최기자가 연대를 방문하였을 무렵에는 적에게 돌파 당하는 바 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최기자와 장황하게 얘기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려니와 해주 진공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떻든 이로 인하여 북한에게 남한이 선제공격하였다는 구실을 갖게 하였고, 그들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그들 지대내의 은파산과 가천면 일대에 포격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옹진포격설’ 문제이다. 북한은 6·25전쟁의 개전 책임을 국군이 6월 23일부터 포격을 시작하여 25일에 반격이 이어진 것이라는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측에서 23~25일 미명까지 700여발의 105㎜ 야포와 81㎜ 박격포 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내용은 평양발 AFP특보, 조선중앙통신사, 건설통신 등을 통하여 26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교도통신사 등에서 보도되었다.

6월 23일에는 UN한국위원단 일행이 제17연대를 방문하고 이상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곳 연대에는 브라운(Frank Brown) 소령을 단장으로 한 미 군사고문관 5명이 나와 있어 군사부문에 대한 자문은 물론 각종 포탄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탄사용에 앞서 이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옹진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 전선을 통하여 침공이 가장 용이한 곳이고, 남한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섬으로서 병력과 보급품을 인천에서 9시간이 소요되는 해상수송을 하여야 하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60㎞가 넘는 광정면을 1개 연대와 1개 포병대대로서 38도선의 경비만으로도 과중한 임무인데, 육군본부에 보고나 지시 한마디 없이 1개 연대장의 독단으로 700여 발이나 되는 포탄을 소모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북한은 25일 그들이 생포했다는 한서한 중위를 제17연대의 작전지도 담당이라고 하여 그의 수기를 한국측의 선제공격의 물증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한 중위가 포로가 된 4일 만에 발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

# 5.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면

국군 제17연대는 전쟁직전 진지공사에 주력하여 전 병력의 동원은 물론 농한기를 맞은 주민들까지도 동원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지역 내 딱별단, 백골단,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의 단체를 향토방위대로 통합하고 단기교육을 통해 유사시 군 작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적의 전면 남침시 경계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대장은 방어정면에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전후방 근무와 전투력 균형유지를 위하여 매 2개월 마다 부대교대를 시켜 교육 훈련에 전력하였다. 특히 전쟁 직전 예비인 제2대대장은 부대를 광산시설에 집결시켜 기초훈련에서부터 소부대 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전원 특등사수 양성을 목표로 사격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또 직, 곡사화기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연대 교육계획에 따라 해안지역의 경비를 담당한 경찰대 및 향토방위대 요원에 대한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북한군의 남침시 역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연대장은 육본이 6월 23일부로 특별경계령을 해제하여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는 남침시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연대는 적의 전면침공에 대비한 세부적인 철수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실제 철수작전시 많은 혼란을 유발하였다.

##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면

육군본부는 북한의 전면침공시에는 이곳 부대를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동 연대는 5개 사단의 정상 방어정면에 해당하는 60㎞ 이상의 광정면을 맡아 소수의 병력을 중점 배치하여 경계임무 위주로 수행함으로써 전면전에 대비하기에는 취약성이 가중되었다. 이 지역을 1개 연대만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과중한 임무였다. 전반적인 병력부족으로 인해 개전 초기 적은 거점배치하고 있는 아군의 경계망을 피하여 은폐된 지역이 아닌 대로로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겼다. 또한 육군본부는 옹진으로부터도 적 침공 상황을 보고 받았으나 철수지원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철수간 많은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또한 연대는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조기에 두절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간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고, 단일 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지원부대에서 지원부대를 엄호 및 경계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철수시에도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백인엽 연대장은 북한군의 전면남침을 예상하지는 못했으나 열세한 병력으로나마 제2대대의 역습을 통하여 제1대대 정면의 적을 저지하는 등 작전지휘를 수행하였고, 제3대대 병력을 먼저 철수시키고 연대지휘부는 나중에 철수하는 등의 지휘력을 발휘하여 그나마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 (2) 정보면

연대는 수 주간에 걸친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옹진 전역에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하였으며 그 결과 부대철수계획 등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남침 약 1개월 전 북한군 제3경비여단 포병부 작전참모 소좌 강창남이 그의 연락병을 대동하고 귀순하였는데, 제17연대는 그때 그들의 전투서열과 배치상황 및 훈련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면의 북한군은 6월 중순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연대장은 육군본부에 적의 동향을 수차례 보고하여 그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대는 적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쟁전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도 적정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 (3) 기동면

연대장은 작전초기에 그들의 주공방향이 좌일선 정면에 지향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제2대대를 이곳에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적은 자주포와 장갑차로 구성된 1개 연대규모로 우일선 정면을 위협하였고, 연대장은 뒤늦게 일부 부대를 전환하여 이들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미 흩어진 대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말았다. 예비대의 투입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되고 적절한 투입시기가 중요한데, 연대는 예비대를 조기투입한 결과 적이 강령일대로 진출함으로써 방어선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철수작전시 철수로가 하나였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적이 연대의 중간지점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계획에도 없는 사곶으로 철수하여 여기서 다시 민간선박으로 철수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 (4) 화력 운용

연대에서는 전쟁 직전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포대를 추진 배치하여 제1, 제3대대를 직접지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포대는 효과적인 포병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탄약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철수시에도 전방에서 철수하는 보병부대를 엄호할 수 있도록 진지변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병과 함께 철수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연대장은 최후저지선인 중기동－죽교리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대전차포 중대장에게 4문의 대전차포를 강령 하천 동안에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중대는 적의 기갑부대가 강령입구에 도착하자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고 자주포 3대와 장갑차 2대를 파괴함으로써 옹진전투 이래

처음으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반면 철수작전시 장비 및 보급품 유기문제도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 (5) 방 호

연대는 전쟁 이전 지역 내 청년들을 동원하여 지휘소 및 관측소, 방어진지 등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강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연대는 주요 거점 위주로 경계초소를 운용하여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나 워낙 광정면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의 침공을 예방하지 못하고 기습을 당하였다. 각 대대 및 중대는 적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관측소가 파괴되는 동시에 유무선 기재가 파손되어 순식간에 지휘기능을 상실하였고 연대와도 유무선이 단절되었던 까닭에 상황보고나 구원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연대는 군청, 지방의료원, 청년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부상병의 응급처치와 후송, 보급추진, 그리고 피난민통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철수계획의 미비로 인해 병력수송 및 탄약 보급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연대의 전체 탄약 보유분과 수송차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북한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전방 중대 및 대대와의 유무선이 단절되어 적시에 전방부대에 탄약과 보급품을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식량과 유류 수송은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수작전시 의무대는 2.5톤 차량 5대로 부상자 후송을 지원하여 보행이 곤란한 중상자만을 우선적으로 후송하였으나 제2차로 계획된 환자들은 양원이 차단됨으로써 대부분 구출하지 못하였다.

# 제 4 절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 1. 전투 개요

국군 제1사단은 개전 당시 94㎞ 정면의 38도선상의 제13, 제12 양 연대를 배치하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수색에서 교육 훈련 중이었다. 사단은 자연장애물인 임진강의 남안을 주진지로 정하고 예성강 철교와 임진교 방어 및 파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제1사단이 25일 04 : 00～04 : 30 제13연대 정면에, 북한군 제6사단(-1)이 좌측 연백지구의 제12연대 정면에서 각각 전면 공격하였다. 사단은 예비대인 제11연대를 수색으로부터 급히 문산지구로 진출시켜 당일 11 : 00까지 임진교를 중심으로 한 문산돌출부 일대에 종심으로 배치하여 일대 격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26일 소수의 병력으로 임진교 동북쪽 4㎞ 지점에서 급속도하를 시도하면서 문산돌출부 일대에 주력을 투입하였고, 국군 제1사단은 26일 정오를 기하여 제11연대로 하여금 이를 반격하게 하여 이날 오후에 주진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적 주력이 우측 제13연대 정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고랑포—적성간의 도하지점으로 기갑부대를 도하하게 하여 문산으로 공격하고 보병의 일부는 연대 후방까지 깊이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26일 야간 이후 북한군 제1사단 주력이 문산 돌출부를 다시 공격하고 북한군 전차부대가 경의가도와 제13연대 지역의 파평산(498고지) 남단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사단은 적에게 많은 타격을 주면서 주력을 봉일천 최후저항선으로 이동시켰다.

27일의 봉일천의 배치는 제13연대와 증원된 제15연대를 전방에, 제11연대를 예비로 하는 도합 8개 대대로써 문산—서울간의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심 배치였다. 사단장은 이곳이 서울로부터 불과 20㎞인 최후의 보루임으로 28일 조기

에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아군 장병들은 적을 격파하면서 일부는 임진강 하안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날 아침 적이 미아리에서 서울 시내로 진출하였다는 급보를 접하자 사단은 전선의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황이 급변하여 28일 오전부터는 적의 기마대가 봉일천 동측에 출현하여 반격부대의 후방을 위협하는 한편 27일부터 출격하기 시작한 미 공군은 전선을 판별하지 못한 채 대지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사단은 이날 야간, 행주와 이산포 2개 지점의 도선장에서 한강을 도하, 철수하였다.

## 2. 북한군과 국군의 상황

### 1) 작전 지역의 특징

국군 제1사단 작전지역 내에는 고려조 500년의 도읍지로서 겨레의 애환을 간직한 개성을 필두로, 임진왜란 때의 승첩지인 행주산성과 벽제관의 전적지, 그 외에도 대소 산성과 봉수대가 산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북쪽 오랑캐의 주된 침공로였으며 임진왜란시에는 왜적의 공격축선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고대로부터 전략, 전술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역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연백군과 개풍군(현재 휴전선 이북) 및 파주, 고양군과 연천, 양주군의 일부지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사단 작전지역은 대체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리되며, 북쪽인 38선 분계선 일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다시 서쪽과 동쪽지역으로 세분된다. 지역 내의 지형은 38도선을 잇는 북쪽이 그 주변지세의 영향으로 구릉 및 고지군이 형성된 반면에 그 이남은 백천과 청단평야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예성강 등 저지대를 형성하고, 파평산이 임진강 남쪽에서 강류를 따라 남서로 능선을 뻗쳐 강과 더불어 횡격실을 이루었으며 기타지역은 구릉 내지는 평지이다.[62]

하천은 임진강이 사단의 주진지 전방에서 수개의 만곡부를 형성하며 남서로

사행으로 흐르며, 예성강이 사단의 중앙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해에 이름으로써 임진강－예성강 사이의 개성지역과 예성강 서쪽의 연백, 청단 지역이 북쪽을 제외한 3면의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반도가 되고 있다.

지역 내에는 예성강, 사천, 사미천,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등 여러 하천이 있으며, 임진강과 문산천, 곡릉천은 동에서 서로 흘러내려 방어작전에 유리하며 전술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청단 남단의 도서지역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청룡반도로부터 용매도에 이르는 해상 7㎞는 하루 두 차례씩의 간조 때에는 갯벌을 통하여 인마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기상은 하계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다.

개성 및 그 동쪽 일대 또한 개성 동편 9㎞ 지역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사천과 임진강으로 인하여 작전상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특히 방어지역 우측의 장파리－적성(구읍리) 간의 38도선 경계지대는 임진강이 그 지대 남쪽 2～5㎞ 지점을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철수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었다.[63]

예로부터 이 지역 일원의 교통망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천(개성 북쪽 22㎞)－개성－문산－서울 축선상에는 경의도로 및 경의선 철로가 가설된 교량 중 예성강철교 및 임진강 철교(경의선 철도)는 이를 폭파하였을 경우 피아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형지물이었다. 개성과 임진강 하류 일대에는 1950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렸으나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작전 기간중 기온은 평균 섭씨 20도 내외였으며 바람은 서남풍이 대체로 7m로 불었다.

### 2) 북한군 상황

개전 이전 국군 제1사단 정면의 적은 제3 및 제7경비여단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제3경비여단은 본부를 죽천에 두고 금천 북쪽으로부터 예성강 동쪽의 개성－고랑포를 포함한 중부지역까지 배치하여 국군 제12 및 제13연대의 경계부대와 대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64]

이들 경비여단을 엄호하듯 그 후방 남천에는 북한군 제1사단(소장 최광)이 위치하여 그 예하에 제1, 제2, 제3연대와 포병연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리원에는 1949년 7월 25일부터 동년 10월 사이에 중공군 제166사단 독립군 제4사단의 병력 1만여 명으로서 신의주로 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방호산이 북한군 800여 명을 보충 받아 개편한 제6사단이 그 예하에 제13, 제14, 제15연대와 포병연대를 두고서 남침을 위한 부대 정비 중에 있었다.

개전 직전 이들의 배치상황은 청단북쪽(△98)~연안북쪽(△120)~배천(△325)~개성 송악산~대원리(△282)~적성 북쪽(△137) 등을 연하는 38도선상의 감제지형을 따라 진지를 편성하고 특히 지역 내의 개성시가를 완전히 감제할 수 있는 송악산과 그 주변 고지에 강력한 방어진지(방카)를 구축하여 남침의 발판을 굳히고 있었다.

이들 중 남천의 제1사단은 지역 내 도처에서 마치 아군의 전력이라도 탐색하듯 빈번한 도발을 자행하다가 1950년 봄에 와서는 거의 매일같이 개성과 백천 등 38도선 연변도시에 박격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청단지역에서는 해방 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한 구암저수지의 수로를 일방적으로 끊음으로써 청단평야의 영농을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들은 6월 23일 대부대 기동훈련으로 가장하여 제1사단을 남천에서 고랑포 북쪽의 구화리로, 그리고 제6사단을 사리원에서 여현 북쪽으로 각각 이동시켰다.[65]

이들 2개 사단의 병력은 도합 2만 1,000명 내외이며 장비는 122㎜ 유탄포 24문, 76㎜ 유탄포 72문, 45㎜ 대전차포 168문, 그밖에 그들의 총사령부 직할의 제105기갑여단에서 지원된 제203전차연대의 전차 40대와 기타 자주포 32문이 이들 사단의 지원거리 내에 집결된 것으로 추단되었다.

### 3) 국군 상황

1950년 4월 22일부로 부임한 신임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곧 사단의 전 지역을 돌아본 뒤 고랑포-청단에 이르는 94㎞의 광정면을 방어하기 위한 현행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이 계획은 유사시에 개성, 연백, 청단 등의 주요 지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됨으로 즉시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66]

방어계획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타 사단에 비하여 뒤늦게 방어진지의 재편성에 착수한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5월 초순부터 매일 서울지구 학도호국단 산하의 학생을 1,000여 명씩 지원받아 가며 야전축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초순 임진강변의 사단 주저항선 진지구축작업을 마쳤다.

진지구축 상태는 개인호와 교통호는 무개호이고, 공용화기진지 및 관측소는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였으며, 장애물지대는 장벽자재가 지급되지 않아 설치되지 못하였으나 임진강 철교 폭파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

제1사단의 교육훈련은 중대 전술훈련을 마치고 대대 전술훈련을 실시 중에 있었다. 특히 제13연대 제1대대는 6월 23일부터 대대 야외기동훈련을 개시하여 유사시 대대가 배치될 방어지역(제13연대 우전방, 파평산 일대) 내의 자하리 부근(문산초등학교 자하리 분교)에서 야영 중에 있었다.

이 무렵 장병들은 6월 19일, 북한의 여현 역에서 요인교환 제의와 24일 육군본부에서 휴가, 외출, 외박 실시에 대한 지시가 하달되면서부터 경계심이 상당히 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사단에서는 6월 24일 보직병력의 1/3이 휴가를 떠나고 나머지 병력은 1/3 범위 내에서 외출, 외박이 실시되었다. 38선 경계임무를 수행중이던 제12연대의 경우, 총병력 2,600여 명 중 휴가, 외출, 외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이 1,460명이었으며, 그들 중 거의 80㎞에 달하는 연대 방어정면의 경계초소 및 거점에 배치된 병력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장비면에 있어서도, 제1사단 보유차량의 대대분이 육군본부의 차량정비 계획에 따라 기지창으로 후송되었다. 심지어는 제11연대의 경우, 81㎜ 박격포와 60㎜ 박격포를 비롯한 모든 공용화기가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부평에 소재한 병기대대에 후송되어 있었다. 또한 제1사단장은 6월 14일 보병학교 고급지휘관 과정에 입교 중이었으므로,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이 사단장 대리로 임명되어 있었다.[67]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서부 38도선 지역의 북한군에 대한 무력시위와 주민의

선무를 위하여 개전 1개월 전인 5월 25일부터 1개월간 예정으로 수도경비사령부(이종찬 대령) 예하의 기갑연대(유흥수 대령)에서 박도경 대위가 지휘하는 기갑 1개 중대(장갑차 9대)를 동원하여 개성, 백천, 연안, 청단지방을 순회한 뒤 6월 24일에 서울에 복귀시켰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이보다 10일이 앞서 시흥, 보병학교의 고급지휘관과정에 입교명령을 받아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에게 부재간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사단을 떠났다. 6월 23일에 이르러서는 이 무렵까지 실시되었던 비상경계가 해제되어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그간 영내대기 중이던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실시되어 사단의 1/3 병력이 영외로 나갔다. 또한 동일 밤에는 용산에 세워진 육군회관 낙성식에 많은 고급지휘관이 초대되었는데 사단장대리로 있던 최경록 대령도 이에 참석키 위하여 잠시 부대를 비우게 되었으며,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도 외출 중에 있었다. 이러던 중에 그 이튿날인 25일 미명 북한군의 전면 기습 남침공격이 시작되었다.

## 3.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청단—개성—고랑포 전투

### 1) 전투 경과

#### (1) 청단—연백 전투

6월 25일 미명 국군 제1사단 방어지역인 연백, 개성과 고랑포 지역은 지난밤부터 내린 비가 가랑비로 변하고 있었다. 이때 적의 포성이 정적을 깨고 진동하기 시작하여 38도선 경계진지와 그 주변부락이 일시에 포연 속에 잠겼다. 이러한 포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이어 북한군이 38도선을 순식간에 돌파하였다.[68]

이렇게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은 전 경비부대는 적의 전차와 병력의 우세에 눌

려 이렇다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분산하게 되었다. 제1사단장은 즉시 제13연대로 하여금 우선 주진지를 점령하게 하고 이어서 예비인 수색의 제11연대를 축차로 진지에 투입하여 임진강선에서의 결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면 먼저 국군 제1사단의 경계진지 전초전에 관해 서에서 동의 순으로 상술하기로 한다.

제12연대의 좌일선 제3대대(이무중 소령)는 예성강에서 청단 서쪽의 해안까지 총 50㎞의 대대 방어정면중 백천－연안－청단 등 3개 읍에 1개 중대씩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는 읍의 북쪽 외곽인 38도선 경비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제 병력이 배치된 경비구역은 39㎞에 달하며 청단 서쪽 11㎞의 외곽을 벗어난 지역은 경비상의 공백지대였다.[69]

대대는 제11중대(한보석 중위)를 좌일선으로서 대흥리에서 청단간의 경비를, 제10중대(조기백 중위)를 중앙일선으로서 포운리에서 대흥리(청단 동쪽 11㎞)간에, 제9중대(김두열 대위)를 우일선으로 백천에 주둔하여 예성강에서 포운리(백천 북쪽 4㎞)간에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제10중대의 2개 소대를 대대 예비병력으로서 중대본부와 함께 연안에 위치한 대대본부지역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군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 백천서 관하 3개소, 연안서 관하 4개소, 청단서 관하 1개소 등 경찰초소가 경비력을 보강하였다.

청단에 배치된 대대 좌일선 제11중대(한보석 중위)는 38도선으로부터 북쪽 1㎞에서 학암 저수지의 수문을 바라볼 수 있는 능선에 제1, 2소대, 서측 과수원 전방고지에 제3소대, 중대 동측에는 경찰관 경비초소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날 04 : 30 제3소대장 박규송 소위가 적의 기관총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에 박 소위는 즉각 각 분대장에게 전방경계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는데, 이 총성이 동측으로부터 점차 가까워지고 05 : 00에는 소대정면에서도 일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총성이 차차 잠잠해지더니 적의 진지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대남방송이 요란하게 퍼져 나왔다.

즉 "의정부와 개성 지역은 이미 인민군에 의하여 해방이 되고 예성강도 파괴되었다. 국방군의 대대본부가 있는 연안도 앞으로 얼마 후이면 해방이 된다. 현재 국방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으므로 속히 인민군에게 항복하라"라고 하였다.

적의 총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대는 07 : 30 중대로 철수하였다. 그곳에서 중대장으로부터 다시 대대본부가 배치된 연안으로 출동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소대는 출동도중 비봉산 남쪽에서 앞서 출동한 화기소대를 만났다. 그들은 비봉산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철수중이라는 것이었다. 제3소대 역시 방향을 돌려 중대본부에 돌아와 중대와 함께 청단 남쪽 용정리로 철수하였다. 이때 연안은 이미 북한군에게 점령된 이후였다. 중대는 15 : 00 적 기마대 약 30여기가 청룡반도의 서안을 따라 구정리 부근에 출현하자 즉각 출동하여 격퇴하고 청룡지서를 중심으로 한 외곽선에 배치하고 이날 밤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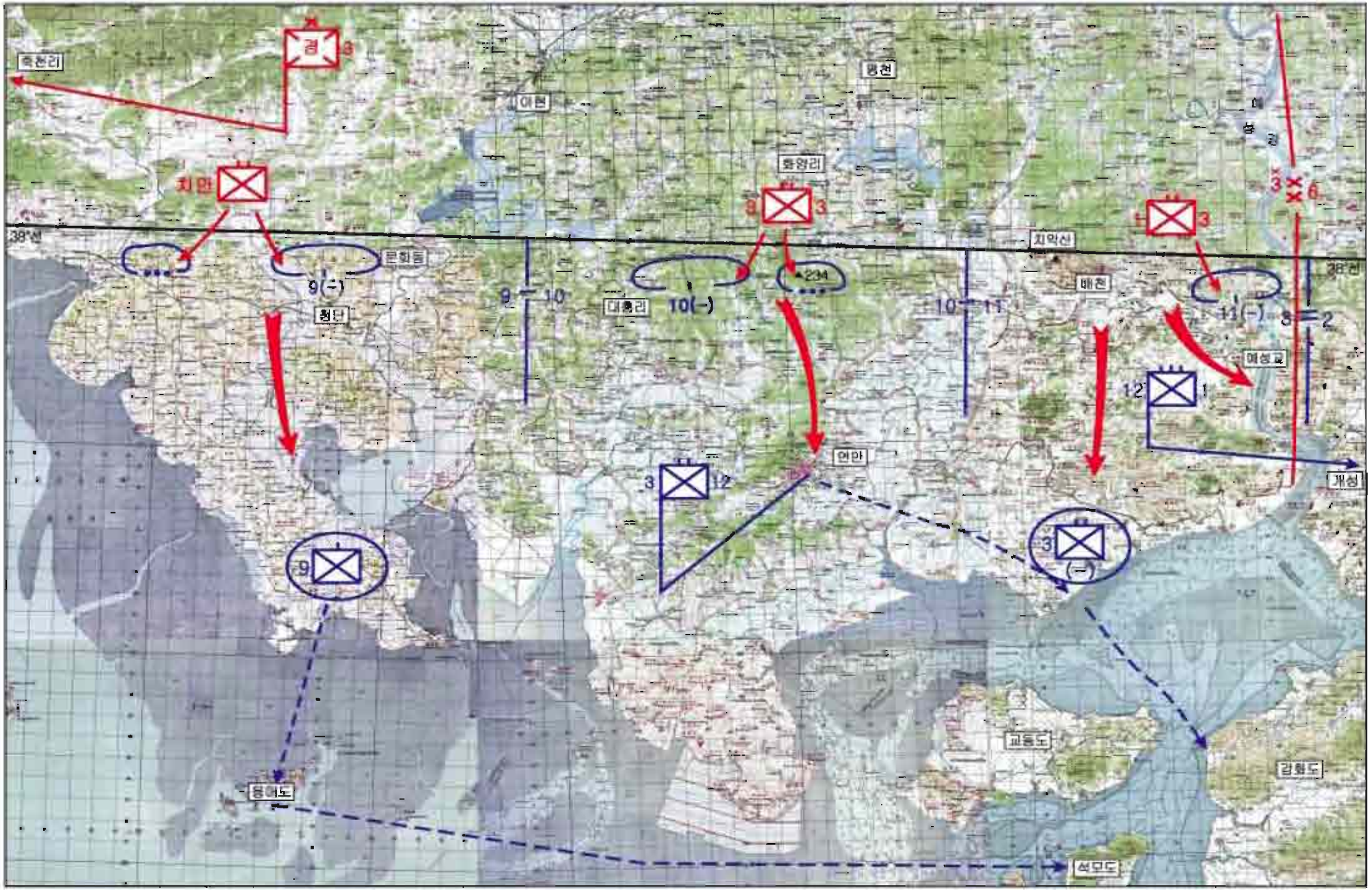
연안의 중앙일선 제10중대는 연안북쪽의 도로통제가 가능한 요지인 207, 209 고지에 제2, 3소대를 배치하고 중앙고지대에 경찰 경비초소를 배치하여 산간소로를 경계하였다. 이날 04 : 00 화산리(용동리 북쪽 3㎞)로부터 2개 중대규모의 적이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개시하고 동시에 일부의 적이 탁영에서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제2소대를 공격하였다.[70]

소대는 전방 능선과 후방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순식간에 분산철수하고 말았다. 석산에 배치된 제3소대도 용동리쪽으로 침공한 2개 중대규모의 적에 의하여 경찰초소와 함께 분산되고 말았다.

한편 대대 우일선 제9중대는 25일 03 : 00에 백천역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예성강 파견대(제1소대장) 김중위로부터 북쪽에서 많은 차량들이 라이트를 켠 채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다시 04 : 30에 백천 북쪽에 배치된 제2소대로부터 "적 포탄이 떨어진다"라는 보고를 받았다.[71] 05 : 20에는 백천역 부근에 3발의 적 포탄이 집중되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즉각 전방진지로 출동한 예비소대도 치악산을 점령한 적으로부터 박격포의 집중포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이미 이때는 중대와 각 소대간의 통신이 두절된 뒤인지라 전방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날이 밝을 무렵 중대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난 백천서장인데, 인민군이 내려왔으니 다같이 항복합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백천서장이 아니었으나, 이런 일이 있은 뒤에야 백천경찰서가 이미 적에게 점령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황도 3－4> 청단－연백 전투


옥천리
경
3
이현
명현
화양리
3
치안
3
38°선
은회동
9(-)
천단
9
10
대흥리
10(-)
▲234
지악산
10
11
배천
11(-)
3
2
3
6
예성교
12
1
개성
3
12
연안
3
(-)
9
교동도
강화도
옹여도
석모도

이때 부대대장 박관영 소령이 "중대는 강화도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에 중대는 예성강교량의 파괴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2.5톤 트럭으로 백천 남쪽 마천리로 철수하였다. 그뒤 연안을 경유, 접적 없이 석포까지 철수한 다음 다시 선편으로 강화도로 철수하였다.

한편 연안의 제3대대 본부와 제10중대(-2)는 이날 새벽 전방소대로부터 들어온 적침보고에 따라 즉각 대대에 비상을 하달한 다음 연안서와 협조하여 사이렌을 울렸다. 이리하여 빠른 시간에 영외 거주 장병이나 외출 장병, 그리고 비번근무중인 경찰관까지도 소집되었다. 제10중대의 제1소대와 화기소대가 대대장의 명령으로 05 : 00 전방으로 출동하였다. 중대장은 제2소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나 이미 제2, 제3소대 방어진지가 와해되고 적이 남하하고 있었다.[72]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제3대대장은 최소한 민·관의 철수를 위하여서라도 시간획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봉산에서 적을 지연하도록 하였으나, 그곳도 이미 적의 수중에 들은 후였다. 제10중대 병력이 이미 분산 철수하였으므로 대대는 10 : 00경 철수를 개시하였다. 대대는 13 : 00에 석포(백석리)에 도착하여 2척의 어선으로 강화도로 철수하였고,.[73] 청룡반도의 제11중대는 남쪽 해변에 집결하여 대형목선 1척으로 교동도로 철수하였다. 일부 병력은 19 : 55 간조에 맞추어 용매도를 거쳐 인천으로 철수하였다.[74]

### 2) 개성 전투

개성 서쪽지역에 대한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63㎞에 달하는 연대의 경비정면을 2개 대대로서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1개 대대를 연대예비로서 개성 남쪽 강릉동에 있는 연대본부 지역에 배치하였다. 즉, 제3대대를 예성강 서쪽 연백지역에, 제2대대를 개성북쪽에 배치하였다.

연대 우일선에 배치된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서측 예성강 동안에서부터 동측 제13연대(김익렬 대령)와 경계를 이룬 대원리까지의 경비구역에 서에서 동으로 제5, 제6, 제7중대 순으로 일선 배치하여 지대내의 감제고지인 송악산과 그 주변 경비에 역점을 두었다.[75]

이날 새벽 04 : 00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이 포성에 잠을 깬 후 작전장교로부터 "04 : 00부터 적이 포격과 함께 전방 중대지역에 침공을 가하여 왔으므로 교전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대장은 우선 본부지역에 있는 중대도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한 다음 상황실로 나갔다. 04 : 30 전날 내리던 비는 가랑비로 변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연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각 중대장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진지를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방상황을 계속 주시하였다. 이 무렵 개성시내에서도 적 포탄이 낙하되어 시내는 온통 혼란에 휩싸였으며, 대대본부가 시내중앙 자남산(△103)에 위치하여 모든 상황이 관망되었다.

대대의 좌일선 제5중대는 남침당시 9㎞의 경비정면을 맡아 1개 소대를 동측 1번 도로 서측에 있는 228고지 전방에 배치하고 2개 소대를 여현리 부근의 경의본선 철로 양변에 1개 소대씩을 배치하여 주로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로 통제에 임하고 있었다.

중대 4㎞ 후방 103고지에는 6월 23일 예정되었던 조만식 선생의 신병인수를 위한 경비 때문에 제1중대(우현 중위)로부터 제1소대가 선발되어 대기 중이었다. 1소대는 다른 1개 소대와 함께 6월 20일부터 파견되어 여현역 철로 양변의 구릉에 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신병교환이 결렬됨으로써 1개 소대는 원상 복귀되고 제1소대만이 대기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제5중대는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분산되고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고 말았다. 중대의 위치가 예성강변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주요 도로와 이어져 있어 적에게는 양호한 접근로였다. 중대는 2개의 도로로 침공한 적 주력에 의하여 유린되고 말았다.[76]

대대 중앙일선으로 송악산(488) 능선일대에 배치된 제6중대(백원담 중위)는 04 : 00 적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통신두절과 안개로 인한 시계제한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정면과 동측에서 공격을 받은 중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중대장 백원담 중위가 적탄에 쓰러지자 중대병력은 분산되고 말았다.

<상황도 3-5> 개성 전투


여현
보성
자남산
개성
대덕산
금산으로
수유리
요촌동
고원리
신흥리
송산리
대흥리
노상리
거곡리
임진강 철교
임 진 강
금촌리
김포
강화도

대대 우일선인 제7중대는 개성에서 시변리에 이르는 국도 좌우측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중대장 김영선 중위는 이보다 1시간 앞선 03 : 00에 비둘기고지의 소대로부터 적과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달려갔다. 총격전은 끝났으나 소대장은 "소대정면에서 적 진영을 발견하여 즉시 사격을 가하였더니 그들이 응사함으로써 총격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비둘기고지는 배치 병력의 선단이 38도선에서 불과 200m 내외의 거리였던 관계로 평소에도 서로 욕설을 하던 곳이었다.

중대장이 "계속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 다음 돌아서려고 할 때 몇 줄기 섬광이 비치더니 적 포탄이 고지주변에 작렬하였다. 적의 포격은 소대지역만이 아니라 그 후방과 동쪽 1㎞ 거리의 중대 관측소 부근에도 집중되었다. 중대장은 중대지휘를 위해 관측소로 직행하였는데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적이 적기를 꽂아놓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중대장은 본부요원에게 즉각 철수준비를 지시하고 전화기(EE-8)로 대대본부에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대에서 "중대는 적을 지연시키면서 대대본부(자남산)로 철수하라"라고 하여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제1소대는 연락이 두절된 채 뒤늦게 적진 속에 고립되었음을 알고 각개 행동으로 남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중대장이 3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자남산 근처에 이르렀을 07 : 00경 이미 적이 밀려들고 있었으므로 다시 남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개성에서는 서울행 열차가 피난민을 가득 태우고 출발 준비를 하던 중 북한군 선견대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또한 개성 서쪽 4㎞ 지점인 명륜동 삼거리의 헌병검문소에서는 이날 새벽 적 전차 3대가 금천으로부터 1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것을 본 초소헌병이 무심코 아군 장갑차가 전방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제3번 전차가 초병에 사격을 가하면서 동시에 검문소 건물을 순식간에 깔아뭉갬으로써 잠자던 헌병 수명이 압사 당하였다. 그런데 이 전차는 개성을 침공한 선두부대로 철로와 근접한 도로에 나와 기관차 통행을 막고 있었다.

제5중대장 일행이 문산으로 가는 도로변에서 철수중인 대대장과 일부병력을 만났다. 이 병력은 이날 05 : 30에 연대장 전성호 대령이 대대본부에 들러 대대장에게 "송악산 지역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대대를 떠났는데, 이미 이때는 전방중대들이 분산되고 적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부에서 철수한 대대장은 도로상에서 병력수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제5중대장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77]

대대장은 낙오병을 수습하여 강릉동 연대본부 부근에 당도하였을 때 이미 본부쪽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므로 다시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정오 무렵에는 개성을 점령한 적 주력이 문산쪽으로 종대행렬을 지어 남진하고 있었다.

한편 제5중대 후방 103고지의 제1중대 제1소대는 이날 05 : 30부터 토성읍내와 그 남쪽 일대에 집중되기 시작한 적 포탄으로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때는 벌써 제5중대나 본대와도 유무선의 두절된 상황이었다.[78]

적의 침공을 알게 된 소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본대에 알리기 위하여 소대 선임하사관에게 개성행 기관차로 속히 다녀오도록 지시한 뒤 자신은 소대를 지휘하여 뒷산에 올랐다. 소대장은 1㎞ 북쪽에서 철로와 철로변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대대규모의 적에 사격을 가했으나, 적의 역습을 받고 분산되고 말았다. 소대는 초목으로 은폐된 103고지 남측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한편 제12연대의 예비대인 제1대대(신현홍 소령)의 상황은 24일 오후부터 장병들의 외출 외박으로 일부 잔류인원만이 병사에 남았을 뿐 거의 비어 있었다. 25일 아침 개성쪽에서 날아온 포탄 한발이 연병장으로부터 남쪽 300m 지점에 떨어진데 이어 계속 연대본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떨어졌다. 이때 연대장 전성호 대령이 제2대대 지역에서 돌아오자마자 본부병력과 제1대대의 잔여병력을 즉시 출동시켜 고남리에 배치하여 개성으로부터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79]

이에 앞서 제12연대의 미 고문관인 다리고(Joseph R. Darigo) 대위는 개성 동북쪽에 있는 성균관내의 숙소에서 기거하는 단 한사람의 미군장교였다. 그는 이날 새벽 요란한 포탄소리에 잠을 깨어 짚차로 개성시내에 들어갔을 때 적의 총성이

들려오고 있었으므로 곧 문산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연대장은 멀지 않아 적의 공격기세가 강릉동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연대본부를 문산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연대참모를 본부에 집합시켜 철수준비를 서둘게 하고 차량부족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물자는 모두 파기토록 지시하였다. 이때 참모들이 연대장에게 건의하기를 "군인가족을 빨리 남하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연대장은 "개성시민을 피난시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마당에 군인가족이라고 무슨 특권으로 부족한 차량을 주느냐?"라고 대노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과거 중국군 출신으로서 대륙을 전전하면서 항일전을 계속한 독립투사였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다음 53세의 고령으로 다시 군에 입대하여 소령으로 임관한 다음 제18연대 부연대장을 거쳐 제12연대장으로 발탁되어 서부 38도선의 요충인 개성지역의 경비를 맡았던 것이다.

한편 제2대대의 분산병력 수습에 나섰던 대대장 한순화 소령이 강릉으로 오다가 고남리 부근에서 연대장 및 제1대대장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잠시 이들 지휘관과 연대의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연대장은 개성시내에서 적을 역습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대장의 결심에 따라 한순화 소령이 제1중대(-1)와 일부 수습된 병력으로 편성한 특공대를 통합 지휘하여 이날 10 : 00에 개성시 남대문까지 약진하였다. 때마침 적은 개성시를 점령한 뒤 계속 남하할 목적으로 대열을 정비 중이었다. 특공대가 그들 측방에 대하여 지근거리에서 일제사격을 가하자 대열 중앙부위의 많은 무리가 일시에 노변에 뒹굴었다. 이와 함께 남대문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뒤에 동서 양면에서 역습을 받은 특공대는 중과부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들은 개성 남쪽에 위치한 중화초등학교에서 일단 수습하여 부상병과 공용화기 등의 수송을 위하여 그 부근 마을에서 주민의 협조로서 획득한 수대의 우마차와 대대장 짚차에 실어 강릉을 거쳐 철수하였다. 영정포로 철수하는 도중에 대송리(영정포 북쪽 4㎞) 부근에 이르러 박격포는 수류탄으로 포신을 파괴하

고, 기관총은 완전 분해한 뒤 도로변 논에 묻었다. 이리하여 17 : 00에 영정포에 도착하여 어선을 얻어 19 : 00에 김포로 도강하였다.

한편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이들 강습부대가 철수하자 연대본부와 제1대대 잔여병력을 문산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군수주임과 근무중대장으로 하여금 후송이 곤란한 연대 탄약고의 일부탄약을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연대 탄약고 요원들은 탄약을 폭파하고 차량으로 임진강교로 철수하였다.[80]

### 3) 고랑포 전투

고랑포에서 대원리간의 38도선 경비임무를 맡은 제13연대 제3대대(유재성 소령)는 대대지휘소를 아곡동(장단 북쪽)에 두고 예하중대를 대대의 중앙전면에 있는 두매동(박골)에서 남으로 신장단에 이르는 소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배치하였다. 즉 그 서쪽에 제11중대(이원근 중위)를 좌일선으로 하고, 그 이동에 제10중대(박형수 중위)를 우일선으로 하였으며, 대대예비로서 제9중대(이종근 중위)를 대대본부 부근에 배치하였다.[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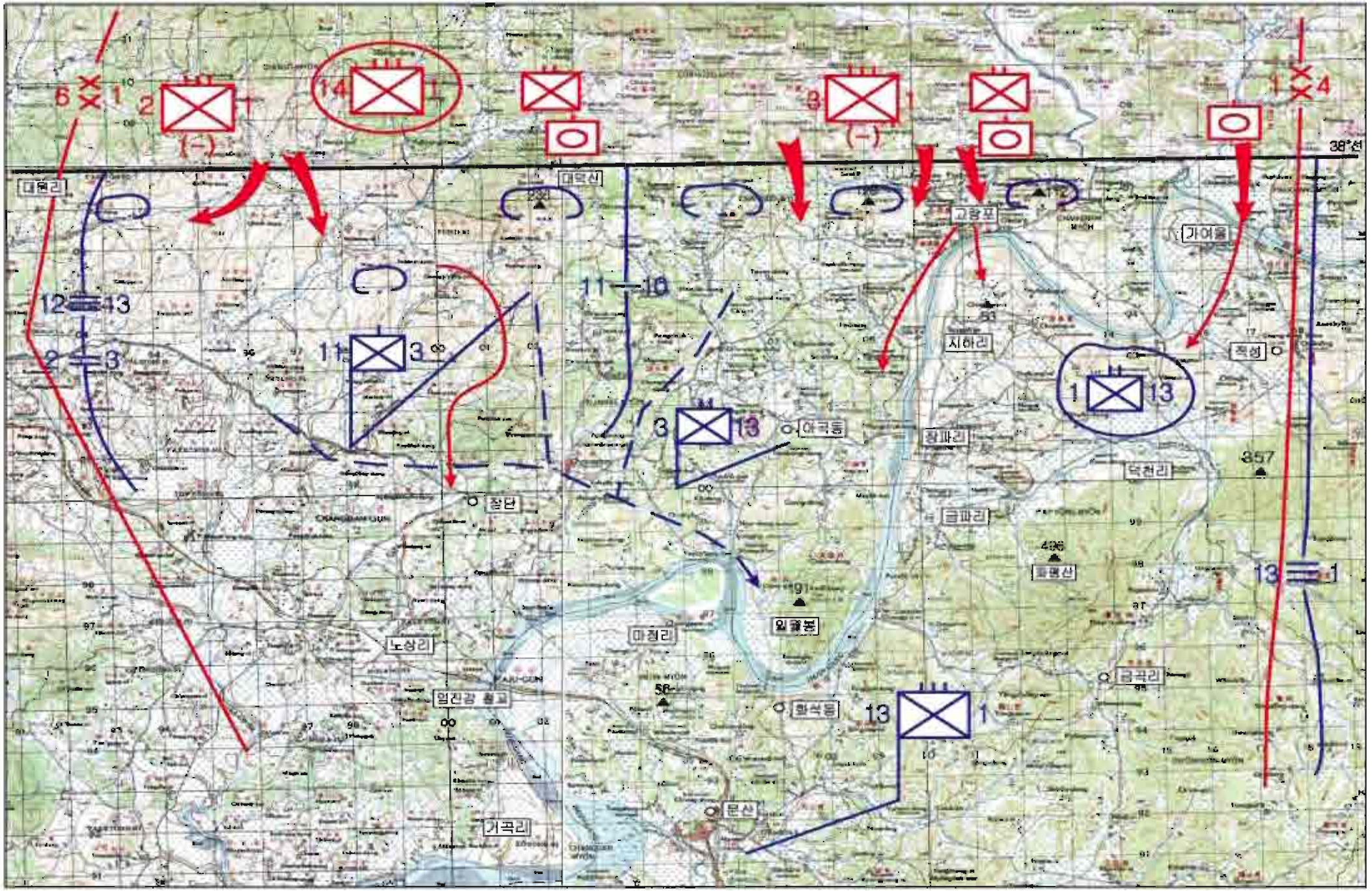
제3대대 좌일선인 제11중대는 제2소대(이신국 중위)를 중앙에 있는 154고지와 동 고지를 중심으로 한 좌우측(2~3㎞)간의 무명고지에 각각 1개 분대씩 분할 배치하고, 제1소대(조철권 중위)를 중대 우단에 있는 대덕산(△236)에, 1개 소대는 중대본부와 함께 대덕산 남쪽 2㎞ 지역에 예비로 배치하였다.

이날 04 : 30 대덕산 일대에 떨어진 적 포탄으로 인해 취침호에서 쉬고 있던 소대원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소대선임하사관 박구서 중사가 소대장에게 "경계분초가 위험하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뛰어나간 직후 적 포탄에 의해 전신 파편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잠시 후 적 3개 소대규모가 종대대형으로 북쪽 두매동-장단 도로를 따라 접근하고 적의 첨병분대가 소대진지에 접근하였다. 이에 전 소대가 이들을 진전 200m 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전 화력으로 격멸하였다. 소대는 즉시 적 주력으로부터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이미 그들은 대덕산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에 소대장은 이미 중대와의 유선이 두절되어 전령을 중대에 보내고 일부

<상황도 3-6> 고랑포 전투


38°선
대현리
대덕산
고랑포
가여울
지하리
적성
장단
노상리
임진강 철교
거곡리
따정리
임꺽봉
화석동
문산
아곡동
창파리
덕천리
금파리
화명산
357
436
금곡리

병력을 대동하여 전방 경계분초로 올라갔다. 다행히 분초에는 한사람의 부상자도 없었다. 소대장은 얼마 뒤 "소대는 즉시 임진강으로 철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소대는 이날 정오전에 대덕산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이미 장단을 우회하여 오후 늦게 문산포 대안에서 소형 목선으로 임진강을 건넜다.

한편 우일선 제10중대장은 사내동(고랑포 서남쪽 3㎞)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포성에 눈을 뜬 것은 04 : 30이었다. 중대장은 이때 112고지의 제1소대(장재만 중위)로부터 전화(EE-8)를 받았다. 즉 적이 11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상황 보고였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각 소대에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대대에 보고하였다. 잠시 뒤에 다시 제1소대장으로부터 "적 1개 중대가 안개를 헤치면서 진지에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보고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82]

당시 중대의 배치는 제2소대(임헌덕 중위)를 중대 좌측에 있는 104고지에, 제3소대(정세웅 소위)를 중앙의 126고지에 배치하였는데 소대간의 배치공간이 3~5㎞나



고랑포 나루터. 북한군의 도하지점

되었다. 제1소대를 중대 우측 38도선상의 112고지(고랑포 북동쪽 2㎞)에 배치하여 주로 전방의 사미천 계곡과 남북간 주변도로를 경비하였는데, 112고지는 한때 남북교역이 성행한 당시 일일 수십 대의 차량이 왕래하던 곳이다.

이러한 지역별 중점배치는 광정면인 까닭에 부득이하였으며 전 사단의 경비부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또한 중대와 소대간에는 EE-8 전화기 하나로서 연락이 유지되었으며, 그나마 소대간의 측방통신은 없었다. 소대의 SCR-536 무전기는 시간교신을 하였던 탓으로 긴급시의 소통은 어려운 상태였다.

중대장은 112고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대본부 요원과 화기소대 병력으로 출동준비를 서둘게 하였는데, 이때 대대장 유재성 소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중대장은 최선을 다하여 고랑포 지역을 사수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보급차량으로서 112고지를 향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출동부대가 고랑포 시내에 접어들자 이미 적의 선두부대가 고랑포 북쪽 외곽의 구릉을 선점하여 중대에 사격을 집중하였다. 중대는 급히 차량을 반전시켜 남쪽 임진강변으로 이동한 다음 59고지 능선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가여울 지역의 모습 전차의 도섭이 가능한 지역임

동시에 60㎜ 박격포로 정상에 화력을 집중하고 수냉식 기관총으로 112고지로 통하는 도로에 고정사격을 실시하였다.

얼마 후 하고랑포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하는 한 집단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의 선두가 이미 임진강 남쪽 800m에 있는 53고지 정상에 올라 적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다. 중대는 박격포와 기관총의 사격방향을 즉각 53고지에 돌려 일시에 전 화력을 집중하자 그들은 크게 당황한 듯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뒤에 응전태세를 갖춘 이들의 자동화기가 불을 뿜은데 이어 박격포를 쏘아대는 것이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피아가 포격전을 벌였으나 곧 중대의 포탄이 소진되고 말았다. 적은 곧 자하리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가 06 : 00가 지났을 때였다.[83]

중대장은 적이 중대와 가까운 아곡동의 대대본부 지역까지 침공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대를 이끌고 일단 석포(임진강변)로 철수한 다음 이날 오후에 동판리(임진나루터 대안)에 도착하여 전방에서 철수하는 대대와 합세하였다.

한편 이날 새벽, 대대본부를 포함한 제9중대(이종근 중위)와 제12중대(한인성



일월봉 제3대대 철수지역

대위) 등 아곡동의 대대 숙영지에서는 전방에서 들리는 포성과 더불어 전투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대대장 천막에는 전방중대로부터 잇따라 적의 남침보고가 유선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북한군의 침공규모가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을 보고 전방중대장에게 "현진지를 사수하라"고 강조한 다음 즉각 대대비상을 발령하는 동시에 각 중대별로 출동준비를 지시하였다. 얼마 뒤 연대 전화로 "적이 미명을 기하여 본격적인 남침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제3대대는 현 위치에서 최대한 적을 지연시키면서 주력은 임진나루터로 철수토록 하고 고랑포 지역 중대는 파평산 동측으로 철수하게 하여 금곡리 부근의 예비대 위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지시를 다시 각 중대에 하달하려 할 때에는 이미 유무선이 두절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전방중대가 필시 적의 공격으로 여의치 않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라 판단하고 가용병력으로 춘양동에 있는 91고지와 그 서측 무명고지(△181)를 점령, 장단도로를 통제하여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하였다.[84]

06 : 00경 제9, 제12 양 중대가 즉시 숙영지를 출발하려는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수발의 적 포탄이 숙영지 주위에 떨어지면서 적 전차 7대가 북쪽 1㎞ 거리에서 남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제9중대에 대대 숙영지 좌우측방의 능선을 점령하게 하고 제12중대에 적의 전차를 직접 조준할 수 있도록 대대 81㎜ 박격포를 탄약차가 있는 능선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 2.36″로켓포의 사수와 부사수들을 전원 소집하여 도로변에 종심배치토록 하였다.

얼마 후 장단에서 고랑포쪽으로 올라가는 장단경찰서 소속의 3/4톤 트럭 1대가 500m 전방의 모퉁이 길에서 적 전차의 직사포에 맞아 대파되었다. 이는 장단경찰서의 경비주임 김기태 경위가 무장 경찰관 21명을 이끌고 고랑포로 출동 중이었다. 이들 중 6명의 부상자만이 아군에게 구출되었다.

아군 경찰차량을 파괴한 적 전차가 잠시 노상에 서게 되자 후속전차가 그 뒤를 이어 종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제9중대장은 능선에 배치된 2.36″로켓포와 81㎜ 박격포에 사격명령을 내렸다. 순식간에 포화가 적 전차에 집중되었으나 잠시 후 전차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에 전차 주변에 산개한 적 1개 중대

가 도리어 역습을 가하였다.[85] 이리하여 대대숙영지 전방의 개활지를 사이에 두고 교전상태에 들어갔으나 좌측방의 도로를 따라 7대의 전차가 계속 남하하였다. 대대장은 제9중대 제1소대장 장두철 중위 등 8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이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들은 공격행동 중에 모두 산화하고 말았다.

이어 다시 많은 지원자들이 특공대를 자청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화기중대의 김일하 병장 등 7명이 수류탄과 개인화기만으로 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특공대는 즉시 주위의 무성한 초목을 이용하여 10m 거리까지 육박하여 적 전차의 옆구리에 수류탄을 투척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원위치로 돌아왔다.

2차에 걸친 전차공격이 무위에 그치자 대대장은 현 위치에서의 지탱은 어렵다고 보고, 대대(-2)를 남쪽 2㎞ 지점인 85고지로 철수시켰다. 대대병력은 이날 17 : 00 동판리(임진나루터 대안)에서 제10중대와 합세한 다음 일월봉(△191)에서 병력을 재배치하였다가 저녁 무렵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 22 : 30 금곡리 부근에 집결하였다.[86]

## 4. 사단의 주요 조치

### 1) 사단장의 조치

보병학교에서 피교육중이던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이날 25일 07 : 00 그의 숙소에서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으로 전방부대가 교전중이라는 전화보고를 받게 되었다. 사단장은 자신이 사단의 지휘권을 확인하고 또 전방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급히 차편을 얻어 용산의 육군본부에 출두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자신의 원대복귀를 확인한 다음 미 고문관 로크웰(Rockwel) 중령과 사단장 대리로 있던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을 대동하고 수색의 사단사령부에 돌아왔다. 사단장은 사령부에 돌아온 다음에야 1/3의 병력이 휴가와 외출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경록 대령에게 우선 병력이 집결되는대로 축차적으

로 전방에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참모장 석주암 대령으로 하여금 문산에 사단 전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제11연대가 수색으로부터 문산으로 철도 이동하여 문산돌출부에 미리 편성된 진지에 투입될 무렵 사단 전술지휘소를 문산초등학교에 설치하였고 다시 이날 정오 무렵 파주로 옮겼다.[87]

지휘소의 파주 이동은 전술적으로 문산읍이 임진강변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의 제12연대(전성호 대령)와 유무선이 두절되어 동 연대의 철수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 만에 하나 임진강 철수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가용한 사단예비가 없어짐으로써 문산과 그 서측방에 대한 방호책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제12연대의 부대보충을 육군본부에 건의하였다. 이날 14 : 00 제12연대장이 차량사고를 당한 듯 안면에 부상한 몸으로 임진강교를 건너 사단에 돌아왔다. 그는 "적의 기습공격으로 연대가 조기에 와해되었으며, 유무선의 불통으로 예성강 이남의 제3대대(이무중 소령)상황을 전연 알 길이 없고, 제1・제2 양 대대 또한 분산철수한 관계로 병력의 수습이 어려웠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우선 부상을 당한 전 대령을 후송하도록 조치한 뒤 계속 전방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증원부대가 사단에 도착하였다.[88]

### 2) 증원부대의 도착 및 운용

이날 저녁 무렵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의 병력으로 혼합 편성된 서울특별연대(유해준 중령)가 사단에 도착하였다. 이때의 사단은 좌우측방이 모두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단장은 증원부대를 전방연대에 분할 배속하기로 결심하고 신고가 끝나는 즉시 육사교도대(김응용 소령)를 우일선 제13연대에, 그리고 보병학교 교도대(김병화 소령)를 좌일선 제11연대에 각각 재배속하도록 명령하고, 연대장 유해준 중령을 동행한 부연대장 김동빈 중령(육사)에게 보병운영에 대해 지도하도록 이르고 작전주임 이용 대위(보교)는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을 보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연대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자신은 2개 연대지역을 내왕하면서 연대를 돕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늦게 도착한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제3대대가 금촌에서 행군중임을 보고하였다.[89]

사단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하였다. 그는 "사단의 우일선은 지역 내의 감제지형인 파평산을 확보하는 한 적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좌일선은 문산 돌출부라는 지형조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서측방의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만약 적이 임진강을 도하한다면 그 우세한 전력으로 문산에 점령한 뒤 1번 도로상에 공격력을 집중하여 남하를 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90] 따라서 사단장은 2차적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려면 도로 양변에 있는 고지군에 가용병력으로 사전에 배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무렵에 도착한 제15연대 제3대대(최병순 소령)에게 금촌 북쪽 고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혼성연대에 이어 제15연대 제3대대가 이날 밤에 금촌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방어의 중심을 유지하였다.

한편 이날 14 : 00에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대전차포 1개 중대와 장갑차 1개 소대가 서울을 출발하여 16 : 30에 제1사단 지역으로 진출하였다.[91] 이에 사단은 대전차포중대를 문산 지역에 배치하고, 장갑소대는 사단의 정찰임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이날은 봉일천 남쪽에서 차후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였다. 당시 장갑소대는 기갑연대 제1장갑수색대대 제3중대(박용실 대위) 소속의 최원겸 소위가 지휘하였는데 장비는 장갑차 3대, 1/4톤 짚차 6대, 그리고 소대장 장갑차에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SCR-506와 508 무전기가 장비되었으며, 각 장갑차에는 37㎜포 1문과 경기관총와 중기관총가 각각 1정씩 장비되었다. 이 밖에 소대에는 1문의 박격포와 각 짚차에 중기관총 1정이 장비되어 있어 화력과 통신수단의 겸비로 정찰활동에 적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임진강 철교의 폭파

사단 공병대대(장치은 소령)는 사단장의 철교폭파에 대한 준비명령이 내려지자 대대장이 대대 작전과장 정극서 대위로 하여금 기존 폭파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정대위는 폭파책임부대인 제3중대의 주둔지인 봉루리(문산 남쪽 1㎞)까지 3/4톤 트럭으로 직행하여 중대장 김동일 대위를 찾았다. 그러나 그의 행방이 묘연하자 중대장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결행하기로 하여 폭파조를 싣

고 정오 무렵 현장에 진출하였다.[92]

정대위는 교각에 폭약을 장전하고 대기하였는데 얼마 후 대대장 장치은 소령이 폭약장전을 점검하더니 “비겁하게 왜 차안쪽에 폭약을 장전하였는가! 즉시 대안쪽에 재장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정대위 등 폭파조는 다시 대안쪽 3번 교각에다가 장전을 마친 다음 본대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사단이나 대대로부터의 폭파명령이 하달되지 않았다.

정대위는 교량의 폭파시기가 제12연대의 철수직후에 시행하도록 된 대대 작전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기하였다. 얼마 후 연대의 주력이 통과한 다음 대안 적의 징후를 발견하였다. 이에 정대위는 교량폭파의 시기가 왔다고 믿고 이를 독단으로 결행하기로 결심하여 폭파조로 하여금 양측 철교 중 먼저 남쪽 철교인 경의선 철도부터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즉각 남쪽 교량을 폭파한데 이어 북쪽 교량을 폭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배선이 끊어진 듯 실패하였다. 이에 정대위는 즉시 폭파병 2명에게 지시하여 다시



임진강교 모습(우측 교각). 국군 철수 시에는 반파된 상황이었음

연결하여 폭파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대위 일행은 교량폭파의 상황을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부득불 철수하였다.

당시 교량의 파괴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의 일부가 이날 밤 이 교량을 이용하여 차안 쪽으로 침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완파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93] 이에 대하여 당시의 공병대대 작전과장 정극서 대위는 "임진강 교량은 2개인데 남쪽은 경의선 철도이고 북쪽은 인도교이다. 나는 먼저 남쪽부터 폭파하고 다음에 인도교를 폭파하였던 바 1차 폭파는 실패하고 2차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때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철수하였으므로 파괴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 폭파는 된 것이다"라고 술회하고 있다.[94]

## 5. 육군본부의 주요 조치

남침 당일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의 전면남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후방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전 사단에 대하여 즉시 서울에 이동하도록 <작전명령> 제84호를 하달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특별연대 편성에 관한 <작전명령> 제85호를 추가로 하달하였다.[95]

이에 따라 보병학교(민기식 대령) 학생연대장 유해준 중령은 육군본부 작전국장(장창국 대령)으로부터 연대편성에 관한 지침과 아울러 즉시 문산으로 이동하여 제1사단장(백선엽 대령) 지휘하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즉시 시흥의 보병학교와 태릉의 육사에서 용산초등학교로 집결하는 병력으로 혼성연대를 편성하였다.[96]

당시 보병학교 교도대는 김병화 소령이 지휘하는 제5연대 제3대대가 교도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까닭으로 비교적 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외출장병의 부대복귀가 늦었던 탓으로 부족병력을 후보생으로 충당하는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유중령은 보병학교와 육사의 교도대를 기간으로 혼합 편성한 서울특별연대를 이날 오후 늦게 철도(용산—문산)편으로 출발시킨 뒤 일부 본부 요원을 이끌고 버스 편으로 문산으로 직행하였다.

한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에 의하여 광주의 제5사단(이응준 소장)의 일부 부대가 제1사단을 증원하게 되었다. 먼저 전주에 있는 제15연대(최영희 대령)의 연대예비로서 교육 중에 있던 제3대대(최병순 소령)가 이날 17 : 00에 연대의 선견대로 용산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보병학교에서 피교육중에 있었으므로 이날 아침 서울에 있는 그의 숙소에서 "전 장병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는 임시 뉴스를 청취한 뒤 급히 육군본부에 출두하였다. 그는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등 몇몇 참모들로부터 "상황이 긴급하니 연대를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부대지휘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10 : 00에 육군본부에서 직접 연대에 전화 연락하여 우선 교육중인 제3대대부터 즉시 출동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 사후 확인조치로서 이날 12 : 00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가 정식으로 하달된 것이다.

최영희 대령은 예하 제3대대가 용산역에 도착하는 즉시 이를 지휘하여 열차편으로 즉각 문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열차가 수색역을 지나 능곡역에 다다랐을 무렵 적의 YAK전투기 3대로부터 기총소사를 받고 7명의 부상병을 내었기 때문에 계속 열차이동은 불리하다고 보고 적기가 사라진 후에는 능곡역에서 전원이 하차한 다음 연대장은 차편으로 사단에 직행하였다. 부대는 대대장 지휘하에 행군을 계속하여 금촌 북쪽에서 연대장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97]

한편 광주에 위치한 제20연대(박기병 대령)는 마침 백운산지역의 공비토벌을 위하여 이날 아침 열차로 순천으로 출발한 예하 제3대대(박희동 소령)를 서울에 출동시키고자 순천역으로 긴급 연락하였다. 이날 12 : 00무렵 연대장은 순천역에 도착한 대대를 송정리까지 회차시킨 다음 서울로 출동시켰다. 그리하여 대대는 25일 후반야에 송정리를 떠나 다음날 문산에 도착하게 되었다.[98]

# 6. 주저항선 전투 ; 임진강방어선 전투

## 1) 문산 돌출부의 공방전

### (1) 제11연대 출동과 배치상황

6월 25일 새벽, 고랑포－청단간의 국군 제1사단 책임지역 내의 38도선을 전차와 더불어 2개 사단의 주력으로 돌파한 적은 아군 경비부대가 중과부적으로 철수하게 되자 90㎞의 경비정면에서 20여㎞로 줄어든 임진강 방어선으로 쇄도하였다. 이에 고랑포－장단 방면으로부터 침공한 적 제1사단(소장 최광)은 임진강 상류지역에 배치된 국군 제13연대(김익렬 대령)에 공격을 지향하고, 개성을 석권한 제6사단(소장 방호산)은 제13연대 2대대를 추격하여 개성 남쪽으로 향하였다. 이에 사단은 적성－덕현리－장파리를 잇는 파평산(△496) 전방과 문산 북쪽의 임진강변에서 동시에 북한군 제1사단 주력을 맞이하여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날 수색에 위치한 제11연대(최경록 대령)는 사단으로부터 하달된 비상경보에 의하여 휴가와 외출 등으로 잔류 병력만 남아있는 영내에 비상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로부터 2시간 뒤인 08 : 30에 비상 소집된 영외거주 장병과 일부 복귀한 외출병력이 집결되어 연대 인사주임 김정렬 대위 지휘하에 인원점검에 이어 각 대대별로 군장검사가 실시되었다.[99]

그런데 이때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예고 없이 연대 연병장에 나타나 연대장을 찾았다. 그러나 사단장 대리를 맡고 있는 연대장이 아직 사단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이에 인사주임 김정렬 대위가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장 앞으로 뛰어 나갔으나 채병덕 총참모장은 연대장의 부재에 개의치 않고 “제11연대는 송악산전투 때와 같이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남기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출병력은 계속 복귀하고 있었으며 출동준비를 갖추는대로 소속중대의 대열 속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문산으로 철도 이동하라”는 연대장의 구두명령이 사단으로부터 전달됨에 따라 우선 출동준비가 끝난

병력부터 수색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뒤늦게 복귀하는 병력은 역으로 직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역 부근에서 개인화기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뒤에 사단으로부터 수색역으로 직행한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예하부대 지휘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부대이동을 위한 명령을 하달하였다.[100]

따라서 연대는 우선적으로 1차 488명, 2차 131명, 3차 361명이 11 : 00부터 15 : 00간에 임시열차 편으로 문산으로 이동하였다. 문산역과 그 북쪽에서 하차한 부대들은 기본휴대량의 탄약을 보급 받고 각 대대장 지휘하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한편 연대본부는 차량과 열차 편으로 적전리(문산 남쪽 1㎞)에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설하는 한편, 작전보좌관 최일영 대위로 하여금 지휘소 앞 구릉에 관측소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 관측소는 문산 시가와 역, 1번 도로 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으나 안개 때문에 전방대대까지는 관측이 되지 못하였다.

연대장은 개성으로부터 철수하는 제12연대의 엄호와 연대의 경계부대로서 임진강 북안에 부대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정오 무렵 우일선 제2대대(정영홍 소령)로 하여금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임진강 북쪽에 병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제2대대장은 13 : 00 제7중대를 임진강 북쪽의 구릉을 점령하게 하였으며 중대는 우선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구릉의 좌우측방에 조기경보를 위한 관측조를 배치하였다. 중대가 배치된 후 제12연대의 철수부대인 듯한 여러 대의 아군차량이 통과함을 보고 손을 흔드는 자도 있었으나 도보부대의 철수는 볼 수가 없었다.

얼마 후 15 : 00 무렵 한 무리의 적 기마대가 개성－문산간의 도로를 따라 먼지를 올리면서 진전으로 접근하였다.[101] 이에 제7중대는 선두 기마대가 100m에 근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명령에 따라 양측구릉에서 은폐하고 있던 전 중대가 사격을 집중하니 적 기마대는 큰 피해를 입고 장단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이 패주한 얼마 뒤 대규모의 적 부대가 임진강 3㎞ 전방에 이르렀으므로 중대는 본진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축차로 추진된 병력으로 25일 오후 늦게까지 주진지의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각 대대 배치는 연대의 방어계획에 따라 좌일선에 제1대대(고한조 대위), 우일선에 제2대대(정영홍 소령) 그리고 연대예비로서 제3대대(김재명 소령)를 적

전리(문산 동남쪽 1㎞)의 구릉 부근에 배치하였다. 연대의 정면은 3면이 임진강의 만곡부로서 둘러싸인 자연장애물이었으나 만곡부 좌측은 방어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 추가병력을 요청하는 가운데 밤을 맞이하였다.[102]

### (2) 주요 전투

전날 문산 돌출부의 최선단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 제1대대(고한조 대위)는 국도의 좌측에 제2중대(김봉건 중위)를 배치하여 좌일선으로 하고, 국도의 우측인 마전리에 제1중대(장근술 대위)를 배치하여 대대의 우일선으로 삼았다. 또한 제3중대를 대대의 예비로서 후방에서 예비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종심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대로부터 뒤늦게 당도한 57㎜ 대전차포 2문을 제1, 제2 양 중대에 배속, 국도 양변에 배치하여 전차에 대비시킴으로써 부대배치가 끝나게 되었다. 야간이 되어 상현달이 중천에 떠올라 임진강변을 대낮같이 밝히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대대 정면에 대한 야간관측이 양호함을 보고 진지로부터 200~300m 거리에 설치한 각 중대의 청음초를 관측이 가능한 거리까지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103]

이날 자정이 지나자 강변초소는 임진강 철교로부터 적들이 넘어오는 것을 관측하고 즉시 64고지의 대대 관측소에 전달하였다. 대대장은 즉각 각 중대장에게 "적이 진전에 근접할 때까지 사격을 금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대대장은 즉시 소대장 1명을 대동하여 철교부근까지 나가 확인하였는데 과연 초병의 보고대로 규모 미상의 적이 철교를 건너온 다음 북안 좌우측으로 산개하고 있었다. 또한 철교에는 전차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중간에 걸쳐 있음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얼마 뒤 철교를 건넌 듯한 5대의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진전 500m까지 육박하는 것을 본 대대장은 즉시 대전차포 소대장에게 사격을 명령하였다.[104] 대전차포병이 즉각 포 1문으로 사격하자 첫발이 선두 전차의 앞면에 명중하여 불꽃이 사방에 튕기었다. 이어 적 전차가 파괴되었다는 낭보가 각 진지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파괴된 줄만 알았던 전차가 기관총을 사격하는 동시에 다시 움직였다.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이에 또 1문의 대전차포로 그 즉시

사격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과 같았다. 2발의 포탄을 맞고도 전차가 재차 움직이니 상황이 달라졌다.

대전차포소대는 진지에 대기시켜 놓은 3/4톤 트럭에 견인하여 철수하였다. 그 뒤를 따르듯이 5대의 적 전차와 함께 후속한 대대규모의 병력이 순식간에 대대 중앙을 돌파하고 예비대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상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불리하게만 되어 날이 밝을 무렵에는 제1대대의 좌우일선이 대대 관측소가 있는 64고지 전방까지 밀리게 되고 09 : 30에는 문산 외곽에 있는 구릉까지 밀려나게 되었다.[105]

한편 전날 오후 늦게 제11연대에 배속된 서울특별연대(유해준 중령) 예하의 보병학교 교도대는 연대장 최경록 대령의 명령에 따라 교도대장 김병화 소령이 그의 예하인 제1중대(김동근 대위)와 제2중대(박경동 대위)를 직접 지휘하여 문산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나머지 제3중대(이영배 대위)와 중화기중대(황규설 대위)를 교도대부대장 임원석 대위(보교)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여 문산포 서측방의 굴촌리에 위치시켰는데 이날 새벽에야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문산돌출부의 제1대대 주진지가 무너지자 임진강선을 연하는 전 방어선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하여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적전리의 제3대대(김재명 소령)는 제1대대의 저지선까지 2㎞의 거리를 신속히 이동하여 제1대대와 협조하여 역습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1대대장은 무전으로 연대 관측소(문산 남쪽 1㎞)로부터 역습명령을 받게 되자 "지금 겨우 적을 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습하란 말이냐"고 격분하여 그 길로 연대로 내려가고 말았다. 대대장이 진지를 떠나자 연대로부터 "지금부터 대대는 부대대장 고임현 대위가 지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제1대대는 제3대대의 진출에 따라 이날 13 : 00에 64고지와 운천리간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제3대대는 좌측방에 중대규모 이상의 적이 새로 출현하여 진출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에 최경록 대령은 보병학교 교도대에 제3대대 좌측방에서 역습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문산 북쪽에 위치하였던 교도대대가 역습을 개시하여 비 오듯 쏟아지는 적탄 속을 헤치면서 적을 격퇴하여 단시간 내에 좌측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임진강 남쪽 강변 반압리까지 진출하였는데 제1, 제3대대의 분전도 이에 못지않았다.

당시 연대는 어떤 박격포분대의 경우 부사수의 외출귀대가 늦자 포각 없는 포신과 포판만으로 사격에 임하였는데 이들은 철사를 포신에 감고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위급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비단 박격포만이 아니라 기관총의 경우도 이와 같았음을 진지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106]

그런데 이날 저녁 우인접인 제13연대 제2대대(윤천봉 소령)쪽으로부터 전차와 함께 일련의 북한군이 1번 도로를 따라 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정영홍 소령) 우측방을 직접 공격하는 동시에 대대 측후방으로 우회하여 문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107]

### 2) 파평산 일대의 공방전

#### (1) 제1대대 상황

제13연대 제1대대는 대대 기동훈련 기간중 24일 밤을 문산초등학교의 자하리 분교 부근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대대는 25일 04 : 30에 고랑포 방면에서 들려오는 포성으로 야전천막에서 쉬고 있던 장병이 한두 명씩 깨었고 대대장 김진위 소령도 천막에서 포성을 듣고 "괴뢰군들이 또 시작이구나"고 생각하면서 즉시 대대 참모들을 천막으로 불러 포격 상황을 연대에 알아보게 하였다.[108]

그러나 연대와의 유무선 소통이 여의치 않자 대대장은 즉시 통신대로 하여금 유무선을 소통시키도록 지시하고 각 중대장(제1, 제3중대는 선임장교가 지휘)에게는 "조식 후에 즉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얼마 뒤에 포성이 아주 가깝게 그리고 치열하게 들리자 대대장은 재차 각 중대장에게 연락병을 보내어 "대대숙영지 외곽초소로 하여금 북쪽지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부터 얼마가 지난 뒤 "북쪽으로부터 많은 병력이 내려온다"는 보고가 초

소로부터 전달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수명의 장교와 같이 숙영지 뒤 언덕에서 피아를 분간할 수 없는 한 집단의 남하를 목격하였는데, 잠시 후 그들의 선두에서 적기를 든 자를 발견하였다. 적의 남침임을 확인한 대대장은 현 상황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지점령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즉각 각 중대장을 집합시켜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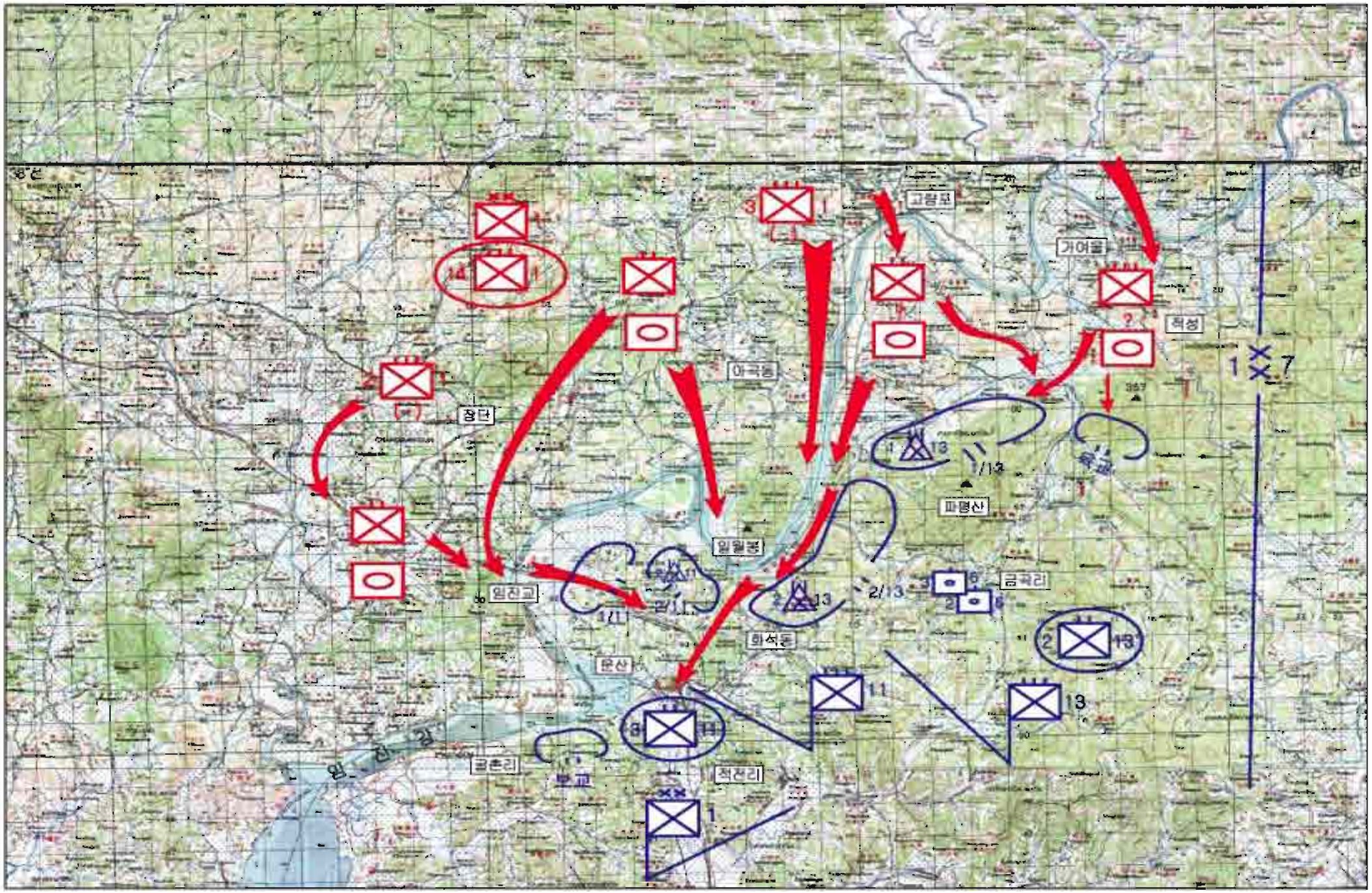
이리하여 각 중대를 진지에 투입하게 하고 연대와의 통신소통이 늦자 통신병으로 하여금 숙영지 옆 민간 전주에 오르게 하여 전화선으로 보이는 선에다가 전화기(EE-8)를 연결시켜 몇 번 신호를 보내었는데 뜻밖에 문산우체국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쾌재를 부르면서 교환책임자에게 "지금 북한군이 공격중이니 제1대대 진지에 탄약을 긴급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연대본부에 전해 달라"고 말하고 중대의 뒤를 따라 진지를 목표로 출발하였다.

제1대대가 신속하게 진지를 점령한 다음 연대와의 직통전화로서 재차 탄약보급을 독촉하기도 하여 탄약이 도착하였는데, 뒷날 그 전화선이 문산우체국과 자하리초등학교 분교간에 설치된 유선회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평산(496고지) 좌측 450고지와 쌍봉을 이루고 있음

<상황도 3-7> 임진강 방어선 전투


고랑포
가여골
적성
아곡동
장단
임월봉
파평산
금곡리
임진교
화석동
운산
적전리
부교
1
7
13
11
2/13
1/13
1/1

한편 이날 새벽 연대 주번사령인 정보주임 최혁기 소령은 제3대대로부터의 접촉상황을 보고받자 이를 즉각 부대 앞 숙소에 있는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에게 알렸다. 당시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외출 중이었고, 부연대장 김진권 중령은 보병학교에서 피교육 중에 있었으므로 주무참모인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다.

이에 작전주임은 이미 포성을 듣고 부대로 출동할 차비를 갖추고 연대본부로 달려갔다. 그는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전 유무선망을 동원하여 "연대 비상!"을 명령하는 동시에 정보주임으로부터 개략적인 그간의 상황을 들은 뒤 사단 및 인접연대와도 상황을 교환하여 적의 전면 남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최대명 소령은 제3대대장에게 적을 지연시키면서 계획된 집결지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에게는 외출 및 휴가 중인 장병은 귀대 즉시 진지에 투입시키되, 우선 잔류 병력으로서 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훈련 중인 제1대대와도 뒤늦게 유무선이 개통됨으로써 진지점령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전방 제1 및 제3대대 지역에 대한 탄약 추진보급을 군수주임 길춘광 대위와 협조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1대대로부터 탄약보급에 대한 독촉전화가 빗발쳤음으로 최대명 소령이 군수주임와 함께 탄약 추진상태를 확인하였다. 08 : 00를 전후한 무렵에 연대장 김익렬 대령이 외출에서 귀대하자 작전주임은 그간의 처리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연대장은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한 뒤 주진지의 병력배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전주임을 대동하고 전방으로 이동했다.

연대장 일행이 임진강변의 1번 도로를 따라 화석동 북쪽 4.3㎞ 지점의 박석고개를 넘어섰을 때 적 포탄이 그 일대에 편성된 제2대대 진지와 도로변에 산발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짚차가 금파리 북쪽의 개석동(제1대대 진지)에 이르러서는 적의 포격이 심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에 차량을 뒤로 돌려 박석고개 북쪽 삼차로(장파리와 적성방면의 도로 분기점)에 와서 그 부근도로변에 연하여 종심 배치된 4문의 57㎜ 대전차포 연대 대전차포중대를 방문 전투태세를 점검하고 연대로 돌아왔다.[109]

한편 연대로부터 탄약보급을 받은 제1대대가 탄약을 각 개인에게까지 분배가 끝난 것이 10 : 30을 전후한 무렵이었다. 이때에 고랑포—자하리 지역으로부터 침공한 것으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110]

이들은 파평산 전방의 덕현리 일대로부터 산개하면서 대대 진전을 가로 지르는 320번 도로를 일제히 횡단하여 우일선인 제3중대와 중앙일선인 제1중대 정면에 소총사격을 가하면서 동서로 흐르는 냇가에 접근하였다. 제1중대 측후방에 위치한 대대 관측소에서 지켜본 대대장 김진위 소령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대지휘망인 SCR-300 무전기로서 "적이 냇물을 건너올 때까지 사격을 억제하라"고 각 중대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옆에 있던 중화기중대장 김옥산 대위와 이날 아침 금곡리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 바 있는 제6포병대대(노재현 소령) 예하의 제3포대 관측장교에게 즉각 차단사격을 가하도록 명령하였다.[111]

대대 진전으로 몰려오는 적에 대해 105㎜ 포탄과 81㎜ 박격포탄 사격을 집중하였다. 순간 적의 대오가 흩어지면서 냇가 남안의 지대로 몰려들었다. 이 소하천은 대대 화력계획에 의한 탄막지대였던 관계로 각 중대 60㎜ 박격포의 집중포격으로 순식간에 적을 타격하였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무리가 탄막을 피하여 남안에 기어오르는 것을 각 중대의 직사화기가 일제히 사격하였고 생존한 적의 일부가 덕현리쪽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제2대대(윤천봉 소령)는 비상소집으로 집결되는 병력을 축차로 전방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10 : 40이 지나자 한 무리의 기마대가 장파리로부터 강변 1번 도로를 따라 삼차로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대전차포중대가 이들을 근접거리까지 기다리다가 57㎜포로서 불의의 사격을 집중하니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로 북쪽으로 패주하였다.[112]

그 후 제2대대는 정오가 지난 다음에야 부족한 병력을 재조정하여 겨우 전투준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때 연대의 군인가족들은 아침부터 연대 취사장에 집합하여 전방에 보급할 주먹밥을 준비하는 등 일손이 모자라는 부대를 돕기도 하였다.

이날 14 : 00 연대의 좌, 우일선 제2, 제1대대가 연대로부터 추진된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한 직후 적성쪽으로부터 적 전차가 제1대대 진전 도로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종대대형으로 320번 도로상에서 적성 북쪽까지 길게 대열을 이루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선두의 5대가 덕현리 앞 노상에서 정차하더니 포탑을 회전시키면서 사격을 시작했다. 적 전차의 포격이 가해지자 진지 도처에 포탄이 작렬하여 파평산 일대를 진동시켰다.

이에 대대장 김진위 소령은 적 전차가 나타날 때부터 관측소에서 그 동태를 지켜보았다. 그는 적이 노상종대로서 포탑만을 회전하고 측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관측하고 즉각 유선으로 제1, 제3중대장에게 "각 중대의 2.36″로켓포로서 전차의 좌측면을 사격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덕현리로부터 고사동에 이르는 소로쪽에 배치된 제3중대의 좌측소대와 제1중대의 우측소대의 2.36″로켓포가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중대의 모든 로켓포가 진지를 변환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진지로부터 500~600m가 넘는 거리 탓인지 전차에 명중된 것은 불과 몇 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적 전차가 로켓포의 집중사격이 시작되자 노출된 측면을 보호라도 할 듯이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두터운 장갑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포탄이 전차에 명중함을 보고 곳곳에서 함성이 오르기도 하였으나 파괴된 줄 알았던 전차가 잠시 뒤에 다시 움직이더니 방향을 돌려 대대 좌일선에 배치된 제2중대 전방의 개석동쪽으로 서서히 서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병사들이 적 전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 김진위 소령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기필코 적 전차를 파괴하여야 한다고 결심하고 즉시 각 중대에 연락하여 특공대 지원자를 선발하게 하였다. 제1중대에서 30여 명이 지원하였고 이를 엄선하여 2개 분대로 편성하였다. 일부요원에게 2.36″로켓포를 장비시키고 잔여요원에게 81㎜ 포탄과 수류탄을 분배하였다.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전화선으로 묶었으며 안전핀은 각 개인이 전차에 접근할 때 제거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대 좌일선인 제2중대(신현조 중위)는 적 전차가 덕현리로부터 개석동까

지 진출하자 2.36″로켓포와 60㎜ 박격포로서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에 적 전차는 포탑 덮개를 굳게 닫은 채 촌락 한가운데에 정차하더니 전차포로서 응사하였다. 이러한 틈을 이용한 특공대는 제2중대 좌측소대가 배치된 125고지의 서쪽을 우회하여 금파리로부터 개석동으로 잠입하였다.

이때 제1소대(김황봉 소위)는 2.36″로켓포와 자동화기로서 계속 사격을 가하다가 한참 뒤에 적 전차가 도로 남변의 한 초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 중위는 즉시 1개 분대를 이끌고 적 전차에 접근하였다. 적 전차는 총 5대가 지붕과 부러진 서까래 등이 포탑에 얽힌 채 위장하듯 덮여 있었으며, 전차병도 이미 전차를 버리고 도망간 뒤였다. 그리하여 전차에서 획득한 일기장과 약간의 기관총 실탄을 노획한 채로 진지에 돌아왔다.

이로써 제1대대가 진전에서 적 전차 5대를 파괴 내지 획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13연대 제1대대장 김진위 소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적 전차가 2.36″로켓포에도 파괴되지 않아 크게 놀랐다. 나는 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서 2.36″로켓포로서는 어떤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특공대 2개 분대를 엄선하였다. 당시 우리가 4~5대의 적 전차 궤도를 파괴하여 다음날 신문에도 보도되었다"고 했다.[113]

그 후에도 적의 후속전차가 대대 전면에 출현하였으나 앞서 파괴된 전차로 길이 막혀 되돌아갔다. 진지의 병사들 중에는 일부가 전차를 보고 크게 동요하는 빛을 보였으나, 대대장이 "진지를 떠나는 자는 즉결처분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정상을 되찾았다.

그런데 얼마 뒤에 대대규모의 적이 다시 덕현리와 개석동 북쪽의 무명고지간에서 산개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320번 도로 북쪽에서 2개 제대로 양분하여 한 제대는 덕현리로부터 320번 도로를 횡단하여 대대 우일선 제3중대와 중앙 제2중대 쪽으로 몰려왔고, 다른 무리는 개석동 북쪽의 무명고지 동단으로부터 좌일선 2중대 전면 개석동 마을로 공격하는 것이었다.[114] 이에 대대는 연대의 지원포병인 제3포대와 제2포대 화력까지 지원받는 대대의 전 화력으로 이를 30분만에 도로 북쪽으로 격퇴시켰다. 중대 정면의 적은 도로와 냇물을 건너자마

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무명고지의 무리들에게 포격을 가하고 연대에 대대 우측방에 대한 엄호사격을 건의하였다. 이 무렵까지도 대대 우측방의 357고지에는 가용병력이 없었으므로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다. 사단의 우인접 제7사단(유재흥 준장)측은 357고지와 일련의 횡격능선으로 잇는 감악산(△675)을 비어둔 채 제1연대(함준호 대령)를 동두천－의정부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였다. 따라서 이를 건의 받은 연대장은 엄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병력을 사단에 요청하게 하고 보충병력이 당도할 때까지 우선 포병화력으로서 이를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115]

제1대대는 우측방(△357)의 적을 견제하는 가운데 26일 13 : 00가 넘자 대대 우전방 도로변에 집결하고 있는 새로운 대대규모의 적을 맞게 되었다. 그들은 대대 진전의 노리천을 우회하여 353고지의 적과 더불어 대대 우일선 제3중대를 직접 공격하였다. 중대장 백남원 대위는 우일선소대로 하여금 동측방을 경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대의 전 화력을 진전에 집중시킨 뒤 대대에 지원 화력을 요청하였다. 중대전면에는 순식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고, 대대 81㎜ 박격포의 집중사격에 이어 금곡리에 포진한 105㎜ 곡사포가 포문을 열자 적은 도처에 시체를 남긴 채 357고지로 패주하였다.[116]

제1대대가 전날에 이어 여러 차례 적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장병들의 감투정신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보다도 파평산이라는 유리한 감제고지에 미리 진지를 편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날 전투에서도 대대 동측방의 적들은 경사도가 가파르고 산록변에 돌출된 암석 등으로 동측방으로부터의 침투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1대대는 17 : 00 개석동 북쪽으로부터 대대규모의 적이 중앙일선인 제1중대(장덕수 대위) 지역에 일제사격과 함께 공격하였다. 제1중대는 모든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고 이어 대대장 김진위 소령의 지원사격 명령에 따라 대대 81㎜ 박격포와 105㎜ 곡사포가 집중포격을 개시하였다. 적 후방에는 독전대가 뒤따라 대오가 와해되면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집요하게 포격의 간격을 이용하여 중대진지에 접근하려 하였다. 중대장의 진두지휘로서 간신히 적을 저지할 수 있었다.

당시 중대본부요원인 최홍규 하사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아군 진지에 육박하는 적을 중대장 지휘하에 수류탄으로 격퇴하였다. 중대장은 투척조의 조장이기도 하여 직접 던지면서 싸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또 다른 적이 좌측 제2중대(신현조 중위) 정면에 접근하여 좌인접 제2대대의 금파리 지역에 침투한 적과 협동하여 공격하자 끝내 진지의 일각을 피탈당하고 말았다. 이에 연대는 제2대대 지역에 대한 역습 계획을 부득이 취소하고 직할대 병력(유중수 대위)을 금곡리 북쪽 2.5㎞의 능선에 배치하여 연대 측후방을 경계하도록 하였다.[117]

### (2) 제2대대의 상황

연대 좌일선 제2대대(윤천봉 소령)는 이날 정오 무렵 대대장이 외출에서 귀대함에 따라 병력을 조정하여 배치를 완료하였다. 즉, 개석동 남쪽으로부터 임진강변에 연하여 남서 방향으로 사선으로 진지를 편성, 3개 중대를 건제순으로 일선 배치하였다. 대대 81㎜ 박격포는 중앙의 제6중대가 배치된 143고지 후사면 와지선에 배치하였고, 기관총소대들은 연대 대전차포중대가 포진하고 있는 3차로 부근과 박석고개에 각각 배치하여 대대의 북쪽 전답과 개활지로부터 전개, 진입하는 적에 대비하였다.[118]

우일선 제1대대가 적 전차를 맞아 일전을 치르고 있을 무렵 우일선인 제5중대(김낙홍 중위)간의 장파리로부터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발견하였다.[119] 중대는 적이 장마루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중대의 전 자동화기와 중화기중대의 기관총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여 15분만에 격퇴하였다. 그러나 20분후인 15 : 00 적의 일부병력이 다시 장마루쪽으로 접근하고 주력이 교량 쪽으로 접근해 옴으로써 피아간에는 400～5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사격전이 계속되었다.

화석동에 위치한 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인사주임(한순만 대위)로 하여금 백석동에 전술지휘소(TACC)를 설치하게 하였고 14 : 00에 지휘소요원이 이동함으로써 지휘소가 개소되었다. 이 전술지휘소는 연대의 방어계획상 미리 예정된 곳이었

다. 일몰 무렵 사단장 백선엽 대령이 연대지휘소에 들려 야간방어책을 검토한 뒤 돌아갔다.

이 무렵에 보병학교에서 피교육 중이던 장교들이 복귀하였다. 이들 중 제1중대장 장덕수 대위와 제3중대장 백남원 대위 등은 연대장에게 원대복귀 신고도 생략한 채 예하부대에 재배치되었다. 해가 넘어가자 피아 포병의 요란사격과 함께 제1대대 정면에서도 사격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연대의 전 정면에서는 밤새도록 사격전이 전개되었다.[120]

제2대대는 고랑포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한 대대규모 이상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날 아침부터 적은 장파리와 개석동 북쪽의 무명고지간에 전개하여 2대대지역에 사격을 집중하더니 일부의 적이 1번 도로를 따라 수미상의 전차와 더불어 대대 중앙을 직접 공격하였다.

교차로 부근에 배치된 연대 대전차포에 이어 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으나, 적 전차는 57㎜ 대전차포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에 접근하였다. 이에 대전차포중대가 철수하고 적 전차가 박석고개까지 추격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일부 병사들이 대오를 이탈하였고 적의 일부가 공격을 가해오자 우일선 중대가 분산되면서 우인접 제1대대와의 사이에 돌파구가 확대되고 말았다. 연대본부는 상황을 보고 받고 즉시 금곡리에 집결한 제3대대(유재성 소령)로 하여금 역습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다.[121]

한편 밤사이에 몇 차례 치른 사격전으로 연대의 좌우 일선대대는 이날 새벽녘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 사이 새로운 적 공격에 대비하는 탄약재보급과 붕괴된 진지를 보수하였다.

그런데 전날 저녁 무렵 연대에 배속된 서울특별연대(유해준 중령) 예하의 육사교도대(김응용 소령)가 문산으로부터 밤새 행군한 끝에 새벽 파평산 우측방에 있는 서쪽에 도착하였다. 교도대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357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중턱 부근에서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미 적이 밤사이에 고지정상을 점거한 것이었다. 이에 교도대는 고지 서쪽에 솟은 무명고지(230m)를 점령하였다. 이 무명고지는 357고지와 연결된 능선으로 1㎞ 정도가

떨어져 있었다.[122]

적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여명을 기해 사격을 재개하였는데 사격전이 치열하게 되자 어느덧 교도대 서측방에 배치된 제1대대(김진위 소령)가 사격전에 합세하게 되었다.[123] 적의 화력 일부가 제1대대 우측방을 위협하자 대응사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대대는 교도대가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판은 교도대와 대대간에 직접 통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교도대가 배치된 230고지가 제1대대 측후방에 위치하여 아군끼리의 총격은 면할 수 있었다. 제1대대로부터 보고에 접한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과 연대의 우측방 방어책을 숙의하였다. 그 결과 연대 직할대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 10 : 00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보병학교에서 원대복귀한 전 헌병대장 유중수 대위는 집결된 연대직할대 병력으로 2개 중대를 편성하여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교도대는 적을 견제할 뿐 적의 감제 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금곡으로부터 211고지 후방(교도대 직후방 1㎞)까지 추진된 포병 제2중대(전남식 중위)의 105㎜ 곡사포 2문의 지원사격으로 겨우 진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정오 교도대는 적의 1개 중대가 357고지 남쪽으로 우회하여 측후방을 공격하자 철수하고 말았다. 교도대가 분산되면서 211고지 서측방의 협곡으로 나오게 되자 2문의 105㎜ 곡사포를 미처 빼내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교도대장 김응용 소령이 실종된 채 제1중대 선임장교 최재균 중위가 중도에 출혈과다로 전사하자 육사의 중대장 김철수 대위가 중대를 이끌고 봉일천으로 철수하였다. 포병 제2포대장 전남식 중위는 포를 잃은 자책으로 봉일천으로 나오는 도중 수류탄으로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다.[124]

### 3) 최후저항선으로의 철수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우전방연대인 제13연대 방어지역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는 상황보고에 접하자 곧 적정과 상황의 추이를 종합 분석한 끝에 사단을 최후저항선으로 철수시켜 마지막 결전을 전개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조성하

기로 하였다.

사단장은 좌일선 제11연대가 역습을 성공적으로 감행하고 있을 무렵 우일선 제13연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제13연대 제2대대가 우단에 형성된 돌파구 확장 저지에 치중하는 동안 전차를 앞세운 적의 집단이 1번 도로를 따라 제2대대 진전을 횡단하며 남하하고 있었다. 이로써 연대 우일선이 위기에 처하고 연대의 퇴로마저 차단이 될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참모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사단 전술지휘소에서는 병력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야간철수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125)]

고랑포로부터 문산포까지 하천선을 따라 이어지는 사단의 주저항선은 크고 작은 수개의 만곡부 때문에 적 수중에 들어가면 아군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는 전술상의 취약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한 부득이 양개부대의 동시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각급 부대장들에게 최후저항선인 봉일천으로의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봉일천초등학교로 이동시켰다.

전방연대가 철수를 개시하고 예정대로 사단전방지휘소는 21 : 30에 봉일천초등학교에서 개소하였다. 이러한 철수명령을 받으면서도 적과의 접촉 중이던 제13연대 제1대대는 마지막 철수부대로서 이날 후반야인 27일 여명, 파평산에서 비로소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사단은 이에 앞서 금촌 북쪽 용산골에 도착한 제15연대 제3대대(최병순 소령)로 하여금 진지공사를 완료하도록 강조하였고 또 그 우측방에 오후 늦게 도착한 제20연대 제3대대(박희동 소령)를 배치하여 유동적인 전방상황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날 전성호 대령 후임으로 김점곤 중령이 제12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사단에 도착하는 즉시 문산리 일대에서 철수하는 제1사단 직할대 및 제11연대를 엄호하고 낙오병을 수습하였다.[126)]

# 7. 최후저항선 전투 ; 봉일천 전투

## 1) 방어 편성

6월 26일 야간 임진강 방어선으로부터 철수를 개시한 사단의 예하부대들은 27일 아침, 봉일천 전방의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사단의 최후저항선인 새로운 방어선은 서에서 동으로 229고지－47고지－151고지 신산리－창만리(금촌 동북쪽 8㎞)를 연하는 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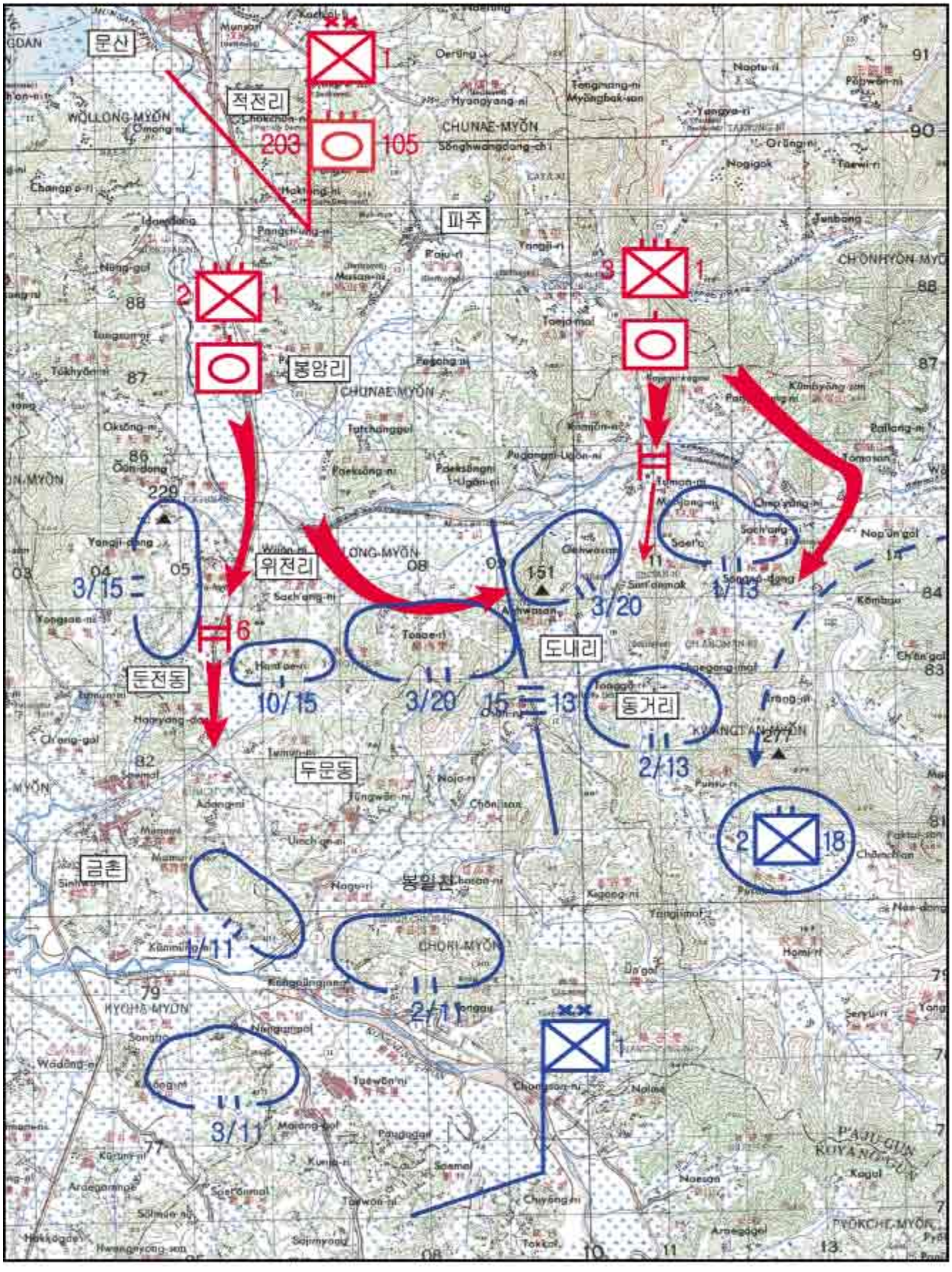
이곳은 문산 일대에서 남하하는 적을 감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전에는 문산천을 중간에 끼고 남북으로 펼쳐진 수전지대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문산천은 앵무봉과 매봉 일원에서 발원하여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위전리 부근에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임진강으로 흐른다. 문산천의 폭은 10~20m에 불과 하고 수심이 얕아서 어느 지점에서도 도섭이 가능하며, 전답의 관개용수로 이용되는 실개천에 지나지 않았다.[127]

그러나 이 실개천에서부터 남쪽으로 1~2㎞ 너비의 수답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남쪽에는 저지대를 감제하는 구릉지대가 북쪽으로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으므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반면, 문산－서울 축선상의 주접근로가 되는 1번도로와 법원리－광탄－벽제로 이어진 307번 도로는 북한군의 기갑부대 접근로로서는 매우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 및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임진강 철교를 건너 공격을 개시한 적 주력부대와 교전 중에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말단부대까지 고루 전달되지 못하여 작전상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병학교 교도대대에는 철수명령이 너무 늦게 전달되어, 대대가 철수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대대장 김병화 소령 이하 전 장병들이 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겨우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철수간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병력이 분산되어 부대를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다.[128]

<상황도 3-8> 봉일천 전투


문산
적전리
파주
봉암리
위전리
도내리
둔전동
두문동
동거리
금촌
봉일천
203
105
1
2
3
6
3/15
10/15
3/20
2/13
3/11
2/11
1/11
1/13
2
18
151
277
229

<표 3-15> 국군 제1사단 최후방어선상의 부대 배치(27일 오전)

- 사단 전술지휘소 및 사단 직할대 : 봉일천
- 제11연대 : 최후저항선에서 사단예비로 전환
  연대본부 : 봉일천
  제1대대(좌전방) : 107고지(금촌 남동 800m)
  제2대대(우전방) : 111고지(봉일천 북동 1.2㎞)
  제3대대(예비) : 상지석리에 집결
- 제15연대(-1) : 최후저항선상의 좌전방연대로서 방어정면은 229고지-도내리 간 4㎞
  연대 전술지휘소 : 금촌
  제3대대(좌전방) : 119고지-위전리
  제20연대 제3대대(우전방) : 도내리 일대 구릉지대
- 제13연대 : 최후저항선상의 우전방연대, 방어정면은 도내리-신산리 간 4㎞
  연대전술지휘소 : 용미리, 연대관측소, 광탄 북쪽 무명고지
  제3대대(좌전방) : 151고지
  제1대대(우전방) : 89고지
  제2대대 : 연대예비, 광탄 남쪽 무명고지
  사관학교 교도대대(-1) : 장곡리 남쪽에 집결
- 제12연대(-1) : 금촌에서 재편성, 집결된 병력은 불과 1개 대대 규모

반면 제13연대는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전에 교대진지에 의한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므로 비교적 손실이 적은 가운데 최후저항선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제15연대는 문산리 일대에서 철수하는 제1사단 직할대 및 제11연대를 엄호하고 낙오병을 수습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이와 같은 작전지역의 특징과 피아 상황을 감안하여 수세적인 방어작전만으로는 최후저항선을 장시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세적인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한 국지적인 반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면서도 사단장은 육군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관계로 전반적인 전황, 특히 그 중에서도 우인접사단인 의정부지구의 제7사단과, 이들을 증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제2사단이 이미 철수하였으므로, 수도 서울이 실함될 위급한 사태가 벌어

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129] 제7사단은 전날에 의정부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미아리 외곽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문산리－법원리 일대까지 남하한 북한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은 1번 도로와 307번 도로로 접근로에 각각 보전포 협동부대를 전개하여 공격태세를 완료하고 공격을 위한 전투정찰을 실시하고 있었다.[130]

이날 27일 10 : 00에 좌일선 전방의 제15연대가 문산으로부터 남하하는 적 제6사단 예하의 2개 대대와 격돌한 것을 시초로 12 : 00에는 그들을 증원하는 전차를 1번 도로상에서 격파하고 또한 우일선 제13연대는 19 : 00부터 전차를 동반한 적 제1사단의 연대규모와 격전을 벌이는 등 적들의 화력이 수도권의 마지막 보루인 봉일천 선으로 집중되어 피아의 격전이 전개되었다.

## 2) 위전리 일대의 공방전

### (1) 제15연대 방어전투

백선엽 사단장은 사단방어선 좌일선에 제15연대의 1개 대대와 제20연대의 제3대대를 제11연대 전방에 추진시켜 사전에 진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2중방어선을 편성하였다. 26일 금촌 북쪽에서 진지를 편성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최병순 소령)는 제10중대를 1번 도로 동측방(위전리 남쪽 구릉)에 배치하고 대대의 주력을 용산곡의 229고지와 119고지에 배치하여 1번 도로와 그 서측방에서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였다. 대대는 밤을 이용하여 진지공사를 수행하였다.[131]

특히 1번 도로에 대한 대전차방어를 위하여 각 중대에서 차출한 2.36″로켓포 6문을 119고지 동측 도로변에 종심배치하고 사단으로부터 지원된 57㎜ 대전차포 6문을 제10중대 서측방 1번 도로변 동측에 3문 단위로 분할 배치하는 등 전대대가 27일 아침까지 진지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보다 뒤늦게 금촌에 도착한 제20연대 제3대대(박희동 소령)는 제15연대의 제10중대 우측방인 도내리에 배치하여 27일 10 : 00까지도 계속 공사 중에 있었다. 그런데 10 : 00 무렵에 1번 도로와 서측방의 구릉지로부터 각각 북한군 1개 대대규모가 진전에 나타났다.



위전리 제15연대 방어지역. 문산천 정면 최후방어선

도로상의 적은 위전리 일대의 수전을 피하여 도로와 경의선 철도의 뚝을 따르고, 또 다른 적은 문산천 서측방의 소로를 따라 제3대대 진전에서 일단 구릉을 점령한 다음 그 일부가 일제사격을 가하면서 대대의 좌일선인 제9중대 정면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132]

이에 119고지의 대대 관측소에 위치한 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즉각 제9중대로 하여금 사격을 개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제일선인 제11중대의 60㎜ 박격포를 제9중대 정면으로 지향시켜 이를 지원하게 하고 둔전동 뒷산에 진지를 편성한 중화기중대장으로 하여금 대대 81㎜ 박격포의 집중사격을 가하게 하여 이들을 30분만에 격퇴하였다. 이러한 전황 때문인지 한편의 도로상의 무리는 종대대형으로 내려오다가 이 포성에 대오를 멈추고 문산천 대안도로와 철길에서 산개하였다.

또한 적과 800~1,000m의 거리를 두고 대박격포전이 전개되었는데 적들은 우일선 아군과 조우하자 수전지대에서 산개를 못하고 문산천변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격전은 오래가지 않고 쇠퇴해졌는데 12 : 00가 되자 100여 필 가량의 기마대를 선두로 한 전차가 1번 도로를 따라 문산천변까지 남하하였

는데 그 후방 봉암리까지 연해있는 적 전차는 18대에 달하였다.

이에 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대전차화기를 사용할 때가 왔다고 직감하고 그 즉시 옆에 위치한 제11중대장 이선도 대위에게 "적이 300m 이내에 들어올 때까지 사격을 하지 말라"고 이른 뒤 이어서 "사격명령은 대대장이 적색신호탄 1발을 발사한다"라고 하고, 이를 다시 도로 건너편에 배치된 제10중대장에게 무전으로 지시한 다음 전차가 접근할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무렵 도로변의 2.36″로켓포 진지에서는 각기 엄체호 속에서 포탄을 장전한 채 개방된 무전기에 귀를 기울여 사격명령이 내려오기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적 전차가 서서히 포 진전에 다가옴을 지켜본 대대장이 이에 "사격개시!"를 연속으로 외치면서 연락병이 준비한 적색신호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 순간에 긴 포물선을 그리는 현란한 적색의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하였는데 이에 맞추어 6문의 로켓포가 일제히 불을 토하였다.

이에 선두의 1번 전차가 주춤하면서 서게 되자 그 뒤를 잇는 전차가 동시에 진전에서 정지하였다. 그러나 파괴된 줄 알았던 전차는 그 직후에 기관총사격을 가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중 이들 몇 대의 전차는 사격도 잊은 채 로켓포 진지로 돌진하더니 위로부터 엄체호를 깔아뭉개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노변 가까이 위치한 몇 개의 진지는 붕괴되어 흙을 파헤치듯 궤도에 할퀸 뒤 자욱 속에서 아군의 병사가 기어 나오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이 돌변하자 이에 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자칫하다가는 대대가 전멸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직 적 전차를 파괴할 방법은 수류탄을 전차 속에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고 직감하고, 때마침 그들이 6월의 혹서에 못 견딘 탓인지 전차의 복개를 열어 제치고 시위라도 하듯 반신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즉각 수류탄으로 공격할 것을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장 이대위에게 "지금부터 제11중대는 수류탄으로 돌격하라. 대대장은 6번 전차를 목표로 돌격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먼저 수발의 수류탄을 몸에 지니고 앞장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돌격명령을 하달한 제11중대장 이선도 대위도 함께 그 뒤를 따랐는데 이때에 제10중대 서측방 노변

에 배치된 57㎜ 대전차포가 적 전차를 사격으로 고착시키고 있었다.[133]

돌격부대가 일시에 노변에 도달하자 그들은 전차의 복개를 다시 닫고 기관총을 마구 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도로 건너편에 배치된 제10중대의 서측방 소대마저 이에 가세되어 제11중대와 더불어 자동화기 사이를 헤치며 사방에서 전차를 공격하였다. 순식간에 전차에 오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직전에 쓰러지는 자가 있고, 전차에 올랐다가도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중의 어떤 대원은 회전하는 포탑에 매어달린 채 열리지 않는 복개를 열다가 후미 전차의 자동화기사격으로 전차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적지 않는 사상자가 나오는 분전 끝에 1번과 6번 전차의 포탑 속에 수류탄을 집어던짐으로써 대열속의 4대의 전차와 함께 6대의 전차를 포획하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제11중대장 이선도 대위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동시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또한 대대장 최병순 소령도 6번 전차에 올랐다가 포탑의 갑작스러운 회전으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연대는 27일 17 : 00 무렵까지 전면의 적을 저지, 격퇴하게 되었으나 밤이 되자 포격과 함께 주간보다 많은 전차를 동반한 연대규모의 적이 문산천을 도하하여 일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이 진두지휘에 나섰으나 얼마 되지 않아 탄약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지탱이 어렵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보유한 탄약을 모두 소진한 다음 예하대대를 봉일천으로 철수시켰다. 그런데 연대의 우일선인 제20연대 제3대대가 철수한 뒤를 따라 적의 일부가 사단 우일선인 제13연대의 서측방(제3대대 지역)으로 우회 침투함으로써 때마침 내리는 빗속에서 피아의 야간혼전이 일어나게 되었다.[134]

### (2) 대전차특공대의 활약

한편 26일 저녁 사단이 주저항선에서 최후저항선으로 철수를 할 때, 사단장은 사단 공병대대장 장치은 소령에게 대전차특공대를 편성하여 1번 도로 상에서 남하하는 적 전차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으로부터 대전차 공격을 위한 특

수임무를 부여받은 공병대대장은 봉일천초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대대본부로 돌아온 즉시 부대대장 김영석 소령으로 하여금 특공대 편성을 지시하였다.[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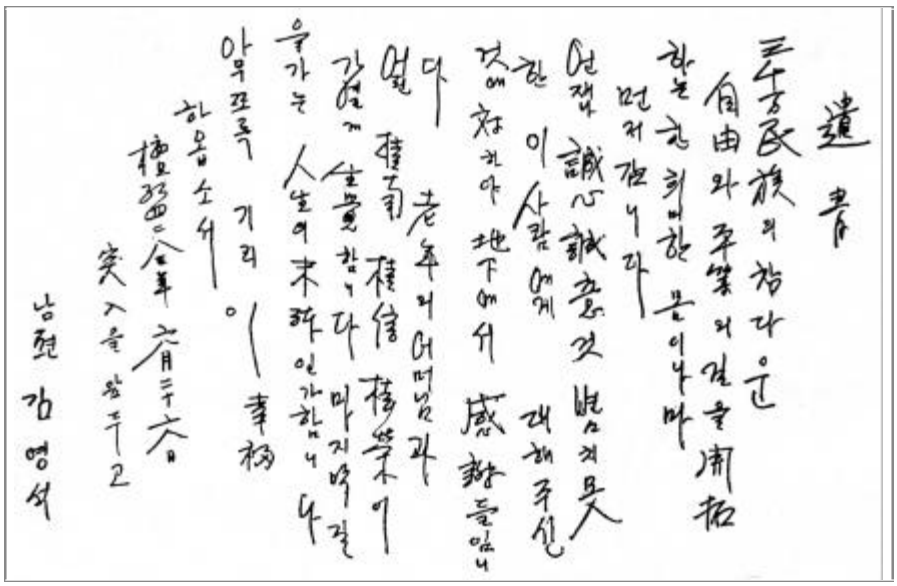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김 소령은 대대본부 요원과 전방으로부터 철수한 일부 병력 중에서 특공대 지망자 30여 명 가운데서 21명의 사병을 선발한 뒤 1개 분대 7명씩 도합 3개 분대를 편성하고, 통신병 1명과 대대본부의 서세성 상사를 선임하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이 스스로 특공대장으로 나섰다.

김소령은 이날 밤 대대본부의 야전천막 안에 이들을 모아놓고 한 잔의 술로 순국을 다짐하고 전원의 유서 23통을 대대부관에게 맡기면서 이를 뒷날 각 유족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곧 22명의 대원과 함께 미리 준비된 폭약을 차량에 싣고 곧장 문산 방면으로 향하였다. 대전차공격에 유리하다고 판단된 봉암리(문산 남쪽 5㎞)에서 차를 돌려보낸 뒤 북으로 700m 거리에 있는 82고지 서쪽에 연한 도로변에 개인호를 파고 적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특공대원 각자가 휴대한 폭약은 TNT 1파운드짜리 20개를 한 묶음으로 하고 사각형을 이룬 그 속에 수류탄 1개를 끼워 넣어 만든 것으로서 사용시에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전차에 돌입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간단하지만 핀을 제거하고 폭발 시까지 3초의 시간 여유밖에 없었으므로 거사 후 대원자신들의 목숨은 돌볼 여유가 없도록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특공대라고 부르기보다 결사대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들 특공대는 대전차공격에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사주경계에 임하였는데 이날 자정을 넘기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을 때 돌연 82고지 정상에서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1개 소대규모의 병력이 산록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김소령은 즉각 각 개인호에 전달하여 명령일하에 일거필살의 태세를 취한 다음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산록에 도달한 그들은 경계의 빛도 없이 이북의 방언을 쓰면서 도로변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에 김소령 등은 즉각 적이라고 직감하고 20~30m 거리에 모여든 그들을 향하여 사격신호에 따라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그들은 미처 도망할 틈도 없이 마치 표적이 넘어지듯 주위에 쓰러졌다. 불과 10분 안팎의 총격이었다.



특공대장
김영석 소령의 유서

이때가 상현달이 서산에 기울고 바야흐로 날이 밝아오는 무렵이었으므로 공제선에 노출된 적을 음지에 있던 특공대가 쉽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들은 특공대의 은밀한 행동에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추단되었다. 날이 밝자 김영석 소령은 몇 사람의 대원으로 하여금 그 일대를 수색하여 그들이 장비하였던 화기를 모았는데 수냉식 기관총 1정, 다발총 8정, 소제소총 5정, 권총 2정 등 도합 16정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김소령은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위하여 통신병을 대동하고 82고지에 올라가 봉일천의 대대본부와 무전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원들의 아침식사가 문제가 되었다. 밤사이 죽음을 각오하여 나온 탓으로 휴대용 건빵조차 휴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영석 소령은 문산쪽을 관측하였지만 1번 도로상에 적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틈을 이용하여 일단 본대에 돌아갔다가 다시 출진하기로 결심하고 수레에 노획품을 싣고 이날 27일 09 : 00에 철수하였다.

### (3) 문산천 일대 공방전

임진강방어선으로부터 봉일천으로 철수한 제13연대는 이날 아침에 도착한 제1

대대(김진위 소령)로 창만리의 구릉을 점령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앞서 151고지를 점령한 좌일선 제3대대(유재성 소령)에 이어 우일선의 병력배치가 완료되었는데 비교적 전력의 소모가 컸던 제2대대(윤천봉 소령)는 연대의 예비로 돌려 동거리 주변에 예비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연대는 백석동으로부터 이동한 연대지휘소를 이날 아침에 277고지(동거리 남쪽 2㎞) 남쪽에 설치하여 이른 아침부터 진지공사에 전력을 경주하였다.[136]

그러나 연대의 작전상의 취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측방은 우인접인 제7사단이 그의 주력을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 북쪽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전방어선을 잇는 사단간의 전선조정은 고사하고 양 부대간의 전투지경선조차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연대는 우일선 제1대대로 하여금 동측방 방어에 유념하여 진지를 편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연대의 좌인접인 제15연대가 이날 10 : 00 무렵부터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동안 제13연대 정면에서는 보기 드문 소강상태가 지속되어 진지공사에 치중하면서 제15연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였다. 이날 공사가 끝날 때인 19 : 00경이 되자 돌연 연대정면으로부터 수미상의 전차를 앞세운 적 부대가 진전을 동서로 흐르는 문산천 북쪽에 나타나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시작하였다.[137]

그들의 전차는 연대의 좌우일선 대대간을 남북으로 통하는 30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였으며 그 전차를 엄호하듯 주위에 보병이 따랐다. 이에 연대의 좌우일선 대대가 약속이라도 하듯 즉각 전 화력을 집중한데 이어 제1대대 서측방 노변에 배치된 57㎜ 대전차포가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동거리 서남도로상에서 제15연대를 지원하던 포병 제3중대의 105m 곡사포가 연대의 사격요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에 전차를 뒤따르던 적의 병력이 순식간에 주위에 흩어지는 동시에 전차를 엄호물로 삼는 자도 있었다.

이중 선두의 적 전차 1대가 아군의 집중포화에도 불구하고 대오를 벗어나 제1대대 서측방에 단독으로 접근하였다. 노변에 배치되었던 제2중대(신현조 중위)는 3문의 2.36″ 로켓포로 지근거리에서 전차 좌측궤도에 포탄을 집중하였다. 적 전

차는 연쇄폭음과 함께 연결부위에 명중한 듯 움직이다가 연결쇠가 끊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기동력을 상실한 전차 1대를 포획한 뒤 도망치려고 하는 승무원을 사살하였다. 이리하여 도처에서 외치는 승전보 소리에 그간 침체되었던 사기가 고무되기도 하였는데 이러는 사이에 적은 문산천 북안으로 물러났으므로 어느덧 피아의 포격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제18연대 제2대대(장춘권 소령)가 연대의 동측방으로부터 철수하여 연대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앞서 덕정리 부근에 출동하여 도악산(△441)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동두천을 침공한 적이 3번 도로를 따라 의정부 지역에 공격함으로써 철수의 시기를 놓친 채 한때 적지에서 고립되었다가 봉일천 쪽으로 퇴로를 찾은 것이다.

이리하여 동거리 동측방에 나오다가 여기에 배치된 제13연대 제1대대(김진위 소령)에게 처음에는 적으로 오인되어 몇 발의 사격을 받았으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군임을 밝혀 제1대대 장교가 제18연대 제2대대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연대지역으로 인도되었다. 이들이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휴식에 들어가자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병력부족이 극심한 때인지라 이들로 하여금 연대 동측방 방어에 사용하고자 장춘권 소령에게 연락하여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장소령은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들은 다음날 28일 아침 의정부로부터 고양으로 철수한 제18연대장 임충식 중령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어 본대에 합세하기에 이르렀다.[138]

한편 저녁 무렵부터 한바탕 소나기를 퍼부을 듯한 잿빛구름이 하늘을 덮었는데, 이로부터 얼마 뒤에 주위가 어두워진 다음 연대의 좌일선인 제3대대(유재성 소령) 서측방으로 침투한 규모 미상의 적이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151고지 후방으로부터 제3대대에 대하여 야습을 가한데 이어 대대규모 이상이 우일선 제1대대 동측방을 우회하여 연대예비가 배치된 동거리까지 침투하였다.[139]

연대는 때마침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렀다. 비가 그친 새벽에는 적 기마대가 지휘소 부근의 연대통신소를 기습하는 등의 사태까지 번져 여명이 밝았을 무렵에는 주진지의 태반이 적에게 점령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리하여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예비인 제2대대(윤천봉 소령)로 하여금 우측방의 적을 고착시키고 이틈을 이용하여 전방대대를 동거리 동쪽으로 뽑고 말았다.

그리고 연대는 지휘소를 4㎞ 후방의 용미리에 다시 설치하는 동시에 앞서 철수한 예하 제1대대를 석방동의 163고지에, 제3대대를 동거리 남쪽(1㎞)의 89~143고지에, 그리고 제2대대를 옥교동의 248고지 전방에 재배치하여 저지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140]

### (4) 사단장의 조치

26일 19 : 00, 임진강방어선으로부터의 철수를 명령한 사단장은 봉일천-금촌간에 계획된 제2방어선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단의 참모장교와 헌병병력을 동원하여 지역 내의 교통요소와 진지 진입로상에 배치하는 등 부대철수에 원활을 기하였다. 이에 따라 좌일선의 제11연대(최경록 대령)도 이날 아침사이에 유도병의 안내로 계획된 진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제11연대는 임진강방어선의 태세와 같이 제2대대(정영홍 소령)를 우일선으로 삼아 봉일천 뒷산에, 제1대대(대리 고임현 대위)를 좌일선으로서 107고지(금촌 동측방)에, 그리고 앞서 역습에 참가한 제3대대(김재명 소령)를 연대의 예비로서 금촌 남쪽에서 예비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는데, 제11연대의 전 대대가 적과 일전을 치렀던 관계로 비교적 전력의 소모도 컸었다. 그러나 제15연대가 제11연대 전방에 배치된 까닭으로 많은 시간을 부대정비와 진지보강에 투입할 수가 있었다.[141]

또한 김병화 소령 지휘하에 역습에 참가한 보병학교 교도대의 2개 중대는 철수도중에 대오가 흩어져 그 일부가 이날 오후에 신선동(봉일천 남쪽 3㎞)에 집결하고, 제13연대에 배속된 육사교도대의 철수병력도 여기에 합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산포 서측방의 굴촌리에 배치되었던 임원석 대위 지휘하의 보병학교 교도대의 잔여중대가 밤새 문산천 서측방의 능선을 타면서 27일 11 : 00에 금촌 삼거리까지 나오게 되어 여기에 있던 작전주임 이용 대위를 만나 철수부대들이 봉일천방면으로 내려간 것을 알고 13 : 00무렵에야 봉일천초등학교 부근에 집결

하게 되었다. 이들 교도대들은 각기 상이한 장소에서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이날 27일 저녁 무렵에 제13연대로부터 "제18연대 제2대대가 제1대대의 동측방으로부터 사단지역에 철수해 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이에 대하여 "의정부 방면의 아군부대가 사단지역으로 철수한다면 적도 철수부대를 뒤따라 침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즉각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으로 하여금 전방지역은 물론 후방지역의 동측방 경계를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우일선 제13연대에 동측방 경계를 강조하는 한편 김병화 소령 지휘하에 있는 교도대 제1중대(김동근 대위)를 고양리 동측의 206고지를 점령시켜 의정부로부터 벽제에 이르는 312번 도로를 봉쇄하게 하고, 신성동의 나머지 병력을 예비로 명봉산(△248) 서쪽에 배치하여 사단후방지역에 대한 경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원석 대위가 이끄는 2개 중대의 보병학교 교도대는 27일 저녁 무렵에 사단의 지시를 받아 오산리(동거리 서남쪽 2㎞) 서측방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그 전방에 배치된 제20연대 제3대대와 제13연대 제3대대와의 공간을 메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밤 제20연대 제3대대가 철수한 뒤를 따라 야음에 침투한 적에 의하여 분산되어 미처 철수치 못한 황규설 대위 등 일부 중화기중대 요원들은 무명고지의 협곡에 있는 독립농가에 은폐하여 적의 일제사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요행히 하루 밤을 보낸 후 빠져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연대장인 유해준 중령은 이렇다 할 임무도 없이 전방연대지역을 다니다가 이날 오전에 사단지휘소인 봉일천초등학교에 돌아왔다. 이때 보병학교에서 나온 미 고문관이 유해준 중령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연대장으로서 보병학교의 훌륭한 교도대를 지휘하여 나왔는데, 왜 부하들을 딴 부대에 빼앗기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장에게 건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이 뜻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2개 연대에 배속되었던 부대들을 수습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유해준 중령은 이미 연대의 지휘를 벗어난 봉일천 남쪽에 집결된 병력과 김동근 대위가 이끄는 206고지의 병력 등을 장악하게 되었다.[142]

그런데 이날 밤 봉일천의 사단지휘소에서 제15연대의 철수를 보고받은 사단장은 "왜 명령 없이 철수하였는가?"고 대노하여 연대장과 대대장을 질책하였는데 이에 대한 최대령의 전황설명을 듣고서야 분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이에 앞서 27일 오후에 김홍일 소장과 민기식 대령 등 육군본부의 작전지도반 일행이 사단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사단의 전반적인 전황을 설명한데 이어 김홍일 소장에게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하여 반격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강선 방어를 위한 철수는 총참모장의 하명이 있어야 하므로 곧 가셔서 하명이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홍일 소장은 "육군본부에 돌아가서 총참모장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일행이 돌아간 후에도 경항공기에 의한 통신연락문이나 전화지시는 "계속 현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하는 내용뿐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그의 건의가 필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야전지휘관은 오직 최선을 다하여 방어전을 수행할 뿐이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부대지휘에 몰두하였는데, 제15연대가 철수하게 되자 앞서 사단장 자신이 구상한 바 있는 반격계획을 구체화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였다.[143]

즉, 봉일천에서 사단장의 작전복안은 봉일천 주위의 야산을 연하는 원래의 방어선보다도 제15연대가 배치된 금촌 북쪽 고지군을 잇는 선에서 방어를 수행함이 지형적인 입지조건으로나 부대의 종심배치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세로 이전할 때에 이들 고지군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임진강선까지의 진격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좌일선인 제11연대 정면에 제15연대를 배치한 것이었다.

이제 제15연대가 철수하였다고 하여 현 방어선을 포기하고 제11연대가 배치된 제2선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제15연대가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사단의 가용병력으로서 반격하기로 미리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27일 밤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마침 이 무렵 육군본부로부터 "28일부터 미군이 참전하니 전 부대에 이를 전장병에게 숙지시키라"는 통신문이 하달되어 그동안 철수로 침체되었던 사기가

일시에 고조되기도 하여 반격의 전조가 자못 밝아지는 것 같았다.

제15연대의 철수에 따라 사단은 금촌 북쪽의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밤사이에 우회침투한 적의 야습으로 우일선 제13연대가 태반의 주진지를 상실함으로써 동거리 남쪽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또 제2선에 배치된 제11연대는 밤사이에 갑자기 주저항선부대가 되어 이날 05 : 30에는 좌일선 제1대대가 적의 침공을 맞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1연대 제1대대는 1번 도로상으로 접근하는 대대규모의 적을 진전에서 저지하고자 전 화력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포병화력까지 지원받아 이들의 공격기세를 둔화시켰다. 날이 밝자 또 다른 적의 일부가 서측을 위협하였다.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29일 08 : 00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좌우일선에 전개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2개 대대 병진공격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큰 교전 없이 중간목표인 위전리－도내리 선까지 진출하여 최후저항선을 확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13연대는 정면의 적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이로 인하여 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지체 없이 서울특별연대와 제20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이들 부대장에게 제11연대 우측방에 형성된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0연대 제3대대는 도내리 부근 무명고지를, 서울특별연대는 89고지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이날 11 : 00를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좌우 인접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공격을 계속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각 공격부대는 이날 11 : 15에는 내화산－79고지－두문동, 그리고 국도 동측의 둔전동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날 국군 제1사단의 반격작전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144] 그런데 이날 정오 무렵에 사단장은 갑자기 서울함락 소식을 보고받게 되었으며, 이후 사단이 고립된 상황 하에서 여하히 행동하느냐가 초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145]

## 8. 한강이남으로의 철수

국군 제1사단 전술지휘소에서는 뜻밖에도 손실이 거의 없는 가운데 반격작전이 전개되었으므로, 주저항선의 회복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낙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장은 28일 정오 무렵 불확실하나마 서울이 실함되고 한강상의 교량이 모두 파괴되었다는 의외의 첩보를 입수하였다. 사단장은 이의 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예하 주요지휘관을 사단지휘소에 긴급 소집하였는데 이때에 입수된 첩보는 적이 서울시내를 공격하고, 이미 한강교가 폭파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첩보를 뒷받침하듯이 사단의 환자후송차량이 서울시내에 들어가다가 적 전차가 녹번리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단으로 되돌아왔고, 또한 수색으로 탄약을 수령하기 위해 나갔던 보급차량이 도중에서 사격을 받고 돌아오는 등 서울에 이르는 후방요소가 차단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사단장 백대령은 전날 육군본부 작전지도반이 전해 준 미아리지구 전황을 상기하면서, 서울이 이미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단장은 이날 15 : 30부터 각 부대별로 이산포와 행주나루를 통해 도하철수를 개시하며 6월 30일까지 시흥에 집결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철수방법으로서, 한강을 도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제1사단은 회의를 통하여 행주나루터 및 이산포 나루터를 도하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즉,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도하장의 선정에 대하여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과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최경록 대령은 이산포를, 최영희 대령은 행주나루터를 각각 건의하게 되었다.[146]

이렇듯 2개 도하장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사단의 주력을 동시에 철수시키려면 최소한 2개 도하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들 양연대장에게 세부적인 도하지점의 선정과 도하장소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현지를 실지정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단장 자신도 이날 오후에 이산포와 행주 등지를 돌아보았는데 행주의 도

하준비를 맡은 최영희 대령은 그 부근의 창고를 헐어서 그 자재로 선착장을 만들고 배 2척을 묶어서 차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오재기 중위로 하여금 김포쪽에 대한 정찰을 시켰던 바 이미 대대규모의 적이 비행장을 점령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하장 부근에 집결된 부대 중에서 병력 1개 소대를 뽑아 대안과 차안에 대한 경계에 임하도록 아울러 조치하였다.

한편 제1사단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한강도하를 포함한 철수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데다, 장병들은 사단의 전면철수라는 급박한 사태의 충격으로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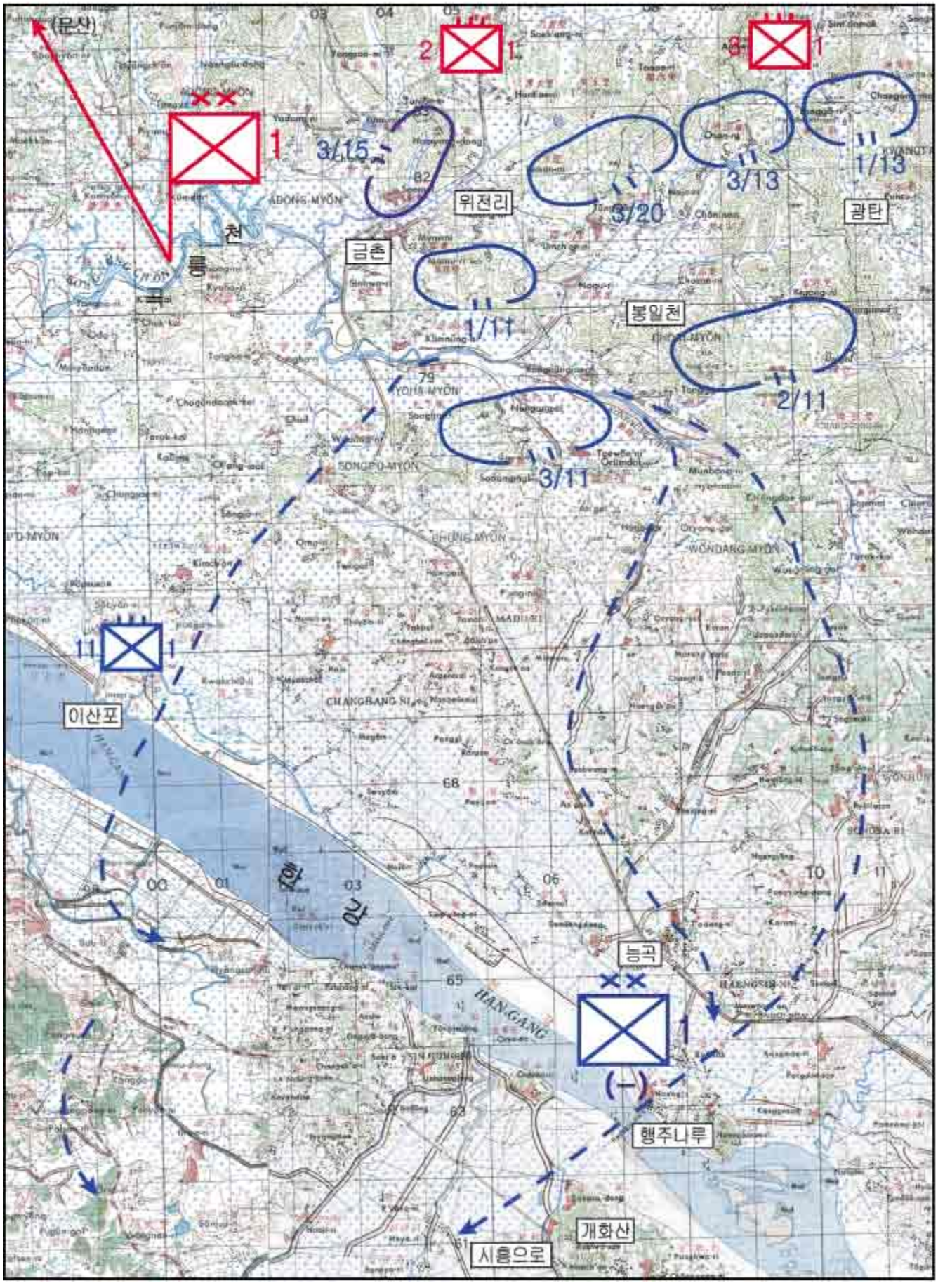
사단의 철수명령이 내려지자 각 부대별로 빠르게 철수한 부대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날 15 : 30에서 16 : 00 사이에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격중인 최전선부대까지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즉 서울특별연대장 유해준 중령은 전방에 나갔다가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철수에 관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제20연대 제3대대장 박희동 소령은 공격도중에 인접부대가 없어진 것을 알고 뒤늦게 철수해야만 하였다. 특히 이들 제5사단에서 증원된 부대들은 동 지역의 군사지도를 보급 받지 못한 채 전방에 투입된 까닭에 철수시 병력수습에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만 하였다.

한편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사단의 작전회의가 끝난 뒤 고양 남쪽 하천 제방에서 연대 자체 지휘관회의를 열고 철수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1대대장 김진위 소령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가 옥쇄하자고 제의한데 반하여 제2대대장 윤천봉 소령과 제3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삼각산에 들어가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우군이 반격하여 올 때까지 항전하자고 하였다. 또한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은 “사면초가인데 별 수 있느냐, 차라리 부하들을 각개 행동하게 하고 우리는 자결을 하자”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자결문제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때 미군 폭격기가 문산지구를 폭격하는 것을 보고 “미군이 참전한 이상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다. 한강을 건너서 싸우자”고 연대장 김익렬 대령이 결론을 내려 우선 연대 헌병대장 박충치 소령으로 하여금 헌병을 지휘하여 행주

<상황도 3-9> 한강이남으로의 철수



에서 연대의 도하준비를 하도록 조치하고 부대의 철수는 제2, 제1, 제3대대 순으로 결정하였으며, 제3대대는 연대본부 병력까지 통합 지휘하여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각 대대는 철수하기 시작하고 연대장 자신도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을 대동하여 연대의 무선지휘망인 3/4톤 통신차 1대를 뒤따르게 하여 행주로 이동하여 도하장을 확인한 다음 무전기로서 철수부대를 능곡-행주방향으로 유도하였으나 교신상태가 좋지 않아 행주에서 다시 봉일천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능곡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봉일천-능곡간의 312번 도로가 철수차량과 병력 등으로 길이 막혔으므로 능곡에서 내려오는 2개 대대와 연대직할대를 행주로 유도하다가 이들과 함께 이날 밤 소형 배 5척을 할당받아 도하하게 되었다.

한편, 제11연대는 사단의 작전회의가 끝나는 즉시 공격중인 전방대대에서 철수명령을 하달하는 등 철수준비를 서둘고 있었는데, 이날 15 : 30이 되어 돌연 연대의 후방으로부터 적의 박격포사격을 받게 되었다. 적 기마대가 연대 동측방에 있는 '은골'로부터 연대 후방지역을 기습하는 한편 그들의 일부 보병부대가 철수시의 혼란을 틈타 이날 아침까지 제2대대가 확보하고 있던 봉일천의 111고지에 나타나 연대관측소가 있는 동측지 서측방의 독립고지와 107고지 남쪽에 있는 연대지휘소지역에 박격포사격을 개시한 것이다. 마치 연대가 적의 포위망 속에 갇히게 된 것처럼 적 포탄이 후방으로부터 날아오자 일대 혼란을 빚게 되었다.[148]

즉 관측소에서 철수준비 중이던 최일영 대위는 재빠르게 관측소 요원을 인솔하여 적의 포격을 피하면서 일산으로 철수하고, 연대지휘소 주변에서 보급품을 후송하려던 보급장교 한근호 중위는 보급하사관 윤기열 중사 등과 같이 우선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총기류부터 적재하고 이어서 탄약과 식량(백미 100여 섬)을 차에 실으려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적 포탄이 그 옆에 쌓아둔 탄약상자 틈에 낙탄하였으므로 연쇄폭발을 피하여 그 길로 차를 몰아 일산으로 빠져 나왔다. 이 무렵 사단지휘소가 철수한 뒤의 봉일천초등학교에서는 원인 모르는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149]

그리고 제11연대의 주력은 이러한 광경을 멀리 바라보면서 일산을 거쳐 이날

저녁 무렵에 이산포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 부근에서 수집한 소형어선으로 도강하였는데 행주나루터나 이산포에 운집한 각 부대의 전투요원들은 앞을 다투어 도하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배가 대안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으나 이 보다도 소속을 달리하는 여러 부대가 통제를 무시하고 도하순서를 지키려 하지 않는데에 근본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상류나 하류지역을 더듬어서 배를 구하여 도하하거나 뗏목을 만들어 건너는 등으로 아예 질서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교가 계급장을 떼고 있어 누가 장교인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느새 사복을 한 사람도 적지 않았으니, 여기에는 상관이나 부하도 없었고, 더욱이 각 부대의 철수차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유기되었던 관계로 차량으로 이곳까지 후송된 전상자에 대하여서도 도하의 우선권이나 이들을 위하여 손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체념한 나머지 차내에서 자결하겠다며 수류탄을 달라고 했고 더러는 차라리 쏴달라고 호소하는 자도 있었다.[150]

그리고 제13연대 수색중대의 김호 소위, 제7중대의 김홍주 소위 그리고 고모중위 등은 행주를 목표로 철수하다가 전세의 불리를 개탄한 끝에 자결하였다. 김호 소위는 그의 선임하사관 홍완기 상사에게 먼저 가라고 한 다음 3명만이 운명을 같이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북한공산치하에서 월남하여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부모형제들을 구하겠다고 군문에 들어왔던 것인데 이제 적들에게 수도가 함락되고 국군이 비참한 패퇴하는 마당에 우리의 갈 곳이 어디냐고 서로 논의한 끝에 자결하였다는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혈로를 뚫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용사의 긍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결행위가 과연 적절한 처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장심리의 하나로 극도로 비관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제13연대 제3대대는 엄호부대의 임무를 마치고 야간철수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9일, 날이 밝아올 무렵에 수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부대행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대대를 수색동 북쪽 산에

집합시켜 일장훈시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다음 “지금부터 대대는 소집단으로 행동하여 시흥방면에 집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휴대무기를 그 부근에 매몰한 뒤 부대를 해산시켰다. 그리하여 자신은 몇 명의 부하와 함께 사복으로서 이날 밤 광장교로 빠져 나갔다.

또한 27일 밤 금촌 북쪽에서 철수한 제15연대 제3대대(최병순 소령)는 흩어진 병력을 봉일천 남쪽에서 수집하다가 28일 아침에야 능곡 부근까지 내려간 병력을 겨우 수집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대는 이날의 반격에도 제외된 채 철수도 타부대보다 빠를 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주간에 수색역을 거쳐 난지도로 나왔는데, 대대의 병력은 수색에서 수집한 타부대의 병력까지를 합하여 1,2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강변에서 병력을 풀어 배를 찾게 하는 한편 이 무렵 난지도내 도처에서 원인 모르게 불타고 있는 집들과 주인이 없는 초가를 헐게 하여 여기서 얻은 판자나 통나무 1개씩을 전원이 갖게 한 뒤 도하조를 편성하여 이날 19 : 00에 영등포의 염창동 쪽으로 도하하였다. 그러나 판자나 통나무에 매달린 채 건넌 관계로 대부분이 물에 떠내려가 55고지(염창동 북쪽 1.5㎞) 아래 강변에서 상륙하였는데 개인병기는 전원이 휴대한 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밖의 부대도 28일 저녁부터 29일 아침사이에 행주와 이산포로 도하하였으며, 사단장 백선엽 대령도 사단사령부와 함께 행주나루를 건너 철수하였다.[151]

그런데 앞서 27일에 사단을 방문한 김홍일 소장은 당일 육군본부에 복귀하는 즉시 제1사단의 철수문제를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 적의 주력이 미아리 지역으로 집중되어 수도방어의 성패가 결정되는 긴박한 상황하에 몰려 있었으므로 총참모장 스스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조차 내리지 못한 채 수원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저녁부터 6월 29일 아침 사이에 각 부대가 행주와 이산포 부근에서의 혼란 속에서도 그런대로 한강을 도하할 수 있었으나 날이 밝자 적으로부터 위험을 느꼈던 탓인지 차안을 떠난 배들이 대안에서 묶인 채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강을 건너지 못한 병력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도하의 때를 놓친 이들은 각

개행동으로 요행히 은신처를 찾은 자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적의 흉수에 의하여 처참한 최후를 마친 것으로 추단되었다.

한편 한강을 도하한 병력은 소속부대와 함께 동일한 제대로서 도하한 부대도 많으나 한 배에 혼승한 부대나 개인은 대안에 닿자마자 각기 원소속대를 찾아 개인행동에 들어가기 일쑤였을 것이고 또한 동승한 자들끼리 소집단을 형성하면서 비교적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8일 밤에는 이미 일정규모의 적이 김포비행장을 장악한 듯 그들의 소규모가 대안상의 감제지형인 개화산(△130)과 그 아래를 남북으로 흐르는 수로와 제방을 점거하여 아군부대가 접근함을 보고 일제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152]

이들 적은 6월 25일에 개성으로부터 그 남단에 있는 영정포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를 추격한 것으로 보이는 적 제6사단 예하의 부대였다. 이들은 한순화 소령이 이끄는 대대가 강화를 거쳐 김포반도 서단에 있는 통진으로 철수한 다음 다시 6월 27일에 김포－오류동 지역으로 나오게 되자 그 뒤를 이어 김포 지역을 침공하였다. 그리하여 6월 28일 전에 행주와 개화동 일대의 개활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개화산과 이산포 서북쪽 7㎞의 김포반도 대안변에 있는 봉파산(△129) 등을 점령하여 한강하류 지역을 통제하는 한편 신전동에 있는 138고지를 장악하여 김포가도 주변지대를 선점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행주나루로 도하한 부대 중에서 여러 부대가 혼성이 되어 질서를 찾지 못한 부대나 지휘자가 없는 오합지중은 이러한 적의 불시사격에 직면하자 강변에 있는 갈대밭에 뛰어들어 끝내 각개행동으로 분산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13연대의 도하부대도 개화산을 피하여 영등포 방면으로 야간행군을 계속하였는데 날이 밝을 무렵에야 길을 잘못 들어 영등포의 동측이 아닌 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은 이를 연대장 김익렬 대령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첨병중대인 제7중대에 달려가 중대장 장진 대위에게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하였으나 이미 이때에는 138고지(신전동) 앞까지 나오게 되어 부득이 김포가도를 횡단하게 되었다.[153]

제13연대 선두가 도로에 나서자 동 고지로부터 기관총의 사격을 받았는데, 이

에 부대는 일렬종대로서 논두렁을 타고 나왔으므로 그 즉시 양변에 흩어져 응사하는 한편 적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여 동측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때에 최대명 소령은 혹시 이 방향으로 철수한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이 아닌가 하여 이를 확인하려다가 본대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김포 방면으로 출동하는 기갑연대 소속의 장갑차에 구출되어 본대의 뒤를 따라 시흥보병학교에서 합류하였으나 많은 병력을 여기에서 잃게 되었다.

또한 이산포에서 도하한 제11연대는 김포반도로 오른 뒤 소집단으로 행동하여 시흥과 수원으로 철수하였으며 동 연대의 마지막으로 건너게 된 어선 1척에는 100여 명의 전투요원이 탑승하였는데 여기에는 제11연대의 후발대와 앞서 임진강을 도하한 바 있는 제12연대의 일부병력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밖의 부대들도 29일 오후에 시흥보병학교에 집결하여 먼저 철수한 부대들과 합세한 다음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의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또한 이날 오전에 미군 폭격기가 행주와 이산포 지역에 유기된 아군의 포와 차량 등에 폭격을 가하였다.

한편 청룡반도와 석포(연안)로부터 서해로 탈출한 제12연대 제3대대(이무중 소령)는 강화도, 서산, 군산 등지에 상륙하여 7월 4일까지 수원에 집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철수에 뒤따르다시피 남침한 적의 주력은 벽제－구파발 방면으로부터 서울에 공격하고 그들의 일부는 행주나루를 확보한 뒤에 미군기의 폭격을 피하면서 계속 남침을 위한 도하준비에 주력하였다.[154]

## 9.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국군 제1사단은 남침 당시 청단－개성－문산 일대의 94㎞의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북한군의 전면 남침시 38선상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진강변을 연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1사단은 전쟁이전에 학생과 청장년을 동원하여 주저항선상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준비를 갖추고 또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예비인 제11연대를 수색으로 이동시킨 조치는 유사시에 대비한 중요한 사전대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문산 돌출부－파평산 주저항선을 돌파하는데 큰 출혈을 강요했고 또 남침 즉시 사단은 예비대를 주저항선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선의 징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육본 지시에 의거하여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하였다. 즉, 사단장이 시흥 보병학교 고급지휘관과정에 입교 중이었고, 제11연대는 공용화기의 30%를 6월 초 후방기지창으로 후송하여 주로 개인화기만을 보유한 상황이었으며, 24일에는 영내에 대기 중이던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허용하여 사단의 1/3 병력이 영외로 나간 상황이었다. 또 이날 밤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사단장 대리인 최경록 대령도 참석하여 잠시 부대를 비웠으며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도 외출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남침당일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 2) 전장기능별

#### (1) 지휘통제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적의 주공방향을 문산－봉일천－서울 축선 방면으로 예측하고 제1사단 방어계획을 3선 개념에 의한 종심 방어지대로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파평산과 임진강이라는 방어에 유리한 천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였고 적으로 하여금 전과확대와 추격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봉일천 일대의 최후저항선에서도 지형을 이용하여 최대한 적을 저지하였다. 반면 북한군 제1사단은 오직 전투력의 절대 우세에만 의존하여 무모한 공격을 되풀이하다가 부대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서울을 이중 포위한다는 북한군의 작전 전반에 큰 차질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것은 향후 국군의 지연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사단장은 병사들의 육탄공격만으로 북한군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6월 26일 21:00경 봉일천과 금촌을 잇는 방어선을 설정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후방에서 지원된 육사교도대, 수도경비사 대전차포 중대 및 장갑차 소대와 제15연대 1개 대대, 제20연대 1개 대대 등의 병력을 배치하고, 부상으로 후송된 12연대장의 후임도 도착하여 전열을 갖춘 제1사단은 28일 오전 반격계획까지 하달해 놓고 방어하고 있었다. 28일 아침 반격을 실시한 사단은 전방으로 1~2㎞ 전진하였다. 그러나 28일 정오경에 한강교가 폭파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사단장은 한강선방어를 위하여 병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아래 병력을 시흥지구로 철수시켰다.

### (2) 정 보

육군본부에서 6월 23일 24:00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함에 따라 사단도 그간 영내에 묶여 있던 장병들에게 휴가,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였다. 사단은 수 주간에 걸친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 획책하고 있는 것은 감지하였으나, 전면 침공의 가능성을 전혀 예기치 못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본의 지침에 따라 많은 병력의 외출, 외박을 허용하였다. 사단은 지역 내 북한군 2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연대 등 대규모의 공격부대가 배치되는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면의 적이 어떤 부대이며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또 사단은 주저항선과 최후저항선에서의 방어작전시 아군 인접부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사단은 서울 북쪽의 적의 진출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한강교량이 폭파된 상황에 대해서도 뒤늦게 전해 듣고 확인할 정도였다.

### (3) 기 동

사단은 북한군이 임진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자 역습부대를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며, 또 최후저항선에서 역습을 실시하여 일부 부대가 문산 일대에까지 진출하면서 적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 이는 적의 주력이 공격하기 전에 적절한 방어편성을 완료하고 적이 취약한 시기에 역습부대를 투입함으로써 전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병력의 분할사용 문제가 지적된다. 병력의 집중운용은 어떠한 작전에서도 한 부대의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우세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쟁의 집중원칙에 근거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단은 당일 사단에 배속된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로 혼합 편성된 서울특별연대를 도착 즉시 양분하여 좌우일선 연대에 분할 배속시켜 동 연대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우일선 연대지역에 지원된 육사교도대가 파평산 동측방에서 방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채 분산 철수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교훈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임진강 철교폭파 문제이다. 전투시 공병은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후퇴작전시 적의 교량사용을 거부하기 위해 파괴해야만 한다. 그러나 남침 당일 21:00 전후 공병대 폭파조 단독으로 임진강 교량을 폭파할 수 있었지만, 이날 밤사이 적이 일부 파손된 곳을 보수한 다음 교량으로 도하를 한 점을 미루어보아 완파에는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교량폭파에 대한 당시의 공병능력의 문제이다. 당시 폭파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미 고문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협조와 기술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당시의 사단 공병으로서는 그 방면의 기술수준이 낮았던 관계로 계획의 단독완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당시 제원산출에서나 혹은 폭약의 장전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임진강교의 폭파는 사단장의 폭파 준비명령에 의하여 폭파준비를 일찍이 완료할 수 있었으나 동 교량으로 철수하도록 계획된 제12연대의 각 부대가 개성 지역에서 조기에 분산, 와해됨으로써 사단은 주력의 통과만을 기다리다가 폭파 시

행명령을 적시에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군은 한강도하에 있어서 나룻배나 뗏목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다른 도하장비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임진강 교량의 폭파 문제는 작전상 대단히 긴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4) 화력운용

사단장은 개성에 위치한 제6포병대대(노재현 소령)를 새로운 방어개념에 따라 대대본부와 함께 2개 포대를 수색의 사단사령부 부근에 이동시키고 그 예하 제3포대는 계속 문산에서 제13연대 지역에 있는 105㎜ 탄약고 관리와 적 침공시 동 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의 결과 포병 주력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임진강 주저항선에서 효과적으로 화력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저항선에서 포병대대는 제11, 제13 양 연대를 직접 지원하여 적의 도하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 사단 주력의 철수시에도 포병의 적절한 화력지원으로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특공대가 81㎜ 박격포와 수류탄을 활용하여 적 전차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개성, 문산 지역에서 사단의 우측 방어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의 전차가 남하하자 파평산 주진지 전방의 제1대대가 고랑포를 거쳐 남하하던 북한군 전차에 대하여 2.36″로켓포와 60㎜ 박격포를 사격하였으나, 이들 전차는 포탑의 덮개를 닫은 채 전차포를 쏘며 남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특공대를 선발하여 일부에게 2.36″로켓포를 장비시켜 전차의 궤도를 사격하도록 지시하면서, 나머지에게는 몇 개씩의 81㎜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분배한 다음에 이를 전화선으로 묶게 하고, 전차에 접근하여 안전핀을 제거한 후 이들 묶음을 전차의 포탑 안에 던져 넣도록 지시하였다. 이 특공대는 대대가 집중사격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한군 전차에 접근하여 5대의 전차를 파괴하는 큰 전과를 달성하였으나 자신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산화하고 말았다.

한편 철수시 혼란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비의 유기문제도 중요

한 교훈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사단은 이산포와 행주나루를 통해 도하 철수하는 과정에서 도하장비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중화기를 땅에 묻거나 파괴할 수 밖에 없었다.

### (5) 방 호

국군 제1사단은 전쟁이전 학생과 청장년의 도움을 받아 주저항선상의 교통호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문산 돌출부와 파평산 방어진지에서 적의 진출을 방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단은 사전에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적의 진출을 지연하고 출혈을 강요하였으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주저항선과 최후저항선에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병력과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전투요원들이 냉정과 침착함을 견지하는 한 기대되는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소중한 전훈을 남겼다. 이 전투에서 또한 이와 함께 극한적인 상황이 교차하는 전장에서 전투원 각자가 정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상하간에 강한 정신적인 유대와 신뢰가 없으면 좀처럼 실행하기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사단은 지역 내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상병의 응급처지와 후송, 보급추진, 그리고 피난민통제 등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경계진지 전투시 북한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전방 중대 및 대대와의 유무선이 단절되어 적시에 전방부대에 탄약과 보급품을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대, 중대에서는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수송차량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적시에 보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저항선을 점령한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사단은 사전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 이후부터 통신, 수송 등이 개선되었으며 탄약과 보급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따라 전투부대가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 제 5 절 강화-김포 전투

## 1. 전투 개요

서울북쪽 봉일천과 의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강 하구 김포지역에서는 또 다른 적이 서울을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었다. 김포반도 북단의 한강하구는 강폭이 2~3m에 이르고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도하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육군본부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 일대의 방어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군은 그러한 방어의 취약점을 간파라도 한 듯 제6사단(-)이 개성을 점령한 뒤 25일 저녁 국군을 추격하여 영정포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도하지점을 정찰하면서 강화도와 김포반도 방면으로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적의 도하징후를 보고 받은 육군본부는 급히 남산학교장 계인주 대령을 김포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고 그곳으로 도하한 제12연대 제2대대를 포함하여 남산학교, 보병학교 후보생, 공병학교 학생, 보국대대 병력과 또 그곳으로 투입된 독립기갑연대 일부 부대를 통합 편성하여 적의 도하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각 부대가 진지편성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 26일 16:00 적의 도하정찰이 두드러졌으며 27일부터 적은 대안에서 지원사격과 더불어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12연대 제2대대를 비롯한 각 방어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고전하였으며 더구나 보국대대의 돌파로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알고부터 방어선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김포사부는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새로이 투입된 부대로써 김포방어의 마지막 보루인 운유산-73고지선에 부대간 연결된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

나 28일 새벽, 적은 전차를 선두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김포지구의 장병들은 2.36″로켓포와 장갑차의 37㎜ 직사포 사격을 집중하고 소총탄이 소진될 때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김포에도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방어부대가 김포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 2. 육군본부의 조치

### 1) 김포 일대 국군부대의 초기 대응

한강하구 지역인 영정포-김포반도 북단 사이의 한강은 하폭이 2,000~3,000m에 이르며,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간만조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1.0m~1.5m/sec의 격심한 유속에 의해, 간조기에는 노출된 강바닥의 갯벌에 의해 도하가 매우 제한된다.

6월 25일 당일에 파죽지세로 개성 일대를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소장 방호산)은 강화도와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반도를 돌파함으로써 김포비행장을 확보한 다음, 시흥-영등포 방면으로 우회하여 경부국도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기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포반도로 향한 도하공격의 징후는 26일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55]

북한군 제6사단은 한강하구의 제1의 포구인 영정포(갑관 북쪽 8㎞ 한강 북안)를 전진기지로 삼아 일부는 강화도로 상륙하여 갑곶에서 염하를 건너 김포반도 서쪽으로 우회하게 하고, 일부는 곧장 한강을 건너 반도 북단에 상륙하게 함으로써 먼저 반도의 서북쪽 통진지구를 확보한 다음, 김포가도를 따라 동남향으로 진출하여 일거에 김포비행장을 손에 넣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영정포-김포반도 북단 사이의 한강하구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강화도와 김포반도 일대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 대한 방어계획 또한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한강 북안의 개성지구에서

38도선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1사단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25일 미명에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날을 미처 넘기지 못한 채 개성 정면의 제2대대와 예성강 서쪽 연안지구의 제3대대가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156]

당시 서부전선의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육군본부가 38도선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고 있지 않았던 만큼, 개성정면에 대하여서는 "적의 전면공격시는 그 지역을 철수하여 문산 부근에 집결한 다음, 임진강 남안에서 적을 격멸한다"는 자체방어 개념을 가지고 임진강선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사단의 장병들은 김포반도가 분명히 사단의 후방지역이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5일 김포반도에서는 한강 북안에 불어 닥치고 있는 적의 침공상황과는 별개로 고요한 상황이었다. 개성 부근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가 적의 공격을 맞이한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그 일부가 문산쪽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주력은 한강으로 남향하여 정관리(개성 동남쪽 10.5㎞) 일대의 포구에서 선박 10여 척을 얻어 한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장 한순화 소령과 대대 S-3 전자열 중위 등 150여 명의 동 대대원이 김포반도 동북단의 시암리(통진 동북쪽 10㎞) 부근에 상륙한 것은 대체로 19 : 00 전후였다.[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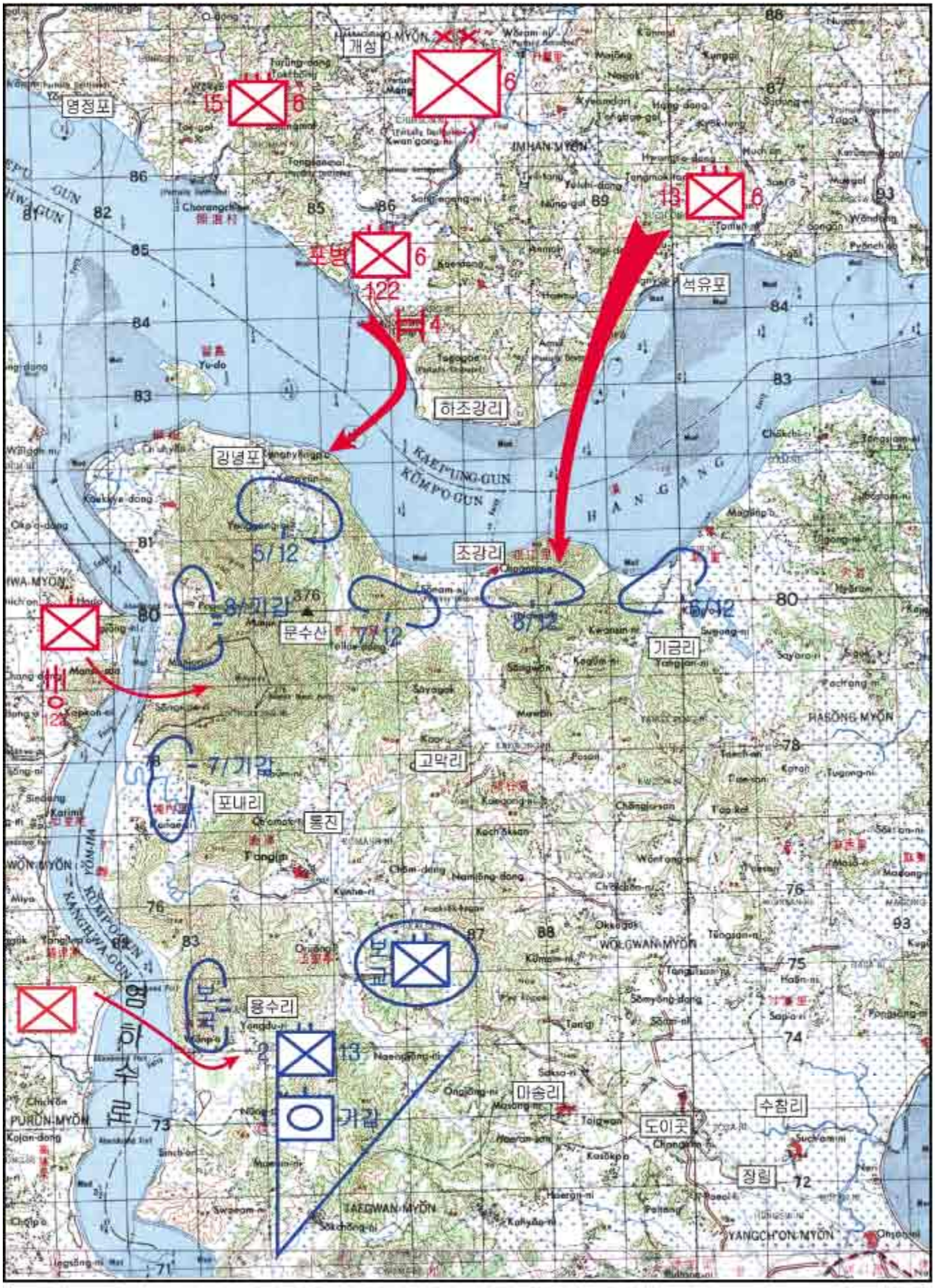
대대는 우선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강변의 도하장소를 경계하면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저녁 무렵 제3대대의 부대대장 박광윤 대위와 제11중대장 백문 중위 등 제3대대의 일부가 합세되어 집결병력은 모두 7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대대장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여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얻고자 부대의 지휘를 부대대장 전면식 대위에게 일임하고 짚차로 밤새 문산으로 향하였다.

## 2) 김포지구전투사령부의 편성

### (1) 육군본부의 조치

전날(25일) 야간, 개성에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시암리 부근에서, 그리고

<상황도 3-10> 김포반도 전투



서울에서 출동한 기갑연대와 장갑소대는 그 반대쪽의 하안에서 각각 전후좌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을 새웠는데, 이날(26일) 날이 밝자 전황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육군본부 작전담당자들은 김포반도에서도 적의 징후와 도하기도를 포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차 적이 여기에 상륙하여 김포가도를 따라 영등포, 노량진 일대로 우회한다면 아군으로서는 후방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작전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158]

그러나 결과적으로 육본 수뇌부는 김포지구 한강하구의 넓은 강폭으로 적이 쉽게 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하였다. 즉 보병학교의 제3차(6. 18~8. 5) 고급반학생이던 계인주 대령을 이날 아침 남산학교장으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김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김포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159] 그리고 기갑연대 일부를 증원하고, 보병학교의 학생연대 후보생(갑종간부)으로써 1개 대대를 급편하여 김포반도에 투입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강구하였다.

계인주 대령은 정보국에 오래 몸담았던 정보통일 뿐 작전에는 문외한이었으며 더욱이 혼성부대의 지휘능력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통신망마저 불비하여 지휘체계도 확립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남산학교의 기간요원(장교 10여 명, 사병 30여 명)을 골간으로 전투사령부가 편성되었는데, 부교장 최복수 중령을 참모장으로, 그리고 학교의 각 참모를 동일 기능의 참모로 전환하여 전투사령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사령관은 사령부 편성이 끝나는 즉시로, 전날 개화산에서 밤을 새운 남산, 공병학교의 혼성병력 50여 명을 우선 조강리로 추진하여 도하장소의 경계에 임하게 하고, 병기관인 조한춘 중위를 육본과 부평의 제1병기대대(김창배 소령)로 보내 소요 탄약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전투사령부는 병력이 김포읍에 도착하는 대로, 반도 북단의 문주산(376고지)을 중심으로 북쪽 한강변의 조강리-강녕포와 그리고 북쪽의 염하변에 각각 배치하여 반도의 서북쪽 지역에 방어의 중점을 두었다.[160]

그러나 이들 부대는, 모두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생소한 지역에 투입된 데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간의 횡적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령부의 종적인 지휘계통도 유명무실 그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전투 역시 의정부 정면과 같이 통일된 부대행동에 의한 전력발휘보다는 각 병사의 방어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2) 제12연대 제2대대의 방어편성

25일 시암리에서 하룻밤을 보낸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이날 김포지구전투사의 통제하에 들어가 통진 부근에서 도하를 막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전날 밤 대대장은 연대본부를 찾아 이날 새벽 02 : 00 봉일천초등학교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연대장 전성호 대령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제1대대(신현홍 소령)의 일부만이 집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08 : 00에 파주의 사단본부로 가서 사단장 백선엽 대령으로부터 "김포반도에 철수한 병력을 뽑아 봉일천의 본대와 합세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161]

그러나 대대장이 다시 11 : 00에 김포읍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대대병력은 김포지구사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대대장은 하는 수 없이 동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문주산을 중심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휘계통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가운데 제2대대장은 제3대대와의 혼성병력 600여 명을 4개 중대로 재편하여, 대대본부를 통진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가금리에서 강녕포에 이르는 강안에 3대 중대를 배치하고, 1개 중대를 통진 북쪽고지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대대는 14 : 00경 진지편성을 끝내고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162]

### (3) 기갑연대의 투입

한남동에 위치한 기갑연대(유흥수 대령)는 이날 아침, 38도선에서의 적의 기습공격 급보가 전해지자, 즉시 비상상태에 들어가 외박 중 귀대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독립연대로서 수도경비사령부(이종찬 대령)와는 별도

로 육본 직할의 동 연대는 오전에 육군본부로부터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육본이 연대의 장갑차를 전선사단에 분할 배속하게 한 것은 이들의 화력지원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그 보다는 장갑차에 장비된 장거리용 무전기(SCR-506)로 전선 상황을 즉시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방편이었다. 당시 남산에는 연대의 통신소가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장갑차의 무선보고가 청취 가능하였다.

이 같은 육본의 작명에 따라 연대는 오전 중 적기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장갑차와 마필을 남산 기슭으로 일시 대피시켰다가 오후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즉, 제1장갑수색대대(박무열 소령)는 중량 8.6톤에 최고시속 54㎞인 M8장갑차(M6 37㎜포 장비) 27대를 주축으로 M2 반궤도차와 짚차 등으로 편성된 3개 중대 가운데 제1중대(박길용 대위) 2개 소대로써 강릉과 춘천의 제8, 제6 양 사단에 배속하고, 1개 소대로써 김포반도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19 : 00 전후 신태범 중위가 지휘하는 장갑차 1개 소대가 김포반도의 서북단인 강녕포에 진출하였는데, 그 무렵 한강에는 어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적의 동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제1중대에서는 제3중대에 이어 1개 소대를 강녕포로 내보내었으며 주력은 이튿날 아침 각각 배속부대로 출발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25일 정오에 적의 YAK기가 김포비행장을 공습하여 연료저장탱크가 화염에 쌓이기도 하였다. 이때 김포비행장 부근의 각 부대들은 육군부대와의 적정수집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비행장 부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와 항공기지사령부 및 보급창과 헌병대 등을 김포경비사령부로 편성하였고, 사령관에 사관학교장 최용덕 준장이 임명되었다. 이날 사령관은 18 : 00에 사령부와 2개 중대를 김포읍으로 추진한 다음 병력을 김포－통진 도로 길목인 44고지 일대에 배치하였으나, 적정을 탐지하지 못한 채 긴장된 밤을 새우게 되었다.

육군부대인 남산학교는 교장 계인주 대령이 보병학교에 교육파견 중이었으므로 부교장 최복수 중령의 지휘아래 기간요원 40여 명으로써 개화산(130고지 : 비행장 북쪽 2㎞)을 점령하여 지역경계에 임하였으며, 공병학교는 그 일부가 남산학교 기간요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가운데 주력은 15 : 00를 전후하여 남산(장충단공원)으로 이동하여 전선 지원태세에 들어갔다.[163]

이리하여 제12연대의 혼성대대는 북쪽의 한강변을, 기갑연대 혼성대대는 서쪽의 염하변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장갑중대와 기병중대가 진지에 투입된 것은 대체로 16 : 00경이며 이때부터 적 도하공격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164]

### (4) 보국대대와 보교대대의 출동

밀양지구에서 공비선무공작을 벌이다가 영등포(문래동)로 복귀한 육군 보국대대(방원철 소령)는 귀순장병 174명으로 편성된 부대이다. 대대는 3개 중대를 편성하여 2개 중대를 제6, 제7 양사단의 정찰대로 파견하고 1개 중대만 본부에 두고 있던 중 전날 적의 남침급보를 접하고, 출동준비로 대기하였으나 종일토록 그들에게 별다른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은 이날 아침 육본에 자진 출두하여 남침저지를 자원한 결과 김포반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165] 대대 장병들은 99식 소총에 실탄 20발과 수류탄 1발씩을 나누어 가지고, 민간 차량으로 13 : 00 영등포를 떠나 김포반도의 서북단을 지향하여 15 : 00에 통진 남쪽의 180고지에 독자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한편 시흥의 보병학교(민기식 대령)는 육본명령에 따라 각종 후보생으로써 후보생대대를 편성하여 김포지구에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동 학교에는 보병은 물론 각 병과별로 선발된 간부후보생들이 보병기본훈련을 이수하기 위하여 각 병과학교로부터 파견교육 중이었다.

금년 2월에 입교하여 8월에 임관예정이던 갑종간부후보생 제1기는 일부가 전날 문산으로 출동하였으며, 이날 명령을 받은 후보생대대의 구성은 갑종간부후보생 제2기(149명 4. 21 입교), 동 제3기(150명 6. 2 입교), 포병사관후보생 제1기(70명 5. 15 입교), 병기사관후보생 제4기(124명 4. 3 입교), 일반공병과 제5기(52명 4. 10 입교) 등이었다.[166]

이와 같은 후보생 500여 명으로써 4개 중대로 편성된 후보생대대 대대장은 교수부 전술학과 교관인 장영문 소령이, 부대대장에는 김광순 소령이 임명되었다. 각 중대장에는 학생연대의 중대장인 황의선 대위가 제1중대장으로, 이춘배 대위

가 제2중대장으로, 하범수 대위가 제3중대장으로, 그리고 이승준 대위가 화기중대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그런데 후보생들은 모두가 M1소총에 의한 미식훈련을 받은 것으로서 대부분은 M1사격훈련을 끝내었던 것이나, 이 가운데 6월 2일에 입교한 제3기 갑종간부 후보생은 M1소총의 기계훈련만 마치고 실탄사격훈련은 26일(월요일)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실제로 그들은 단 한발의 사격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거기에다 학교가 보유하였던 M1소총은 전날 출동병력과 함께 문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의가 38식 또는 99식 등의 일제소총이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화기교육으로 인해 저녁에야 중대편성을 마치고 징발차량을 이용하여 김포로 북상하였다.

이들은 김포지구사의 명령으로 다시 통진으로 나아가 야간에 보국대대 진지 동쪽(통진 동남, 통진－김포 도로 좌측)의 야산지대에 우로부터 제3, 제2, 제1중대 순으로 3개 중대를 배치하고, 교육용 81㎜ 박격포와 기관총 등으로 장비된 화기중대로써 이를 일선 중대를 지원하도록 준비하였다.[167)]

### 3) 도하 저지작전

26일 야간, 통진을 중심으로 김포반도 서북단에는 3개 대대 병력이 배치되었으나, 이들은 모두가 저마다 독립된 행동에 의하여 축차로 투입된 것이므로 사전에 부대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들은 일관된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각 대대장의 독단에 따른 부대를 배치하여 각 병사들은 저마다 자신부대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실정이었다.[168)]

따라서 적정에 대한 인접부대간의 횡적인 정보의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이 강구되지 못하여 그 정보가 김포의 지휘부에도 즉각 보고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러한 형편으로서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기대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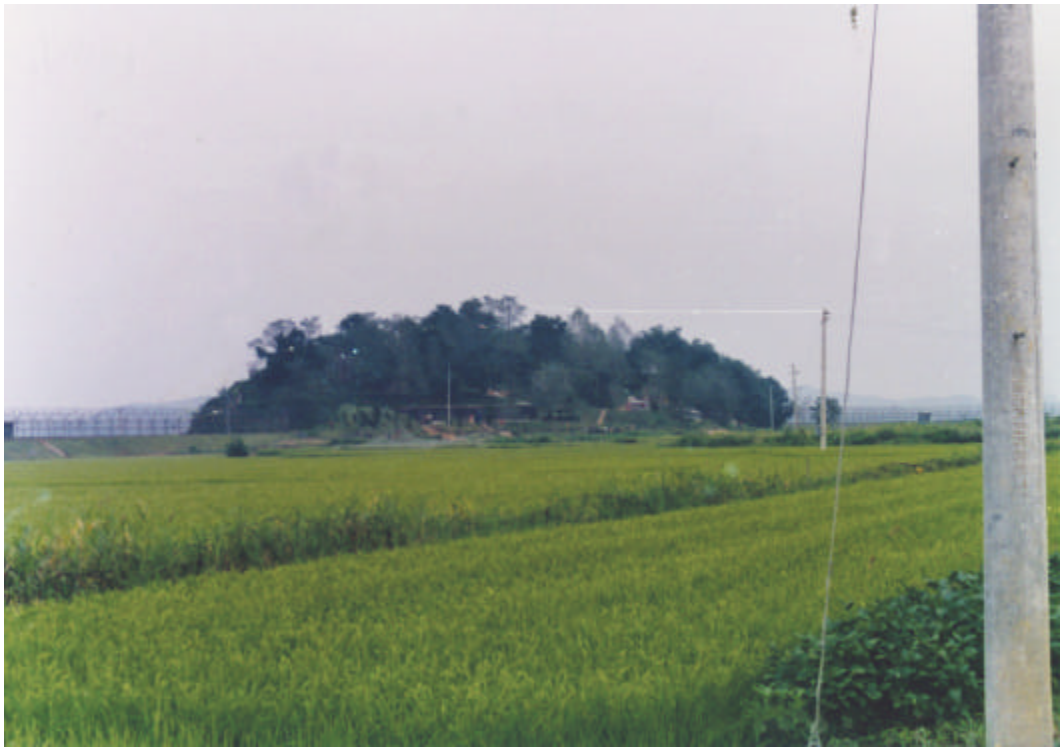
제12연대와 기갑연대의 혼성병력의 진지편성이 대충 끝난 16 : 00경 한강에 대한 적의 도하정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피난민을 가장하여 작은 어선 등으로

산발적인 도하를 꾀하다가 해가 질 무렵부터는 발동선이 예인하는 도하주정을 이용하여 소대규모씩 대안의 석류포로부터 조강리로 상륙을 기도하였다.[169]

이에 조강리로 증원된 장갑소대(곽응철 소위)가 장갑차의 37㎜포로써 도하중인 적선을 격침하였고, 적은 조강리로의 상륙을 포기한 듯 더 이상의 도하기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쪽의 염하변에서는 갑곶에서 도하를 노린 적의 일부가 염하를 건너 180고지 서쪽 하안으로 침투하였다. 자정 무렵, 보국대대 진지가 먼저 무너지고 말았다.

27일 날이 밝자, 적의 도하가 본격화되었다. 적은 전날 밤 보국대대 진지를 돌파한 것에 이어, 북쪽 한강에서도 야음을 타서 강녕포 동남쪽의 강안 일대에 상륙하였다. 적은 강녕포 부근의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의 제1중대와 103고지의 제3중대 사이에 교두보를 구축하였다.[170]

적은 강녕포 동남을 확보한 가운데 날이 새자, 북안의 영정포에 122㎜ 야포를



강녕포의 모습

방열하여 조강리와 강녕포 일대를 강타하는 도하 지원사격을 시작하였다. 먼동이 트면서 영정포 부근에는 수집한 갖가지 선박들에 병력과 중장비를 분승한 적이 포병의 엄호하에 강녕포로 도하를 강행하였다.[171]

이에 호응하여, 전날 밤에 강녕포 동남쪽의 강안을 확보한 적은 강녕포-통진 도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강안에서 적의 도하를 막던 제12연대 제1중대와 장갑소대는 후방차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또 적의 포격을 감당하지 못해 통진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따라서 적의 주력이 강녕포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103고지와 가금리의 제3, 제4중대도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통진의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은 08 : 00 강녕포에서 철수한 장갑소대와 전날 밤 180고지에서 흩어진 보국대대의 일부를 흡수한 다음 예비 제2중대를 지휘하여 상륙한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강녕포로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노폭이 좁아 선두의 장갑차의 회전이 곤란함으로써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적의 포격이 치열하여 장갑차 지원화력의 활용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막리(통진 북쪽 1.5㎞) 부근에 이르러 문주산의 동쪽으로 밀려드는 적과 조우하면서 다시 통진으로 물러서고 말았다.[172]

이 무렵 염하변에서도 적이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어선을 이용하여 갑곶 일대로부터 도하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강화부근에 120㎜ 박격포를 추진하여 대안의 도선장과 통진 일대에 대한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곳의 보병 제9중대와 기병 제7중대가 장갑소대의 지원 아래 적의 도하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고지의 적으로부터 배후교란과 강녕포쪽에서의 침공을 고려하여 09 : 00 통진으로 철수하였다.[173]

통진에 집결한 제12연대와 기갑연대 혼성병력은 장갑차의 엄호하에 통진에서 김포와 인천으로 갈라지는 도로의 삼거리인, 장림(통진 동남쪽 6㎞)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벽 180고지를 점령한 적의 일부가 통진-장림도로의 남쪽으로 우회하여 "겉고개"(통진 동남쪽 3.5㎞)를 차단하여 퇴로를 막고 있었다. 이에 이들 혼성병력은 장갑차를 선두에 내세워 겉고개를 돌파하여 11 : 00에 장림에 이르러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174]

## 3. 장림－운유산－김포 전투

### 1) 장림－운유산 부근 전투

25일 밤 통진 동남쪽에 진지를 마련한 보병학교의 후보생대대(장영문 소령)는 26일 아침부터 북쪽에서 가까워지는 포성을 들으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08 : 00무렵 적의 정찰대 1개 소대규모가 대대의 좌일선인 제1중대의 진전에 출현하였다. 중대는 적이 소총 유효사거리 안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다가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이때 180고지로부터 대대의 좌측방이 공격을 받고 후방의 화기중대 진지에 적이 먼저 침투함으로써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11 : 00 장림선에서 제12연대 제2대대와 합세하였다.[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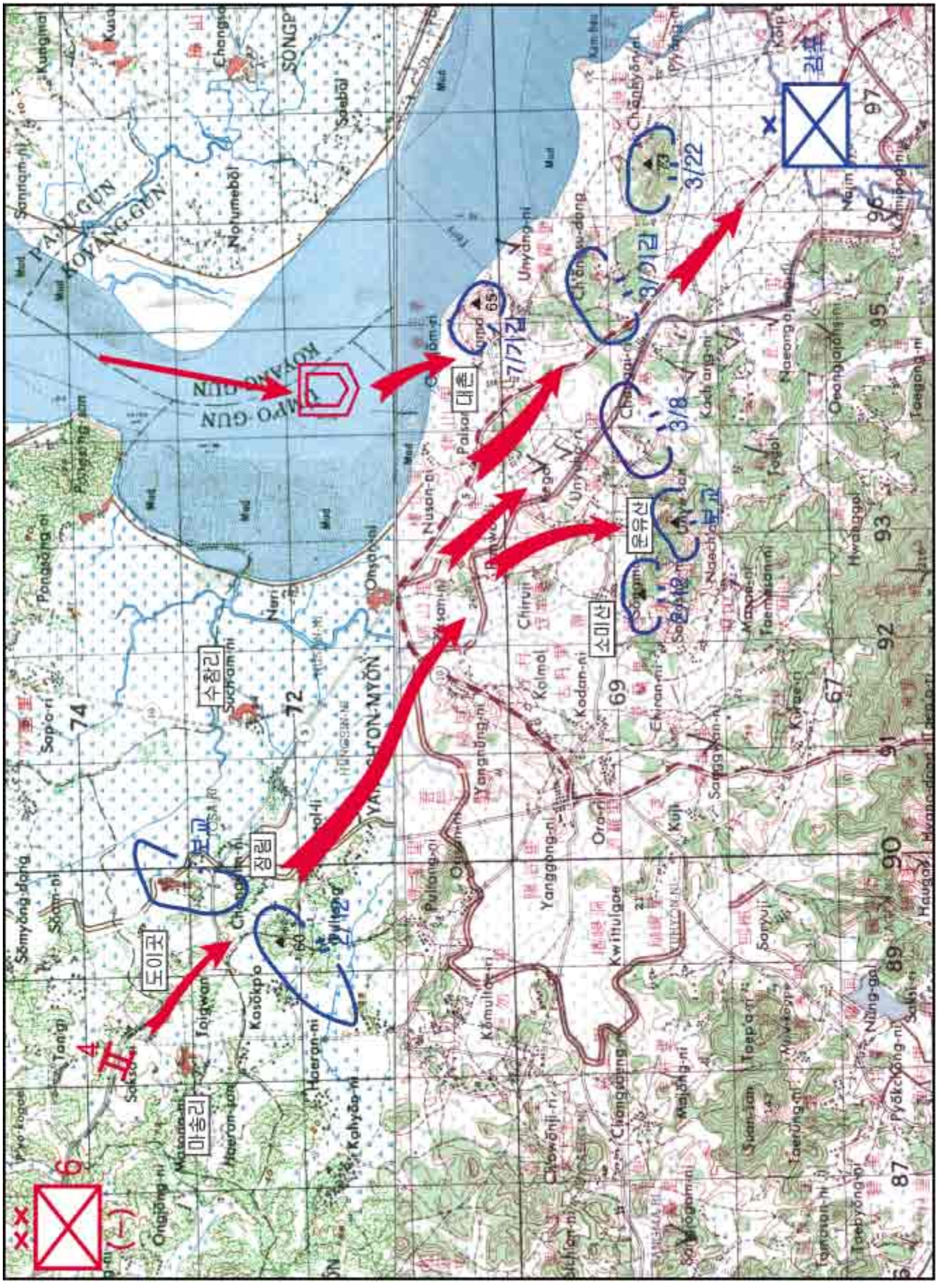
그리하여 기갑연대의 기병과 보병이 김포읍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가 장갑중대의 지원 아래 장림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후보생대대는 장림 삼거리 북쪽 구릉지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장림－김포읍의 도로를 제압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일부가 한강변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제2중대로써 그 남쪽의 천마산(60고지)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장림－양곡(장림 남쪽 4㎞)간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때 후보생 대대원들이 장비한 99식소총은 격발장애가 잦아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이 동안에 적은 1개 대대규모로써 각종 중화기와 함께 문주산 일대를 석권하고, 곧 통진－김포가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였다.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가 장림에서 적의 침공을 막고자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13 : 00를 전후하여 장림선이 무너지게 되어, 후보생 대대는 김포읍쪽으로, 제12연대 제2대대는 양곡쪽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로써 적은 이날 오후 김포평야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176]

한편 후보생대대(장영문 소령)는 김포평야를 지나 15 : 00에 운유산(표고 110m) 북쪽에,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양곡부근에 각각 진지를 다시 편성하였다. 이때 기갑연대 혼성병력과 남산학교는 김포읍에 집결하였고 보국대대는

<상황도 3-11> 장림-운유산 전투



영등포의 본대로 복귀하였다.

후보생대대는 2개 중대를 제일선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지형지물만을 이용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중 적의 기습을 받았다. 전장경험이 전혀 없었던 후보생 가운데는 계속되는 적의 압력에 전의를 읽고 진지를 이탈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게다가 진두에서 후보생들을 독려하던 대대장 장영문 소령이 두부에 저격을 받고 전사하고 말았다. 따라서 후보생대대의 전열이 일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때를 틈탄 적의 기마대가 김포가도를 따라 돌진함으로써 김포읍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의 장갑중대와 도보중대가 김포읍으로부터 출격하여 적의 기마대를 격퇴함으로써 운유산선의 돌파를 가까스로 막아내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김포읍에서 흩어진 후보생대대 병력을 수습하고 때마침 부평의 제1병기대대의 병기고에서 추진된 M1소총으로 각개 병사의 장비를 교환하였다. 이때 분산된 일부 병력은 시흥의 본교로 복귀하였으며 제12연대와 기갑



운유산, 소미산 일대의 모습

연대에서도 부평으로 철수한 병력이 적지 않았다.

한편 25일 아침, 대구의 제3사단(유승열 대령)은 육본으로부터 제22연대(강태민 중령)의 서울 추진을 명령받게 되었다. 육본은 25, 26일 이틀 동안 전선의 전황을 분석하고 이날 10:00경 육본 <작명 제97호>에 따라 제22연대 주력은 봉일천지구의 제1사단을 증원하고 제3대대(손영을 소령)는 김포지구사를 증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날 오후 제3대대는 참모장 우병옥 중령과 함께 김포지구로 출동하였다.[177]

저녁 무렵 김포읍에 집결한 대대는 김포지구사의 명령에 따라, 운유산 동쪽의 73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그 좌측의 후보생대대와 저녁에 다시 증원된 제8연대 제3대대(박태윤 소령)와 더불어 김포읍에 대한 최후저지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양곡의 제12연대 제2대대는 잔여병력이 150명에 불과하여 김포읍으로 철수하여 재편에 들어갔다. 이날 낮에 김포읍에 집결한 기병 제7중대(김춘성 중위)는 이때 한강변의 63고지에 배치되어 제22연대 제3대대 전방에서 적의 한강으로의 우회침투에 대비하였다.

이날 부평지구의 잔류병력도 김포전선에 동원되었다. 제1공병단(윤태일 중령) 산하의 일부는 부평-김포읍 사이 계양산(395고지) 동쪽으로 추진되고, 병기학교(심언봉 대령)에서는 기간장교(교관)로써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한강변의 전호 부근에 배치하게 되었다.[178]

이에 22:00 김인태 대위가 지휘하는 장교특전대는 도보로 김포비행장을 우회하여 행주 도선장 맞은편에 강안진지를 점령하고, 강변의 모래밭에 수류탄 100여 발을 인계철선으로 연결하여 폭발장치를 설치하였다. 날이 채 밝지 않은 무렵 피아를 알 수 없는 일단의 병력이 대안에서 배로 도하하려 하였으므로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그들은 수류탄의 연쇄폭음에 도하를 중지하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김포반도에서 피아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밤을 맞이한 운유산선에서는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폭우로 변하였다. 밤 동안 더 이상 적이 공격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적이 우중이라 기

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림에서 김포읍까지는 그 도로가 평야지대를 지나야 하므로 부분적인 침투나 우회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일단 장림선에서 부대정비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79]

### 2) 김포 부근 전투

6월 28일 날이 밝자,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06 : 00 어선으로 김포반도 동쪽 한강을 역류하여 접근한 적의 일부 부대가 선상에 82㎜ 박격포를 장치하고 사격을 가하면서 63고지의 동북쪽 강안에 상륙함으로써 이날의 첫 교전의 신호가 울렸다.[180]

이에 강안을 경계하면서 진흙탕 속에서 밤을 지새운 기병 제7중대(김촌성 중위)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에 응수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역부족인데다가 적의 박격포가 집중됨에 따라 마필이 그 포성에 놀라 요동함으로써 하는 수 없이 63고지를 철수하게 되었다.[181]

63고지 일대가 적중에 들어감으로써 그 남쪽의 72고지의 제22연대 제3대대(손영을 소령)와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운유산쪽에서 적 연대규모의 병력이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08 : 00에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개활지를 횡단하여 후보생대대의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여기서 장병들은 전차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김포지구사는 08 : 00에, 전날 밤 김포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제12연대 제2대대의 잔여병력을 운유산으로 다시 추진하였다.

이 동안 적의 포화는 김포읍에 떨어지게 되어 10 : 00에 김포지구사는 공군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지휘소를 김포읍 동남쪽 2㎞의 가도상으로 철수하여 계인주 대령과 최용덕 준장 등이 장차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이날 새벽 한강인도교가 폭파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에 전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게 된 김포지구사는 적이 영등포쪽으로 도하를 한다면 퇴로를 차단 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김포반도 중부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부대를 우선 부평지구로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변한 상황에 적절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이, 전선의 상

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11 : 00 운유산진지의 중앙부인 장림－김포가도에서 2.36″로켓포의 집중을 받으면서도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결국 아군은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병력의 일부가 철수명령이 하달되기에 앞서 분산철수하고 있었다.

11 : 00 사령부의 철수명령에 따라 김포도로 서쪽지역인 운유산 일대의 진지를 지탱 중이던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 및 기갑연대 도보중대는 김포읍에서 장릉산(146고지 김포읍 남쪽 1㎞) 계양산 동측을 따라 부평으로 집결하고, 장갑차와 제8연대 제3대대 및 제22연대 제3대대의 일부는 사령부와 함께 김포비행장을 지향하여 김포가도를 따라 동남쪽으로 빠졌다. 장갑차는 비행장－영등포가도를 경계하고, 보병 일부는 굴포천을 건너 개화산에 저지진지를 다시 마련하였다. 따라서 12 : 00를 전후하여 적의 선견대가 마침내 김포읍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13 : 00에 공군의 경비사령부는 비행장을 비우고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14 : 00에 지휘소를 비행장으로 옮기고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개화산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휘소 이전이 거듭되는 와중에서 사령관 계인주 대령이 실종되고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지휘를 맡게 되었다.[182]

28일 늦은 오후부터는 문산 지구의 제1사단병력이 행주와 아산포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일부는 영등포를 경유하여 시흥으로 향하고, 일부는 비행장으로 모여들게 되어, 사령부는 이들 철수병력의 수습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김포읍을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부대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적은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을 시작한 지 불과 30시간 내에 김포읍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183] 그러나 이날 육군본부는 노량진－영등포에 방어의 중점을 둔 나머지 김포쪽에 대하여서는 손쓸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었다.[184]

날이 저물자 적의 일부가 다시 비행장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사령관 대리 최복수 중령은 혼신을 다하여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희생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그는 혼성병력으로는 조직적인 방어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

시 비행장으로부터 경인가도상의 소사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몰 무렵 비행장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흥과 한강 인도교까지는 14㎞ 이내의 거리였다. 그러므로 한강 방어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적의 진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저녁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소사읍사무소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어 수용병력에 대한 급식을 서두르는 한편, 각 부대별로 밤을 새워 대오를 수습하였다. 그리고는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및 부평경찰대(김억순 경감)로써 계양산 동쪽 능선에 배치하여 김포-부평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22연대와 제12연대 병력으로써 비행장 남쪽 구릉지대의 107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적의 소사로의 남진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8연대 제3대대는 비행장에서 영등포쪽으로 이동하였다.[185]

북한군 제6사단은 이날(28일) 김포읍의 장악에 이어, 주력은 지원부대의 후속을 기다리면서 정찰대를 비행장과 계양산 쪽으로 내보내어 아군의 동정을 탐색하려 하였다. 이들은 야간에 비행장을 확보하고 계양산쪽의 아군 저지선을 정찰하려 했다. 적은 자정 무렵 계양산쪽에서 간간히 정찰대를 투입하였으며 날이 밝자 비행장쪽으로 공격방향을 바꾸었다.

따라서 적은 소사 방면으로 기동하여 부평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영등포로부터 한강선 서측방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적이 행주대안의 한강변에서 아군의 도하를 방해하는 조치를 일찍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김포의 북한군 제6사단은 제1군단사령부와 연락이 원활치 않아 독자적인 상황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날(28일) 밤까지도 그들은 국군 제1사단의 도하철수를 알지 못하였다.[186]

이날 밤 김포지구사가 사령관이 실종된 가운데 소사로 집결하자, 시흥지구사는 현지의 제3사단 참모장 우병옥 중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비행장 탈환명령은 비행장이 요지였을 뿐 아니라 행주에서 도하철수중인 제1사단의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신임 사령관 우병옥 중령은 모든 병력을 소사에 집결시켜 전열을 가다듬었다.

제22연대 제3대대(손영을 소령)와 기갑연대의 도보대대(강문헌 대위)만이 비교적 건재할 뿐, 대대장이 전사하여 부대대장 김광순 소령이 지휘하게 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1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며 한순화 소령이 통합 지휘중인 제12연대 제2, 제3 양 대대도 150명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기갑연대의 장갑중대(박도경 대위)는 일부가 영등포쪽으로 전환되어 2개 소대도 채 되지 않았으며 기병중대는 마량의 수급이 해결되지 않아 안양의 본대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용병력으로써 다음날 여명을 기해 비행장 탈환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187]

29일 여명 김포전투사령부는 예정대로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06:00 참모장 최복수 중령은 각개 장병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소사-김포가도를 따라 북진하여 공격개시선에 부대를 전개하였다. 이날 최중령은 진두에 서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장비와 병력의 열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이날로부터 7월 3일까지 소사-영등포 부근에서 적과 수차례에 걸쳐 일대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 4.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먼저 강화-김포지역에 대한 방어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육본이 한강이라는 천연적인 장애물을 과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 전 육본은 적의 기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적의 도하공격 가능성에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남침당시 김포비행장으로부터 서북 30㎞, 위도 상으로 의정부-봉일천 선에 연하는 김포반도 북단지역에는 단 한 명의 경계 병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방어 공백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

군이 강화, 김포를 경유, 영등포로 진출하여 한강교를 먼저 장악했을 경우, 한강 이북의 모든 국군 부대가 병참선과 퇴로를 잃게 됨은 물론이었다.

이 곳의 방어책임은 사후에 육군본부가 김포지구전투사령부를 급편 투입한 것을 비추어 보면 육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1사단은 방어계획을 입안할 때 유사시 연백-개성지구를 포기하고 임진강선에 방어의 중점을 두는 것을 육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나, 육본은 전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 2) 전장기능별

#### (1) 지휘통제

김포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이 지역의 급편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한 육본의 조치는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 육본의 조처로 예기치 않은 적의 측면 침공을 지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부대는 건제가 무시된 급편부대였으나 한강과 운유산 일대의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김포지구전투사의 예하 병력들은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방어전투를 수행, 적의 진출을 지연하였던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시에 김포에 상륙한 북한군 제6사단은 강화, 김포지역의 한강을 도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였고 때마침 육본의 조치로 투입된 김포지구사의 방어작전으로 인해 계획된 시간 안에 영등포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김포지구전투사 모든 예하 부대들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생소한 지역에 투입된 데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간의 횡적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령부의 종적인 지휘계통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 (2) 정 보

육군본부와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정면의 적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정에 관해 첩보수집이나 정찰을 운용하지 못하였으며 대규모 적의 도하

징후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점검이나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역 내 북한군이 배치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면의 적이 어떤 부대이며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들은 전투시 아군 인접부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투를 수행하였다.

### (3) 기 동

김포지구전투사령부의 예하병력들은 모두가 자체 경계능력 조차도 없는 교육기관이거나 지원부대였으므로 이들 부대로써 조직적인 지역방어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이 부대들은 김포비행장과 부평지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김포지구 전투에서 지적되어야 할 용병상의 문제점은 혼성병력의 운용이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대의 건제와 병과를 무시한 혼성병력으로서는 소기의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전투의 승패란 병력의 다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개 병사의 결전의지를 그 지휘관이 여하히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후방에서 증원된 부대를 재편성도 하지 않고 부대건제를 무시한 채 도착하는 대로 대대단위 또는 그 이하단위로 편성, 마구 전선에 밀어 넣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휘 및 통신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목표와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부대들이 무작정 북쪽으로 투입하였으니 이들의 전투력 발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4) 화력운용

대전차 방비책이 미비하였다. 김포방면에서는 다른 전선에서보다 적 전차에 대해 더욱 무력하였다. 방어선을 편성할 때 대전차호를 구축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전차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였으며, 대전차특공대와 같은 적 전차 파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김포지구사령부 예하부대들은 김포, 서울 부근에 있던 교육기관이나 지원부대들을 혼합 편성한 부대였으므로

거의 대부분 자체 경계능력 조차 없는 부대였다. 남산학교, 보국대대, 공병학교, 경리학교, 병기대대, 공병단 등의 기간병력들을 중심으로 급편 하였으므로 이렇다할 화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물론이고 효과적인 전투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 (5) 방 호

각 대대 및 중대는 적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관측소가 파괴되는 동시에 유무선 기재가 파손되어 순식간에 지휘기능을 상실하였고 연대와는 유무선이 단절되었던 까닭에 상황보고나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조기에 두절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단일 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지원부대에서 지원부대를 엄호 및 경계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철수시에도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 (6) 전투근무지원

실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에서는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수송차량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때 보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정면의 적 1개 사단의 공격을 맞이하여 그 어느 부대보다도 탄약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었으나, 육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방에서 증원되는 부대는 예비탄약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증원부대는 폭약은 고사하고 중화기 실탄이나 수류탄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 제 6 절 분석 및 평가

##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서부지역 작전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공격이 개시된 직후부터 철수하는 28일 야간까지 서부전선에서의 방어작전이었다. 이 전투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던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고 미 지상군을 한국전선에 파병하기까지, 북한군 주력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강선 이북에서 거의 육탄으로 싸우다시피 한 혈전이었다.

서부전선에서 아군은 국군 제17연대가 적을 저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해상 철수하였으며, 국군 제1사단이 1개 전차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1,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임진강을 연한 주저항선과 봉일천 일대의 최후저항선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그 결과 중과부적으로 국군은 수도권 일원에서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조기에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초전부터 연이은 패배로 전의를 잃어 가든 국군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임강강 방어선에서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효과적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고 적이 도하한 후에도 문산 일대에서 부대정비를 하지 않으면 작전을 속개할 수 없을 정도로 출혈을 강요하였다. 사단은 열세한 전력으로 적을 4일간 한강 북쪽에서 지연시킴으로써 그들의 작전기도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남하속도를 격감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육본의 시의 적절한 조처로 예기치 않은 적의 측면 침공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 부대는 건제가 무시된 급편부대였으나 한강과 운

유산 일대의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전쟁초기에 국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육군본부의 작전지도 실패와 부적절한 제 조치를 꼽을 수 있다. 6·25를 전후하여 우리 군 수뇌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자초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밖에도 방어종심 증가를 위한 지연진지, 대전차 격멸지대, 장애물 지대, 야전축성 등 방어작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전방 4개 사단의 지휘관이 재량으로 예비진지를 준비한 것이 개전 초기전투에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한국군의 초기작전 실패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절대적인 전투력 열세가 결정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 전투력 열세는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의 효과적인 운용 등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피아의 현저한 전투력 격차는 그 어떤 요소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영역이었다. 개전 당일 오전 중 대부분의 38선 진지가 돌파되고 3일만에 서울을 포기하기까지 국군의 필사적인 저지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무엇보다도 병력, 장비, 훈련 및 전투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전투력이 현저히 열세했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현대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장비인 전차와 전투기 및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적 전차와 항공기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으로서의 대전차지뢰 운용 미숙, 고사포를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부지역작전을 담당하였던 옹진반도의 국군 제17연대, 개성-문산지구의 국군 제1사단, 김포지구의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강력한 적의 공격을 맞이하여 효과적으로 적을 방어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초기전투에서 아군은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도 제17연대가 옹진북쪽으로 역습을 실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국군 제1사단이 문산 북쪽과 봉일천 방어선에서 각각 역습을 실시하여 적에게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였다. 이

때 국군 장병들의 감투정신과 희생적인 전투행동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 2) 전투준비태세

국방상 수도의 안위문제는 곧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된다. 당시 육군본부는 38도선의 경비와 더불어 유사시에 대비한 수도서울의 대비책을 강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적의 남침징후를 판단하면서도 고작 38도선 경비에 집중하고 후방병력의 전방추진이나 수도권 방위를 위한 외곽경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적침 3일만에 수도서울이 함락되는 역사상의 치욕을 안게 되었다.

옹진 지역의 국군 제17연대는 전쟁직전 진지공사에 주력하고 또 지역 내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유사시 군 작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적의 전면남침시 경계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적의 전면침공에 대비한 세부적인 철수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철수작전시 많은 혼란을 유발하였다.

개성－문산 지역의 국군 제1사단은 연안－개성－문산 일대의 94㎞의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38도선 방어지대 전역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진강변을 연해 하천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승인 받음으로써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전쟁이전에 학생과 청장년을 동원하여 주저항선상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준비를 갖추고 또 인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예비 제11연대를 수색으로 이동시킨 조치는 탁월한 사전대비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문산 돌출부－파평산 주저항선을 돌파하는데 큰 출혈을 강요했고 또 남침 즉시 사단은 예비대를 주저항선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유사시에 대비한 강화, 김포지역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강화－김포 지역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방이 차단될 위기를 자처하였다. 북한군이 강화, 김포를 경유, 영등포로 진출하여 한강교를 먼저 장악했을 경우, 한강이북의 국군의 모든 부대가 병참선과 퇴로를

잃게 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옹진 지역에 대해 육군본부는 북한이 전면침공을 감행할 때에는 부대를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개 연대만을 배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7연대는 5개 사단의 정상방어정면에 해당하는 60㎞ 이상의 광정면을 할당받아 소수의 병력을 요점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취약성이 가중되었다. 이 지역을 1개 연대만으로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은 임무의 과중일 뿐더러 적을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대장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습을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전과를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사단장은 적의 주공방향을 문산-봉일천-서울 축선 방면으로 예측하고 제1사단 방어계획을 3선 개념에 의한 방어지대로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파평산과 임진강이라는 방어에 유리한 천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봉일천 일대의 최후저항선에서도 지형을 이용하여 최대한 적을 저지하였다. 사단장은 반격작전까지 수행하면서 적을 저지하였고 또 한강선방어를 위하여 병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아래 병력을 시흥지구로 철수시켰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육본의 시의 적절한 조처로 예기치 않은 적의 측면 침공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 부대는 건제가 무시된 급편부대였으나 한강과 운유산 일대의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 2) 정 보

제17연대는 수 주간에 걸친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옹진 전역에 직접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하였으며 부대철수계획 등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대는 적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군 제1사단도 적의 전면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사단 지역 내 북한군 2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연대 등 대규모의 공격부대가 배치되는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면의 적이 어떤 부대이며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단은 주저항선과 최후저항선에서의 방어작전시 아군 인접부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육본은 강화, 김포지구로 접근하는 적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정에 관해 첩보수집이나 정찰을 운용하지 못하였으며 대규모 적의 도하징후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점검이나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김포지구사는 적이 어떤 부대이며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고 또 인접부대 아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 3) 기 동

유사시 옹진 주둔부대를 철수시킨다는 것이 육군본부 계획이었다. 철수작전은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관계 부대간(군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부대에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제17연대는 철수자체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철수계획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구상내용도 단지 부포를 통하여 철수한다는 정도였다. 연대주력이 부포로 철수를 시도하였으나 적이 중간지점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는 사곶으로 철수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병력의 분할사용 문제이다. 병력의 집중운용은 어떠한 작전에서도 한 부대의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우세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쟁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군 제1사단은 당일 사단에 배속된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로 혼합 편성된 서울특별연대를 도착 즉시 양분하여 좌우일선 연대에 분할 배속시켜 동 연대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우일선 연대지역에 지원된 육사교도대가 파평산 동측방에서 방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채 분산 철수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교훈으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지구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육군본부는 후방에서 증원된 부대를 재편성도 하지 않고 부대건제를 무시한 채 도착하는 대로 대대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편성 마구 전선에 밀어 넣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휘 및 통신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목표와 임무도 받지 못한 부대들이 무작정 북쪽으로 투입되었으니 이들의 전투력 발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교량폭파 문제이다. 사단 공병대는 남침 당일 야간, 임진교를 완파하는데 실패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한강 등 도하작전시 주로 나룻배나 뗏목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다른 도하장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임진강 교량의 폭파 문제는 작전상 상당히 긴요한 문제였다. 당시 폭파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미 고문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협조와 기술 지도를 받게 되었으나 당시의 사단공병으로서는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당시 제원산출에서나 혹은 폭약의 장전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또한 교량폭파에 대한 사전 계획 준비가 미비하였고 적절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었다.

### 4) 화 력

제17연대에서는 전쟁직전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포대를 추진 배치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포대는 효과적인 포병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탄약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철수시에도 포병부대를 먼저 철수시켜 전방에서 이동하는 보병부대의 철수를 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병과 같이 철수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연대는 대전차포 중대가 강령입구에서 적 자주포 3대와 장갑차 2대를 파괴함으로써 옹진전투 이래 처음으로 자주포 파괴의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반면 철수작전시 장비의 유기문제도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제1사단장은 개성에 위치한 제6포병대대를 새로운 방어개념에 따라 대대본부와 함께 2개 포대를 수색의 사단사령부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그 예하 제3포대는 계속 문산에서 제13연대 지역에 있는 105㎜ 탄약고 관리와 적 침공시 동 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의 결과 포병 주력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임진강 주저항선에서 효과적으로 화력지원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단은 특공대가 81㎜ 박격포와 수류탄을 활용하여 적 전차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3연대 제1대대는 적 전차가 접근하자 대전차특공대를 편성하여 2.36″로켓포와 81㎜ 박격포탄 및 수류탄 등으로 적 전차 5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는 수훈을 세웠다.

한편 철수와 같은 혼란 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비의 유기문제도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사단은 이산포와 행주나루를 통해 도하철수하는 과정에서 도하장비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중화기를 땅에 묻거나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김포 방면에서는 대전차 방비책이 미비하였다. 방어선을 편성할 때 대전차호를 구축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전차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였으며, 대전차특공대와 같은 적 전차 파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5) 방 호

각 대대 및 중대의 경계진지는 적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관측소가 파괴되는 동

시에 유무선 기재가 파손되어 순식간에 지휘기능을 상실하였고 연대와는 유무선이 단절되었던 까닭에 상황보고나 구원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조기에 두절이 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간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고, 단일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지원부대에서 지원부대를 엄호 및 경계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철수시에도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 6) 전투근무지원

실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대에서는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수송차량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적시적인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포지구사는 정면의 적 1개 사단의 공격을 맞이하여 그 어느 부대보다도 탄약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었으나, 육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방에서 증원되는 부대는 예비탄약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제17연대는 군청, 지방의료원, 청년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부상병 응급처치와 후송, 보급추진, 그리고 피난민통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철수계획 미비로 인해 병력수송 및 보급, 그리고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철수작전시 의무대는 적에 의해 양원이 차단된 관계로 상당부분 구출하지 못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전쟁이전 학생과 청장년의 도움을 받아 주저항선상의 교통호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경계진지 전투시 적을 저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반면 전투수행시 실탄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사단공병의 교량폭파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 주 (註)

1) 전쟁 직후 제1경비여단은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제3경비여단은 북한군 제9사단(사단장 박효삼), 제7경비여단은 북한군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으로 증편하여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전선으로 투입하게 된다.
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 국방부, 2001), pp. 139-150.
3) 위의 자료, pp. 282-283.
4) [US]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Issue 4(NK 105th Armored Division), p. 35 ;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22쪽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pp. 172-175.
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39-140.
6) 위의 자료, pp. 139-142.
7) 위의 자료, p. 146, p. 167.
8) 위의 자료, pp. 146-151.
9) 위의 자료, p. 167 요도 참조.
10) 위의 자료, pp. 151-153.
11) 위의 자료, pp. 151-153.
12) 위의 자료, p. 167 요도참조.
13) 위의 자료, p. 167.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 226.
15) 위의 책, p. 225.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한 괴뢰군의 남침』 2, p. 58.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pp. 226-228.
18) 위의 자료, p. 226.
19) 위의 책, pp. 152-153.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한 괴뢰군의 남침』 2, p. 58.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 p. 394.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54.
23) 개성-문산-고량포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제1보병사단은 1950년 4월 12일을 기하여 인천에 주둔한 제12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38도선 지역을 인수시킴과 동시에 개성에 위치한 제11연대를 사단사령부가 있는 수색으로 이동시켜 사단 예비로 조치하였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 pp. 393-394.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394.
25) 위의 자료, p. 396.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p. 2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p. 119-120.
27)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 pp. 62-64;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39-145.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61.

29)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 증언록, 제1대대 작전주임 안동엽 대위 증언록.
30)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21
3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p. 110-111.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37.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72.
34) 제17연대 교육관 김희제 중위 증언록.
35) 제17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제2소대장 빈구현 중위 증언록.
36) 제1대대 제2중대 제3소대장 윤종한 중위 증언록.
37) 제4중대 박격포 소대장 이홍근 중위 증언록.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30-233.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68-469.
4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4-145.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34.
42) 위의 책, p. 234.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75-476.
4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 119.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36-237.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70-471.
47)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4-145.
4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 119.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47-251.
50) 제3대대 11중대 선임하사 오태구 상사 증언록.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82-484.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50-251.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89-490.
54)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 증언록.
5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2-143.
5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 120.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54-256.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89-490.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56.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90.
61) 위의 책, p. 4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56.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 3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pp. 146-148.
63) 6·25당시에는 적성 면사무소가 위치한 구읍리가 적성면의 중심지였으나, 전쟁기간 중 구읍리는 폐허화되고 전후에 다시 복구되면서 그 남서쪽 1㎞ 지점의 마지리가 적성면의 중심지가 되었다.
64)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51-153.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393.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39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152.

67)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 증언록.
68)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58.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13.
7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3-144.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14.
7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43.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15.
74) 위의 책, pp. 415-416.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57-159.
76)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43.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09-411.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159.
79) 위의 책, pp. 160-161.
80) 위의 책, p. 161.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69-170.
83)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59.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399-400.
8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59-160.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71-173.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30.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75-177.
89) 위의 책, pp. 187-189.
90)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 증언록.
91) 육군본부에서는 뒤늦게 <작전명령> 제86호(25.16 : 30부)로 제1사단 배속을 명령하였다.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32.
93)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2. 적측 자료에 의하면 당시 임진교 폭파로 인하여 상당시간 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27일 공군에서는 T-6 연습기에 국산 15kg 폭탄을 싣고 출격하여 교량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목측으로 투하하는 방법이라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94) 공병대대 작전과장 정극서 대위 증언록.
9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29.
97)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2.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188.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2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75-176.
100)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 작전명령 제1호(1950. 6. 25, 구두명령).
101)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2.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77-178.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6-438.
104)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62-163.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93-195.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8-439.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94-195.
1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4-435.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99-200.
11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3.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4-435.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199-200.
113) 제13연대 제1대대장 김진휘 소령 증언록.
114)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62-163.
1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4-435.
116)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3.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00-201.
118) 위의 책, pp. 199-200.
119)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2.
1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00.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46-447.
122) 위의 책, p. 429.
123)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권, pp. 162-163.
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198.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40.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02-203.
1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42-443.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03.
129) 위의 책, p. 205.
13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4.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33-444.
13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3.
1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05-208.
134) 위의 책, p. 208.
1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40-442.
136) 위의 책, pp. 446-447.
137)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62-163.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12.
139)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64.
1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12-213.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47-449.
142) 위의 책, p. 448.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13-214.
144) 위의 책, p. 217.
1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51.
146)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 증언록.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20.
148)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62-164.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17-220.
1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51-454.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18-220.
15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63-164.
1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452-454.
1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454-455.
15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 국방부, 2001), pp. 148-149.
1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 66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pp. 257-258.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64-665.
158)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48.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66-667.
1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60-262.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67-668.
1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58-260.
163) 위의 책, p. 261.
164) 위의 책, pp. 261-262.
1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70 ; 위의 책,, p. 261.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62.
167) 위의 책, p. 261.
1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65.
169)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8-149.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64-265.
171)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49.
1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73-674.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66-267.
1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74-675.
17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9-150.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67-269.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75-676.
1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병기학교 기간요원은 개전과 동시에 제1병기대대(김창배 소령)의 탄약창고중대와 함께 의정부전선에 대한 탄약수송에 임하다가 이날 아침에 교관 60명으로써 장교특전대(김인태 대위)를 편성하여 교내에 대기하던 중, 오후에 적이 김포반도의 서북단을 석권하였다는 정보와 더불어 20 : 00에 육본으로부터 '김포비행장 북쪽의 한강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1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70-271.
18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49-150.
1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77-678.
182) 당시 육군특무부대(김창용 중령)가 1951년 11월에 육군 총참모장(이종찬 중장)에게 제출한 「계

인주건 경위 조사서」에 의하면 그는 「1950. 6. 28 야간열차 편으로 가족과 함께 대구에 도착하였다가, 동월 30일 정오에 대구역 구내에서 대구헌병대(김홍걸 중령)가 대구지구특무대(정인택 중령)의 협력 하에 동헌병대에 구인 중, 미 헌병장교의 요청으로 신병을 인계한 이후 행적불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1950년 10월 21일에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또 그 1년 뒤인 1951년 11월 15일에는 다시 복직되어 미 극동사령부 정보처에 파견 근무 중인 1953년 3월 20일에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183)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50-151.
1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p. 272-273.
1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78.
186)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50.
1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p. 275.



# 제 4 장　중서부지역 작전


| | |
|---|---|
| 제 1 절 | 작전 개요 |
| 제 2 절 | 북한군과 국군 상황 |
| 제 3 절 | 연천－동두천－의정부 전투 |
| 제 4 절 | 운천－포천－의정부 전투 |
| 제 5 절 | 백석천－내촌 전투 |
| 제 6 절 | 분석 및 평가 |

# 제1절 작전 개요

중서부지역 작전은 서울 북쪽인 동두천－포천 축선에서 국군 제7사단과 북한군 제3·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의 3일간에 걸친 공방전을 말한다. 국군 제7사단은 서울의 관문(關門)인 동두천－의정부－서울 축선과 포천－의정부－서울 축선에서 북한군 주공군단인 제1군단의 제3·제4보병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과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투를 벌였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서울 북쪽의 의정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제2사단(-), 그리고 기타 증원부대(포병학교 교도대대 등)를 이 지역에 증원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개전 2일 만에 의정부가 함락되고 이후 전투는 서울 최후저항선인 창동과 미아리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중서부지역은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그리고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전쟁 당시 391번 도로)가 서울을 향해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도로 사이에는 종적으로 발달된 천보산맥(天寶山脈)과 광주산맥(廣州山脈)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입장에 있는 국군 제7사단에게는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와 종심배치가 불리한 반면, 공격하는 북한군 제1군단 입장에서는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국군의 종심지역 공격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1)]

전쟁 당시 중서부지역을 담당했던 국군은 유재흥(劉載興)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7사단이었다. 사단은 제1연대를 동두천 방향에, 제9연대를 포천 방향에 배치하였다. 사단 예비연대인 제3연대는 6월 15일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수도경비사령부로 전환되고, 대신 충남 온양에 위치한 제2사단 소속의 제25연대가 사단으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주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쟁 당일 충남 온양에 있었던 관계로 제25연대는 사단 예비연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2)] 그



6·25전쟁 당시 의정부 전경(1950년)

결과 서울의 관문을 방어하고 있던 제7사단은 개전 초기 2개 보병연대로 북한군의 2개 정규 보병사단 및 1개 전차여단(-)과 처음부터 전투력이 열세한 상태에서 불리한 전투를 하게 되었다.[3)]

반면 북한군은 총참모부의 남침계획 제1단계 작전목표인 2일차에 서울 점령, 국군주력의 격멸, 그리고 한강교를 조기 점령하고자 최정예부대인 제1군단의 주력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하였다. 최초 서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던 북한군 제1군단은 동두천 축선에 제4사단과 1개 전차대대, 포천 축선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을 투입하고, 제2제대로 제13·제15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최초부터 국군보다 병력면에서는 7배, 화력면에서는 18배나 우세한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였다.[4)]

중서부지역에서의 작전은 작전경과 측면에서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최초 38도선 경계진지 전초전으로부터 주저항선 전투가 전개되는 개전 당일 상황으로 3번 도로상의 동두천(東豆川)과 43번 도로상의 포천(抱川)이 적의 수

중에 함락된 시기이다. 제2단계는 북한군의 제3사단과 제4사단이 동두천과 포천을 점령한 후 의정부 북쪽 3~4㎞에 설정된 1일차 진출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수도 서울 방어에 위협을 느낀 채병덕(蔡秉德) 육군총참모장이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와 제2사단(-)을 의정부 축선과 포천 축선에 투입하여 동두천과 포천 탈환을 목적으로 역습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제7사단은 동두천을 일시적으로 탈환하였으나, 포천 축선의 제2사단(-)이 역습에 실패한데 이어 의정부가 적에게 점령당한 26일 상황이다. 또한 47번 도로(전쟁당시 391번)상의 내리(퇴계원 북쪽 16㎞)에 긴급 배치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와 서울시 전투경찰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태릉 방향으로 후퇴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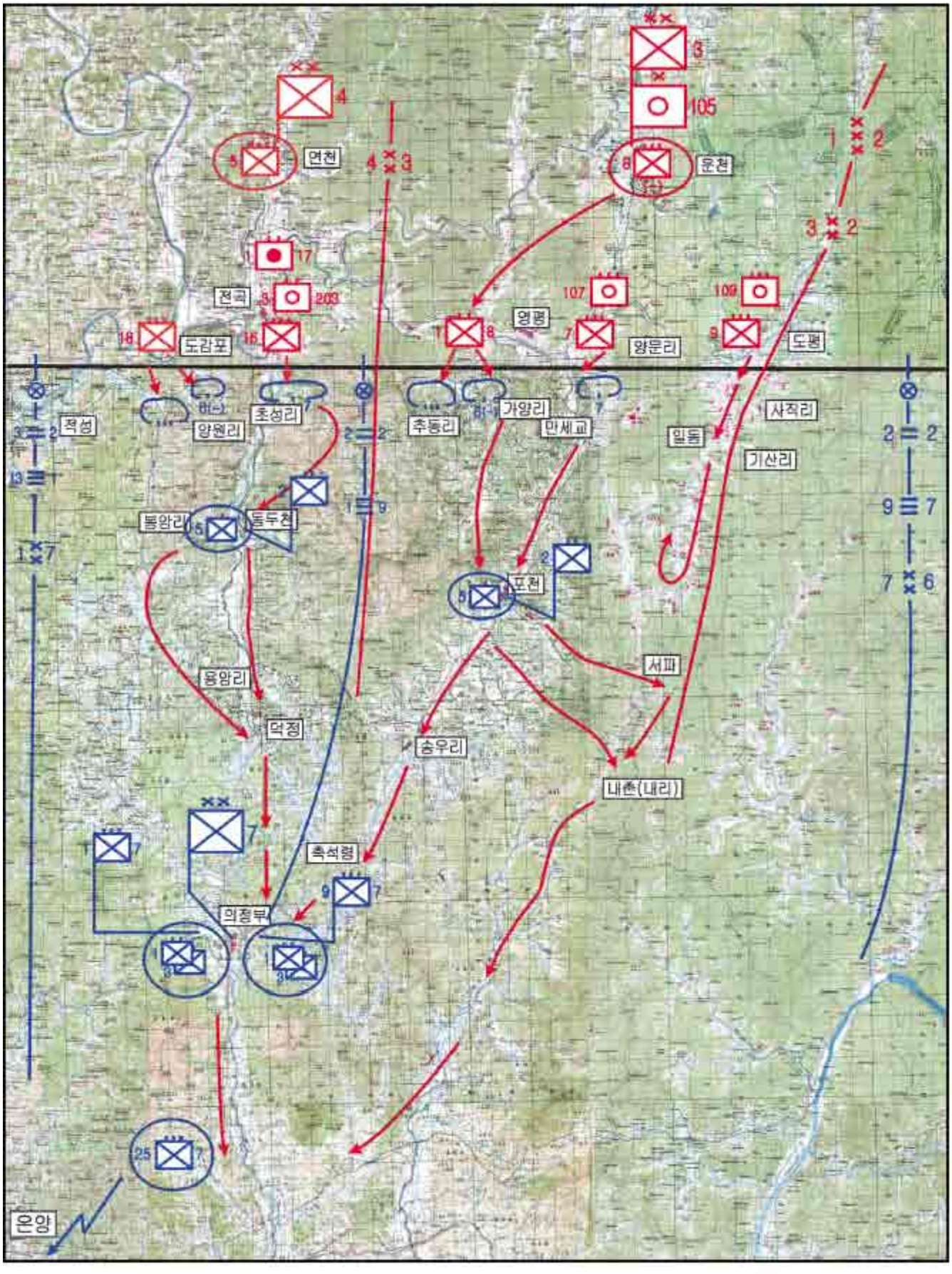
제3단계는 26일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적에게 피탈되면서 이 지역에 투입된 국군 제2·제7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부대 및 지원부대(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기갑연대 장갑소대)들이 수도 서울의 최후 방어선인 미아리-태릉 지역에 급편방어진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이와 같이 국군 제7사단과 북한군 제2군단의 주력이 맞붙은 동두천-포천 일대를 연하는 중서부지역 작전은 북한군 제1군단의 막강한 화력과 전차부대의

<표 4-1> 중서부지역 작전 전개(6. 25~27)

| 구 분 | 작전 상황 | 전투 결과 | 피아 교전부대 | |
|---|---|---|---|---|
| | | | 국 군 | 북한군 |
| 제1단계 | • 경계진지 전초전으로부터 주저항선 전투 | • 동두천/포천 실함 | • 제7사단 | • 제3·제4사단<br>• 제105전차여단<br>– 제107전차연대<br>– 제109전차연대<br>– 제203전차연대 3대대<br>• 제17군단포병<br>– 제2·제3대대 |
| 제2단계 | • 적 1일차 진출목표 달성<br>• 국군 의정부/포천 반격 | • 동두천 일시 탈환<br>• 의정부 실함 | • 제7사단<br>• 수경사 제3연대<br>• 제2사단(-)<br>• 생도대대/경찰대대<br>• 포병학교 교도대대 | |
| 제3단계 | • 의정부 실함 후 아군 철수<br>• 백석천-창동 철수 상황 | • 급편방어진지 편성 | | |

<상황도 4-1> 중서부지역 작전



집중 공격을 받고 개전 2일째인 6월 26일 서울 북쪽 18㎞에 위치한 의정부가 함락됨에 따라 국군의 전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먼저 이 지역에 배치되었던 국군 부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창동 일대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또한 작전지역내에 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도 적의 진출선 후방에 놓이게 됨으로써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7사단의 좌측에서 북한군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봉일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가 의정부의 함락으로 동측방이 위협을 받게 되자 화포 및 중화기를 유기한 채 한강 이남으로 분산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7사단의 동측인 중동부 지역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던 춘천－인제 축선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과 동해안 축선의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육군본부의 사전 조치로 인해 무기 및 장비를 그대로 보유한 채 전술적 후퇴를 하게 됨으로써 지연작전시 서부전선의 미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전투편성

국군 제7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포천 지역 정면에서 공격하는 북한군은 2개 보병사단과 2개 전차연대(＋) 및 2개 군단 포병대대였다. 즉,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4보병사단(적성－3번 도로 좌측)과 제3보병사단(제4보병사단 좌측 지역－사직리),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 예하의 제107전차연대・제109전차연대・제203전차연대 제3대대, 그리고 군단포병인 제17포병연대의 제1포병대대와 제3포병대대가 있었다.[5]

북한군 제4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5・제16・제18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보병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북한군 제3사단도 보병사단 편제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7・제8・제9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고, 보병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고속기동부대로 운용되는 제105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 중 제203전차연대(-1)가 제1보병사단에서 운용되고, 제203전차연대의 제2대대가 제4사단 지역에서, 제107・제109전차연대가 제3보병사단의 포천－일동 지역에서 군단장 통제하에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6]

<표 4-2>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전투편성[7]

| | 구 분 | 주요 부대 | 비 고 |
|---|---|---|---|
| 제1제대 | 제3사단 | 제7·8·9보병연대, 포병연대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br>• 포병연대는 76㎜(2개 대대), 122㎜(1개 대대)로 편성 |
| | 제4사단 | 제5·16·18보병연대, 포병연대 | |
| 제2제대 | 제13사단 | 제19·21·23보병연대, 포병연대 | |
| | 제15사단 | 제45·49·50보병연대, 포병연대 | |
| 고속기동부대 | 제105 전차여단(-) | 동두천 축선: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br>포 천 축선: 제107·제109전차연대 | • 전차연대는 3개 대대<br>• 전차대대는 3개 중대<br>• 전차중대는 전차 4대로 편성<br>* 대대(13대), 연대(40대) |
| 군단포병 | 제17포병연대 | 동두천 축선: 제1포병대대<br>포천 축선: 제3포병대대 | • 122㎜ 평사포대대/곡사포대대로 편성 |

<표 4-3>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포병화력[8]

| 부 대 | | 계 | 122㎜ 견인포 | | 76㎜ 곡사포 | | 45㎜ 대전차포 | 박격포 | |
|---|---|---|---|---|---|---|---|---|---|
| | | | 평사포 | 곡사포 | 자주포 | 견인포 | | 120㎜ | 82㎜ |
| 계 | | 658 | 16 | 56 | 64 | 156 | 132 | 72 | 162 |
| 제3사단포병 | | 211 | - | 12 | 16 | 36 | 48 | 18 | 81 |
| 제4사단포병 | | 211 | - | 12 | 16 | 36 | 48 | 18 | 81 |
| 제105전차여단 | | 24 | - | | - | 12 | 12 | - | - |
| 제17포병연대 | | 24 | 16 | 8 | - | - | - | - | - |
| 제2제대 | 제13사단포병 | 94 | - | 12 | 16 | 36 | 12 | 18 | - |
| | 제15사단포병 | 94 | - | 12 | 16 | 36 | 12 | 18 | - |

또한 군단포병인 제17포병연대(3개 포병대대)의 2개 포병대대가 동두천 축선 및 포천 축선에 배치되어 제4사단(제1포병대대 지원)과 제3사단(제3포병대대 지원)을 직접지원 하도록 하였다. 제17포병연대는 122㎜ 평사포(12문)와 122㎜ 곡사포(24문)로 편제되었다.[9]

따라서 국군 제7사단 방어정면의 북한군 전력은 완전편성의 2개 보병사단, 2개 전차연대 및 1개 전차대대(전차 93대 보유), 그리고 군단·사단·연대포병 등 막강한 포병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4사단 포병화력으로는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48문 등 112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3사단 포병화력도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48문 등 11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단포병인 제17포병연대 122㎜ 평사포 16문과 122㎜ 곡사포 8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105전차여단은 76㎜ 견인포 12문과 45㎜ 대전차포 1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10]

또한 제2제대로 편성된 제13·제15보병사단의 포병화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되어 있었다. 제13사단과 제15포병사단은 각각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1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11]

<표 4-4> 동두천-포천 축선 북한군 지휘관 현황[12]

| 구 분 | | 계급 | 이름 | 비고 |
|---|---|---|---|---|
| 제1군단 | 군 단 장 | 중장 | 김 웅 | 조선의용군 출신 |
| | 부군단장 | 소장 | 김재욱 | |
| | 참 모 장 | 소장 | 유 신 | |
| 제3사단 | 사 단 장 | 소장 | 이영호 | 제88여단 출신 |
| | 제7연대장 | 대좌 | 김창봉 | |
| | 제8연대장 | 중좌 | 김병종 | |
| | 제9연대장 | 대좌 | 김만익 | |
| | 포병연대장 | 대좌 | 안백성 | |
| 제4사단 | 사 단 장 | 소장 | 이권무 | |
| | 제5연대장 | 대좌 | 최인덕 | |
| | 제16연대장 | 대좌 | 박승희 | |
| | 제18연대장 | 대좌 | 장교덕 | 평택전투에서 전사 |
| | 포병연대장 | ? | ? | |
| 제105 전차여단 | 여 단 장 | 소장 | 유경수 | 제88특별여단 |
| | 제107연대장 | 대좌 | 최우식 | • 소련거주 한인 2세<br>• 전차병으로 독소전쟁 참전 경험자 |
| | 제109연대장 | 대좌 | 김태련 | |
| | 제203연대장 | 대좌 | 최율석 | |

북한군 주공이 지향하고 있는 동두천-포천 축선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는 제1군단장 김웅 중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김재욱(金在郁) 소장, 참모장 유신(柳新) 소장이 있었다. 제3사단에는 사단장 이영호 소장을 비롯하여 제7연대장 김창봉 대좌, 제8연대장 김병종 중좌, 제9연대장 김만익 대좌, 포병연대장 안백성 대좌가 있었다. 제4사단에는 사단장 이권무 소장을 비롯하여 제5연대장 최인덕 대좌, 제16연대장 박승희 대좌, 제18연대장 장교덕 대좌가 있었다. 제105전차여단에는 여단장 유경수 소장을 비롯하여 제107전차연대장 최우식 대좌, 제109전차연대장 김태련 대좌, 제203전차연대장 최율석 대좌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 2) 공격준비태세

### (1) 제4사단 (연천-동두천-의정부 방면)

북한군은 1950년 6월 22일 총참모부의 전투명령 제1호에 의해 6월 23일까지 전개를 완료하라는 지시에 따라 38선 일대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7보병사단의 정면을 담당한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진남포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6월 21일에 돌고개(신망리 서남쪽 8㎞, 석현), 선곡리(신망리 서남쪽 6㎞), 신망리 지역에 집결하였다.[13]

제4사단은 신망리, 의정부, 서울 북부지역 축선으로 주공을 투입하여 관동(문산 동북쪽 20㎞), 고문리(신망리 동남쪽 8㎞) 지역을 공격하고 제1·제3보병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14] 이를 위해 제4사단은 신망리에서 의정부 방면으로의 공격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사단이 총참모부로부터 부여받은 최근임무는 마지리(문산 동북쪽 15㎞)-객현리(마지리 북동쪽 4㎞)-장현리(초성리 서쪽 9㎞)-초성리(신망리 남쪽 17㎞)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후 제4사단은 계속 공격을 확대하여 오현리(의정부 서북쪽 16㎞)-하패리(의정부 북쪽 15㎞)선까지 진출하며, 특히 공격 첫째 날인 25일에는 마장리(의정부 서쪽 13㎞)-가좌리(의정부 북쪽 1㎞)-마전리

<표 4-5> 북한군 제4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신망리-의정부-서울북부 축선에서 공격<br>• 의정부 점령 후 제1·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 서울 점령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br>- 16연대(주공) : 사단포병연대(-), 2개 전차중대, 공병대대(-1)<br>- 18연대(조공) : 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대대, 공병 1개 중대<br>• 제2제대(5연대)<br>- 연대(-1)는 제16연대(주공연대) 후속, 2대대는 18연대 후속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마지리-장현리-초성리 점령<br>• 차후임무 : 오현리(의정부 북쪽 16㎞)-하패리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마장리-마전리(의정부 동남쪽 9㎞) 점령<br>• 2일차 목표 : 서울로 공격 전개 |

(의정부 동남쪽 9㎞) 선을 점령하여 차후 공격준비를 갖춘 후 둘째 날 아침에 서울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제4사단의 전투지경선은 좌측으로는 부곡동(신망리 남동쪽 5㎞)-종현산(신망리 동남쪽 14㎞)-535고지(칠봉산, 포천 서북쪽 11㎞)-금오리(의정부 동북쪽 3㎞)을 연하는 선으로 되어 있었다.[15] 제4사단의 주공은 신망리-의정부간 3번 도로 축선에서 공격하는 제16연대에 주어졌다.[16]

북한군 제4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4사단의 제1제대인 제16보병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제2·제3포병대대, 독립전차대대 예하 1개 전차중대, 1개 독립공병대대(-1), 2개 전차중대 및 공병중대와 협동으로 초성리고개(전곡 남쪽 2㎞, 한탄교 부근) 및 상대전리(전곡 동남쪽 3㎞) 동남쪽 경계선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8보병연대는 사단포병인 제1포병대대, 독립대전차대대, 독립공병대대와 협동으로 동이리(전곡 서쪽 6㎞) 지역에서 공격을 전개하도록 하였다.[17]

사단의 제2제대인 제5보병연대 제2대대는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면 제18보병연대를 후속하고 연대(-)는 제16보병연대를 후속한다. 그 후 동두천과 675고지(감악산, 동두천 서쪽 8㎞)를 연하는 선에서부터 사단 제1제대의 공격을 확대할 태세를 갖추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18]

### (2) 제3사단(운천－포천－의정부 방면)

북한군 제3보병사단은 6월 19일에 야미리(신망리 동남쪽 18㎞, 운천 남쪽 4㎞) 지역에 배치되었다.[19] 제3사단은 후포(신망리 동남쪽 21㎞, 영평 동쪽 4㎞)－신팔리(서파)－퇴계원－서울 동북지역 축선을 따라 진격한 후 제4보병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의 동부지역을 점령하도록 계획되었다.[20]

이를 위해 제3사단은 영평(신망리 동남쪽 16㎞)에서 신읍리(현 포천) 방면에 대한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의 최근임무계선은 계류리(포천 북쪽 6㎞)－기지리(포천 북동쪽 4㎞)－복두암(포천 북동쪽 13㎞)－유동리(포천 북동쪽 18㎞)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표 4－6> 제3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사단은 일동－서파－퇴계원－서울 동부 축선으로 진격<br>• 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 동부지역 점령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br>－ 7연대(주공) : 1개 자주포대대(-1), 1개 전차중대, 기관총대대(-1)<br>－ 9연대(조공) : 2개 전차중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기관총중대<br>• 제2제대 : 8연대<br>－연대(-1)는 7연대 후속, 1대대는 사단 우측 엄호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계류리－기지리－유동리 진출<br>• 차후임무 : 장승거리－마산리－서파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무봉리(의정부 동북쪽 9㎞)－마명리－검단리 진출<br>• 2일차 목표 : 서남방면 진격하여 서울 동북지역 점령 |

이후 포천을 점령하고 장승거리(포천 서남쪽 6㎞)－마산리(의정부 북동쪽 16㎞)－서파(포천 포천 동남쪽 8㎞)－마명리(의정부 동북쪽 15㎞)－건단리(의정부 동쪽 15㎞) 지역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정부－청학리(의정부 동남쪽 7㎞)－양지리(의정부 동남쪽 14㎞)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한 후에는 제105전차여단과 함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부터 서남 방면으로 진격하여 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동으로 동북방향에서 서울을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였다.[21]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은 도평리(신망리 동남쪽 28㎞, 신철원 동남쪽 10㎞)－628고지(포천 동북쪽 18㎞, 사직리 부근)－운악산(포천 동쪽 10㎞, 936m)－수택리(서울 동쪽 15㎞, 현 구리시 수택동)를 연하는 선이었다. 사단의 주공은 포천의 간선도로를 따라 진격하도록 계획되었다. 사단 우익을 엄호하기 위하여 독립전차대대(-)로 보강된 제8보병연대 제1대대와 1개 자동소총중대, 1개 대전차포중대, 1개 공병중대(-1) 등이 범수동(포천 서북쪽 12㎞, 동두천 북쪽 7㎞, 초성리 부근)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22]

제3사단의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편성되었다. 제1제대인 제7보병연대는 1개 기관총중대(-1), 1개 전차중대, 1개 자주포대대(-1), 1개 공병중대와 함께 영평－광평(영평 동쪽 3㎞)선에서부터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제9보병연대는 1개 기관총중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 예하 1개 중대, 1개 전차대대(-1), 독립공병대대 1개 중대, 공병대대 1개 공병중대(-1) 와 협동으로 선내지리(광평 동쪽 4㎞)－원평(산내지리 동쪽 8㎞, 연곡리 부근)을 연하는 선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23]

### (3) 제105전차여단(포천－의정부 방면)

제105전차여단은 전쟁이전에 평양에 여단 참모부, 제107전차연대, 정찰대대, 모터사이클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철원에 203전차연대가, 그리고 개성과 사리원 사이인 남천에 제109전차연대가 배치되었다. 그 중 제107・제109전차연대가 주공방면인 철원－서울 축선에 투입되었고, 조공방면인 남천동－개성 축선에는 제1사단과 함께 제203전차연대(-)가 투입되었다. 주공방면을 담당한 제105전차

<표 4-7>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여단은 전쟁개시 둘째 날 아침에 의정부 지역 돌파에 투입,<br>• 서울 동측에서 서울로 진입한 후,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기 한강 교량 점령 |
| 부대 운용 | • 여단은 서울 공격에 가담한 제1·4·3사단 및 개성에 투입된 제6사단에 최초 38도선 돌파를 위해 사단별로 1~2개 전차중대를 배속 운용<br>• 여단(-)은 전선 돌파 후 연대별로 3개 축선에 투입되어 서울 진입 후<br>• 한강 교량을 점령함으로써 국군 주력의 퇴로 차단 임무 |
| | ○ 서울 방면 공격 사단 작전지역에서 투입하여 서울 공격<br>• 제107전차연대 : 3사단 주공연대(7연대) 후속, 포천-의정부-서울 동북쪽<br>• 제109전차연대 : 3사단 주공연대(9연대) 후속, 일동-서파-서울 동쪽<br>• 제203전차연대(-) : 1사단 주공연대(3연대) 후속, 개성-문산-서울 서쪽 |

여단(-) 예하부대는 제4사단 및 제3사단과 협조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포천지역까지 진출한 후, 보병의 전과를 확대하면서 전쟁 당일인 25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전쟁개시 2일째인 6월 26일 제105전차여단(-)은 제4·제3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도록 하였다.[24] 즉, 제105전차여단(-)은 전쟁 개시 둘째 날 아침부터 의정부와 양지리(퇴계원 서쪽 1㎞) 지역의 돌파에 투입되어 맹렬한 공격을 전개한 후, 동쪽에서 서울로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25]

또한 제203전차연대 예하 1개 전차대대는 제4사단과 협동으로 철원-신망리-의정부 방면으로 공격한 후, 의정부에서 주공부대와 합류하도록 하였다.[26] 제203전차연대(-1)는 남천동-개성 축선으로부터 서울로 보조공격을 실시하고 제1사단과 협동으로 서울을 서북쪽에서 점령하도록 하였다.[27]

### 3) 전투력 수준

동두천-포천 축선에서 공격하는 국군 제7사단의 정면의 북한군 병력을 보면 북한군 제3사단이 1.2만명, 북한군 제4사단이 1.2만명, 그리고 제105전차여단(-)이 4,000명으로서 총 2만 8,000명이었다.

<표 4-8> 동두천-포천 축선 피아 병력 비교

| 구 분 | 국군 | | 북한군 | | 비율 |
|---|---|---|---|---|---|
| | 병력 | 부대 | 병력 | 부대 | |
| 인원 | 7,211명 (실병력 : 4,500명) | 제7사단 | 48,000명 | 제3사단(11,000명), 4사단(11,000명), 제13사단(11,000명),제105전차여단(-1) (4,000명), 제15사단(11,000명), | 1 : 6.7 (1 : 10.8) |

또한 이 방면의 북한군 주요장비로는 전차 156대를 비롯한 자주포 62문과 122㎜ 야포 48문에 76㎜ 곡사포 72문, 그리고 45㎜ 반전차포 96문과 120㎜ 박격포 52문 및 82㎜ 박격포 162문 등 북한군이 전쟁초기에 동원한 전체 화력의 1/3을 이곳 동두천-포천 축선에 집중하였다.[28]

이밖에도 우마차를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추진하고 전투 간에 노무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무공작대가 뒤따라 다니며 활동하는가 하면 편의대를 운영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 4) 인접 부대 상황

동두천-의정부-서울 축선을 담당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서측에는 북한군 제1사단이 」개성-문산 정면을 책임지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포천-의정부-서울 축선을 담당하는 북한군 제3사단의 동측에서는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 정면을 책임지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하였다.

## 2. 국군 상황

### 1) 제7사단 부대 현황

중서부지역을 담당한 제7사단은 유재흥 준장의 지휘하에 제1연대와 제9연대가

적성－초성리－사직리 간의 47㎞에 달하는 광정면을 경비하고 있었다. 전쟁 이전 제7사단은 서울에서 제7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2월에는 수도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같은 해 5월 사단으로 승격되고, 다시 6월에 제7사단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이 지역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제7사단 예하에는 제1·제3·제9보병연대와 포병 및 공병대대 등 총병력 9,698명으로 편성되었다.[29]

그런데 전쟁발발 3주전인 1950년 6월 1일부로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3호에 의해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이 변경됨에 따라 전쟁 당일 사단은 제1연대와 제9보병연대, 포병대대, 공병대대 등 6,788명의 병력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30] 그 후 육본 작전명령 제79호에 의해 6월 15일부로 제2사단 제25연대가 제7사단에 편입되었다.[31] 그러나 제25연대는 온양에 위치한 까닭에 책임지역인 의정부로 이동해야 했으나, 주둔지로 선정된 의정부의 호원동 일대가 민유지인 관계로 징발문제와 막사 및 식수문제 등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7월 15일로 부대이동이 연기되었다. 그 후 전쟁이 발발하자 연대는 원래 소속인 제2사단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32]

국군 제7사단의 전투지역인 의정부－포천－내촌 지역에 투입된 국군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제7사단은 사단장 유재흥 준장(6월 26일 14:00부로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을 비롯하여 참모장 김종갑 대령, 인사참모 백태신 소령,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 작전참모 이영규 중령, 군수참모 윤영모 소령, 고급부관 최세인 소령 등이 사단 참모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국군 제7사단의 참모 및 지휘관 편성을 보면 <표 4－9>와 같다.

제7사단 제1연대는 연대장 함준호 대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 제2대대장 이의명 소령, 제3대대장 김황목 소령이 있었다. 제9연대는 연대장 윤춘근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유환박 소령, 제2대대장 전순기 소령, 제3대대장 이철원 소령이 있었다. 사단 포병인 제5포병대대장은 이규삼 소령이었고, 공병대대장은 허필은 소령이었다. 한편 제7사단에 배속되었으면서도 전쟁 당일 온양에 있었던 제25연대는 연대장 김병휘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임익순 소령, 제2대대장 배운용 소령, 제3대대장 고동절 소령이 있었다.

<표 4-9> 국군 제7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33]

| 직책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직책 |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
| 사 단 장 | 준장 | 유재흥(劉載興) | 군 영 | 제1연대 | 연 대 장 | 대령 | 함준호(咸俊鎬) | 군 영 |
| | | | | | 부연대장 | 중령 | 이희권(李喜權) | 군 영 |
| 참 모 장 | 대령 | 김종갑(金鍾甲) | 군 영 | | 제1대대장 | 중령 | 한태원(韓泰源) | 육사#2기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이의명(李義明) | 육사#3기 |
| 인사참모 | 소령 | 백태신(白台信) | 육사#5기 | | 제3대대장 | 소령 | 김황목(金煌穆) | 육사#2기 |
| | | | | 제9연대 | 연 대 장 | 중령 | 윤춘근(尹春根) | 육사#2기 |
| 정보참모 | 소령 | 이세호(李世鎬) | 육사#2기 | | 제1대대장 | 소령 | 유환박(柳桓博) | 육사#2기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전순기(田舜基) | 육사#3기 |
| 작전참모 | 중령 | 이영규(李暎圭) | 육사#1기 | | 제3대대장 | 소령 | 이철원(李哲源) | 육사#2기 |
| | | | | 제25연대 | 연 대 장 | 중령 | 김병휘(金炳徽) | 군 영 |
| 군수참모 | 소령 | 윤영모(尹永模) | 육사#3기 | | 제1대대장 | 중령 | 임익순(林益淳) | 육사#2기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배운용(裵雲龍) | 육사#2기 |
| 고급부관 | 소령 | 최세인(崔世寅) | 육사#3기 | | 제3대대장 | 소령 | 고동절(高東晰) | 제7기특별 |
| | | | | 제5포병 | 포병대대장 | 소령 | 이규삼(李圭三) | 육사#2기 |
| | | | | 공 병 대 | 공병대대장 | 소령 | 허필은(許弼殷) | 특 임 |

전투가 경과됨에 따라 이 지역에 증원 및 지원된 부대 및 지휘관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장 이상근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임백진 소령, 제2대대장 박남표 소령, 제3대대장 김봉상 소령이 있었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 연대장 임충식 중령을 비롯하여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과 제3대대장 안민일 소령이 있었다. 이외에도 보국대대 제2중대, 기갑대대 장갑차 1개 소대, 포병학교 대전차포 2개 중대 등이 지원하였다.

한편 충남 대전에서 북상한 제2사단장은 사단장 이형근 준장을 비롯하여 제5연대에는 연대장 대리 박기성 중령, 제1대대장 이정도 소령, 제2대대장 차갑준 소령이 있었고, 제16연대에는 연대장 문용채 대령, 제1대대장 유의준 중령, 제2

<표 4-10> 수도경비사령부의 동두천-포천 축선 증원 현황[34]

| 직 책 |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비고 |
|---|---|---|---|---|---|
| 제3연대 | 연 대 장 | 중령 | 이상근(李尙根) | 육사#1기 | 포천축선 증 원 |
| | 제1대대장 | 소령 | 임백진(任百振) | 육사#2기 | |
| | 제2대대장 | 소령 | 박남표(朴楠杓) | 육사#2기 | |
| | 제3대대장 | 소령 | 김봉상(金鳳翔) | 육사#3기 | |
| 제8연대 | 연 대 장 | 중령 | 서종철(徐鍾喆) | 육사#1기 | 미아리/ 한 강 방 어 |
| | 부연대장 | 중령 | 이현진(李賢進) | 육사#2기 | |
| | 제1대대장 | - |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고백규(高白圭) | 육사#2기 | |
| | 제3대대장 | | | | |
| 제18연대 | 연 대 장 | 중령 | 임충식(任忠植) | 육사#1기 | 동두천 축 선 증 원 |
| | 부연대장 | 중령 | 한 신(韓 信) | 육사#2기 | |
| | 제1대대장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장춘권(張春權) | 육사#2기 | |
| | 제3대대장 | 소령 | 안민일(安玟一) | 육사#3기 | |

대대장 김헌 중령이 있었다. 제25연대는 연대장 김병휘 중령, 제2대대장(대리) 나희필 대위, 제3대대장 고동절 소령이 있었다. 제2사단의 참모진을 보면 참모장 최창언 대령, 인사참모 조운학 소령, 정보참모 빈철현 중령, 작전참모 오창근 중령, 군수참모 차광전 소령이 있었다.

이외에도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대대장 김풍익 소령),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대대장 조암 중령)와 서울시청 전투경찰대대도 지원을 하였다. 우인접 부대로는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제6사단이 있었고, 좌인접 부대로는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이 있었다.

<표 4-11> 포천-백석천 축선에 증원된 국군 제2사단의 지휘관 및 참모 편성[35]

| 직 책 | 계급 | 성 명 | 임관 구분 | 직 책 | | 계급 | 성 명 | 임관 구분 | 비고 |
|---|---|---|---|---|---|---|---|---|---|
| 사 단 장 | 준장 | 이형근 (李亨根) | 군영 | 제5연대 | 연 대 장 | 대령 | 백남권 (白南權) | 군 영 | 일본 체류 |
| | | | | | 연 대 장 대 리 | 중령 | 박기성 (朴基成) | 육사#3기 특 별 | 축석령 투 입 |
| 참 모 장 | 대령 | 최창언 (崔昌彦) | 군영 | | 제1대대장 | 소령 | 이정도 (李貞道) | 육사#7기 특 별 | |
| 인사참모 | 소령 | 조운학 (趙雲鶴) | 육사 #2기 | | 제2대대장 | 소령 | 차갑준 (車甲俊) | 육사#2기 | |
| | | | | | 제3대대장 | — | — | — | |
| 정보참모 | 중령 | 빈철현 (賓哲현) | 육사 #2기 | 제16연대 | 연 대 장 | 대령 | 문용채 (文容彩) | 군 영 | 금오리 투 입 |
| | | | | | 부연대장 | 중령 | 이원장 (李源長) | 육사#1기 | |
| 작전참모 | 중령 | 오창근 (吳昌根) | 육사 #1기 | | 제1대대장 | 중령 | 유의준 (兪義濬) | 육사#2기 |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김 헌 (金 憲) | 육사#2기 | |
| 군수참모 | 소령 | 차광전 (車光轉) | 육사 #3기 | | 제3대대장 | 소령 | 강태봉 (姜太奉) | 육사#2기 | 잔류부대 |

## 2) 전투준비태세

국군 제7사단은 1949년 육군본부 정보판단에 의해 적의 주공 방향으로 판단한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사단의 방어정면은 적성에서 일동(一東)에 이르는 47㎞에 달했다. 사단은 1950년 5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라 사단방어계획을 완성하고 주저항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6월 7일에는 유재흥(劉載興) 준장이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제7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지역은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적의 주공이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38도선에 배치된 전방 사단 중에서 다른 사단에 비해 가장 협소한 방어정면을 부여하였다.

제7사단의 방어계획은 육군본부의 방어계획에 바탕을 둔 지역고수 개념으로 3선 방어개념이었다. 제1선은 38도 분계선으로, 이 선 부근의 전술적 요지에 소대단위 거점을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경고, 지연, 침투방지, 주민통제 및 보호, 적정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감악산－마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으로 이곳에 대대단위 거점을 설치하고,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상황 추이에 따라 대응하면서 이 선 전방 주요 접근로상에 가설된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 대화구 및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쟁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경우에는 사단의 가용병력으로써 역습을 감행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불국산－158고지－축석령)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방어선이었다. 또한 이 방어선은 차후 군 예비부대가 역습을 전개하는 선이기도 하였다.[36]

사단사령부는 의정부(議政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함준호(咸俊鎬) 대령이 지휘하는 제1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써 동두천(東豆川)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대 본부와 제1·3대대는 의정부에, 제2대대는 동두천에 위치하였다.[37] 윤춘근(尹春根) 중령이 지휘하는 우일선의 제9연대는 포천(抱川) 정면을 담당하여 연대본부와 제1·3대대는 의정부 동북쪽 4㎞ 지점인 금오리(金梧里)에 위치해 있었고, 38선 경비를 담당한 제2대대는 포천에 대대본부를 두고 있었다.[38]

<표 4－12> 국군 제7사단의 3선 방어계획[39]

| 구 분 | 작전 개념 | 비 고 |
|---|---|---|
| 제1선(38도선 경계선) | • 전술적 요지에 소대단위 거점 설치<br>• 적 접근 조기경고, 지연, 침투방지 | |
| 제2선(주저항선) | • 마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 연하는 선<br>• 대대단위 거점 설치<br>• 교량 파괴계획, 도로대하구 및 장애물 설치계획 | • 교량/장애물 미설치 |
| 제3선(최후저항선) | • 의정부 북쪽의 불국산－158고지 연하는 선 | |

제7사단은 제1·제9연대로서 적성－초성리－사직리 간의 책임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때 양 연대간의 전투지경선은 종현산－국사봉－해룡산－천보산을 연하는 선이었다.

제1연대는 동두천 정면의 적성－종현산 간을 방어하면서 1개 대대로 초성리－적암 간을 경비하고, 연대 주력은 직동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적과 교전상황에 돌입하면, 연대 주력은 소요산－마차산 간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는 것이었다. 사단 포병인 제5포병대대는 상황에 따라 연대에 배속 또는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9연대는 포천 정면의 종현산－사직리 간을 방어하면서 1개 대대로 양문리－추동리 간을 경비하고, 주력은 금오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9연대도 적과 교전상황에 돌입하면 연대 주력은 천주산－가랑산 간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는 것이었다.[40]

제7사단의 방어진지 준비는 인접사단과 마찬가지로 일반진지에 대해서는 교통호와 산병호(散兵壕)는 구축되어 있었으나,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다. 다만 만세교(萬世橋) 남쪽 4㎞ 지점에 대전차용 방어물로 철근 콘크리트 진지 1개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41] 제7사단은 1950년 봄부터 재경 대한청년단원과 학생들을 매일 2,000여 명을 동원하여 주진지와 경계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제1연대는 양원리－초성리 간의 경계진지를, 그리고 소요산－마차산 간의 주진지를 구축하였다. 제9연대는 추동리－양문리 간의 경계진지를 개축하였고, 탄장 부근의 천주산과 가랑산 간의 주진지를 새로 구축하였다.[42]

전쟁 당일 제7사단은 사단장이 부임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연대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을 비롯하여 고급부관 최세인 소령과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은 보병학교 고군반에 입교 중이었고, 제1연대 제3대대장 안민일 소령은 참모학교 입교명령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6월 11일 16:30부로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됨에 따라 농번기 휴가와 외출 및 외박이 허가된 탓으로 사단의 실제 병력은 4,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장비 면에 있어서도 전쟁 당일 사단의 중고차

<표 4-13> 국군 제7사단의 책임지역 및 부대배치

| 구 분 | 지휘소 위 치 | 책임지역 (㎞) | 38도선 경계부대 | | | 예비 전력 | |
|---|---|---|---|---|---|---|---|
| | | | 대 대 | 대대본부 | 중 대 | 부대/규모 | 전방부대와의 거리 |
| 사 단 | 의정부 | 적성-사직리 (47㎞) | - | - | 4개 중대 | 4개 대대 | 28㎞ |
| 제1연대 | 직 동 | 적성-종현산 (21㎞) | 제2대대 | 동두천 | 2개 중대 | 제1·3대대 | |
| 제9연대 | 금오리 | 종현산-사직리 (26㎞) | 제2대대 | 포 천 | 2개 중대 | 제1·3대대 | |
| 연대전투지경선 | "위로부터 밑으로 종현산-국사봉-해룡산-천보산을 연하는 선" | | | | | | |

량이 모두 부평으로 이송되어 보유차량의 40% 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상발령에 따르는 즉각적인 진지점령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각종 중화기의 25% 정도가 수리를 위해 반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전투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였다.[43]

특히 제7사단은 38도선 남쪽의 방어진지에 1/3 병력만을 배치하고, 주력은 28㎞ 후방의 의정부 부근에 집결하여 대대급 이하의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연대의 지휘소도 주력과 함께 모두 의정부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고, 전방 경계 대대는 각각 20㎞ 내외의 광정면을 경비하고 있었다.[44] 결과적으로 사단은 연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로서 적의 2개 사단 및 1개 전차여단(-)과 맞서게 되었다. 이렇듯 북한군이 치밀한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국군 제7사단의 대비태세는 병력, 장비, 교육훈련, 화력, 진지구축 상태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미흡하였다.

한편 제7사단 우인접 부대인 제6사단(사단장 : 김종오 대령)은 춘천 정면에서 소양강의 하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북한 제2사단과 제12사단으로 편성된 제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또한 좌인접 부대인 제1사단(사단장 : 백선엽 대령)은 임진강 남안에서 축소된 임진강 방어선을 통해 북한군 제1·제6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 3) 적의 공격징후에 따른 사단 조치

국군 제7사단은 6월 23일 24 : 00부로 그 동안 전군에 하달된 비상경계령이 해제됨에 따라 장병 1/3이 외출과 외박을 나갔고, 영내 잔류 병력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8도선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방 2개 대대와 연대별 비상대기중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들은 휴무에 들어가고, 당직근무자만 부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사단사령부 당직사령인 작전참모 이영규(李暎奎) 중령은 제일선의 경계 근무상태를 전화로 확인하는 등 전방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는 이틀 전부터 38도선 북쪽의 운천－연천－전곡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상의 집단병력이 수시로 기동하고 차량이 빈번히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날 밤 21 : 00에 제9연대장의 "유정리 북쪽의 43번 도로 상에 30여 대의 전차가 나타났다."[45]는 보고에 접하고 나서 적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7사단은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하면서도 계속 적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만일을 위해 각 연대에 비상대기중대를 편성하고, 제5포병대대는 M-3 견인차를 대기시키고 저장연료 200드럼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배속중인 보국대대(報國大隊) 제2중대(중대장 박창암 중위)를 운천 지역으로 파견하여 적정을 탐색하는 등 일련의 비상조치를 취하였다.[46]

# 제 3 절 연천—동두천—의정부 전투

## 1. 전투개요

연천—동두천 전투는 최초 이 지역의 경계책임을 맡고 있던 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4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 1개 전차대대와의 공방전을 말한다. 이 전투 중 육군본부는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를 증원하였으나, 의정부가 적 제3사단에 의해 조기 함락됨으로써 퇴로가 차단되었다. 따라서 이 전투는 적에게 퇴로를 차단당한 국군 2개 연대(제1연대와 제18연대)가 각각 창동 및 김포반도로 철수하는 상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전투는 최초 국군 제7사단 제1연대의 경계진지 전투 및 주저항선 전투, 그리고 26일 동두천 역습과 의정부 함락에 따른 퇴로 차단으로 창동 지역으로 제1연대가 철수하는 과정과 25일 야간에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증원된 제18연대(-)의 작전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국군 제7사단 제1연대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4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1개 전차대대를 맞아 38도선 경계진지전투 및 주저항선에서 전투를 실시하였다. 전투과정에서 제1연대는 초기 전투에서 비록 제1대대(-)가 주저항선의 대대거점인 마차산 정상을 점령하여 유휴 병력화 하는 등 전투지휘에 미숙함을 보였으나, 25일 22 : 00까지 적의 양익포위 전술 및 보·전·포(步·戰·砲) 협동공격을 잘 막아내며 동두천을 사수하였다. 그러나 전투력의 열세로 25일 22 : 00경에 동두천이 함락됨에 따라 제1연대(-)는 덕정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둘째, 25일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 축선의 위험을 확인한 육군본부에서는 동두천 축선에 제18연대(-1)를 증원하였다. 이때 육군본부는 제18연대에게 제1연대와

함께 적에게 피탈된 동두천을 탈환하도록 것을 명령하였다.[47] 이에 제1연대(-)가 일시적으로 동두천을 탈환하였고, 제18연대는 제1연대의 우측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때 포천축선에서 공격하던 적 제3사단에 의해 동두천 후방인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되었다. 이에 의정부 북쪽에 배치된 제1연대(-)와 제18연대(-)는 퇴로가 차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연대(-)는 창동 지역으로,[48] 제18연대(-)는 고양을 경유하여 6월 28일 행주나루를 통해 김포반도로 철수하였다.

이렇듯 연천-동두천-의정부 전투는 6월 25일 포천 정면의 국군 제9연대의 방어진지가 적의 집중공격을 받고 조기에 돌파됨으로써 의정부가 6월 26일 함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연대본부를 창동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제1연대(-)는 제7사단장 겸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유재흥 준장의 지휘를 받아 창동 방어선에 임하게 되었다.

## 2.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북한군 제4사단의 기습공격

국군 제7사단의 우측 정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1연대 경계지역에서는 북한군 제4사단이 2개 연대 병진공격으로 연대 정면의 경계지대를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4사단은 신망리-의정부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로는 주공인 제16보병연대는 사단포병인 제2·제3포병대대, 독립공병대대(-1), 2개 전차중대와 협동으로 초성리고개(전곡 남쪽 2㎞, 한탄교 부근) 및 상대전리(전곡 동남쪽 3㎞) 동남쪽 경계선에서 공격하였다. 조공인 제18보병연대는 제1포병대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 1개 독립공병대대와 협동으로 동이리(전곡 서쪽 6㎞) 지역에서 공격하였다. 제2제대인 제5보병연대의 제2대대는 예하 제18보병연대를 후속하고, 연대 주력은 제16보병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49]

이에 반해 북한군 제4사단의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부대는 국군 제7사단 제1연대 제2대대였다. 이의명(李義明)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사단 경계책임지역의 좌측인 종현산(588고지)－초성리－적성간의 21㎞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대대장 한태원 중령)와 제3대대(대대장 김황목 소령)는 연대본부[50] 부근에 주둔하면서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소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인데다 전군에 주말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연대는 제2대대와 1개 비상대기중대만을 대기시키고 1/2 병력이 외출 또는 외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도 부임한지 1개월 밖에 안 돼 아직 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은 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 교육 중이었고, 제3대대장 김황목 소령도 6월 30일부로 참모학교 입교명령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 제2대대 단독으로 초성리－적성 간의 경계진지를 경비하고 있었고, 28㎞ 후방의 연대본부에 1개 비상대기중대가 잔류한 상태에서 전차로 증강된 1개 사단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제4사단은 6월 25일 03 : 40경에 국군 제1연대 방어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51] 최초 포병 공격준비사격으로 시작된 적의 포격은 초성리와 양원리 일대에 집중되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30분 동안에 걸친 포병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 제1연대의 경계진지인 적암－양원리－초성리를 연하는 지역 일대를 강타한 후, 제16연대를 선봉으로 전곡－동두천 간의 3번 도로를 따라 정면 공격을 실시하였다. 북한군 제5연대는 제16연대 서측의 봉암리－적암을 연하는 선에서 공격하여 동두천을 포함한 주변 도로를 일거에 점령하고자 하였다.[52] 북한군은 04 : 30을 기하여 공격준비사격 연신과 더불어 제일선 경계진지로 돌입하였다. 그 결과 제1연대 지역의 초성리와 양원리 동북쪽 마을인 화방촌 부근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 2) 양원리－초성리 지역의 경계진지 전투

제2대대는 3개월 전인 3월 하순에 제1대대(대대장 한태원 중령)와 임무를 교대

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대대장 이의명 소령은 제5중대(중대장 김종상 대위)를 우일선으로 동두천 북쪽의 초성리 부근에, 제6중대(중대장 최춘정 중위)는 양원리－적암 간의 좌일선에 각각 배치하였고, 제7중대(중대장 김동훈 중위)는 예비로 대대본부와 함께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었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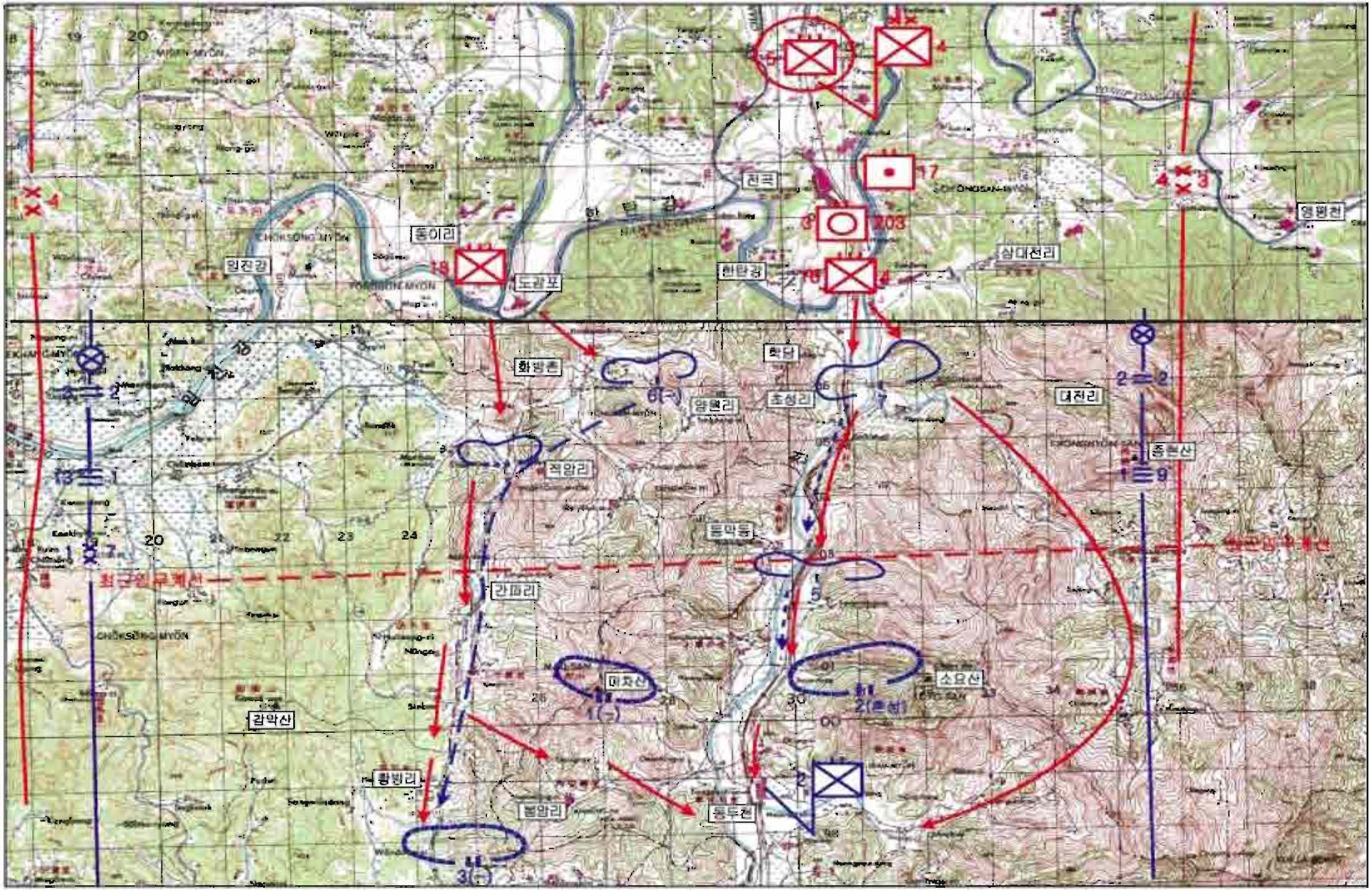
대대는 1개월마다 1개 중대씩 경계임무를 교대하였는데, 5월 27일부로 우일선인 초성리 진지를 제7중대가 담당함으로써 전쟁 당일 제2대대는 제7·제6중대가 제일선을 경비하고 있었다. 제7중대는 초성역 부근에 본부를 두고, 제1소대를 그 동북쪽의 204고지－학담 사이에 배치하였고, 한탄강 남안의 주요 길목에는 2개 분대가 경비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경계진지를 강타한 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한탄강을 도하하여 국군 전초소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즉, 제16보병연대는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초성리 방향으로 공격하고, 제18보병연대는 동이리(전곡 서쪽 6㎞) 부근에서 임진강을 건너 도감포－화방촌 간의 소로를 따라 공격했다. 또한 북한군 전차대는 3번 도로를 따라 초성역 쪽으로 공격해 왔다.

동두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25일 04 : 10분에 적의 공격상황을 보고받은 후 적의 주력이 초성리 방향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제5중대 1개 소대와 중화기소대(박격포 1개 반과 기관총 1개 반으로 편성)로 하여금 제7중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04 : 50분경 적 전차대의 선두가 초촌교 북쪽 500m까지 접근하고 있을 때 이들 지원부대가 초성역에 당도하였다. 제5중대 1개 소대는 초성역에서 청산리로 들어가는 173고지 북쪽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중화기소대는 바로 남쪽의 신천(동두천에서 한탄강으로 흐르는 개울) 동쪽 언덕에 배치되었다.

이때 초촌교를 넘어서는 적의 전차대를 향해 이곳에 배치된 국군 방어지역에서는 기관총과 박격포 그리고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화망을 뚫고 유유히 남진하여 초성역 부근에 이르러 중대의 노출된 중화기진지에 전차포 사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제7중대(＋)는 분산되어 제일선 경계진지와 연락도 취하지 못한 채 소요산(526고지)의 연대 주진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상황도 4-2> 제1연대 경계진지 전투


중이리
임진강
도감포
한탄강
전곡
삼대천리
영평천
화방촌
적암리
양원리
초성리
학담
대전리
종현산
등막동
간파리
최근원로계선
감악산
대차산
소요산
황방리
봉암리
동두천



전곡에서 초성리에 이르는 도로



북한군이 도하한 도감포 지역

과정에서 전초소대 병사들은 거의 전사하였고 몇 명만 혈로를 뚫고 청산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제7중대는 초성리 전투에서 중대병력의 2/3 이상을 잃었다.[54]

한편 제7중대 우측에 있던 제6중대는 중대본부를 봉암리(동두천 서쪽 3㎞)에 두고, 이곳에서 8㎞ 떨어진 전방 경계는 제2소대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소대는 양원리(초성리 서쪽 3.5㎞) 부근에서 북한군 제5연대의 선봉과 교전하였다. 제2소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중대 주력을 인솔하여 간파리(동두천 서북쪽 7㎞)에 도착하였으나 적의 선두부대는 이미 양원교를 넘어 적암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6중대장은 간파교 좌우측 구릉에 급편진지를 편성한 후 1시간 동안 적과 치열한 교전을 펼쳤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중대장 최춘정 중위가 전사하고 병사들도 각개 분산되어 25일 07 : 00 현재 황방리(봉암리 북쪽 2㎞) 고개를 통해 철수하게 되었다.[55]

이렇듯 적과의 교전 3시간 만에 전방 경계진지를 상실한 제2대대는 이제 연대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주진지(소요산과 마차산을 연한 연대의 주진지) 전방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제5중대(-)와 중화기중대의 남은 병력을 모아 동막골－하봉암리 간에 저지진지를 급편하면서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때 서측의 368번(전쟁당시 320번) 도로상에 적 전차가 출현하였다.

### 3) 주요 조치

사단 당직사령 이영규 중령은 38도선 경계부대로부터 적의 침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를 사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다. 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전날 밤 육군회관 개관 파티에 참석한 뒤, 약수동 자택에 돌아와 있다가 25일 05 : 15분에 사단 당직사령으로부터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당직사령에게 “육본에 상황을 보고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주진지에 배치토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바로 의정부로 직행하여 06 : 00에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56] 당직사령은 육군본부에 사단 상황을 보고하고, 영외거주자 소집과 비상대기중대에게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전쟁 당일 사단 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

부대이동 문제와 창설기념일 행사관계로 온양에 내려가 있었다. 또한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과 고급부관 최세인 소령은 보병학교 고군반 교육을 받고 있었고 군수참모 윤영모 소령은 통신연락이 되지 않다가 25일 14 : 00에야 겨우 연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단 참모기능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다.[57]

사단은 예비 병력이 없는 가운데 제1연대와 제9연대가 동두천과 포천 축선에서 각각 적 1개 사단 및 전차연대와 불리한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쟁에 대한 충분한 준비태세 없이 주말의 휴식에 들어갔던 제7사단은 교전 4시간 만인 08 : 00에 최전선의 경계진지가 무너졌다는 소식과 함께 적의 전차가 계속 동두천과 포천을 향해 남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약수동 자택에서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즉시 육군본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작전참모 이영규 중령에게 제5포병대대(대대장 이규삼 소령) 2개 포대를 포천방면의 제9연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 포대(제2포대)는 동두천 방면의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 공병대대 제1중대장(이은석 중위)을 직접 불러 동두천의 주요 교량을 폭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관계참모들에게 탄약과 급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귀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로 수송할 것을 지시하였다.[58]

## 3. 주저항선 전투 : 동막동—동두천 전투

### 1) 제1연대(-)의 주저항선 진지 점령

6 · 25전쟁 당일 제1연대 당직사령은 제1대대 제4중대장인 박찬긍 중위였다. 그는 동두천의 제2대대 본부에서 적의 포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난 후, 바로 04 : 20에 연대장으로부터 "연대비상을 발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59] 이때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바로 부대 정면 앞 관사에서 새벽 04 : 10에 제2대대장 이

의명 소령으로부터 적의 공격 상황을 보고 받고, 곧바로 연대비상을 발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비상에 돌입한 연대는 주력의 출동태세를 갖추면서 우선 대기 중인 제3중대를 차량으로 동두천으로 급파하였다. 25일 06 : 30에 제3중대가 제2대대 본부에 도착하였을 때 대대지휘부는 동막동 뒷산으로 출동하고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 길이 없어 다시 초성리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선두부대가 동두천초등학교를 지나 초성리를 향해 북상하고 있을 때 적의 격심한 포격으로 더 이상 차량 기동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곳에서 하차하여 전방을 살펴보고 있을 때 직전방의 용현동 고개에서 신호탄 2발이 오르고, 이어 2대의 전차를 선두로 하여 대대규모의 적이 2열종대로 유유히 남하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07 : 10경이었다.

제3중대는 즉시 176고지 북쪽에 산개하여 적의 행군대열 선두에 집중사격을 퍼붓자 적의 대오가 흐트러졌다. 그러나 적의 보병과 전차의 화력에 의해 화기소대장 안태섭 중위가 전사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제2대대 관측소에서 전령이 달려와 "소요산 입구로 전진하여 소요동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급히 소요산 입구의 지시된 능선에 재배치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의 후미를 뒤따라온 적이 제2대대(-)의 방어전면으로 밀려들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때 신천 서쪽의 159고지 일대에서 제2대대 제8중대가 하천 서쪽으로 공격하는 적을 격퇴하였다. 제2대대(-)는 연대로부터 제3중대를 증원받으면서 대대의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여기에 대대 본부요원까지 동원하여 11 : 00까지 이곳 진지를 고수하였다.[60]

이처럼 제2대대가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제1연대는 제1대대(-1) 잔류병력 300명을 부대대장 김봉용 대위 인솔하에 동두천으로 이동시키고, 제3대대의 집결된 200명의 병력을 대대장 김황목 소령 인솔하에 연대 좌일선인 봉암리로 출발시켰다. 사단에서는 제5포병대대 제2포대(포대장 김한주 중위)를 동두천으로 보내 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61]

제1대대(-)가 09 : 00에 동두천에 도착하였을 때, 동두천 시내까지 적의 포탄이 떨어져 금융조합, 우편국, 역사(驛舍) 등이 파괴되고, 전선의 제2대대 진지에서는



제1연대 주저항선인 소요산에서 뻗어 내린 능선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제1대대(-)는 여기에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81㎜ 박격포 1개 반과 기관총 4정, 2.36″로켓포를 제2대대에 인계해 주고, 25일 12 : 00에 마차산(587고지)의 9부 능선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한편 김한주 중위가 지휘하는 제2포대는 09 : 30에 동두천에 도착한 즉시 주진지 남쪽 5㎞ 지점의 보산리(동두천 북동쪽 2㎞) 부근에 화포 5문을 방열한 후 포병화력을 지원하였다. 제2포대는 250여 발의 포사격으로 제2대대 방어전면의 적을 강타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2대대는 제2포대의 수훈으로 진전의 적을 격퇴할 수 있었고, 연대 주력이 주진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은 25일 12 : 00에 전차를 앞세우고 3번 도로를 따라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동두천 북쪽 2㎞ 지점의 창말고개에서 윤종호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중대의 포화에 막혀 1대의 전차를 잃고 초성리쪽으로 퇴각하였다.

이처럼 국군 제1연대(-)가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의 1차 공격을 격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군의 반격설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군 제1연대는 휴대한 탄약을 모두 소모한 상태에서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사상자의 속출로 전력이 반감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제1연대를 화력 지원하는 제2포대도 포탄이 떨어져 재보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는 25일 11 : 00에 봉암리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산 서측으로 진격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내안홍－오금동간에 병력을 배치했는데 정오가 지날 때까지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3대대장 김황목 소령은 봉암리에서 적암에 이르는 368번(전쟁당시 320번) 도로에 대한 정찰을 실시한 결과 간파리(마차산 서쪽 2㎞) 부근에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집결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는 81㎜ 박격포로 황방리와 간파리 부근에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진지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14 : 00경까지 적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제3대대(-)는 특기할 만한 상황이 없이 진지보강 작업을 계속 하였다. 이때 적이 제3대대 정면으로



봉암리 고개길(제1연대 제3대대 배치지역)

진격하지 않은 것은 최초 적이 간파리에서 마차산 남쪽 계곡을 통해 동두천으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3번 도로로 진격한 그들의 주력이 동두천 북쪽에서 타격을 받고 물러서자, 측후방에서 국군을 협공하기 위해 동두천을 향해 공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국군은 25일 15 : 00경 북한군이 3번 도로에서 기계화부대를 투입하여 재공격을 감행하고, 간파리－안흥리 축선에서 측방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2) 주요 조치

#### (1) 사단 및 연대 조치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6월 25일 10 : 00경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사단사령부를 방문하자, 그 동안의 전황을 보고한 다음 병력 증원과 대전차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채병덕 총참모장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보병연대를 사단에 배속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적 전차에 대해서는 육탄공격을 하도록 지시한 후 육군본부로 돌아갔다.[62] 그러나 유재흥 사단장은 대전차 수단이 수류탄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육탄공격에 회의를 느끼고 우선 57㎜ 대전차포와 2.36″ 로켓포로서 대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전황은 점차 기울어져 사단의 우측 방어지역인 포천이 25일 11 : 00에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3번과 43번 도로상에 적의 전차가 밀려들었다. 이때 포천 방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9연대가 포천에 적 전차가 돌입하였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면서 이 지역의 전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교육중에 복귀한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63]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 총참모장이 약속한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가 14 : 00에 의정부에 도착하자 이를 포천 방면의 탄장 전선으로 급파하였다. 온양에 내려갔던 참모장 김종갑 대령이 귀대한 일몰 무렵의 전세는 제7사단에게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제3연대(-)가 송우리(의정부 북동쪽 13㎞)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제1연대 지

역인 동두천이 적에게 점령됨으로써 의정부의 위기가 눈앞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포천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단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이 "축석령 북쪽에 적 전차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64] 이때 사단장은 수류탄과 휘발유병에 의한 육탄공격으로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사단사령부의 고급하사관 30여 명을 집합시켜 특공대를 편성한 후 축석령(의정부 북동쪽 7㎞)으로 급파하였다.

이렇듯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함에 따라 전선의 탄약보급과 부상병 수송 요청이 빗발치자 군수참모(윤영모 소령)는 의정부역에서 작전 소요에 우선을 두고 열차를 통제하였다. 또한 용산역에서 추진된 주먹밥과 부평의 제1탄약중대에서 추진된 105㎜ 포탄을 전방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추진된 105㎜ 포탄은 인마살상용의 고폭탄이 아니라 대부분 백린연막탄으로 작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연대에서는 전방에 배치된 부대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외출에서 복귀한 병력을 계속 전선으로 급파하였다. 제1대대는 외출에서 복귀한 1개 중대 병력을 보병학교 교육 중에 복귀한 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인솔하여 동두천으로 출발하였고, 제3대대는 외출 중 귀대한 부대대장 강완채 대위가 혼성중대병력을 인솔하여 덕정을 경유하여 서북쪽의 316번 도로로 나아가 봉암리로 통하는 길목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또한 부연대장 이희권 중령은 연대본부에서 귀대 병력을 수습하면서 연대 참모들을 통제하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를 지원하였다. 연대 보급관 고남준 중위는 동두천역에서 병력이 도착할 때마다 건빵과 통조림을 분배하였고, 근무중대장 이상한 중위는 병력수송을 담당하였고, 의무중대장 신재근 대위는 덕정구호소에서 전상자 치료와 환자 후송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동두천의 제2대대 본부에서 포천 지역의 제9연대가 북한군 제3사단과 교전 끝에 25일 11 : 00에 포천이 함락되고, 송우리 부근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9연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하사관교육대에서 급편한 1개 중대(4개 구대 120명)가 12 : 00에 도착하자 동두천 동남쪽의 지행리 부근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인

솔한 중대 규모의 병력은 14 : 00에 소요산으로 올려 보냈다. 이때 한태원 중령은 마차산의 본대로 보내는 대신 연대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본부에 남아서 연대장을 보좌하도록 조치하였다.

### (2) 육군본부 조치

육군본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비상발령과 함께 08 : 00에는 후방 예비사단을 북상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25일 10 : 00에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의정부 전선을 돌아보고 상황이 어려운 제7사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11 : 00부로 수도경비사령부(사령관 이종찬 대령)의 제3연대(연대장 이상근 중령)를 제7사단에 배속하도록 하고,[65] 육군포병학교 대전차포 2개 중대와 기갑연대 장갑차 1개 소대도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66]

육군본부는 포천이 함락되자 대전에서 북상중인 제2사단(사단장 이형근 준장)을 의정부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17 : 00부로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를 제7사단에 배속하였다.[67] 포천 동측의 서파－기산리 간에 노출된 제7사단의 측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이날 13 : 00부로 육군사관학교장(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생도대대와 군에 배속된 경찰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내리(태릉 동북쪽 20㎞) 부근의 47번(전쟁당시 391번) 도로를 막으라고 명령하였다.[68]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25일 08 : 00에 대전에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지금 적이 전면남침하고 있으니 병력을 끌고 빨리 올라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69] 이때 사단의 가용병력은 대전비행장을 경비중인 1개 대대 밖에 없었다.[70] 이에 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대전에 있는 제5연대 제2대대만을 대동하고 경부선 급행열차로 먼저 상경하면서 참모장 최창언 중령에게 각 연대를 후속하도록 지시하였다.[71] 사단장은 18 : 00에 용산역에 도착한 후 상황 파악을 위해 육군본부를 방문하고, 제2대대는 대대장 차갑준 소령이 지휘하여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의 지시에 의해 의정부로 직행하여 25일 20 : 00에 제9연대 연대본부인 금오리에 도착하였다. 결국 제2사단은 이날 밤 1개 대대만이 전선지

역에 도착하였고 사단 주력은 열차로 이동 중에 있었다.

또한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재경지역 부대들도 의정부－포천 축선으로 증원되었다. 먼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가 25일 14 : 00에 의정부에 도착하여 송우리 전선으로 직행한데 이어 포병학교 2개 대전차포중대와 기갑연대의 장갑소대가 25일 저녁 무렵에 도착하였다. 사관학교의 생도대대(대대장 조암 중령)는 이날 20 : 00에 차량기동으로 내리 부근에 도착하여 47번(전쟁당시 391번) 도로 양측의 372고지 일대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고, 경찰대대는 다음날인 26일 아침에 도착하였다. 포병학교(교장 대리 김계원 중령)의 제2교도대대(대대장 김풍익 소령)도 25일 22 : 00부로 "제2사단을 직접 지원하라"는 육군본부의 구두명령에 따라 출동준비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72]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도 25일 17 : 00시에 명령을 받고 19 : 00에 용산 주둔지에서 징발된 민간 차량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제18연대는 옹진에서 철수한 후 부대정비 기간을 이용하여 제1대대(대대장 박철용 소령)를 집단적으로 휴가 조치하였기 때문에 장춘권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 병력

<표 4－14> 개전 초기 의정부－포천 방면 국군 증원부대 현황[73]

| 증원 부대 | 이동 구간 | 도착/배속 일시 | 운용 내용 |
|---|---|---|---|
| 수경사 제3연대(-) | 서울→의정부 | 25일 오전 | 송우리 방어 |
| 수경사 제18연대(-) | 서울→동두천 | 25일 오후 | 동두천 반격 |
| 육사 생도대대 | 태릉→내 촌 | 25일 오후 | 내촌 방어 |
| 제2사단지휘부<br>제5연대 제2대대 | 대전→의정부 | 25일 오후 | 포천축선에서 반격<br>제1대대 추가 투입 |
| 제5연대 제1대대 | 대전→의정부 | 26일 아침 | |
| 서울시 경찰대대 | 서울→내 촌 | 26일 아침 | 내촌 방어 |
| 제2사단 제16연대(-) | 청주→의정부 | 26일 오전 | 포천 가도 투입 |
| 포병학교 교도대대 | 서울→의정부 | 26일 오전 | 축석령 방어 |
| 제2사단 제25연대(-) | 온양→의정부 | 26일 오후 | 백석천 방어 |
| 제16연대 제3대대 | 온양→창 동 | 27일 아침 | 창동선 방어 |

550명과 안민일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 병력 450명 등 총 1,000명의 병력이 21 : 00에 의정부에 도착하여 녹양동(의정부 북서쪽 2㎞) 부근에서 숙영하고 있었다.[74]

이렇듯 육군본부에서는 의정부－포천 정면에서 적의 주력을 격파하고자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용병력은 3,000명을 넘지 않았고, 적 전차 공격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부 군 지휘부에서는 한강선 방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3) 적의 동두천 재공격과 주저항선 전투

국군 제1연대가 적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을 때 북한군 제4사단은 25일 15 : 00에 전차를 앞세우고 재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제1차 공격 때와는 달리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의 일부 전차를 앞세우고 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으로 남진하였다. 동시에 북한군 제16연대 및 제5연대 1개 대대를 이용하여 동두천 좌우측에서 양익포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소요산－마차산 간의 제1연대 주저항선 지역의 거점상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북한군은 보전협동으로 국군 전선의 중앙돌파를 위해 동막동－소요동 간의 혼성 제2대대 진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대대는 병력과 탄약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동두천 쪽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마차산의 제1대대(-)는 적중에 고립된 가운데 17 : 00에 적의 선두가 창말고개(동두천 북쪽 2.5㎞)를 넘어서고 있었다.[75]

이때 포탄 300발이 추진되어 김한주 중위가 지휘하는 제2포대가 다시 포병사격을 재개하였으나 전황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 적 전차가 일몰과 함께 동두천 시내로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동쪽에서는 보산리 부근에서 소요산을 우회한 적이 보산교로 진출하고 있었고, 서쪽의 안흥리 부근에도 적이 출현하여 총을 난사하면서 주요건물에 방화함에 따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1연대의 장병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시가전까지 벌이며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군의 손실이 커지게 되자 연대장은 22 : 00에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철수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76] 철수명령은 제1대대장 한

태원 중령이 연대장 지시에 의해 각 대대에 전달하였는데, 동두천 주변의 제2대대와 각급 지원부대에는 전달되었다. 그러나 마차산의 제1대대(-)와는 무선교신이 끊어져 철수명령을 하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개전 18시간 만에 동두천을 포기하고 덕정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2포대장 김한주 중위는 "보병과 포병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면서도 5문의 포를 8㎞ 후방의 덕정까지 무사히 철수시켰고, 보병들은 분대 또는 소대단위로 각개 약진하여 대부분 목표지점에 집결하였다.[77]

그러나 명령을 받지 못한 제1대대(부대대장 김봉용 대위 이하 200여 명)는 연대 철수명령 후에도 계속하여 정상에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동두천 시내에 일어난 불길을 보고 소대장 1명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대장은 적이 시내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후 연대본부와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다시 마차산 진지로 복귀하였다. 제1대대(-)는 그 후에도 사단의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진지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연락이 없자, 26일 저녁 무렵에 퇴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소대단위로 나누어 의정부를 목표로 철수하였는데, 그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이틀을 굶은 상태에서 철수하다가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였다. 또 설상가상으로 철수 도중 적과의 몇 차례 조우전에서 부대대장 김봉용 대위가 전사하였고, 대부분의 병사들도 분산됨으로써 27일 밤 미아리 전선에 도착한 병력은 겨우 1개 분대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동두천 부근에서 교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좌일선인 제3대대(-)는 내안흥-오금동 간에 2개 중대병력을 배치하여 봉암리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봉암리 전선으로 동두천보다 3시간 뒤인 18 : 00에 10여분 동안 집중포격으로 제3대대(-) 진지를 강타한 다음 2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양쪽에서 공격해 왔다. 먼저 동쪽에서는 1개 대대규모가 안흥리에서 상패리쪽으로 공격하였고, 서쪽에서는 보전협동으로 황방리(봉암리 북쪽 2㎞) 고개를 넘어 오금동쪽으로 공격해 왔다. 특히 적은 능선에 배치한 제3대대(-)의 진지를 우회하여 봉암리(동두천

<상황도 4-3> 제1연대 주저항선 전투


간파리
마차산
소요산
황량리
봉암리
동두천
보산동
신천
하패리
차후임무계선
용암리
덕정
도락산
불국산
천보산
1일차 진출목표
1일차 진출목표

서쪽 4㎞)로 진격했기 때문에 능선에 배치된 대대(-)는 적의 포위망에 빠져 들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김황목 소령은 장병들을 독려하여 내안홍(동두천 북서쪽 3㎞) 계곡으로 공격해오는 적 도보부대를 저지하고자 2시간 동안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252고지(봉암리 뒷산)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크게 혼란이 야기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때 연대본부와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대장은 25일 20 : 00에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자신도 소대병력과 함께 하패리－용암리를 경유하여 21 : 30에 덕정에 도착하였다.

이때 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용암리－덕정－율정리(덕정 동남쪽 5㎞) 선에서 낙오자 수용선을 설정하고 분산병력을 덕정초등학교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에 제3대대장이 연대장에게 대대 전황을 보고하자 연대장은 “이곳에서 대대 병력을 수습하라”고 지시하였다. 제3대대장은 집결된 대대규모의 혼성병력을 재편하여 식사 및 휴식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이곳에 도착하자 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집결된 병력을 한태원 중령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김황목 소령은 병력을 인계한 후 이날 아침 뒤늦게 복귀한 중대병력(부대대장 강원채 대위가 지휘)이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용암리(덕정 서북쪽)로 가서 지휘하게 되었다.[78]

이렇듯 연대는 전쟁 첫날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나, 적 전차에 대한 대비책 미비, 병력과 탄약 부족 등 역부족으로 끝내 동두천과 봉암리를 연하는 방어선에서 덕정으로 철수하여 전열을 정비했다.

## 4. 동두천 역습

### 1) 채병덕 총장의 의정부－포천 역습 명령

6월 25일 첫날 전투에서 포천과 동두천이 함락되고 적이 의정부를 위협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 서울의 운명과 직결되는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이때부터 직접 의정부－포천 축선에 대해 지휘 통제하였다. 당시 의정부－포천 축선에서는 제7사단과 제2사단이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7사단은 초기 전투에서 과반수 병력을 잃었고, 잔류 병력도 분산된 상태에 있었다. 제2사단도 1개 대대만이 의정부에 도착한 상태여서 후방지역의 예비사단을 신속히 전선으로 전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군 지도층의 일부에서는 의정부－포천 축선에 대한 병력의 축차투입과 한강선 방어를 놓고 의견이 나뉘어졌다. 즉, 일부에서는 "병력을 축차로 투입하는 것보다 북상중인 예비사단을 한강 남안으로 집결시켜 한강선 방어진을 구축하면서 전선의 분산병력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주로 군 지휘부에서는 "정치적인 의의와 심리적 영향을 배려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도 서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79]

전쟁 당일인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 전선을 시찰한 바 있는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정부는 고수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굳게 하고, 6월 26일 새벽 01:00에 제7사단사령부를 다시 방문하고 사단장 유재흥 준장과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 제91호를 하달하였다.

① 군은 의정부 정면에서 반격을 개시하여 적을 38도선 북쪽으로 구축하려 한다.
② 공군은 이를 지원할 것이다.
③ 제7사단과 제2사단의 전투지경은 현 제1·제9연대의 전투지경선과 동일하다.
④ 제2사단은 6월 26일 08:00를 기해 현 접촉선으로부터 제9연대를 초월하는 즉시로 의정부－포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당면의 적을 격파하고 38도선을 회복하라.
⑤ 제7사단은 6월 26일 08:00를 기해 현 접촉선으로부터 의정부－동두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당면의 적을 격파하고 38도선을 회복하라.
⑥ 제2사단이 초월 후 보병 제3연대는 제7사단의 예비가 되라.
⑦ 제2사단이 초월 전진 후 제9연대는 원대로 복귀하라는 것이 요지였다.[80]

채병덕 총참모장의 이 명령은 6월 26일 01 : 00에 의정부의 제7사단사령부에서 직접 구두명령으로 하달되었다. 명령을 받은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잠시 숙고한 후 결행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역습 성공이 어렵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날 아침 사단 주력(제5 · 제16 · 제25연대)이 도착하면 집중 운용할 것과 한강선 방어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채병덕 총참모장은 강경한 어조로 역습강행을 촉구하면서 이형근 준장을 수행한 제5연대 제2대대장(차갑준 소령)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은 의정부에 달려있다. 지금 축석령 북쪽에 적 전차 30대가 있으니 귀관이 특공대를 편성하여 이를 격파하도록 하라. 성공하면 중령으로 특진시키겠다"고 명령했다.

이는 당시 전쟁지휘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역습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아 명령권자나 이를 복명해야 될 수명자(受命者) 모두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총참모장도 이날 역습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는 확신하지 않았다. 그는 후방의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정부 북쪽에서 적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역습을 감행하고자 하였다.

### 2) 제7사단의 역습명령과 피아 상황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총참모장으로부터 반격명령을 받은 후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유재흥 사단장은 6월 26일 새벽 사단사령부에서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증원 나온 제18연대장 임충식 중령, 그리고 관계참모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81]

① 사단은 26일 08 : 00를 기하여 동두천을 탈환한 다음 소요산-마차산 간의 원진지를 회복하려 한다.
② 공격간에 공군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③ 제1연대는 현 집결지인 덕정에서 3번 본 도로의 양 측방으로 돌진하여 동두천을 탈취하라.

④ 제18연대는 현 집결지인 녹양동에서 덕정－용암리 축선으로 진격하여 봉암리를 탈취하라.

⑤ 제5포병대대는 1개 포대로서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이 총참모장의 반격명령을 받고 예하부대장을 소집하여 26일 심야에 반격명령을 하달하고 있을 때, 제7사단 정면의 적은 새로운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포천 정면으로 공격해 온 북한군 제3사단의 주력은 송우리까지 진출했고, 그 중 선두부대는 전차 30대를 앞세우고 축석령 북쪽 3㎞ 지점의 이동교리까지 진출하여 국군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동두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도 이곳에서 진로를 바꾸어 서측의 316번 도로를 따라 봉암리－덕정 축선으로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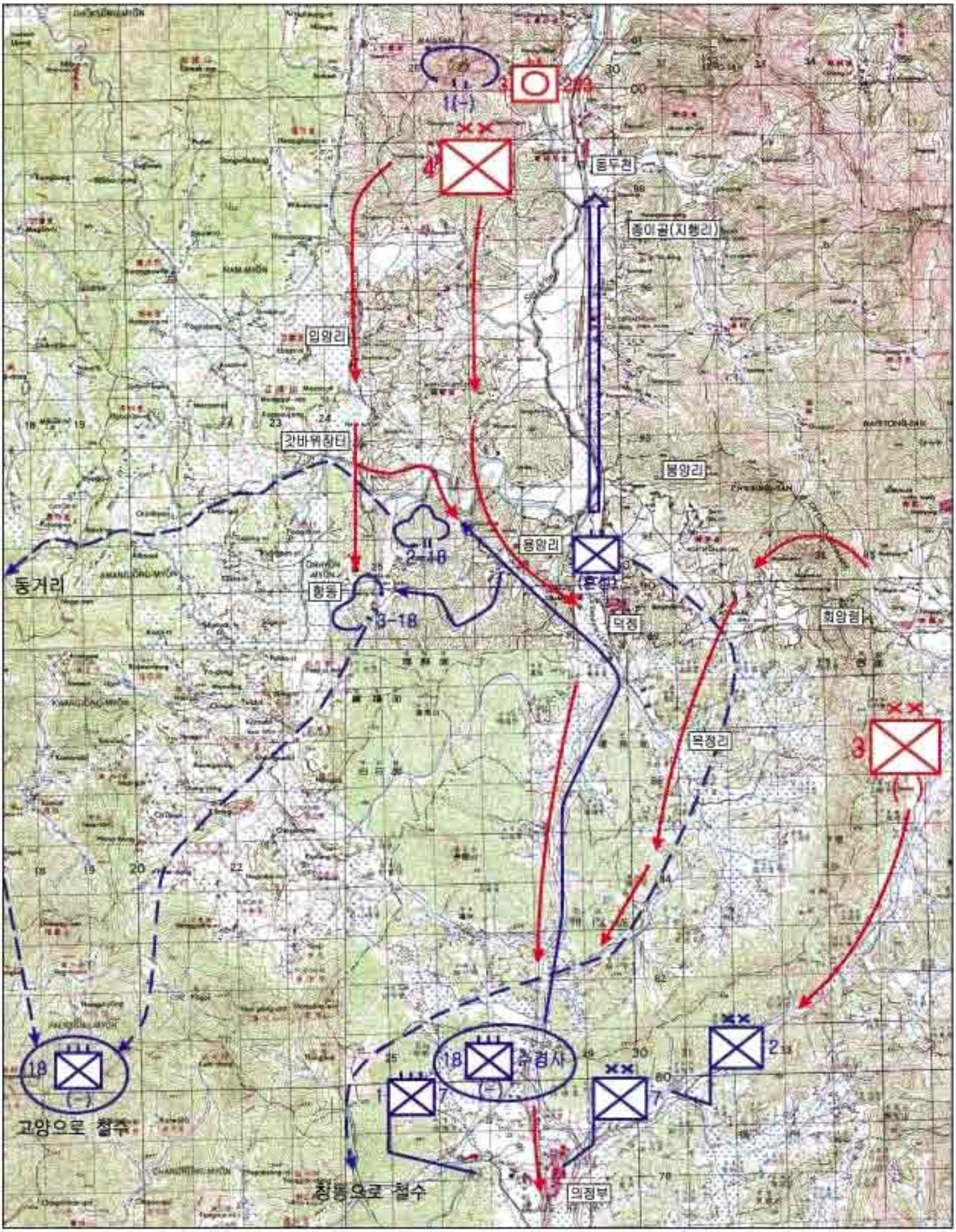
그런데 국군 제7사단과 제2사단은 이러한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분산병력을 수습하여 열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탄장에서 물러선 제9연대(-)의 주력은 47번 도로상의 서파를 지나 퇴계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 송우리에서 분산 철수한 제3연대(-)도 축석령 부근에서 150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금오리 남쪽 1㎞지점의 155고지－211고지 선까지 후퇴함으로써 포천 방면은 사실상 방어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다.

동두천 방면의 제1연대는 대대규모의 혼성병력을 덕정초등학교에 수용하고, 마차산의 제1대대(-)의 병력 200명과 용암리(덕정 북서쪽 2㎞)의 제3대대(-) 병력 150명이 각각 4～13㎞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독자적인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제7사단에 배속된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도 제1연대 주력보다 25㎞ 후방인 의정부 북쪽 지역에서 숙영하고 있었다.

한편 제2사단은 의정부의 금오리에 먼저 도착한 제5연대의 제2대대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을 향해 북상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반격명령을 받은 후, 제2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금오리로 돌아와 사단 주력의 이동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때 총참모장으로부터 직접 출동명령을 받은 제5연대 제2대대장(차갑준 소령)이

<상황도 4－4> 동두천 역습


동두천
종이골(지행리)
임왕리
갓바위창타
봉양리
용암리
동거리
황동
덕정
회암점
목정리
교암으로 철수
추경사
창동으로 철수
의정부

사단장에게 행동지침을 문의하자, 사단장은 "총참모장 명령대로 이행하라. 축석령에 가면 제3연대(-)가 있을 것이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때 제3연대(-)는 이미 축석령에서 철수하여 금오리 남쪽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5연대 제2대대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6월 26일 03 : 00에 금오리를 출발하여 축석령으로 향하던 중 그곳에서 적의 선두 부대와 조우하게 됨으로써 급편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 3) 제1연대의 동두천 탈환과 창동 지역 철수

#### (1) 제1연대(-)의 동두천 탈환명령과 연대 본부의 철수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사단장으로부터 반격 명령을 받고 작전주임 송성삼 대위를 대동하고 연대 집결지인 덕정초등학교에 도착한 것은 6월 26일 아침 06 : 00이었다. 이곳에서 함준호 연대장은 제1대대장과 제3대대장을 소집하여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에게는 혼성 1개 대대병력을 지휘하여 송내리－지행리(현 종이골)를 거쳐 동두천의 바로 남쪽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3대대장 김황목 소령에게는 용암리(덕정 북서쪽 2㎞)에 배치되어 있는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혼성대대와 병진하여 측방을 엄호하면서 서측에서 협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월 26일 한태원 중령이 지휘하는 혼성대대가 동두천을 탈환하였을 때,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덕정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때 함준호 연대장은 의정부에 적 전차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직동에 있는 연대본부로 달려가니 사단에서 동두천의 혼성대대(대대장 한태원 중령)를 창동으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와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14 : 00에 무전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는데, 이때는 아군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이때 사단 참모장(김종갑 대령)이 연대본부를 방문하고 사단사령부의 철수를 알렸다. 연대장은 즉시 연대지휘소를 우이동(북한산 동쪽 3㎞)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한 다음, 자신은 작전주임(송성삼 대위)을 대동하고 사단참모장 김종갑 대령과 함께 우이동으로 먼저 철수했다. 이때 연대본부에는 부연대장 이희권 중령의

지휘아래 주요문서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후 연대기를 휴대하고 송추와 교현리를 거쳐 우이동에 도착한 시간이 26일 21 : 00이었다.

우이동에 도착한 연대본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창동(북한산 동남쪽 6㎞)－우이동 간에 낙오자 수집선을 설치하고 철수병력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과 제3대대장 안민일 소령을 비롯한 4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여 창동 방어선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 (2) 혼성대대의 동두천 탈환과 제1연대(-) 철수

연대장으로부터 반격명령을 받은 혼성대대와 제3대대는 적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26일 08 : 00에 역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좌측에서 제18연대(-)가 제1연대와 병행하여 공격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동두천 탈환을 목표로 북진하였다. 한태원 중령이 지휘하는 혼성대대가 우일선 부대로 봉양리(덕정 동북쪽 3.5㎞) 북쪽의 299고지를 넘어 송내리(현 송리)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런 적정이 없었다. 혼성대대는 26일 10 : 00경 주력을 동두천 시내로 돌입하였으나 경계병 몇 명만이 산발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적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에 혼성대대는 특기할만한 교전이 없이 동두천을 탈환한 후, 소요산 진지를 목표로 진격하여 그 일대의 진지를 모두 회복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쉽게 동두천을 탈환하였으나, 동두천 서북쪽의 마차산을 점령하고 있는 제1대대(-)와는 연결하지 못하였다.

6월 26일 14 : 00에 함준호 연대장이 무전으로 “신속히 창동으로 철수하라”는 긴급명령이 혼성대대에 떨어졌다. 철수명령은 이날 13 : 00에 포천쪽으로 밀려든 북한군 제3사단이 축석령을 넘어 의정부로 들어온 데다 봉암리(동두천 서쪽 4㎞)로 진격한 제4사단의 일부 부대가 덕정을 돌파함으로써 내린 조치였다. 이때 혼성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철수하려고 하자, 장병들은 한결같이 철수를 반대하면서 38도선으로 진격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시 호(虎)부대로 불리고 있던 제1연대에는 서북청년단 출신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연대 병사들은 철수명령에 대해 “내가 38도선을 넘어올 때에 후퇴하려고 온 줄 아느냐? 죽어도 여기에서 죽자”라고 울부짖으며 철수에 반대하였다.

대대장 한태원 중령은 대대원들을 간신히 설득하였으나, 마차산의 김봉용 대위가 지휘하는 제1대대(-)와는 연결하지 못한 채 철수하여 17 : 00 덕정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혼성대대 500여 명의 병력은 저녁 무렵 옥정리를 거쳐 의정부를 향해 철수 도중 옥정리(의정부 동북쪽 10㎞) 부근에서 제9연대와 제3연대의 후퇴 병력의 일부와 합세한 후 21 : 00에 천보산(의정부 동북쪽 2㎞)의 북쪽 산기슭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혼성대대장 한태원 중령은 야음을 이용하여 의정부 시내를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분대병력의 수색대에게 천보산으로 올라가 적정을 탐색하도록 하고, 자신은 주력을 지휘하여 비석거리 부근으로 근접하던 중 7부 능선에서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불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정보관 이종윤 중위가 전사하고 어둠 속에서 대오가 무너져 병력이 분산되었다. 대대장은 가까스로 300여 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의정부 서쪽으로 우회하여 3번 도로를 넘어 녹양동에 이르러 직동에 위치한 연대본부에 수색병을 보내 연대기를 수습하게 하였다. 연대는 이날 14 : 00에 의정부를 떠나 창동 서쪽 3㎞ 지점의 우이동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후퇴하는 병력을 수용하고 있었다. 혼성대대는 녹양동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도봉산 서측의 송추에서 사단 공병소대와 합세한 후, 백운대 계곡으로 야간행군을 강행한 끝에 6월 28일 09 : 00에 우이동의 연대본부에 도착했다.

한편 26일 아침 좌측에서 함께 공격하기로 한 제3대대(대대장 김황목 소령)는 08 : 00에 용암리에서 출발하여 신천을 건넌 다음 동두천 서측으로 올라갔는데, 적정이 없어 선암리(덕정 북서쪽 3.5㎞)－하패리(덕정 북서쪽 6㎞)를 거쳐 신흥동(동두천 서쪽 1㎞)에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 진출선보다 서남쪽으로 4㎞ 떨어진 205고지(덕정 북서쪽 8㎞) 기슭에 긴 차량대열이 남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때가 12 : 20이었다. 이에 대대(-)는 진격을 멈추고 정찰대를 파견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입암리에서 하패리로 지향한 적의 기계화부대의 길이가 2㎞에 달하고, 연대규모의 도보부대가 덕정으로 통하는 316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 김황목 소령은 연대본부에 상황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무선이 두절되어 보고하지 못한 채 갑자기 상패리 부근의 측후방에서 규모 미상

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3대대(-)는 150명의 병력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중과부적으로 교전 30분만에 분산되고 말았다. 이때 대대장 김황목 소령은 소대병력을 지휘하여 덕정으로 나와 한태원 중령의 철수경로와 비슷하게 이날 밤 우이동으로 철수한 후, 연대장의 명에 의해 다시 북상하여 오봉산(의정부 남서쪽 5㎞, 도봉산 서쪽 1㎞)을 점령하였다. 부대대장 강완채 대위는 의정부 북쪽에서 천보산을 넘어 수락산－불암산－태릉으로 철수하였고, 제10중대장 김명환 대위는 도락산(덕정 서남쪽 4㎞)을 넘어 계속 능선을 따라 창동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처럼 제1연대는 동두천을 탈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됨에 따라 퇴로가 차단된 가운데 철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7일 12 : 00까지 창동－우이동 선에서 수용한 제1연대 병력은 400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최초 전방 경계임무를 담당했던 제2대대(대대장 이의명 소령)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 4) 제18연대(-)의 봉암리 역습과 한강 도하 철수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는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6월 25일 야간에 의정부 지역에 도착하여 의정부 부근 녹양동 일대에서 숙영을 하고 있었다. 6월 26일 반격에서 제7사단의 좌측을 맡은 제18연대는 봉암리(동두천 서쪽 4㎞)를 탈취하기 위해 05 : 30에 숙영지인 의정부를 출발하여 중간 집결지인 덕정에 09 : 00에 도착하였다.

제18연대는 덕정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26일 10 : 00에 제2대대(대대장 소령 장춘권)를 선두부대로 하여 공격에 나섰다. 제2대대는 316번 도로를 따라 봉암리 바로 남쪽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제3대대(대대장 안민일 소령)를 후속시켜 방축골(용암리 서쪽 마을) 삼거리에서 서쪽의 상수리(현 상다리, 효촌저수지 동남쪽 1㎞)－입암리로 우회하여 측방에서 협공한 후 북서쪽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제18연대(-)는 특별한 상황 없이 12 : 00에 선두부대가 덕정 북서쪽 4㎞에 위치한 은현초등학교를 지날 때 제18연대장은 제7사단장으로부터 “현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라”는 긴급명령을 무전으로 받았다. 연대의 갑작스러운 임무 변경은




제18연대가 배치된 신천교 일대

6월 26일 10 : 00에 제1연대가 동두천을 탈환하였으나, 적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우익에서 반격하던 제2사단이 축석령에서 고전을 치른 끝에 사령부가 위치한 금오리가 피탈되어 의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됨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 그 결과 의정부－포천 축선의 국군은 공격보다는 의정부 방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18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후, 곧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선두부대인 제2대대로 하여금 현 위치에서 용암리－157고지 간에 급편진지를 편성하도록 하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서측으로부터 항동(덕정 서쪽 5㎞)까지 이르는 도하리(덕정 북서쪽 5㎞) 일대에 13 : 00까지 방어편성을 완료하였다. 제2대대는 제6중대와 제7중대를 방어정면의 좌우 제일선에 배치하고, 제3대대는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전방에 배치하여 도하리 일대를 방어하게 됨으로써 연대(-)는 도락산(440고지, 덕정 남서쪽 4.5㎞) 북쪽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18연대(-)가 의정부 서북쪽에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있을 때인 26일 14 : 00에 제2대대에서 “지금 입암리에서 변암동(현 갓바위장터, 덕정 북서쪽 6.5㎞)

으로 통하는 도로상에 적 기계화부대가 나타났는데, 그 장정이 2㎞를 넘는 듯하며 전차가 선두에서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 임충식 중령도 북한군의 각종 차량 300여 대가 보병의 엄호도 없이 진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18연대 수색대와 2.36″로켓포반으로 편성된 별동대가 변암교를 넘어서는 적 선두차에 집중포격을 가했다. 별동대는 이날 공격에 앞서 부연대장 한신 중령이 직접 편성하고 지휘하여 부대의 선도와 대전차 엄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수세로 전환함에 따라 여기에 잠복하고 있던 중 적 기계화부대가 밀려들자 일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별동대의 공격은 적 전차의 집중 포격으로 일거에 무너지고 적은 계속하여 덕정을 향해 진격하였다. 제18연대장은 적 기계화부대를 통과시킨 후 후속하는 적 보병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적 도보부대는 제1연대 제3대대(-)와 교전을 벌인 후 신천 강변의 야지를 횡단하여 덕정으로 진출하고, 기계화부대만이 316번 도로를 따라 덕정으로 진출하였다.[82]

제18연대(-)는 기계화부대가 통과한 후 진지를 조정하여 제2대대 1개 중대를 316번 도로 북쪽의 용암리에 배치하였다. 26일 16 : 30에 적 우마차부대가 엄호도 없이 동남진하고 있었다. 이에 제2대대 제6·제7중대가 300m 전방까지 적을 기다렸다가 공격하여 12대의 우마차에 가득 실린 전차 포탄을 노획하고, 총위 1명을 비롯하여 소위 1명과 하전사 11명을 생포하여 연대로 보냈다.

그러나 이 무렵 사단사령부는 의정부에서 창동파출소로 이동함으로써 교신이 두절된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적정도 모른 채 현지에서 야간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때 연대장 임충식 중령은 부연대장 한신 중령과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 그리고 작전주임 고광도 소령 등과 대책을 숙의한 끝에 의정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단독 철수를 결정하였다. 철수는 의정부 서측을 멀리 우회하여 고양을 지나 서울 서북쪽의 구파발 부근에 집결한 후, 다시 상황을 보아 행동하기로 하였다. 연대는 6월 27일 01 : 00부로 제2대대장과 제3대대장에게 "고양을 경유하여 삼송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8연대(-)는 2개 제대로 편성하여 철수하였다. 연대가 철수할 지역은 제1사

단 책임구역으로 사전에 협조를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양호한 도로를 따라 남진하게 되었다. 연대본부와 제3대대(대대장 안민일 소령)는 27일 02 : 00에 도하리를 출발하여 광적면의 오산리(의정부 북서쪽 9㎞)를 경유하여 석현리(의정부 서쪽 10㎞)를 거쳐 일영리(남서쪽 11㎞)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고, 28일 08 : 00에 삼송리(구파발 서북쪽 2㎞)에 도착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장춘권 소령)는 현지를 출발하여 가납리－비암리－광탄면의 동거리로 이어지는 서쪽 도로를 따라 18 : 00에 동거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28일 새벽에 다시 고양을 경유 삼송리로 철수하여 28일 09 : 00에 삼송리에서 연대의 주력과 합류하게 되었다.[83]

삼송리에 집결한 제18연대(-)는 이곳에서 연대장 임충식 중령을 비롯한 부연대장 한신 중령,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 제3대대장 안민일 소령, 인사주임 이병형 대위, 작전주임 고광도 소령 등은 28일 새벽 미아리 전선이 무너지고 적 전차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부연대장 한신 중령은 “서울로 직행하여 남산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중대단위로 분진하여 시가전을 전개하자”고 건의하였고, 인사주임 이병형 대위는 “지금 실탄이 부족하고, 시가전을 하기 위해 병력이 흩어지면 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행주에서 도하하여 한강선 방어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84]

이때 제1사단이 봉일천에서 고양 남쪽으로 철수한다는 보고를 받고, 제18연대장은 한강을 도하하기로 결정하고, 인사주임 이병형 대위에게 행주에 먼저 가서 도하지점에 대한 정찰과 선박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6월 28일 밤 제18연대(-)는 행주나루터에서 김포반도로 도하하게 되었다.[85] 이로써 제18연대(-)는 제7사단에 배속된 후 덕정 부근에서 전투를 치르고 3일 만에 한강을 도하하여 김포반도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 5. 의정부의 함락과 철수

의정부－포천 축선의 방어임무를 책임지고 있던 제7사단사령부는 6월 26일 정

오경 금오리 전선이 무너진 뒤 불과 1시간 사이에 퇴로가 막히고, 사령부 광장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이때 유재흥 사단장은 동쪽 전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곡교 부근으로 나오다가 퇴로가 차단된 사실을 알고, 사령부로 돌아가 참모장 김종갑 대령에게 지휘소를 창동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작전참모(이영규 중령)을 대동하고 먼저 의정부를 빠져나왔다. 사단장은 3번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서쪽의 직동고개를 넘어 송추에서 다시 우이동 계곡을 돌아 26일 17 : 00에 노해면지서(현 창동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사단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인사참모 백태신 소령과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 등 사령부 요원을 지휘하여 직동의 제1연대본부로 지휘소를 옮긴 다음, 여기에서 연대장 함준호 대령과 함께 26일 19 : 00에 노해면지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군수참모 윤영모 소령은 의정부역에서 병력 수송과 보급물자 정리에 힘써 화차 1량은 청량리로, 1량은 창동으로 각각 회송시키고 가동되는 모든 차량편으로 부상병을 후송하다가 적 전차가 진입하자 3번 도로를 따라 창동으로 철수하여 사령부에 합류했다. 이리하여 사단사령부는 26일 19 : 00부터 어느 정도 참모기능을 되찾고 창동방어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 6.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제1연대는 전쟁 이틀 전부터 38도선 북쪽의 운천－연천－전곡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상의 집단병력이 수시로 기동하고 차량 빈번히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와 전날 밤 제9연대의 전방의 북한지역의 유정리 북쪽의 43번 도로 상에 30여 대의 전차 출현 보고에 따라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하면서도 계속 적의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 외출외박을 실시하지 않던지 아니면 최소한 20㎞ 후방에 있는 연대주력을 전방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또한 포병 부대를 전진 배치하여 개전 초기부터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적 징후에 입각하여 전쟁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기시키지 않아 출동시간이 늦어졌다. 이러한 조치만 이루어졌더라도 조직적인 전투를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전쟁발발 후 연대 방어책임구역인 21㎞의 광정면에 연대 예비인 2개 대대(-)가 긴급 출동하여 급편 방어태세를 취했으나, 도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기동력마저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적의 돌파에 대비한 기동예비대가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돌발사태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넷째, 근본적으로 사단에서는 적의 돌파에 대한 예비대가 확보되지 않았고, 적 전차 방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충지에 대전차호를 비롯해서 대전차방벽, 도로 대화구 등을 구축하지 않았고, 교량거부대책에 대해서도 수립되지 않았다.

##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전쟁이 일어나자 사단 차원의 초동단계 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단에서는 어느 전방 사단보다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연대장 및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사단장과 연대장은 개전 초기 단계부터 지휘소에 위치하여 부대를 지휘하였다.

사단장은 25일 06 : 00 이전에 전선 상황을 당직사령으로부터 자택에서 보고받았다. 이후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여 육군본부에 사단 상황 및 지원 사항을 보고하고 사단참모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방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필요한 전방 방문을 하지 않고 계속 사령부 내에서 전장을 지휘

함으로써 전선부대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병력 투입은 집중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의정부 함락에 따른 철수과정에서도 후방에 위치한 사단에서 현재 적정을 알려주고 전방부대의 조직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지휘관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적정도 모른 채 후방으로 철수하는 전방부대는 많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제1연대장도 전쟁이 발발하자 전방경계부대인 제2대대 본부인 동두천으로 가서 전황을 파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출동부대에 대한 명확한 임무를 주지 않아 제1대대(-)는 전선상황과 관계없이 대대 거점인 마차산 정상을 점령함으로써 전방에서 가장 병력이 시급한 시기에 유휴 병력이 되었다. 즉, 제1대대(-)가 마차산의 정상에 배치됨에 따라 연대로서는 병력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에 유휴 병력이 되어 상호 연결된 작전을 전개할 수 없었다. 또한 철수시에도 후방 상황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전방 철수 부대가 보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동두천을 탈환했던 제1연대의 혼성대대는 전투에서 보다 철수간 적이 이미 점령한 의정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특히 고지위주 병력 배치로 북한군 전차 및 도보부대가 국군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공격함으로써 유휴 병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혼합편성으로 지휘체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축차적 병력 투입 및 무모한 역습으로 인해 전투력을 조기에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적의 공격 속도에 맞추어 유리한 방어진지를 선정하여 이곳에서 충분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협조된 방어를 실시하였더라면 적의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적 전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조기에 두절이 됨으로써 인접 및 상하부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지 위주병력 배치 축차 투입으로 지휘체제에 대한 혼란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비되지 않은 방어진지에서 제대로 통합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방어에 실패하게 되었다.

### (2) 정 보

사단에서는 적의 공격 징후를 예의주면서 이에 대한 첩보 수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6월 23일부터 38도선 북쪽의 운천-연천-전곡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상의 집단병력이 수시로 기동하고 차량 빈번히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24일 21 : 00에는 "유정리 북쪽의 43번 도로상에 30여 대의 전차가 나타났다"는 첩보에 따라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또한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배속된 보국대대(報國大隊) 제2중대를 운천 지역으로 파견하여 적정을 탐색하는 등 일련의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수집에 따른 적 공격 징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비한 실질적인 점검이나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병력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차량이 없어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과오를 빚기도 하였다.

전투간에도 증원병력을 전방으로 기동시킬 때에는 수색대나 정찰대를 파견하여 적정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나 사단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선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킴으로써 국군의 증원병력이 투입될 지역이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에서 국군은 많은 혼란과 적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국군은 조기에 전투력을 소진하게 되었고, 이는 차후 병력운용에 융통성 결여를 가져오게 하였다.

### (3) 기 동

작전부대는 결정적인 속도와 압도적안 작전템포로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전투력을 이동시키거나 배치시켜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전 초기 모든 전선에서도 그렇듯이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에서도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전투준비를 갖춘 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투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예비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 주력의 주저항선 진지 투입이 지

연되고, 건제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를 혼합 편성하여 축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국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적에 대한 대기동차원에서 대전차 대비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적 전차에 대한 장애물 운용에는 대전차호, 대전차방벽, 도로대화구 구축, 그리고 교량 파괴와 같은 거부대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단 및 연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물론 사단 작전 계획상에는 대전차호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쟁 전까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전쟁 후에도 사단공병대는 적 전차 파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투 중 의정부 지역에는 육군공병학교의 대전차특공대가 지원을 나왔다. 그러나 당시 뇌관이 전기식이 아니라 비전기식이라 사전 전차 접근로에 전차파괴용 폭탄을 설치하고서도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 전차가 지나가거나 오기 전에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86] 또한 동두천 축선에는 교량이 16개나 있었음에도 교량에 대한 거부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 (4) 화력 운용

통합 화력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야포를 비롯한 제반 화기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하지 못하고 분산 운용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사단 포병에 대한 전시편성 및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전쟁발발 후에야 비로소 의정부에서 전선지역으로 출동하게 됨으로써 개전 초기 포병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다.

사단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1개 포대를 동두천 지역에 추진하여 제1연대를 직접지원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에 추진된 제2포대는 효과적인 포병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탄약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포가 있음에도 적시적인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뒤늦게 추진된 탄약마저도 작전에 필요한 고폭탄이 아닌 백린연막탄이어서 효과적인 화력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5) 방 호

전쟁 이전 38도선 경계진지 및 주저항선 진지에 교통호가 구축되었다. 즉, 경계진지에는 4~6개 정도의 유개호가 구축되었고 나머지 진지에는 개인호와 교통호만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당시 전장 사단에서는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초기 적의 포병에 의한 공격준비사격에 38도선상의 경계진지는 초토화됨으로써 국군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차후 방어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전투근무지원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제반근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전투수행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 당시 국군에게는 이러한 전투근무지원이 제대로 이우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개전 초기 국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실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방대대에서는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대에서는 수송차량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제1연대를 화력지원하고 있는 제2포대는 포탄이 떨어져 그 어느 부대보다도 포탄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또한 시차별로 복귀한 병력에 대한 혼합 편성으로 지휘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사단에서는 저장연료 200드럼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기동 및 통신장비의 입고로 인해 전쟁 초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 수송 및 보급, 그리고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당시 국군은 보유차량의 40%를 입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력 및 탄약 수송을 위한 차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 제 4 절 운천-포천-의정부 전투

## 1. 전투 개요

운천-포천-의정부 지역은 적 제1군단의 주공이 지향된 지역으로 북한군은 이 지역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하였다. 운천-포천-의정부 전투는 국군 제7사단 제9연대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3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2개 전차연대를 맞아 싸운 공방전이다.

이 전투는 국군 제9연대가 6월 25일 11:00 포천이 먼저 적 기계화부대에 의해 피탈되고, 이어 연대의 주저항선(천주산과 가랑산 거점)이 붕괴되면서 16:00경에 적 도보부대에 의해 다시 포천이 점령되면서 연대가 분산 철수까지를 다루고 있다. 연대(-)는 적 주공을 맞아 교전하다가 25일 주저항선이 붕괴되면서 야간을 이용하여 일단 광릉으로 철수한 후 다음날 다시 태릉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교전과정에서 전쟁 당일인 25일 분산되어 후방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제9연대의 방어지역은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 제2사단(-),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 및 서울시경찰대대, 그리고 재경지역의 포병학교 교도대대가 26일 의정부가 함락될 때까지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전투과정에서 제일 먼저 증원된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를 비롯하여 제2사단(-)이 적정을 모른 채 축차적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방아체계를 갖추지 못한데다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세에 밀려 축석령-금오리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이어 국군은 백석천에서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47번 도로상의 내촌에 배치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와 서울시경 경찰대대도 26일 적의 공격을 받고 태릉으로 후퇴하여 그곳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포천축선의 패전 책임을 물어 총참모장으로부

터 사단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대신 이 지역에 대한 지휘권은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이 의정부가 함락된 26일부터 제7사단과 제2사단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 2.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적의 공격제대 및 아군부대 배치

북한군 제3사단의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편성되었다. 제1제대인 제7보병연대는 1개 기관총중대(-1), 1개 전차중대, 1개 자주포대대(-1), 1개 공병중대와 함께 영평－광평(영평 동쪽 3㎞) 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9보병연대는 1개 기관총중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 예하 1개 중대, 1개 전차대대(-1), 독립공병대대 예하 1개 중대, 공병대대 예하 1개 공병중대(-1)와 협동으로 선내지리(광평 동쪽 4㎞)－원평(산내지리 동쪽 8㎞, 연곡리 부근) 선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87] 그리고 제105전차여단의 제107전차연대는 주공연대인 제7연대를 후속하다가 전쟁 2일차에 포천－의정부－서울 동북쪽으로 진출하도록 하였고, 제109전차연대는 조공연대인 제9연대를 후속하다가 일동－서파－서울 동쪽으로 진출하여 신속히 한강상의 교량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반해 국군 제7사단의 포천지역은 윤춘근 중령이 지휘하는 제9연대가 추동리(포천 서북쪽 11㎞)－사직리(기산리 동북쪽 5㎞)간의 26㎞의 책임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김화－운천－포천을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43번 도로를 중앙에 두고 동쪽의 광주산맥과 서쪽의 천보산맥이 종으로 뻗어 내린 지대로서 정상적으로는 2개 사단의 방어 정면에 해당되었다.

이 방어정면을 3,4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제9연대가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7전차연대 및 제109전차연대와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제9연대도 1개 대대가 38도선 경비를 담당하고, 2개 대대는 38도선에서 26㎞ 후방에 위치한 연대본부가 위

치한 금오리에서 소부대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방경비를 맡은 제2대대는 전 정면에 대한 배치가 어려워 주요 길목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거점 방어위주의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대대(대대장 전순기 소령)는 전쟁발발 2일 전인 6월 23일에 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대대는 본부를 포천에 두고 제7중대(중대장 송영환 중위)를 우측 경계부대로 43번 도로와 38도선이 접하는 양문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제6중대(중대장 이인호 대위)는 좌측 경계부대로 서쪽의 325번 도로가 영평천에 이르는 가양리와 추동리 지역에 배치하였다. 제5중대는 예비로 4㎞ 후방의 신평리(만세교 서쪽) 지역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제2대대의 실제 병력이 배치된 지역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 19㎞의 산악지형과 야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동쪽의 기산리 북쪽의 47번 도로(전쟁당시 391번) 상에는 1개 분대의 수색대를 동초(動哨)로 운용하고 있었다. 한편 보국대대 제2중대(중대장 박창암 중위)가 24일부터 38도선 북쪽의 유정리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대와는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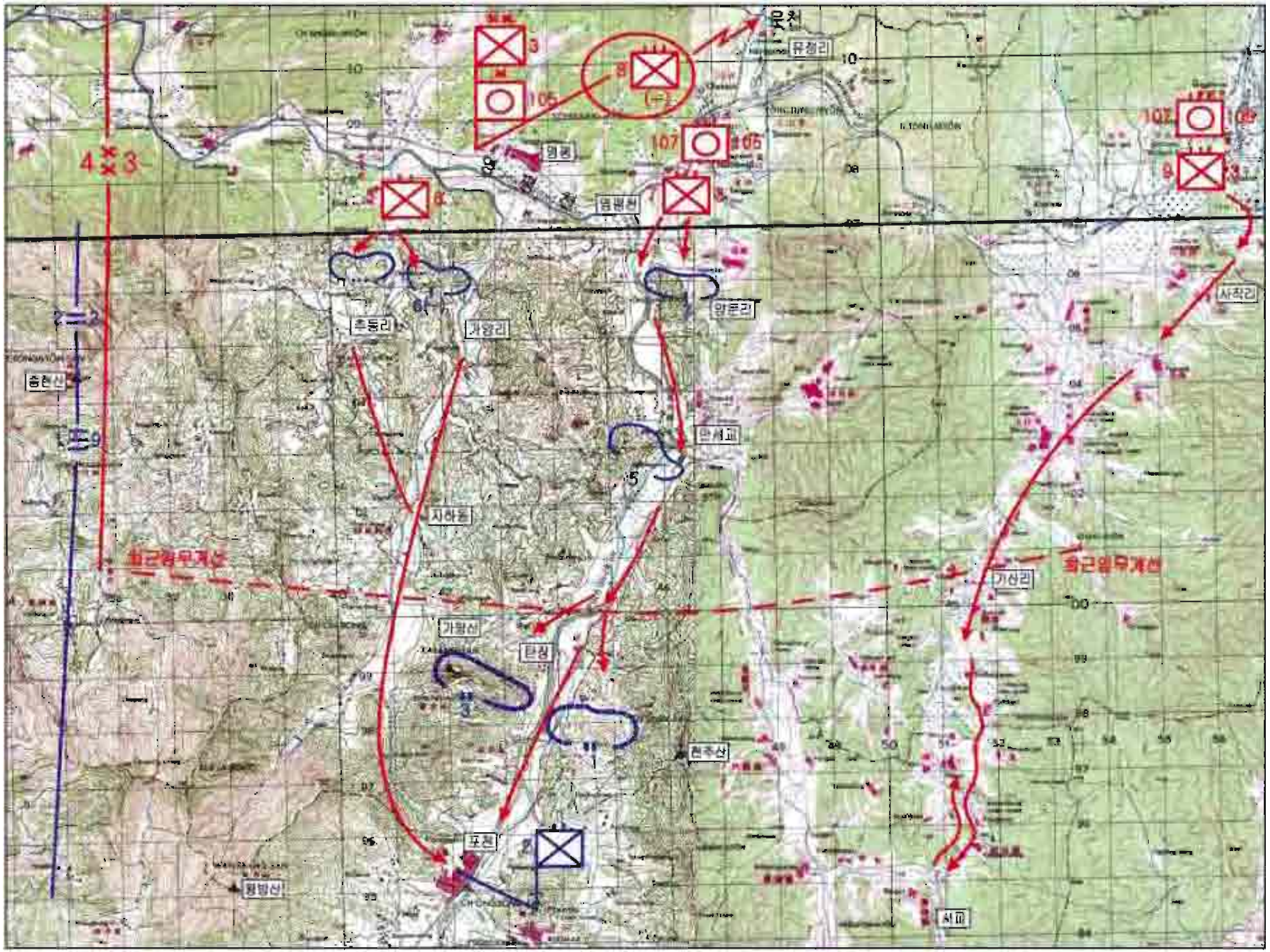
전쟁 당일 연대는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전 장병이 영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연대의 이러한 조치는 1주일 전부터 철원에 기갑부대가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었고, 북한군 정규군이 38경비대와 교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23일 밤에는 제2대대장으로부터 운천에서 차량대열이 유정리로 이동하고, 영평천 부근에서는 전차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나서 취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로 연대 주력은 금오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제2대대는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 새벽에 북한군 제3사단은 강력한 포병준비사격으로 아군 방어진지를 초토화시킨 다음 전차를 동반한 보전 협동공격으로 38도선을 넘어 진격을 개시하였다.

### 2) 경계진지 전투

제2대대(대대장 전순기 소령)는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전방 경계지대에 배치

<상황도 4-5> 제9연대 경계진지 전투


원천
유정리
염평
염평선
안룡리
사직리
흔동리
가양리
만세교
지하동
승천산
최근방무계선
최근임무계선
가산리
가방산
단장
현주산
포천
청방산
신교



38도선에서 바라본 양문리지역 북한군 전초진지

하였다. 대대는 최근 적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고려하여 중화기중대에서 1개 기관총 소대(기관총 1개 반과 81㎜ 박격포 2문)를 가각 배속해 주었다. 또한 중화기 중대(-2)는 예비인 제5중대 진지 동쪽에 배치하여 만세교에서 자하동으로 통하는 43번 도로상에 경계 중점을 두고 제7중대 화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

북한군은 6월 25일 03 : 40을 전후하여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사전 총참모부의 정찰명령과 전투명령에 따라 국군의 전방경계진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경계진지만을 골라 집중포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측의 제7중대 지역에서는 양문리 일대와 그 서쪽의 287고지 북쪽에 적의 포병화력이 집중되었다. 좌측의 제6중대 지역에서도 추동리-가양리 지역이 집중 포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122㎜ 및 76㎜ 야포, 120㎜ 및 82㎜ 박격포, 대전차포를 이용하여 국군 방어지대 후방의 3~5㎞ 지역까지 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의 30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은 기관총진지를 제외한 모든 교통호가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국군의 방어체계를 화력으로 무너뜨린 북한군은 04 : 30에 공격준비사격을 연신(延伸)하면서 전방 2개 중대의 방어전면으로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왔다. 먼저 제7중대 정면에서는 양중교(일명 삼팔교)를 통과한 적 전차 3대가 양문교 부근까지 진출하여 제1소대의 진지를 강타하였고, 보병은 서쪽의 희락사 부근으로 침투하여 제1소대진지를 완전히 유린하였다. 그 결과 제1소대는 30분간의 교전 끝에 과반수의 병력을 잃고 분산되었다.[88] 그 결과 제7중대는 43번 도로를 적에게 빼앗기고 823고지 서쪽 능선으로 후퇴하여 분산병력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진지공격을 중지하면서 전차를 선두로 만세교로 직행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거사리에서 포천강을 건너 금화봉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좌측의 제6중대(중대장 이인호 대위) 제3소대(소대장 성일영 소위)도 추동리에서 한 차례 교전을 하였다. 그러나 장자동(38선 남쪽 3㎞)으로 집결한 중대(-)는 그 서남쪽의 삼차로에서부터 287고지를 연하는 선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325번 도로를 따라 침공한 적 전차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고 말았다. 이에 제6중대는 적의 전차가 그 남쪽 2㎞ 지점의 장승거리(만세교 서쪽 5㎞, 38선 남쪽 4㎞)를 넘어서자 분산병력을 수습하여 무이산(포천 북쪽 7㎞)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대대본부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상황을 모른 채 포천 방향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2㎞ 후방의 포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대대장 전순기 소령이 전선의 위급한 상황을 연대장에게 증원 병력과 대전차 화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대장은 제8중대장(박기순 중위)를 대동하고 만세교 초소로 올라갔다. 06 : 00에 이곳에 도착한 제2대대장은 곧 예비인 제5중대에게 북만세 좌우측방의 160고지와 208고지를 연해 저지진지를 급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증원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이미 양문교를 넘어 만세교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의 소총으로는 적 전차를 저지할 수 없었다.

### 3) 주요 조치

제9연대장 윤춘근 중령은 25일 04:30경에 남침 상황을 보고받았다. 연대장은 38도선 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제2대대장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았다. 연대장은 곧 사단에 지휘보고를 함과 동시에 연대에 비상발령을 하달했다. 연대에서는 연대본부와 함께 금오리에 위치했던 제1대대와 제3대대에게 천주산(434고지)-가랑산(350고지) 간의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대대에게는 현 위치에서 최대한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대에서는 예비인 2개 대대가 출동준비를 하는 동안 57㎜ 대전차포중대장(허헌 대위)에게 만세교(38선 남쪽 4㎞)로 직행하여 적 전차를 저지하도록 하였고, 2.36″로켓포 12문을 집결하여 만세교 부근의 중요 지점을 방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대전차포중대는 포를 견인할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포 3문을 지프차로 끌고 갔다. 뒤이어 2.36″로켓포가 20여 발의 탄약을 휴대한 채 후속하였다.

이때 제1대대와 제3대대는 05:30까지 탄약과 비상식량을 지급받고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병력을 수송할 차량이 없어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연대에서는 100여 드럼의 연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이 수리를 위해 반납되었고 겨우 2 1/2톤 5대만 연대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23㎞ 전방의 주저항선 진지로 2개 대대 병력을 동시에 수송하기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먼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을 출발시킨 후 나머지 병력은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후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헌병을 의정부 시내로 파견하여 차량을 징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당직계통으로 북한군의 남침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단에서는 먼저 사단포병인 제5포병대대(대대장 이규삼 소령) 2개 포대를 포천방면의 제9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포대는 동두천 방면의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다.

육군본부에서도 11:00부로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연대장 이상근 중령)를 제7사단에 배속시켰다.[89] 이어 육군포병학교 대전차포 2개 중대와 기갑연대 장갑

차 1개 소대를 지원해 주었다.[90] 이후 포천(38선 남쪽 12㎞)이 함락되자 대전에서 북상중인 제2사단(사단장 이형근 준장)을 의정부 전선에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포천 동측의 서파-기산리 간에 노출된 제7사단의 동측방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날 13:00부로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대대와 군에 배속된 경찰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들 부대는 내리(태릉 동북쪽 20㎞) 부근의 47번 도로에서 적을 저지할 것을 명령하였다.[91] 포병학교(교장 대리 김계원 중령)의 제2교도대대(대대장 김풍익 소령)도 이날 22:00부로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제2사단을 지원하가 위해 출동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 3. 주저항선 전투 : 만세교-포천 전투

### 1) 제9연대(-)의 출동과 만세교 부근 지연전

연대 주력은 25일 09:00에야 주둔지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연대에서 경계부대인 제2대대에 대한 지원은 대전차포 3문과 로켓포 12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는 4시간 동안 홀로 싸우고 있었다. 제2대대는 전방의 분산병력을 수습하면서 북만세의 급편방어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08:00경을 전후해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43번 도로를 따라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208고지 북쪽에 배치된 제5중대 제2소대(소대장 이학봉 소위) 진지에서 기관총 사격 등 중대의 모든 가용한 화력으로 적 전차에 공격을 가하였으나 파괴시키지 못하였다. 이때 연대에서 급파된 대전차포 중대(-)가 만세교에 도착했다.

3문의 대전차포를 인솔해 온 대전차포 중대장은 만세교 남쪽 20m의 도로변에 대전차포를 방열하였다. 대전차포 중대장은 적 전차가 50m 전방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첫 탄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그러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대전차포진지에 대해 전차포 사격을 가하며 계속 공격해 왔다. 이에 병사들은 할 수 없이 포의 조준경을 빼들고 벌말(포천 북쪽 5㎞)쪽으로 급히 철수하기에



북한군 전차포 사격에 의해 파괴된 국군의 만세교 대전차호 콘크리트 진지

이르렀다.

적 전차가 만세교를 지나 포천 방향으로 진출하자 이번에는 신대(탄장 북쪽 2.5㎞, 현 새터) 부근에 잠복해 있던 2.36″로켓포 특공대가 선두에 나타난 적 전차 2대에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차의 기관총 사격으로 국군은 피해만 입게 되었다. 북한군은 이 기세를 이용하여 국군의 신대 저지선을 돌파한 후 계속 탄장선으로 진격하였다. 이때가 09 : 40경이었다.[92]

### 2) 제1대대의 주저항선 전투

경계부대인 제2대대는 북만세 진지가 돌파된 후 퇴로가 차단되어 조직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고 각개 분산된 채 남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대대는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또한 병력들은 아무런 지휘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어 왕방산(737고지, 포천 서쪽 4㎞) 기슭을 따라 의정부 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나중에 연대에서 수용된 제2대대 병력은 겨우 30명에 불과했다.



국군의 주저항선인 가량산 거점(제9연대 제1대대)

한편 적 전차가 신대(현 새터)를 통과하여 탄장(포천 북쪽 4㎞)으로 진출할 무렵 내촌리 부근에서 유환박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2)가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제1대대(-2)는 05 : 00경에 비상과 함께 출동준비를 신속히 갖추었다. 그러나 차량 부족으로 출동이 지연되자 대대장이 81㎜ 박격포 3문과 제3중대 병력 100명을 지휘하여 대기 중인 차량 5대로 출동하였다. 제1대대(-2)는 포천을 지나 만세교로 북상하여 탄장 북쪽 1㎞ 지점의 내촌리 부근에 이르렀다. 이때 적의 포격이 심하여 이곳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적 전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제1대대(-2)는 제3중대(중대장 최춘삼 중위)를 219고지(탄장 동북쪽 1.5㎞) 서쪽에 매복시키고, 1개 박격포반을 바로 그 서쪽 계곡에 방열시켰다. 그 후 벌말(포천 북쪽 5㎞) 부근에서 보병의 엄호도 받지 않고 적 전차 2대가 제3중대 방어정면으로 접근함에 따라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였다. 이에 적 전차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몇 차례 기총사격을 한 후 만세교 방향으로 되돌아갔다.[93] 제1대대(-2)가 적 전차를 물리친 후 대대 주력이 탄장에 도착하였다. 제1중대장(이재현 중위)이 인솔하여 온 대대 주력은 의정부에서 징발한 민간차량 12대에



편승하여 이동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대대는 전 병력(650명)이 합류함에 따라 대대장 유환박 소령은 연대 지시로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25일 아침 전공을 세운 제3중대에서 1개 소대를 선발하여 219고지 서쪽에 배치하여 전초부대로 운용하였다. 대대(-)는 천주산(424고지) 서쪽의 195고지 일대의 주진지를 점령하였다. 대대장은 제1중대와 제2중대(중대장 유병준 중위)를 좌우 제일선으로 삼아 그 북쪽에 배치하였다. 제3중대(-)는 43번 도로에 연한 서측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중화기 중대는 바로 그 남쪽 계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때 연대장(윤춘근 중령)이 제1대대 진지에 도착하여 사단 포병인 제5포병대대(대대장 이규삼 소령)의 2개 포대가 포천에서 화력지원태세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연대의 주저항선인 이곳 탄장선(천주산—가랑산간의 주진지)에서 적을 기필코 저지 격멸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 무렵 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도 도착하였다. 제3대대는 바로 신북대교 서측의 가랑산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0중대(중대장 임윤선 중위)를 우측 제일선으로 동쪽 산기슭에, 제9중대(중대장 최규관 중위)를 좌측 제일선으로 그

북쪽 산기슭에 배치하였다. 제11중대(중대장 대리 이창수 중위)는 오장동(가랑산 남쪽 1㎞) 가랑산마을에 배치함으로써 제3대대는 43번 도로 서쪽에서 연대의 좌측 전방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대는 적이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천주산－가랑산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때 적은 아군의 주방어선과 후방의 포진지까지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제9연대(-)는 적의 강력한 포병사격과 제2대대의 전력이 상실된 불리한 상황에서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탄장선에서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 3) 적 기계화부대의 선공과 포천 점령

북한군 제3사단은 이날 새벽 38도선을 돌파하여 4㎞ 남쪽의 만세교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10 : 30경에 북한군은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3사단 제7연대(연대장 대좌 김창봉)가 43번 도로를 따라 정면공격을 실시하였다. 제9연대는 1개 대대를 서측의 325번 도로로 우회시켜 포천을 양익포위로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3번 도로에 포병 화력을 집중하면서 전차부대를 선두로 국군 주저항선의 중앙지대를 돌파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제9연대(-)는 43번 도로 양측방의 천주산과 가랑산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력이 부족하여 서측방에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아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대(-)에서는 적 전차에 대한 대비책으로 2.36˝ 로켓포를 신북대교(포천 북쪽 4㎞) 부근에 중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5포병대대(-1)의 표적을 도로상에 선정하여 적 전차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촌리(신북대교 북쪽) 부근에서 적 전차 2대가 백기를 단 채 후속부대도 없이 출현하였다.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에서 집중사격을 가하고 포병도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국군 방아 지역으로 유유히 다가왔다. 그러자 진중에서 '투항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3대대장이 사격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연대장(윤춘근 중령)도 정보과 선임하사관에게 "가서 안내하라"고 지시하였다. 명령을 받은 선임하사가 도로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투항을 가장했던 적 전차가 기총사격을 가해 왔다. 그 결과



구 신북대교
신북대교 하단에 우회가능한 기동로, 이 지역을 통과하여 북한군 전차와 도보부대가 포천으로 진입했다.

제9연대는 피해만 입고 적 전차를 격파하기에 좋은 위치를 잃고 말았다.

이후 적 전차는 선두 전차 8대를 포함하여 수많은 전차 및 차량이 후속하여 내려오고 있었다. 선두 전차가 신북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매복해 있던 제3대대 제10중대 로켓포 사수가 제1탄을 발사하여 궤도에 명중시켰다. 적 전차가 도로변으로 미끄러지자 후속하던 전차들이 동시에 멈추면서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로켓포 진지에서 다시 제2탄과 제3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종대는 돈좌된 선두차를 관개수로로 밀어버리고 전차포 사격으로 로켓포 진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신북대교를 통과하여 연대 주저항선의 중앙지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94]

북한군은 국군의 보병화력이나 105㎜ 포병사격에도 끄덕하지 않고 포천으로 직행하였다.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국군 제1대대와 제3대대 장병들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병사들이 불안해하며 동요하게 되자 연대장은 병사들의

전의를 북돋우며 후속하는 적 보병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진지를 보강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때 사단사령부와 좌측에 배치된 제3대대와 유무선이 두절되었다. 연대에서는 사단과는 연락장교를 이용하였고, 대대와는 전령을 이용하여 연락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효는 없었다.

국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 기계화부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11:00에 포천을 점령하였다. 북한군 제9연대(연대장 대좌 김만익)는 가랑산 서쪽의 원수봉(속칭 무럭고개, 포천 북서쪽 2㎞)으로 우회하게 되자 포천에 배치되었던 제5포병대대(-)는 어룡동(포천 남쪽 3㎞)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9연대(-)도 퇴로가 차단되면서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 4) 주저항선에서 철수

북한군 전차부대가 국군의 주저항선 방어지대 중앙을 통과하자 제9연대(-) 장병들은 후속하는 적 도보부대만은 기필코 격멸할 것을 다짐하며 진지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기계화부대가 국군의 주저항선을 통과한 지 1시간 후에 보병부대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보병부대들은 공격에 앞서 제9연대 방어지대 중 특히 제1대대 진지인 천주산 서쪽에 대해 122㎜ 및 76㎜ 야포와 120㎜ 박격포로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43번 도로를 따라 이열종대로 진격해 왔다. 이때 사단포병인 제5포병대대(대대장 이규삼 소령)는 적 전차의 포천 점령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포병대대(-)는 보병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0여 명의 적들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은 채 주저항선 방어전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탄장(포천 북쪽 4㎞) 남쪽 400m의 'ㄷ'자 회랑으로 접어들자 제1대대장 유환박 소령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동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은 선두부대가 흩어지면서 동남쪽 능선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2중대(중대장 윤병준 중위)의 제3소대(소대장 김주태 소위)가 219고지 서쪽에서 측방사격을 실시하고, 제3중대(중대장 최춘삼 대위)의 제2소대(소대장 차규헌 소위)와 제3소대(소대장 김일기 소위)가 195고지 중턱에서 계곡과 능선하단에서 우왕



방어진지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43번 도로 접근로

좌왕하는 적을 강타하게 되자 그들은 탄장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후속부대는 현지에서 산개한 채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5일 12 : 00에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제1대대 진지를 포위하고, 주력으로 중앙돌파를 기도하여 43번 도로 양측방에서 공격하여 왔다. 이에 제1대대와 제3대대는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2 : 40경에 측후방에서 적 전차 4대가 나타나 위협사격을 가하자, 양 대대의 진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적 전차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은 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의 일부 병사들은 이때부터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선두가 신북대교를 통과하면서 제3대대와 통신이 두절되었다. 제1대대도 세 차례의 교전에서 휴대 탄약이 모두 소모된 데다가 전사 42명과 부상 80여 명이 발생하자 사기가 떨어졌다. 이로써 적 전차의 엄호하에 보병 주력이 14 : 00 신북대교를 통과함으로써 연대 주저항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포천 부근에 배치되었던 사단포병인 제5포병대대(-1)은 북한군의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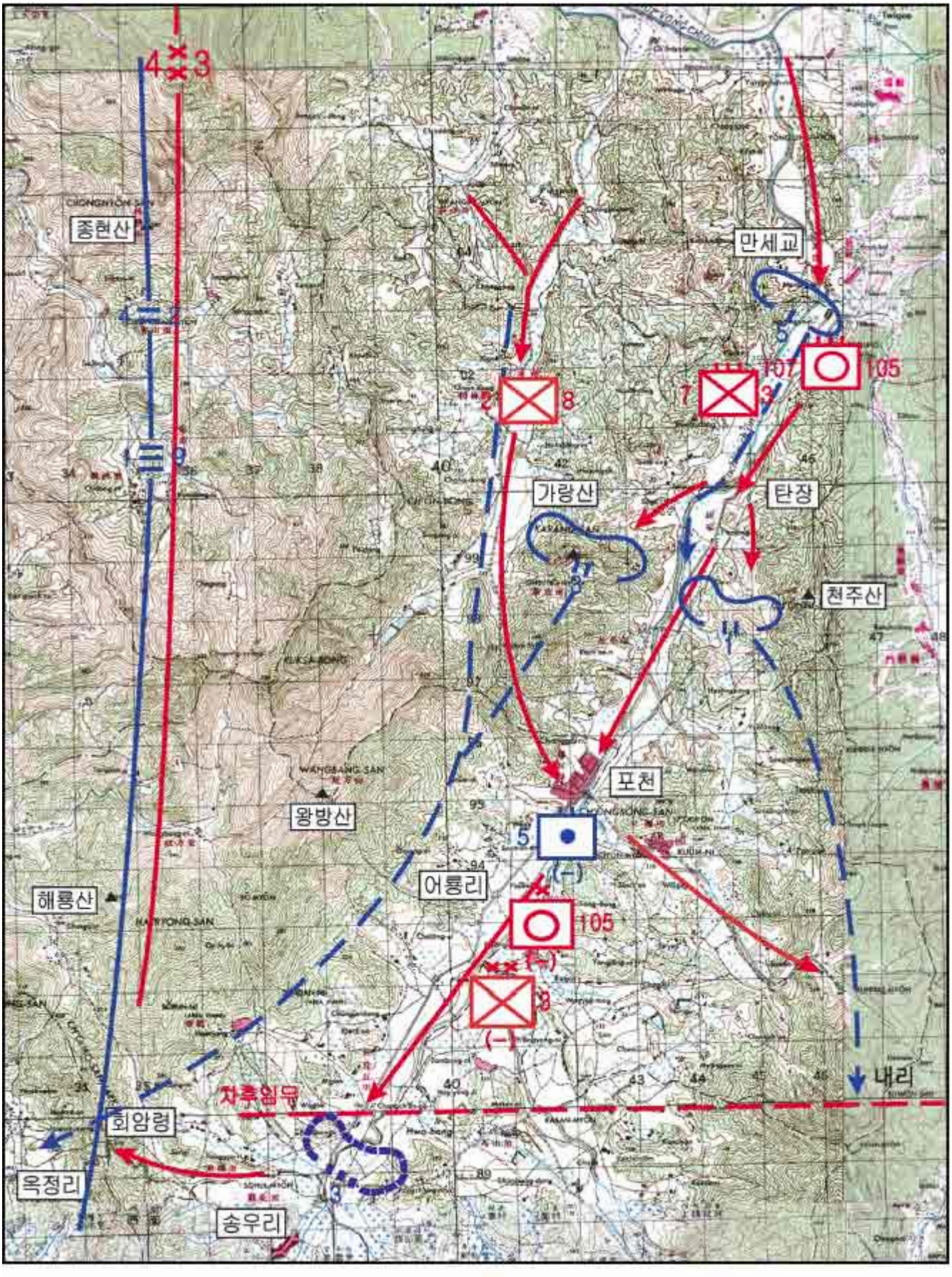
부대가 포천으로 들어올 때 송우리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 전차의 신속한 진출로 인해 어룡동(포천 남쪽 3㎞) 부근에서 대대 후미가 붙잡히게 되었다. 포병대대는 부득히 화포 7문을 버리고, 겨우 2문만 송우리로 철수시켰다. 이에 제5포병대대장 이규삼 소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권총으로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선임하사의 만류(박종길 상사)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포병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또한 부연대장(최석용 중령)이 금오리의 연대본부의 행정요원으로 전투소대를 편성하여 탄장으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포천 남쪽에서 적 전차의 공격을 받고 되돌아왔다.

이때 사단에서 전쟁 개시 후 첫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에서는 "지금 제3연대가 포천으로 출동 중이니 협조하여 탄장선에서 적을 저지격멸하도록 하라. 만일 현지에서 저지불가하면 예비 진지에서 이를 격멸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핵심 내용은 연대의 주진지인 천주산-가랑산간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예비진지인 포천 동서 양 측방의 청성산(284고지)과 181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연락장교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양 진지가 모두 적이 점령한 뒤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포천을 철수한 뒤 사단과 교신이 끊어져 장차 작전에 대한 대책을 문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명령을 전달받은 연대장(윤춘근 중령)은 한동안 고심하고 난후 적이 축석령을 넘기 전에 증원부대와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진로를 포천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광릉을 경유하여 의정부로 직행하기 위해 제1대대장 유환박 소령에게 "현 진지를 철수하여 광릉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와는 통신이 두절되어 끝내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함께 철수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제2중대장(윤병준 중위)에게 첨병임무를 부여하고 천주산 동측으로 우회하여 서파(포천 남동쪽 9㎞)로 빠지라고 지시하고, 제4중대장(권종 중위)에게는 중화기를 먼저 철수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연대장과 함께 뒤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대병력이 주간에 적전(敵前) 이탈을 하려고 하니

<상황도 4-6> 제9연대의 주저항선 전투



쉽지가 않았다. 연대(-)는 10m 앞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때인 17 : 00경 지현리－명덕리－서파로 이동하여 밤 21 : 00에 내리 부근에 당도하였다. 이때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대대장 조암 중령)가 태릉으로 통하는 교차로 남쪽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내리 서쪽의 팔야리 부근에서 하룻밤을 야영하고, 다음날인 26일 광릉으로 내려왔다. 이때는 의정부가 이미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져 국군이 창동선으로 후퇴함에 따라 다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26일 밤에 육군사관학교에 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명령을 받지 못한 제3대대는 남은 병력으로 가랑산 진지를 계속 지키다가 이날 밤 철수하게 되었다. 대대는 왕방산 기슭을 따라 회암령(송우리 북서쪽 3.5㎞)을 넘어 덕정 부근으로 빠져 다음날 아침 옥정리(송우리 서쪽 5㎞)로 집결하였다. 이때 병력은 100여 명에 불과 했다. 제3대대(-) 병력은 제1연대와 합세하여 의정부로 후퇴하다가 천보산 북쪽에서 다시 분산되어 그 일부만이 우이동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9연대는 포천 정면에서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교전 끝에 중과부적으로 분산되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고 제1대대(-)만이 겨우 태릉으로 집결하였다.

## 4. 송우리－축석령－금오리 전투와 의정부 함락

제7사단의 최후저항선에 해당하는 송우리－축석령－금오리 전투에서는 최초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던 제7사단 병력은 철수하고 없었다. 대신 증원부대인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와 제2사단이 담당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대를 금오리(의정부 북동쪽 4㎞)에 도착하는 즉시 축차적으로 전선에 투입시키게 되었다. 이에 투입부대는 전투력을 집중하지 못한 채 효과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는 개전 2일 만인 26일 정오경에 적의 제

105전차여단과 제3사단에 의해 함락되었다. 그 결과 국군의 전 전선은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맞게 됨으로써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 1) 송우리 전투

#### (1) 제3연대(-)의 출동과 송우리 급편방어진지 편성

포천 정면에서 제9연대가 적과 교전을 하고 있을 무렵인 6월 25일 상오 제7사단에서는 제5포병대대(-)만을 증파하고, 후속할 예비병력이 없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전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때 육군본부에서 육본 작전명령 제85호를 발령하여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를 이 지역에 급파하도록 하였다.[95]

① 적은 38도선 일대를 연하여 남침하고 있다.
② 군은 일부의 병력을 이동하려 한다.
③ 수도경비사령관은 예하의 제3연대를 의정부로 즉시 출동시켜 제7사단에 배속하라.
④ 제7사단장은 전항의 제3연대를 통합 지휘하라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는 원래 제7사단의 예속부대로서 전쟁발발 10일 전까지 사단 예비였다. 그러나 육본 일반명령 제43호에 의해 6월 15일부로 예속이 변경되어 수도경비사령부로 배속되었다. 출동할 당시 제3연대는 장병 대부분이 주말 외출 중이거나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비상에 돌입한 05:00 현재 영내의 병력은 450명에 불과했다. 25일 11:00까지 비상 소집된 연대총병력은 650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우선 1개 대대를 혼성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병사들은 물론이고, 중·소대장도 부하들을 모르는 채 출동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3대대 중화기 중대인 제12중대는 중대장 박영걸 대위가 아직 귀대하지 않아 선임장교(김현경 중위)가 각 대대의 계급과 직책만을 보고 사수와 부사수 및 탄약수 임명하여 3개 소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제1대대장(임백진 소령)과 제2대대장(신언국 소령)도 아직 귀대하지 않아 제3대대장(김봉상 소령)이 혼자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 중대도 중대장을 대리하여 선임 장교가 지휘하는 중대가 6개 중대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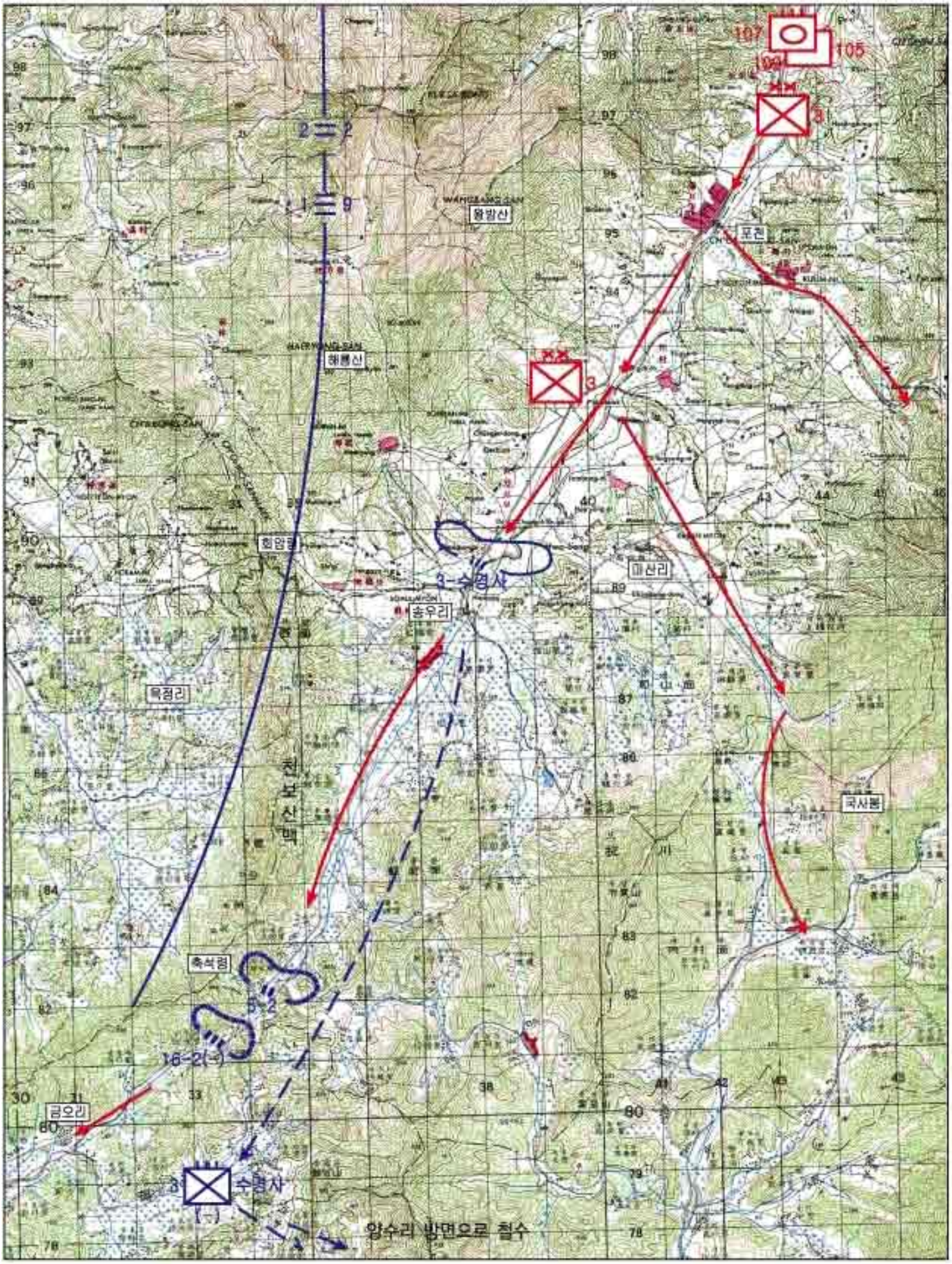
제3연대(-)는 12 : 30경에 징발차량 20대에 분승하여 서울 서빙고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14 : 00에 의정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제7사단 작전참모 이영규 중령으로부터 개략적인 전황 설명을 듣고,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9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탄장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의정부에서 동북쪽으로 13㎞를 달려 15 : 00에 포천 서남쪽 2.5㎞의 자작리 부근에 도착했을 때 적의 포화가 여기까지 미치고 포천시내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또한 피난민 대열이 남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제9연대 부상병 200여 명이 들것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대전차포와 몇 문의 105㎜ 야포가 빠져 나오면서 포천에 적이 들어왔다고 알려 주었다.

이처럼 그 당시 상황은 이미 제9연대의 주저항선이 무너져 적의 도보부대가 탄장을 통과한지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3시간 전에 포천을 점령한 후였다. 그러나 사단장으로부터 탄장으로 직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3연대장(이상근 중령)은 적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소대장(김철순 중위)에게 포천까지 위력정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신은 주위의 지형을 살피던 있었다. 연대장은 15 : 30경 수색소대장으로부터 어룡동(포천 남쪽 3㎞) 부근에 적 전차가 나타났다고 보고를 받고 연대(-)를 3㎞ 후방인 송우리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 (2) 송우리 지역 작전 경과

송우리는 서쪽으로 회암령을 넘어 동두천 가도의 덕정과 횡으로 연결되는 중요 요충지였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8㎞ 후방의 축석령 사이에 방어를 할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는 태봉산(182고지)과 해룡산 동남쪽의 178고지를 방패삼아 이곳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송우교를 중심으로 좌우 측방에 각각 2개 중대씩 배치하고, 혼성 제11중대는 43번 도로를 포함한 중앙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임백진 소령)이 도착하자 연대장은

<상황도 4-7> 제3연대의 송우리 전투


107
105
106
3
포천
왕방산
해룡산
3
회암리
3-수명사
마산리
송우리
목정리
천보산맥
국사봉
축석령
16-2(-)
금오리
3
수명사
양수리 방면으로 철수



제3연대가 배치된 태봉산 정상 부분

그에게 동측의 2개 중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장(김봉상 소령)에게는 제11중대를 포함한 서측의 3개 중대를 맡아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연대장은 장송우 북쪽의 134고지에 연대관측소를 설치하였다. 연대장은 제3대대장과 함께 이곳에서 본대를 장악하고 57㎜ 대전차포 2문을 그 동측의 도로변에 배치하였다. 연대 통신대장(김성규 중위)과 제1대대 통신소대장(김덕수 소위)은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제3연대(-)는 중대가 혼합 편성되고 대전차 방어책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방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3연대(-)는 혼성병력을 재정비하면서 계속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17 : 00경 적의 포병사격과 함께 심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때 제3연대(-)는 개인호를 2/3 정도 구축하고 있었다. 이때 2,000m 전방의 도로상에 적 기계화부대가 나타났다. 적은 마치 나뭇단을 쌓아올린 우마차 대열과 같이 짙은 위장을 하고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선두가 1,500m 전방으로 다가왔다.

이에 제3연대(-)의 진지에서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특히 연대 중화기가 집결된 제12중대에서는 중대장 대리인 김현경 중위의 진두지휘로 81㎜ 박격포를 비롯하여 기관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 기계화부대는 아랑곳없이 계속 아군의 방어지대로 진격해오더니 선두에선 전차 2대가 장승거리 부근에 멈추어서면서 제3대대 관측소에 전차포 사격을 하였다. 이어 적 전차 8대가 이에 가세하여 포격과 기총으로 양 대대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특히 중화기 진지에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어 아군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때 57㎜ 대전차포가 불을 뿜어 장승거리 부근에 버티고 있던 적 전차에 일격을 가하였다. 또 제11중대(중대장 이봉근 중위) 화기소대장 이정선 소위가 이끄는 2.36″로켓포가 직격탄으로 적 전차를 명중시켰다. 그러나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적의 화력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3연대(-)는 송우리 방어진지가 적 전차에 의해 돌파되자 후속 보병만이라도 격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적 보병을 비롯하여 전차와 자주포 등 각종 차량이 남진하게 되자 더 이상 저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제3중대 제3소대장(김학석 소위)이 이곳에서 150여 대의 각종 차량을 헤아렸는데 그 중에는 701호 전차도 확인하였다.

이렇듯 제3연대(-)의 전황은 급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18 : 30경 적 보·전 협동부대가 공격해 오자, 제3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자 분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이 행방불명됨에 따라 각 대대는 대대장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제3대대는 대대장 김봉상 소령의 철수명령을 받고 의정부 방향으로 후퇴하게 되었다.[96] 제1대대는 대대장 임백진 소령의 지휘하에 철수하였다. 이날 밤 20 : 00까지 축석령에 수용한 제1대대 병력은 150명밖에 되지 않아 21 : 00에 다시 이곳을 떠나 금오리 남쪽의 155고지(의정부 동쪽 2.5㎞)로 철수하였다. 이렇듯 제3연대(-)의 송우리 방어선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포천지역은 무인지대가 되어 의정부 동북쪽의 방어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2) 축석령 전투

### (1) 제5연대(-)와 포병학교 교도대대의 축석령 전투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6월 26일 새벽 채병덕 총참모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고나서 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금오리로 돌아와 사단 주력의 이동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제2사단의 예하부대들은 금오리에 먼저 도착한 제5연대 제2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을 향해 북상 중에 있었다. 이때 총참모장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제5연대의 제2대대장(차갑준 소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사단장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사단장은 "총참모장 명령대로 이행하라. 축석령에 가면 제3연대(-)가 있을 것이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97] 그러나 이때 제3연대(-)는 이미 축석령에서 철수하여 금오리 남쪽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2사단의 선봉이 된 제5연대 제2대대는 그런 상황도 모른 채, 6월 26일 03 : 00 금오리를 출발하여 축석령을 향해 야간 이동을 하였다. 이때 대대의 실정은 전차 공격임무를 수행할만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폭약은 고사하고 중화기 실탄이나 수류탄은 단 한 발도 휴대하지 않았다. 소총실탄도 M1 실탄 8~16발과 칼빈 실탄 15~30발을 휴대했을 뿐이었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지도 한 장이 없었고, 연락수단은 전령뿐이었고 통신수단은 전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축석령에 가면 제3연대(-)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제3연대(-)는 이미 이곳을 철수하여 금오리 남쪽에 집결 중이었다. 이처럼 사전정찰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적정도 모르고 축석령으로 북진하던 제2대대의 선두가 본자일(本自逸) 북쪽 300m까지 진출했을 때 적 전차가 먼저 이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불시에 적 전차와 조우하게 된 제2대대장은 병력을 208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면서 사단에 연락장교를 급파하여 상황보고와 함께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대대의 진지가 노출되자, 적 전차가 고개 마루에 멈추어 서면서 포격과 기총으로 아군 진지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제2대대는 겨우 소총으로 응수하면서 30분간 교전하였으나 적의 화력 앞에



의정부 – 축석령간 접근로
이곳에서 포병학교 교도대대가 북한군 전차를 격파(현 ▼적 전차 파괴지점)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은 다시 자일동쪽으로 남진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축석령 진지에서 본자일 남쪽의 131고지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26일 08 : 00경에는 제5연대 제1대대(대대장 이정도 소령)가 본자일쪽으로 증원되었다. 제1대대는 이날 새벽 사단 참모장(최창언 중령)[98]의 인솔로 의정부에 도착하여 금오리에 도착하자마자 사단장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대대는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자일동에 가면 탄약차가 있을 것이다"는 통보만을 받고 진출하였다가 적 전차와 조우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병력을 전개할 겨를도 없이 적의 급습을 받고 분산되고 말았다. 제2중대의 경우 나중에 천보암(자일동 서쪽의 암자) 부근에 집결한 병력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이 무렵 사단참모장 최창언 중령이 인사참모(조운학 소령), 정보참모(빈철현 중령), 군수참모(차광전 소령)를 대동하고 금오리의 사단지휘소에 도착하여 참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지 실정을 몰라 일부 군수지원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속수무책 상태로 있었다. 특히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사단 참모장은 "사실상 우리는 아무런 보좌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대부분 카키복 차림으로 올라와 하나밖에 없는 상

황판 주위에 모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적정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교대로 금오리 뒷산의 관측소를 오르내리며, 겨우 후속병력을 일선에 증파하고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의정부 동북쪽의 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대대장 김풍익 소령)가 금오리로 긴급 출동하였다. 제2포병대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5호에 의해 26일 01:00부로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 그 후 대대는 서울 용산동 주둔지를 출발하여 상금오로 이동하여 포를 방열하고 자일동 부근의 전선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105㎜ 야포의 화력도 T-34형 전차의 진출을 막지 못하였다. 이에 대대장 김풍익 소령은 전차와 정면 대결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제2포대(포대장 장세풍 대위)에서 6번포를 끌고나와 포대장 장세풍 대위와 함께 6번 포반원들을 대동하고 자일동 서남쪽 1㎞의 교량 부근의 43번 도로상에 09:10경 포를 방열하고 대기하였다. 대대장은 적 선두전차가 50m 전방까지 다가오자 제1탄을 궤도에 명중시키자 비틀거리며 도로변으로 미끄러졌다. 이를 지켜본 포반원이 다시 제2탄을 장전하던 중 후속하던 적 전차포 사격에 의해 대대장 이하 포반원 전원이 전사하였다.[99]



김풍익 전투기념비

이에 적 전차는 진로가 막혀 한동안 지체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2포병대대에서 전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위험을 느낀 나머지 진로를 돌려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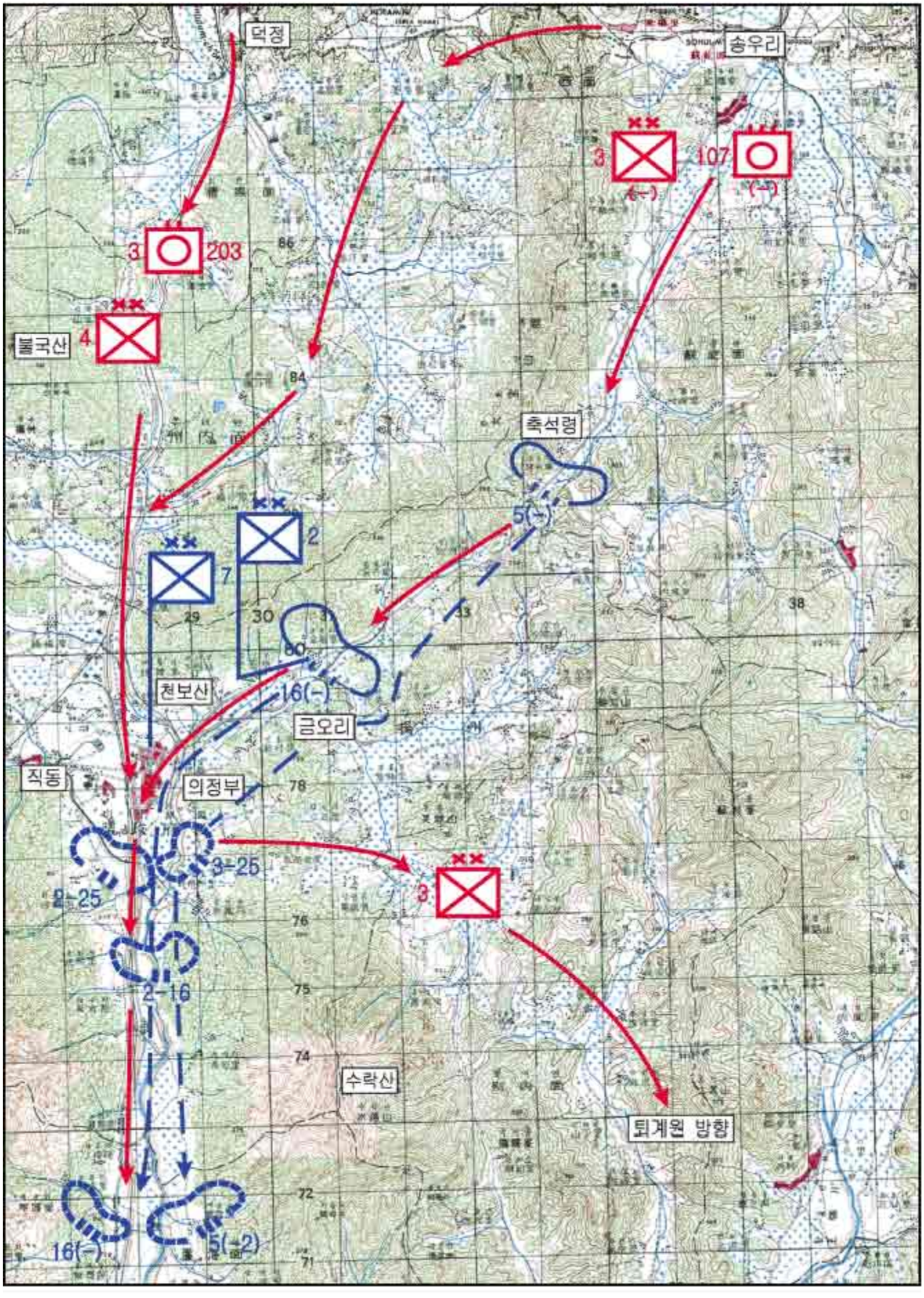
축석령 북쪽으로 물러났다. 그 결과 사단은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의 수훈으로 일단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병이 모두 분산되어 유기적인 전선 형성이 어렵게 되었다. 그 위에 시시각각으로 적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축석령 방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2) 제16연대(-)의 축석령 전투

국군 제2사단이 축석령에서 적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후 제5연대(-)의 분산 병력을 수습하여 축석령에서 다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때 문용채 대령이 지휘하는 제2사단 예하 제16연대(-)가 금오리에 도착하였다. 제16연대(-)는 6월 25일 밤 19 : 00에 충북에서 출동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대리 김영철 소령)[100]는 연대본부와 함께 청주에서, 제1대대(대대장 유의준 중령)는 충주에서 각각 야간열차편으로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제2대대는 6월 26일 04 : 00에 먼저 창동역에 도착하여 도보로 의정부를 거쳐 금오리에 도착하였다. 10 : 00경 충주에서 올라온 제1대대는 의정부 남쪽 백석교를 지나고 있었다. 제3대대(대대장 강태봉 중령)는 청주에 남아 귀대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6연대의 가용 병력은 2개 대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제16연대도 제5연대와 마찬가지로 각개 병사들이 휴대한 8~30발의 소총실탄과 몇 발의 박격포탄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도착 즉시 사단장으로부터 "축석령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제16연대장(문용채 대령)은 제1대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줄 것과 그 사이에 탄약문제를 해결하여 주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에 먼저 진지를 점령한 후 조치하기로 하고 현지로 직행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연대(-)는 43번 도로 동측의 208고지 일대에 제2대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11 : 30경 제1대대(대대장 유의준 중령)가 후속하자 그 서측의 백석고지 남쪽에 배치하여 2개 대대로서 급편방어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탄약이 추진되지 않아 실탄이 없는 2.36″로켓포만 도로변 진지에 배치하였다. 적의 예상접근로를 향해 거치된 기관총 진지에서도 불안과 초조 속에 탄약보급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도 4-8> 축석령-금오리 전투



한편 북한군 제3사단은 축석령에서 퇴각한 후 이동교리 부근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43번 도로를 따라 보전협동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부 병력을 서측으로 우회시켜 회암령을 넘어 의정부 북쪽에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제16연대(-)는 12 : 00에 적의 보전협동부대가 축석령으로 공격해 오자 소총 및 박격포 사격, 그리고 제2교도대대의 105㎜ 야포가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적 전차부대는 좌우 양측방의 아군 방어진지에 몇 차례 포격을 가한 다음 의정부 방향의 자일동으로 직행하였다.

제16(-)연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연락장교(이상환 중위)를 사단에 급파하여 전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현 진지에서 적 보병만이라도 격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탄이 거의 소모된데다 후속하는 적의 보병, 전차 및 자주포, 그리고 각종 차량 등이 잇따라 남진해 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적은 이제 금오리부근으로 포병사격을 연신하며 의정부를 향해 계속 공격해오니 의정부의 위기가 촌각에 달리게 되었다.

### 3) 금오리 방어선 붕괴와 의정부 함락

제2사단의 축석령 방어는 제5연대와 제16연대가 병력을 집중운용하지 못하고 축차로 투입한 관계로 적의 월등한 화력 및 기습공격으로 조기에 퇴로가 차단되거나 분산되었다. 이에 연대는 전투다운 전투를 한번도 제대로 못하고 의정부 동북쪽의 관문을 내놓게 되었다.

제2사단장(이형근 준장)은 금오리에 위치한 사단지휘소가 위기에 처하자 자일동 서북쪽의 202고지－금곡 선에서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병력·장비·탄약의 부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혼선만 빚고 있었다. 즉, 사단장이 방금 도착한 제5연대장 대리인 박기성 중령에게 “연대 병력을 수습하여 202고지를 지키라”라고 지시하자 연대장은 연대 인사주임(조남철 대위), 군수주임(차재돈 대위), 작전장교(현계용 중위)를 불러 그제야 부대 실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제3연대장 이상근 중령도 친형인 사단장을 찾아와 현재 연대병력의 일부가 155고지에 배치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역습명령을 내려달라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건의를 하였다. 제25연대장 김병휘 중령도 현지에 도착한 후 사단장에게 "지금 연대 주력이 창동역에서 하차하여 탄약수령과 불필요한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제25연대는 안동에 파견된 제1대대(대대장 임익순 소령)를 제외한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전날 밤에 온양에서 출발하여 26일 아침에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이렇듯 사단에서는 의정부의 위기가 눈앞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연대·사단의 지휘관과 참모들은 한데 모여 우왕좌왕할 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포병학교장 대리인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105㎜ 야포 1개 대대가 금오리 남쪽의 신촌 부락에서 적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전황의 급전으로 부심하고 있을 무렵인 12:30에 적의 포탄이 금오리의 사단지휘소에 떨어졌다. 이 포격은 자일동을 통과한 적의 전차부대가 상금오까지 진출하여 43번 도로상에서 사격한 전차포격이었다. 전차 공포증에 걸린 장병들은 일순간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때 적 후속부대가 의정부 방향으로 계속 다가오고, 설상가상으로 적 포탄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적 전차가 의정부 시내에 들어와 위협사격을 가하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철수하던 병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제5연대 군수주임 차재돈 대위가 전사하고 부대간의 연락도 두절되기에 이르렀다.

## 5.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설치

사단지휘소가 적의 전차포 사격을 받게 되자 이형근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은 도보로 의정부를 우회하여 동측의 소로를 따라 도보로 창동쪽으로 철수하였다. 사단장 일행은 철수 도중인 14:00에 의정부 남쪽 5㎞의 경원선 철로와 육로 교차로 부근에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헌병사령관 송요찬 대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은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에게 후퇴책임을

물어 사단장직에서 해임하고 대신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을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양 사단을 통합 지휘하라고 명령하였다.[101] 또한 채병덕 총참모장은 제2사단 제5연대장 대리인 박기성 중령도 즉석에서 해임하였다. 그리고 사단참모장 최창언 중령을 제5연대장에 임명한 후 병력을 수습하라고 지시하였다. 제25연대장(김병휘 중령)에게는 부대가 창동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백석천으로 직행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이 이 자리에 없어 총참모장의 명령을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26일 17 : 00에 노해면 지서에서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됨) 효율적인 부대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제25연대 2개 대대가 연대장(김병휘 중령)의 지휘아래 백석천 제방을 따라 15 : 00까지 진지를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5연대장에 새로 임명된 최창언 중령은 장암동(의정부 남쪽 4㎞) 부근에서 혼성병력 187명을 인수하여 해질 무렵에야 수락산 서쪽에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때 보병학교 고군반에 교육 중이던 제16연대 제2대대장 김헌 중령이 현지에 도착하여 호원리(의정부 남쪽 2.5㎞) 부근에 안내표지판을 세워놓고 병력을 수습하였다. 제3연대(-)의 혼성병력 1개 대대는 임백진 소령의 지휘아래 아직도 금오리 남쪽의 155고지에 남아 있었다.

이렇듯 제2사단은 의정부 동북쪽의 요충지를 내놓고, 그 남쪽의 수락산과 백석천간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분산병력은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후퇴하여 27일 아침에 창동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 6.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연대 주력인 2개 대대가 주진지로부터 원거리인 후방지역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1개 대대가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부

분의 전투장비(공용화기, 차량 등) 등을 정비 입고시킴으로써 출동준비태세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적 전차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전차 대비책에 소홀하였다. 비록 만세교 남쪽에 대전차 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역부족이었음이 교전과정에서 밝혀졌다. 사전 대전차 대책으로 대전차장애물(대전차방벽, 도로대화구 등)과 교량거부대책을 강구하지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방어 실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또한 대전차통합방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2) 전장 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포천 축선에서의 제9연대장의 조치는 현명하지 못하였다. 연대는 전쟁 이틀 전부터 좌측연대인 제1연대 전방지역인 38도선 북쪽의 운천-연천-전곡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상의 집단병력이 수시로 기동하고 차량 빈번히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와 전날 밤 연대 전방의 유정리 북쪽의 43번 도로상에 30여 대의 전차 출현 보고에 따라 전 병력을 영내 대기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는 했으나 실제로 중요한 전쟁 후의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병력 출동을 일찌감치 끝내고도 수송할 차량이 없어 전방 대대가 적에게 무너진 뒤에야 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결국 연대는 병력만 확보하고 있었을 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 필요한 병력증원이나 전방에서 긴급히 필요한 대전차화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사단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연락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상황을 사단에 보고하고, 또 예하부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연대장은 거점에 위치하면서 연대장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포천이 적에게 피탈되자 예하부대에 철수명령도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사단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전장을 이탈함으로써 포천 축선의 위기를 앞당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대장은 통신이 두절되었다면 연락장교를 이용하거나 육군사관학교에 철수한 시점에서라도 상황을 사단장에게 포천 축선의 위급함을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육군본부에서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를 비롯하여 제2사단(-)을 투입하였으나 적정을 모른 채 축차적으로 투입되었던 이들 부대들은 결국 집중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조기에 의정부를 적에게 내주게 되었고 의정부 방면의 제1연대와 제18연대의 퇴로가 차단되어 이 지역에서의 아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증원부대도 상대적인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차적인 투입에 의한 공세행동으로 전투력을 조기에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투간에도 조직적인 전투이탈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철수과정에서 국군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건제를 유지하지 못한 부대의 혼합편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작전지휘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 (2) 정 보

전쟁 직전 연대에서는 연대 방어정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 차량의 기동이나 전차의 출현 등 적 공격징후를 보고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찰 및 첩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작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작전간에도 병력을 투입할 때도 제3연대(사전 전선지역에 수색소대를 파견하여 적정 확인)를 제외하고는 다른 증원부대들은 적정을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방어할 지역이 이미 적의 수중에 있거나 적의 공격권에 들어감으로써 국군은 입지 않아도 될 전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 (3) 기 동

포천－의정부 축선 전투에서 국군은 상대적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

한 역습 및 축차적 투입으로 인해 전투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군의 증원부대는 결정적인 전투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없었다. 포천-의정부 축선은 서울의 주요 관문으로서 이곳의 실패는 전체 전쟁 국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 결과 포천-의정부 축선성의 43번 도로에서의 방어 실패는 사단 전체의 방어 실패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조기함락으로 국군 전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 개전 초기 연대에서는 기동장비의 부족으로 병력이 집결되어 있었음도 불구하고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단 및 육군본부 차원에서 실시한 역습도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대를 적정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투력의 낭비만을 초래하였다.

이는 제3연대의 증원 실패, 제5연대의 역습실패, 제16연대의 역습실패로 이어져 결국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는 개전 2일 만인 26일 적에게 함락됨으로써 전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동 차원에서의 대전차 대비책이 미비하였다. 43번 도로는 적의 전차가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접근로로 판단하고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전차 장애물을 운용하지 않은 것이 결국 재난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포천 축선에는 많은 교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파괴 등의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효과적인 대전차화기가 없는 가운데 소총만으로 대결해야 하는 국군의 입장에서는 적 전차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아군은 계속 불리한 전투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 (4) 화력 운용

전쟁이 발발하자 사단에서는 이 지역에 사단 포병 전력의 2/3를 투입하였으나 연대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적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는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통합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병은 효과적인 진지변환도 하지 못한 채 적 기계화부대의 포천 점령으로 인해 조기에 와해되었다.

특히 피지원부대의 입장에서 지원부대인 포병부대의 경계와 연락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보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군 포병은 적의 공격에 후퇴하는 화포 9문 중 7문을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포병전력은 조기에 상실하게 되었다.

다행히 축석령 전투에서는 제2사단에 배속된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대대장 김풍익 소령의 직접조준사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하여 적 진출을 지연시켰으나 의정부 함락이라는 대세를 막기에는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

### (5) 방 호

전쟁 직전 연대에서는 일반주민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38도선 경계진지 및 주저항선에는 비교적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개전 초기 적의 포병준비사격으로 조기에 무력화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적 전차 공격 및 포병화력에 대비한 콘크리트 유개호 진지가 구축되지 않아 적의 기계화부대의 공격을 지연시키지 못함으로써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개전 초기 모든 전선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지만, 이 전투에서의 탄약보급은 심각한 것이었다. 후방에서 증원되는 제2사단의 증원부대는 급히 서울로 올라온다고 소총의 개인 휴대량만 휴대하였다. 따라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예비탄약이 한 발도 없었기 때문에 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제2사단 선발대로 도착한 제5연대 제2대대는 전차를 파괴할 폭약은 고사하고 중화기 실탄이나 수류탄을 한발도 휴대하지 않았다. 소총실탄도 M1 실탄 8~16발과 칼빈 실탄 15~30발만을 휴대했을 뿐이었다. 이는 증원된 모든 부대에게 적용된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전투에 배치될 때도 박격포 및 대전차화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탄약이 부족하여 전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휘관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또 육군본부에서도 증원부대 지휘관의 탄약 보급 건의를 받고도 현지 부대와 협조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말만 하였고, 현지의 피증원부대에서는 실제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탄약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육탄으로 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다.

# 제 5 절 백석천－내촌 전투

## 1. 전투 개요

백석천 전투는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의 제25연대와 북한군간의 전투이다. 내촌 전투는 47번 도로상에서 이곳에 뒤늦게 투입된 생도대대와 포천을 점령한 이곳으로 진출한 북한군간의 전투를 말한다.

백석천 전투는 의정부가 함락된 후 온양에서 출발하여 창동에 뒤늦게 도착했던 제2사단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가 의정부 남쪽 백석천에서 북한군간의 전투이다. 제25연대는 채병덕 총참모장으로부터 백석천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6월 26일 15 : 00경 2개 대대 병력으로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5연대(-)는 26일 17 : 00경 3번 도로를 따라 적 전차가 보병의 엄호를 받지 않은 채 연대 방어진지 쪽으로 다가오는 전차를 향해 2.36″로켓포 4문이 백석교까지 다가온 적 선두전차에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 4대가 유유히 교량을 통과하자 1개 분대가 교량 서남쪽으로 달려가 교량위에 있는 적 전차의 궤도를 명중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후속하던 적 전차포 사격에 의해 분대장과 사수가 현장에서 전사하고 부사수를 비롯한 탄약수들에게 중상을 입힌 후 후속하던 10여 대의 전차는 다시 의정부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내촌 전투는 6월 26일 내촌에 배치된 육사 생도대대 및 서울 경찰대대와 이 지역으로 투입된 북한군 제3사단 예하부대와의 전투였다. 내촌 지역은 일동－서파－퇴계원에 이르는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에는 국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생도대대 및 경찰대대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해 6월 25일과 26일 새벽에 이곳에 배치되었다가 26일 적의 공격을 받고 경찰대대는 바로 후퇴하였고, 생도대대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준식 준장의 지시에

의해 태릉으로 철수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투상황은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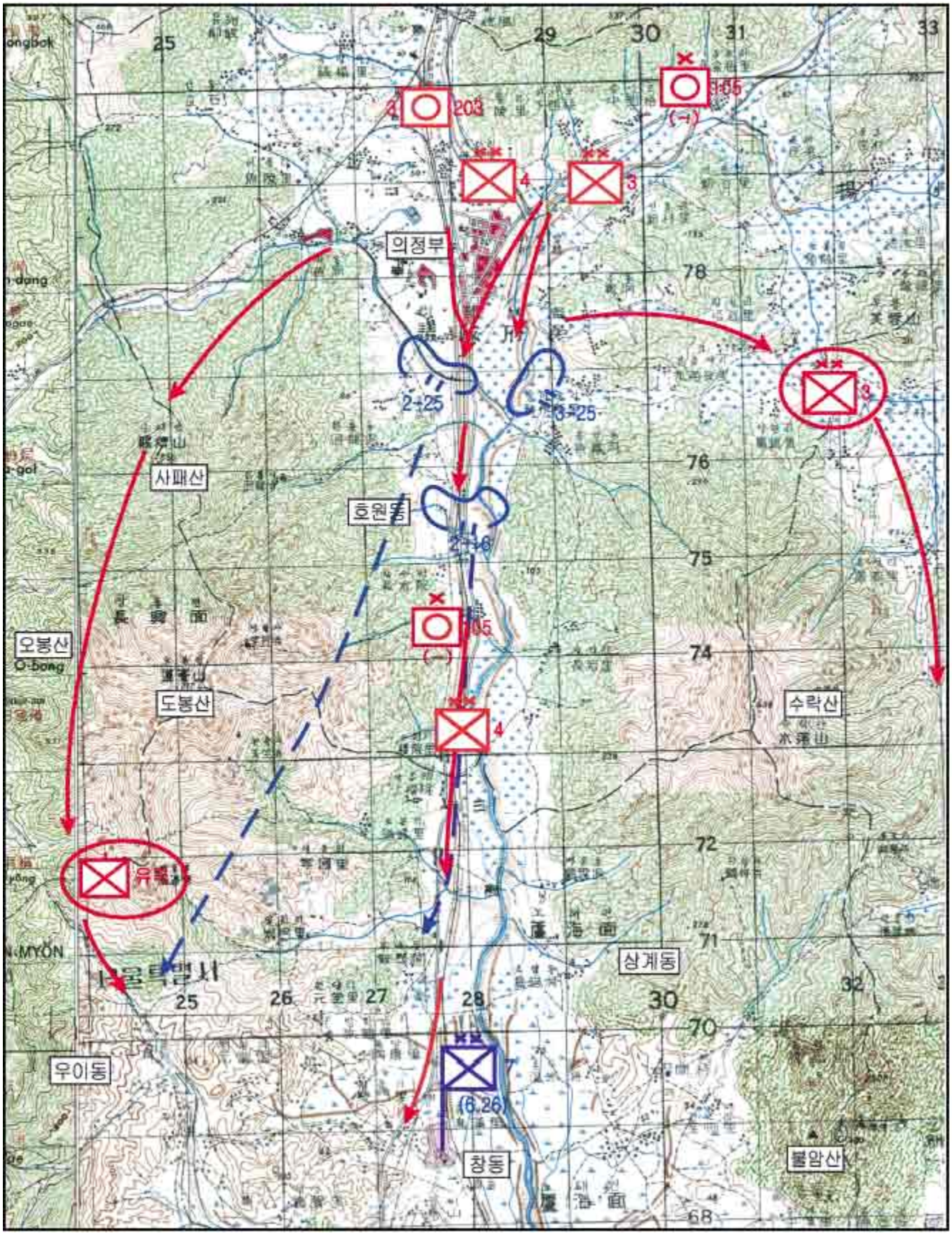
## 2. 제25연대(-)의 백석천 전투

의정부의 함락과 함께 3번 도로가 차단되자, 전선에서 싸우던 각 부대는 철수를 하게 되었다. 제1・제9・제3・제18・제5・제16연대 등 수도경비사령부와 제7사단 및 제2사단 예하의 6개 보병연대와 제5포병대대가 각각 분산되어 창동을 목표로 우회 기동하거나 멀리 서쪽의 고양방면으로 우회하여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때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만 창동에서 대기하던 중 총참모장으로부터 백석천에서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26일 15 : 00경 2개 대대 병력으로 이곳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5연대(-)는 의정부에서 남쪽으로 1㎞ 정도 떨어진 백석교를 중심으로 부대를 배치하였다. 연대는 동쪽의 제방을 따라 동막까지 이르는 800m 정면에는 제3대대(대대장 고동척 소령)를 배치하였다. 서쪽의 하직동으로 잇닫는 제방에는 제2대대(대대장 대리 나희필 대위)[102]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에게 중앙에 위치한 교량에 2.36″로켓포 4문을 배치하고 이를 제5중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연대 관측소는 제2대대 진지후방에 있는 61고지(회룡동 부근)에 설치하였다.

제25연대(-)는 차후 전투에 대비하여 진지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탄약을 아직까지 보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2.36″로켓포는 문당 2~4발을 보유한 상태에서 26일 17 : 00경 3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적의 전차대열에 대해 각종 소총과 기관총 및 박격포로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적 전차는 계속 아군 방어정면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이때 선두전차가 백석교로 다가오자 이곳에 잠복해 있던 제5중대 2.36″로켓포 4문이 연속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첫 번째 전차가 그대로 교량을 통과하고 그 뒤를 3대의 전차가 지나갔다. 이에 화기소대 분대장이 사수 포를 빼앗아 들고 직접 교량 서남쪽으로 달려가 다섯 번째 전차의

<상황도 4-9> 제25연대의 백석천 전투



궤도를 명중시켜 돈좌시켰다. 환호하는 순간 여섯 번째 전차가 다가와 포격을 가하니 분대장을 비롯한 사수가 전사하고 부사수와 탄약수들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 결과 10여 대의 후속전차가 진로를 잃고 한동안 당황하다가 의정부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화기소대 분대장의 수훈이 없었다면 적 전차는 곧장 이곳을 통과함으로써 미아리 방어선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백석교를 통과한 적 전차 4대는 계속 남진하여 호원동 동쪽의 철교 부근까지 다가왔다. 이곳은 백석천 제방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소로가 3번 도로와 이어지는 교차지점으로 제16연대(-) 혼성2대대가 김헌 중령의 지휘아래 잠복하고 있다가 교전하게 되었다. 혼성2대대는 보병학교 교육 중에 있던 김헌 중령이 26일 14 : 00에 창동에 도착한 뒤 연대 주력이 축석령에서 분산되어 철수하자 장수원 부근에 “제16연대 집결지”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300여 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한 부대였다. 혼성대대는 기존 제2대대를 중심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하였다.

북한군 전차를 맞이한 혼성2대대는 물러서지 않고 소총과 기관총 및 박격포로 저항하며 30여분 동안 혈투를 벌였다. 이때 부대대장(김영철 소령)과 제7중대장(노병렬 중위)이 전사하고 대대장 김헌 중령을 비롯하여 제5중대장(안영호 대위)과 제6중대장(윤재연 중위), 그리고 대부분의 장병들도 부상을 입어가면서 적 전차를 격퇴하였다. 이러한 감투정신에 힘입어 다음날인 27일 창동전선의 전투전개가 미흡하나마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제25연대(-)는 6월 26일 밤 야간 경계태세로 들어가 계속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27일 새벽 북한군 보·전·포 협동부대가 공격해오자 백석천과 약수암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지연전을 펴며 철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어 연대본부와 제3대대는 미아리로 철수하였다. 제2대대는 도봉산을 넘어 구파발과 능곡을 거쳐서 행주나루를 건너 철수하게 되었다.

## 3. 생도대대의 내촌 전투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 부근에서 치열한 교전이 거듭되는 동안 의정부 동측방의 47번 도로상의 내촌면과 진접면 일대는 완전히 방어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은 제7사단의 책임지역 중 가장 우측에 해당하는 곳으로 평시에는 제9연대 수색중대와 정보요원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천과 의정부 방면의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자 이곳은 자연히 방어상의 공백지대로 남게 되었다. 특히 내촌면 내리 부근은 포천과 기산리에서 서파를 지나 퇴계원에 이르는 47번 도로(전쟁당시 391번 도로)상의 분기지점으로 이곳을 적이 점령하면 의정부와 포천 정면의 아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육군본부에서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와 경찰대대를 이곳으로 출동시켜 이 지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포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의 일부 부대가 26일 생도대대 및 경찰대대가 배치된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교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적은 경무장한 경찰대대의 방어진지를 쉽게 통과하고 생도대대 방어진지로 진출하여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육사교장 이준식 준장의 철수명령으로 생도대대는 이날 밤 태릉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1) 육군본부의 육사 생도대대 출동 명령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의 47번 도로상의 내촌지역 출동은 채병덕 총참모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6월 25일 10 : 00에 의정부 전황을 확인한 후 제3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하도록 명령하면서 재경지역에 있는 각 군사학교의 기간병력으로 하여금 수도경비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수도방위특별연대(首都防衛特別聯隊)를 편성하고, 연대장에 보병학교 유해준 중령을 임명한 후 보병학교 교도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 및 생도대대를 통합하도록 하였다.[103]

그러나 중서부전선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채병덕 총장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앞서 내린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보병학교 교도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는 제1사단에 배속하여 문산(汶山)으로 파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육사 생도대대는 제7사단의 동측을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육군사관학교장(이준식 준장)에게 총참모장의 지시를 하달한데 이어 25일 13 : 00에 육군사관학교 주번사령인 이준학(李俊鶴) 소령을 육군본부로 출두시켜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104]

① 적은 의연히 38도선 및 동해안에서 계속 침공하고 있음.
② 경찰 1개 대대가 군에 배속되었음.
③ 육군사관학교장은 휘하의 생도대로서 1개 대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경찰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372고지－330고지 선상에 이동하여 남침한 적을 격멸하라.

## 2)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의 전투편성과 진지점령

육군사관학교장(이준식 준장)은 총참모장의 명령을 받은 후 사관생도를 소총수로 출동시키는 것에 대해 착잡한 심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의 급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사관학교 교무처장 조암(曺岩)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생도대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육군사관학교에는 임관을 2주일 앞둔 생도 제1기생 263명과 입교한지 불과 25일 밖에 되지 않은 생도 제2기생 334명 등 총 597명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 당일인 25일에는 생도 제1기생 중 2/3가 외출을 나갔고, 생도 제2기생은 자격사격을 위해 전원이 영내에 있었다.[105]

학교본부에서는 3시간에 걸쳐 전투편성을 하면서 저장무기의 방부유(防腐油)를 닦아내고 실탄을 분배하면서, 외출에서 복귀한 생도들로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전투편성을 보면, 생도대대장에 조암 중령, 부대대장에 손관도 소령, 제1중대장에 송인율 대위, 제2중대장에 박응규 소령, 제3중대장에 이원엽 대위, 그리고 박정서 대위가 중화기 중대장에 임명되었고, 대대 인사장교(S-1)에는 최재명

<표 4-15> 육사생도대대 전투편성

| 직 책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직 책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
| 대 대 장 | 중령 | 조 암 | 군 영 | 제1중대장 | 대위 | 송인율 | |
| 부대대장 | 소령 | 손관도 | 육사#5기 | 제2중대장 | 소령 | 박응규 | 육사#3기 |
| 인사장교 | 대위 | 최재명 | 육사#5기 | 제3중대장 | 대위 | 이원엽 | 육사#5기 |
| 작전장교 | 대위 | 이승우 | 육사#5기 | 중화기중대장 | 대위 | 박정서 | |
| 군수장교 | 소령 | 최영규 | 육사#3기 | 연락 장교 | 중위 | 김홍규 | 육사#7기 |

대위, 작전장교(S-3)에는 이승우 대위, 군수장교(S-4)에는 최영규 소령이 임명되었다. 또한 각 중대는 생도 제1기생이 소대장과 반장 및 분대장, 그리고 사수를 맡았고, 생도 제2기생은 소총수 및 탄약수로 편성되었다.[106]

전투편성을 마친 생도대대는 25일 16:00에 학교 본부에서 징발한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기산리 방향으로 출동하였다.[107] 그러나 출동 당시 대대는 전방의 적정을 모른 채 막연히 포천이 위급하다는 사실만을 알고 출발했다. 대대장도 지도 한 장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대대가 퇴계원을 지나면서부터 이동이 더디어 부평리(태릉 동북쪽 17㎞)를 지날 때에는 이미 19:00가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47번 도로(전쟁당시 391번 도로)를 따라 암현리에 이르자 포성이 울려오고, 피난민이 내려오고 있었다. 피난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포천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곳을 지키던 국군 제9연대도 철수하였다고 하였다.

생도대대 부대대장 손관도 소령의 제의로 이곳 391번 도로와 326번 도로가 맞닿는 "Y"자형 교차로 남쪽고지(372고지)에 진지를 급편 방어하게 되었다. 이 곳은 서파와 송우리로 통하는 요지로서 제7사단 작전구역의 동측 후방에 해당하였다. 여기에서 생도대대는 25일 일몰 무렵 372고지를 점령하고, 제3중대를 고지 동측 능선에, 제2중대를 고지 북사면에, 그리고 제1중대를 고지 서측 능선에 각각 배치하였다. 중화기 중대는 고지 남쪽 계곡에 배치하였다. 이날 밤에는 아무런 적정이 없었고, 협동으로 방어하기로 한 경찰대대도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 3) 내촌 전투

6월 25일 밤을 372고지에서 철야 경계태세로 보낸 육사 생도대대는 다음날인 26일 날이 밝아오자 진지작업을 서둘러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날 06 : 00경 서울시경 경찰대대가 이곳에 도착하였다. 경찰대대는 수도경찰국 산하의 별동대인 전투경찰대로 병력은 300명이었고, 개인화기는 일본제 99식 소총과 칼빈(Carbin) 소총으로 휴대 실탄은 개인당 10～15발이었고, 중화기는 보유하지 않았다.

생도대대장 조암 중령은 경찰대대에게 372고지 동북쪽의 330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생도대대와 경찰대대는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대대는 작업 도구가 부실하다는 핑계로 진지구축에 태만하였고, 병력배치도 전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생도대대 부대대장인 손관도 소령은 경찰대대가 중화기를 무장하지 않은 것을 알고, 대대의 기관총 1개 반을 경찰대대에 배속시켜 양 대대간에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생도대대는 교육을 받은 대로 주진지와 예비진지 및 보조진지까지 구축하면서 사계 청소와 위장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일부병력으로 진지 전방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다. 제1중대장(송인율 대위)은 소대병력을 지휘하여 내리 서쪽의 325번 도로상에 대전차호를 설치했고, 진목리(내리 북쪽 2㎞) 부근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한편 포천 축선으로 공격해 온 북한군 제3사단은 축석령 남쪽에서 의정부 공격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전투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군은 의정부를 점령한 후에야 비로소 이곳에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16 : 00경에야 제3사단 제9연대에서 대대규모의 부대가 국사봉(547고지, 송우리 동남쪽 9㎞) 남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내리 북쪽에 배치된 경찰대대 방어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경찰대대와 적과의 교전은 불과 10분만에 경찰병력이 330고지 남쪽의 음현리 부근으로 철수하면서 싱겁게 끝났다. 경찰대대를 가볍게 물리친 적은 그 여세를 몰아 생도대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북한군이 82㎜ 박격포와 45㎜



육사 생도대대 배치 지역(내촌)

대전차포 및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며 내리 서남쪽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공격하려고 하자, 생도대대는 전 화력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자 적은 많은 손실을 입고 물러났다.

그러나 북한군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내리 북쪽의 312고지 부근에서 후퇴병력을 수습하면서 122㎜ 야포와 120㎜ 및 82㎜ 박격포로 생도대대의 진지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대의 81㎜ 박격포 6문이 응사하자 내촌면 일대는 피아간의 포격전으로 변했다. 이때 적이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동서 양 측방의 산기슭으로 은밀히 접근한 후 18 : 00경 대대의 좌우 양 측면으로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동측의 제3중대와 서측의 제1중대 진지에서는 수류탄 투척을 하면서 30여분 동안 격전 중 제1중대의 서쪽 진지가 무너지자 한쪽에서는 육박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돌파구를 막아선 제3중대 제2소대의 분대장인 최성원 생도가 함성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병 3명을 사살하고 장렬히 산화하자, 분대원들도 총검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혈투 속에서 진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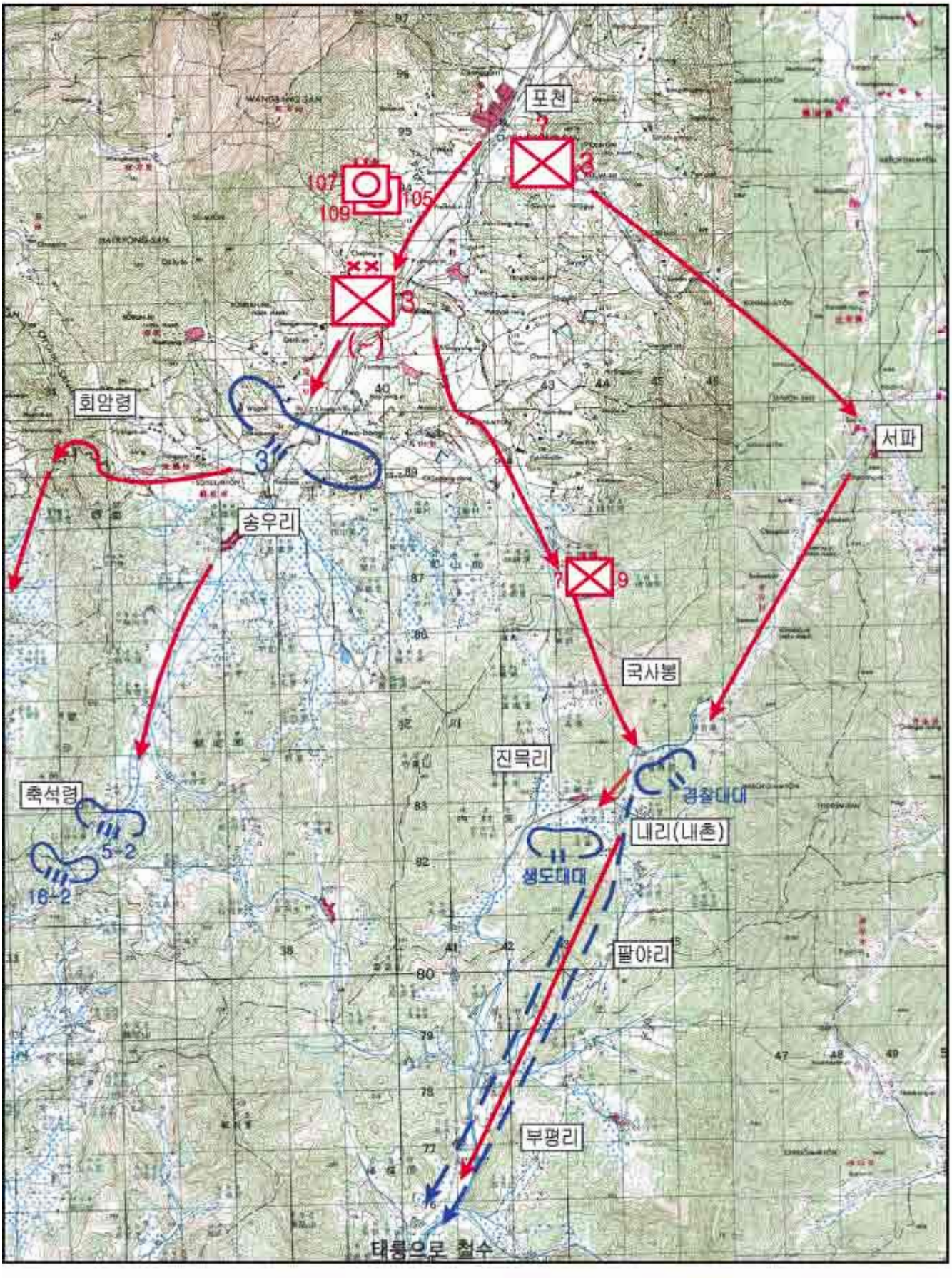
겨우 사수하였다.

바로 이때 사관학교 연락장교(김홍규 중위)가 "생도대대는 즉시 철수하여 학교본부로 집결하라"는 학교장의 명령을 들고 대대본부로 달려왔다. 그러나 대대장 조암 중령이 현지에 없어 부대대장 손관도 소령이 대신 명령을 받고나서 각 중대에 다음의 철수명령을 내렸다.

> 대대는 19 : 00를 기해 현진지를 이탈하는 즉시로 학교본부에 집결한다. 철수순서는 중앙의 제2중대가 먼저 빠지고 그 뒤를 이어 제3중대와 제1중대가 동시에 진지를 이탈하되, 제1기생 생도가 접적(接敵) 견제하고, 제2기생이 선행할 것이며 마지막 철수 시에는 신속한 행동을 취한다.

이에 생도대대는 적과 접촉한 상황에서 19 : 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철수명령에 따라 제2중대와 제3중대는 동측의 47번(전쟁당시 391번) 도로를 따라 대체로 무난히 이동하였다. 그러나 서측의 제1중대는 진지 이탈시 일부병력이 분산

<상황도 4-10> 육사생도대대의 내촌 전투





육사생도 6 · 25참전 기념비

되어 광릉-용암리를 거쳐 퇴계원으로 내려오는 등 철수간 혼선을 빚음으로써 교전시보다도 더욱 많은 병력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생도대대는 제7사단 지역에서의 작전에 종지부를 찍고, 26일 21 : 00에 학교본부로 집결하게 되었다.

## 4.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백석천 전투는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급편방어진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증원부대가 모두 그렇듯이 충분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상황이 못 되었다. 그러나 백석천 전투를 담당한 제25연대는 충분하지 못한 병력과 탄약 부족, 그리고 대전차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못한 열악한 전장 환경

속에서 의정부 방면의 국군이 서울 최후 방어선인 창동-미아리 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을 주었다.

또한 생도대대가 담당한 내촌 전투도 최초 생도대대가 전투부대로 편성된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준비태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긴 하였으나, 생도대대는 비교적 신속하게 전투편성을 하고 장비 및 무기를 지급받고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육군본부에서 명령한 내촌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 2) 전장 기능별 분석 및 평가

백석천 전투 및 내촌 전투는 정상적인 전투가 될 수 없었다. 이들 부대는 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 제대로 편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부대는 전선에 투입되어 강력한 적에 맞서 적의 전진을 지연시켰던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이었다. 여기서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전장기능별 요소에 의해 이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1) 지휘통제

이 전투에서는 제2사단장이 해임되고 제7사단장이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총참모장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사령관에 임명된 유재흥 준장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그 직책에 임명된 사실을 알았을 정도였다.

이처럼 비록 의정부전투지구사령부가 편성되었으나 전방부대들은 분산 철수하였기 때문에 이들 부대에 대한 소재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철수병력도 1개 연대 규모에 지나지 않고, 통신수단도 두절되어 전령 및 연락장교에 의존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으니 긴박한 전선 상황에서 이에 상응한 부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백석천 전투간 지휘책임은 제25연대장에게 있었으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고, 적 전차에 대비한 효과적인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투간 작전지도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내촌전투에 투입된 생도대대의 투입은 당시 전선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생도대대 투입은 세계 전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상황이 아무리 급박했다하더라고 사관생도들을 전선의 일개 병사로 운용하였다는 것은 졸렬한 방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도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후 장교로 임관하여 활용했더라면 불필요한 희생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내촌 전투에서는 생도대대장인 조암 중령이 전투간 행방불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대장 손관도 소령의 지휘하에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철수함으로써 그나마 생도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 (2) 정 보

제25연대나 생도대대는 전투정면의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다만 제25연대는 백석천 다리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한 후 적 전차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생도대대는 전방에 전초부대를 파견하여 적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였다.

### (3) 기 동

백석천 전투에서는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정면에 대한 병력 집중을 기할 수가 없었다. 다만 적의 공격축선에 대한 방어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한편 백석천 지역에 배치된 제25연대는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대전차 장애물을 전혀 운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촌 지역에 배치된 생도대대는 방어진지 구축에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적 접근로상의 도로에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동 대책이 적의 전진을 저지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 (4) 화력 운용

백석천 전투에서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 전차에 대한 조치는 주로 2.36″ 로켓포에 의존했다. 창동 방어선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백석천에 나타난 적 전투에 대해 2.36″로켓포가 적 전차의 궤도를 명중시켜 돈좌시킴에 따라 적 전차가 후퇴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백석천를 지켜내어 다음날 창동 방어선과 이후 미아리 방어선을 축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5) 방 호

생도대대는 비교적 진지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경찰대대 및 백석천의 제25연대는 진지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대한 자체 생존성은 미흡하였다. 생도대대도 적 포병화력에 대해서는 무력하였고, 겨우 적 소화기 사격에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 (6) 전투근무지원

제25연대나 생도대대는 탄약이나 기동장비, 그리고 식사 등의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특히 생도대대는 출동준비를 완료하고도 차량이 없어 민간차량을 긴급 징발하여 전방 방어진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생도대대와 내촌 지역에 배치된 경찰대대는 겨우 소총 실탄만 휴대한 채 출동하였다가 적의 공격한지 10분만에 진지를 이탈하여 태릉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 제 6 절 분석 및 평가

## 1. 작전의 성격 및 결과

제7사단은 전투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주저항선 방어에 실패하였다. 육군은 수도경비사령부의 2개 연대를 증원하여 제3연대(-)는 포천으로, 제18연대(-)는 동두천으로 각각 증원하였다. 이어 대전에서 북상한 제2사단이 포천축선에 투입되는가 하면,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2개 대전차포 중대, 기갑연대의 장갑소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까지 가담하여 이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적의 전차를 앞세운 기계화부대의 화력과 충격력 앞에 26일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되고 수도서울이 직접 노출되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서울의 최후방어선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관문인 중서부지역 전선이 붕괴되자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좌인접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아직 임진강선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동측방이 위협을 받게 되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태릉 정면에서도 생도대대를 비롯하여 춘천의 제6사단과 강릉의 제8사단도 수도 서울의 위기에 따른 전술적 및 심리적인 충격으로 작전지도에 혼미를 겪게 되었다.

육군은 의정부 전선이 붕괴되자 초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일선 병력이 모두 분산되고, 가용한 예비병력이 없게 되자 육군본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장교연대(연대장 공국진 중령)를 긴급 편성하여 창동으로 파견되었고,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이 육군본부 전방지휘소를 창동에 개설하는 등의 조치는 비교적 시기적으로 빨리 취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작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신 두절로 각 연대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26일 밤 수습된 전투병

력은 1개 연대를 넘지 못했고, 이러한 병력으로는 창동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때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병력수습과 창동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지휘체계의 혼란과 병력의 절대 부족으로 26일 밤까지 조직적인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현지에서 수시로 교체됨에 따라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어느 명령에 좇아야 할지 당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혼란은 혼성부대인 경우 더욱 심했다.

이러한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26일 밤 창동 부근에 집결한 병력은 27일 아침 여기에서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1연대(-)는 함준호 대령의 지휘아래 우이동 부근에 집결하였고, 제9연대(-)는 윤춘근 중령의 지휘로 태릉에 집결하였으며, 제5연대(-)는 최창언 중령이 수습하여 창동으로 내려갔고, 제16연대(-)는 문용채 대령이 수습하여 역시 창동으로 후속하였고, 제25연대(-)는 백석천 전투를 마치고 태릉－불암산－창동 선에서 앞에 있는 부대들과 함께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생도대대와 경찰대대도 태릉－불암산 간의 일부 지역을 맡았고, 포병학교의 교도대대도 끝까지 이를 지원하였다. 오직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만은 퇴로가 막혀 고양쪽으로 이동하여 한강을 도하하여 김포반도 철수하였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두천－포천 전투부터 의정부 함락에 이은 백석천 저지선까지의 전투 기간 중 국군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국군은 적 사살 2,741명을 비롯하여 중화기 노획 10정, 소화기 노획 120정 등의 전과를 획득하였다. 이에 반해 국군은 전사 958명(추정 1,732명), 부상 2,220명, 실종 3,117명 등 총 6,295～7,069명의 피해를 입었다.[108)]

## 2. 북한군의 의정부－포천 축선 분석

북한군은 공격계획단계에서부터 국군 주력을 서울 이북에서 격멸하고 서울을 2일차에 조기 점령한다는 계획하에 중서부지역에 주공을 지향한 계획을 수립하

였다. 북한군의 의정부-포천 축선에서의 공격은 거의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다만 47번 도로 축선으로 최초 공격했던 제109전차연대가 서파에서 기동로가 차단됨으로써 43번 도로로 역행군한 것은 제외하고는 의정부 점령까지는 계획에 의한 빠른 진출 속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6월 25일 04:00에 전면 남침기습공격을 개시하여 전쟁 당일인 25일 11:00 포천 점령 및 20:00 동두천을 점령하고, 이어 26일 13:00시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33시간 만에 점령하였으나, 제2군단의 고속기동부대가 홍천전투의 실패로 정상적으로 기동하지 못하고, 또 서울 방어의 최후저지선인 창동 및 미아리 방어선에서 국군의 강력한 저항 부딪치고, 북한군의 포병을 비롯한 기계화부대가 의정부 일대에서 서로 엉키게 됨으로써 충분히 서울을 그들의 계획대로 2일차에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못하게 되었다.

작전간 북한군 전투를 분석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은 전투 및 전략차원에서 양익포위에 의해 국군을 격멸하고자 하였으나, 북한군은 대부분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공격시 국군 방어병력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산악지형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국군이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둘째, 북한군도 통신장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투간 상급부대에서 예하부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셋째, 북한군의 간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초 임무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전선 상황이 바뀌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급부대 지시가 없으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기를 잃게 되었다.[109]

## 3. 전투준비태세

중서부지역을 담당하는 제7사단은 최초부터 방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49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판단한 자료에서도 이 지역이 적의 주공이 지향된다고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서는 전방경계부대로 각 연대에 1개 대대만 배치하였고, 28㎞ 후방에 사단 주력을 배치함으로써 당시 기동장비가 충분히 못하던 사단의 입장에서 최소 각 연대별 1개 대대만이라도 동두천 및 포천으로 추진 배치하여야 했다.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임은 당연히 사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단은 방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단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예비대를 사전확보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예비대라도 편성하여 투입하여 개전 초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또한 이 지역이 적의 주공부대가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판단한 사실에 비추어 사단은 후방 3개 사단의 투입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제9연대와 제1연대를 포천과 동두천으로 근접 배치해야 했다. 개전초기 사단이 전방 경계에 각 1개 대대씩만 배치하고, 그 주력은 의정부와 금오리에 위치시킨 것은 무책임한 조치였다.

비상대기중대와 편성해 놓고 기동장비를 준비하지 못해 적시에 병력증원을 하지 못했다. 또 전차의 출현을 확인한 후에도 적극적인 대전차 방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 4. 전장기능별 평가 및 분석

의정부－포천 정면의 경계책임을 맡고 있던 제7사단은 편제상의 2/3 정도의 병력이 축차적으로 전선으로 출동한데다 개전 초기부터 부족한 탄약과 장비로 인해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최초부터 전투력면에서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이 지역에서 열세한 국군 제7사단이 적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7사단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적의 막강한 화력과 충격력을 갖춘

전차에 맞서 비교적 잘 싸웠다. 그러나 전투의 실패는 준비된 만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이 전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전선은 북한군의 강력한 보전포 공격으로 사단주저항선 방어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육본본부의 명령으로 증원 병력을 지원받아 역습을 결행하였으나, 의정부의 조기 함락으로 국군은 의정부 남쪽의 백석천 일대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두천-포천-의정부를 연하는 3각 지대에서의 전투는 예로부터 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전 형태를 띠었다. 특히 1949년 육군본부 정보 분석에서 이 축선이 적의 주공이 지향하는 축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 또 적 전차의 출현을 알고도 대전차 대화구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교량 폭파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등은 커다란 실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동두천-포천 지역에서의 제7사단의 지휘는 준비태세 미비, 지휘계통의 혼선, 축차적이고 단편적인 역습에 의한 병력 소모, 병력보존을 위한 적극적 고려와 조치의 부재 등과 연관된 문제점을 드러냈다.[110] 이를 분야별로 나뉘어 분석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휘통제

제7사단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자 사단 차원의 초동단계의 조치는 잘 이루어졌다. 사단에서는 어느 전방 사단보다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이를 연대장 및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이어 사단장과 연대장은 개전 초기 단계부터 지휘소에 위치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최전선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사단장은 06:00 이전에 상황 보고를 받고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여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사단참모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전방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필요한 전방 방문을 하지 않고 계속 사령부 내에서 전장을 지휘함으로써 전선 부대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

특히 의정부 함락에 따른 철수과정에서도 후방에 위치한 사단에서 현재 적정

을 알려주고 전방부대가 조직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지휘관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적정도 모른 채 후방으로 철수하는 전방부대는 많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제2사단의 경우 사단장 및 사단 참모들도 전선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모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전개되는 적의 진출 앞에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아군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부대 단위로 분할 투입으로 기존 부대와는 물론이고, 그들 부대와도 상호 연락이 되지 않았고, 증원 및 피증원 부대 지휘관 사이에 작전을 위한 협조회의를 단 한번도 갖지 못함으로써 이들 부대와의 협조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조기에 그나마도 두절이 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간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고, 단일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2) 정 보

제7사단의 경우 개전 전야에는 적의 공격 징후를 예의주면서 이에 대한 첩보수집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대책마련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적 전차의 출현을 알고도 이에 대한 장애물이나 대전차화기의 전방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개전 초기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조기함락으로 이어져 전선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전쟁 국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2사단의 경우는 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전투부대를 전선지역으로 먼저 이동시킴으로써 이미 적의 수중에 넘어간 방어지역으로 출동하였다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낭패를 보게 되었다. 최소한의 수색정찰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면 보다 조직적인 부대 운용 및 전투력 집중을 꾀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참모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할 뿐이었다.

### 3) 기 동

개전 초기 모든 전선에서도 그렇듯이 동두천-의정부 축선에서도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전투준비를 갖춘 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결정적인 정면에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전선 일대에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어느 한곳도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형국을 초래하였다. 또 재경 및 후방부대에서 많은 증원부대가 지원되었음에도 결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여 병력을 집중운용하거나 필요한 예비대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시기 및 장소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약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서 병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서울의 관문이자 적의 주공이 지향된 중서부 지역에는 재경부대 및 후방예비사단들의 많은 증원부대가 투입되었음에도 주로 대대 및 연대단위로 분할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이들 전력을 결정적인 목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적의 대기동 차원에서의 대전차 방비책이 미비하였다. 보병화기와 전차가 정면 대결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 전투에서 적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은 아군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이에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으나 지휘관들은 비교적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지휘관들은 대전차 무기인 57㎜ 대전차포와 2.36″로켓포에만 주로 의존했고, 이것이 실제로 효능이 없게 되자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대전차 대비책은 대전차무기에 의한 직접적인 사격에 국한되지 않았음에도 지휘관들은 이에 대한 폭 넓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즉, 포천 정면에는 28개의 교량이 있고 동두천 정면에는 16개의 교량이 있었다. 만일 이 교량을 모조리 폭파하였더라면 적어도 국군 제2사단이 최후저항선 효과적인 전투를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적 전차가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통로상의 44번 도로상의 애로지점인 만세교와 신북대교 및 축석령에 대전차호를 설치하거나 대전차 장벽

을 구축하였다면 대전차 화기보다도 훨씬 나은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또한 초촌교와 회천교 및 신천 부근의 단일통로를 골라 도로 대화구를 설치했어도 적 전차의 진출을 상당시간 지연시켜 차후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전차는 기동성을 상실하면 하나의 고정된 화기에 불과하다. 그 취약점인 궤도 등에 대해 집중공격 하였더라면 개전 초기부터 전차공포증에서 해소되었을 것이다. 30m 전방에서 적 전차 궤도에 대한 집중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실수로 평가되었다.

### 4) 화력 운용

사단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의정부 축선에 1개 포대를 동두천 지역에 추진하여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제2포대는 효과적인 포병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탄약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가 있음에도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뒤늦게 추진된 탄약마저도 필요한 고폭탄이 아닌 백린연막탄이 보급되어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철수시에도 포병부대는 먼저 철수시켜 전방에서 이동하는 보병부대 철수를 엄호사격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보병과 같이 철수하게 함으로써 보병들은 철수간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포천 축선에 배치된 제5포병대대(-)는 9문 중 7문을 후퇴간에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차후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

### 5) 방 호

제7사단은 5월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경기도와—서울 일원에서 동원된 일반주민과 학생 2,000여 명을 동원하여 약 1개월간에 걸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사단은 주로 제2선의 38도선 경계진지 및 주저항선 진지에는 진지를 구축하

였다. 또한 3번 및 43번 도로상의 교량부근과 굴곡지점 등 사격에 유리한 지형에는 57㎜ 대전차포 진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시급했던 대전차 방어대책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초기 이들 진지는 적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조기에 무력화 되었다. 특히 만세교 남쪽 도로변에 구축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토치카에서 적 전차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전차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속수무책이었다. 그 결과 차후 축차적인 방어진지에서는 적의 공격속도가 빨라 진지를 구축하던 중에 적의 공격을 받거나 겨우 허리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개인호를 구축하였을 때 적의 공격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실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방대대에서는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연대에서는 수송차량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제1연대를 화력지원하고 있는 제2포대는 포탄이 떨어져 그 어느 부대보다도 포탄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사단에서는 저장연료 200드럼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기동 및 통신장비의 입고로 인해 전쟁 초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 수송 및 보급, 그리고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증원된 제2사단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제2사단은 소총 실탄만 휴대한 채 출동하여 전선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적의 전차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서울이 관문인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 주 (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서울 : 삼화인쇄, 1985), pp. 23-24.
2)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3호」 1950. 6. 1.
3)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 1949. 6. 10-1969. 12. 31』, 1970, pp.75-76.
4)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서울 : 합동참모본부, 1984), p. 328.
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서울 : 군인공제회, 2001), p. 138, pp. 153-155, p. 300(이하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로 약칭).
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2, pp. 11-12.
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p. 135-177. 이 표는 앞의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임.
8) 위의 책, p. 288.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p. 301-302.
10) 위의 책, p. 288.
11) 위의 책, p. 288.
12) [US]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Issue 4(NK 105th Armored Division), p. 35;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 22;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 서문당, 1991), pp. 172-175.
13) 북한군 제4사단 정찰명령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38.
14)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p. 30-31.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53.
16)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153.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154.
18) 위의 책,
19) 북한군 제3사단 정찰명령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p. 134-135.
20)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p. 30-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138.
21)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54.
22) 북한군 제3사단 정찰명령서.
23)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54.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2, p. 11.
25)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50. 6. 25-51. 12.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38.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2, pp. 11-12.
27) 위의 책, p. 12.
28)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288.
29)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7), p. 318.
30) 위의 책, p. 318.
31) 「육군본부 일반명령」 1950. 6. 1; 「육군본부 작전명령」 1950. 6. 5.
3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18.
3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18, pp. 353-355; 장교임관서열명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장자료).
34) 장교임관서열명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35) 장교임관서열명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3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28-29.
3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연대 전투상보』 제42권(서울 : 삼문정일인쇄사, 1986), p. 482
38)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 p. 76.
3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28.
40) 위의 책, pp. 28-29.
4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한 괴뢰군의 남침』 2(서울 : 동아출판사, 1969), p. 59.
4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30.
4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19.
44) 위의 책, p. 321, p. 324.
45) 위의 책, p. 323.
46) 위의 책, pp. 323-324.
4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6호」 1950. 6. 27.10 : 00(구두명령 : 25.17 : 00)
48) 그 당시 창동 지역으로 철수한 제1연대(-)의 병력은 400명에 불과하였다.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54.
50) 제1연대 본부는 의정부 서쪽 1㎞에 위치한 직동(直洞)에 주둔하고 있음.
5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21.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p. 153-154.
5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43.
54) 위의 책, p. 344.
55) 위의 책, p. 345.
56) 위의 책, p. 324; 유재흥, 『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서울 : 을유문화사, 1994), p. 118.
5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24.
58) 위의 책, p. 324, pp. 353-354;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20.
5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345-346.
60) 위의 책, pp. 346-347.
61) 위의 책, pp. 351-352.
62)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21.
63)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은 고군반 과정에 입교하였다가 이날 복귀함.
6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55.
65) 「육본 작전명령 제85호」 1950. 6. 25. 14 : 20(구두명령 : 6. 25. 11 : 00).
6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7호」 1950. 6. 25. 16 : 00.
67) 문서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6호」(1950. 6. 27. 10 : 00)로서 27일 10 : 00부로 하달됨.
68) 문서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0호」(1950. 6. 25. 20 : 30)로서 이날 20 : 30에 하달됨.
69) 이형근, 『이형근 회고록 : 군번 1번의 외길인생』(서울 : 중앙일보사, 1993), p. 50.
70) 대전에 있는 제5연대(연대장 대리 박기성 중령)는 시흥 보병학교의 교도대로 파견된 제3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를 제외한 2개 대대가 대전에 있었으나 대부분이 외출한 상태에서 실제 병력은 대전비행장을 경비하고 있던 제2대대(대대장 차갑준 소령) 밖에 없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제16연대(연대장 문용채 대령)는 제1대대(대대장 유의준 중령)가 충주에 있었고, 제2대대(대대장 김헌 중령)와 제3대대(대대장 강태봉 중령)는 청주에 있었으나, 이들 부대도 외출 및 외박으로 인

해 1/3 병력 밖에 없었다.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도 안동에 파견된 제1대대(대대장 임익순 소령)를 제외한 연대의 주력이 온양에 있었으나, 마침 단비가 내려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의 모내기 작업을 돕기 위해 각지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71) 그 결과 대전의 제5연대(-)는 사단사령부와 함께 19 : 00에 경부선 열차에 승차하고, 청주의 제16연대는 제3대대장 강태봉 중령으로 하여금 현지에 남아 주력이 떠난 이후의 복귀병력을 수습토록 한 다음 제1·제2대대를 문용채 대령이 직접 지휘하여 역시 19 : 00에 충북선 열차에 승차하였다. 온양의 제25연대는 21 : 00에 장항선 열차에 승차하였다. 특히 제25연대는 제7사단에 예속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둔지 이동과 다름없이 모든 기물과 장비를 동시에 수송하기 위하여 더욱 지연되었다.

72) 문서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5호」(1950. 6. 27. 01 : 00)로서 6월 27일 01 : 00부로 하달됨.

7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08 : 0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11 : 0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7호」(1950. 6. 25. 16 : 0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0호」(구두명령 : 1950. 6. 25. 12 : 00, 문서명령 : 6. 25. 20 :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구두명령 : 1950. 6. 25. 12 : 00, 문서명령 : 6. 26. 11 :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구두명령 : 1950. 6. 25. 17 : 00, 문서명령 : 6. 26. 10 : 0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7호」(1950. 6. 27. 10 : 00).

7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58.

7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51.

76) 위의 책, p. 352.

77) 위의 책, p. 352.

78) 위의 책, p. 353.

79) 위의 책, p. 358.

8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문서명령은 1950. 6. 26, 08 : 00부).

8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59;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25.

82) 국방부, 위의 책, p. 365; 한신. 『신념의 삶속에서』(서울 : 명성출판사, 1994), pp. 125-126.

83) 한 신, 『신념의 삶속에서』, p. 127. 제2대대는 철수과정에서 창만리(동거리 동북쪽 3㎞) 부근을 지나다가 가벼운 박격포 탄화에 부딪쳐 상황을 확인해 보니, 제1사단 제13연대(연대장, 김익렬 대령)의 작전지역 전방을 통과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제13연대에게 아군임을 통보하여 손실없이 이곳을 빠져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김익열 연대장으로부터 방어진지의 일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본대와 합류하기 위해 상황만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삼송리로 직행하였다.

84)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p. 127.

85) 한 신, 위의 책, pp. 127-128.

86) 강창조 중위(당시 공병학교 근무중대장) 증언(1966. 8. 3).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54.

88) 최윤호 소위 (당시 제7사단 제9연대 제2대대 제8중대 소대장) 증언.

8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 1950. 6. 25. 14 : 20(구두명령 : 6. 25. 11 : 00).

9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7호」 1950. 6. 25. 16 : 00.

91) 문서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0호」(1950. 6. 25. 20 : 30)로서 이날 20 : 00에 하달됨.

9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30.

93) 이는 정찰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은 이러한 정찰행위 뿐만 아니라 피난민 대열 속에 편의대를 투입시켜 연대 후방의 동정을 염탐하였다. 적 전차도 북만세 진지를 돌파한 후 전열을 정비하면서 포천 부근의 병력 배치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4) 왕규익 중위(당시 제9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제2소대장 ) 증언. 한편 로켓포로 적 전차궤도를 명

중시킨 이진성 하사는 전군사격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한 바 있는 명사수로서 제9연대 장병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모범사병이었으나, 적 전차포 사격으로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9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14 : 00부). 이 명령은 문서상으로 볼 때 14 : 00에 하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날 10 : 00에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제7사단을 방문하여 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사단장 유재흥 준장에게 제3연대의 배속을 약속한 뒤, 서울로 돌아가 11 : 00에 구두로 먼저 하달하였다.

96) 김현경 중위(당시 제3연대 제3대대 제12중대장 대리) 증언.

97) 이형근, 『군번1번의 외길인생』, pp. 52-53.

98) 제5연대장 대리인 박기성 중령은 부산에서 아직 귀대치 않았기 때문에 사단 참모장이 부대를 인솔하여 의정부에 도착하였음.

99) 육군포병학교, 『포병학교 발자취』, 1963, pp. 53-55. 이러한 숭고한 포병의 투혼을 기려 대대장 김풍익 소령은 중령으로, 포대장 장세풍 대위는 소령으로 각각 추서되고, 6번 포반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오늘날 전 포병의 귀감이 되고 있다.

100) 제2대대장 김헌 중령은 보병학교 고군반 과정 중에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었음.

10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74.

102) 제25연대 제2대대장 배운용 소령은 창동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있었으나, 백석천에 나온 뒤로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대대 선임장교인 제5중대장 나희필 대위가 대리 임무를 수행하였다.

10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5호」 1950. 6. 25. 14 : 20.

104) 문서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0호」 1950. 6. 25. 20 : 30(구두명령 : 6. 25. 12 : 00).

10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80;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978, p. 124; 박경석, 『육사생도2기』(서울 : 홍익출판사, 2000), pp. 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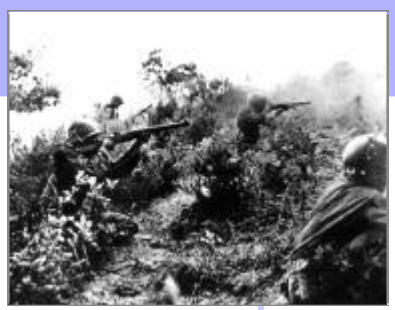
10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81 ; 박경석, 『육사생도2기』, p. 76.

107)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가 민간인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생도대대 출동에 앞서 2시간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도대가 제1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문산으로 이동할 때 육사의 차량이 모두 출동했기 때문이다.

10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385.

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p. 182-183.

110) 온창일, 「한국군 지휘관의 리더쉽」,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 정문사, 2001), p. 79.



# 제 5 장 중동부지역 작전


| | |
|---|---|
| 제 1 절 | 작전 개요 |
| 제 2 절 | 북한군과 국군 상황 |
| 제 3 절 | 춘천—가평 전투 |
| 제 4 절 | 인제—홍천 전투 |
| 제 5 절 | 분석 및 평가 |

# 제1절 작전 개요

중동부지역 작전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화천-춘천 축선과 인제-홍천 축선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조공인 제2군단의 제2보병사단과 제12보병사단,[1]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춘천, 어론리 및 말고개, 현리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를 일컫는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과 말고개 일대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6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군 제2군단은 춘천과 홍천 축선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병력을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으로 우회기동시켜 국군의 병력증원과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제1단계 작전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반면에 국군은 한강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 등 천연장애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2] 6월의 기온은 평균 22℃로써 고온 다습하고 중순부터는 장마철로 접어들어 평균 100~250㎜의 강우량을 보이며, 고온으로 인한 낮은 안개구름으로 피아간의 행동을 용이하게 한다.[3]

지역내 도로망은 화천-춘천-홍천을 잇는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간 46번 도로, 인제-홍천-서울을 연하는 44번 도로와 인제-현리-홍천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다.[4] 그러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으로 횡적 연락 및 작전지원에 불리하였다.

전쟁 당시 중동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던 국군부대는 김종오(金鍾五) 대령[5]이 지휘하는 국군 제6사단이었다. 제6사단은 사단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예하의 제7연대를 춘천 방면에, 그리고 제2연대를 홍천 방면에 배치하는 한편 제19연대는 예비연대로 원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정면의 국군 2개 사단을 포위 섬멸하고 고속기동부대로써 수원 이남으로 우회,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한다는 총참모부 남침계획의 제1단계 작전목표에 기여하도록 이 지역에 제2군단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화천-춘천 축선에는 제2보병사단을,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12보병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투입하였으며, 제2제대로 제5보병사단(-1)을 보유함으로써 국군 제6사단보다 병력면에서 4배, 화력면에서 10배 이상의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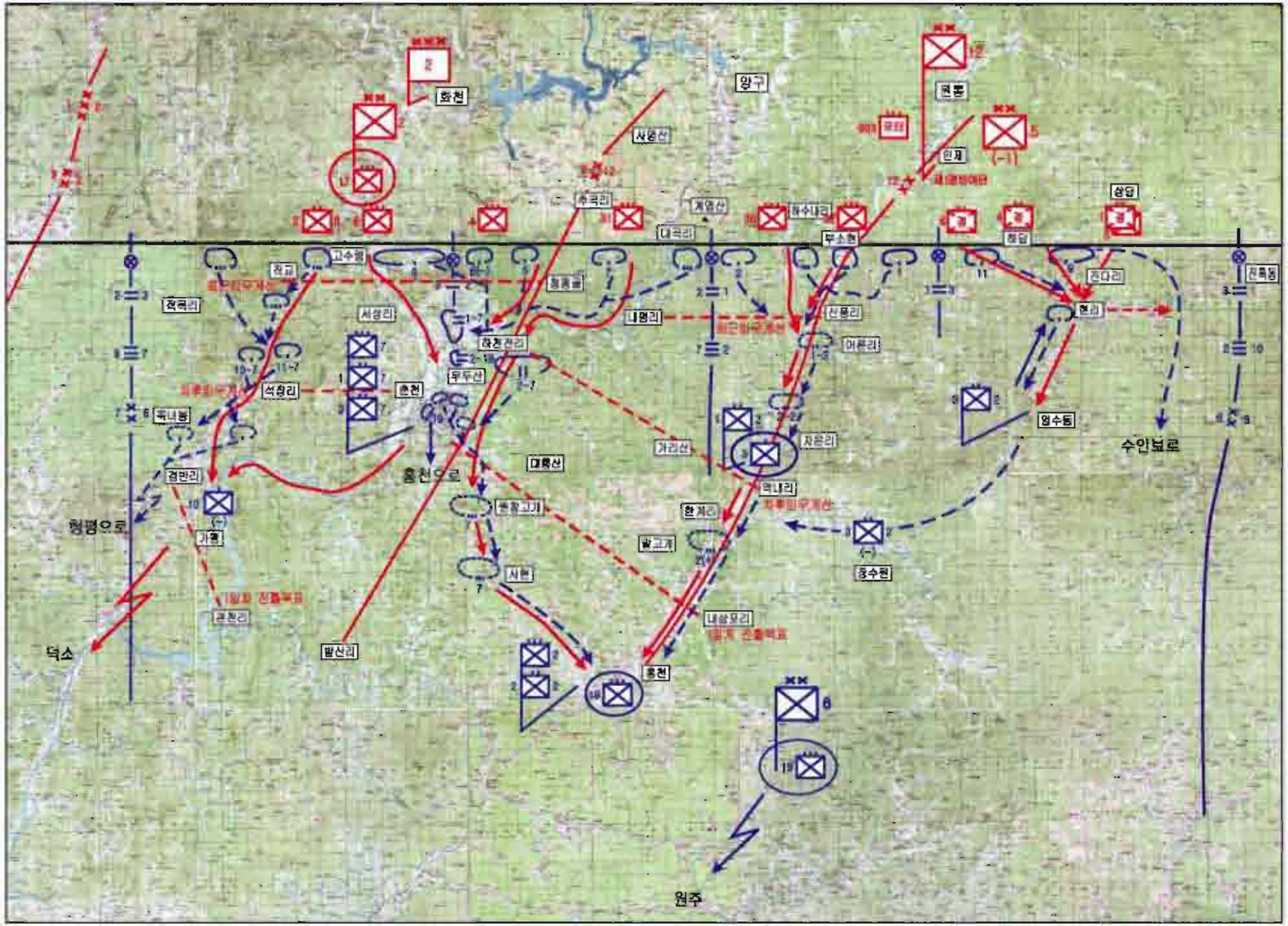
중동부지역의 작전은 작전경과 측면에서 3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최초 38도선 경계진지 전초전으로부터 주저항선 전투가 전개되는 개전 당일의 상황이다.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화천-춘천 축선에서 북한군 제2사단은 모진교를 점령한 후 국군 제7연대의 주항선인 역골-164고지-우두산 선까지 이르렀고, 인제-홍천 축선에서는 북한군 제12사단이 국군 제2연대의 주저항선인 어론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제2단계는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최후저항선 또는 예비진지에서 전투를 전개하는 개전 2~3일차, 즉 6월 26일과 27일의 상황이다. 국군 제7연대와 제2연대는 주저항선 일대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으나 지형의 이점을 통한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위해 소양강 남안과 말고개로 철수,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최후저항선이 와해되고 거점도시가 피탈된 후 지연전을 전개하는 6월 28일과 29일의 상황이다. 국군 제7연대는 6월 27일 춘천이 피탈되자 춘천-홍천간 도로를 따라 철수하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였고, 제2연대는 최후거점인 말고개에서 4차에 걸쳐 북한군의 돌파를 격퇴한 후 지연전으로 돌입하였다.

중동부지역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병력과 화력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상황도 5-1> 중동부지역 작전


양구
사명산
추곡리
계양산
내곡리
무소현
상담
고수평
전교
청풍교
서상리
하천전리
무두산
석창리
촌천
내평리
산등리
어론리
현리
진다리
전특동
척곡리
옥내동
검반리
가평
형평으로
홍천으로
대룡산
자은리
가리산
역내리
환계리
팔고개
홍수현
영수동
수안보로
내삼모리
발산리
홍천
덕소
원주

북한군 제2군단 주력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적의 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피탈은 중동부지역의 방어선 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은 춘천을 포기하고 전선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의 좌측에서 북한군의 주공인 제1군단에 맞선 국군 제7사단은 적의 막강한 화력과 전차부대의 집중공격을 받고 개전 다음날 의정부를 피탈당했고, 이어 6월 28일에는 서울이 함락됨으로써 한강 이남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의 우인접 사단인 제8사단은 육군본부의 사전조치로 무기 및 장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략적 후퇴를 함으로써 장차 작전에서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밑거름이 되었다.

#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북한군 전투편성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한 춘천－홍천 북쪽지역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이 총참모부의 조공군단으로 투입되어 있었다. 제2군단은 예하의 제2보병사단과 제12보병사단을 제1제대로,[6] 제5보병사단(-1)을 제2제대로,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고속기동부대로 편성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30・제31・제32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그리고 각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표 5－1> 중동부지역 북한군 전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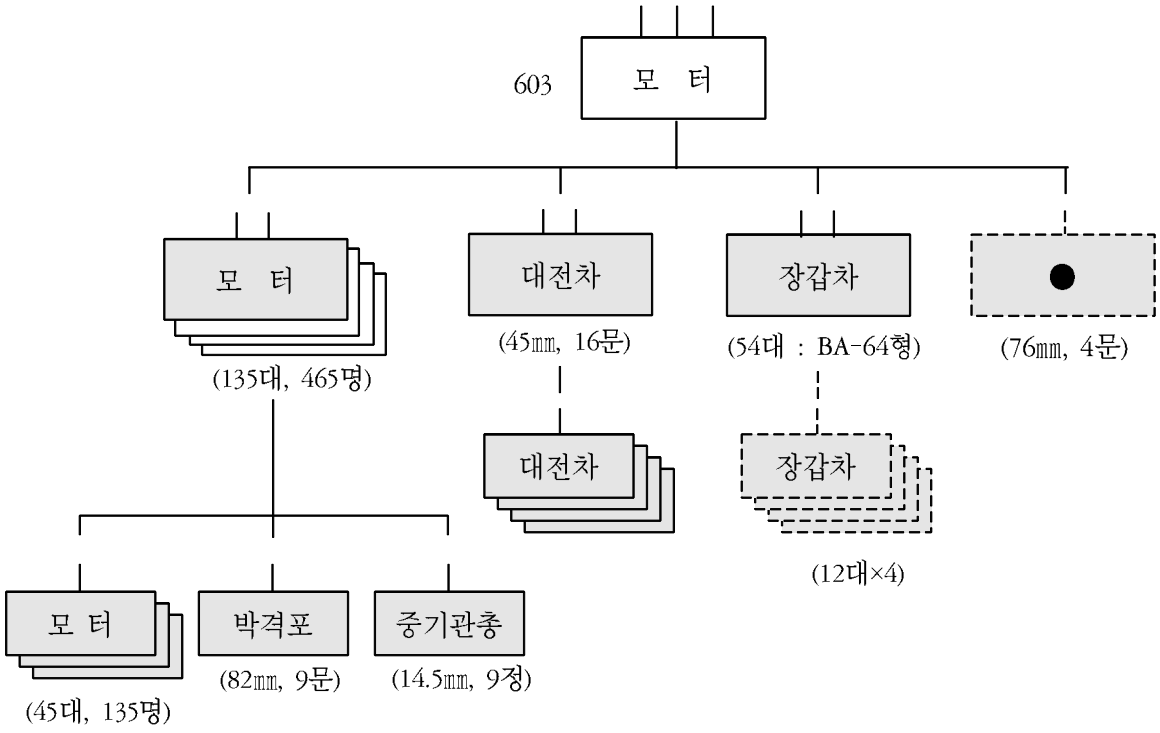
| 구 분 | | 주요 부대 | 비 고 |
|---|---|---|---|
| 제1제대 | 제2사단 | 제4・6・17보병연대, 포병연대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br>• 포병연대는 76㎜(2개 대대), 122㎜(1개 대대)로 편성 |
| | 제12사단 | 제30・31・32보병연대, 포병연대 | |
| 제2제대 | 제5사단 | 제10・11・12보병연대, 포병연대 | |
| 고속기동부대 | 제603모터사이클연대 | 모터사이클 4개 대대<br>장갑차 1개 대대(BA-64형 54대)<br>대전차포 1개 대대(45㎜ 16문) | • 모터사이클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br>• 모터사이클중대는 사이클 45대로 편성 |

북한군 제2사단은 제4연대·제6연대·제17연대의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로, 그리고 제5사단도 제10연대·제11연대·제12연대의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로 편성되었으며, 제12사단과 동일한 편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고속기동부대로 운용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모터사이클 4개 대대와 장갑차 1개 대대, 대전차포 1개 대대로 되어 있었다. 모터사이클대대는 3개의 모터사이클중대와 1개 박격포중대, 그리고 1개 중기관총중대로 편성되었는데, 모터사이클중대는 45대의 모터사이클과 135명의 병력을, 박격포중대는 9문의 82㎜박격포와 3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중기관총중대는 14.5㎜ 기관총 9정과 3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졌고, 장갑차대대는 BA-64형 싸마호트 장갑차 54대, 대전차대대는 45㎜ 대전차포 16문으로 편성되어 있었다.[7]

따라서 국군 제6사단 방어정면의 북한군 전력은 완전편성된 3개 보병사단에 1개 모터사이클연대 등이 투입되어 있었고, 사단 및 연대포병 등 막강한 화력을

<표 5-2>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편성[8]



지원받고 있었다. 제2사단 포병화력으로는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43문 등 107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12사단 포병화력도 76㎜ 자주포 16문과 75㎜ PP 24문, 45㎜ 대전차포 48문과 37㎜ 대전차포 12문 등 11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5사단 또한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48문의 포병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603모터사이클연대 또한 16문의 45㎜ 대전차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2제대로 편성된 제5사단의 포병화력도 122㎜ 곡사포 12문, 76㎜ 견인포 36문, 76㎜ 자주포 16문, 45㎜ 대전차포 48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포병은 보병에 배속되어 운용되었는데, 주공 방면에서 활동하는 보병연대에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76㎜ 자주포포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가 배속되었으며, 조공 방면의 보병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76㎜ 자주포포대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122㎜ 곡사포포대는 주로 대포병 공격에 활용되었다.

한편 춘천-화천 및 인제-홍천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제2군단 및 예하 부대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는 군단장 김광협 소장을 비롯하여 문화부군단장 임해 소장, 참모장 최인 소장이 군단의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었고, 제2사단은 사단장

<표 5-3> 중동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9]

| 구 분 | 화 포 | | | | | | 박격포 | | 계 |
|---|---|---|---|---|---|---|---|---|---|
| | 37㎜ 대전차포 | 122㎜ 곡사포 | 76㎜ 사단포/ 연대포 | 76㎜ 자주포 | 75㎜ PP | 45㎜ 대전차포 | 120㎜ | 82~61㎜ | |
| 제2사단 포병 | | 12 | 36 | 16 | | 43 | 18 | 81 | 206 |
| 제12사단 포병 | 12 | | | 16 | 24 | 32 | 12 | 63 | 159 |
| 제5사단 포병 | | 12 | 36 | 16 | | 48 | 18 | | 130 |
| 제603모터 사이클연대포병 | | | | | | 16 | 12 | | 28 |
| 계 | 12 | 24 | 72 | 48 | 24 | 139 | 60 | 144 | 523 |

이청송 소장[10]을 비롯하여 참모장 현파 총좌[11], 제4연대장 이성호 대좌, 제6연대장 전병갑 대좌, 제17연대장 전문석 중좌, 포병연대장 안격호 대좌로 구성되었다.

제5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김창덕 소장을 비롯하여 문화부사단장 장복(張福), 포병부사단장 박송파(朴松波), 후방부사단장 김립, 참모장 조관 총좌이며,

<표 5-4> 중동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12]

| 구 분 | | 계 급 | 이 름 | 비 고 |
|---|---|---|---|---|
| 제2군단 | 군 단 장 | 소 장 | 김광협(金光俠) | 제88교도여단 출신 |
| | 문화부군단장 | 소 장 | 임 해(林 海) | |
| | 참 모 장 | 소 장 | 최 인(崔 仁) | 조선의용군 출신 |
| 제2보병사단 | 사 단 장 | 소 장 | 이청송(李靑松) | |
| | 참 모 장 | 총 좌 | 현 파(玄 波) | 낙동강전선에서 전사 |
| | 제4연대장 | 대 좌 | 이성호( ? ) | |
| | 제6연대장 | 대 좌 | 전병갑( ? ) | |
| | 제17연대장 | 중 좌 | 전문섭(全文燮) | |
| | 포병연대장 | 대 좌 | 안격호( ? ) | |
| 제5보병사단 | 사 단 장 | 소 장 | 김창덕(金昌德) | 조선의용군 출신 |
| | 참 모 장 | 총 좌 | 조 관(趙 寬) | 〃 |
| | 제10연대장 | 대 좌 | 박정덕(朴正德) | 〃 |
| | 제11연대장 | 대 좌 | 김봉문(金鳳文) | 〃 |
| | 제12연대장 | 대 좌 | 왕 휘(王 輝) | 〃 |
| | 포병연대장 | 대 좌 | 차균섭(車均燮) | 〃 |
| 제12보병사단 | 사 단 장 | 소 장 | 전 우(全 宇) | 〃 |
| | 참 모 장 | 총 좌 | 지병학(池炳學) | 제88교도여단 출신 |
| | 제30연대장 | 대 좌 | 최학훈(崔學勳) | 조선의용군 출신 |
| | 제31연대장 | 대 좌 | 이원성(李原城) | 〃 |
| | 제32연대장 | 대 좌 | 황동화(黃東華) | 〃 |
| | 포병연대장 | 대 좌 | 손응삼(孫應三) | 〃 |
| 제603모터 사이클연대 | 연 대 장 | ? | ? | |

각 연대장으로는 제10연대장 박정덕 대좌, 제11연대장 김봉문 대좌, 제12연대장 왕휘 대좌, 포병연대장 차균섭 대좌가 임명되었다.

또한 제12사단은 사단장 전우 소장[13]을 비롯하여 문화부사단장 김강(金剛), 포병부사단장 최아립(崔阿立), 후방부사단장 김윤식(金潤植), 참모장 지병학 총좌[14]이며, 연대장으로는 제30연대장 최학순 대좌, 제31연대장 이원성 대좌, 제32연대장 황동화 대좌, 그리고 포병연대장 손응삼 대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제30연대 문화부연대장 계중수(桂仲秀)와 제31연대 부연대장 이성진(李成進), 문화부연대장 최희택(崔喜澤), 교도대대장 최명세(崔明世) 등이 사단의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15] 제603모터사이클연대장은 계급·성명 미상이다.

### 2) 공격준비태세

남침작전계획을 수립한 북한군은 1950년 6월로 접어들자 전쟁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작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쟁지도 및 지휘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6월 10일 민족보위성에서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비밀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단장 및 여단장급 지휘관들은 부대이동을 사단급 부대의 대기동작전훈련으로 명명함으로써 비밀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작전개념에 따른 공격제대 형성과 전선에서 예하 사단들의 작전을 통제할 두 개의 '보조지휘소' 창설을 결정하였다.[16] 개전초기 군단으로 통칭된 이 기구는 필수 작전요원만으로 구성된 임시 지휘기구였다.

창설 결정에 따라 북한의 민족보위성은 6월 10일 민족보위성 훈련국장이던 김웅(金雄) 중장을 사령관으로 하여 제1보조지휘소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북한군 제3사단장인 김광협(金光俠) 소장[17]을 사령관으로, 최인(崔仁)[18] 소장을 참모장으로, 그리고 이학구(李學九) 총좌를 작전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제2보조지휘소를 구성하고 최전방의 제2사단과 제12사단, 그리고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통제하였다.

공격제대 편성을 완료한 북한군은 비밀작전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2주에 걸친 대기동작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대전개를 위장하였고, 총참모장 강건

중장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19]

이에 따라 각 사단은 6월 12일부터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부대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38도선의 전진축선 담당 정면으로 이동하였다.[20] 이들은 총참모장이 명령한 대로 6월 23일까지 38도선 북쪽 10~15㎞의 계획된 지역을 점령 완료하였다. 제2군단 예하의 3개 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연대, 그리고 1개 38경비여단 역시 각각 대기동작전훈련을 가장하여 38도선 직후방으로 이동한 다음 6월 23일 전개를 완료하였다.

### (1) 제2보병사단(화천-춘천-가평 방면)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정면인 화천-춘천 축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2보병사단은 6월 10일 함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17일에 추곡리(춘천 서북쪽 19㎞), 장촌리(화천 북서방 7㎞), 원천리(춘천 북서방 20㎞) 지역에 집결하였다.

군단의 조공으로서 춘천-서울 동남방면의 공격을 담당한 제2보병사단은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국군의 예비전력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주력인 제1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은 최초에 2개 연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1개 연대는 예비로 두는 공격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의 우익에는 제6연대를 그리고 좌익에는 제4연대를 두었으며, 제6연대의 후방에는 제17연대를 후속시켰다. 사단은 주공인 제6연대를 우측 302고지-무명고지-북한강연안 춘천행 국도방향으로 지향하면서 국군의 화점과 참호를 포착, 기동과 포위 기동으로써 급속히 돌파하여 고지를 점령한 다음 좌우 인접부대와 합동으로 춘천에 위치한 국군을 완전 포위·섬멸하려 하였다.[21]

사단은 우선적으로 882.2고지-송암리-모진교-마평리 간에서 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여 각 고지를 점령한 후 부여된 최근임무 계선에 진출하고, 차후임무로써 춘천 방향으로 공격하여 당일에 이를 점령한 다음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표 5-5> 북한군 제2보병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사단은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증원차단 및 제1군단의 좌측방을 엄호 |
| 부대 운용 | ○ 최초 2개 연대 병진공격, 1개 연대 예비<br>- 제1제대 : 제6연대(2개 포병대대, 2개 독립대전차중대)<br>제4연대(1개 포병대대, 1개 대전차중대, 1개 공병중대)<br>- 제2제대 : 제17연대, 사단 교육대대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38선 남쪽 3㎞ 직교-세밀고개-청평동<br>- 차후임무 : 38선 남쪽 14㎞ 석장리-계관촌-춘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춘천 방면의 국군 병력을 격파한 후 가평 점령<br>- 2일차 목표 : 가평-서울간 도로를 따라 진격, 덕소에서 한강 도하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

승안리, 가평, 강촌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2] 이에 따라 사단은 직교(춘천 서북쪽 16㎞), 565고지(춘천 북쪽 10㎞), 청평동(춘천 동북쪽 13㎞) 선을 확보하는 최근임무와 이후 춘천 방면의 국군 병력집단을 격파하고 석장리(가평 동북쪽 7㎞), 계관촌(가평 동북쪽 9㎞), 강창리(춘천 서남쪽 3㎞), 춘천 선까지 진출하는 차후임무가 하달되었다.[23]

사단의 우익인 제6연대는 한투옥-갈월리-453고지를 제1대대와 3대대로 포위 소멸한 다음 점령 계선을 공고히 하는 최근임무와 신당리-월송리-서상리-123.1고지-신동리-칠산리를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포위·섬멸한 후 춘천으로 연결되는 북한강 좌우 도로를 통해 죽전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후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좌익인 제4연대는 434고지와 청평리를 점령하는 최근임무와 문정리-천전리-도지골을 점령한 후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우측 국도와 좌측 소로로 하여 춘천을 포위 섬멸하는 차후임무를 부여받았다.[24]

또한 사단은 당일 오후까지 서남 방면으로 진격하여 가평을 점령하는 1일차 목표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둘째 날 아침부터 가평-서울간 간선도로를 따라

진격을 계속하여 덕소리(서울 동쪽 20㎞)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2일차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편성되었는데, 제1제대인 제6보병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제2 및 제3포병대대, 독립대전차대대 예하 2개 중대 등과 협동으로 마평리(춘천 북서방 15㎞), 상송암리(춘천 북쪽 14㎞)를 연하는 선에서부터 진격을 개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제4보병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제1포병대대, 독립대전차대대 예하 1개 중대 및 1개 공병중대와 협동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2제대인 제17보병연대는 공격개시와 함께 제6보병연대를 후속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사단 교도대대는 공격개시와 함께 제4보병연대를 후속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5]

### (2) 제12보병사단(인제－홍천－여주 방면)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정면인 인제－홍천 축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12보병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에 대목리(인제 서방 14㎞), 선수리(점봉산 동남쪽 5㎞) 지역에 1개 보병연대를, 그리고 사단 예하의 잔여 부대를 인제와 고사리(인제 서남쪽 6㎞)에 배치하였다.[26]

군단의 주공[27] 임무를 부여 받은 제12보병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간 간선도로를 차단하고, 이천－수원 방면으로 우회기동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사단은 최초에 1개 제대의 전투대형을 구성하여 예하의 3개 보병연대로 병진공격하는 공격 대형을 완성하였는데, 제31연대는 추곡리(춘천 동북쪽 20㎞)－대곡리(춘천 동북쪽 26㎞) 선을, 제30연대는 764고지(계명산, 대곡리 남쪽 1㎞)의 동남쪽 사면－하수내리(계명산 동쪽 5㎞) 선을, 그리고 제32연대는 862고지(인제 남쪽 10㎞, 방태봉 동북쪽 2㎞) 북쪽 사면－부소현(인제 서남쪽 8㎞) 선을 각각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28]

이와 함께 사단은 38도선에서 적을 섬멸하고 청평리(춘천 동북쪽 10㎞), 내평리

<표 5-6> 북한군 제12보병사단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사단은 주공으로서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출,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간 도로를 차단하고 모터사이클연대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 |
| 부대 운용 | ○ 최초 3개 연대 투입 및 병진공격<br>-제31연대 : 추곡리-대곡리 선 공격<br>-제30연대 : 계명산-하수내리 선 공격<br>-제32연대 : 응봉산-부소현 선 공격<br>○ 제5보병사단 포병 및 모터사이클연대 포병 배속운용 |
| | ○ 최근임무 및 차후임무<br>- 최근임무 : 청평리-내평리-창막동-신풍리 진출<br>- 차후임무 : 하천전리-품걸리-가리산-역내리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석사리(춘천 동남쪽 2㎞)-대룡산-수철대-내삼포리(홍천 동남쪽 9㎞) 진출<br>- 2일차 목표 : 원주-여주간 도로차단 및 모터사이클연대 좌측방 엄호 후 홍천-여주방면으로 진출 |

(춘천 동북쪽 16㎞), 창막동(인제 서남쪽 19㎞), 신풍리(인제 서남쪽 15㎞) 선을 확보하라는 최근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어 하천전리(춘천 동북쪽 7㎞), 품걸리(춘천 동쪽 16㎞), 가리산(춘천 동쪽 21㎞), 역내리(홍천 동북쪽 20㎞) 선까지 진출하는 차후임무가 하달되었다.

또한 사단의 1일차 임무는 석사리(춘천 동남쪽 2㎞), 대룡산(춘천 동남쪽 8㎞), 수철대(홍천 북쪽 9㎞, 무수터), 내삼포리(홍천 동북쪽 9㎞)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며, 공격준비태세를 갖춘 후 둘째 날 아침부터 원주-여주간 간선도로를 차단하여 수원 방면으로 진격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홍천, 여주 방면으로 진격한다는 2일차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소매곡리(홍천 서방 4㎞), 삼현리(홍천 동남쪽 4㎞) 선까지 진출하면, 이천-수원 방면에서의 진격을 위하여 사단 지역에 제603모터사이

클연대가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29]

또한 제12보병사단의 전투지경선은 좌측으로는 인제－부소현(인제 서남쪽 8㎞)－홍천이며, 우측으로는 사명산(화천 동남쪽 17㎞)－청평리(춘천 동북쪽 11㎞)－춘천－발산리(가평 동남쪽 13㎞)을 연하는 선이었다.[30]

### (3) 제5보병사단(홍천－횡성－원주 방면)

제5보병사단(-1)은 군단의 제2제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1950년 6월 20일 나남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양양으로 이동 집결한 사단은 예하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대대를 38경비 제1여단에 배속 편입시켰다.

군단 예비인 제5보병사단(-1)은 제1제대인 제12보병사단이 공격을 개시하면 이를 후속한 후 홍천 지역에서 전투에 최초 투입되어 횡성－원주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전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군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군단의 제1단계 목표인 원주－삼척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 (4) 제603모터사이클연대(홍천－이천－수원 방면)

한편 고속기동부대로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있었다. 1949년 8월 중국으로부터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 약 2,000명이 근간[31]을 이루었던 이 연대는 제12보병사단을 후속하여 진격한 후, 수원 이남으로 신속하게 우회하여 수원－원주－삼척선을 점령함으로써 1단계작전 종결에 기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연대는 제12보병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국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과 합류, 국군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차단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었다.[32] 이에 연대는 인제－홍천 방면을 공격하는 제12보병사단을 후속한 후 전쟁 2일차에 홍천 서남쪽 5㎞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되어 양평－이천－김량장리－수원 방면으로 진격,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수원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다.

<표 5-7> 북한군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작전개념 및 부대 운용

| | |
|---|---|
| 작전 개념 | ○ 연대는 고속기동부대로서 전쟁개시 2일차에 홍천지역에 투입되어 이천-수원 방면으로 진출, 수원을 점령<br>○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차단에 기여하고 병참선을 차단 |
| 부대 운용 | ○ 주공사단을 후속, 홍천에서 투입 후 수원 방면으로 진출<br>- 연대는 인제-홍천 방면에서 제12보병사단을 후속<br>- 전쟁 2일차에 홍천에서 전투에 투입<br>- 양평-이천-김량장리-수원 축선으로 진격<br>-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수원을 점령 |

### 3) 전투력 수준

#### (1) 병력 및 장비

6·25전쟁 발발 직전 화천-춘천 축선 및 인제-홍천 축선 공격을 위해 투입된 북한군의 병력은 총 3만 6,938명으로 같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의 9,338명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를 사단별로 살펴보면 제2사단 1만 838명, 제12사단 1만 2,000명, 제5사단 1만 1,000명, 그리고 제603모터사이클연대 2,000명이었다.[33]

다음으로 이들의 화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북한군은 122㎜ 곡사포 24문을 비롯하여 각종 포 523문을 보유함으로써 국군과는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사거리와 구경 등 성능을 고려할 경우 불균형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춘천-화천 및 인제-홍천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포병전력은 122㎜ 곡사포 24문, 37㎜ 대전차포 12문, 76㎜ 곡사포 72문, 76㎜ 자주포 48문, 75㎜ PP 24문, 45㎜ 대전차포 139문으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120㎜ 박격포 60문 등 총 204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춘천-화천 방면에는 122㎜ 곡사포를 비롯한 각종 포 206문의 전력을 갖춘 제2사단 포병이 배치됨으로써 이 방면에서 남북간

포병전력 대비는 1 : 2의 비율이었다. 인제－홍천 방면에는 제5사단과 제12사단 포병, 그리고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포병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포병전력은 122㎜ 곡사포와 76㎜ 자주포 등 317문의 각종 포를 보유함으로써 국군 제6사단 대비 7 : 1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34]

### (2) 훈련 및 실전경험

북한군 제2사단은 1946년 11월 10일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를 통합 개편한 나남의 보안간부 제2훈련소를 전신으로 창설되어 1949년 말부터 동해안에서 대대훈련으로부터 사단급의 공지협동훈련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산악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개전 당시 제2사단의 대부분의 병사는 6개월 이상의 군사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따라서 1950년 초 북한군 검열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북한군 7개 사단 중 최우수사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35]

북한군 제12사단은 1950년 3월에 국공 및 대일전에 참가하였던 한인계 중공군 출신 1만 2,000명을 원산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주축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남침 2개월을 앞두고 급편한 관계로 협동작전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전경험이 풍부한 병력들로 이루어져 개개인의 전투능력은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다. 이들은 관대리－홍천간의 산악로를 직진하기 위하여 산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력도 타 사단에 비하여 1,000명이 더 많았다.[36]

### (3) 전투준비태세 : 정찰 및 공격선 점령

북한군 총참모부는 공격부대의 이동이 시작되자 남침을 위한 정찰명령과 작전명령, 지령 등을 통해 공격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각 사단에 요구하였다. 1950년 6월 18일에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는 각 사단 정면의 국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정찰명령 제1호 중 제2사단에 하달된 정찰명령은 사단의 진출 방향이 춘천－

서울을 연한 도로를 따라 한강을 도하하여 이천-수원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기 이전에 관측과 야간 수색정찰로 확인해야 할 임무는 참호 및 관측소의 위치, 국군 주력의 위치와 보급체계 및 화력운용체계, 국군 포병의 진지와 화포의 구경 및 문 수, 38도선-춘천간 도로상의 대전차포병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격개시 및 그 이후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국군의 예비대 편성 및 전선투입, 국군 부대의 철수시점과 방향, 가평지역 국군의 규모,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국군 부대 이동형태, 한강선 진출시의 첩보획득이었다.

또한 제12사단에 하달된 정찰명령 역시 홍천-원주를 거쳐 안동-부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단의 사전 정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공격개시 이전의 임무는 제2사단에 하달된 명령과 마찬가지로 국군 주저항선의 최북단 위치, 지뢰지대 등 장애물 위치, 참호 및 관측소, 국군의 병력규모와 활동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공격개시 이후의 임무는 국군의 예비대 편성과 전투지역 투입상황, 국군 부대의 철수개시 시점과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37]

공격부대의 기동이 완료될 무렵, 북한군은 각 사단 단위로 작전명령을 작성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 1950년 6월 중 제2사단장 명의로 하달된 전투명령 제1호는 1950년 6월 22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특별명령에 따라 공격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는 각 연대의 작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38]

또한 개전 전날인 1950년 6월 24일 제2사단 참모장 현파(玄波) 명의로 작성된 지령 제15호는 1950년 6월 24일 19:00까지 저녁식사를 완료하고 완전 전투준비를 할 것과 19 : 00부터 20 : 30까지 중대별로 군무자 동원대회를 실시하여 전투준비상태를 검열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의 방어선과 가까운 거리에 출공선(出攻線)을 점령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위장을 실시하는 한편 최대의 은폐로 및 은폐지를 선택할 것을 지적하는 등 사실상의 공격단계로 돌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39]

### 4) 인접부대 상황

화천-춘천-가평 축선을 공격하는 제2보병사단의 우측에는 포천-의정부-서울 축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2군단 예하의 제3사단(장, 이영호 소장)이 배치되어 유재흥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7사단과 마주하고 있었다. 인제-홍천-여주 축선을 공격하는 제12보병사단의 좌측에는 38경비 제1여단(장, 오백룡 소장) 예하의 7개 대대와 제5사단 제10연대가 배치되어 이성가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제8사단과 마주하며 동해안을 따라 강릉공격을 담당하고 있었다.

## 2. 국군 상황

### 1) 국군 제6사단 부대 현황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6사단은 1949년에 청주에서 원주로 이동한 후 현리로부터 가평에 이르는 84㎞의 넓은 정면에 대한 경비를 맡고 있었다. 제6사단은 예하에 제2, 제7, 제19연대의 3개 보병연대와 제16야전포병대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었으며, 9,338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우익은 789고지를 경계로 하여 제8사단과 그리고 좌익은 적목리를 사이에 두고 제7사단과 각각 연계하고 있었다. 제6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사단장 김종오 대령을 비롯하여 참모장 고시복(高時福) 중령, 인사참모 김인철(金仁哲) 소령, 정보참모 김안일(金安一) 중령, 작전참모 양중호(梁仲鎬) 중령, 군수참모 황필주(黃弼周) 소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단직할 단위대로 제16야전포병대대장은 김성(金聖) 소령, 공병대대장 박정채(朴正采) 소령, 헌병대장 김복호(金福鎬) 소령, 수색대장 김현환(金玄煥) 중위였다.

사단의 우일선인 제2연대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1950년 6월 12일 홍천으로 이동한 후 제8연대와 교대를 실시하여 6월 22일 배치를 완료하였다. 제2연대

가 홍천에 지휘소를 설치한데 이어 제1대대는 홍천을 경유하여 어론리에 대대 CP를 설치하고 600고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 또한 홍천을 경유하여 현리에 대대 CP를 설치하고 병력을 38도선 일대에 배치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의 예비로서 홍천에 위치하고 있었다.[40] 연대의 우일선인 제3대대는 789고지－석둔리 간을, 그리고 제1대대는 좌일선으로 873고지－계명산 동쪽 간을 각각 방어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서 당포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2연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을 비롯하여 부연대장 김봉철(金鳳喆) 중령, 인사주임 안시홍(安時弘) 대위, 정보주임 송대후(宋大厚) 소령, 작전주임 전동식(田東植) 소령, 군수주임 김용휴(金容烋) 대위, 대전차포중대장 이훈(李勳) 중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박노규(朴魯圭) 중령, 제2대대장 김상룡(金尙龍) 소령, 제3대대장 이운산(李雲山) 소령이었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7연대는 춘천에 지휘소를 두고 제2대대는 제2연대 제1대대와 연계하여 양통리까지, 그리고 제3대대는 양통리에서 적목리까지 각각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중 제11중대와 제12중대는 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와 함께 춘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7연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연대장 임부택(林富澤) 중령을 비롯하여 부연대장 최영수(崔泳洙) 중령, 인사주임 조용락(趙鎔洛) 대위, 정보주임 김동명(金東明) 대위, 작전주임 이남호(李南浩) 소령, 군수주임 조한섭(趙漢燮) 대위, 대전차포중대장 송광보(宋廣保) 대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김용배(金龍培) 소령, 제2대대장 김종수(金鍾洙) 소령, 제3대대장 인성관(印聖琯) 소령이었다.

한편 제19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원주에 위치하면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에 주력하고 있었다.[41] 제19연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연대장 민병권(閔丙權) 중령을 비롯하여 부연대장 박광혁(朴珖爀) 중령, 인사주임 김영곤(金榮坤) 중위, 정보주임 송옥석(宋玉石) 소령, 작전주임 박주근(朴柱根) 소령, 군수주임 안용학



제6사단 제2연대와 제7연대의 협조점인 계명산(△764)

(安用鶴) 대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예하의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최병묵(崔炳默) 소령, 제2대대장 최석락(崔錫洛) 소령, 제3대대장 김한덕(金韓德) 소령이었다.

이러한 사단의 예하 연대들은 창설 당시부터 편성상의 건제부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타 사단의 연대와 수시로 교체하여 편성된 까닭에 일률적으로 그 전투력을 평가할 수 없었다. 즉, 제19연대는 남원지구공비격멸전을 전개하고 1950년 5월 1일 원주에 주둔하였고, 제2연대는 1949년 8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옹진의 은파산 전투를 끝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후 전쟁발발 일주일 전인 6월 20일에 홍천으로 이동하여 사단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이들 연대는 당면한 전투정면의 지형숙지는 고사하고 짐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남침을 맞게 되었다.

제7연대는 그 전해인 1949년 2월 20일에 사단에 예속되어 청주로부터 원주로 이동하여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다음, 1949년 5월 3일 춘천으로 이동하여 제8연대로부터 인수받고 3개월 뒤인 8월 6일에는 신남을 침공한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포착·섬멸하는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3개월간에 걸친 방어로 그 지역의 지형을 숙지하게 되고 또한 군·관·민의 유대가 어느 곳보다도 공고하였다.

## 2) 전투준비태세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38도선의 방어임무를 인수한 국군은 "1950년 봄에 북한군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는 1949년 연말의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1950년 3월 25일 방어계획을 확정하고 예하부대에 이를 하달하였다. 육본 작전계획 제38호로 하달된 이 계획은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방어중점을 의정부지구에 두었다. 그리고 제일선의 전방방어지대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전방사단을 제일선부대와 예비대 등 2개의 방어제대로 편성, 전방방어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는 것이었다.[42]

이에 따라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 사단은 38도선상의 경계진지전투, 주저항선전투, 최후저항선전투 등 3단계로 구분된 제일선 작전개념에 입각하여 전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 초기 작전인 경계진지전투는 38도선 경계진지선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하는 것으로써 주저항진지 정면의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며 주저항선까지의 전진(轉進)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후방예비사단은 전방지역으로 집결하고, 옹진 방면의 부대와 동해안의 제8사단은 주작전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적극적인 견제공격과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의 동·서측방을 위협하도록 하였다.

제2기 작전인 주저항선전투는 주진지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 발휘하고 또한 철저한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전에서 격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이 아군의 방어진지에 침입하였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선에서 교착시키며, 전선이 확장되어 전투지도상 불리할 경우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예비진지선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제3기 작전인 최후저항선전투는 전군이 예비진지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을 통해 적의 전력을 철저히 분쇄 격파하여 최후까지 이 진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43]

이와 같은 작전개념에 따라 제일선부대인 제6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 및 방어전투를 전개하는 한편 예상되는 적 주력의 동측면에

대한 위협을 견제하고, 제7사단 우전방에 대한 화력지원을 실시하여 주작전지역의 전투를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44]

이 당시 제6사단이 계획하고 있던 방어개념은 춘천에 방어중점을 두고 적이 공격하면 이를 진지 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한 제6사단은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는 한편 전방에 배치된 2개 연대에 사단 공병 1개 중대씩을 배속하였다.[45]

적 주공의 접근로인 화천-춘천간을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는 이러한 방어개념에 따라 방어지역의 도로상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대전차진지를 구축하였다. 38도선으로부터 춘천까지의 거리가 불과 1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제7연대는 1949년 2월 춘천에 투입된 직후부터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연대는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지원받은 사단공병 1개 중대와 춘천시민 및 학생과 합동으로 진지공사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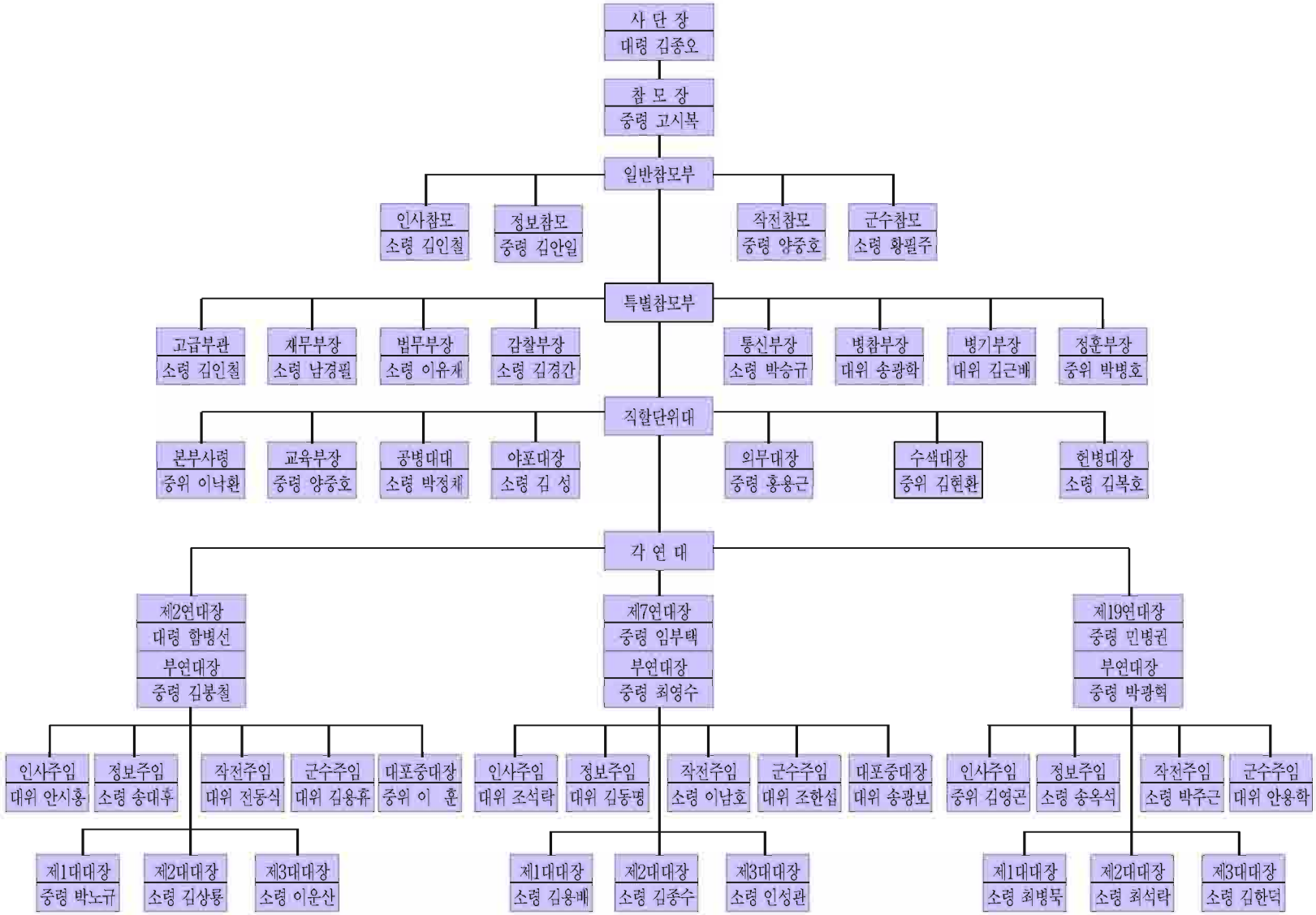
철근 콘크리트진지는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9개 지역에 설치하였다. 적의 모진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진교 우측과 동남쪽 1㎞ 지점에 각각 1개소씩 구축하였고, 용산리와 지내리 중간의 도로 우측변에 2개소, 그리고 화천-가평간 관문인 홍적령의 전사면에 1개소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강 서안에 위치한 금산리-화천간 도로 좌측변과 양구에서 춘천에 이르는 길목인 장재동, 그리고 우두산과 봉의산에 각각 1개소씩을 구축하였다.

콘크리트진지의 두께는 50㎝에 달하였고, 1개 분대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강도(强度)면에서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46] 이 외에도 중대마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2~3개소의 유개호가 마련되었다. 호(壕)와 호 사이에는 교통호로 연결하고 진전에는 지뢰형 철조망을 쌍선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중간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그러나 이 방면의 방어진지는 종심진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방면이 적의 조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어상의 융통성과 주공 방면의 작전추세에 호응

<표 5-8> 국군 제6사단 편성표(1950. 6. 25 현재)

파일 (92% 축소출력): 제5장q-1 편성표(Land)


사 단 장
대령 김종오
참 모 장
중령 고시복
일반참모부
인사참모
소령 김인철
정보참모
중령 김안일
작전참모
중령 양중호
군수참모
소령 황필주
특별참모부
고급부관
소령 김인철
재무부장
소령 남경필
법무부장
소령 이유재
감찰부장
소령 김경간
통신부장
소령 박승규
병참부장
대위 송광학
병기부장
대위 김근배
정훈부장
중위 박병호
직할단위대
본부사령
중위 이낙환
교육부장
중령 양중호
공병대대
소령 박정채
야포대장
소령 김 성
의무대장
중령 홍용근
수색대장
중위 김현환
헌병대장
소령 김복호
각 연 대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
부연대장
중령 김봉철
제7연대장
중령 임부택
부연대장
중령 최영수
제19연대장
중령 민병권
부연대장
중령 박광혁
인사주임
대위 안시홍
정보주임
소령 송대후
작전주임
대위 전동식
군수주임
대위 김용휴
대포중대장
중위 이 훈
인사주임
대위 조석락
정보주임
대위 김동명
작전주임
소령 이남호
군수주임
대위 조한섭
대포중대장
대위 송광보
인사주임
중위 김영곤
정보주임
소령 송옥석
작전주임
소령 박주근
군수주임
대위 안용학
제1대대장
중령 박노규
제2대대장
소령 김상룡
제3대대장
소령 이운산
제1대대장
소령 김용배
제2대대장
소령 김종수
제3대대장
소령 인성관
제1대대장
소령 최병묵
제2대대장
소령 최석락
제3대대장
소령 김한덕

하기 위해 제2선 방어진지의 구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연대의 진지구축은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의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집중되었으며, 전쟁발발 한 달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완료하였다.[47]

한편 포병화력의 집중 운용을 위해 춘천에 배치되었던 제16야전포병대대는 5개소에 포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의 주요 접근로인 용산리-지내리간 도로 좌측변에 1개소, 우두산 도로좌측변에 1개소, 지내리 북쪽 1㎞ 지점과 고탄리 북쪽 1.5㎞ 지점 그리고 천전리 북쪽 500m 지점에 각각 1개소씩을 구축하였다.[48]

그러나 제2연대 정면은 콘크리트진지가 없고 통나무로 쌓은 유개호를 제8연대로부터 인수받아 수축하였는데, 이곳은 철조망 설치나 대인지뢰 매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전쟁발발 3일 전에 부대교대가 이루어져 이를 새로이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연대장이 1년 전에 발생하였던 신남사건을 교훈삼아 기존진지를 보수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서전에서 북한군의 침공에 맞설 수 있었다.

### 3) 전투력 수준

개전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열세하였다. 당시 북한군의 총 병력은 18만 8,000명으로 11만 1,000명의 국군에 1.8배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49]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장비에 있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화포의 구경이나 보유문수, 전차의 유무, 항공기의 보유대수나 질적인 수준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장비의 차이는 전력 대비에서 병력수 대비를 현저히 벌어지게 하는 전투력 승수의 역할을 하였다.[50]

이러한 전력의 차이는 제6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중동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제6사단의 방어정면에 투입된 북한군의 병력은 총 3만 6,938명으로써 9,338명의 국군 제6사단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현재 국군 제6사단의 병력은 <표 5-9>와 같이 445명의 장교를 포함한 9,338명으로 T/O의 93% 수준이었으며, 제대별 병력수는 사령부 2,001명을

<표 5-9> 국군 제6사단 병력 현황(1950. 6. 25~6.28)[51]

| 구 분 | 사령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계 |
|---|---|---|---|---|---|
| | 141/1,860 | 100/2,624 | 105/2,398 | 99/2,061 | 445/8,943 |
| 합 계 | 2,001 | 2,724 | 2,503 | 2,160 | 9,338 |

비롯해 제2연대 2,724명과 제7연대 2,503명, 그리고 제19연대는 2,16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전 직전 제6사단의 화기를 포함한 장비의 수준은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과는 성능이나 보유 문수 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북한군은 최신형의 122㎜ 곡사포 24문을 비롯하여 76㎜ 곡사포 72문과 76㎜ 자주포 48문, 45㎜ 대전차포 139문, 그리고 204문의 박격포 등 총 523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장비로는 105㎜ 야포 15문과 57㎜ 대전차포 12문, 2.36″로켓포 276문, 그리고 60㎜와 81㎜ 박격포 98문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중에도 105㎜ 야포 2문은 가동불능으로 후송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음에도 이에 대처할 대전차지뢰는 사단 내에 한 발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한 군수품의 보유도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1950년 3월 31일 현재 육군본부에 보고한 사단 비상용 군수품 보유실태를 보면 백미 및 정맥 등 미곡은 전무한 상태였고, 단지 예비식량으로 1일분의 건빵 657상자만을 비축하고 있었다. 또한 부대기동의 기본품목인 휘발유는 소요량이 800D/M이었으나 실제 보유량은 단지 359D/M으로 2½ton 차량이 14만 3,600㎞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다행히도 탄약은 M-1소총 1기수, 칼빈 소총을 비롯한 60㎜와 81㎜ 박격포탄, 105㎜ 야포탄 각 2기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7㎜ 대전차포탄과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의 탄약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었다.[52]

<표 5-10> 국군 제6사단 장비 현황(1950. 6. 25~6.28)[53]

| 구 분 | 사령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합 계 |
|---|---|---|---|---|---|
| M-1 소총 | 884 | 1,441 | 1,444 | 1,441 | 5,210 |
| 칼빈 소총 | 44 | 686 | 687 | 677 | 2,094 |
| H M G | 8 | 12 | 12 | 10 | 42 |
| L M G | 6 | 15 | 15 | 10 | 46 |
| 50㎜ MG | 21 | 10 | 10 | 10 | 51 |
| 60㎜ 박격포 | 11 | 18 | 18 | 18 | 65 |
| 81㎜ 박격포 | | 10 | 12 | 11 | 33 |
| B A R | 12 | 42 | 54 | 54 | 162 |
| S M G | 40 | 13 | 13 | 13 | 79 |
| 2.36″ 로켓포 | 96 | 60 | 60 | 60 | 276 |
| 105㎜ 유탄포 | 15 | | | | 15 |
| M7유탄발사기 | 197 | 193 | 196 | 193 | 779 |
| M8유탄발사기 | 317 | 24 | 26 | 24 | 391 |
| M-1 총검 | 117 | 1,441 | 1,363 | 1,441 | 4,362 |
| 칼빈 총검 | | 686 | 684 | 667 | 2,037 |
| 권 총 | 130 | 142 | 107 | 102 | 481 |
| 57㎜ 대전차포 | | 6 | 6 | | 12 |
| 쌍안경 | 45 | 20 | 23 | 18 | 106 |

한편 사단의 교육 훈련실태는 제2연대와 제19연대가 창설과 동시에 전투에 투입된 관계로 체계적인 교육이 곤란하였다. 당시 육군본부는 8개 사단의 전 부대가 1950년 3월말까지 분대전술부터 대대전술까지 교육훈련을 완료하도록 하는 교육각서를 1월에 하달하였으나, 공비토벌과 38선 분쟁 등으로 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육군본부는 3월에 교육각서 제2호를 하달하여 훈련 실시를 독려하

였으나, 6월 15일 현재 65개 대대 중 25%인 16개 대대만이 대대훈련을 완료하고 있었다.[54]

사실상 지휘체제상의 건제부대별로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제6사단은 기회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는데, 중대전투훈련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19연대는 대전차무기가 전혀 없음을 감안하여 과거 대전차공격에 경험이 있는 연대수색대장 박준수 중위를 비롯한 장교 및 하사관을 교관으로 하여 육탄공격요령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7연대는 대대전투훈련을 마쳤으며, 우수한 장교의 피교육 차출을 기피하던 당시의 풍조를 깨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해당학교에 파견하여 보수과정교육을 마치도록 하였다.[55]

한편 제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자 즉각 3개 포대장을 입교시킨 다음 대대장병으로부터 훈련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야간 훈련을 강행하였다. 심지어 군의관까지도 포사격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3개 포대장이 모두 교육에 파견되어 공석중이었음에도 서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56]

### 4) 인접부대 상황

사단의 우인접부대인 이성가(李成佳) 대령이 지휘하는 제8사단은 38도선에 제10연대를 배치하고 삼척에 제21연대를 예비로 집결 보유하고 있었다. 제8사단의 책임지역은 진흑동에서 동해안의 기사문리까지 26㎞로써, 적의 남침시에는 예비인 제21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2개 연대로 38도선에서 적을 저지 격멸하고 강릉을 고수한다는 방어계획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와 오대산, 그리고 연곡천을 이용하여 주저항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그 남쪽의 운두령과 사천선을 예비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었다.[57]

반면에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5사단 예하의 제10연대와 포병대대, 자주포대대와 협동으로 동해연안의 도로 및 소로를 따라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

은 제1경비여단이었다.[58] 이들은 양양-강릉간 해안도로 축선을 따라 북쪽에서 제10연대를 정면공격하고,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를 강릉 남쪽의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시켜 제21연대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제8사단의 2개 연대를 각개격파하는 동시에 강릉을 남북에서 협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편 사단의 좌인접부대인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당시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연대의 각 1개 대대가 38도선 경계를 실시하고 주력은 교육훈련 중에 있었다. 사단은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 변경되는 대신 온양에 주둔하고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를 편입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아직 도착되지 않아 사단예비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59]

수도 서울 점령에 초점을 맞춘 북한군은 연천-운천-의정부-서울 축선에 그들의 주공을 투입하여 전투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의정부 방면에는 제17포병연대 제1대대의 직접지원을 받는 제4사단이 투입되었으며,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가 후속하였다. 그리고 운천-포천 방면에는 제3사단이 투입되었는데 제17포병연대 제3대대의 직접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제107전차연대와 제109전차연대가 후속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수도 서울을 강북과 강남 지역에서 이중으로 양익포위하고 고속기동부대인 전차여단을 이용하여 한강교를 조기에 확보, 국군주력의 퇴로 및 증원병력을 한강선에서 차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60]

# 제 3 절 춘천-가평 전투

## 1. 전투 개요

춘천-가평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보병사단과 춘천 및 가평 일대에서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제7연대는 우측 제7사단과의 협조점으로 설정된 가평 적목리로부터 춘천 동북쪽의 764고지(계명산) 남쪽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대는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화천-춘천 방면에 제3대대를, 조공의 공격로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제2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화천-가평간 접근로에는 제3대대 제10중대를 방어정면에 배치하고 제11중대는 대대예비로 춘천에 두고 있었다.[61]

이러한 가운데 북한군 제2사단은 춘천과 가평을 점령한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화천-춘천과 화천-가평 축선에 투입,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주공축선에 제6연대를, 조공축선에 제4연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17연대를 예비로 두었으며, 화천-가평 축선에는 제6연대 예하의 제2대대를 공격부대로 편성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의 기습공격을 받은 제7연대는 38도선상의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북안의 164고지와 우두산[62]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던 적을 격퇴하였다. 이후 소양강변 및 봉의산[63] 일대에 예비진지를 편성하고 6월 27일까지 적의 공세를 저지한 후 춘천 외곽의 원창고개 일대에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또한 화천-가평 축선의 제3대대(-)도 고수령(고시락고개)과 홍적령(홍지기고개) 등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며 지연전을 전개, 적의 진격을 3일간 저지한 후 6월 27일 금곡으로 철수하였다.



제6사단 전술지휘소가 설치되었던 봉의산

한편 제7연대의 방어지역에는 지역의 행정, 문화,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인 춘천이 있고, 그 일대는 회양군 사동면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그 지류인 소양강과 춘천에서 합류하여 분지를 이루고 있다. 춘천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38도선상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화악산(△1,287), 매봉(△1,437), 652고지, 경운산(△779), 부용산(△882)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다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동로는 5번 도로가 북한강을 따라 화천-춘천-홍천으로, 46번 도로가 양구-춘천-서울로 이어진다. 따라서 당시에 기계화부대가 화천이나 양구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춘천을 통과해야만 하였다.[64]

반면에 화천-가평 축선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사창리-시룬고개-신당리와 신포리-고수령-홍적령-목동리-가평으로 통하는 두개의 접근로만이 있었다. 이중 우측 접근로가 가평까지 단거리인 동시에 비교적 기동이 용이하므로 북한군이 공격할 경우 이 접근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공격부대 임무

중동부지역의 요충인 춘천 북쪽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2사단은 춘천 공격을 위해 함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1950년 6월 17일 38도선 인근에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들은 춘천과 가평을 점령한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증원을 차단하고 제1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의 주공인 제6보병연대는 사단의 우익으로 마평리－모진교[65]간에서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춘천 방면으로 전진토록 하였고, 제2대대는 고수령－지암리에 있는 국군을 섬멸하고 가평 방면으로 진출토록 하였다.

또한 조공인 제4보병연대는 좌익으로서 양통고개－부귀대 간에서 적을 돌파하고 청평리와 천정리로 공세를 확대하여 춘천을 포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제2제대로 편성된 제17보병연대는 1～2㎞ 후방에서 제6연대를 후속하고, 점령한 계선에서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66]

#### (2) 전투 편성

북한군 제2군단의 조공으로서 춘천－가평 방면으로 진출임무를 부여받은 제2보병사단은 최초의 계획대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1개 연대는 예비로 두는 공격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제6보병연대와 제4보병연대가 제1제대로, 제17보병연대는 제2제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가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

사단의 주공으로 공격정면의 우익을 담당한 제6보병연대에는 대전차포대대 제

2중대와 공병대대 제2중대가 배속되었고, 포병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 자주포대대의 지원을 받았다. 사단의 조공으로 좌익을 담당한 제4보병연대에는 대전차포대대 제1중대와 공병대대 제1중대가 배속되었으며, 포병연대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교도대대와 대전차포대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편성되었고 예비대의 지휘관은 교도대대장이었다. 대전차포대대 제8중대, 공병대대 제3중대 및 제4중대, 자주포대대는 사단의 대전차기동예비대로 편성하고 지휘관으로 자주포대대장을 임명하였다.[67]

한편 사단의 우익에는 금주리-양문리-341.4고지 간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장거리-다산리-부평리-서울 방면으로 진격토록 되어 있는 제3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좌익에는 부귀대-수인리-막장골-부평리 간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 홍천-원주-여주-횡성 방면으로 진격할 제12사단이 있었다.[68]

## 2) 국군 상황

### (1) 제7연대 부대 현황

제6사단 제7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서 1949년 2월 20일 제6사단에 예속되어 청주에서 원주로 이동하여 2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5월 3일 현 진지인 춘천에 전개하였다. 이동 후 제7연대는 제8연대로부터 화천 방면의 38도선 경계임무를 인수받아 제3대대와 제2대대를 각각 좌·우전방에 두고, 제1대대를 예비로 연대본부와 함께 춘천에 주둔시켰다.[69]

이 무렵 제7연대에는 보병 3개 대대와 대전차포중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제16야전포병대대와 사단공병대대 1개 중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연대의 병력은 장교 105명과 사병 2,398명 등 2,503명이었으며, 주요 화기는 57㎜ 대전차포 6문, 2.36″ 로켓포 60문, 60㎜ 및 81㎜ 박격포 각각 18문 및 12문 등이었다.[70]

제7연대의 전투지역인 춘천-가평 지역에 투입된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연대장 임부택 중령을 비롯하여 부연대장 최영수 중령, 인사주임 조용락 대위, 정보

주임 김동명 대위, 작전주임 이남호 소령, 군수주임 조한섭 대위, 대전차포중대장 송광보 대위이며,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 제3대대장 인성관 소령이었다.

### (2) 전투 준비태세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6사단의 방어개념은 춘천에 중점을 두고 북한군이 공격하면 이를 진전에서 격멸하여 38도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71] 이에 따라 사단은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방 2개 연대에는 사단공병 1개 중대씩을 각각 배속하였다.

제7연대의 방어배치는 좌전방에 제3대대를, 우전방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예비대인 제1대대를 춘천에 집결 보유한 전형적인 지역방어 형태였다. 전방 중대는 통상 5~8㎞의 광정면을 담당하고, 특히 연대 좌전방인 제3대대 제10중대는 19㎞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 중대들은 중요지형과 적의 예상접근로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작전지역 내에서 동원된 대한청년단원을 배치하여 군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경계와 조기경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72]

한편 제7연대는 춘천으로 이동한 이래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장병 모두가 지형에 익숙하였다. 게다가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장병들의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전투 훈련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교들이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기피하던 당시의 풍조를 깨뜨리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병 및 포병학교에 파견하여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춘천이 38도선에 인접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곳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방어진지 보강공사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38도선 부근 주요 접근로에 토치카 및 유개호를 구축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진지를 보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48㎞의 넓은 정면을 골고루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춘천을 고수할 주저항선 진지가 없었으므로, 연대는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 3) 적의 공격징후 및 사단의 조치

제6사단이 최초로 전선을 담당했을 당시에는 별도의 작전계획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작전지도방침을 작성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 당시에 작성된 작전지도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방어의 중점을 춘천에 두며, 적이 공격할 시에는 이를 격파한 다음 공세이전 한다.
② 제8연대는 우일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공세로 이전할 준비를 하라.
③ 제7연대는 좌일선에서 적의 주력을 격파하고 공세로 이전할 준비를 하라.
④ 제19연대는 명에 의하여 역습부대로 투입될 준비를 하라.
⑤ 포병대대는 적의 주력방향에 집중 운영한다.
⑥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중대를 배속하라.

그 후 육군본부에서 방어계획이 마무리되어 사단은 작명 제42호(1950. 5. 18)로 이를 확정하여 예하대에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이 예하대에 하달되어 익숙해지기도 전에 38도선 일대에는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아울러 6월로 접어들면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예하의 각 연대로부터 긴급한 첩보가 사단에 보고되었다.

제7연대의 보고에는 5월 이래로 북한군은 한 건의 도발행위도 일으키지 않았고, 6월초부터는 포진지 구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포를 전선으로 추진 방열하는 한편 병력수용을 위한 천막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도를 펼쳐 든 군관들이 남쪽을 향해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이러한 북한군의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6월 19일,

제7연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북한군 제2사단 소속의 전차병 한 명이 귀순[73]했는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23일부터 38도선 접경에서의 야외연습을 위해 1주간의 야간행군으로 전차 40대와 함께 화천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많은 병력과 포가 집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였다.

사단장은 포로의 진술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보고토록 연대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윤수용(尹銖庸) 소위를 비롯한 30명의 수색대를 화천 및 양구 방면으로 잠입시켜 “화천에 차량 400대 및 양구에 300대가 각각 춘천으로 남하할 태세를 갖춘 채 줄지어 있고, 그 양쪽에는 대병력이 숙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대장은 6월 23일 08 : 00에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와 작전주임 이남호 소령을 대동하고 제3대대 제9중대 관측소에 올라 적정을 직접 확인하였다. 모진교 북쪽에서 대병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연대를 방문한 사단장에게 적정을 보고하였다. 적정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적정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와 적정 변화시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령부로 돌아온 사단장은 육군본부 정보국장 장도영(張都暎) 대령의 고문관인 미군 대위에게 연대 정면의 적정을 알리고 다른 지역의 적정을 물었다. 그는 매우 평온한 상태며, 북한군의 공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제7연대장은 심야에 작전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였다. 그 결과 연대장은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하니 사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사단은 군량미가 부족하므로 외출, 외박을 적극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1/3 이상의 병력이 빠진 상태였고, 유사시에는 현존 병력을 수습하여 전투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미 하달된 작명 제42호를 기초로 적의 침공에 대비해야만 하였다.

# 3. 춘천지구 전투

## 1)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기습공격

국군 제6사단의 좌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제7연대 경계지역에서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이 2개 연대 병진으로 연대정면을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2사단은 화천-춘천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는 주공인 제6연대로서 이날 중으로 춘천을 점령하고 가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공격 방향을 북한강 연안의 화천-춘천간 국도로 지향하고 있었다. 국군의 화점과 참호를 포착, 보·포의 기동으로 신속하게 이를 돌파하여 고지를 점령한 후 인접부대와 협동으로 춘천의 국군을 완전 포위·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제6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마평리-모진교-상송암리 선에서 국군 제7연대의 방어선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 공격대형에는 대전차포대대 제2중대와 공병대대 제2중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포병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자주포대대 등 강력한 포병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제6연대를 지원하는 포병은 이미 사단의 전투명령을 통해 6월 22일 24:00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가까운 종심과 방어 일선에 있는 방어병력 및 화기들을 진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또한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여 이를 통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할 것과 거례리-내촌-가일현간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종대로(縱隊路)를 개설할 것 등의 임무도 부여받았다.[74]

반면 북한군 제6연대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였던 부대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였다. 인성관 소령이 대대장인 제3대대[75]는 사단 경계책임지역 중 적목리-마평리-양통고개를 잇는 약 28㎞에 달하는 넓은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된 화천-춘천간 5번 도로 방면에는 제9중대(장

이내흥 대위)가 투입되었다.

한편 국군 제7연대 제2대대의 방어정면인 양통고개－부용산간을 연하는 선에서도 강력한 포격지원을 받는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인 제4연대로서 배치고개－청평리－천정리 방면으로 공격을 지향하여 춘천을 포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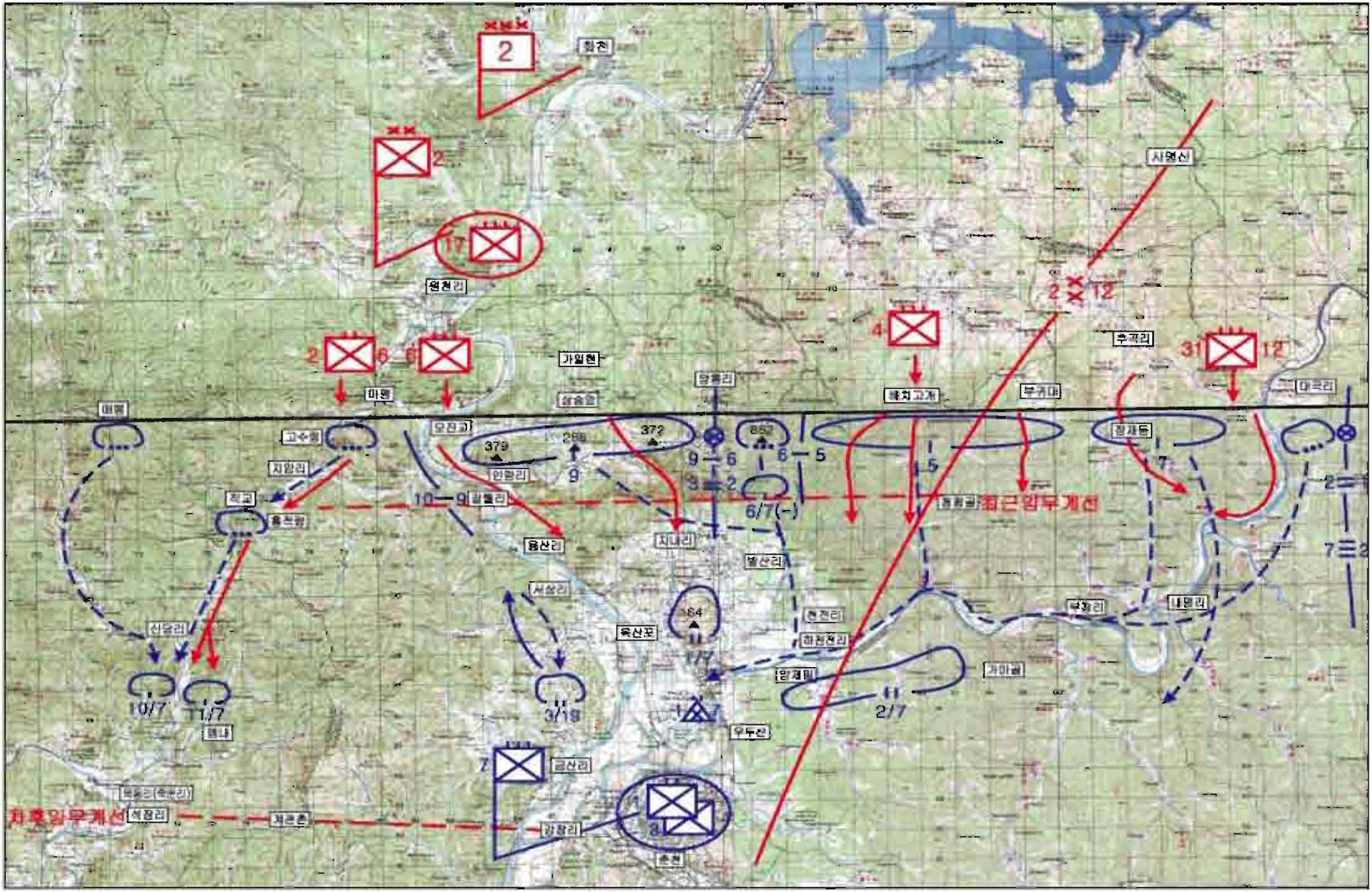
따라서 이들은 제2대대 제5중대의 방어지역인 배치고개에 주공을 투입하여 방어지역의 중앙을 돌파, 국군을 양분한다는 기도로 공격을 개시하였다.[76] 배치고개 일대에 구축된 국군의 박격포 및 대전차포진지를 압도하기 위해 공병대대 제1중대가 대전차대대 제1중대와 함께 참여하였고, 포병연대 제1대대가 포병지원을 담당하였다.

제2제대로는 주공인 제6연대를 후속하도록 계획된 제17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춘천 동북쪽의 추곡리－대곡리간을 연하는 선에서도 연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로서 제2사단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춘천 점령에 기여한 후 춘천－홍천간 도로를 따라 우회기동하여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기도를 갖고 있었으며, 사단 포병연대 예하 1개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77]

이에 반해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국군 부대는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였다. 김종수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 예하의 제5, 제6, 제7중대는 양통고개－배치고개－장재동을 잇는 약 20㎞의 방어정면을 좌전방으로부터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25일 04 : 00경에 국군 제7연대 방어지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력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시작된 적의 포격은 인람리 및 지암리 일대에 집중되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북한군 제2사단의 주공연대인 제6연대가 국군 제3대대 제9중대의 방어정면인 마평과 상송암을 연하는 선으로 자주포를 앞세우고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가해 왔다.[78] 또한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연대인 제4연대는 국군 제7연대 제2대대의 방어정면인 추전리(춘천 동북쪽 19㎞) 및 부용산 좌측계곡, 그리고

<상황도 5-2> 제7연대 경계진지 전투


2
원천
2
17
원천리
2
6
6
마현
가일현
삼송읍
양릉리
4
배치고개
2
12
시명산
추곡리
31
12
마곡리
부귀대
원릉
고수동
지함리
적고
홍죽원
오전교
379
286
372
인창리
9
9—6
3—2
652
6—5
1.5
6/7(-)
10—9
갈월리
용산리
치내리
봉산리
접근임무계선
서설리
신설리
옥산포
164
1/7
10/7
1/7
3/19
1/7
2/7
우두산
금산리
차후임무계선
서창리
제곡촌
강창리
촌전
원계리
하천창리
구화리
내원리
과마골
점재동
7
2

발산리의 소로를 따라 공격을 가해왔다.[79] 북한군 제2사단은 국군 제7연대의 제일선 경계진지를 침공하였고, 이로써 춘천 북쪽의 지암리-인람리-고탄리-청평리-추전리 일대에서 교전이 전개되었다.

### (2) 모진교 및 배치고개 일대의 경계진지 전투

1950년 6월 25일 04:00, 적은 인람리에서 부용산[80]에 이르기까지 38도선을 연해 구축된 제7연대의 방어진지에 강력한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포격은 38도선으로부터 후방 3㎞ 지점까지 도달하였으며, 특히 고탄리 북쪽 286고지에 설치된 제3대대 제9중대의 관측소에도 집중되어 중대장이 전사하고 통신이 두절되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끝낸 적은 제3대대 제9중대의 방어정면인 마평리에서 상송암리를 연하는 선으로 SU-76 자주포와 함께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감행해 왔다.[81] 이들은 화천-춘천간 도로를 따라 춘천으로 공격을 지향한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 병력이었다.[82] 그러나 국군은 험악한 산악지의 중요 부분에만 경계병 수준의 병력만을 배치함으로써 대규모 병력으로 침공해 온 적을 격퇴할 수 없었다.

05:30 전사한 중대장을 대신하여 중대 선임장교 김정규 중위가 지휘를 맡은 제3대대 제9중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병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진지가 돌파되었다. 반면에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적은 점차적으로 병력이 증원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적이 화천에서 춘천에 이르는 5번 도로를 따라 침입하였고, 그 선두는 이미 용산리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07:30 마침내 제9중대원 30여 명은 방어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수리봉 일대에서 후퇴하고 있던 인접 제6중대 1개 소대와 합류, 우두산을 거쳐 소양강 남안의 예정된 방어선인 지내리 일대를 점령하였다.[83]

한편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연대인 제4연대는 국군 제7연대 제2대대의 방어정면인 추전리(춘천 동북쪽 19㎞) 및 부용산 좌측계곡, 그리고 발산리의 소로를 따라 공격을 가해 왔다.[84]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2대대의 각 중대와 소

대는 거점에 고립된 상황에서 힘들게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06 : 00경 제2대대 제5중대와 제7중대는 약 2개 대대의 적을 맞아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진지가 돌파되어 제7중대는 내평리를 경유하여 지내리로,[85] 그리고 제5중대는 마적산 기슭과 천천리를 경유하여 우두산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경계진지에 배치된 각 중대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등 전선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제2대대장 김종수(金鍾洙) 소령은 대대 작전장교를 대동하고 제5중대의 방어지역인 부용산으로 직행하였다. 그곳에서 치열한 교전상황을 확인한 대대장은 대대 좌제일선 중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산리로 향하였다.

천천리에 도달한 08 : 00경 대대장은 제6중대장이 급파한 연락병으로부터 적정상황을 보고받았다. 제6중대는 적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고 축차적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대대장은 최대한 적을 저지·격멸할 것을 연락병에게 지시하고 우두산으로 복귀하였다. 이즈음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는 천전리 지서 앞에 포를 방렬하고 적의 공격로인 발산리－수리봉 일대를 향해 저지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대대장의 지휘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전개된 각 중대의 철수는 무질서하였다. 대대의 철수병력은 11 : 00경 연대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던 우두산에 집결하였으며, 약 1시간 후 대대장의 지휘 아래 소양강을 도하하여 가마골에서 양재일에 이르는 주진지를 점령하고 하천선 방어에 임하였다.

이 무렵 대대의 방어진지 정면인 천전리에는 북한군 제4연대 병력이 집결하여 소양강 도하를 준비하였다.[86] 대대장은 북안(北岸)의 적을 역습하기로 결심하고, 이 지역에서 도하작전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제5중대장 김상홍 대위에게 소양강을 도하하여 적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홍 대위는 30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실전교육을 마친 후 적진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무방비상태에서 도하를 준비하던 적에게 수류탄과 소총 등으로 역습을 가하고 전원 무사히 귀대하였다.

### (3) 아군의 주요 조치

38선상의 경계진지로부터 강력한 북한군의 포격이 개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그들의 징후 및 행동으로 보아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간파하였으나 그 침공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격이 인람리에 집중되자 적의 주력이 5번 도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05 : 00를 기해 비상을 발령하여 영외거주 장병과 외박중인 병력을 소집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여 적을 진전에서 격퇴하라.
③ 제3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고 명에 의하여 인람리의 적 측방을 강타할 준비를 갖추라.
④ 제1대대는 현 집결지로부터 출동하여 △164를 점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라.
⑤ 제16포병대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직접 지원하고 명에 의하여 제1대대를 화력 지원하라.

이에 앞서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적정을 보고하였으며, 각 대대에 작명을 하달한 직후 각 대대와의 유무선이 두절되어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단장은 원주에 위치한 사단사령부에서 제7연대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전면공격이 개시되었다는 급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직후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의 통화를 통해 강원도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인적자원과 물자를 동원하고 징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단장은 즉시 제19연대의 출동명령과 물자징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한 후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을 대동하고 춘천으로 직행하여 봉의산의 제7연대 관측소에서 작전을 지휘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산악지대의 중요지역과 북한군의 예상접근로에만 소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적을 격퇴할 수 없었다. 아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로 진지가 돌파되었고, 적은 더욱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그동안의 전투경과를 분석한 결과, 적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들의 주공 방향이 5번 도로로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장기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전투준비조치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작전지역내의 민간차량과 연료를 징발하여 연대의 기동력을 확보한다.
② 개전 직전에 육군본부 지시에 의거 예하 부대에서 회수하여 연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화기를 각 중대에 재지급한다.
③ 군량미를 확보한다.
④ 삼천리 탄약고에 보관중인 탄약을 안전지대로 이전시킨다.
⑤ 연대 신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해 연대 본부중대 및 근무중대 병력으로 전투부대를 잠정 편성한다.

이와 같이 지시한 연대장은 09 : 00 우두산으로 연대 전술지휘소를 이동하는 한편 연대본부 소속의 장교를 연락장교로 활용하면서 진두지휘 태세를 갖추었다.[87]

### 2) 주저항선 전투

#### (1) 주저항선 진지 점령

연대의 예비로 춘천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제1대대에 6월 25일 05 : 00를 기해 비상이 발령되었다. 이미 대대 연병장에는 영외거주 장병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전방의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한 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연대의 비상발령에 앞서 자체 소집망을 통해 영외거주 장병을 소집해놓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대부분의 장교 및 하사관이 집결한 상태였다.[88]

그러나 많은 병사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연대의 가두방송을 통해 전쟁발발 상황을 알게 된 병사들 중 일부는 출동시간에 맞추어 귀대하였고, 나머지는 소양강 북안의 계획된 방어진지로 직접 달려갔다.

출동에 앞서 대대장은 북한군의 침공상황을 간략하게 강조하는 한편 즉시 소양강을 건너 128고지로부터 164고지에 이르는 선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인람리 및 부창리 방면의 길목을 중점 방

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08:20 예정된 방어진지로의 투입을 완료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89] 연대장 또한 제1대대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제3대대의 예비인 제12중대를 송현리(옥산포 남쪽 1㎞)로 추진시키고 부연대장 최영수(崔泳洙) 중령으로 하여금 화력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로서 사단사령부와 함께 원주에 위치하고 있던 제19연대는 6월 25일 07:00를 기해 비상경계에 돌입하였다.[90] 그러나 비상경계에 돌입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장병들은 거의 없었고, 3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최전선에서 쌍방간의 격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제19연대는 연대장 민병권 중령이 참모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부연대장 박광혁 중령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병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대대는 이날 대대장 김한덕(金韓德) 소령의 명령을 받고 영내에서 대기 중에 있었다. 선발대로서 출동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연병장에 집결하여 연대 군수주임 안용학(安用鶴) 소령으로부터 개인별 1기수의 탄약과 함께 충분한 양의 보급품을 지급받았다. 이어 군장검사를 마친 대대는 연대수색대와 함께 연대에서 보낸 차량에 분승하였다. 영월광업소에서 징발한 5대의 차량을 포함하여 20대의 차량에 분승한 이들은 13:00에 원주를 출발하였다.[91]

외출중인 병사들이 복귀하기 시작한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차량의 부족으로 기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대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박광혁 중령은 20:00에 양 대대를 지휘하여 원주역을 출발하였으며, 청량리를 경유하여 춘천으로 향하였다.[92]

한편 연대 작전주임 박주근(朴柱根) 소령은 대대와 함께 춘천으로 직행하였다. 그의 임무는 부재중인 연대장을 대신하여 작전 및 행정지원 사항을 사단 및 제7연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데 있었다. 춘천에 도착한 그는 즉시 제7연대 관측소가 위치한 봉의산에 연대관측소를 임시로 개설하고 연대가 춘천으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제7연대와 합동으로 운영하였다.

13:00에 원주를 출발한 제19연대 제3대대는 20:00에 춘천에 도착한 후 23:00

에 북한강 서안의 금산리 북쪽 1.5㎞ 지점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천 방향으로부터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하였다.[93] 제3대대가 춘천에 도착할 무렵 북한군은 시내 도처에 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전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춘천 남쪽지역에서 병력을 하차시킨 후 급행군으로 이동하였다. 춘천역을 돌아 북한강을 건넌 대대는 금산리 북쪽의 횡격을 이룬 217고지 일대에 포진하였다.

### (2) 옥산포 및 가래모기전투

국군 제7연대의 경계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제6연대(-)는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57㎜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宋廣保) 대위는 이를 발견하고 제2소대를 속칭 보대이벼루 도선장(지내리 남쪽 1.5㎞)으로 급파하였다. 이 지점은 절벽과 S자형 굴곡으로 이루어져 은폐와 기습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포 방렬을 마친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즉시 2탄을 발사하여 적 자주포에 모두 명중시켰으나, 자주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밀고 내려옴에 따라 부득이 포를 거두어 옥산포로 철수하였다.[94]

국군 제7연대의 대전차포 기습공격을 의식한 적은 첨병을 앞세우고 구간약진으로 공격을 가해 왔고, 10:00경에는 그들의 선두가 옥산포에 이르렀다. 적의 기도를 파악한 대대장은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적을 사농동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그 주력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때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장 이금열 중위는 출동준비가 완료된 제3포대에서 2문을 이끌고 사농동으로부터 적진 500m 지점에 추진방열하고 사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12 : 00경 옥산포를 통과한 적의 주력이 넓은 보리밭에 나타나자 대대장은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고, 보·포협동으로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불시의 협격을 받은 적의 진영은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많은 시체를 남겨놓고 도주함으로써 제1대대는 지내리선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두산 관측소에서 전투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13 : 00에 제1대대를 주진지로 복귀시켜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대대가 포지원거리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있고, 또한 적으로부터 대대의 측방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무렵에 적은 일부가 춘천 북쪽 4㎞ 지점의 신북리-발산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95]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한 적은 SU-76자주포 10대를 앞세우고 다시 옥산포로 공격해 들어왔다. 자주포의 위세에 놀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순간 보대이벼루 도선장에서 옥산포로 철수하여 포를 방렬하고 있던 57㎜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2대의 자주포가 사거리 내에 들어오자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2발이 모두 명중된 1번 자주포는 잠시 움찔하고는 다시 기동하면서 포격을 가해왔다.

이를 지켜본 소대장 심일(沈鎰) 중위는 자주포에 대한 대전차포 육탄공격을 결정하였다.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친 제2소대장은 도로변 민가에 의탁 대기하고 있던 중 자주포가 가까이 다가오자 포격을 가해 2대를 격파하였다. 이어 자주포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던 승무원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뒤따르고 있던 적 자주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14:00경 서원 방면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96]

164고지와 우두산 등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연대장 이하 장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였다.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의 쾌거는 모든 장병에게 적의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함께 사기를 앙양하는 계기가 되었다.[97]

앞서 감행된 2차례의 공격에 모두 실패한 북한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1대대의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164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포격을 단행하면서, 약 1개 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제1대대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진전에서 이를 격퇴하고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에 앞서 소양강 북안을 점거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적의 의도를 간파한 연대장은 16:00에 우두산에 설치되어 있던 연대관측소를 보수공사가 완료된 봉의산 진지로 이동시켰다.[98] 아울러 포병대대도 소양강 남안으로 진지를 전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17:00에 제1포대를 춘천역 앞에, 제2포대를 봉의산 뒤편에, 그리고 제3포대를 우시장으로 전환하였다.[99]

한편 적은 사단 주공인 제6연대가 소양강 도하에 실패하자 18:00에 서상리-




우두평야에서 본 제7연대 주저항선(△128－△164－△123). 당시 123고지에는 연대전술지휘소가, 164고지에는 제1대대지휘소가 설치되었다.

한계리 선에서부터 제2제대인 제17연대를 전투에 투입하여 도하를 시도하였다.[100]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야간공격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대대장은 현지의 지형조건상 선공(先攻)을 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19 : 00부터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또한 가래모기의 보리밭을 따라 공격을 가해왔다. 화천－춘천간 5번 도로를 통해 공격했던 적은 그곳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던 까닭에 이번에는 공격로를 변경하여 전진해 왔다.

쌍방간의 교전은 순식간에 전개되었으며,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개활지로 몰려든 적은 증강된 대대의 모든 중화기와 개인화기의 목표물이 되었다. 동시에 아군 포병도 목측으로 포격을 가하였으며, 사거리가 짧았던 포병은 대대와 전진 및 후퇴의 보조를 맞추면서 보병과 동렬(同列)에서 보포협동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을 거의 궤멸상태로 몰고 갔다.

이어 대대장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도주하던 적의 일부는 북한강의 깊은 물에 빠져 죽고, 북으로 도망친 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벌판에는 적의 시체가 가득하였다. 이처럼 적은 단숨에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전술원칙 등을 전혀 무시하였고, 또한 개활지를 밀집대형으로 밀고 내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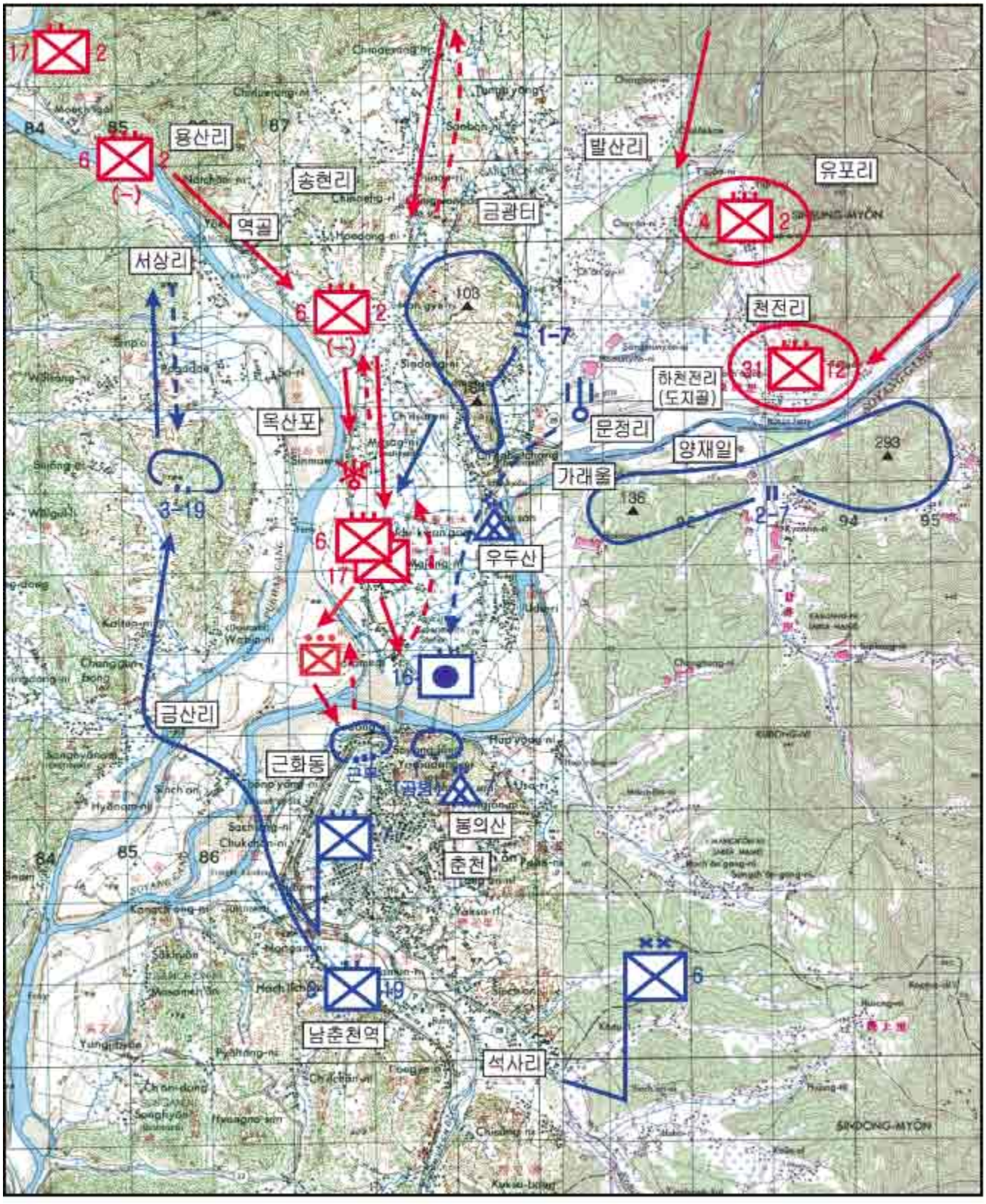

는가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오를 맞추어 앞으로 치닫기만 하였다.[101]

한편 05 : 00에 연대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로부터 화천 및 양구 방면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제16야전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즉시 대대에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유선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102] 그리고 곧장 본부로 직행하여 연병장에 집결해 있는 병력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전체 인원의 약 30%의 병력이 집결하였음을 감안한 대대장은 우선 현 병력으로 사격할 수 있는 4문의 포를 임시로 편성하여 2문은 천전지서 앞에, 그리고 2문은 사농동에 추진 방렬하도록 하였다.

이러는 동안 포병학교에 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던 3명의 포대장이 13 : 00경에 귀대하였고, 또한 외출 및 외박 중인 병사들이 귀대함으로써 대대는 건제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포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이 충분하게 실시되었다.[103]

이는 대대 군수주임 김운한(金雲漢) 소위가 최갑석 상사와 정기백 상사를 대동하고 징발한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소양강 북안의 제사공장 앞에 위치한 대대 탄약보급소의 포탄을 소양강 남안으로 옮김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 학생들이 자원하여 참여하였고, 5,000발의 포탄을

<상황도 5-3> 제7연대 주저항선 전투



비롯한 기관총과 소총류 등의 각종 실탄을 운반하였다.[104] 필요한 포탄을 확보하게 된 포병대대는 포탄의 부족함 없이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 (3) 제19연대의 증원과 전선 축소

전날 야간에 실시한 제1대대의 반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다음날 날이 밝자 옥산포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날 20:00를 기해 원주역을 출발한 제19연대 주력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청량리를 경유하여 6월 26일 05:00에 춘천에 도착하였다.[105]

이곳에서 참모학교로부터 복귀한 연대장 민병권(閔丙權) 중령을 만난 제2대대는 우두산으로 진출하라는 연대장의 구두명령을 받고 부대를 정비한 후 강행군으로 소양강을 건너 40분 뒤에 우두산에 도달하였다. 대대는 불과 1㎞ 정면의 우두산 기슭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우일선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 제1대대와의 연계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우두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점령한 제2대대는 제5중대를 북쪽에, 이어서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우로부터 좌로 각각 배치하여 화천방향으로부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토록 하였으며, 제8중대는 우두산 남쪽에서 화력지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 같은 병력의 증원에 힘을 얻은 제7연대장은 옥산포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기로 하고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에게 08:00부로 공격명령을 하달하면서 전진한계선을 삼거리로 통제하였다. 이때 봉의산의 연대관측소에 나와 있던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제2대대장 최석락(崔錫洛) 소령에게 "제2대대는 08:00를 기해 제7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진지에서 엄호하며, 동쪽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은 공격대대인 제7연대 제1대대가 옥산포로 진격할 때 대대의 전 화력을 동원하여 측방을 엄호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는 포병의 지원포격과 제19연대 제2대대의 측방엄호사격을 받

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옥산포에 집결하여 공격준비에 골몰하던 1개 대대규모의 적은 제1대대의 기습공격에 대부분이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역골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옥산포를 탈취한 대대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종심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1대대가 옥산포 일대에 집결중인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 07 : 30에 사단장은 포병대대에 전 화력으로 직접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병대대는 즉시 최대사정으로 옥산포 일대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였다.

국군의 포격이 시작되고 얼마 후 적의 대구경포탄이 봉의산 연대관측소 및 포병관측소 그리고 제2포대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강력한 포격은 제1대대에 대한 제2포대의 포격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옥산포를 공격했던 제1대대가 목표를 탈취하고 삼거리로 진출한 12 : 30에 사단장은 1개 포대를 홍천 북쪽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2연대에 배속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장은 14 : 00에 제1포대를 홍천 북쪽의 원편(성산 동북 1.5㎞)으로 이동시켜 한계초등학교로 철수 중에 있던 제2연대를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또한 제2포대와 제3포대는 옥산포에 진출했던 보병의 이동과 소양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요란 및 저지사격을 가하면서 적의 추격을 차단하였다.

13 : 00경 제1대대 진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포격을 가하던 적은 자주포를 앞세우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적의 자주포를 격파하기 위해 2.36″로켓포를 발사, 명중시켰음에도 결국 자주포를 격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자주포를 격파하는데 실패하자, 대대장은 삼거리에 배치했던 제3중대를 옥산포로 재배치하고 밀고 내려오는 적과 격렬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일부 병력을 가래묵나루 방향으로 우회하여 공격해왔다. 약 1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대대는 14 : 00경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164고지로 복귀하였다.

### (4) 아군의 주요 조치

봉의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적의 공격력이 예상외로

강력한 점, 우두산 동쪽 천전리 부근의 적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 그리고 양구로부터 증원 병력이 도달하여 총공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포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의 공세이전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사단주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병력운용을 살펴보면, 제7연대 제1대대는 3차에 걸친 북한군의 공격을 악전고투하며 방어하고 있었으나, 제19연대의 3개 대대는 북한강 서안과 소양강 남안 그리고 우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어 적과의 접촉은 거의 없는 유병(遊兵)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이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는 제7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를 야간에 협공할 경우 이들의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천연 장애물인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6]

① 사단은 축차 철수하여 소양강 남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강안에서 격파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소양강 남안의 제1교(서쪽 200m)로부터 후평리에 이르는 선에 진지를 점령하고 적을 저지·격멸하라.
③ 제19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남안으로 철수하여 근화동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측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격멸하라.
④ 제16포병대대장은 제7 및 제19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라.
⑤ 철수개시 시간은 26일 15 : 00이다.

### 3) 최후저항선 전투

#### (1)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

164고지로 복귀한 제1대대는 사단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15 : 00에 제19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소양강을 도하하였다.[107] 이어 제1대대는 춘천 남쪽의 석

사리에 집결하여 휴식과 탄약 재보급 등 부대를 정비한 후 다음날 09 : 00경 소양강 남안의 예정된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우두산에서 공격대대와 유기적인 협동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에게도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엄호하고, 이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아군의 철수기도를 간파한 북한군은 우두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집중한 후 대병력으로 벌판을 가로질러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적이 근접하길 기다리던 제2대대는 포병의 포격과 대대화기의 협동사격으로 그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철수병력이 보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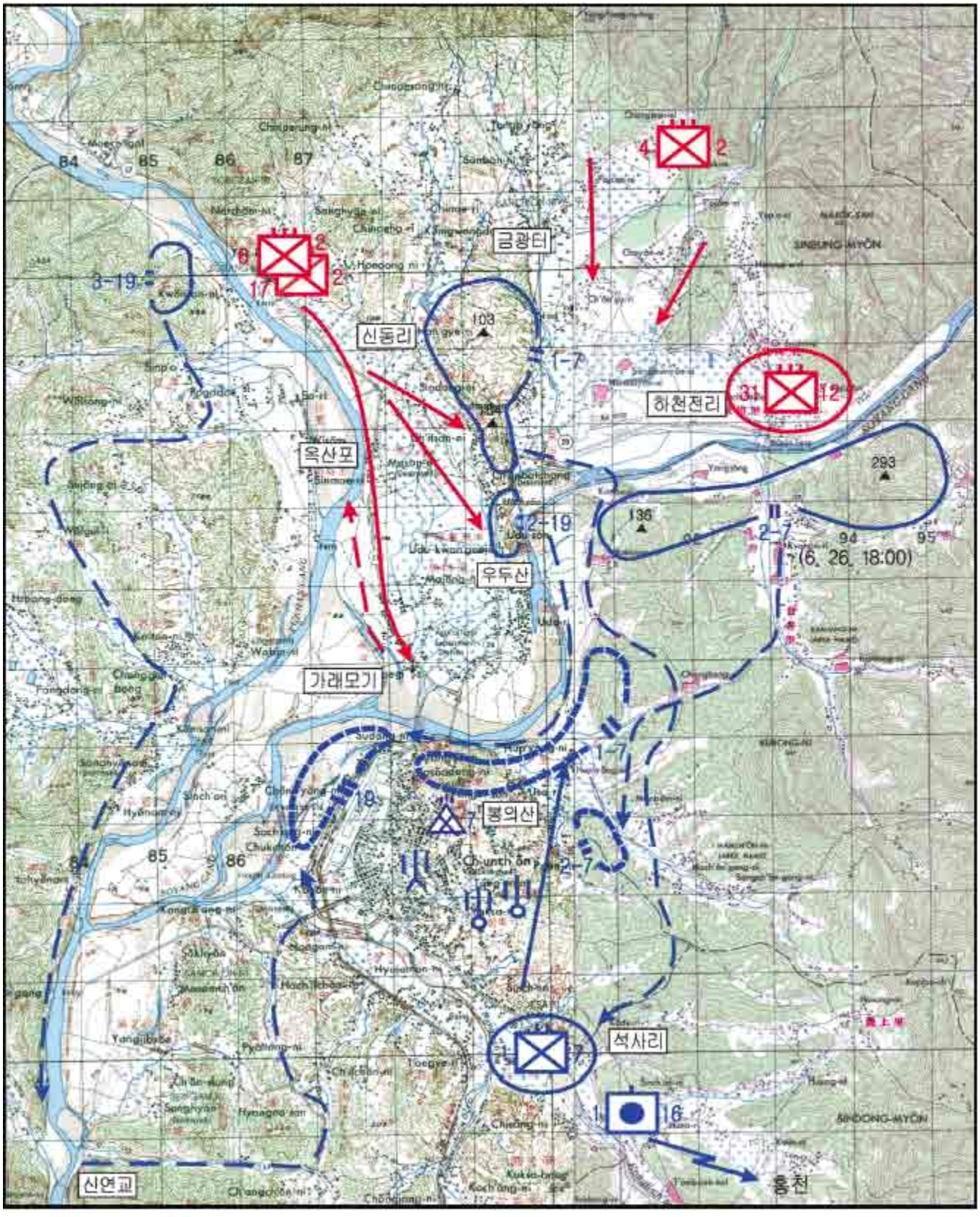
그러나 잠시 후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해 온 일단의 적이 옥산포 동쪽 500m 지점의 올미에 침공하여 철수중인 대대와 각축전을 전개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들은 지형상의 불리로 정면공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병력만을 앞에 내세우고 주력은 사농동을 거쳐 소양강을 향해 접근하였다.

이 동안에도 적은 제2대대를 제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제2대대장은 철수대대에 대한 엄호임무가 완료되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7 : 00에 대대를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를 제외한 대대는 적의 추격을 격퇴하며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였고, 고립되었던 제5중대마저도 소대별 축차 엄호를 통해 도섭에 성공하여 21 : 00에 대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옥산포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던 무렵 제19연대 제3대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북한강 서안(西岸)의 금산리 일대에는 정적만이 유지되고 있었다. 09 : 00경에 옥산포 북쪽 3㎞ 지점의 저울골 부근에 강력한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고, 그 중 일부가 대대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약 20분간의 포격이 끝나고 1개 중대규모의 적이 모진교 남쪽 3.5㎞ 지점의 막은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은 1시간이 지나도록 대대의 유효사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좌우로만 기동하였다. 이는 제3대대가 북한강 동안(東岸)의 전투에 가세하는 것을 저지

<상황도 5-4> 제7연대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



하기 위해 대대를 고착 견제하는 행동이었다. 대대장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예비중대를 투입하여 서상리까지 이들을 추격토록 하였으나, 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후퇴함으로써 좌측방의 적정을 고려하여 중대를 복귀시켰다. 이후 이들과 대치하던 대대는 북한강 동안으로의 철수명령을 받고 15 : 30에 철수를 시작하여 의암교를 건너 18 : 00에 연대의 좌일선으로 춘천역 일대의 근화동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9연대의 주력으로 제2대대와 함께 청량리를 경유하여 05 : 00에 춘천에 도착한 제1대대는 북한강 강줄기를 따라 춘천 시내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소양강과 북한강 합류지점인 근화동 제방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108] 대대는 머지않아 펼쳐질 공방전에 대비하여 이곳으로부터 소양교에 이르기까지 제방 앞뒤로 개인호와 교통호를 구축하였고, 15 : 00 이후부터 제7연대 제1대대 및 제19연대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처럼 방어정면 축소를 위해 사단 주력이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6월 26일 20 : 00경 공병대대장 박정채(朴正采) 소령은 사단작명 제42호(1950. 5. 18)에 의거 소양교 파괴를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방면의 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단장은 공병대대장의 건의를 기각하였다. 일시적으로 춘천을 포기하더라도 아군이 다시 반격을 실시할 경우 소양교가 폭파되면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단장은 교량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북한군 기갑부대의 통과를 저지하라고 명령하였고, 공병대대장은 미리 준비했던 폭파장치를 제거하고 파괴된 트럭 4대를 장애물로 교량 위에 설치하였다.

한편 38도선의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남안의 가마골－양재일 일대에 전개한 제2대대는 적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적의 도하에 대비하고 있었다. 17 : 00경 소양강 북안의 천전리 일대에서 자주포와 함께 대규모의 병력이 우두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제2대대는 적의 행렬에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약 1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제2대대는 춘천의 동쪽 방어를 위해 봉의산 동남

쪽 1.5㎞ 지점에 위치한 후평리로 이동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강행군으로 이동하여 19:00에 부대전개를 완료하였다. 제2대대의 철수명령은 사단장으로부터 15:00부로 실시하도록 하달되었으나, 우두산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연대장이 18:00부로 단행토록 한 것이었다.

아울러 연대장은 적이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소양교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8중대를 집중 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제8중대는 81㎜ 박격포 6문을 비롯하여 Cal. 50 기관총 2정과 HMG 4정, LMG 2정 등 전 화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대였다. 따라서 제8중대는 소양교 남안의 범바위 주변에 집중 배치되었고, 제3대대 제12중대가 대대에 추가로 배속되었다.

한편 공격개시 당일 춘천 동북쪽의 추곡리와 대곡리 선에서 춘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는 춘천 동북쪽 6㎞ 지점의 하천전리 지역까지 진출한 후 진격을 멈추고 사단장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단은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제2사단과의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31연대는 6월 26일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109] 따라서 합동공격으로 춘천을 점령하려던 그들의 기도는 실패하였고, 국군 제7연대가 별다른 손실 없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110]

### (2) 춘천 공방전과 춘천 철수

6월 27일 05:00부터 북한군은 총공격을 위한 준비사격으로 보이는 집중포격을 소양강 남안과 봉의산 일대는 물론 춘천 시내에 가하기 시작하였다. 약 1시간에 걸쳐 포격을 실시한 적은 06:00부터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들은 봉의산 일대의 소양교 정면에 주공을, 그리고 제19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근화동 일대에 조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111]

적의 총공세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봉의산과 소양강 등 자연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공세를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제7연

대는 물론 제19연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천의 일부를 이미 점령한 적의 공격이 계속되자 사단장은 병력을 철수시켜 신진지로 이동, 차기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19연대와 1개 포대를 홍천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으로부터 "부대를 철수하여 홍천 부근에 제2선으로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112]을 받은 제19연대는 즉시 철수를 계획하였다.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투입장소 및 투입 선발대대의 결정, 적 자주포 격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작전주임 박주근 소령을 먼저 출발시키기로 하였다. 그에게 지형정찰임무를 부여한 연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병력을 유도하기로 결정하고 선발대대로는 제3대대를 지정하였다.[113] 그럼에도 자주포를 격멸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자 연대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다음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임무를 제7연대에 인계하고 홍천으로 전진(轉進)하여 제2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② 연대의 행군서열은 다음과 같다.
㉮ 제1제대 : 제3대대(집결 및 출발지 : 서부동)
㉯ 제2제대 : 제2대대(집결 및 출발지 : 학곡리)
㉰ 제3제대 : 제1대대(집결 및 출발지 : 학곡리)
㉱ 지휘부 : 제1대대 후미에 위치

명령에 따라 제19연대는 10 : 00에 현진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13 : 00에 춘천 남쪽 8㎞ 지점에 위치한 학곡리에 집결하여 홍천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114]

당시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전날인 26일에 확보한 소양강 남안의 진지에서 제7연대의 좌일선을 형성하고 소양 제2교에서부터 근화동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였다. 05 : 00에 적은 제1대대의 정면에 주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제1대

대는 07:00에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아 정면의 적을 공격했으나,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후 적은 제2대대의 좌측으로 우회하여 침공하였다. 제1대대는 10:00에 현 진지로부터 도보로 철수하여 춘천 동남쪽 8㎞ 지점 학곡리의 춘천사범학교에 집결한 후 다시 홍천으로 출발하였다.[115]

제2대대 또한 26일 자정이 막 지난 무렵부터 새벽 04:00까지 산발적인 적의 소총사격을 받았다. 05:20에 적은 대규모의 병력으로 제2대대의 방어진지 전면에 근접하여 공격을 가해 왔으며,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10:00로 접어들어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적극적인 엄호 아래 철수를 단행하여 13:00에 춘천 동남쪽 학곡리에 도착하였으며, 부대를 정비한 후 13:30에 다시 철수를 시작하였다.[116]

이처럼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소양강 남안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던 중 연대장 민병권 중령의 구두명령으로 학곡리의 춘천사범학교에 집결한 후 홍천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양 대대는 2개 중대를 제7연대에 배속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각각 1개 중대(제1 및 제5중대)씩을 차출하였다. 양 대대는 병력차출 및 수습관계로 집결이 늦어 18:00에 차량으로 학곡리를 출발하여 홍천 서북쪽 3㎞인 덕고개에서 하차, 망령산에 이르기까지 선형을 이루어 춘천-홍천간 5번 도로와 인제-홍천간 44번 도로의 교차지점을 지키는 진용을 갖추었다.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철수를 최후까지 엄호하며 진지를 확보하던 제3대대는 10:00에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춘천 서쪽의 서부동으로 집결하여 16:00에 정비 및 이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어 연대장은 제3대대를 직접 지휘하며 차량으로 이동하여 19:30에 홍천초등학교 교정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19연대의 전환을 통보받은 제7연대장은 사단 지휘부의 작전지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즉, 홍천으로 이동한 제19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의 담당구역인 소양 제2교로부터 근화동에 이르는 구역을 제19연대로부터 배속 받은 2개 중대와 연대본부 행정요원 그리고 춘천지역의 지원부대(공병 1개 중대와 소수의 병참, 병기근무대) 등을 통합하여

편성한 근무대대로 대체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0 : 00부터 북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주포를 소양강 북안에 두고 봉의산 연대관측소는 물론이고 산 중턱과 소양강 제방에 구축해 놓은 화기진지에 직격탄을 퍼부어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57㎜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심일 중위는 1문의 포를 소양 제2교 남단에 배치하고 적의 자주포를 향해 속사하여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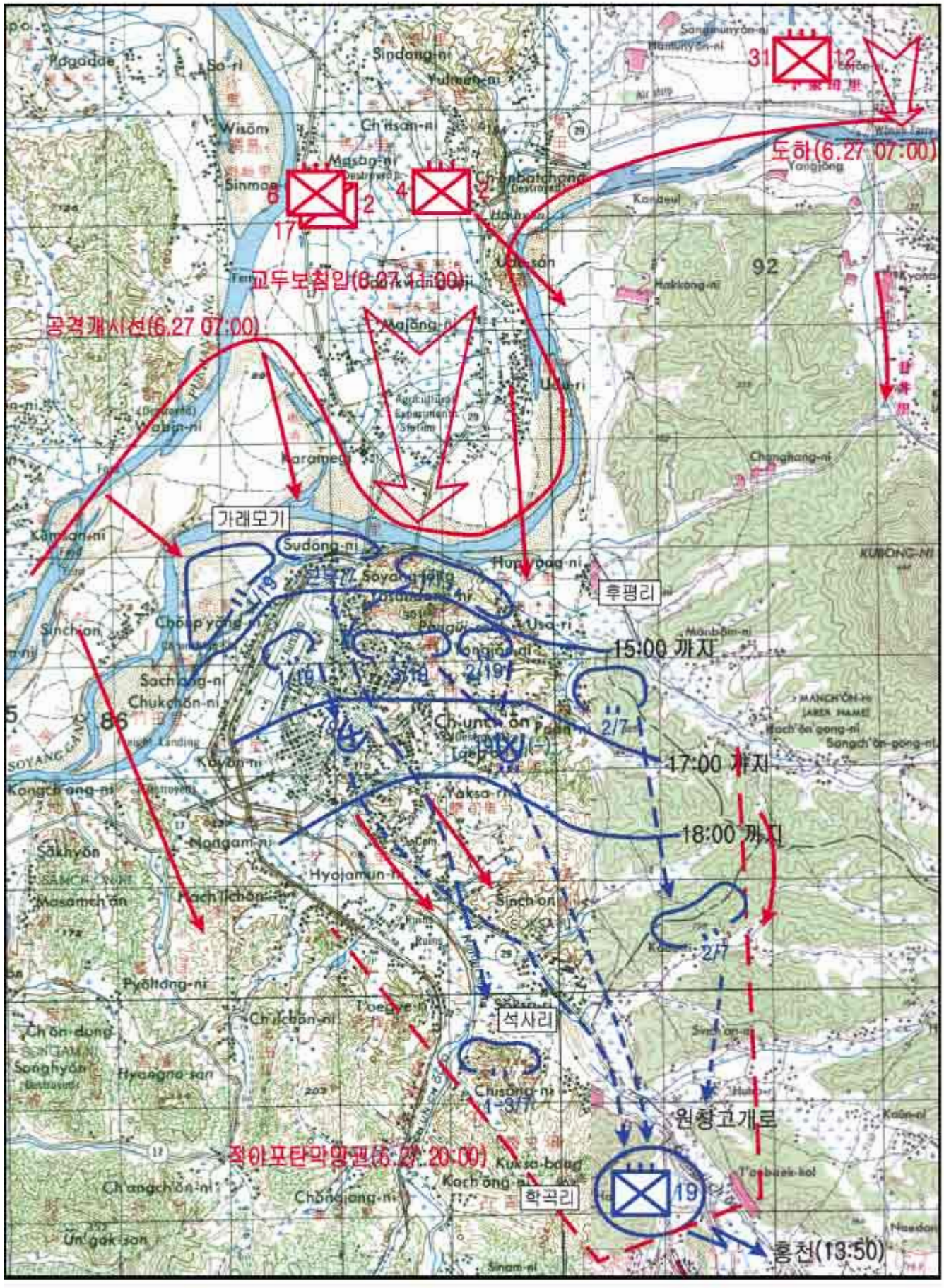
북한군은 막대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해 왔다. 연대수색대는 인해전술로 끊임없이 도하를 시도하는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10 : 00에 진지가 돌파되었다.[117] 11 : 00를 기해 그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단행하여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가래모기로 도하하고 또 다른 병력은 직접 소양교로 밀어 닥쳤다. 제1대대는 제2포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와 대대에 배속된 제8 및 제12중대의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으나, 그들은 소양강 남안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인해전술로써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러는 동안 연대관측소에 당도한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연대장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은 직후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과의 통화에 성공하였다. 김백일 대령은 이 통화에서 전 전선의 상황을 설명한 후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지연전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고 적으로부터 현재의 선을 이탈하여 원창고개에 제2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홍천 고수만이 제7연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공세에도 수많은 사상자만 발생하고 의도했던 돌파가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군은 화력지원에 주력하던 자주포를 소양교로 밀어붙이는 한편 2개 연대규모의 병력을 가래모기로 도하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1개 연대가 춘천 동북쪽의 원진나루터를 건너 구봉산으로 남진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격개시 당일 소양강 북안까지 진출하였음에도 사단과의 통신두절로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했던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로서 이날 제2사단과의 통신을 재개한 후 진격을 시작하였다.[118]

<상황도 5-5> 제7연대 최후저항선 전투



소양교 입구까지 진출한 적의 자주포는 교량 위에 산적한 그들의 시체를 강으로 밀어붙이고 다리를 건너 소양강 남안의 일각을 점거하였다. 또한 가래모기로 도하한 적도 근무대대의 최후 저지사격을 뚫고 근화동까지 침입하였다.[119] 12 : 00경 연대는 부득이 병력을 철수시켜 춘천시가지에서 적의 남하를 지연시키기로 하였다.[120]

그러나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시가전을 통해 적의 진격을 저지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13 : 00에 연대관측소를 원창고개로 이동시켰다. 15 : 00에는 적의 탄막하에 확보하려던 제1시가지 방어선이 돌파되었고, 17 : 00에는 제2시가지 방어선마저 돌파됨으로써 연대는 제3시가지 방어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9연대의 방어정면을 돌파한 적의 일부 병력이 춘천을 우회하여 연대의 우측방을 위협하며 남진을 계속하였다.[121]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연대의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춘천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삼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대룡산을 거점으로 삼고 적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한 다음 반격을 통해 춘천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연대의 좌우측방으로 각각 20㎞ 이상이 노출되어 있는 점과 반격을 위해 병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축차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원창고개를 확보하고 적을 진전에서 포착·섬멸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486고지(대룡산 서쪽 1.5㎞)로 전진하여 우측방으로 침투하려는 적을 격파하고 명에 의하여 금병산을 점령하라.
③ 근무대대는 제3대대 제9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303고지를 방어하고 명에 의하여 원창고개 우측방(△341-△410)을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제1 및 근무 양 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철수완료와 동시에 158고지로 전진하고 명에 의하여 원창고개 좌측방(△602)을 점령하라.
⑤ 연대 수색중대는 대룡산 일대를 수색하고 연대의 우측방을 경계하라.

⑥ 배속부대

㉮ 제19연대 제5중대는 원창고개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 제19연대 제1중대는 국사봉-중일리를 점령하고 연대의 좌측방을 경계하라.

㉰ 제16포병대대 제2포대는 석사리로 전환하여 주력의 철수간 화력으로 엄호하고 명에 의하여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⑦ 철수개시 시간은 별도로 명한다.

이와 같은 작전명령에 의거 철수를 눈앞에 둔 연대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적을 집중 강타하는 한편 그들이 확보하고 있던 거점에 반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적은 강력하게 대항하였고, 또한 증원 병력이 점진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돌파구가 확대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은 악화되었고, 18:00에 마침내 춘천방어선이 돌파됨에 따라 연대장은 병력의 철수를 명령하였다.[122] 이리하여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27일 춘천을 점령하였고, 이어 자정 무렵에는 가평 인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123]

### (3) 춘천 외곽으로의 철수

한편 소양강 남안의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전개된 공방전에서 상당한 타격을 적에게 안겨주었던 제1대대는 축차로 밀려드는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춘천 동쪽에 위치한 486고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혼성으로 편성된 근무대대도 303고지로 철수하여 춘천에서 홍천에 이르는 5번 도로의 좌측에서 방어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대룡산으로 이동하여 정상으로 오르고 있던 연대수색대는 고지의 8부 능선에서 북한군과 조우하여 정상 선점(先占)을 위한 교전을 펼쳤으나, 그들에게 정상을 내어주고 341고지로 내려와 19:00에 연대관측소 경계에 임하였다.

사단 작명에 의거 연대의 철수엄호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는 제1대대와 근무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제2포대로 하여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지점에 포격을 실시하도록 한 후 춘천 남쪽 2.5㎞의 158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에 머물며 연대의 춘천철수작전을 지

휘하던 연대장은 대대가 저지진지를 점령하자 새로 연대관측소를 개설한 341고지로 이동함으로써 춘천은 18 : 00에 북한군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124]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한 연대는 21 : 00에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여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 무리의 적이 아군의 진전으로 접근해와 육박전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연대지휘소는 196고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341고지에서 연대관측소 경계임무에 임하고 있던 연대수색대도 연대지휘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자정 무렵 적은 아군 진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125]

## 4. 가평지구 전투

### 1)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제7연대의 좌전방인 적목리에서 인람리에 이르기까지 20㎞에 이르는 넓은 정면을 담당한 제3대대 제10중대의 방어지역은 화악산과 매봉 그리고 촉대봉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준령이 산줄기를 이루고 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전투지대 내에는 사창리－시룬고개－신당리와 신포리－고수령(고시락고개)－홍적령(홍지기고개)－목동리－가평으로 통하는 두 개의 계곡접근로만이 있었다.

제10중대는 두 계곡접근로 중 가평까지 단거리인 동시에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우측 접근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기소대 2개 분대로 증강된 제1소대를 고수령에 배치하고 중대 주력은 목동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대 예비인 제11중대는 가평에 집결하고 있었다. 가평 지역은 춘천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형상 인접부대와의 협조가 불가능함으로써 유사시에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126]

개전 첫날 지암리 일대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이 주춤해진 05 : 00 무렵, 1개 대

대규모의 북한군이 고수령의 제1소대 경계초소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병력은 춘천을 점령한 후 신속히 가평을 경유하여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하는 임무가 부여된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 제2대대로서,[127] 수원 방향의 남동쪽에서 서울을 우회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128] 이에 따라 연대 주력이 춘천을 공격하는 동안 제2대대는 고수령과 지암리에 있는 국군을 소멸하고 가평을 점령하기 위해 홍적령-목동리-가평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해 우회 공격을 시도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제10중대장 하상도(河相道) 대위는 그들을 주진지로 유인하여 격파할 것을 제1소대장 이한종(李漢鍾) 소위에게 지시한 것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다. 주진지는 고수령으로부터 약 5㎞ 후방인 홍적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1개 소대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호가 구축되어 있었다.[129]

제1소대는 이곳에 전 병력을 집결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09:00경 소대의 전방에 밀집대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적의 행렬이 포착되었다. 지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소대는 적의 행렬이 100m 전방까지 접근하길 기다려 일제사격으로 저지·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제1소대를 견제하는 한편 주력을 양분하여 좌우측 능선으로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기도를 파악한 소대장은 14:00에 그들로부터 이탈하여 16:00에 339고지까지 철수하여 중대와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 예하의 제2대대는 개전 당일 오후 늦게 가평 동북쪽 10㎞ 지점의 하남종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130]

### 2) 주저항선 전투

#### (1) 장갑차소대의 증원과 지연작전

한편 춘천에 위치하고 있던 제11중대도 19:00에 이곳에 도착, 맴내 앞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대대의 우일선이 되었다. 이로써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신포

리－고수령－홍적령－목동리－가평으로 이어지는 계곡접근로를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이들 2개 중대에 대한 지휘는 선임자인 제10중대장 하상도 대위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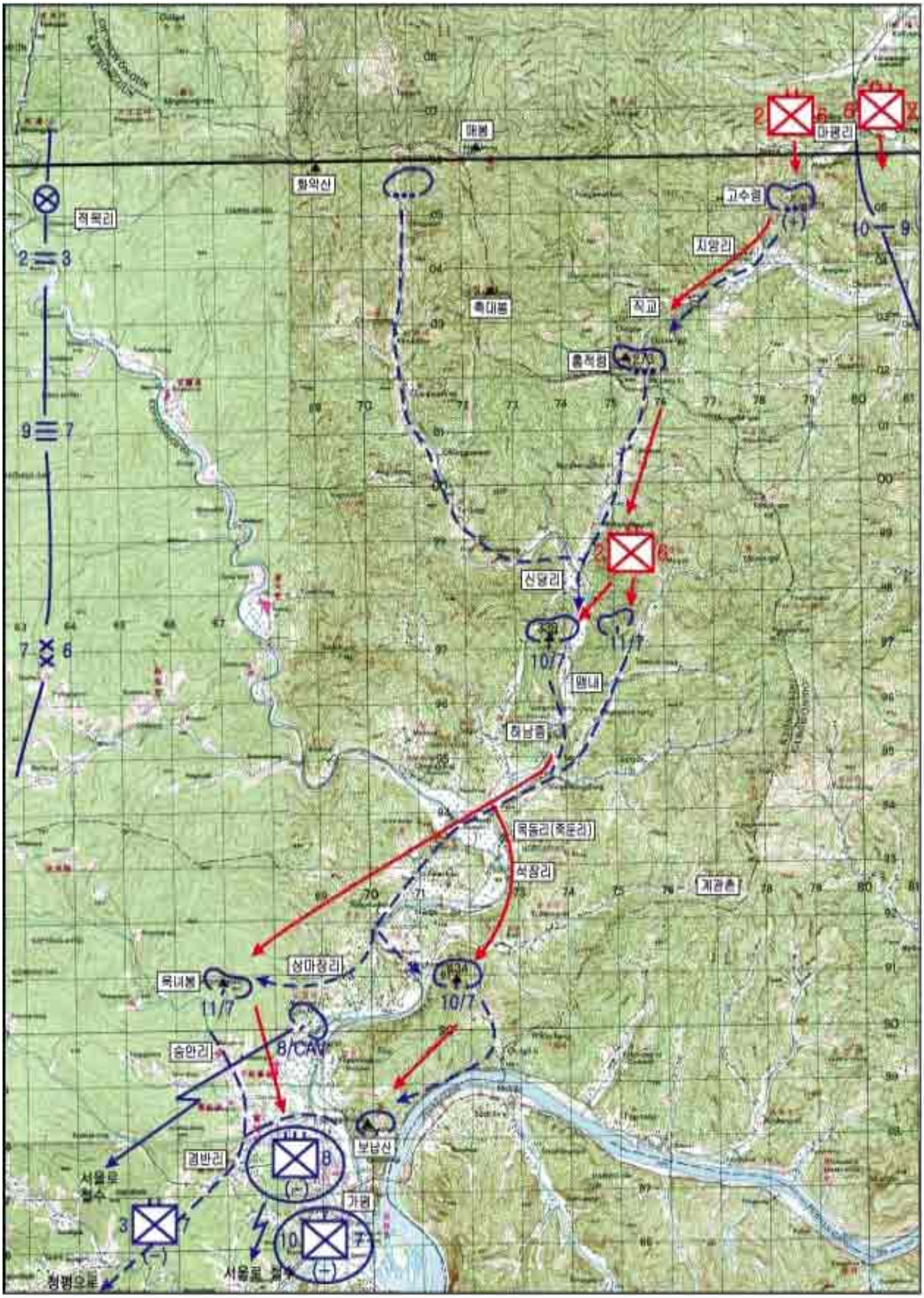
당시 제3대대의 상황은 대대장인 인성관(印聖琯) 소령이 6월 25일부로 보병학교의 교육과정 입교를 위해 출발한 상태였고, 연대 작전주임인 이남호(李南浩) 소령이 제3대대장으로 겸직 발령을 받았으나 춘천 부근의 전황이 위급한데다 작전주임을 대행할 장교가 없어 대대지휘를 하상도 대위에게 일임하고 있었다.[131] 또한 병력배치도 제12중대는 춘천 정면의 화력지원을 위해 춘천에 있었고, 춘천 북쪽의 38도선 경계임무를 담당했던 제9중대는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이처럼 제3대대는 병력이 분리되고 지휘체계마저 혼선을 빚고 있었다. 대대의 지휘를 맡은 하상도 대위는 야간을 이용하여 점령중인 고지 주변에 개인호를 구축하였다.

다음날 아침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사단의 춘천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적은 07 : 00부터 일제히 포문을 열고 침공을 시작하였다. 지형의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는 제3대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음에도 그들의 공격은 집요하리만큼 계속되었다.

북한군의 공격을 힘들게 저지하고 있던 제3대대(-)의 진지 주변에 육군본부로부터 전황파악을 위해 파견된 제1기갑연대 제1중대 1개 소대가 출현하였다. 장갑소대는 제3대대(-)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곤 장갑차를 이용하여 사격을 가하는 등 화력지원에 나섰다.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고, 제3대대(-)는 최선을 다해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절대적으로 열세한 병력으로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제3대대(-)는 14 : 00부터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가평 북쪽으로 후퇴하여 제11중대는 우일선으로 434고지에, 그리고 제10중대는 좌일선이 되어 옥녀봉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집요하게 공격을 지속하던 북한군 제2대대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가평 서방 2㎞ 지점에 위치한 경반리까지 진출함으로써 서울－춘천간 46번 도로의 차단을 기도하였다.[132]

<상황도 5-6> 제7연대 가평 전투


적목리
대봉
화악산
마랭리
고수원
지암리
작교
흑대봉
홍적원
산남리
10/7
11/7
앵내
하남종
목동리(죽문리)
석장리
계관촌
성마정리
목내봉
11/7
10/7
8/CAV
습안리
보납산
결반리
서울로
철수
가평
서울로 철수
청평으로

### (2) 제8연대의 증원과 복귀

한편 육군본부는 의정부방면의 제7사단과 제6사단 사이에 약 30㎞의 간격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3]

① 적은 침공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6사단은 춘천지구, 제2사단은 포천지구선에서 오늘 아침 공세로 이전하였다.
② 군은 일부병력을 전환하여 방어태세를 강화하려 한다.
③ 수도경비사령관은 예하 제8연대를 즉시 가평으로 전진(轉進)시켜 제6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기갑연대장은 예하 도보 1개 중대를 즉시 가평으로 이동시켜 제6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수도경비사령관으로부터 육본의 작전명령을 하달 받은 제8연대는 긴급히 차량을 이용하여 가평으로 이동하였다. 제8연대는 유사시에 서울 북쪽의 수락산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전쟁발발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정찰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연대장은 가평군청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6사단장에게 병력의 배치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에 앞서 기갑연대장 또한 작전명령에 따라 예하의 제3도보수색대대 제8중대를 차량을 이용하여 가평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이동도중 가평 부근에 대한 적정파악이 미진함에 따라 가평 남쪽에 위치한 상색역에서 하차하여 상마장리로 이동하였다.[134] 그리고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제3대대(-)와 합세하였다.

그러나 제8연대와 기갑연대 예하의 제8중대는 다음날 아침의 전투 배치계획과는 달리 육군본부로부터 서울 복귀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제8연대는 27일 03 : 00에, 그리고 기갑연대 제8중대는 07 : 00에 각각 서울로 복귀하였다.

### 3) 최후저항선 전투

가평 부근 434고지와 옥녀봉에 진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6월 27일 07 : 00경

적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서울로 통하는 46번 도로를 장악하기 위해 제10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434고지에 포병 화력의 지원도 없이 기습을 가해왔다. 이는 사단 본대의 서남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11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옥녀봉에는 소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하상도 대위는 현 진지를 고수하여 제8사단에 인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적의 파상적인 공격을 저지하였다. 기습공격에 실패한 적은 고지정상을 향해 일제히 포격을 퍼부으며 남북 양쪽으로 협격을 가해왔다. 중대 자력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하상도 대위는 제8연대에 화력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는 제8연대가 서울 방어전에 참여하기 위해 철수한 뒤였다.

대대장 대리인 하상도 대위는 가평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434고지보다 천연 요새에 가까운 보납산(△717)으로 적을 유인하여 격멸하기로 하고 곧장 그들로부터 이탈하여 보납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10중대에 이어 제11중대 또한 옥녀봉에서 철수하여 가평 인근의 구릉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제3대대(-)의 철수와 동시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추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중대와 제11중대 사이에 위치하여 화력을 지원하던 기갑연대 제8중대는 제8연대가 가평으로부터 철수했음을 알아차리고 곧장 서울로 복귀하였다. 이 사실을 간파한 적은 제8중대의 철수로 발생한 간격으로 침투해옴으로써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분리될 상황에 처하였다.

이제 제3대대(-)는 연대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탄약 또한 고갈될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병사들마저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처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투행위는 병력의 손실만 초래할 뿐이었다. 하상도 대위는 본대와의 연락이 가능한 지역까지 물러서기로 결심하고, 제3대대(-) 병력을 가평 남서쪽에 위치한 상색리로 철수시켰다. 12 : 00경 제3대대(-)는 청평 동북쪽의 논골고개를 넘고 있을 때 원주로 철수하여 연대와 합류하라는 육본의 지시를 받고 청평을 거쳐 횡성으로 직행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

제3대대(-)의 철수와 동시에 가평을 향해 공격을 지속하던 북한군 제2사단 제6

연대 예하의 제2대대는 우회기동을 통해 가평 서쪽 2㎞ 지점의 경춘철로를 차단하였다.[135] 또한 제2사단 주력은 춘천-홍천간 도로를 따라 우회기동하던 제12사단 제31연대와의 합동공격으로 정오 무렵 춘천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서남방면의 가평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후퇴하는 국군의 저항을 극복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가평 근교까지 진출하였으며, 다음날 14:00경 가평을 점령하였다.[136]

이어 북한군 제2사단은 후퇴하는 국군 제3대대(-)를 추격하여 6월 29일 20:00경 서울 동쪽 25㎞ 고안 지역의 한강 북안에 진출하여 도하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한강 도하는 다음날 10:00까지 계속되었으며, 팔당 남쪽의 하번천리와 경안리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한 후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투를 전개하였다.[137]

## 5. 제7연대의 원창고개 전투

### 1) 춘천 외곽의 방어선 형성

전날 자정 무렵 제7연대 진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진지를 구축한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는 6월 28일 08:00를 기해 엄호나 정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종대대형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138] 국군 제7연대를 원창고개 일대에서 포위·차단한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던 그들은 주력을 춘천-홍천간 5번 도로에 지향하고 자주포와 포병을 이곳에 집중하여 연대 정면을 공격해 왔다. 또한 조공병력을 동서로 구분하여 한 무리는 897고지를 점거한 후 계속 남하를 시도하였으며, 다른 한 무리는 북한강을 따라 남하하다 연대의 좌측방으로 우회하여 금병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303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근무대대는 서쪽으로 3㎞ 떨어진 도로상에 긴 차량행렬을 이루며 가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북한군을 목격하였다. 이는 북한군 제2사단의 주력으로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이었다.[139]

10 : 00경 적은 최대한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석사리에 주력을 두고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일부 병력은 양지편 방면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가함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140]

연대의 철수엄호임무를 맡았던 제2대대는 적의 침공을 맞아 제2포대의 직접지원 아래 3시간에 걸쳐 4~5차례의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으나,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연대장은 불리한 지형조건과 화력의 열세 그리고 주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사단장이 강조한 원창고개 선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작명에 의거한 순으로 예정된 진지를 점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일선인 410고지－341고지 간에는 근무대대, 연대 수색중대, 제3대대 제9중대, 제19연대 제5중대, 57㎜ 대전차포중대가 배치되었고, 중앙인 602고지능선에는 제2대대가, 그리고 좌일선인 금병산 능선에는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1중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제16포병대대 제2포대는 구암동에 위치하면서, 12 : 00에 연대는 원창고개에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하였다.[141]

12 : 30에 적은 석사리 일대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국군 제7연대 진지에 대해 포격을 가하면서 원창고개의 좌우측인 금병산과 매내미에 육박하였으나, 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진전에서 격퇴되었다. 돌파가 좌절된 적은 다시 원창고개의 연대 방어진지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이렇듯 적의 압력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여 연대의 보급로 차단이 우려되자, 연대장은 원창고개 선에서 물러나 사현(모래재) 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대 주력과 제2포대는 13 : 00에 원창고개에서 철수하여 사현 선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으며,[142] 제2대대는 이들의 철수를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제2대대는 원창고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을 저지·격파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최대한 교착시키게 되었다.

제2대대가 연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점령한 원창고개는 표고가 600m로서 凹형 횡격실을 이루고 있으면서 북쪽은 급경사로 수목이 거의 없는

지대였다. 춘천으로부터 이 고개정상에 이르는 도로는 많은 굴곡을 이루고 있어 관측과 사계가 양호함으로써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이 고개를 언제까지 고수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될 위험과 극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대장은 피로에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전면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5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던 적의 주력은 사암리에 이르러 각종 화력을 원창고개로 집중하면서 위력수색으로 대대에 접근하여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원창고개가 공격을 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병과 자주포를 석사리로 추진하여 밤새 원창고개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의 참호 구축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겨우 직사탄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은폐호만을 구축하였다.

### 2) 원창고개 전투

연대 주력의 철수엄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제2대대는 전열을 정비하며 적과의 일전에 대비하였다. 38도선 경계진지로부터 소양강 방어선 그리고 이곳까지 후퇴만을 거듭해 온 제2대대 병사들은 적의 공격을 저지·격멸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녘부터 개시된 적의 포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졌고, 06:00경에는 포병사격이 연신되면서 대규모의 병력이 고지를 향해 돌진해 왔다. 이를 지켜보던 대대장은 적이 최대한 가까이 접근 때까지 대기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은 인공기를 앞세우고 밀려들었고, 진지 전방 약 200m 지점의 최후저지사격권내로 접어들었다. 대대장의 사격개시 명령과 함께 대대의 모든 화력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쌍방간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11:00경 적은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대대는 전투준비를 갖추고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적은 제2대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적은 제2대대의 진지를 향해 접근하면

서 투항의 표시인 백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대대의 진지 앞에 이르러 백기를 집어던지고 은닉하고 있던 다발총을 난사하였다. 갑작스런 적의 행동으로 진지는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기만전술에 말려들었던 제2대대는 가까스로 그들을 격퇴하였다.[143]

원창고개에서 적의 돌파를 백병전으로 저지한 제2대대는 철수를 단행하여 13 : 00에 연대주력이 집결해 있던 사현에 도착하여 그들과 합류하였다. 사현에서 연대의 전 병력이 집결하여 철수준비를 마치자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각 지휘관을 소집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화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추격해오는 적을 진전해서 격파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371고지(원주가도의 우측)에 신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③ 근무대대는 418고지(원주가도의 좌측)에 신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삼마치에 신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⑤ 연대관측소는 371고지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연대장의 작전명령에 의거 연대는 13 : 30에 차량과 도보행군으로 사현을 출발하여 24 : 00에 각각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에 돌입하였다.

## 6. 분석 및 평가

중동부지역 화천-춘천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 제7연대는 춘천과 가평을 점령한 후 신속하게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을 기도하던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3일간이나 저지·지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개전 1년 전부터 북한군의 공격 기도를 예상하고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해온 제7연대의 유비무환의 태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장병들의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전투훈련을 완료하는 한편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병 및 포병학교에 파견하여 자질향상에 주력하였다. 또한 38도선 주요 접근로에 토치카 및 유개호를 구축하고 기존의 진지를 보수하는 등 사전에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개전초기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6사단 제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전장기능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휘통제

제6사단의 일부 지휘관들은 방어작전시 북한군의 약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기습공격, 많은 피해를 가하는 한편 심리적인 마비를 달성하여 북한군의 오판유도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작전에 돌입한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30여 명으로 특공대를 편성, 역도하를 통해 도하준비에 몰두하고 있던 북한군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한편 전쟁수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병력의 집중을 들 수 있다. 제7연대의 좌일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3대대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제9중대를, 그리고 서쪽에는 제10중대를 각각 분할 배치함으로써 병력의 집중사용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이미 사단이나 연대에서는 적의 주력이 화천-춘천간 5번 도로에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을 전담한 제3대대는 도섭이 불가능한 북한강을 경계로 하여 대대를 분할 배치함으로써 병력의 집중운용과 통합지휘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기에 요지를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 2) 정 보

제6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사단 자체의 정찰대를 운용하는가 하면, 북한군 귀순병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첩

보수집활동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제7연대는 30여 명의 수색대를 38도선 이북의 화천 및 양구지역에 침투시켜 차량이동 및 병력집결 등 북한군의 남침준비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첩보를 토대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제6사단은 육군본부와는 물론이고 인접사단과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인접 및 여타사단의 전선상황 파악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철수시점의 선정 및 축차적인 지연작전 전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3) 방 호

방어작전에서 지형조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열세라도 방자(防者)의 이점인 지형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적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제6사단은 북한강과 소양강 등 하천장애물을 이용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말고개와 원창고개 같은 애로지역을 이용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일례로, 제7연대는 춘천이 38도선에서 불과 13㎞ 남쪽에 있음을 감안하여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의 춘천분지를 감제하는 지역일대에 예비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적의 춘천점령 기도를 3일간 저지할 수 있었다. 즉 방자의 이점인 방어지역을 적절히 활용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한 반면 적에게는 많은 피해를 강요할 수 있었다.

### 4) 기동 및 대기동

제6사단 제7연대는 북한군의 접근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9개소에 콘크리트 유개호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별로 2~3개의 통나무 유개호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개호 진전에는 지붕형 철조망을 쌍선으로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할 수 있었다.

또한 사단의 작전지역 내에는 작전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교량이 몇 곳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진하거나 폭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방어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제7연대는 가장 유력한 적의 접근로인 화천-춘천 축선의 관문인 모진교를 폭파하지 못함으로써 개전 당일 적이 소양강변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제7연대는 모진교를 폭파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적의 위협사격으로 인해 폭약을 설치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사단장은 소양교를 폭파하자는 공병대대장의 건의를 무시함으로써 춘천 피탈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사단장의 이러한 조치는 아군의 역습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적이 후퇴할 경우 그들에 의해 폭파될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였다. 또한 인람리-역골간 도로변 10개소에 도로대화구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폭약을 장전하지 않아 전쟁 발발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아군을 방호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 5) 전투근무지원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된 후 제16야포대대의 탄약고가 적의 포화에 노출되자,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과 인근 주민들은 자진하여 포탄운반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헌신적인 협조는 적이 500여m 전방까지 육박하였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사공장 여공들은 주먹밥을 지어 군인들에게 직접 분배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군과 민의 일체를 통한 포탄운반작업으로 약 5,000발의 포탄과 기타 소화기 실탄을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었던 사단은 포탄의 재보급이 어려웠던 전쟁 초기의 며칠간을 탄약의 걱정 없이 작전에 임할 수 있었다.

# 제 4 절 인제-홍천 전투

## 1. 전투 개요

인제-홍천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6사단 제2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2보병사단의 공격을 받고 홍천 동북지구 및 현리 지역에서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당시 제2연대는 춘천 동북쪽의 764고지(계명산) 남쪽으로부터 우측 제8사단과의 협조점이 설정된 현리 965고지에 이르는 42㎞의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대는 전투지대 중간지점에 있는 남전리 물앙골 서단 동아실 마을을 전방 양대대의 협조점으로 정하여 좌일선에 제1대대를, 우일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144]

이러한 가운데 북한군 제2군단의 주공사단인 제12보병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출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홍천-여주 방면으로 진격,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2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인제-홍천 축선에 투입, 공격을 개시하였다.[145] 이들은 주공축선에 제32연대를, 조공축선에 제30연대를 투입하였으며, 예비로는 제5사단(-1)을 확보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의 기습공격을 받은 제2연대는 38도선상의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어론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 적의 남진을 1차 저지하였다. 이후 자은리를 거쳐 말고개 일대에 최후저항선을 구축한 제2연대는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한 적을 저지한 후 지연전을 펼치면서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인제-현리 축선의 제3대대도 하답-운니산에 이르는 38도선상의 경계진지에서 교전을 전개한 후 철수를 개시, 수안보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제2연대의 방어지역 내에는 표고 600m 이상의 고지들이 수없이 솟아있

고, 38도선을 연하여 682고지－운니산(△799)－가칠봉(△1,165)의 준령이 이어진 산악지대이다. 지역 내를 흐르는 화양강(홍천강 상류)과 내린천은 도섭이 가능하며, 개활지라고는 화양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홍천은 이 지역의 교통 및 행정의 중심지로서 전술적으로 중요하며, 인제－홍천－서울간 44번 도로와 춘천－홍천－원주를 연결하는 5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모두 홍천을 통과한다. 연대 방어지역 내에는 인제－어론리－홍천과 인제－현리－홍천으로 이어지는 2개의 접근로가 있다. 인제－어론리－홍천을 잇는 접근로는 홍천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만약 적이 공격할 경우, 이 축선에 주공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되었다.[146]

## 2. 북한군과 국군의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공격부대 임무

중동부지역의 제2연대 방어정면인 홍천 동북쪽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어 있었다. 제12사단은 중공군 중남군구 독립 15사 소속의 조선족부대가 모체로서 1950년 3월 20일 중국 정주에서 열차편으로 이동하여 입북하였다. 이들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경위중대 등 완편 사단규모로 1만 2,0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3월말 원산 부근의 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 제12사단으로 개칭된 이들은 예하의 각 단을 제30, 제31, 제32보병연대로 편입하였다.

제12사단은 홍천 공격을 위해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 6월 23일 인제 인근에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들은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간 도로를 차단하고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 예하의 제32연대는 사단의 좌익으로 응봉산－부소현간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홍천 방면으로 진출토록 하였고, 제30연대는 사단의 우익으로 계명산－하수내리간에서 방어선을 돌파한 후 어론리 일대로 우회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한편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제12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이를 후속하고, 전쟁 2일차에 홍천 인근에서 전투에 투입되어 수원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수원을 점령하려는 적의 기도였다.

#### (2) 전투 편성

북한군 제2군단의 주공으로 홍천 방면으로의 진출임무를 부여받은 제12보병사단은 2개 보병연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2연대와 제30연대가 제1제대로, 군단 예비인 제5보병사단(-1)은 제2제대로 제12사단을 후속하도록 편성하였다. 또한 화력지원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와 배속된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와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포병이 담당하였다.

한편 사단의 우익에는 군단의 조공을 담당한 제2보병사단이 화천－춘천－가평 방면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진격토록 투입되어 있었다. 사단의 좌익에는 동해안 축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여 강릉을 점령하는 임무가 부여된 38경비 제1여단이 있었다.

### 2) 국군 상황

#### (1) 국군 제2연대 부대 현황

제6사단 제2연대는 사단의 우일선 부대로서 홍천에 본부를 두고 인제 방면의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연대는 옹진의 은파산 전투를 마치고 전쟁발발 5일전인 1950년 6월 20일 육본 작명에 의거 수도경비사령부로 편입된 제8연대와 교대, 제6사단에 예속되었다.

제2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전방에, 제2대대를 연대 예비로 당포리에 배치하였다. 연대장은 전방의 2개 대대에 주야를 불문하고 방어진지를 보강하도록 강조하였으나, 후발대인 제2대대는 23일이 되어서야 현지에 도착함으로써 짐도 풀지 못한 채 전쟁에 임하였다. 다행히도 이 지역에 오래 주둔했던 제8연대 대전차포중대와 연대헌병대가 부대교대와 더불어 제2연대로 예속 변경됨으로써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연대장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147]

당시 제2연대는 보병 3개 대대와 대전차포중대, 그리고 배속된 사단공병 1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연대의 병력은 장교 100명과 사병 2,624명으로 총 2,724명이었으며, 주요 화기로는 57㎜ 대전차포 6문, 2.36″로켓포 60문, 60㎜ 및 81㎜ 박격포 18문과 10문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개전 당시 제2연대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연대장 함병선 대령을 비롯하여 부연대장 김봉철 중령, 인사주임 안시홍 대위, 정보주임 송대후 소령, 작전주임 전동식 대위, 군수주임 김용휴 대위, 대전차포중대장 이훈 중위였으며,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 제2대대장 김상룡 소령, 제3대대장 이운산 소령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오후 참모학교에 교육 파견되어 있던 문정식(文正植) 소령이 복귀하여 제2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김상룡 소령은 부대대장이 되었다. 또한 보병학교에 교육 파견되었던 김주형(金柱亨) 소령이 복귀하여 제1대대장에 보직되고, 김병진 소령은 부대대장이 되었으며, 포병학교에서 복귀한 조정련(曹精練) 대위는 연대 작전주임이 되었다.[148]

### (2) 전투준비태세

제6사단에 예속된 제2연대는 1950년 6월 20일 홍천으로 이동하여 지형도 잘 모르는 생소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게 되었다.[149] 이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가 한창일 뿐 아니라 5, 6월 위기설마저 떠도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단행된 전선부대의 교대였다.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전운이 감도는 전선 상황을 참작하여 전방지역의 방어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6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방에 배치된 2개 대대는 방어진지 보수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 당면의 북한군은 제2연대와 제8연대간의 진지교대 사실을 알아차리고 관대리[150]에서 아군을 비방하는 대남방송에 열중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44번 도로상에 우마차로 포를 운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틀 뒤인 22일에는 대병력의 이동장면도 관측되었다.

연대는 전방부대로부터 입수한 적정보고와 6월 20일을 전후하여 전투지대 내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대내외적 대세로 보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연대장은 6월 23일을 기해 비상경계가 해제되고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지보강작업을 계속하고 연대직할부대 병력을 역내에 대기시키는 한편 24일에는 제5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시켜 상수내리 682고지에 배치하였다.[151]

### (3) 적의 공격징후와 사단의 조치

육군본부의 방어계획이 사단 작전명령으로 예하대에 하달되어 익숙해지기도 전에 38도선 일대에는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6월에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제2연대 정면에서는 북한군 군관이 지도를 펼쳐들고 남쪽을 지시하는 모습이 관측되는가 하면, 야간 차량운행시 소등을 하던 적이 수일 전부터는 전조등을 켠 채 남하하고 있으며, 관대리 부근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집결하여 있고 야간에는 전차의 기동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6월 20일 연대 우전방 방동리 조경동과 매봉산에 나타난 무장공비들은 "곧 북한군이 총공격을 개시한다", "남반부는 8월 15일에 완전히 해방된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획품 중에는 군사지도에 아군배치 상황과 그 후방지역의 경찰초소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표시된 상황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제2연대장은 심야 작전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였

다. 연대정보참모 송대후(宋大厚) 소령은 전면전의 조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고, 연대장 함병선 대령 또한 지금부터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이 당시 사단의 상황은 군량미 부족으로 인해 외출 및 외박을 적극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3 이상의 병력이 빠진 공백상태였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여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하달된 작명 제42호를 기초로 적의 침공에 대비해야만 하였다.

## 3. 홍천 동북지구 전투

### 1)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북한군 제12보병사단의 기습공격

국군 제6사단의 우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제2연대 경계지역에서는 북한군 제12보병사단이 2개 연대 병진으로 연대 정면을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12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는 주공인 제12사단 제32연대(장 황동화 대좌)[152]로서 이날 중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홍천 동남쪽 9㎞ 지점인 내삼포리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32연대는 응봉산－부소현에 이르는 선에서 국군 제2연대의 방어선 돌파를 기도하였다.

또한 국군 제2연대 제1대대의 제2중대와 제1중대 지경선이자 양구－신남－홍천간 도로 정면인 하수내리로부터 계명산을 연하는 선에서도 적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들은 북한군 제12사단의 조공인 제30연대(장 최학훈 대좌)[153]로서 신남 및 어론리 부근으로 우회하여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는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반면에 북한군 제32연대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던 부대는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마노진나루(구 관대리) 전경. 북한군 제12사단 제32연대 공격로

제1대대였다. 개전 당시 박노규 중령이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사단 경계책임지역 중 계명산 남쪽에서 남전리 물앙골 서단 동아실 마을을 잇는 18㎞에 달하는 정면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된 인제－홍천간 44번 도로 방면에는 제1중대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은 6월 25일 04 : 00경 국군 제2연대의 방어지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력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시작된 북한군의 포격은 마노진 나루의 감제가 가능한 248고지－255고지 일대에 집중되고 있었다. 약 30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북한군 제12사단 제32연대가 국군 제2연대 제1대대 제1중대의 방어정면인 응봉산－부소현 선에서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가해왔다. 아울러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 또한 하수내리－막장골을 통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국군 제1대대 제2중대와 교전이 전개되었다.



### (2) 음양리－막장골 전투

1950년 6월 20일 제6사단에 예속된 제2연대 제1대대는 홍천에 이르는 도로의 길목을 중심으로 하여 석둔리(관대리 동남쪽 6㎞)에서 계명산(대동리 서북쪽 11㎞)에 이르는 사이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들은 6월 25일 01 : 00에 연대로부터 전투태세명령을 하달 받고 있었다.

이날 새벽 30분간에 걸쳐 북한군의 공격준비포격이 실시되었다. 이어 제2연대 제1대대의 방어지역인 764고지(계명산)로부터 부소현을 연하는 선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구경포 등 강력한 포병의 지원 아래 침공해온 적은 제12보병사단으로서 제5사단 예하의 2개 포병대대가 포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154]

적의 공격준비포격으로 인접한 호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제1대대는 연대장으로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북한군 제12사단 예하의 제32연대는 05 : 30을 기해 음양리와 막장골 부근으로 침공을 개시하였다.[155] 704고지 좌측 능선을 연하여 671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제

2연대 제1대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격렬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계획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적은 자주포를 선두로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신풍리 주변의 600고지와 상수내리 사이의 중간도로를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대대의 방어지역 내에서 적이 침공할 경우 주요 목표로 예상되던 관대리 남쪽 500m 지점의 38교 주변고지에는 2개 분대 병력이 추가 배속된 제1중대 제2소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진지점령 5일 만에 임시방편으로 기존진지에 대한 보강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다. 공격준비사격을 마친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소대의 모든 화기로 저항한 아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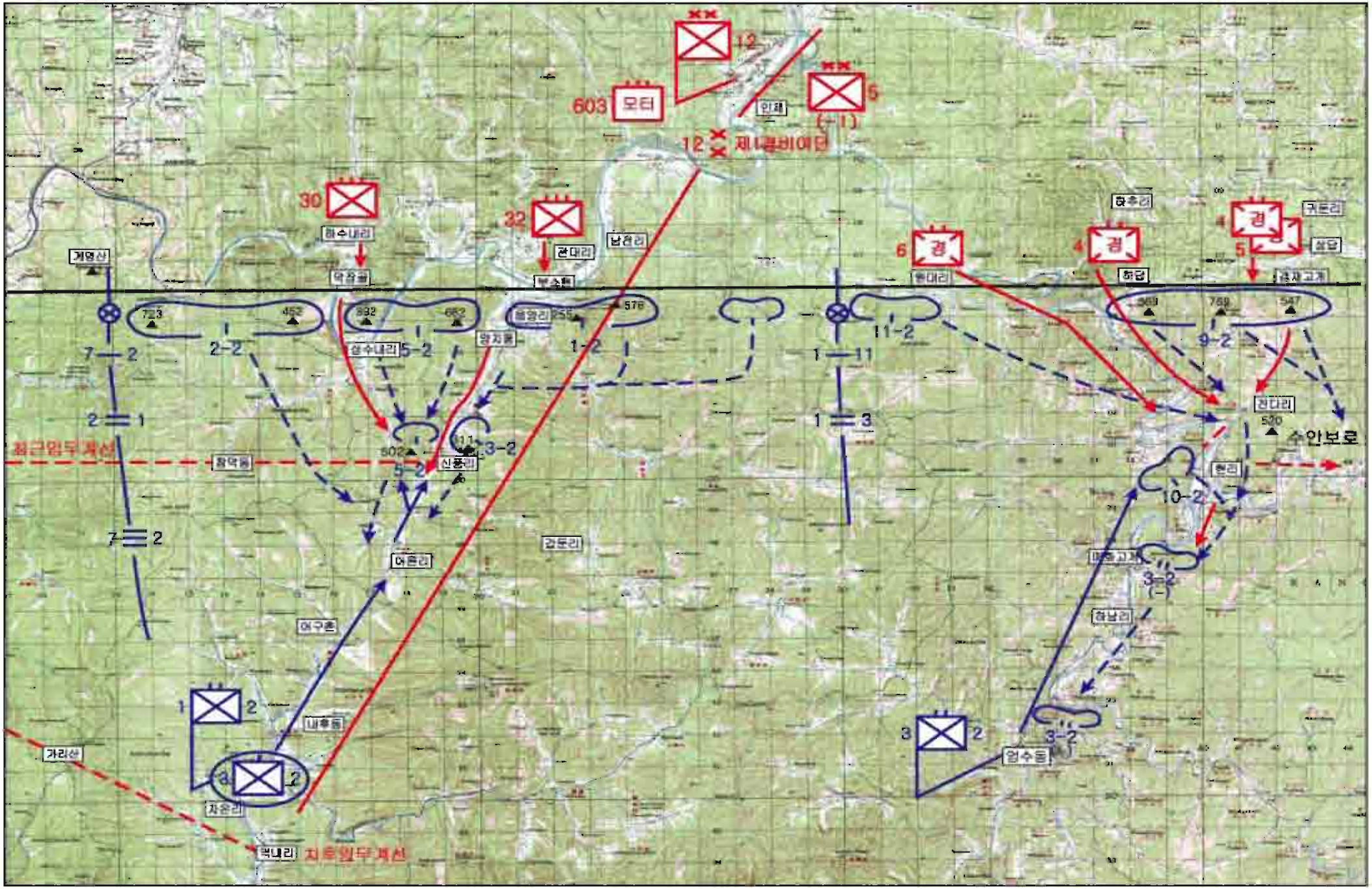
그러나 적은 1차 공격이 실패한 후 아군 진지에 대해 포격을 재개한 다음 다시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제2소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적은 대구경포격을 아군 진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증강된 1개 소대에 불과했던 제2소대는 결국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진지가 돌파됨에 따라 어론리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는 홍천통로의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 우회공격을 시도하였다. 제2중대 지역인 서쪽의 막장골을 돌파하고 상수내리로 침공[156] 함으로써 대대는 후방과의 연락로가 차단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대는 06 : 00까지 현 진지를 고수하며 3배 이상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적과 교전을 전개했으나 병력의 부족으로 06 : 20에 철수를 개시하였다.[157]

전방부대와의 교신두절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연대장은 06 : 00가 조금 지난 무렵 신남으로 향했다. 신남 부근에 도달한 연대장은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어론리 북쪽 아랫다무리고개로 후퇴하였다. 이곳에서 연대장은 철수하는 병력을 통제하면서 제1대대를 558고지에, 제2대대를 그 좌측 402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할 계획이었다.

연대장은 어느 정도 철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낙오된 병력이 속속 원소속대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한 후 10 : 00에 연대전술지휘소를 자은리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대헌병대를 요소에 배치하여 낙오병을 수습하도록 하였다.[158]

<상황도 5-7> 제2연대 경계진지 전투


603 모터
12
인제
5
(-1)
12 제1공비여단
30
하수내리
22
관대리
남전리
6 경
운대리
4 경
화추리
4 경
5
귀둔리
설담
설재고개
화답
거명산
약수골
봉소동
723
452
832
662
봉정리
576
양지동
수내리
5-2
2-2
7-2
2-1
1-2
1-11
11-2
1-3
9-2
전다리
520
수안보로
최근임무계선
황덕동
502
신풍리
3-2
5-2
어론리
강둔리
여구촌
내후동
가리산
차운리
맥내리
지휘임무계선
10-2
현리
매초고개
3-2
(-)
하남리
엄수동
3-2

### (3) 아군의 주요 조치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2연대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대대적인 침공이 개시되었다는 보고에 접하자 사태가 위급함을 직감하고 예비인 제19연대에게 출동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불통이던 통신이 회복되어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는 "모든 전선의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 당신은 강원도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인적 및 물적에 관한 모든 동원권한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면전쟁이 발발했음을 알게 되었다.

제7연대의 전술지휘소인 봉의산을 방문하여 적과 일진일퇴하는 아군의 전투양상을 직접 목격한 사단장은 자신에 찬 어조로 춘천 고수를 다짐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59]

> 사단은 계획적으로 남한에 기습을 감행해 오는 적을 38선 진전에서 포착·섬멸하려 한다. 제2연대장은 현진지에서 침입하는 적을 포착·섬멸하라. 제3대대를 급속히 어론으로 진출시켜 어론 좌측으로 추종하려는 적을 격멸하라. 제7연대는 현 진지에서 남침하는 적을 포착하라. 제19연대는 급속히 춘천으로 출동하여 제7연대를 지원하라. 제16포병대대 2개 중대는 춘천으로 출동하여 제7연대를 지원하며, 1개 중대는 홍천을 경유 어론에 진출, 제2연대를 지원하라.
>
> 행정사항 : 제19연대 수송은 기차로 함. 실탄은 사단 차량으로서 운반하여 준다. 통신은 이미 하달된 통신규정(SOI)에 의하며, 사단지휘소는 석사리에 재한다.

## 2) 주저항선 전투

### (1) 주저항선 형성과 어론리 전투

한편 참모학교 입교명령을 받은 박노규(朴魯圭) 중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대대로 복귀하여 제1대대의 지휘를 다시 맡았다. 적의 우회공격 등 강력한 압박으로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그는 대대예비로 자은리에 위치하고 있던 제3중대를 06 : 00를 기해 어론리 동쪽 2㎞ 지점의 585고지에 산개하기 위해 출동시켰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적의 도로접근을 저지하는 한편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대대병력을 그 선에서 흡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1중대와 제2중대는 11 : 30에 제3중대와 합류가 이루어졌고, 제5중대는 585고지 맞은 편 402고지로 철수하여 도로 양쪽을 방어하는 태세를 갖추었다.[160] 또한 연대는 10 : 00에 지휘소를 홍천으로부터 자은리로 옮겨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11 : 00에는 대전차포중대가 홍천을 출발하여 어론리로 이동하였다.[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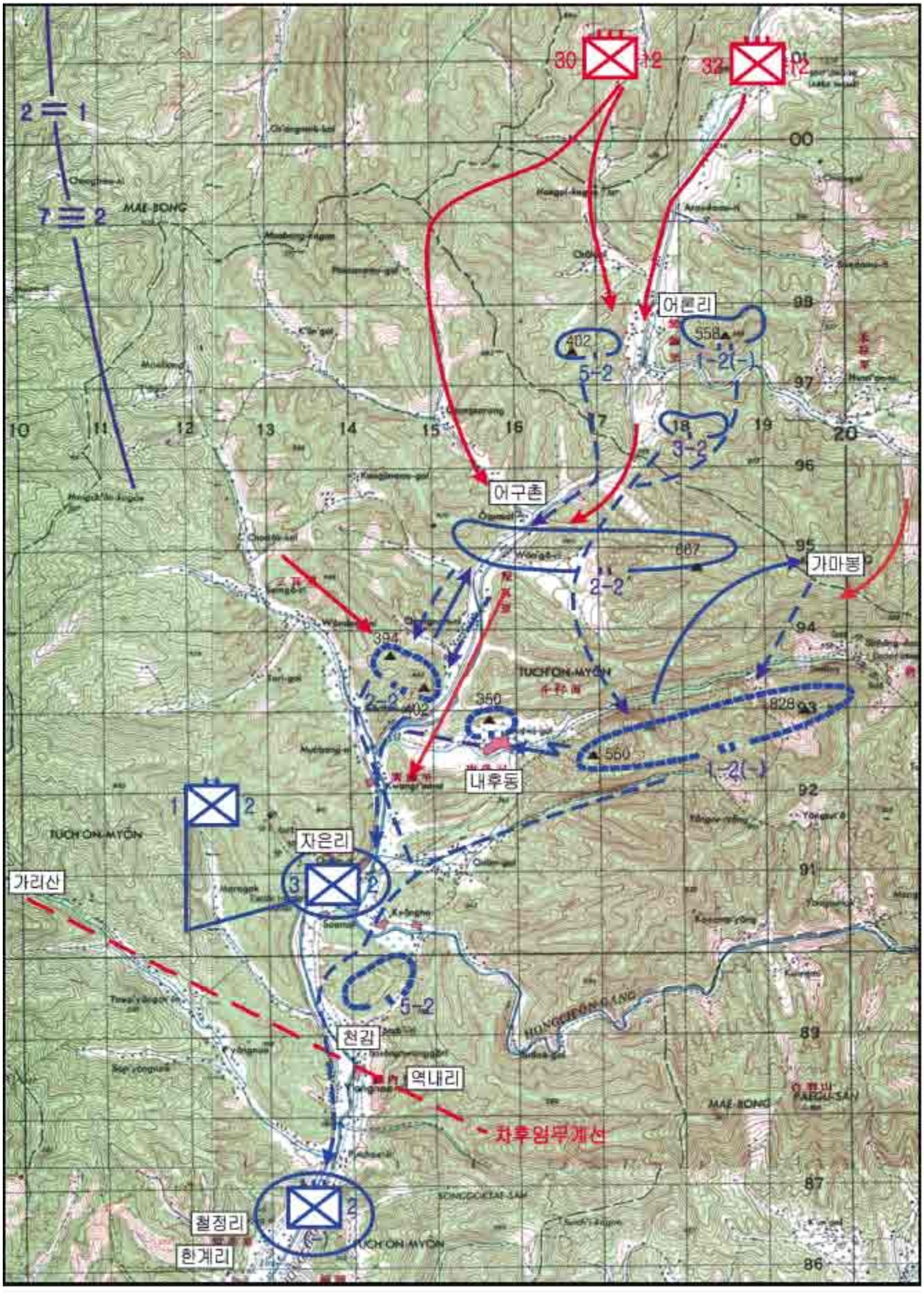
적은 자주포를 선두로 약 1개 연대의 병력이 침공해 왔으며, 제1대대는 11 : 50부터 이들과 교전을 전개하였다.[162] 이미 어론리 북쪽 2㎞ 지점의 아랫다무리에 배치된 로켓포 및 대전차포는 일제히 포구를 열어 보병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불의의 기습적인 포 공격을 받은 적은 자주포 2대가 파괴[163]되는 피해를 입고 사치리 북쪽 1㎞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제1대대는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면서 치열한 격전을 계속하며 적의 침공을 극력 저지하였으나 압도적인 병력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적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12 : 30을 기해 어론리 일대의 방어진지로부터 부대를 철수하여 자은리에 집결하였다.[164]

한편 신남으로 진출하여 부대를 지휘하던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제1대대의 전황이 점차 악화되자 06 : 00 당포리(홍천 동북쪽 3㎞)에 예비로 두고 있던 제2대대를 이동토록 구두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는 차량으로,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을 시작하여 09 : 00경 자은리 북쪽 2㎞지점인 어구촌(자은리 북쪽 4㎞)에 도착하였다.[165] 따라서 제2대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능선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무렵 연대의 전황은 점차 악화일로에 있었다. 현재의 급편방어진지에서의 방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미약하나마 참호 및 교통호가 마련되어 있어 공격과 방어가 유리한 주진지로 후퇴하기로 하는 한편 분리된 제3대대를 흡수하여 집중된 병력으로 적의 공격에 대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12 : 30을 기해 제3대대를 자은리로 집결시키는가 하면 제2대대의 엄호 아래 제1대대를 585고지에서 진지변환하여 연대의 좌일선으로 삼아 828

<상황도 5-8> 제2연대 주저항선 전투



고지－560고지 선에 포진시켰다. 또한 제1대대는 예하의 제5중대를 흡수한 후 좌일선으로 402고지－454고지를 연하는 선에 배치하였다.

연대장이 참모들과 반격작전계획을 토의하고 있던 21 : 00에 보병학교 교육과정에 입교해 있던 3명의 연대 장교들이 복귀하였다. 연대장은 즉석에서 복귀한 이들에게 보직을 발령하였는데, 김주형 소령을 제1대대장, 문정식 소령을 제2대대장, 그리고 조정련 소령을 공석으로 있던 작전주임에 각각 임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하는 북한군 2개 연대규모를 포착·섬멸하고 어론리 북쪽의 고지군을 탈취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38도선을 회복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585고지(어론리 동북쪽 1㎞)를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593고지(어론리 서쪽 2㎞)를 탈취하라.
④ 제3대대는 자은리로 집결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라.
⑤ 공격개시선(LD)은 현 접촉선이고, 공격개시시간은 26일 06 : 00이다.

### (2) 제1대대의 반격과 축차 지연전

연대장의 반격계획에 따라 585고지의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제1대대는 6월 26일 06 : 00를 기해 제2중대와 제1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으로 하고 현 접촉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제3중대는 대대 예비로서 공격중대를 후속토록 하였으며, 제4중대는 화력지원을 위해 자은리 북쪽 1㎞ 지점의 내후동에 위치시켰다.

이에 앞서 전날 어론리까지 진출했던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와 제32연대는 6월 26일 04 : 00에 홍천을 향해 진격을 시작하였다.[166] 중간목표인 가마봉을 향해 진격하던 제2중대는 10 : 00경에 가마봉 서쪽 800m 지점의 794고지에서 소대규모의 적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취하였으며, 제1중대 또한 그 무렵에 794고지 서쪽 1㎞에 위치한 558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560고지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은 794고지의 점령시점에 좌측방에서 병진 공격하던 제2대대 정면의 454고지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들었다. 제2대

대는 연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있었고, 공격 기도를 알아 챈 적의 선공(先攻)을 받고 고전하고 있었다. 곧이어 제1대대는 925고지의 적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틈을 이용한 한 무리의 적이 양 중대 사이로 침투하였고, 제1중대는 백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자 또 한 무리가 내후동 동쪽 1㎞ 지점의 무명고지로 우회 침투하여 대대관측소를 기습하였으나, 후속한 제3중대가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양 중대의 분산을 막을 수 있었다.

적은 11 : 30이 되자 대대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양 고지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였다. 동시에 자주포 2대를 앞세운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양 대대의 전투지경선을 뚫고 거리뒷골로 침공해오자, 가마봉에 있던 적은 848고지로 우회하여 대대의 우측방을 위협하였다. 560고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제2대대의 공격이 돈좌되고, 제1대대 또한 적의 협격에 직면하자 주진지로 후퇴할 것을 각 대대장에게 명령하였다.

13 : 00에 대대지휘소를 자은리 우체국으로 정한 대대장은 분산·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던 중 "연대는 즉시 홍천 전방으로 철수하여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연대장을 만나는 즉시 보고하라"는 사단 참모장 고시복 중령의 전화를 받았다. 적을 격퇴할 수 있다는 제1대대장의 항변에도 사단 참모장은 모든 전선의 상황상 명령대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2대대 또한 연대의 반격계획에 따라 06 : 00에 593고지 탈취를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의 좌측방에서 394고지－402고지 선의 북쪽 계곡을 공격개시선으로 한 대대가 동서로 각 중대를 병진공격을 시도할 무렵 적의 선제포격이 강습함으로써 공격은 돈좌상태에 놓였다.

대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대대에 배속되었던 57㎜ 대전차포중대 제1소대장 박배섭 소위는 적의 탄막을 뚫고 포 2문을 402고지 동쪽 기슭으로 추진하여 방열한 후 354고지 및 468고지, 그리고 적 자주포의 예상접근로인 어구촌(자은리 북쪽 5㎞) 일원에 포격을 퍼부어 적의 소화기 사격을 제압하였다. 이 틈을 탄 공격으로 대대는 적의 전초진지를 일축하고 468고지－483고지간의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 연봉에 강력한 방어선을 펴고 요란 및

저지사격으로 저항함에 따라 불리한 지형에 있던 대대는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주임 보좌관 전동식 대위가 대대에 도착하여 주진지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전달하자, 대대장 문정식 소령은 12 : 00에 주진지로 철수를 단행하여 급편방어에 돌입하였다.

한편 13 : 30에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자은리의 연대지휘소에서 사단장의 철수 명령에 따른 작전을 숙의하고 있었다. 이때 제1대대장과 작전주임은 한계리 선의 점령을 건의하였다. 제1대대장은 이 선이 중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리에서 철수하고 있는 제3대대를 수용하기 용이하고 또한 지형적으로 적의 자주포를 격파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주장하였다.

잠시 후 연대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여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대는 현진지로부터 북창(한계리 동남쪽 2㎞)－한계리 선으로 주간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한 다음 적을 진전에서 저지·섬멸하려 한다.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엄호아래 철수하여 330고지－293고지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제2대대는 축차지연전을 수행하여 293고지－359고지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제3대대는 성산리로 철수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어 측방경계에 임하라.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는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연대가 점령하기로 한 북창－한계리 선의 지형적 특징은 한계리로부터 홍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좌측에 큰말고개와 작은말고개가 성산리까지 이어져 있고, 도로에 연해 우측에는 도섭이 가능한 화양강이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의 도로의 정점은 작은말고개가 위치한 230고지이며, 이로부터 한계리까지는 S자형 굴곡이 연속으로 이어져 겨우 차 한대가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고지들로부터는 6㎞ 전방의 자은리 부근까지 감제가 가능하며, 주능선에서 파생한 횡격실능선이 동서로 이중삼중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삼림이 울창하였다.

연대장의 작명에 따라 연대는 14 : 00를 기해 철수를 개시하였다. 선두인 제2대대는 한 차례의 집중사격 후 제1포대의 연막차장을 신호로 나구정 골짜기에서

자은리 방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철수기미를 탐지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5대의 자주포를 앞세우고 연대 중앙에 쐐기를 박을 태세로 침공해왔다. 또 다른 자주포들도 거리뒷골로 난입하여 좌우측에 포격을 가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402고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방어를 담당한 제5중대가 악전고투하며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제6중대와 제7중대가 임의철수를 단행함으로써 제5중대는 고립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제5중대장 이종기 대위는 우일선의 제1대대가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고지를 고수하기 위해 분전하였으나, 대대장의 철수명령을 받고 자은리로 물러나 대대의 후위중대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적의 강력한 포격과 추격으로 인해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자은리로부터 후퇴를 실시함에 따라 적은 홍천 동북쪽 23㎞ 지점의 자은리 계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167]

### 3) 최후저항선 전투

#### (1) 제2연대(-)의 재편성

한편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자은리 선에서부터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상황을 지켜본 연대장은 한계리에서 이들을 수습하여 재편성할 것을 결심하였다. 한계리로 돌아가면서 연대장은 제5중대장에게 적의 공격을 저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적의 저지임무를 맡은 제5중대장은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정찰하는 한편 북한군의 공격습성을 파악하여 허점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자은리 남쪽 2.5㎞ 지점의 천간에 Cal. 50 기관총을 배치하고 중대병력을 도로 양편으로 매복시켰다. 15 : 00에 적의 병력을 태운 차량행렬이 서서히 샘재 골짜기를 돌아 나오자 매복해 있던 중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16 : 00에 한계초등학교 교정에서 병력을 수습한 연대장은 연대 행정요원을 포함한 연대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하사관 및 병사는 원소속으로 분류하고 손실이 많은 장교는 원소속과 관계없이 계급에 의해 직책을 부여하였는데, 대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연대 안에서 병영생활을 한 까닭에 지휘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17 : 00가 되어 연대는 재편성을 완료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병력손실이 심하였다. 말고개의 지형을 정찰하고 난 연대장은 애초에 계획한 광정면 방어에서 집중적인 거점방어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우일선의 제1대대는 230고지－330고지의 북쪽 100m간을, 좌일선인 제2대대는 이와 연계하여 371고지－293고지간을 점령토록 지시하였다. 진지로 진입한 연대는 개인호 및 교통호를 구축하며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 (2) 제2연대의 반격과 진지점령

개전 3일째인 6월 27일 07 : 00에 제2연대지휘소가 설치된 성산리를 방문한 사단장은 제19연대와 포병 주력을 홍천으로 전용하여 말고개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러한 배경에는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춘천 지역은 전날의 전투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연대가 소양강이라는 장애물을 방패삼아 차안(此岸)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된 상태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홍천의 경우는 제2연대가 많은 자주포를 앞세운 적의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홍천이 그들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사단 주력의 후방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사단장은 제19연대의 전환을 포함한 사단의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68]

> 사단은 병력을 철수하여 신진지로 이동, 차기 작전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제2연대장은 제1, 2대대를 급속히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진지를 점령하고 남하하는 적을 포착·섬멸하라. 제3대대를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진지에 진입시키라. 제7연대장은 급속히 부대를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진지를 점령하고 남하하는 적을 진전에서 포착·섬멸하라. 제19연대장은 부대를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홍천 부근에 제2선으로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제16포병대대는 각 대대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정면에 포사격을 실시하라. 야포대대의 이동은 후명한다. 공병대대장은 정면의 도로 및 교량을 파괴하라. 각 연대는

철수간 특히 기도비닉에 유의하고 완전히 신진지에 진입하면 지형에 맞게 위장을 철저히 하라. 수송은 자체에서 담당하라. 사단에서 각 연대에 차량 7대씩을 배당한다. 통신은 SOI에 준하며, 특히 통신망이 두절됨이 없도록 노력하라. 사단지휘소는 홍천에 재한다.

한편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와 제32연대는 춘천지구에서의 총공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 새벽부터 제2연대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자주포를 선두로 하여 침공을 시작하였다.[169] 그러나 연대는 적의 진영 깊숙이까지 감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면돌파 기도를 간파하고 S자형 굴곡으로 된 도로에 57㎜ 대전차포를 배치하였다. 또한 09 : 00를 기해 성산리로 전진한 제3포대로 하여 적의 집결지인 철정리에 집중포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제3포대의 포격은 적의 공세기도를 분쇄함은 물론 야간에 다시 침투하는 그들을 진전에서 격멸함으로써 연대의 진용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2차에 걸친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은 작전을 변경하여 밤새 대구경포와 자주포 등 말고개 일대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적의 포화가 집중되는 속에서도 진지보강에 주력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은 반격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재편성과정에서 초급지휘관들이 모두 바뀌어 부대파악이 미진할 뿐 아니라 부대정비마저 미흡하여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휘관들은 공격으로 이전하여 38도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결국 연대장은 각 지휘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는 일부병력으로 내촌천을 도섭, 복골을 기습 공격하여 적의 예상되는 지휘소와 보급소를 격멸하려 한다. 제1대대(-)는 499고지를 탈취하라. 제2대대는 1개 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라. 제3대대는 공격대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라. 제1포대는 공격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공격개시시간은 28일 05 : 30, 공격개시선(LD)은 내촌천을 연하는 선이다. 각대는 기도비닉에 유의하고 공격기도가 폭로될 때까지 무전기는 침묵을 기하라.

제1대대가 반격작전의 주역으로 선정되자 대대장 김주형 소령은 분대장급 이상을 소집, 목표까지의 지형과 공격대형, 공격간 준수할 사항 등을 설명한 후 LD 전개점의 정찰을 위해 1개 소대를 내촌천으로 출발시켰다.

한편 연대의 전환계획에 따른 지형정찰을 위해 먼저 출발했던 제19연대 작전주임 박주근 소령은 정찰결과를 "작명상에 지적한 지역은 방어선을 펼 곳이 못되고 성산리 동북쪽 2.5㎞ 지점의 말고개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일 뿐 아니라 그 밑을 통과하는 홍천가도는 차량이 비켜 나갈 수 없는 협로인데다 S자형의 굴곡이 많고 그 우측은 단애를 이루기 때문에 대전차공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연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적의 자주포를 파괴할 11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파괴방법 등을 교육을 시킨 후 연대수색대장 박준수 중위의 인솔 아래 목적지로 출발시켰다. 이때 특공대원에게는 수류탄 2개와 안전핀을 제거한 81㎜ 박격포탄 1발씩이 지급되었다.

특공대는 성산지서에 도착하여 목적지인 말고개까지는 도보로 이동하였다. 목적지에 도달한 이들은 2인 1개조로 편성하였고, 말고개의 정점으로부터 한계리 방면으로 도로 양편에 10~20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도로 양편은 절벽과 단애로 형성되어 있어 은폐는 물론이고 호를 팔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완전 노출된 상태로 시체를 가장하여 누운 채 적의 자주포가 접근해오길 기다렸다.

특공대를 편성하여 배치한 제3대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홍천초등학교를 출발하였다. 빗속을 뚫고 22:00에 말고개에 도착한 제3대대는 도로를 기점으로 좌우 능선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각 중대를 전개시키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 (3) 말고개 전투와 육탄공격

홍천 동북지역 전선이 교착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북한군 지도부는 질타와 독전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적은 제2연대의 강력한 저항으로 상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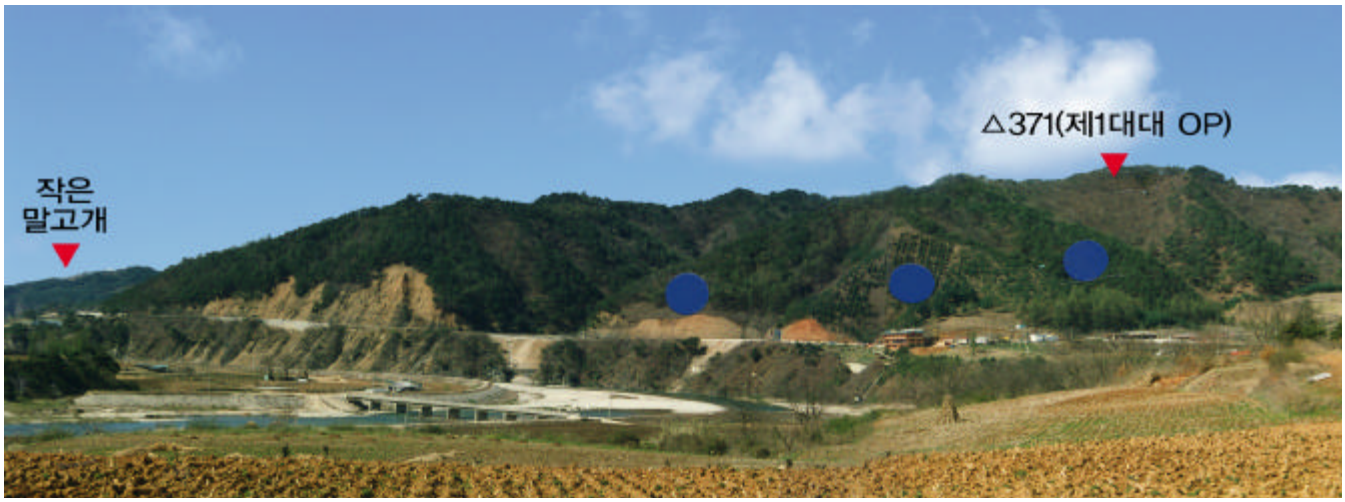
타격을 입었음에도 자주포를 선두로 하여 중앙돌파를 시도해 왔다.

반면에 사단장은 당초 춘천의 전황이 일단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9연대를 홍천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전날 춘천이 실함되고 육군본부의 작전방침이 전선조정을 위해 현전선에서 물러서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자, 더욱 더 홍천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으로 이에 대처하면서 후퇴이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6월 28일 05 : 00 무렵 홍천 동북쪽 15㎞ 지점의 한계리를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1)은 그 직후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며 점차로 병력을 증강하였다.[170] 이러한 상황에서 제2연대는 연대장의 구상에 따라 반격작전에 돌입하였다. 제2대대로부터 1개 중대를 배속 받은 제1대대는 05 : 30의 공격개시를 앞두고 03 : 00에 330고지를 출발하였다. 이들은 앞서 출발했던 수색대의 유도를 받으며 내촌천을 건넜다. 이때 대대는 중간목표인 397고지의 적을 격멸하고 계속 전진하여 최종목표인 499고지를 탈취한 후 별도의 명령을 대기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배속된 제6중대는 대대 주력이 공격을 하는 동안 우측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287고지를 거쳐 648고지를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침내 예정된 공격개시시간인 05 : 30에 접어들자 대대는 짙은 안개를 헤치고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철저히 통제된 행동으로 적의 중앙지역을 돌파한 대대는 중간목표인 397고지에 전초로 배치되어 있던 20여 명의 적을 격멸하고 복골을 완전 포위하였다. 대대장은 엄호병력으로 1개 중대를 능선에 배치하고 2개 중대로 하여 양쪽에서 기습적으로 돌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습공격을 감행한 대대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놀라 우왕좌왕하던 적을 궤멸시켰다. 또한 대대의 우측방 공격을 담당한 제6중대도 같은 시각에 소수의 적을 격퇴하고 목표인 648고지를 향해 진격하던 중 적과 대치한 채 사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대의 기습으로 한때 혼란상태에 빠졌던 적은 전열을 정비하고 복골에 집중포격을 가하면서, 대대의 진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397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499고지에서 복골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완강한 반격에 직면한 대대장은 대오를 수습하여 다시 공격을 시도할 여유가 없을




제2연대의 북창-한계리방어선. 좌로부터 제1대대 1·2·3중대, 제2대대 5·6·7중대 배치지점

뿐 아니라 역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연대장의 승인 아래 철수를 명령하였다. 연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대대는 방어진지인 말고개로 복귀하였다.

이날 아침 대대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지체된 홍천 점령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가해왔다. 연대의 방어진지가 구축된 말고개 일대에 대해 융단폭격을 하듯 포격을 가한 그들은 3대의 사이드카로 하여 도로변에 아군의 화력이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수색한 후 자주포를 먼저 발진시켰다.

적은 굴곡지점에 보병의 투입을 배제하고 1개 소대규모의 소수 병력만 자주포 후미에 후속시킨 채 SU-76 자주포의 직접적인 화력엄호를 받으며 말고개를 돌파하려는 전술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 지역출신의 공비가 제보한 세밀한 정보를 통해 말고개에 대한 지형을 그들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09 : 20경 짙게 깔렸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371고지에서 적을 관측하던 연대장은 그들의 자주포가 남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57㎜ 대전차포를 고지 동남쪽 500m지점의 S자형 굴곡지점에 방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적 자주포의 속도를 지체시키면서 보병과 분리시키기 위해 연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토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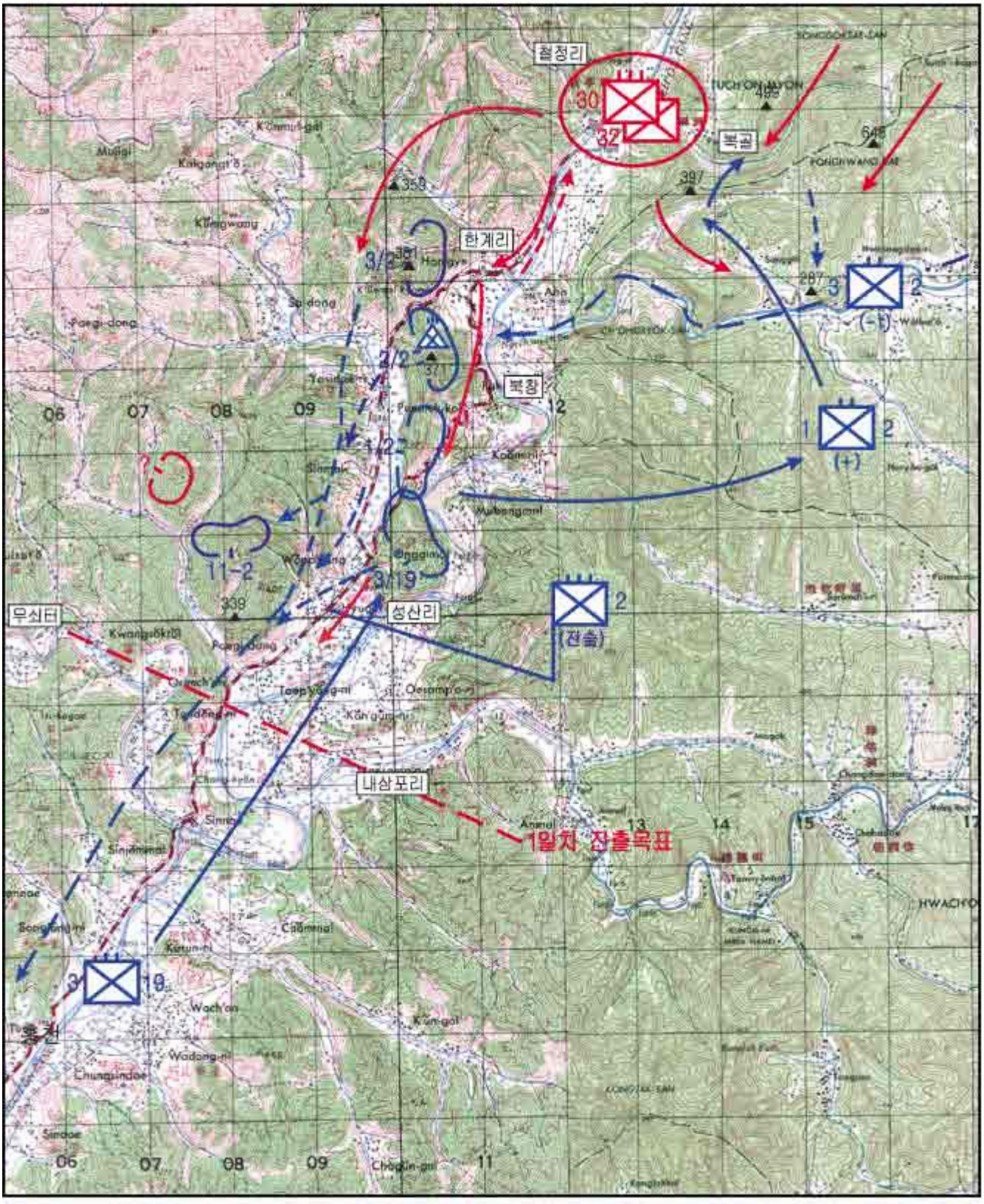

그러나 57㎜ 대전차포중대는 연대장의 명령이 하달되기도 전에 이미 성산리 동북쪽 1.5㎞ 지점의 새말로 철수하고 말았다. 상황은 적의 자주포가 말고개를 선점하느냐 아니면 아군 57㎜ 대전차포가 선제의 위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연대장의 지시를 받은 헌병대장 최영철 대위의 신속한 조치로 57㎜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가 이 지역을 선점하였다. 대노한 연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대전차포중대장은 곧이어 "제1번포는 S자형 굴곡지점 80m 전방에, 제2번포는 S자형 굴곡지점 80m 후방에 각각 포위치를 선정하고 적을 최단거리로 유인하여 그 궤도를 격파하라"는 파괴요령을 전수받았다.

한편 자주포의 격파임무를 부여받은 제19연대 제3대대의 육탄 특공대원 11명은 2인 1조로 S자형 굴곡지점으로부터 한계리 방면으로 10~20m의 간격을 유지한 채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은폐가 불가능함에 따라 완전히 신체를 노출하고 누워 시체를 가장하였다.

적의 자주포가 다가오자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보병과 분리된 적의 자주포는 말고개를 향해 포격과 기관총사격을 난사하며 다가왔다. 이미 몇 대의 자주포는 특공대원이 누워 있는 지점을 통과하고

<상황도 5-9> 제2연대 최후저항선 전투



있었다. 57㎜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의 제1번포가 포격을 가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적 자주포의 포격으로 제1번포가 파괴되었다.

이번에는 80m 후방에서 있던 제2번 포사수 김학두(金學斗) 하사가 연속으로 3발의 포격을 적의 선두 자주포에 집중하였다. 자주포가 일시 기동이 저지되자 제19연대 특공대의 조달진 일병이 수류탄 2발을 포탑으로 투척하여 폭파시켰다.

선두 자주포의 폭파로 도로는 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뒤따르던 자주포는 폭파된 선두 자주포에 의해 가로막혀 기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아군 제2번포의 저지사격과 육탄특공대의 수류탄 투척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였다. 포탑을 열고 탈출하던 일부 승무원들은 고지 위에서 가해지는 제2연대와 제19연대의 사격으로 전원 사살되었다. 계획적인 협동전은 아니었지만 제2연대 57㎜ 대전차포중대와 제19연대 육탄특공대는 자주포 10대를 노획 및 파괴하고 40여 명의 적을 사살하였다.[171]

일시에 10대의 자주포를 잃은 적은 계획했던 정면 돌파가 불가능해지자 아군 진지를 향해 간헐적인 포격을 가하였다. 22 : 30에 적은 각종 포화를 말고개에 집중함으로써 전선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좌일선으로 제3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381고지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서북쪽으로 우회하여 침투를 시도하였고, 또 다른 병력은 중앙부 제2대대 방어지역의 좌측 293고지를 침공하여 371고지를 위협하였다. 또한 몇 대의 자주포는 어둠을 이용하여 한계리 남쪽 700m 지점까지 접근한 후 말고개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제2대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거듭했으나, 적의 화력과 병력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어 371고지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대대장 문정식 소령은 371고지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전면방어태세를 갖춘 후 연대장에게 전황의 위급함과 탄약의 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대대장이 왼팔 관통상으로 후송됨에 따라 박노규 중령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연대장은 박노규 중령에게 우일선의 제1대대와 협동으로 반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무렵 좌일선의 제3대대는 서북쪽으로 우회 침투를 시도하던 1

개 대대규모의 적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연대장의 반격명령을 받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제1포대와 제3포대가 371고지 동쪽 기슭의 무명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적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동안 돌격을 실시하였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인데다 계곡으로 몰린 적은 집중포격과 양 대대의 강력한 집중사격으로 격퇴되었으며, 24 : 00에 연대는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제2연대는 이날 하루 동안 3차에 걸친 공방전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 (4) 최후 공격과 홍천 피탈

다음날 북한군은 춘천 외곽선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08 : 00시를 기해 홍천 가도로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춘천지구에서의 전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중앙돌파를 반복하였다. 그들은 양 연대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협공을 시도하면서 일부 병력은 동쪽의 451고지로, 그리고 다른 병력은 서쪽의 양지말로 우회 남하하며 말고개 정면으로는 소수의 병력과 자주포를 동원하여 양 연대를 고착 견제하려 하였다.

연대장은 적의 계책을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하기로 하였다. 즉 적의 취약지역인 중앙부의 한계리로 돌입하여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한편 그들을 동서로 양단하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반격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 동안에도 적은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아군을 압박해왔으나 격전 4시간 만에 격퇴되었다.

그러나 전황은 매우 위급하게 전개되었다. 서쪽의 양지말로 우회 침투하고 있는 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가해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연대장은 기회가 포착되면 반격을 실시할 의향이었다. 14 : 00에 연대전술지휘소를 방문한 사단장이 홍천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자 연대장은 즉각 다음과 같은 작명을 예하대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전선에서 16 : 00부로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성산초등학교에 집결한 다음 21 : 00 홍천을 철수하려 한다.

② 철수순위는 제3대대, 제1대대, 포병대대(-), 제2대대로 한다.
③ 제3대대는 철수하면서 1개 중대를 494고지에 배치하여 측방을 경계토록 하고 명에 의하여 철수시켜라.
④ 각 제대는 기도비닉에 유의할 것이며, 철수 1시간 전에 예하 장교에게 알리라.

연대는 양 포대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교란 및 저지사격을 시작하는 가운데 철수를 시작하였다. 작전명령에 따라 제일 먼저 철수를 시작한 좌일선의 제3대대는 서쪽의 양지말을 통해 침투하는 적에 앞서 큰바골 골짜기를 따라 성산리로 빠져 나왔다. 그리고 적이 능선이나 계곡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11중대를 494고지로 급히 파견하였다.

이어 우일선의 제1대대가 철수한 후 중앙부의 방어를 담당한 제2대대도 철수를 시작하면서 추격해 오는 적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1개 소대를 371고지에 잔류시켰다. 제1대대장과 제2대대장은 371고지에 잔류한 병력과 함께 행동하면서 저녁 무렵까지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들의 공격이 강력해지자 잔류 병력을 이끌고 고지를 출발하였다.[172)]

21 : 00경 양 대대장은 새말 부근에서 철수중인 대대와 조우하였다. 제1대대장 김주형 소령은 먼저 도착해 있던 연대장으로부터 대대를 이끌고 말고개로 뒤돌아가 371고지를 재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연대의 주력이 안전하게 홍천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적의 추격을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철수중인 대대를 정비한 후 말고개를 향해 출발하였다. 230고지에 도착하여 병력의 전개를 완료한 대대는 1개 소대규모가 점거하고 있는 330고지를 탈취한 후 말고개의 최고봉인 371고지를 공격하였다. 24 : 00경 아군의 철수에 따라 방심을 하고 남진을 하던 적은 제1대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아울러 371고지를 점거하고 있던 병력마저 도주함으로써 목표로 한 371고지를 무난히 탈취하였다.

이후 적은 아군의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였으며, 이 포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부대대장인 김병진

소령이 파편상을 입었다. 6월 30일 새벽 포격을 마친 적은 1개 대대규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371고지의 북쪽에 위치한 무명고지를 통해 적이 아군 진지에 접근함으로써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공격이 제1대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자 이번에는 기만술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격렬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던 제1대대에 연대장이 급파한 연락장교가 도착하였다. 그는 "연대 주력이 홍천으로 철수를 완료하였으니 대대는 즉각 성산리로 집결하라"는 명령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김주형 소령은 병력을 이끌고 철수를 시작하여 05 : 00에 성산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적은 철수중인 대대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공격을 가해왔다. 이로 인해 철수대열은 분산된 채 무질서하게 성산으로 향하였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대대장은 철수대열의 후미로 달려가 낙오자를 독려하며 06 : 00에 집결지인 성산초등학교에 도달하였으나, 적이 포격한 적탄에 의해 좌측 대퇴부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연락병의 부축을 받으며 대대를 지휘한 후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트럭을 이용하여 횡성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제3대대가 철수를 단행하는 동안 좌측방에서 위협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제11중대는 16 : 00에 본대로부터 이탈하여 494고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278고지로부터 445고지를 거쳐 능선을 따라 430고지에 이르렀다.

중대장 채수용 대위는 여기서부터는 북한군과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산개대형으로 430고지의 동남쪽 8부 능선으로 나아갔다. 정상을 향해 가던 중대는 정상을 선점하고 있던 2개 소대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들의 집중사격과 수류탄 투척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돌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중대는 적을 끌어내어 격파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430고지로 물러나서 전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다음날인 6월 30일 아침 무렵 말고개 부근에서 들려오던 총성이 그치고 홍천 방향에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옴에 따라 중대장은 불안에 휩싸였다. 09 : 00에 중대장 채수용 대위는 성산리 서북쪽 1.5㎞ 지점의 339고지에 정탐을 위해 척후조를 파견하였다. 척후조는 복귀하여 "홍천 방면 도로에는 북한군의 차량행렬이

줄을 지어 남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고난 중대장은 중대가 적중 고립되었음을 직감하고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소대별로 탈출하기로 작정하였다.

중대장은 분대장 이상을 집합시킨 후 중대가 적중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중을 탈출하여 원주에서 다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1개 소대를 지휘하여 선두로 나섰다. 중대는 성산리 앞의 화양강을 도하하여 대부분의 병력은 원주에서, 그리고 일부는 20일 후에 신녕 부근에서 본대에 합류하였다.

한편 말고개를 점령하고 홍천을 향해 진격을 재개했던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와 제32연대는 6월 30일 15 : 00까지 아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며, 이날 18 : 00에서야 홍천을 완전 점령할 수 있었다.[173]

## 4. 현리지구 전투

### 1)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현리 동북쪽 9㎞에 위치한 789고지로부터 관대리 동북쪽 8㎞ 지점의 오목골간을 방어하고 있던 제2연대 제3대대는 6월 25일 04 : 00에 연대장으로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약 1시간이 경과해도 적의 도발징후가 없자 대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비침투로 인한 비상상황 정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05 : 30에 이르러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하답 부근으로 침입하여 제3대대 제9중대 정면으로 종대를 이루며 공격을 가해왔다.[174] 이들은 동해연안의 소로를 따라 진격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38경비 제1여단(제1경비여단) 예하의 제1, 제4, 제5, 제6대대 병력이었다. 제1대대와 제4대대는 귀둔리와 하추리로부터 각각 공격을 개시하여 현리를 거쳐 하남리 방면의 내린천을 따라 진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5대대에 하달된 임무는 제1대대를 후속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6대대는 원대리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갑둔리로 진격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175]

북한군 제1대대와 제4대대의 공격을 받은 제9중대장 남백봉 대위는 좌인접 중대인 제11중대와 협동으로 그들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한 후 최후저지사격을 가하였다. 쌍방간의 교전이 전개되었고, 제9중대와 제11중대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은 점차 병력을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북한군의 공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지자 제3대대장 이운산 소령은 제9중대와 제11중대를 일단 그들로부터 이탈시켜 예비대와 함께 현리 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격멸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엄수동에 배치되어 있던 대대 예비인 제10중대를 07 : 00에 차량으로 이동토록 구두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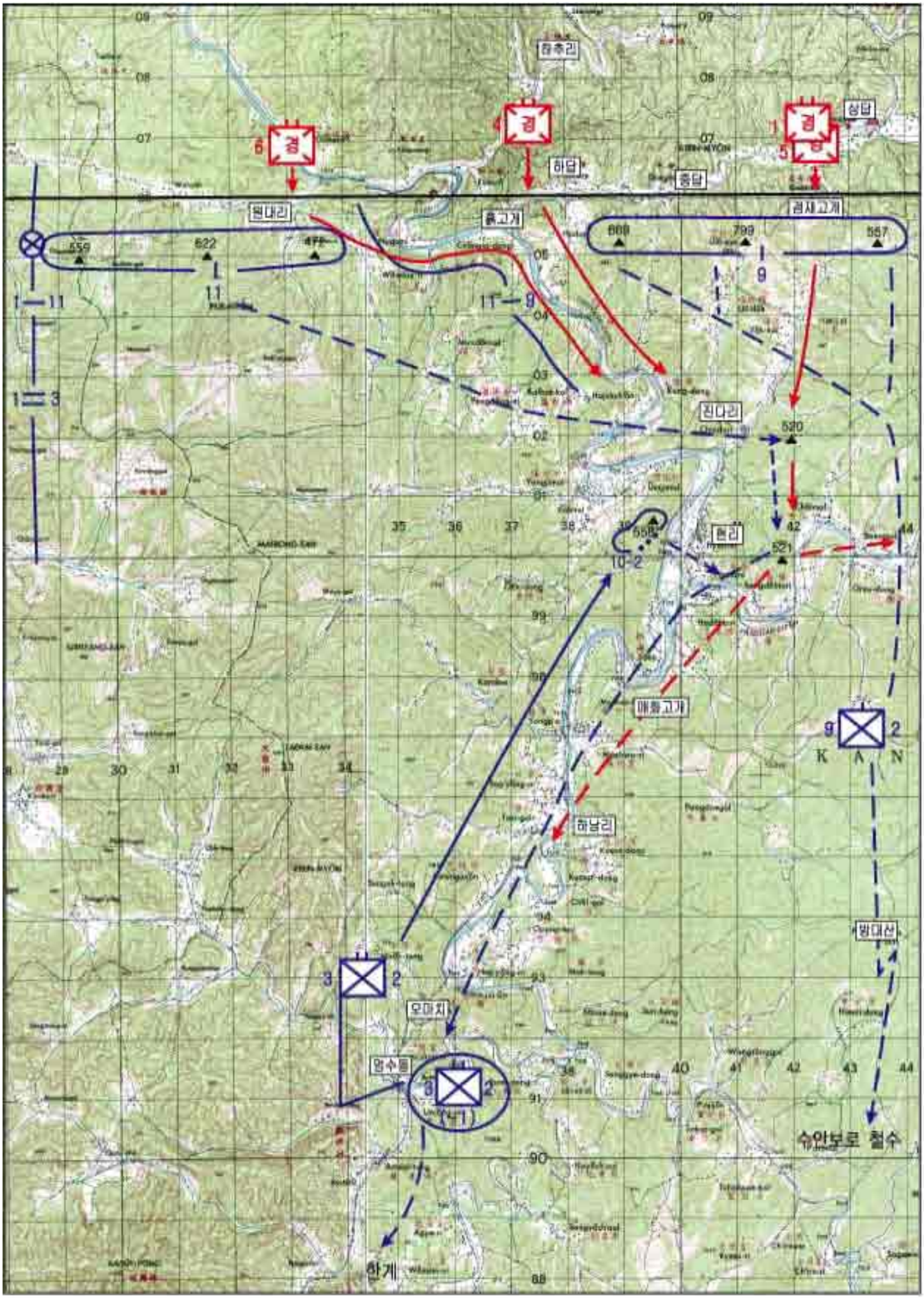
### 2) 주저항선 전투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12 : 00 현리에 도착한 제10중대는 즉시 현리 서쪽 1㎞ 지점 558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진지를 점령하였다.[176] 이 무렵 점점 증강된 적의 공격으로 부득이 철수를 개시하여 진다리에 집결한 제11중대는 그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13 : 20에 520고지 좌측 능선에 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제9중대는 유무선이 두절된 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520고지를 점령한 제11중대는 제12중대장으로부터 연대 주력이 홍천으로 철수했다는 말을 듣고 중대장 독단으로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대대장으로부터 중대가 너무 돌출했음으로 521고지로 후퇴하여 방어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521고지로 이동, 고지를 선점하고 강력히 저항하는 소규모의 적과 교전을 전개하여 이를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558고지를 점령한 제10중대를 비롯한 대대는 13 : 20에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였다. 적의 압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강력해졌으며, 불리한 지형과 병력의 부족으로 대대는 대대장의 구두명령에 의하여 15 : 00에

<상황도 5-10> 제2연대 현리 전투


하추리
하단
중단
상단
원대리
흥고개
검사고개
559
522
475
669
799
557
진다리
520
558
현리
521
매화고개
하남리
방대산
오미치
암수동
(41)
수안보로 철수
한계

철수를 개시, 엄수동에 집결을 완료하였다.[177]

한편 연락이 단절된 채 행방이 묘연했던 제9중대는 교전 수분 만에 압도적인 병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적에 의해 후방교통로가 차단되고 또한 통신망이 두절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는 14 : 00에 철수를 개시하여 방대산을 경유 사단 우익의 제8사단 제10연대의 철수병력과 함께 수안보에 이르러 100%의 병력을 유지한 채 대대에 흡수되었다.

한편 엄수동에 집결을 완료한 후 명령을 대기하고 있던 제3대대는 두절되었던 통신이 23 : 00에 회복되어 연대와의 통신에 성공하였다. 연대장과의 통화에서 "강행군으로 한계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대대장은 26일 04 : 00에 통신이 두절된 제9중대를 제외한 대대(-1)를 도보로, 그리고 부상병과 보급품은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178] 18 : 30 모종촌(한계리 동쪽 9㎞)에서 연대 안내장교의 안내로 한계리에 도착한 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진입하여 293고지－381고지간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본대를 뒤따랐던 차량제대는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27일 08 : 00경에 한계리 인근에 도착하여 유도병도 없이 본대와 합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주포를 비롯한 적의 포격으로 보급품을 탑재했던 선두차가 파괴되자, 이들은 장사원(한계리 동쪽 12㎞)으로 우회하여 횡계에서 대대와 합류하였다.

제3대대(-)의 합류로 개전 40시간 만에 전 병력의 집중 운용이 가능해진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예하 각 대대의 점령진지 확인과 실정파악 등 전투태세를 재확인한 후 본격적인 전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 5. 충주로의 철수

홍천에서 징발차량을 이용하여 철수한 제6사단은 삼마치에 제19연대의 일부 병력을 엄호부대로 배치하고 주력은 원주로 철수하였다. 6월 30일 엄호부대로

삼마치에 배치했던 제19연대의 일부 병력이 철수하자 횡성 북쪽에는 제7연대 제2대대만이 저지부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북한군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옴에 따라 이날 정오경에 원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서울이 함락됨에 따라 육군본부는 수원으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육군본부는 춘천과 강릉 방면의 제6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작전국장인 장창국 대령을 원주에 급파하였다. 연락기를 이용하여 원주에 도착한 작전국장은 사단의 좌측인 여주 방면에 대한 측방경계를 지시하는 한편 제8사단장에게는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사단수색대의 1개 소대를 양평 동북쪽의 용문산에 진출시켜 적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색중대장인 최동안 중위는 통신유지도 불가능한데다 적정마저 알 수 없자 철수를 결정하고 여주로 향하였다. 그는 광탄리에 진입하는 적의 전차 5대를 목격하고 차량을 유기한 채 충주로 후퇴하였다.

한편 7월 1일 제6사단은 이날 오후에 충주 선으로 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날 사단사령부를 방문한 작전국장이 원주에서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제8사단이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통신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부득이 원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6사단은 원주를 출발, 제천을 거쳐 충주로 철수를 시작하여 오후에 완료하였다.

제7연대는 제천에서 후속 철수하는 제8사단에게 신림고개에서 저지임무를 인계하고 철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제7연대는 이날 야간에 신림고개에 배치되었는데, 장갑차와 사이드카를 앞세운 적 정찰대가 남하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격을 감행하여 장갑차 2대와 사이드카 3대를 노획하였다.

다음날인 7월 2일 새벽 제7연대는 제8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0연대가 차량을 이용하여 평창 방면에서 철수해오자 임무를 제10연대에 인계하고 충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179]

## 6. 분석 및 평가

개전 1년 전부터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태세에 전력을 다해 온 화천-춘천 축선의 제7연대와 달리 인제-홍천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제2연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교체가 전쟁 발발 3일전에 완료됨으로써 지형에 대한 숙지는커녕 일부는 짐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6사단 제2연대가 수행한 방어작전을 전쟁기능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1) 지휘통제

지휘관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투력으로 전투의 주도권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6일 06 : 00를 기해 실시토록 하달된 제2연대장의 반격작전명령은 적의 취약점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 반격작전이 지휘관의 왕성한 공격정신을 바탕으로 개전 이래 거듭된 철수로 전의를 상실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투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포병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된 무모한 작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전쟁수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휘계통 일원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 당일 제2연대 제1대대장이 3번씩이나 교체됨으로써 상하간에 생소감이 발생하고 지휘상의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개전 당시 대대장인 김병진 소령은 전쟁발발 2시간만에 박노규 중령으로 교체되었고, 23 : 00에는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복귀한 김주형 소령으로 다시 교체되었다.

### 2) 방　　호

방어작전에서 지형조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열세라도 방자의 이점인 지형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북한군이 불리

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제2연대는 어론리와 말고개 등 애로지역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방어에 임함으로써 북한군의 홍천진출을 최대로 지연시킬 수 있었다.

### 3) 기동 및 대기동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 전쟁발발 직전인 6월 20일에서야 부대교체가 완료된 제2연대의 작전지역 내에는 콘크리트 유개호가 구축되지 않은 채, 단지 제8연대로부터 인계받은 통나무 유개호만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저도 보수가 요구되는 허술한 상태였다.

또한 진전에는 철조망이나 대인지뢰가 설치되지 않아 적의 접근이 용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적 포병화력에 취약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조직적인 방어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계진지에서의 저항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쟁발발 직전에 실시된 제8연대와의 부대교체로 장애물 운용계획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중동부지역 작전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춘천과 홍천 등 거점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전개한 작전이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섬멸하기 위해 수원 이남으로 우회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반면 가평 적목리에서 현리 진흑동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6사단은 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제2연대와 제7연대를 전방에 투입하여 38도선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2개 연대만으로는 90㎞가 넘는 방어정면의 방어는커녕 38도선을 관통한 주요 도로의 방어조차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철저한 전투준비와 공세적인 방어, 지형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방어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사단 자체의 수색정찰대를 운용하여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 장병들의 외출 및 외박을 자제하고, 보병 및 포병진지를 사전에 구축하는 한편 간부교육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형분석을 통한 포병화력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공비토벌작전을 통해 축적한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전투력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적은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의 진출이 애초의 계획보다 5일이나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상의 특징을 노출시켰다. 북한군은 산악행동, 각 병과·구성군·부대 내외의 협동행동, 무기 및 장비의 조작 등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충분히 실시됨으로써 남침은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한군은 전투 및 전략차원에서 양익포위에 의해 국군을 섬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작전수행과정에서 그런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북한군은 공격시 국군의 방어병력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산악지형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국군이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통신장비가 부족했던 북한군은 전투간 상급부대가 예하부대의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적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일례로 제12사단 제31연대가 개전 당일 춘천 인근지역까지 진출하였으나, 사단사령부 및 인접 사단과의 통신두절로 춘천점령을 위한 협동공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북한군 간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초의 임무대로만 작전을 수행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따라서 전황이 급변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급부대의 지시가 없으면 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실기(失機)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예컨대, 제2사단이 소양강 도하에 계속 실패하면서 사단 내에서는 가평이나 소양강 상류로 우회하여 도하한 후 춘천을 배후 공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었고, 기존의 작전계획에 의한 소양교 정면공격만을 고집함으로써 적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북한군은 개전 초기에 국군의 능력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전술원칙을 무시한 채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화천-춘천 축선의 공격을 담당한 제2사단과 인제-홍천 축선을 담당한 제12사단 모두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양상이었다. 손쉽게 38도선 돌파에 성공한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능력을 경시함으로써 소양강 도하작전과 말고개 돌파작전시 전투대형이 아닌 행군대형의 종대 파상공격을 실시, 국군의 화망에 포착되어 많은 인명손실을 자초하였다.

한편 제6사단은 작전기간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792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으며, 122명을 포로로 하였다. 또한 SU-76 자주포 18문과 장갑차 2대, 45㎜ 대전차포 2문과 박격포 8문, 중기관총 15정을 각각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80] 반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단의 병력손실은 전사

<표 5-11> 국군 제6사단 전과 현황(1950. 6. 25~6. 28)

| 사살/부상 | 생포 | SU-76 자주포 | 장갑차 | 사이드카 | 45㎜ 대전차포 | 박격포 | HMG |
|---|---|---|---|---|---|---|---|
| 6,792 | 122 | 18 | 2 | 3 | 2 | 8 | 15 |

<표 5-12> 국군 제6사단 전사상자 현황(1950. 6. 25~6. 28)

| 구 분 | 전 사 | | | 전 상 | | | |
|---|---|---|---|---|---|---|---|
| | 총탄 | 포탄 | 계 | 총창 | 포파편창 | 타박 | 계 |
| 사 령 부 | /2 | /1 | /3 | /5 | 1/6 | /2 | 1/13 |
| 제2연대 | 2/2 | 3/4 | 5/6 | 4/77 | 6/98 | 3/26 | 13/207 |
| 제7연대 | 1/14 | /15 | 1/29 | /16 | 2/17 | /5 | 2/38 |
| 제19연대 | 2/5 | /3 | 2/8 | 6/32 | 5/38 | /4 | 11/74 |
| 합 계 | 5/23 | 3/23 | 8/46 | 10/130 | 14/159 | 3/37 | 27/326 |

52명과 전상 353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제대별 전사자는 사령부 3명, 제2연대 11명, 제7연대 30명, 제19연대 10명이었으며, 이 중 8명의 장교가 전사하였다.[181]

또한 이 과정에서 제6사단은 적지 않은 양의 장비가 파괴되거나 유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770정의 소총이 망실되고, 30문의 2.36″로켓포와 1문의 57㎜ 대전차포, 그리고 각종 박격포 16문 등이 파괴 및 유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표 5-13> 같이 각종 탄약이 같은 기간에 소모되었다.[182]

결론적으로 제6사단의 중동부지역 작전은 개전 초기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력을 극복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지연함으로써 수원 방면으로 우회하여 서울지역에 투입된 국군의 퇴로와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또한 한강 이북에 집중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한강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였다.[183] 그 결과 미 제24사단이 한국에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5-13> 국군 제6사단 병기 망실 현황(1950. 6. 25~6. 28)

| 구 분 | 사령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합 계 |
|---|---|---|---|---|---|
| M-1 소총 | 15 | 210 | 140 | 140 | 505 |
| 칼빈 소총 | 1 | 131 | 23 | 100 | 255 |
| 자동 소총 | | 10 | 4 | 6 | 20 |
| 수냉식 HMG | | 2 | 1 | 4 | 7 |
| 공냉식 LMG | | 4 | | 4 | 8 |
| 권 총 | | 18 | 8 | 10 | 36 |
| S M G | 2 | | | 5 | 7 |
| 50㎜ MG | 1 | | | 3 | 4 |
| 2.36″로켓포 | | 17 | 3 | 10 | 30 |
| 60㎜ 박격포 | | 7 | 2 | 2 | 11 |
| 81㎜ 박격포 | | 1 | 2 | 2 | 5 |
| 57㎜ 대전차포 | | | 1 | | 1 |
| M8유탄발사기 | 1 | | 14 | 4 | 19 |
| M7유탄발사기 | 20 | 50 | 83 | 72 | 225 |
| 신호탄 발사기 | | 2 | 5 | 5 | 12 |

<표 5-14> 국군 제6사단 탄약 소모 통계(1950. 6. 25~6. 28)

| 구 분 | 사령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합 계 |
|---|---|---|---|---|---|
| M-1 소총실탄 | 66,893 | 447,400 | 517,031 | 213,319 | 1,244643 |
| 칼빈 소총실탄 | 250 | 41,204 | 46,819 | 2,400 | 90,673 |
| 자동 소총실탄 | 6,500 | 238,000 | 146,336 | 44,035 | 434,871 |
| 수냉식 HMG탄 | 580 | 24,080 | 21,185 | 6,700 | 52,545 |
| 공냉식 LMG탄 | 4,124 | 102,500 | 63,300 | 45,500 | 215,424 |
| 권총 실탄 | 1,773 | 9,507 | 4,754 | | 16,034 |
| 2.36″로켓포탄 | 495 | 900 | 662 | 500 | 2,557 |
| 60㎜ 박격포탄 | 452 | 5,789 | 6,722 | 4,136 | 17,099 |
| 81㎜ 박격포탄 | 30 | 3,789 | 6,192 | 3,202 | 13,213 |
| 57㎜ 대전차포탄 | | 907 | | | 907 |
| 105㎜ 유탄포탄 | 5,778 | | | | 5,778 |
| 99식 소총탄 | 13,876 | 19,800 | 1,480 | | 35,156 |
| 소총류탄 | 40 | 1,950 | 616 | 470 | 3,076 |
| 수류탄 | 50 | 3,475 | 1,621 | 1,000 | 6,146 |
| 공중 각색 신호탄 | 27 | 210 | 104 | 180 | 521 |

## 2. 전투준비태세

개전 당시 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미약한 상황이었다. 국군의 8개 사단 중 4개 사단만이 38도선에 배치되었고, 이들 전방사단도 그들이 보유한 전투력에 비해 광정면의 경비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 부대는 편성 자체가 감편되어 있거나 또는 후방의 안전보장을 위해 1개 연대가 예비로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중동부지역의 국군 제6사단도 90㎞에 달하는 광정면 방어를 제2연대와 제7연대 등 2개 연대가 담당하고,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로 원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각 연대 또한 2개 대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편성함으로써 1개 대대가 담당한 책임경계구역은 약 20㎞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담당 구역에 대한 방어는 38도선을 관통하는 주요 접근로나 중요 지형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중동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6사단은 군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청년단원을 동원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춘천이 38도선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여 진지보강 및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제6사단은 개전 1년 전부터 북한군의 공격 기도를 예상하고 방어태세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초기전투에서 성공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당시 국군의 전반적인 방어태세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육본은 1950년 1월과 3월 교육각서 1호 및 2호를 통해 6월말까지 대대급 훈련을 완료하도록 각 사단에 지시하였으나, 경계임무 및 공비토벌작전으로 인해 1~2개 연대만이 형식적으로 완료하였을 뿐 나머지 부대들은 중대훈련조차도 50%선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 특히 제7연대는 연대장 임부택 중령이 장병들의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전투훈련을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병 및 포병학교에 파견하여 자질향상에

주력하는 등 방어태세에 전력을 기울였다.

경계태세에 있어서도 제6사단은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당시의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따라 육군본부는 적의 공격징후를 무시한 채 발령되어 있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으나, 사단은 개전 직전 귀순한 북한군 병사로부터 적이 대규모 공격을 가해올 것이라는 첩보를 제공받고 확인을 거쳐 병사의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는 등 철저히 사전 대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제6사단은 적의 기습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이끌 수 있었다.

## 3. 전장기능별 분석

### 1) 지휘통제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당당한 제6사단은 춘천에 중점을 두고 적이 공격해 오면 이를 진전에서 격멸하여 38도선을 확보한다는 방어개념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제6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임무에 임하였다.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간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하기 위해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는가 하면, 48㎞에 달하는 광정면을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춘천을 고수할 주저항선 진지구축에 한계가 따르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춘천 분지의 감제가 가능한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방어태세를 보여주었다.

방어 작전에 있어, 지휘관들은 북한군의 약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기습공격, 많은 피해를 가하는 한편 심리적인 마비를 달성하여 적의 오판 유도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작전에 돌입한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30여 명으로 특공대를 편성, 역도하를 통해 도

하준비에 몰두하고 있던 북한군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기습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사단장은 포병화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방어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춘천지역 사수에 집중 운용되었던 제16야포대대를 전환하여 주저항선이 와해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던 제2연대를 지원함으로써 홍천의 피탈과 제7연대의 퇴로차단을 저지·지연할 수 있었다.

한편 초기작전 수행과정에서 제6사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야기시켰다. 이는 지휘계통의 일원화 확보로써 전쟁수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전장에서 상하간의 불일치는 지휘상의 불리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 당일 제2연대 제1대대장이 3번씩이나 교체됨으로써 상하간에 생소감이 생기고 지휘상의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개전 당시 대대장인 김병진 소령은 전쟁발발 2시간 만에 박노규 중령으로 교체되었고, 23 : 00에는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복귀한 김주형 소령으로 다시 교체되었다.

### 2) 정 보

제6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사단 자체의 정찰대를 운용하는가 하면, 북한군 귀순병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첩보수집활동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제7연대는 30여 명의 수색대를 38도선 이북의 화천 및 양구지역에 침투시켜 차량이동 및 병력집결 등 적의 남침준비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첩보를 토대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육군본부는 물론 인접사단과의 통신두절로 인한 정보공유에 실패함으로써 여타 전선의 상황을 파악, 전선 축소와 같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화천－가평간 방어를 담당했던 제7연대 제3대대(-)와 현리지역에 투입되었던 제2연대 제3대대의 경우와 같이 상급부대의 작전지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병력의 집중운용이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유휴 병력으로 남게 되었다.

### 3) 기동 및 대기동

제6사단 제7연대는 북한군의 접근이 예상되는 주요지역 9개소에 콘크리트 유개호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별로 2~3개의 통나무 유개호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개호 진전에는 지붕형 철조망을 쌍선으로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군의 접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다.

반면에 홍천 북방의 제2연대 지역에는 콘크리트 유개호가 구축되지 않은 채, 제8연대로부터 인계받은 통나무 유개호만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마저도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진전에는 철조망이나 대인지뢰가 설치되지 않아 적의 접근이 제7연대에 비해 훨씬 용이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전쟁발발 직전에 실시된 제8연대와의 부대교체로 장애물 운용계획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단의 작전지역 내에는 작전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교량이 몇 곳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진하거나 폭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방어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제7연대는 가장 유력한 북한군의 접근로인 화천-모진교-춘천 축선의 관문인 모진교 폭파를 간과함으로써 개전 당일 북한군이 소양강변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소양교를 폭파하자는 공병대대장의 건의를 사단장이 무시함으로써 춘천피탈의 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인람리-역골간 도로변 10개소에 도로대화구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폭약을 장전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개전 당일 적이 5번 도로를 통해 접근하였을 때 유리한 지형을 활용할 수 없었다.

### 4) 화력운용

제16야전포병대대는 지형분석을 통한 화력운용계획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수립하였다. 대대장 김성 소령은 적의 전투력이 집중될 주요 접근로상에는 사전에 화력을 계획하였으며, 보병방어진지와 통합된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다.

예로써, 6월 27일 말고개전투 당시 제2연대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김성 소령은 대대의 일부를 전환해 연대를 지원하는 등 극히 제한된 화력을 적절하게 집중 분배함으로써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전쟁 이전에 3개 포대장을 포병학교에 교육 파견하고, 주야간 사격술 훈련 등 전투력 향상에 주력한 결과였다.

### 5) 방 호

방어작전에서 지형조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열세라도 방자의 이점인 지형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적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제6사단은 북한강과 소양강 등 하천장애물을 이용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말고개와 원창고개 같은 애로지역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일례로, 제7연대는 춘천이 38도선에서 불과 13㎞ 남쪽에 있음을 감안하여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의 춘천분지를 감제하는 지역일대에 예비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북한군의 춘천점령 기도를 3일간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철수과정에서 감제가 용이한 원창고개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홍천진출을 지연하는데 성공하였다.

### 6) 전투근무지원

개전 당시 제6사단은 초기작전을 수행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작전간에 탄약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는데, 개전 당일 사단의 탄약고가 적의 포화에 노출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약 전량을 안전지대로 운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6사단은 전쟁발발 이전에 학

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진지구축 및 보강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주저항선 및 최후저항선 전투에서 적을 저지·지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개전 직전 사단이 보유한 군수품 실태를 보면, 백미 및 정맥 등 미곡은 전무한 상태였고, 단지 예비식량으로 하루분의 건빵 657상자만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투식량의 미확보는 결국, 장병들의 외출 및 외박으로 이어져 적의 기습남침의 한 요인이 되었다.

사단내 차량의 부족은 병력 수송 등 작전수행에 큰 차질을 불러왔다. 개전 당일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19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병력 수송을 위한 차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기차를 이용하여 청량리로 우회 이동, 춘천지역에 배치되었다. 또한 개전 직후 제2연대 예비 병력인 제2대대 역시 주저항선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병력수송차량의 부족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기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주 (註)

1) 그동안 일부에서는 인제－홍천 축선의 공격을 담당한 북한군의 실체 다시 말해, 북한군 제7사단이냐 아니면 제12사단이냐 하는 논쟁이 있어 왔다. 북한군 제7사단이 그동안 정설로 인정되어 왔으나,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공산측 사료에 의해 그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 참모부가 개전 직전에 발행한 「전투명령 제001호」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군 제2사단의 좌익사단으로 제12보병사단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쟁 당시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을 지냈던 B. H. 라주바예프 중장의 6·25전쟁 보고서와 러시아국방부가 편찬한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소련군 총참모부의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등도 이를 밝혀주는 실증자료들이다.
2) 강원도, 『강원도사 : 역사편』(춘천 : 강원일보사 출판국, 1995), p. 113.
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화천군·춘천시 군사유적 : 지표조사 보고서』 육군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8집, 2001, p. 8.
4) 그러나 당시는 화천－춘천－홍천간 도로 17번, 양구－춘천간 도로 29번, 인제－홍천－서울간 도로 24번, 그리고 인제－현리－홍천간 지방도로는 24E의 도로번호가 사용되었다.
5) 1921년 충북 청원에서 출생, 일본 쥬오(中央)대학 법문학부에서 수학 중 일본군 소위로 징집되어 복무하였다. 해방 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육군참위(소위)로 임관, 국군 제3연대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제1연대장으로 사직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제6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휴전 이후 제1군단장,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1966년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pp. 326-327.
6) 북한군 제2군단은 동해안 축선의 공격을 담당한 38경비 제1여단 역시 제1제대에 편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서울 :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 p. 139.
7)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0. 10.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90.
8)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0. 10.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p. 11.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90-291.
10) 이청송(李青松)은 소련계 한인으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통신지원단장 보좌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48년 8월초 북한군 제2사단장에 임명되었다.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p. 11.
11) 현파(玄波)는 1920년 평북 초산에서 출생하여 일본의 대학에 유학 중 중국으로 망명, 조선의용군 제1지대 소속으로 연대참모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 입북하여 제2사단 참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1950년 8월 20일 낙동강 도하작전 중 비행기총격으로 사망하였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 p. 200.
1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Issue 4*(NK 105th

Armored Division), p. 35;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 22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pp. 172-175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pp. 184-192.

13) 일명 도고부(都古夫)로 불리는 전우(全宇)는 1914년 함북 온성에서 출생하여 혼춘에서 수학 중 항일연군에 가담하여 모스크바로 유학, 동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40년 다시 팔로군에서 활동하면서 156사 부사장과 독립 15사장을 지낸 그는 입북하여 제12사단장으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후 후방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부총참모장겸 정찰국장을 역임하였으나, 1959년 4월 30일 행방불명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p. 189.

14) 1916년에 출생하여 1937년경 동만에서 항일군에 참가하였으며, 1940년 소련 연해주 교도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3월 조선의용군 독립 15사 참모장으로 입북, 북한군 제12사단 참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대장급 군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1980년대 병사하였다.

15)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pp. 253-255.

1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82;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2003. 2, 육군사관학교), p. 49.

17) 김광협(金光俠)은 1915년 함북 부령에서 출생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연안에서 조선의용군 군관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중공 팔로군 예하의 부대장으로 활동하다 입북, 인민군 제3사단장과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을 거쳐 1949년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을 지냈다. 이어 인민군 제2군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선사령관, 인민군 총참모장, 노동당 중앙위원, 민족보위상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1970년 7월 김일성의 경제, 국방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 國土統一院, 『北傀人物』, 1971, pp. 69-70;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p. 78.

18) 본명이 왕자인(王子仁)으로 1911년 평북 용천에서 출생하여 남경의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의용대 제2구대 부구대장과 화북지대 구대장, 연안지대장을 역임하였다. 1948년 봄 입북하여 인민군 부총참모장을 지낸 그는 6·25전쟁 발발당시 제2군단 참모장으로 참전하였으며, 이후 제12사단장과 통화후방사령부참모장, 제6군단장, 전선사령부 부참모장으로 활동하였으나, 1958년 실종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p. 135.

1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 8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1991, pp. 171-172.

2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1991, p. 176.

21) 북한군 제2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제001호, 274.1고지 동북협곡에서』(1950. 6)

22) 북한군 제2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제001호, 274.1고지 동북협곡에서』(1950. 6)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56.

24)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 274.1고지 동북협곡에서』(1950. 6)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56.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35.

27) 북한군 제2군단의 주공을 기존의 제2사단에서 제12사단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 육군 교리상 주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① 전투력 집중운용, ② 제2제대의 주공지역 후속, ③ 전투정면의 협소, ④ 화력의 집중, ⑤ 지휘관 성향(공격적), ⑥ 부대가 최종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① 제12사단 예하 3개 연대의 병진공격과 아울러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인제-홍천 축선에 투입함으로써 전투력을 집중한 점, ② 군단 예비인 제5사단(-1)이 제12사단을 후속하도록 작전계획이 수립된 점, ③ 제12사단에 부여된 전투정면이 약 20㎞(춘천 동북쪽 청평리-부소현)로 협소한 점, ④ 제12사단 포병 외에도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포병 및 제5사단 포병이 배속되어 있던 점, ⑤ 제12사단장 전우 소장이 조

선의용군 출신으로 입북 전 중국에서 항일 및 국공내전을 통해 많은 전투지휘 경험을 체득한 인물인 점, ⑥ 제12사단이 조선의용군 출신 병력으로 편성됨으로써 그들이 체득한 전투 및 빨치산 활동경험을 실전에 적용, 제2군단의 최종목표인 제1단계(수원－원주)선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이 앞서의 주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당 연구소 연구원들과 참전원로, 각 군 사관학교 및 각 군 대학의 교수(교관)과의 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58.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57.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56-158.
31) 이들은 조선의용군 제5지대 16단에 소속되었던 병력이다. 조선의용군 제5지대 내에서 15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선인을 편입하고 있던 16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의 변화(혼합 편성과 예속 변경 등)를 겪은 후 1949년 초 마지막으로 제4야전군 47군 141사에 소속되었다가 입북하였다. 입북 후 이들은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와 제603기계화연대의 일부가 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p. 101.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p. 12.
3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p. 100-101.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89-290.
35) GHQ, Far East Command,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pp. 27-28. 그러나 북한군 제2사단은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5,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춘천지구 전투에서 투입된 병력의 50%를, 그 후 청주지구 전투에서 또 50%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손실내용을 제대별로 구분하면 제17연대 2,185명, 제6연대 1,400명, 제4연대 700명이다.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도전기』 1, 1968, p. 245.
37) 북한군 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 1950. 6. 18.
38)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 274.1고지 동북협곡에서』(1950. 6)
39)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지령 제15호』(1950. 6. 24).
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53), 1987, p. 104.
4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2권 : 북한괴뢰군의 남침』, 1968, p. 246.
4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p. 645.
4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4), pp. 120-37～120-38.
4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4), pp. 120-50.
45) 제6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2호」(1950. 5. 18);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서울 : 전쟁기념사업회, 1992), p. 84.
46) 당시 제6사단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 및 제7연대 작전주임 이남호 소령 증언(1977. 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 전선편』, 1982, pp. 26-28.
48) 당시 제6사단 제16야전포병대대장 김성 소령 증언(1977. 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49)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 pp. 1-2.
50)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 2003, p. 44.
5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42. 사단 전투상보에는 전투기간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출동인원일람표로 명기되어 있다.
5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 1977, p. 247.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42. 사단 전투상보에는 전투기간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출동장비 일람표로 명기되어 있다.
5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69, p. 215.
5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 1977, p. 246.
56) 당시 제6사단 제16야포대대장 김성 소령 증언(1986. 5. 2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5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 1977, pp. 197-199.
5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2, p. 174.
5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113.
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2, pp. 153-155, 158.
61) 가평지역은 춘천과 멀리 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지형상 인접부대와의 협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적인 병력배치상황은 화기소대 2개분대로 증강된 제1소대만을 고시락고개에 배치하였을 뿐 중대 주력은 목동리에, 그리고 대대예비인 제11중대는 가평에 각각 집결하고 있었다.
62) 춘천중심지(시청)로부터 북서쪽으로 9㎞ 떨어진 우두동의 소양강 서안에 솟은 높이 133m의 구릉성 야산으로 산 이름은 그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 우두평야를 남(우두)과 북(샘밭)으로 가로지르며, 동북쪽으로 소양강이 흐르고 서북쪽으로는 모진강(북한강)이 흐른다. 산 정상에 오르면 소양강과 함께 서쪽으로 우두벌, 동쪽으로는 샘밭벌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산에 있는 '솟을 뫼'라는 무덤 곁에 소를 매어두면 소발자국에 무덤이 패여 엉망이 되었다가 하룻밤 자고나면 땅이 다시 솟아나 소를 맨 흔적이 없어졌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63) 춘천시 소양동에 위치한 높이 301.5m의 산으로 춘천시의 상징이자 진산(鎭山)이다. 상서로운 봉황이 나래를 펴고 위의를 갖춘 모습이라 하여 봉의산(鳳儀山)이라 불리고 있으며, 춘천 분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조망이 좋으며, 북쪽 산마루에서는 소양강 및 우두평야 일대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6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서울 : 삼화인쇄, 1982), pp. 30-31.
65) 춘천 북쪽 13㎞, 38도선 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한 북한강(일명 모진강)을 가로지른 폭 4m, 길이 250m의 다리로서 모진교(母津橋) 또는 38교라고도 불렸다. 화천에서 춘천에 이르는 관문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춘천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다리는 1934년에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1965년 2월 20일에 완공된 춘천댐으로 인해 춘천호 수중에 잠겨 있다.
66)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67)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68)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서울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p. 666.
7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42.
71) 제6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2호」(1950. 5. 18).
7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28.
73) 귀순 병사는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 제7중대 제5소대 소속의 전사 이광운이다. 유현종, 『백마

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서울 : 을지출판공사, 1985), p. 166.
74)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75) 그러나 대대장인 인성관 소령은 6월 25일부로 보병학교에 교육을 받기 위해 출발함으로써 대대장직은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고, 사실상 제10중대장인 하상도 대위가 대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7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47.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58, 309.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79)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80) 춘천시와 화천군에 걸쳐 있는 높이 882m의 산으로, 서쪽으로는 오봉산(779m)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으며, 정상에서는 소양호와 춘천시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다.
8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82)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84)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86) 북한군 제2사단 제4연대는 문정리－천전리－도지골을 점령하고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춘천을 포위 소멸하는 차후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65.
88)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 1977, pp. 276-277.
8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제1대대가 예정된 방어진지인 164고지 일대에 배치된 시점은 각 중대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당시 제1중대장이었던 이대용 중위(예비역 준장)는 배치 완료된 시점을 개전 당일 09 : 30～10 : 00로, 제3중대장이었던 김명익 중위는 07 : 00～08 : 00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의 단계별 상황과 조치사항을 공식문서 및 참전자 증언과 비교분석한 결과 제1대대(-1)의 진지점령시간은 07 : 00～08 : 00로 확인되며, 제1중대의 경우도 동일한 분석에 근거하여 09 : 30～10 : 30로 추정된다. 이대용(1982. 6. 29), 김명익(1982. 7. 8)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9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9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9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개전초기 아군 장병들은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전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06.
9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97) 당시 제6사단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 증언(1977. 4. 7. 춘천지구전투 종합면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9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9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60, 306.

101) 제16야전포병대대대장이었던 김성 소령(예비역 준장)은 당시의 상황을 "보리밭은 누런데 적은 꺼멓게 파리 떼와 같아 구별이 용의하여 목측으로 사격하였다. 언제 조준이고 뭐고 할 시간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포탄은 VT탄이 없어 순발신관을 썼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연대 작전주임이었던 이남호 소령도 "그들은 이미 사단전투훈련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보전포협동이 엉망이었다. 우리를 얕보고 침입하였겠지만 애당초 그들은 지형지물을 도외시하였고, 전술 따위는 없었다. 우리가 1개 연대로 적의 1개 사단을 막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성 증언(1986. 5. 24), 이남호 증언(1977. 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02) 당시 제6사단 제16야포대대장 김성 소령 증언(1986. 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03) 당시 제16야포대대 군수주임 김운한 소위 증언(1986. 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04) 당시 제16야포대대 경리계 최갑석 상사 증언(1986. 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1.
106)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 1977, p. 282.
10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0.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1.
109) 기존의 공간사에서는 이 병력을 인제-홍천 축선으로 침공을 개시한 북한군 제7사단(실제는 제12사단임)의 일부 병력(T-34전차 10대 포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춘천 점령이 지연되자 조바심이 난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이 자은리 부근까지 진출했던 제7사단의 일부를 전환하여 춘천 정면에 투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61, 164-165, 172, 309-310.
11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2.
112) 제6보병사단 사령부, 「작전명령 제32호」(1950. 6. 27).
113) 제3대대를 선발대로 지정한 배경에는 최초 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그 동안에 단 1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11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4.
11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4.
11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4.
11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72, 310.
1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120) 공산군측 문서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6월 27일 포격을 실시한 후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거두리(춘천 동남쪽 6㎞)까지 진출한 제12사단 제31연대와 합동으로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춘천을 점령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07.
12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12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123)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 p. 33.
12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0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1950. 6. 26~27). 그러나 피아간의 춘천점령 시점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측 자료인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는 18 : 00로 기록되어 있으나, 적측 자료인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에는 정오로 표기되어 있다.

12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p. 113-114.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p. 54-55.
127)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161.
128)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p. 31.
129) 당시 제6사단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 증언(1977. 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161.
131) 당시 제7연대 작전주임 이남호 소령 증언(1968. 3.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164.
13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5호」(1950. 6. 26, 11 : 30).
134) 그러나 공산군측 문서에는 "6월 27일 새벽에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가평으로 향하던 적 병력의 이동을 차단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164.
135)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p. 33.
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30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 pp. 5-6.
1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307.
1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 172.
13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6.
1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6.
14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6.
14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6.
143)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 증언(1977. 4.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14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124.
145) 제12보병사단 예하의 3개 보병연대 중 제31연대는 추곡리-대곡리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제2사단의 춘천점령에 기여한 후 홍천으로 우회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춘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58, 161, 172.
1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p. 124-125.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p. 123-124.
148) 문정식 소령과 김주형 소령은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장과 제2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6 · 25전쟁 발발 직전 참모학교와 보병학교에 각각 피교육차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였다.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후임 대대장인 김상룡 소령과 김병진 소령을 실전 지휘경험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전투 도중에 지휘관을 교체하였다.
1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pp. 668-669.
150) 강원도 인제군 남면 38도선에 인접해 있다. 조선시대에 마노역(馬奴驛)이 설치됨으로써 관터 또는 관대(冠垈)라는 지명이 쓰이게 되었으며, 소양강을 도섭하는 마노진이라는 나루가 있었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소양댐이 완공됨으로써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p. 127-128.

152) 본명은 김동규이며, 1915년 함경도에서 출생하여 1933년 김일성 부대에 참가하여 사단정치주임을 지냈다. 1950년 3월 독립 15사 제3단장으로 입북하여 북한군 제12사단 제32연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전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과 부주석까지 올랐으나 1978년 김정일 후계문제에 연루되어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2000.

153) 북한 민족보위상 최용건의 육촌동생으로 1922년 평북 용천에서 출생, 조선의용군 독립 제15사 제1단장으로 입북하여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장에 임명되었다. 6·25전쟁 참전이후 제25기포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1959년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58, 309.

1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58.

1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58.

1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5.

1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p. 136-137.

159) 제6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1호」(1950. 6. 25).

1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5.

16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16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5.

163) 이러한 전과는 2.36″로켓포로 무장한 국군 제2연대 제5중대 소속의 강승호(姜承鎬) 소위를 비롯한 20여 명의 특공대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공로로 제5중대의 김창성(金昌成) 상사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16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p. 105-106.

1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1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61, 164.

16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15;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pp. 133-134.

168) 제6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2호」(1950. 6. 27).

1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71-172.

1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72, 310.

171) 1950년 6월 28일 홍천 동북쪽 말고개에서 적의 자주포 10대를 격파한 전과에 대해 당시 이 전투에 참여했던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각각 자신들의 전과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는 관계문서와 증언을 토대로 분석·검토하고 "계획적인 협동작전은 아니지만 양 연대의 협동으로 적의 자주포를 파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1977년 7월 22일에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전사담당관 등 관련자와 제2연대 및 제19연대 참전 장병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 "2개 연대의 부대약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제2연대의 57㎜ 대전차포와 제19연대의 육박특공대의 공격에 의해 자주포 9대가 격파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72) 6월 29일 20 : 00까지 4차에 걸친 공격에도 말고개를 점령하지 못한 북한군 제12사단 제30, 32연대는 이후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23:00에 말고개를 점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72.

1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72.
17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1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74-175.
17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17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17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17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북한괴뢰군의 남침, 1950. 6. 25～7. 31』 제2권, 1968, p. 169.
180) 국방부,『한국전쟁사 제1권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서울 : 전사편찬위원회, 1977), p. 307.
18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41.
18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42. 전투기간 중 국군 제6사단의 전사자 수에 관해서 기존의 한국전쟁사에는 200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183)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서울 : 합동참모본부, 1984), p. 344.



# 제 6 장　동부지역 작전


| | |
|---|---|
| 제 1 절 | 작전 개요 |
| 제 2 절 | 북한군과 국군 상황 |
| 제 3 절 | 양양—강릉 전투 |
| 제 4 절 | 정동진·임원진 전투 |
| 제 5 절 | 대관령 철수와 강릉 역습 |
| 제 6 절 | 분석 및 평가 |

# 제 1 절 작전 개요

동부지역 작전은 국군 제8사단이 기사문리(箕士門里, 주문진 북서쪽 12㎞), 내현리(內峴里, 양양 서남쪽 6㎞), 공수전리(公須田里, 양양 서남쪽 8㎞), 귀둔리(貴屯里, 설악산 한계령 남쪽 9㎞), 하추리(下楸里, 인제 동남쪽 16㎞), 원대리(院垈里, 인제 동남쪽 8㎞) 방향에서 내륙으로 침공한 북한의 38경비 제1여단(이하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 제10연대, 그리고 동해안으로 상륙한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의 침공에 맞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강릉 지역을 사수하는 한 방어작전이었다.

동부지역은 주문진(注文津)－강릉(江陵)－옥계(玉溪)－삼척(三陟)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30㎞ 내륙지역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五臺山, △1,563), 계방산(桂芳山, △1,577), 두로봉(頭老峰, △1,422), 황병산(黃柄山, △1,407), 석병산(石屛山, △1,055), 태백산(太白山, △1,546) 등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1] 이러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부대 병력의 은밀한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의 기동에는 불리하며, 피·아간 관측 및 사계(射界)가 크게 제한된다.

지역내의 주요 작전로(作戰路)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해 있는 7번 도로와 연곡(連谷, 주문진 남쪽 5㎞)에서 진부리(珍富里)로 횡단하는 6번 도로[2]가 그 주를 이루고, 31번 도로, 56번 도로, 59번 도로, 35번 도로가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이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은 크게 제한되었다. 기상상태는 6월 하순으로 접어들면

아침·저녁으로 해안선 일대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짙은 안개가 시계를 크게 제한하며 자주 비가 내린다.[3]

개전 당시 동부지역 작전을 담당한 국군부대는 이성가(李成佳)[4] 대령이 지휘하는 제8사단이었다. 강릉에 사령부를 둔 제8사단은 2개 연대밖에 갖추지 못해 제10연대를 38도선에 배치하고, 삼척에 예비로 제21연대를 집결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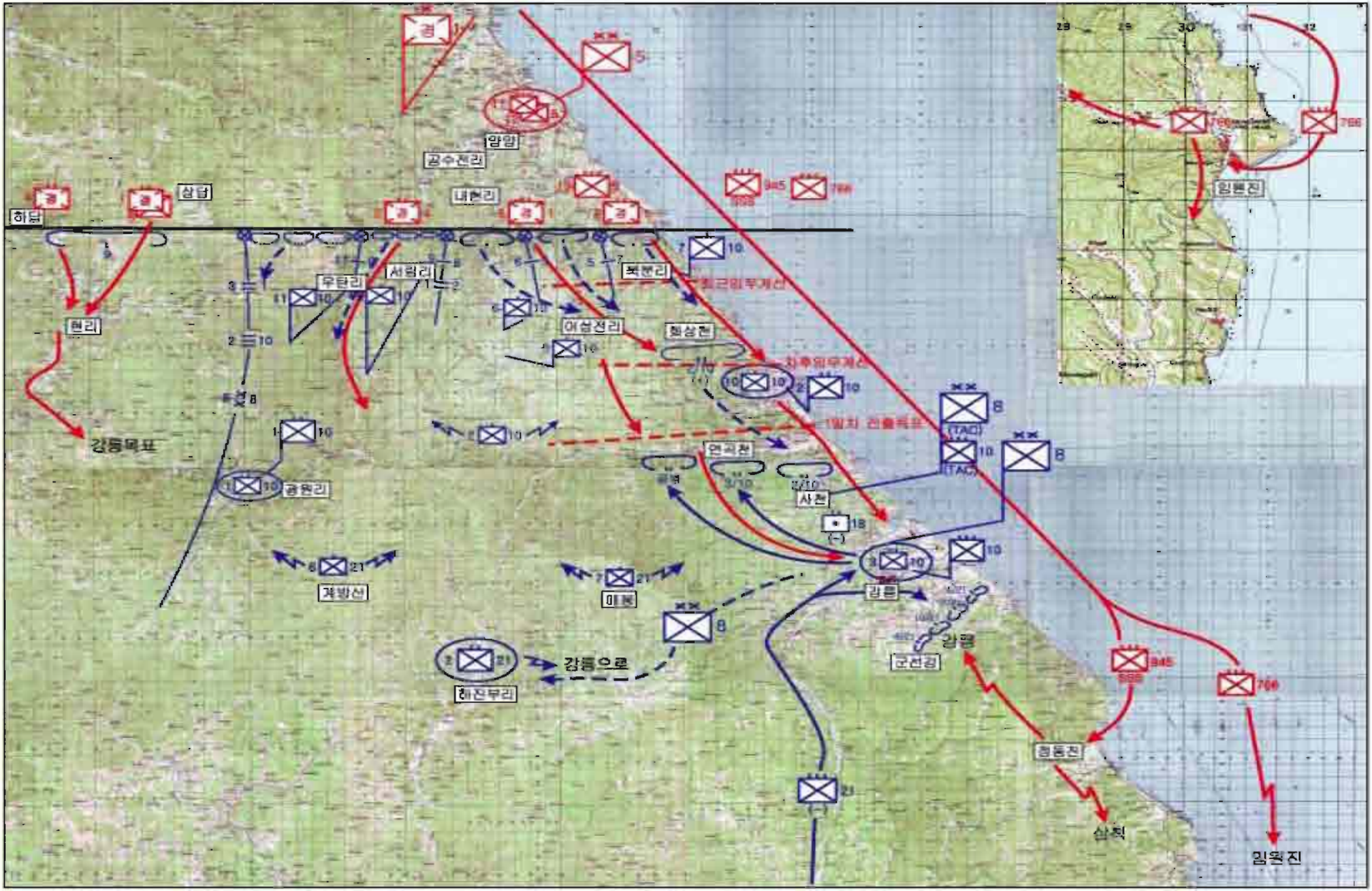
사단의 책임지역은 제6사단과 협조점인 진흑동(鎭黑洞, 양양 서남쪽 15㎞)에서 동해안의 잔교리(棧橋里, 주문진 북서쪽 11㎞)에 이르는 26㎞였다. 사단의 방어계획은 유사시 예비인 제21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2개 연대로써 38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 격멸하고 강릉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廣院里)와 연곡천(連谷川)을 이용하여 주저항진지를 구축하였으며, 그 남쪽 운두령(雲頭嶺)과 사천(沙川)선을 예비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침투한 북한군의 비정규전부대 토벌작전에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2개 대대를 차출 오대산과 계방산 일대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4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제10연대의 경우,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된 연대의 좌일선 제1대대가 연대 예비인 제3대대와 교대 중에 있었다.[5]

한편, 국군 제8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5사단 제10연대를 제1경비여단에 배속시켜 동해가도로 주력을 투입해 북쪽에서 국군 제10연대를 정면 공격하고,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를 강릉 남쪽의 정동진(正東津)과 임원진(臨院津)에 상륙시켜 국군 제21연대의 증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남진하는 육상부대와 합류하여 강릉 북쪽의 연곡천 지역에서 국군 제10연대를 협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일부 경비여단 병력을 산악지대로 침투시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6]

북한의 제1경비여단은 계획대로 6월 25일 새벽,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38도선을 돌파, 주공이 주문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은 장리(獐里)와 서림리(西林里)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였고 인제 방면에서 경보병 4개 대대가 내린천(內麟川)을 따라 남하하였다.[7]

<상황도 6-1> 동부지역 작전


암암
공수전리
내촌리
삼덥
허덥
현리
무탄리
서림리
복룬리
어성전리
회상천
연곡천
사천
강릉목표
경포리
계방선
미탄
강릉
강릉으로
해전부리
군전강
삼척
임원진
임원진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제8사단 제10연대는 화상천(和尙川)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북한군의 막강한 전투력에 밀려 사단 주저항선인 연곡천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21연대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광활한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다가 동해안에 상륙한 북한군 상륙부대를 색출 격멸하고 전방 방어부대 증원을 위해 북상하였다. 제8사단은 북한의 제1경비여단과 동해안 상륙부대로부터 남북 협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제21연대 일부 병력을 안인리(安仁里)－언별리(彦別里)를 연하는 선에 투입하여 북한군 상륙부대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한편 연곡천과 사천의 제8사단 주력은 포병과 공병이 보병전투를 치룰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면서 27일까지 강릉을 사수해 북한군의 초기전투 작전계획상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8사단은 작전지역 내의 공공기관과 군인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을 피난 및 소개시키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27일 대관령으로 철수한 제8사단은 재편성을 마치고 다음날 강릉을 목표로 반격을 감행하여 강릉 부근까지 진출하던 중에 타부대와의 전선균형 유지를 위해 하달된 육군본부의 철수 명령에 따라 반격을 중단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 대화－제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강릉 사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8사단의 방어전투와 강릉 공격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북한군은 측방위협을 염려하게 되었고 남진 속도가 지연되었다. 결국 제8사단의 동부지역 작전은 개전 초기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북한군의 동해가도를 통한 부산 공격 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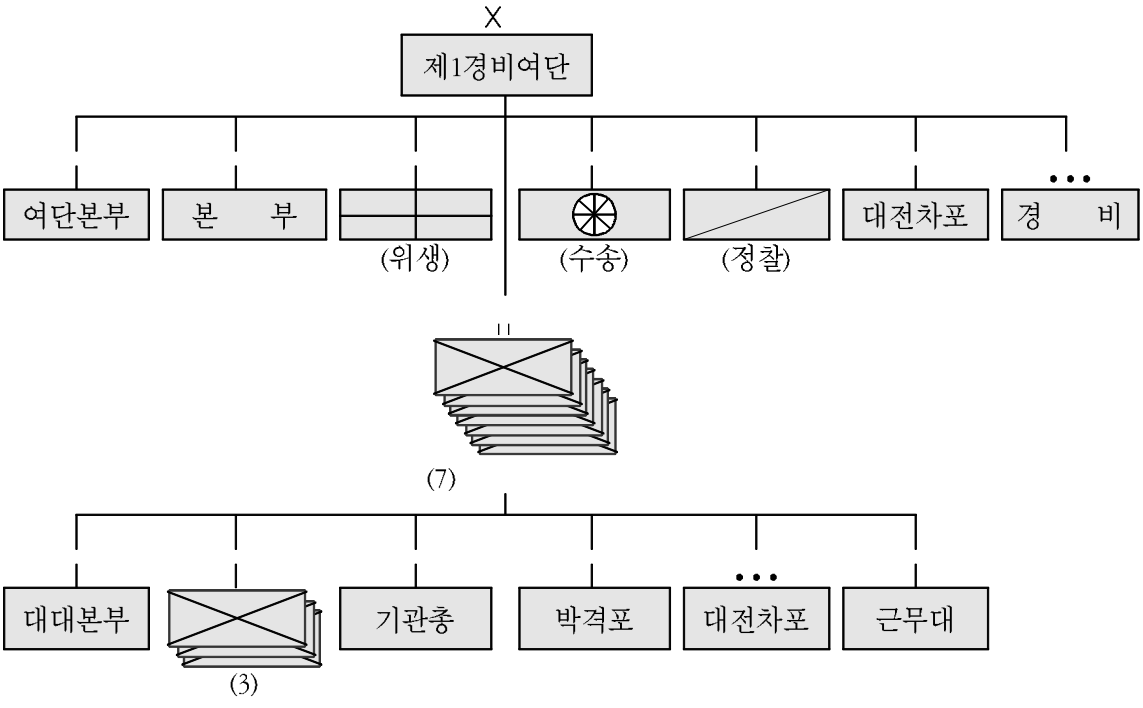
## 1. 북한군 상황

### 1) 전투편성

국군 제8사단이 담당한 동해안지역에서의 북한군 공격부대는 제1경비여단과 제5보병사단 예하 제10연대, 그리고 제766부대와 해군의 제945육전대였다.

제1경비여단은 여단본부 예하에 7개 보병대대와 본부중대, 위생중대, 수송중대, 정찰중대, 45㎜ 대전차포중대, 경비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대는

<표 6-1> 제1경비여단 편성(195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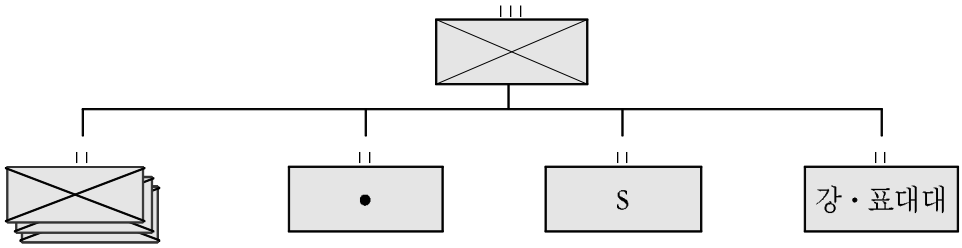
대대본부와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 대전차포소대, 근무대로 편성되어 있었다(<표 6-1> 참조).[8]

북한군 제5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따라 3개 보병연대(제10·제11·제12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통상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이 중 제10연대가 제1경비여단에 배속되었다.[9]

제766부대는 유격부대로서 3개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10]로 편성되었다. 이중 2개 대대가 상륙부대로, 나머지 부대는 내륙 침투에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표 6-2> 참조).[11]

해군의 제945육전대는 3개의 상륙 경보병대대와 1개 통신중대, 1개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다.[12]

<표 6-2> 제766부대 편성




<표 6-3> 동부지역 북한군의 전투편성

| | 구 분 | 주요 부대 | 비 고 |
|---|---|---|---|
| 제1제대 | 제1경비여단 | 제1·2·3·4·5·6·7대대 |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 |
| 제2제대 | 제5사단 | 제10연대, 포병대대, 자주포포대 | |
| 상륙부대 | 제766부대 | 제1·2·3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 | |
| | 제945육전대 | 제1·2·3대대, 통신중대, 후방근무중대 | |

이에 따라 국군 제8사단 방어정면의 북한군은 완전편성 1개 경비여단 및 1개 보병연대, 그리고 2개 연대규모의 상륙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표 6-3> 참조).

제1경비여단 및 제5사단 제10연대의 포병화력은 122㎜ 곡사포 4문, 76㎜ 견인포 24문, 76㎜ 자주포 4문, 45㎜ 대전차포 20문, 120㎜ 박격포 14문, 82㎜ 박격포 36문 등 총 102문이었다(<표 6-4> 참조).[13]

동부지역의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제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소장을 비롯하여, 제1경비여단장 오백룡(吳白龍)[14] 소장, 제5사단장 김창덕(金昌德) 소장, 제10연대장 박정덕(朴正德) 대좌, 제11연대장 김봉문 대좌, 제12연대장 왕휘(王輝) 대

<표 6-4> 동부지역 북한군 포병화력

| 부 대 | 계 | 122㎜ 견인포 | | 76㎜ 곡사포 | | 45㎜ 대전차포 | 박격포 | |
|---|---|---|---|---|---|---|---|---|
| | | 평사포 | 곡사포 | 자주포 | 견인포 | | 120㎜ | 82㎜ |
| 계 | 102 | | 4 | 4 | 24 | 20 | 14 | 36 |
| 제1경비여단포병 | 64 | | | | 12 | 8 | 8 | 36 |
| 제10연대 포병 | 38 | | 4 | 4 | 12 | 12 | 6 | |

<표 6-5> 동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현황

| 구 분 | | 계급 | 이름 | 비고 |
|---|---|---|---|---|
| 제2군단 | 군 단 장 | 소장 | 김광협 | 소련군 중위 출신 |
| 제1경비여단 | 여 단 장 | 소장 | 오백룡 | 제88여단 출신 |
| 제5사단 | 사 단 장 | 소장 | 김창덕 | 조선의용군 출신 |
| | 제10연대장 | 대좌 | 박정덕 | 조선의용군 출신 |
| | 제11연대장 | 대좌 | 김봉문 | 조선의용군 출신 |
| | 제12연대장 | 대좌 | 왕 휘 | 조선의용군 출신 |
| | 포병연대장 | 대좌 | 차균섭 | |
| 제766부대 | 부 대 장 | 총좌 | 오진우 | 제88여단 출신 |
| 제945육전대 | 부 대 장 | ? | ? | |

좌, 포병연대장 차균섭(車均燮) 대좌, 제766부대장 오진우(吳振宇)[15] 총좌 등이었다.[16] 이를 정리하면 <표 6-5>와 같다.

## 2) 공격준비태세

### (1) 북한군 제1경비여단

동부지역의 북한군은 1950년 6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훈련을 가장하여 전개함으로써 남침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17] 제1경비여단은 간성에 사령부를 두고 6월 23일까지 제1, 제5보병대대가 귀둔리에, 제2, 제3보병대대가 각각 공수전리와 내현리에, 제4, 제6보병대대가 각각 하추리와 원대리에, 그리고 제7보병대대가 기사문리에 전개 완료하였다.[18]

제1경비여단은 양양-강릉 방면을 공격하고, 공격 개시 당일에 강릉 남쪽 10㎞ 지점에 상륙하는 상륙부대와 합류, 연곡천 부근에서 국군 제8사단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단의 최근임무는 원일전리(元日田里, 양양 남쪽 11㎞), 동산리(銅山里, 양양 동남쪽 15㎞)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후 양양 동남쪽의 482고지(원일전리 남쪽 5㎞, 일명 '고적치'), 향동(주문진 서북쪽 9㎞), 지경리(地境里, 주문진 북서쪽 4㎞)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으며, 1일차 목표는 퇴곡리(退谷里, 주문진 서쪽 9㎞), 동덕리(冬德里, 주문진 동남쪽 5㎞)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1경비여단장은 예하 7개 대대를 제1제대로, 제5사단 예하 제10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한 후, 4개 방향에서 최초 38도선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제1, 제2 및 제3보병대대는 귀둔리, 공수전리, 내현리 선에서부터 남쪽으로 연해 있는 도로 및 소로를 따라 진격하고, 제6보병대대는 원대리 선으로부터 갑둔리(인제 남쪽 16㎞)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4 및 제5보병대대는 하추리, 귀둔리 선에서부터 진동리(鎭東里, 강릉 서북쪽 38㎞) 지역의 현리(縣里), 하남리(下南里)방면의 내린천 계곡을 따라 진출, 제6보병대대와 합류하도록 하였고, 제7보병대대는 기사문리에서 주문진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였다.[19]

<표 6-6> 제1경비여단(동해안 방면 타격)

| | |
|---|---|
| 작전 개념 | ○ 여단은 공격 당일 퇴곡리, 동덕리 지역 점령, 선두부대는 강릉북쪽에서 육전대와 합류<br>○ 여단사령부 우측의 4개 대대는 귀둔리, 하추리, 원대리에서 각각 38선 돌파 후 내린천을 따라 진격 |
| 부대 운용 | ○ 여단은 제5사단 예하 제10연대, 포병대대 및 자주포포대를 배속받아 여단의 7개 보병대대를 제1제대로, 제10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한 후 4개 구역으로 구분, 최초 38도선 돌파에 투입<br>• 제1제대(제1경비여단)<br>제1·5보병대대 : 귀둔리-하남리, 제4보병대대 : 하추리-현리-하남리, 제6보병대대 : 원대리-갑둔리, 제2보병대대 : 공수전리-서림리, 제3보병대대 : 내현리-장리, 제7보병대대 : 기사문리-주문진<br>• 제2제대(제5사단 10연대) : 동해가도를 따라 진격 전과확대 |
| | ○ 최근임무 : 원일전리(양양 남쪽 11㎞), 동산리(양양 동남쪽 15㎞) 점령<br>○ 차후임무 : 양양 동남쪽 482고지(원일전리 남쪽 5㎞), 향동(주문진 서북쪽 9㎞), 지경리(주문진 북서쪽 4㎞) 진출 |
| | ○ 일일 진출 목표<br>• 1일차 목표 : 퇴곡리(주문진 서쪽 9㎞), 동덕리(주문진 동남쪽 5㎞) 점령, 강릉북쪽에서 육전대와 합류 |

여단의 우측 전투지경선은 인제, 부소현(인제 서남쪽 8㎞), 홍천이며, 모든 지점은 우인접사단인 제12사단이 통제하도록 부여되었다.[20]

### (2) 북한군 제5사단

북한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경유 선발대가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한 후 23일까지 양양 일대에 배치 완료했다.[21] 제5사단은 제2군단의 제2제대로서 제12사단을 따라 진격하여 홍천 지역에서부터 횡성, 원주 방면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러나 제5사단 예하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는 동해 연안지역의 공격을 담당하게 된 제1경비여단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해 투입되었다.[22]

제1경비여단에 배속된 제5사단 제10연대는 경비여단의 제2제대로서 동해 연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임무였다.[23]

### (3) 제945육전대 및 제766부대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24] 제945육전대는 원산에서 기차로 이동해 23일 양양에 도착했으며,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 23일 양양에 도착했다.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전투행동 개시와 동시에 강릉 남쪽지역에 상륙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24일 양양을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945육전대는 강릉 남쪽 10㎞ 지점에 상륙하여 국군의 증원 병력이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류하여 강릉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5]

제766부대는 양양으로의 이동에 앞서 3월 말경 함경북도 유선(遊仙)에서 부대훈련을 실시한 후 5월 13일 원산 호도반도로 이동하여 상륙전 훈련을 1개월 간 실시하였다.[26]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제766부대는 2개 대대가 삼척 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 파괴,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표 6-7>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상륙부대)

| | |
|---|---|
| 작전 개념 | ○ 강릉 남쪽지역에 상륙, 국군 지원병력 차단 및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과 합동으로 강릉 북쪽에서 국군 제8사단을 포위, 섬멸 |
| 부대 운용 | ○ 제945육전대<br>• 2개 대대 정동진 지역으로 상륙<br>• 일부는 북상하여 강릉 점령 후 강릉 북쪽에서 경비 제1여단 선두부대와 합류하고, 일부는 국군 예비전력이 전선으로 투입되는 것을 차단 |
| | ○ 제766부대<br>• 총 6개 대대(제1·2·3대대, 강·표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중 2개 대대 삼척지역에 투입<br>• 후방교란, 병참선 차단 |

### 3) 전투력 수준

북한군의 전투력은 제1경비여단이 약 8,000명, 제5사단 예하병력이 약 3,000명,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가 약 3,000명 등 1만 4,000명 정도였으며, 화력으로는 122㎜ 곡사포 4문, 76㎜ 견인포 24문, 76㎜ 자주포 4문, 45㎜ 대전차포 20문, 120㎜ 박격포 14문, 82㎜ 박격포 36문, 60㎜ 대전차로켓포 200여 문 등을 보유하였다.

이밖에도 우마차를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추진하고 전투 간에 노무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무공작대가 후속하며 활동하는가 하면 편의대를 운영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 4) 인접부대 상황

제1경비여단의 우인접 부대는 제12보병사단이었다. 제2군단의 주공임무를 부여받은 제12보병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여주 간 간선도로를 차단하고, 이천－수원 방면으로 우회 기동하는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12보병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에 대목리(인제 서쪽 14㎞), 선수리(점봉산 동남쪽 5㎞) 지역에 1개 보병연대가, 그리고 사단 예하의 잔여 부대가 인제와 고사리(인제 서남쪽 6㎞)에 배치되었다.

## 2. 국군 상황

### 1) 제8사단 부대 현황

동해안 지역을 담당한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제6사단 예하 제10연대와 제5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었다.

제8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38선 책임경계지역은 제6사단 우측 책임지역인 진흑동으로부터 동해안의 잔교리에 이르는 26㎞에 이르는 정면이었다.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였으며, 제10연대가 강릉에 연대본부를 두고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가 삼척에 연대본부를 두고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은 부대 창설 이후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할 겨를도 없이 게릴라 소탕작전에 임했는데, 38도선 경계임무를 담당한 제10연대가 경강도로 북쪽의 오대산 일원을 담당하고, 제21연대가 그 남쪽의 광활한 지역에서 침투한 게릴라 소탕 및 침투로를 봉쇄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임무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있기 전까지 계속되었다.[27]

고근홍(高根弘) 중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전쟁 발발 이틀 전 제3대대와 제1대대간 38도선 경계임무를 임무를 교대하도록 지시받았다. 당시 제1대대의 책임구역은 제6사단 협조점인 진흑동에서 정족산(鼎足山, △869)에 이르는 12㎞ 정면이었다. 연대의 우측 부대인 제2대대는 동해안으로부터 연화동(連花洞)을 연하는 14㎞의 정면이었다. 제3대대와 38도선 경계임무를 교대하는 제1대대는 연대 예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전쟁 발발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교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28]

김용배(金容培) 중령이 지휘하는 제21연대는 8개월간 오대산 및 태백산지구 일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다가 1950년 5월에 작전을 일단락 지었다. 그런데 북한의 기관총 게릴라부대가 다시 남파되자, 제21연대는 1950년 6월 13일 제2대대를 진부리로 출동시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제2대대에는 제3대대의 1개 중대가 배속되었다. 이에 제21연대는 제1대대만이 건제를 유지한 채 북평(北坪)에 위치하였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병력이 분산된 채 일부 병력만이 삼척에 위치하였다.[29]

한편, 사단포병인 제18포병대대가 1949년 10월 28일에 육본 작명 제224호에 의해 제8사단에 배속되었으며, 사단 공병대대가 국본 일반명령 제17호 및 사단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 1949년 8월 8일에 창설되었다.[30]

국군 제8사단의 전투 편성 및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제8사단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을 비롯하여 참모장 최갑중(崔甲中) 중령, 인사참모 이춘섭(李春燮) 소령, 정보참모 육근수(陸根洙) 소령, 작전참모 정진(鄭震) 소령, 군수참모 신대선(辛大善) 소령 등으로 사단 참모진을 편성하고 있었다. 제8사단의 참모 및 지휘관 편성을 보면 <표 6-8>과 같다.

제8사단 제10연대는 연대장 고근홍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박치옥(朴致玉) 소령, 제2대대장 조원영(趙原英) 소령, 제3대대장 하병래(河炳來) 소령이 있었고, 제21연대는 연대장 김용배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박서권(朴瑞權) 소령, 제2대대장 조규영(曺圭英) 소령, 제3대대장 이창률(李昌律) 소령 등이 있었다. 사단

<표 6-8> 국군 제8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

| 직 책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직 책 | | 계급 | 성명 | 임관구분 |
|---|---|---|---|---|---|---|---|---|
| 사 단 장 | 대령 | 이성가<br>(李成佳) | 군 영 | 제10연대 | 연 대 장 | 중령 | 고근홍<br>(高根弘) | 육사#2기 |
| 참 모 장 | 중령 | 최갑중<br>(崔甲中) | 육사#1기 | | 제1대대장 | 소령 | 박치옥<br>(朴致玉) | 육사#5기 |
| 인사참모 | 소령 | 이춘섭<br>(李春燮) | 육사#2기 | | 제2대대장 | 소령 | 조원영<br>(趙原英) | 육사#2기 |
| 정보참모 | 소령 | 육근수<br>(陸根洙) | 육사#3기 | | 제3대대장 | 소령 | 하병래<br>(河炳來) | 육사#3기 |
| 작전참모 | 소령 | 정 진<br>(鄭 震) | 육사#3기 | 제21연대 | 연 대 장 | 중령 | 김용배<br>(金容培) | 군 영 |
| 군수참모 | 소령 | 신대선<br>(辛大善) | 육사#3기 | | 제1대대장 | 소령 | 박서권<br>(朴瑞權) | 육사7기특 |
| | | | | | 제2대대장 | 소령 | 조규영<br>(曺圭英) | 육사#3기 |
| | | | | | 제3대대장 | 소령 | 이창률<br>(李昌律) | 육사#3기 |
| | | | | 제18포병 | 포병대대장 | 소령 | 장경석<br>(張庚石) | 육사#5기 |
| | | | | 공 병 대 | 공병대대장 | 대위 | 김 묵<br>(金 默) | 육사7기특 |

포병인 제18포병대대장은 장경석(張庚石) 소령이었으며, 공병대대장은 김묵(金默) 대위였다.

### 2) 전투 준비태세

제8사단은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방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31] 방어계획의 기본 개념은 유사시 적을 38선상의 진지에서 저지하다가 진지가 돌파되었을 때는 작전의 중점을 동해안에 두고 인구리(仁邱里)－어성전리(魚城田里)에서 적에게 타격을 준 다음 연곡천 변으로 적을 유도하여 격멸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강릉을 확보, 공세이전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 오대산과 연곡천을 이용하여 주저항진지를 구축하였으며, 그 남쪽 운두령과 사천선을 예비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었다. 제8사단은 1950년 3월부터 이 계획에 의해 진지공사에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각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사단참모가 현지를 답사한 다음 참모장 최갑중 중령의 주재하에 도상연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제8사단 방어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연대는 우일선으로서 동해안에서 정족산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3단계 작전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1단계 작전은 경계진지선에서 화력의 집중과 역습으로 적을 저지, 격멸하고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제2단계는 경계진지선이 돌파될 경우, 주문진 외곽의 저지진지로 적을 유인하여 주문진수비대 및 예비대 증원하에 적의 포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3단계는 적의 공격에 밀려 철수가 부득이할 경우, 연곡천 선의 주진지로 축차 진입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반격을 감행, 공세로 전환하여 일거에 38도선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제21연대는 좌일선으로서 정족산－진흑동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면서 적 공격시 제1단계로 화력의 집중과 역습으로 적을 격멸하고 정족산－진흑동을 연한 일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제2단계로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적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면서 주진지인 광원리로 철수하여 반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제3단계로 주진지가 돌파되면 운두령에서 부대를 재편성한 후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32]

그리고 제18포병대대는 우일선 부대에 배속되어 적의 접근 저지, 아군의 반격 지원, 대포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병대대는 2개 중대를 제10연대에, 1개 중대를 제21연대에 각각 배속하여 장애물과 지뢰를 부설하고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릉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예비대는 진부리로 이동시켜 좌일선 예비대로 하고,[33] 배속된 증원부대를 사단예비대로 하여 그 주력을 강릉에, 일부를 묵호에 위치시켜 집결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단 책임구역 및 후방지역의 경비는 경찰, 청년방위대, 학도호국단 등을 동원하여 각 마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가 주요산업시설과 발전소, 수원지(水源池) 등에 대해서도 경계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34]

그러나 1개 연대를 결한 2개 연대로 창설된 제8사단은 26㎞에 이르는 38도선 경비를 담당하면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적의 남침에 대비한 병력의 집중이나 유기적인 제병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개전 당시 제8사단의 부대배치는 다음과 같다.

제10연대의 경우, 제1대대는 6월 24일, 제4중대를 강릉으로 이동시킨데 이어 제2중대를 주문진으로 이동, 제2대대에 배속 중인 제10중대와 교대하게 하였다. 제2대대는 대대본부를 주문진에 두고 동해안 46고지－대치리(大峙里)－명지리(明池里)－장리(獐里)－연화동－정족산에 이르는 14㎞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예비로서 연대본부가 있던 강릉비행장에 위치하였으나 제10중대가 제2대대에, 제9중대와 제11중대가 제1대대에 각각 배속되어 제12중대만이 잔류하였는데, 6월 26일부로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됨에 따라 25일에는 대대본부와 제12중대가 이동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21연대는 삼척 봉황동(鳳凰洞)에 연대본부를 두고 제1대대만이 건제를 유지한 채 북평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제3대대의 1개 중대를 배속 받아 진부리로 출동하고, 제5중대와 제8중대만이 삼척에 위치

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제9중대가 장성(長省)에, 제11중대가 임계리(臨溪里)에 위치하고, 제10중대가 제2대대에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2중대만이 삼척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단포병인 제18포병대대는 장병 대부분이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교육수준과 반공의식이 높은 대대로서 105㎜ M-3포 15문을 장비하고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GAT 사법(射法) 교육을 위해 포대장 및 선임하사관급이 대부분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고 대대장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었다. 이에 따라 부대지휘는 대대부관과 전포대장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공병대대는 창설 이래로 지역 내의 작전도로 및 교량설치 보수와 경비를 담당하는 한편 게릴라 침투 예상로와 38선 경계진지 북쪽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주요 지역에 교통호와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0년 3월경 자재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통호와 진지 구축 작업은 중단되었다.[35]

한편, 38선 경계지역에서는 남침 1개월 전부터 북한군 병사들이 1개월 뒤에 보자고 말하였는가 하면, 전쟁 발발 15일전부터 야간에 남하하는 차량들이 목격되고 일주일 전에는 귀순한 북한병사가 남침준비를 알리기도 했다.[36] 이에 사단장은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허용한 육군본부의 특별경계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전 부대에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37]

### 3) 전투력 수준

제8사단의 병력은 6,866명이었으며, 장비는 105㎜ 야포 15문, 57㎜ 대전차포 12문, 81㎜ 박격포 24문, 60㎜ 박격포 38문, 2.36″로켓포 128문, 각종 차량 156대 등이었다.

### 4) 인접부대 상황

국군 제8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제6사단은 춘천에 제7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제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사단예비로서 원주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다.

<표 6-9> 제8사단 주요 장비

| 구 분 | 항 목 | 보유량 | 재 원 |
|---|---|---|---|
| 야 포 | 105㎜ | 15 | 6,525m |
| 대전차포/무반동총 | 57㎜ | 12 | 3,930m |
| | 2.36″로켓포 | 128 | 914m |
| 박 격 포 | 60㎜ | 38 | 3,500m |
| | 81㎜ | 24 | 4,737m |
| 차 량 | 1/4 찌프 | 47 | |
| | 3/4차 | 39 | |
| | 2½트럭 | 70 | |

적목리로부터 진흑동에 이르는 84㎞의 중동부 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한 제6사단은 소양강을 이용하여 제7연대가 소양강 북안에, 제3연대가 소양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전 당시 제8사단 제10연대와 인접하고 있던 제2연대는 6월 20일에 사단에 예속되어 가까스로 제8연대와 진지교대를 마친 상태였으며, 예비인 제19연대도 5월 1일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어 및 전투준비태세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듯 방어 및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제6사단은 인접한 제8사단과 마찬가지로 적의 전면적 또는 국지적 공격에 대비해 경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제6사단이 수립하고 있던 방어개념은 춘천에 방어중점을 두고 북한군이 공격하면 이를 진지전방에서 격파하고 38도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 제 3 절 양양—강릉 전투

## 1. 전투 개요

양양—강릉 전투는 북한 제1경비여단의 공격에 맞서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주축이 되어 6월 27일 대관령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강릉을 사수하기 위해 치룬 방어전이다. 개전 당시 사단의 38도선 책임 경계지역은 진흑동에서 동해안의 잔교리에 이르는 26㎞ 정면으로 제10연대가 단독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동해안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 해안선 서쪽 20~30㎞ 지점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뻗어 있다. 이에 따라 동서가 뚜렷이 구별되고 내륙과 강릉지역 사이의 교통이 크게 제한되었다.

지역 내의 교통망을 보면 7번 도로(동해가도)가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강릉—서울을 잇는 6번 도로(경강도로)가 동서로 태백산 줄기를 횡단하고 있다. 지역 내의 모든 하천은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동해안과 남한강으로 흐르는데, 주요 하천으로는 동쪽으로 해송천, 화상천, 연곡천, 사천, 남대천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 계방천이 있다. 연곡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도섭이 가능하므로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로서의 이용가치는 크지 않았다.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 제10연대는 사전에 마련된 방어계획에 의한 전술적인 전투배치도 해보지 못한 채 대대와 중대간의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특히, 적의 주공이 지향된 제2대대 지역에서는 제10연대장이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대대 주저항선인 화상천에서 적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적의 막강한 전투력에 밀려 사단 주저항선인 연곡천까지 철수하게 되었다.[38]

연곡천 선으로 물러선 제2대대는 제2, 제10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동해가도 동쪽의 고지군을 점령하고, 도로 서쪽의 능선 일대를 확보한 사단 공병대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포병의 지원 아래 결전태세를 갖추었다. 이후 제1중대와 제4중대,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가 이곳에 합류함으로써 연곡천 방어선은 강화되었다.

26일 몇 차례의 북한군 도하공격이 있었지만, 자연장애물을 이용한 제10연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적의 도섭공격은 실패하였다. 오히려 제10연대 제2대대가 이날 밤 연곡천을 건너 주저항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천마봉(天馬峰, △121)을 공격 탈취하여 주문진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27일 05 : 00를 기해 주문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27일 04 : 00경 제8사단의 주문진 공격개시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북한군이 먼저 공격준비사격을 가하였다. 적의 맹렬한 포격은 제2대대가 추진배치되어 있는 천마봉에 집중되었고, 집중 포격을 받은 제2대대는 천마봉을 포기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이때 점차로 증가되는 적의 압박으로 측방이 위협받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병대대 1개 중대를 방어선에서 빼내 측방으로 이동시킨 것이 철수 명령 하달로 오인되어 주저항선이 조기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거의 분산된 채 14 : 00를 기해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대관령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2.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북한 제1경비여단의 기습공격

국군 제8사단의 38도선 경계지역에는 북한군 제1경비여단이 공격해 왔다. 제1경비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고 주문진－강릉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였다. 제1제대는 경비여단 소속 7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었으며, 제2제대는 제5사단 제10연대로 편성되었다. 제1제대인 경비여단 7개 대대는 제1, 제2 및 제3보

병대대가 귀둔리, 공수전리, 내현리 선에서부터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제6대대가 원대리에서, 제4 및 제5대대가 하추리, 귀둔리 선에서, 제7보병대대가 기사문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양양 부근에 집결해 있었다.[39]

한편, 제1경비여단의 정면에서 방어중인 부대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의 제1·2대대였다. 고근홍 중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강릉비행장에 연대본부를 두고 연대 좌일선으로서 제1대대(대대장 박치옥 소령)가 정족산(△869)-서림리-우탄리(現 쇠나드리)-진흑동에 이르는 12㎞의 정면을 담당하였고, 연대 우일선으로서 제2대대(대대장 조원영 소령)가 정족산 동사면-연화동-장리-명지리-대치리-북분리 북쪽 46고지에 이르는 14㎞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대대장 하병래 소령)가 연대 예비로서 연대본부가 있는 강릉비행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대 좌일선으로서 38선 경계임무를 담당한 제1대대는 광원리에 대대본부를 두고 제3대대로부터 배속된 제9중대와 제11중대를 각각 서림리와 우탄리 지역의 38선 경계 임무에, 그리고 예하 3개 중대를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고 있었다. 당시 제1대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3대대와 작전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24일 제4중대(중대장 강근휘 중위)가 강릉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중대(중대장 안동훈 중위)가 두로봉-복룡산-철갑령을 수색하면서 주문진으로 이동, 25일 제2대대에 배속된 제10중대와 교대할 예정이었다.

연대 우일선으로서 38선 경계임무를 담당한 제2대대는 주문진에 대대본부를 두고 제7중대(중대장 강응설 중위)가 우일선으로 북분리 지역에, 제5중대(중대장 김동증 대위)가 중앙부분인 명지리 지역에, 제6중대(중대장 김순기 대위)가 좌일선으로 장리 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3대대의 좌일선 담당으로 제10중대가 배속이 해제됨에 따라 24일에는 제7중대가 우일선을 인수하고 제10중대는 주문진의 대대본부에 집결하였다.

한편 제10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는 강릉비행장에 위치해 있었으나 제10중대가

제2대대에, 제9, 제11중대가 제1대대에 배속 중이어서 실제로 대대본부 병력과 제12중대(중대장 최근화 중위)만이 잔류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3대대는 26일부로 제1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어 이동 준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제1경비여단은 계획된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후 38도선을 돌파, 주공이 주문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은 서림리와 장리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 2) 잔교리－연화동 지역의 경계진지 전투

제2대대가 담당한 잔교리－연화동 지역은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경계진지 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188고지(잔교리 서남쪽 2㎞)에 고요를 깨고 낙하한 일발의 포격을 신호로 동해안에서 연화동에 이르는 제10연대 제2대대의 38도선 경계진지 일대에는 포탄이 비 오듯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적은 포 사정을 연신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40]

연대 우일선으로서 동해안의 잔교리에서 정족산 동사면(東斜面)에 이르는 14㎞의 정면을 담당한 제2대대의 제7, 제5, 제6중대는 적의 맹렬한 포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의 급습에 의해 혼전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었다. 제2대대본부에는 04 : 35에 인구리(仁邱里)의 제7중대장 강응설(姜應卨)중위로부터 '적이 공격을 개시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대는 물론 중대에서조차 이러한 적의 행동이 지금까지 자주 있어 왔던 게릴라 침투를 위한 공격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제5, 제6중대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황보고가 잇따르자 제2대대장은 적의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41]

당시 제2대대장 조원영(趙原英) 소령은 연대계획에 따라 광원리로 이동하는 제10중대를 출발시키기 위해 훈시 중에 있다가 상황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제8중대 기관총소대를 제10중대에 배속하여 화상천 남안의 인구리로 출동시켰다. 제10중대의 역할은 경계진지에서 분산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주문진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제10중대는 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GMC 2대를 이용해 인구리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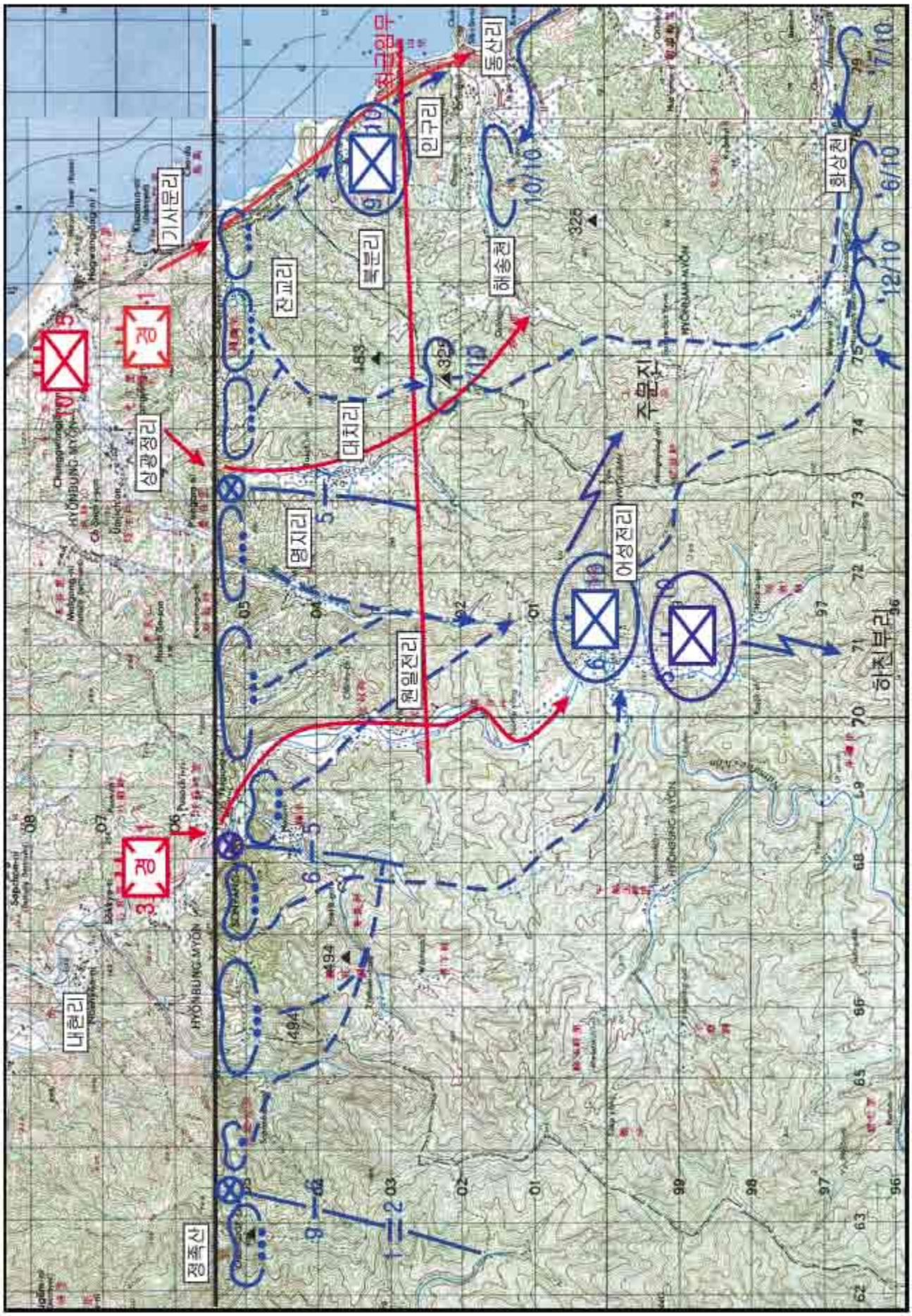

기사문리에서 바라 본 잔교리 국군 방어진지

제10중대가 인구리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것은 06 : 00경이었다. 이때 대대장이 전황을 파악하고자 SCR-300으로 각 중대를 호출하였다. 그러나 북분리의 제7중대로부터 분산 후퇴중임이 보고되었을 뿐, 제5, 제6중대와는 통신소통이 두절되어 있었다.

명지리-장리-연화동의 제5, 제6중대도 제7중대 정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지선이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제7중대에게 인구리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제10중대에게 286고지(북분리 남쪽 2.5㎞)를 확보하여 제5, 제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며 반격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중대에 배속된 제8중대 기관총소대가 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제10중대가 죽리(竹里)에서 294고지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러나 제10중대가 183고지(인구리 서북쪽 2㎞)에 이르렀을 무렵 적의 직사포화가 집중되어 더 이상 진출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제2대대장에게 연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다. "적의 일부가 해안선에 상륙 중이다. 사단은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강릉을

<상황도 6-2> 제2대대 경계진지 전투



고수할 것이다. 제2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주고 주문진을 고수하라"는 것이었다.[42]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은 전황이 의외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1개 중대 규모로는 공격이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현 진출선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주력을 수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중대는 전개선을 동해안의 39고지로 넓혀 적의 주접근로인 동해가도를 차단하면서 분산 후퇴하는 아군 병력을 엄호하였다.

08 : 00경 통신이 두절되어 전황을 알 수 없었던 좌일선의 제6중대장 김순기(金淳基) 대위로부터 중대가 분산 후퇴중이며, 남대천 계곡을 돌파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동남진하고 있다는 전황 보고가 있었다.[43]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제6중대장에게 제5중대와 더불어 주문진 북쪽의 저지진지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해송천 상류의 325고지를 확보하여 동남쪽으로 우회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재편 중에 있었다.

08 : 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적은 직사포 2문을 북분리 고지에 추진시켜 인구리와 제10중대의 진지선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한편, 1개 소대규모의 기마정찰대를 해안선으로 남하시켰다. 제10중대는 집중사격을 가해 이를 격퇴하고, 81㎜ 박격포 2문으로 북분리 고지에 대한 사격을 집중해 적 직사포 1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44]

그러나 이때 대치리-명지리 정면을 돌파한 적의 일부가 정자동(亭子洞)으로 우회 침투하여 325고지의 제7중대를 공격하였다. 제2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 병력을 대대 주저항선인 화상천으로 후퇴시켰다. 제10중대는 325고지에서 적을 저지하는 제7중대의 엄호하에 동해가도를 따라 축차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0중대는 인구리 주민의 피난을 돕고 응호(鷹湖) 동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임호리(臨湖里) 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7중대는 검불리(劍拂里)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한 제8중대의 기관총소대와 81㎜ 박격포의 지원하에 적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축차로 철수하여 향호리 북쪽의 170고지-185고지에 진지를 확보하였다.[45]

이 무렵 연대계획에 따라 제10중대와 교대하여 대대에 배속하기로 한 제2중대가 주문진을 거쳐 하월천리에 진출하였으며, 어성전리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6중대가 대대 주저항선에 진입하였다. 또한 최면호(崔冕湖) 중위가 지휘하는 57㎜ 대전차포중대 제1소대가 남애리에 추진배치됨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 진지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46]

한편, 제2대대의 중앙 제일선을 담당한 명지리의 제5중대는 정면을 돌파한 적이 남쪽으로 계속 공격해 오자 퇴로가 차단될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각 소대가 어성전리로 분산 철수하였다.[47] 어성전리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5중대는 초전치-고적치 선을 확보하고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적 일부가 어성전리 북쪽 352고지를 탈취하고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면서 그 주력이 만월산을 경유 동남진하였다. 당시 제5중대는 무전기의 고장으로 대대장과 통신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주문진으로의 퇴로가 이미 차단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제5중대장의 독단으로 철갑령을 넘어 후퇴하였다.[48]

### 3) 정족산-진흑동 지역의 경계진지 전투

정족산에서 진흑동까지 12㎞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한 제1대대 지역에서는 북한의 제1경비여단 제2보병대대가 서림리의 제9중대 정면을 돌파해 산간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급진하였다.[49]

당시 제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제2소대를 우, 제1소대를 중앙, 그리고 제3소대를 좌로 하여 정족산-서림리 북쪽에 이르는 38도선 경계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북한의 제1경비여단 제2대대의 2개 중대가 제9중대 제3소대 정면으로 집중 공격하는 가운데 1개 중대가 중대본부를 급습하였다.

38도선 경계위주의 거점을 확보한 제3소대와 중대본부에서는 적과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였으나 곧이어 포위 공격하는 적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상서림 부근에서 제3소대와 화기소대의 병력을 일단 수습한 제9중대는 554고지 정상에 거점을 확보하고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계곡으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계속 밀려드는 적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대장 박석권 중위가 중상을 입고, 적이 직사포사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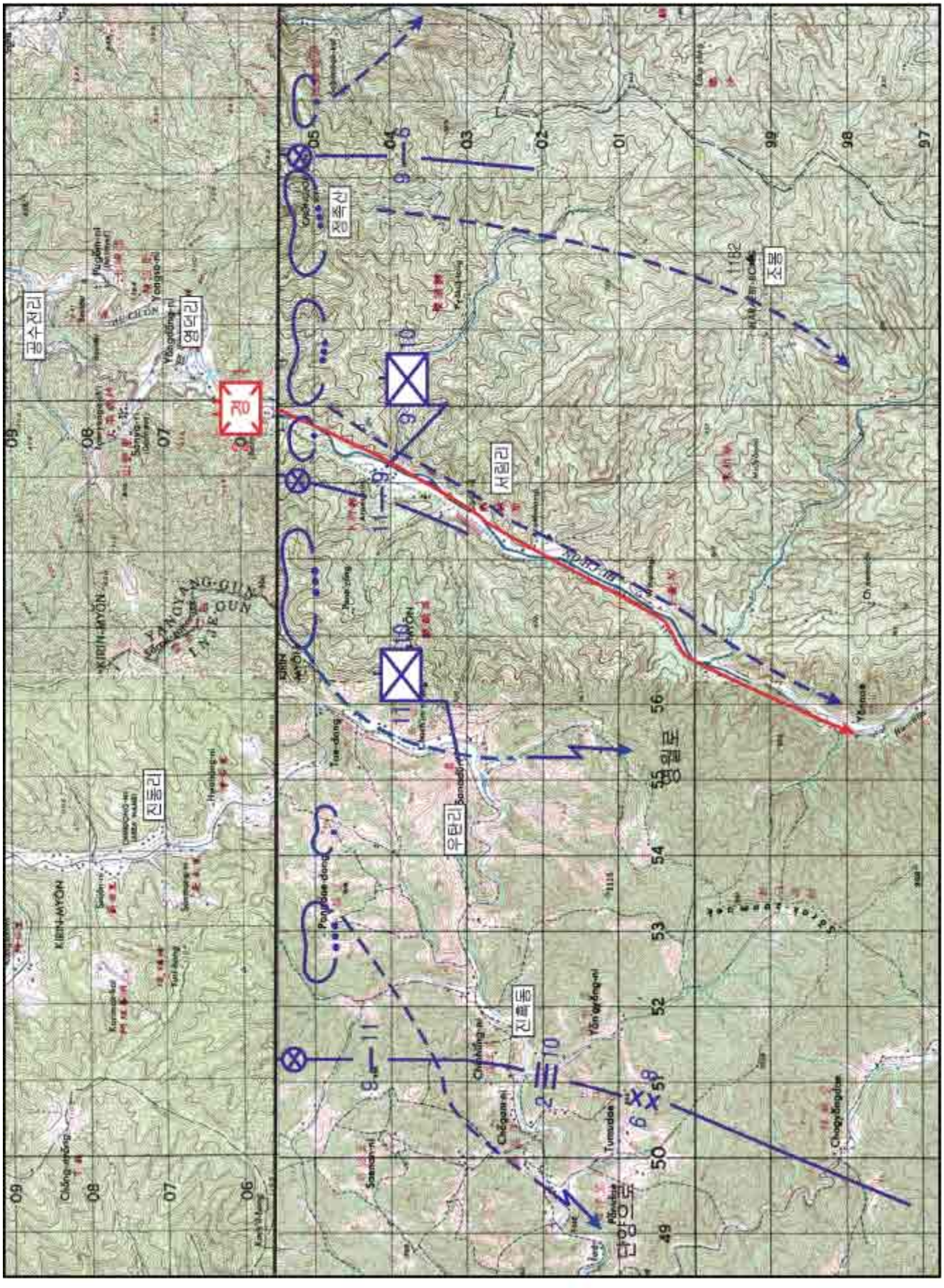
북한 제1경비여단 제2대대가 남하한 서림리 지역

집중하면서 포위 공격하자 중대는 분산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50]

이때 우제일선인 제2소대는 우인접인 제2대대 제6중대의 경계진지가 무너질 때 이미 분산되어 조봉(△1,182)쪽으로 철수 중에 있었고 중앙의 제1소대는 지형관계로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후 제1소대는 자신들만이 고립된 것을 알게 되자 16:00에 진부리를 목표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51]

한편, 제11중대는 본부를 우탄리에 두고 769고지-918고지를 연한 일대의 38도선 경계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정면으로는 포탄 한발도 낙하하지 않고 공격도 없어 개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계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52] 이는 대대본부와의 통신두절 때문이었다. 당시 제9중대와 제11중대는 대대본부와 유선이 가설되어 있었으나 평상시에도 게릴라들에 의해 자주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제9중대가 보유한 SCR-694 무전기에 의존하였다. 즉 대대와는 제9중대가 통신을 유지하고 긴급시에는 제9중대에서 제11중대로 연락병을 보

<상황도 6-3> 제1대대 경계진지 전투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의 급습을 받은 제9중대가 연락을 미처 취하지 못하고 철수하였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은 제11중대는 전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53]

### 4) 주요 조치

적의 공격 사실이 제10연대 주번사령 최면호(崔冕湖) 중위로부터 사단에 보고되자, 사단 정보참모 육근수(陸根洙) 소령은 참모장 최갑중(崔甲中) 중령의 지시로 제18포병대대 주번사령 김준(金準) 소위에게 낙하포탄의 탄종 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사단참모들을 비상소집하였다.

당시 작전참모 정진(鄭震) 소령을 비롯한 주요참모들은 6월 20일부터 계속된 육군본부의 교육검열을 마치고 전날 밤 육군본부 작전국차장 박임항(朴林恒) 중령을 반장으로 한 검열반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강릉여관에 투숙 중에 있었다. 급하게 전황을 보고받고 05 : 30에 사령부에 출두한 이들은 항상 있어온 적의 국지적인 도발일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54]

그러나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으로부터 '연대 규모의 적이 공격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회의 분위기는 돌연 긴장감으로 돌변하였다. 적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06 : 00에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는 참모장을 비롯하여 인사참모 이춘섭(李春燮) 소령, 정보참모 육근수 소령, 작전참모 정진 소령, 군수참모 신대선(辛大善) 소령, 그리고 제18포병대대의 이남구(李南求) 대위와 사단 공병대대의 정원하(鄭元河) 대위,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이 참석하였다. 사단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정확한 적정과 기도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수된 단편적인 상황을 토대로 논란을 거듭하였다. 더욱이 육군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10 : 00경에 이르러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제10연대는 현 전선에서 적을 적극 저지한다. 둘째, 삼척의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집결시킨다. 셋째, 사단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연곡천-사천 선에서 적을 격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강릉을 고수한다. 넷째, 육본에 1개 연대 규모의

증원과 연락기의 지원을 요청한다. 다섯째,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지구전을 펼쳐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즉시 반격으로 전환한다."

이와 더불어 사단장은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예비대를 급편하는 한편, 육군본부와의 유선연락을 시도하였다.[55] 그러나 육군본부와의 연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겨우 참모장 최갑중 중령이 육본 작전국 교육과장 이치업 대령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 통화에서 최갑중 중령은 사단정면의 전황과 아울러 증원부대 및 연락기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확고한 육군본부의 작전지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치업 대령은 "지금 북한군의 도발은 38도선 전역에 걸친 것으로 강릉보다 서울방어가 문제"라면서 "병력이나 연락기의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 용전분투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56]

이러한 상황이 38도선 전역에서 전개된 적의 전면 남침임을 알게 된 사단장은 제21연대의 북상을 즉각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단안을 내렸다. 첫째, 지구전에 대비하여 모든 군수품을 대관령 너머 진부리로 이동시킬 것. 둘째, 사단 전투지역내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 셋째, 군경가족을 후방으로 철수시킬 것. 넷째, 민사부를 설치해 행정을 관장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철수시킬 것. 다섯째,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것 등이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10 : 00부로 사단전투지역내에 경비계엄령을 단독으로 선포하고 이소 대위를 민사부장으로 임명하여 강릉의 민정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특히 전황의 추이에 따른 주요 행정기관의 소개와 금융기관의 보유 현찰 및 직원 등을 대구로 철수시킬 준비를 지시하였다. 또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모 중위를 영월탄광에 보내 광산보유차량을 최대한 징발하도록 하였다.[57]

이와 더불어 사단장은 강릉－주문진 일원에 가족을 둔 장병들을 위해 각 단위부대별로 가족철수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6개월분의 봉급과 식량을 지급하였다. 또 최악의 경우 오대산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라도 지구전을 전개하기로 한 사단장의 방침에 따라 군수참모 신대선 소령이 13 :00부터 강릉농고와 강릉상고 학생 200명을 동원하여 식량, 실탄, 유류 등의 군수품을 차량에 적재하고 이동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58]

# 3. 연곡천과 광원리의 주저항선 전투

## 1) 연곡천-사천선 진지 점령

### (1) 제2대대의 연곡천 주저항선 진지 점령

계엄령 선포, 군인 가족과 필요한 인원 소개, 물자 소산 조치 등을 끝마친 제8사단은 11 : 00에 지휘소를 사천초등학교로 추진시켰다.

이 무렵 제2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주문진 경찰서장에게 경찰관과 청년방위대를 동원해 자체방어에 임하고 주민을 사천선 이남으로 피난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은 주문진읍이 보유한 식량을 가급적 전량 반출하되,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소각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경찰관 2명과 군인 1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정찰조를 급편하여 적정을 탐색하게 하였다.

15 : 30경 적의 SU-76 자주포 3대가 동해가도를 따라 응호 부근에 출현하였다. 59고지에 포진한 57㎜ 대전차포 2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선두차를 계속 명중시켰으나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군의 대전차포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던 3대의 적 SU-76자주포는 아군이 철수하면서 파괴시킨 교량에 이르러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정지했다.

잠시 공격을 멈추었던 적은 18 : 00에 4발의 포탄을 주문진 등대 부근에 퍼부은 것을 시작으로 주문진 읍내와 대대 진지선에 대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면서 버림말-양지촌-173고지-260고지 방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남애리 부근에서 철수한 57㎜ 대전차포와 81㎜ 박격포 그리고 기관총의 엄호하에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20 : 00부터 적은 각종 포화를 동원해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1개 대대병력으로 야간에 방어선을 지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각 중대에 연곡천의 사단 주저항선으로 축차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59]



국군 제8사단의 주저항선인 연곡천

이에 따라 제2대대는 1개 중대가 예광탄으로 적에 대해 기만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20 : 40에 대대본부와 군수품 수송차량을 선두로 1개 중대씩 축차적인 철수를 시작하여 23 : 00에 연곡천 남안의 주저항선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대대는 주문진 남쪽 1㎞에 있는 교량을 파괴하였다.

제2대대가 연곡천을 도하할 당시에 주저항선에는 이미 제3대대의 제12중대와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사단 예비대대가 배치 완료된 상태였다. 또 제18포병대대의 제1포대가 석교리(石橋里)에, 제2포대가 미노리의 사천초등학교에 각각 포진하여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단장이 직접 사천도로 변의 초가까지 추진하여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다.[60]

### (2) 제18포병대대와 사단 공병대대의 주저항선 추진

개전 당일 사단포병인 제18포병대대는 대대장 장경석 소령이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고 각 포대장과 참모장교, 그리고 선임하사관급 10여 명이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선임장교인 대대부관 이남구(李南求) 대위의 지휘하

에 작전장교 오정석(吳定錫) 중위가 부대를 운영하면서, 전 장교 및 하사관이 영내에 대기하고 있었다.

25일 04 : 30에 주번사령 김준 소위로부터 '적의 포격개시' 보고를 받은 이남구 대위는 사단 정보참모 육근수 소령의 요청에 따라 김준 소위를 인구리에 파견하는 한편, 비상소집을 발령해 08 : 00에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제10연대 제2대대가 인구리선으로 철수를 시작할 무렵 제18포병대대에는 사단장으로부터 사천선 진출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제3포대를 사단사령부에 공치하고 제1, 제2포대를 11 : 00에 사천선 남안의 사천초등학교로 추진시켰다. 이때 주문진 북쪽에서 적정과 지형을 정찰하고 돌아온 제2포대 김용운 소위가, M-3포의 전술사정으로 미루어 현 진지선에서 아군에 대한 효율적인 화력지원이 곤란하고, 동일진지에서 2개 포대가 사격할 경우 진지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개 포대를 사천선 북쪽으로 추진하여 분산 운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포대는 13 : 00에 사천교를 건너 석교리의 뒷골 부근으로 추진되어 2,000m의 사거리를 신장하게 되었다.

제18포병대대는 20:40에 제10연대 제2대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어 이를 엄호하였다. 또한 자정 무렵부터는 주문진으로 포격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견제하였다.

한편, 적이 남북에서 협공하기에 이르자 사단은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예비대대를 급편하였다. 공병대대 부대대장 정원하 대위는 공병대대와 통신중대, 그리고 병기중대 병력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하고 제1중대장에 이용구(李用求) 중위, 제2중대장에 이우팽(李佑膨) 중위, 제3중대장에 황인흡(黃麟洽) 중위를 각각 임명하였다.

이날 08 : 00부터 수류탄 투척법을 훈련중이던 사단 예비대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제3중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출동하였다.[61] 제1, 제3중대는 차량으로 기동하여 10 : 00에 연곡천 남안의 사이구라미-상구라미에 이르는 3㎞의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12 : 00에 제10연대 제12중대가 진출하여 대대(-1)의 지원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 2) 제1대대의 광원리 주저항선 진지 점령

제1대대 지역에서 적의 침공 사실이 대대본부에 보고된 것은 08 : 00경이었다. 정족산－서림리 정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9중대장 박석권 중위가 무전으로 적의 공격과 중대의 철수 상황을 보고하였다.[62] 상황 보고를 받은 제1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흔히 있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정도로 생각하고 이동 준비 중인 트럭에서 실탄을 제외하고 군수품만을 하차시키도록 하였다. 제9, 제11중대에 군수품 추진보급과 직접 진두지휘를 위해 광원리를 출발한 제1대대장은 10 : 00경 구룡령을 넘어 갈천리의 비둘마을에 이르렀을 때 길을 메운 피난민대열로부터 적의 남침 사실을 전해 들었다.[63]

전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제1대대장은 부근 능선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관측하였는데,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남하 중이었고 계속해서 병력이 후속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구룡령으로 돌아와 보급관 민경중 중위를 대대본부에 보내 오대산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 중이던 제3중대를 긴급 소집하여 광원리의 주진지를 점령하도록 했다.[64]

이날 13 : 00, 오대산에서 광원리 대대본부로 집결한 제3중대와 대대본부요원, 그리고 수습된 제9중대 일부병력이 계방산 남안 석대동의 799고지와 광원리의 795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광원리의 주민과 군인가족들은 진부리로 소개되었다.

### 3) 연곡천의 주저항선 전투

동해연안을 따라 공격한 북한 제1경비여단의 주력은 18 : 00경 광진리(주문진 북서쪽 9㎞), 향동(주문진 북서쪽 4㎞)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주문리(주문진 북쪽 1㎞) 지역과 인접 고지의 아군으로부터 조직적인 공격을 받아 25일 밤 늦게 노동리(주문진 서남쪽 3㎞), 영진리(주문진 남쪽 3㎞) 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화력에 밀려 제1일차 목표인 동덕리(주문진 동남쪽 5㎞) 선까지 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65]

25일, 밤을 세워 진행된 제18포병대대의 포격이 주효하였음인지 적의 공세징

후가 보이지 않은 채 26일 아침을 맞았다. 사단장은 제10연대와 사단 예비대대(공병대대 주축)로 하여금 계속해서 연곡천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게 하고, 전날 삼척을 출발해 10:30에 강릉에 도착한 제21연대 제1대대를 사단예비로 전환시켰다.

제10연대 제2대대는 제2, 제10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사천선 일대의 35고지-36고지-34고지군을 점령하였다. 이들은 도로 서쪽의 사이구라미-상구라미를 연한 일대의 능선을 확보한 사단 예비대와 연계를 유지한 채 포병의 지원 아래 결전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제10연대장은 전날 광원리를 출발한 제1중대가 07:00에 연곡천으로 진출한데 이어 12:00에 안인진 부근에서 적 상륙부대의 북상을 저지하다가 이동한 제4중대가 도착하자 제3대대장 하병래 소령에게 제1, 제2, 제4중대와 제12중대를 지휘하여 주저항선 북쪽에서 나란히 하는 28고지 일대를 확보하게 하였다. 제12중대는 공병대대를, 제4중대는 제1, 제2중대를 각각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한편, 안목 부근으로 출동해 해안선 봉쇄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저항선으로 이동해 온 제10연대 57㎜ 대전차포중대와 삼척에서 북상한 제21연대 57㎜ 대전차포중대가 동해가도 좌우측 능선에 포진하였다.

이렇듯 주저항선 진지가 구축된 상황에서 26일 13:00에 1개 분대규모의 적 정찰대가 방내리로 공격을 감행한 것을 신호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적의 포사격이 개시되어 피아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진지가 노출된 제10연대 57㎜ 대전차포중대가 적의 집중 포격을 받아 중대장 김찬호 대위가 전사하고 포 1문이 파괴되었다. 포격 간에 1개 소대규모의 적 기병대가 해안선으로 우회하여 동덕리 부근까지 공격해 왔으나 아군의 81㎜ 박격포 사격과 제7중대의 진전 반격으로 격퇴 당하였다.

그리고 석교리에 위치한 제18포병대대 제2포대가 적의 집중 포격을 받고 16:00에 사천초등학교를 물러나 제2포대와 합세하였다. 당시 제18포병대대는 울창한 삼림으로 이루어진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술을 적용하였다. 즉 제18포병대대는 순발신관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맞고 파열하게 함으로써 시한신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강릉의 남녀학생들이 나와 작렬하는 포화 속을 뚫고 포탄을 운반하거나 음료수와 빵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단장도 수시로 들러서 "이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포병에 달려 있다"고 격려하면서 행정 차량을 포탄운반차량으로 전환시켜 차량지원을 제공하였다.[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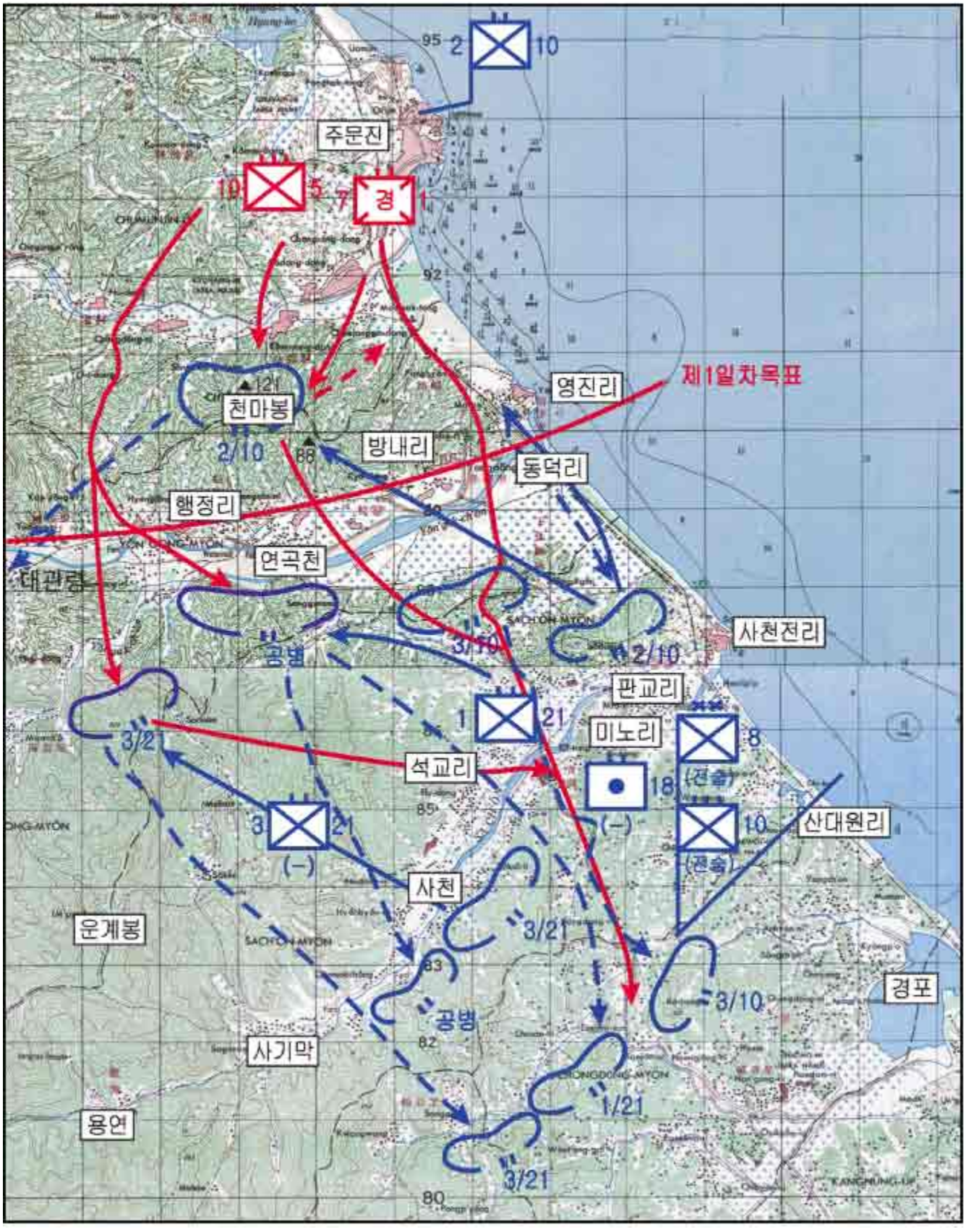
한편, 주문진으로부터 계속 남하한 적이 영진리-방내리에 이르는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제2대대에게 이를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20:00경 제7, 제10중대에게 공격을 감행하게 하였다. 양 중대는 포병과 57㎜ 대전차포, 그리고 박격포의 엄호사격 아래 연곡천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여 21:00에 영진리를 점령하고 33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직사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방내리 방면에서 역습을 감행하여 일진일퇴의 격전 끝에 후퇴하였다.

또한 제8중대장 정순기 대위가 지휘하는 20명의 특공대가 적정 탐색과 적진 교란을 위해 연곡천을 도하, 송라사를 거쳐 88고지로 진출하였다. 20명의 특공대는 적과 백병전을 벌여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3명을 사살하고 권총 2정과 소총 3정을 노획한 다음 진지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육본에서 병력의 증원이 없으면 단독으로라도 반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장 조원영 소령에게 적이 점령한 천마봉(△121)을 탈취하고 주문진 공격의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장의 주문진 공격 구상은 26일 오전, 적의 공격이 일시 중단되고 아군의 주저항선 진지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무렵 서해안의 국군 제17연대가 해주로 진격하였다는 풍문이 나돌았으며, 전방의 적 또한 공세의 징후를 계속 보이지 않자 사단장 자신도 전날 적의 공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후방철수 명령을 한때 후회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에 '1개 연대를 증원하여 준다면 원산까지 반격할 수 있다'는 전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단장은 제10연대장에게 26일 밤 일부병력을 투입하여 적이 점령하고 있는 천마봉을 탈취, 주문진

<상황도 6-4> 연곡천 전투


주문진
경
제1일차목표
영진리
천마봉
방내리
동덕리
행정리
연곡천
대관령
공병
사천전리
판교리
미노리
석교리
산대원리
사천
운계봉
경포
공병
사기막
용연
95
92
88
85
83
82
80
2/10
3/10
3/21
1/21

공격의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67]

연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영진리로부터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23 : 00에 연곡천 남안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또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27일 01 : 00에 천마봉을 무혈점령하였다.

한편, 주진지를 확보한 제2대대가 천마봉으로 진격하자 제3대대는 제2중대를 29고지에 잔류시키고 주력을 35고지－36고지－34고지를 연한 주저항선으로 이동시켜 진지를 확보하였다.[68]

6월 27일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10연대 제2대대가 천마봉을 탈취하여 공격거점을 확보하고 적이 별다른 공세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자 반격을 감행하여 우선 주문진을 탈환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38도선을 일거에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27일 05 : 00를 기하여 주문진을 공격한다.
② 제10연대는 ㉮ 천마봉을 확보한 대대로서 주문진을 공격하라. ㉯ 1개 대대는 주진지를 계속 확보하되 명령에 따라 주문진 북쪽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라.
③ 제21연대는 ㉮ 1개 대대로서 강동지구의 적을 계속 저지, 격멸하라. ㉯ 사단예비로부터 복귀하는 1개 대대는 05 : 00를 기하여 천마봉으로 진출, 제10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되 이를 초월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 삼척으로부터 진출하는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차후명령에 대비하라.
④ 공병대대는 계속 일선으로서 주저항선을 확보하라.
⑤ 제18포병대대는 H-30에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하되 명령에 따라 연곡천 북쪽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라.

그러나 04 : 00에 적이 포격을 집중하며 선제공격함으로써 이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아군의 주저항선인 연곡천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 4) 광원리 전투

계방천 남안의 799고지－795고지－767고지에 이르는 주진지를 점령하고 결전

<상황도 6-5> 광원리 부근 전투



태세를 갖춘 제1대대는 연대 및 사단과 통신이 두절된 채 강릉 방면의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5일 밤을 보냈다. 26일 새벽에 제9중대를 직접지원 하는 제4중대의 81㎜ 박격포 2문이 복귀하였다. 09 : 00에 이르자 청도리로 남하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포판이나 가늠대도 없이 직접조준으로 사격하는 81㎜ 박격포의 명중률은 놀라운 것이었다.

유리한 지형적인 조건과, 앞서 구축한 일부 진지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장병들의 용전분투로 15 : 00까지 세 차례나 거듭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주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에 큰 타격을 받은 적은 공격을 포기한 채 조개리(早開里) 방면으로 물러나 부대를 재편하는 듯하였다.

이때까지도 우탄리 정면을 담당한 제11중대는 대대에 합류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제11중대가 산간도로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퇴로 차단 위협을 받고 좌인접인 제6사단 지역으로 철수 중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11중대는 우탄리의 38도선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69]

한편 광원리의 주진지에는 20 : 00에 연대로부터 연락장교가 도착하여 예비진지로의 철수명령을 전달함으로써 대대는 운두령으로 축차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 4. 주저항선의 붕괴와 강릉 철수

### 1) 북한군의 선제공격

천마봉을 무혈점령한 제2대대는 사단으로부터 주문진 공격 명령을 받자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7일 04 : 00경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적이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천마봉 일대를 순식간에 화염의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2개 대대규모가 3면에서 포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은 제1경비여단의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를 투입해 공격을 가하였다.[70]

국군 제10연대 제2대대는 적 포화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대대장 조원영 소령

의 진두 지휘하에 전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내로 침입하는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천마봉의 제2대대는 후속하는 적이 점차 증가하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포위망을 뚫으면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또 다른 적의 무리가 행정리-방내리로 우회하여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주저항선으로 후퇴하지 못하고 행정리 서쪽에서 연곡천 상류를 도섭한 후 207고지-192고지로 후퇴했다. 그러나 적의 신속한 추격으로 인해 제2대대는 병력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분산된 채 철수해 이날 저녁 대관령에서 병력을 재편성하였다.[71]

한편 04 : 00 적의 포격이 시작되자 사천초등학교와 학교 앞 감자밭에 포진한 제18포병대대의 제1, 2포대는 대포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천마봉의 제10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 2) 주저항선 붕괴와 강릉 철수

주저항선에 위치한 제3대대는 포병의 엄호사격 아래 81㎜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일단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곳으로 적의 직사포 사격이 집중되어 진전을 크게 교란하면서 일단의 적이 진내로 들어와 29고지에서는 혈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점차로 증원되는 적의 압박으로 제2중대가 남쪽의 주진지로 물러섰는데, 이때 좌인접인 공병대대의 진지선에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이 철수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착각하고 임의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좀더 지탱할 수 있었던 주저항선은 08 : 00에 맥없이 붕괴되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제3대대는 사천을 건너 10 : 00에 산대월리로 진출한 제5중대[72]의 엄호하에 난곡리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부근 능선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사이구라미-상구라미-89고지에 이르는 동해가도 서쪽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있던 사단 공병대대는 주문진 공격을 위해 투입된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가 진지선으로 진입하자 이와 협동하여 적을 진전에서 저지하고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였다. 천마봉에서 후퇴하는 제10연대 제2대대를 추격한 1개 소대 규모

의 적이 116고지－109고지－207고지를 연한 능선으로 공격해 측방을 위협하자 대대장 정원하 대위는 제3중대에게 즉각 주저항선에서 물러나 적을 격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07 : 00에 65고지－89고지에 이르는 진지선에서 물러나 남쪽 계곡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207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가 공격을 위해 물러서는 것을 철수로 오인한 아군이 파상적으로 물러서자 걷잡을 수도 없이 주저항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제3중대도 공격을 중지한 채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09 : 00에 사천선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명령에 따라 강릉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병대대는 적의 포격이 매우 정확해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강릉농업학교에서 대기하다가 주문진 공격을 위해 연곡천에 진출한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는 04 : 30에 사단 공병대대 진지선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다. 대대는 공격을 보류한 채 공병대대와 협동하여 일진일퇴의 혈전을 거듭하였다. 07 : 00 다른 대대와 마찬가지로 공병대대 제3중대가 주저항선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철수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오인한 병사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물러서게 되면서 주저항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는 석교리와 노동리 부근 고지에서 지연전을 펼치면서 사천을 건너 78고지－82고지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렇듯 주저항선이 급속히 붕괴되고 사천선 남안으로 병력이 분산 후퇴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단장은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릉 사단사령부에 있던 제21연대 제3대대에 사천선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제21연대 제3대대는 연대의 후발대로서 26일 18 : 00에 삼척을 출발해 백봉령－임계리－삽당령의 험준한 산간도로를 야간 행군하여 27일 09 : 00에 강릉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 제3대대는 휴식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사천선에 진출하였다. 제3대대는 사천선 제방에 산개한 제1중대와 제12중대의 엄호하에 제9중대를 우, 제11중대를 좌로 하여 09 : 50에 사천선을 건너 공격을 시작하였다. 탄우 속을 뚫고 제9중대는 노동 북쪽 능선으로, 제11중대는 노동리 북쪽 능선으로 각각 약진, 11 : 00에 156고지의 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정상에 배치된 증강된 1개 소대규모의 적이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면서 수류탄을 퍼부어 피아간에 접전이 벌어졌다. 제11중대는 60㎜ 박격포와 2.36″로켓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였다. 제21연대 제3대대는 40분간 적의 공격에 맞서 혈전을 벌였지만 이곳으로 전환된 적의 포격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후퇴를 하였다. 후퇴한 제3대대는 연대장의 무전명령에 따라 13 : 00에 유천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한편, 제18포병대대는 미노리에 포진한 제1, 제2포대가 27일 새벽 적의 포격이 시작되자 대포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그러나 전술사정이 짧은 M-3포의 제압사격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천마봉에 대한 공격에 이어 주저항선으로 적이 쇄도하자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제3포대가 긴급 출동하여 3개 포대 15문의 포가 포탄의 제한 없이 포격을 가해 연곡천 연변을 탄막으로 뒤덮었다. 그러나 08 : 00에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포병진지는 보병의 엄호 없이 돌출되었다. 이때 퇴로 차단을 우려한 사단장은 포병의 철수를 명령하였으나 포병대대는 진지를 계속 고수하면서 더욱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이는 제18포병대대 장병의 90% 이상이 서북청년단 출신들로서 북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상하가 굳게 뭉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무렵 해안선으로 상륙한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제3포대가 사단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강릉으로 이동하고 제1, 제2포대만이 계속 포격을 가해 연곡천을 유린한 적을 판교리-석교리에서 일단 저지하였다. 10 : 00에 이르자 적은 모든 포병화력을 아군 포병진지에 집중하면서 해안선으로 우회해 공격하였다. 얼마 후 포병진지 북쪽 50m의 능선까지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 적의 일부가 진내로 침입해 백병전이 벌어졌다. 결국 적이 계속해서 포위망을 압축하자 제18포병대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포병대대원들은 사격을 계속하면서 백병전을 벌이는 한편, 포를 일문 일문씩 침착하게 빼내기 시작하였다. 다만 제1포대의 제1·3번포의 2문만을 극한상황에서 빼내지 못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폐쇄기와 타이어를 파괴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후 철수하였다. 철수한 제18포병대대는

13 : 00에 오죽헌 부근에 다시 포진하여 포격을 개시함으로써 적의 공세를 견제하고 분산 철수하는 보병을 엄호하였다.

사천선 남쪽에서 병력을 수습한 사단은 제10연대 제3대대를 경포대－난곡리에 이르는 동해가도 동쪽 능선에, 제21연대의 혼성대대를 난곡리－하유천에 이르는 동해가도 서쪽 능선에 각각 급편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육본과의 통신두절로 상부의 작전지도방침을 알 수 없었던 사단장은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사단장은 강릉고수를 우선 상정하였으나, 이것은 시가전을 전제로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퇴로차단의 위협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차후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4 : 00부터 일부 엄호부대와 포병의 지원하에 주력이 대관령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 5.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38선 방어가 주임무인 제8사단은 26㎞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불과 1개 연대로 전담시키고 그마저도 일부병력이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38선 경계 임무는 2개 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38선 방어가 주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임무인 게릴라 소탕작전을 지나치게 중시한 관계로 주임무인 전방방어 임무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대배치를 하게 되어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전투력 집중은 기대할 수 없었다. 즉 38도선 방어를 담당한 제10연대는 전방에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보유하였지만, 예비대에서 3개 중대를 차출하여 전방부대에 배속시킴으로써 1개 중대 밖에 가용하지 않았으며, 이 1개 중대마저도 게릴라소탕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적이 주공으로 지향한 제7중대

지역에마저도 추가 전투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

부대의 건제유지는 전투간 소속감을 갖고 부대의 전통과 명예심, 상호간의 신뢰성, 원활한 지휘력 발휘를 보장함으로써 전투의지 고양은 물론, 전투력 집중에 용이하다. 그러나 제10연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좌일선을 담당한 제1대대와 연대예비인 제3대대가 작전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이미 배속 받아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된 제1대대는 24일에 2개 중대를 강릉으로 출발시켰고, 25일 새벽에도 1개 중대를 또다시 출발시켰다. 이에 따라 6월 25일 현재 가용병력은 배속된 2개 중대와 예하 1개 중대인 반면에 강릉의 연대본부로 이동한 중대는 차량 기동한 제4중대 1개 중대 뿐이었다. 결국 제1대대와 제3대대는 모두 건제가 무너지고 병력이 분산된 채 전쟁을 맞은 것이다. 건제를 유지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면 좀더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고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 배치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8선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전 병력의 외출외박을 금지시킨 것은 적의 남침시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일부 반격작전을 전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전쟁이 발발하자 사단 차원의 초동단계의 조치는 잘 이루어졌다. 사단에서는 전방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으며, 사단장은 개전 초기부터 사천선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또한 사단은 다른 사단과는 달리 전방의 징후가 심상치 않자 외출·외박을 금지시켰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히 군인가족과 필요한 인원을 소개시키고, 물자를 소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제8사단장은 전투가 하루, 이틀 한두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사단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면밀하게 취함으로써 시민과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하였다. 우선 연곡천의 주저항선 편성에서 25일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급편된 사단 예비대를 좌일선으로 투입한데 이어 주문진으로부터 철수한 제10연대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서 판교리 일대를 점령하게 하였는데, 이때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사단 예비대를 제10연대에 배속하지 않고 지휘를 이원화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가 연대장 지휘하에 공격차 연곡천에 투입되었을 때 동일지역인 주저항선상의 지휘계통이 3원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사단장이 진두지휘에 나섬으로써 형식상의 지휘계통은 단일화한 것이 되겠지만 동일한 작전 임무를 가진 공병대대 주축의 사단 예비대는 제10연대에 배속되어야 했다.

### (2) 정 보

38선 경계지역에서는 남침 1개월 전부터 북한 병사들이 1개월 뒤에 보자고 말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개전 당일에는 내일 아침에 보자는 말까지 하였으며, 15일 전부터는 차량들이 동해가도를 따라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고 1주일 전에는 동해안으로 남하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1주일 이내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연대를 통해 사단에 보고되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38선 경계부대는 적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쟁 직전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도 적정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3) 기 동

개전 당일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제10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가 좌일선인 제1대대와 교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는 강릉 남쪽 46㎞인 삼척에 위치하였는데 그나마도 5개 중대가 후방 경비 또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

전 당일 가용병력은 제10연대 1개 중대와 제21연대 2개 중대 뿐이었다.

예비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제8사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주저항선인 연곡천 방어시 공병대대는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여, 측방 위협 제거를 위해 배치된 공병 1개 중대를 차출 운용하다가 이를 철수로 오인한 병사들의 파상적인 철수로 주저항선이 맥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4) 화 력

사단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제18포병대대의 2개 포대를 사천선에 위치시키고 보병부대를 지원하였다. 개전 당시 제18포병대대는 대대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이 부재 중이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전투에 임하였다. 제18포병대대는 비교적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관측, 사격지휘, 전포, 측지, 통신 등 주특기 교육에 대한 체계가 서 있지 않았던 포병의 창설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초급장교들의 노력으로 팀훈련과 각종 사격제원의 준비, 그리고 각종 장비의 가동상태 등 준비성이 뛰어났다. 특히 천마봉 일대 울창한 삼림의 지형여건을 활용, 순발신관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맞고 파열하게 함으로써 시한신관 효과를 얻도록 하는 등 창의적인 포술을 발휘하였다.

### (5) 방 호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조기에 두절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 않았다. 그 결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고, 단일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전투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예를 들어 38선 경계진지 전투시 제2대대장은 전방 3개 중대 중 1개 중대로부터 후퇴중이라는 무선보고를 받았을 뿐, 여타 중대와는 무선통신이 되지 않아 타 중대도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휘 조치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제10연대 제5중대장은 대대장과 통신이 두절되어 적으로부터 차단

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중대를 철수시켜 38도선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 (6) 전투근무지원

사단장의 결심에 의해 행정서류 운반차까지 탄약 운반차량에 동원함으로써 탄약운반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또한 공병대대는 해송천 부근의 목교와 화상천 부근의 교량을 적절한 시간에 폭파함으로써 적 자주포의 기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강릉의 남녀학생들이 동원되어 작렬하는 적 포탄 속을 뚫고 탄약을 운반하고 음료수와 빵을 나누어 주며 분전하는 제8사단 장병들을 지원하였다.

# 제 4 절 정동진 · 임원진 전투

## 1. 전투 개요

이 전투는 동해안으로 상륙한 북한의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가 강릉으로 북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제10연대의 일부 병력과 제21연대 1개 대대가 군선강을 중심으로 치룬 방어전이다.

강릉 남쪽 정동진리 등명동에 상륙한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 육전대는 삼척－강릉간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밤재를 점령한 후 1개 대대가 강릉을 향해 북상하고, 또 다른 1개 대대가 옥계 방향으로 남하였다. 또한 임원진에는 제766부대가 상륙하여 1개 부대가 태백산으로 침투하고, 1개 부대가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였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상황보고를 접하고 제10연대로 하여금 적의 상륙과 북상을 최대한 저지하게 하고, 삼척의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이동시켰다.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적의 후방상륙에 대처하기 위해 57㎜ 대전차포중대와 제4중대를 강릉 남쪽의 안목－안인진 일대에 급파, 안인진 해변에 접안을 시도하던 적의 선단을 격퇴하였다. 특히 북상 중이던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제4중대는 안인진 서쪽 대포동 방어진지에서 격멸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타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장은 남쪽에서 협공하는 적에 대처하기 위해 강릉 남쪽 군선강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방어할 것을 결정하고 제10연대장에게 그 임무를 지시하였다. 군선강은 만덕봉에서부터 강릉 남동쪽 12㎞ 지역을 북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강가에는 방어에 유리한 횡격실 능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삼척의 제21연대는 강릉으로 이동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25일 18 : 00에 삼척을 출발, 북평－백봉령－삽당령－구산동으로 우회 이동하여 26일 10 : 30경 주력이 군선강 방어진지를 인수하였다.

이후 군선강 방어부대는 27일까지 적의 공격을 몇 차례 분쇄한 후 진지를 점령, 확보하고 있다가 27일 18 : 00에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대관령을 넘어 철수하였다.

## 2. 북한군의 상륙과 안목 · 옥계전투

### 1)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의 상륙

동해안지역의 북한군 상륙부대는 오진우 총좌가 지휘하는 제766부대 2개 대대와 해군 소속의 제945육전대 2개 대대였다. 제766부대는 6월 21일 저녁 8시 날이 어두워진 후 어선을 이용해 호도반도를 떠나 속초 부둣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6월 24일 저녁에 출발하여 6월 25일 03 : 00경 주문진 앞바다를 통과하여 07 : 00경 강릉 남쪽 임원진 부근으로 상륙하였다.[73] 임원진리 왕바위 해변에 상륙한 제766부대는 무방비상태인 마을을 휩쓴 후 일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고, 일부는 삼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74]

한편, 육전대인 제945부대는 1개 중대가 03 : 00경 정동진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2개 대대가 해안에서 3~4㎞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는 수송선으로부터 발동선과 범선을 이용해 축차로 상륙하였다. 상륙한 적 육전대는 길원팔(吉元八) 대좌의 지휘아래 1개 대대규모가 강릉을 목표로 산두곡(山頭谷)쪽으로 북상하고 1개 대대규모는 일부 병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일부가 부근의 흑연광산을 점령, 트럭과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보급품을 하역하고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동해안으로 상륙한 북한군 상륙부대의 임무는 제945육전대의 경우 동해가도를 차단하여 국군 제21연대의 증원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75] 그리고 제766부대는 국군 증원부대의 차단과 더불어 산간 내륙으로 침투하여 주력의



제945육전대가 상륙한 정동진리 등명동 해안

남침에 앞서 게릴라들과 제휴해 후방을 교란, 남침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76]

당시 해안선 방어는 청년방위대와 경찰에만 의존한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다만 삼척에 사령부를 둔 제21연대가 적의 공격시 해안선 방어임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중령)는 연대 본부를 삼척 봉황동(鳳凰洞)에,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가 정라진(汀羅津) 유지공장에,[77] 그리고 제1대대(대대장 윤태현 소령)가 북평 삼화제철 사택지대 부근에 각각 위치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대대장 조규영 소령)가 6월 13일 삼척 시멘트회사 사택지대에서 진부리로 진출해 하진부리에 대대본부를 개설하고 제10중대(중대장 이규현 중위)가 대관령－진부리에 이르는 경강도로를 확보하고,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가 응봉(鷹峯, △1173)－대궁산(大窮山, △975)에서 제6중대(중대장, 우교붕 중위)가 계방산에서 각각 소대별로 분산하여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78]

이에 따라 연대는 제1대대만이 건제를 유지한 채 북평에 위치하고, 제2대대는 제5, 제8중대, 제3대대는 제12중대만이 각각 삼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보병학교 OAC에 입교중이어서 연대정보주임 박서권 소령이 대리근무 중이었으며, OBC에 입교중인 제10중대장 황기상 중위의 후임으로 이규현 중위가, 3군 체육대회 선수로 파견 중인 제9중대장 최영구 중위의 후임으로 경윤호 중위가 각각 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어뢰정 4척과 1,000톤급 무장수송선 1척의 엄호아래, 발동선 30척, 범선 40척, 그리고 견인용 화물선 4척으로 2개 선단을 이루어 정동진과 임원진에 각각 상륙을 개시하였다.[79]

## 2) 안목·옥계 전투

### (1) 안목 전투

적의 상륙 사실이 제8사단 사령부에 보고된 것은 05 : 40이었다. 당시 강릉경찰서장이었던 전호인(全湖仁) 총경이 정동진에 상륙한 적 일부가 남하 중이고, 일부가 북상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상륙한 적의 일부가 북상 중'임을 보고받은 제8사단장은 06 : 00에 열린 사단 작전회의를 마치는 대로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에게 적 상륙부대를 저지, 격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적정 판단이 불가능하고 가용병력 또한 제4중대와 제12중대뿐이었던 제10연대는 우선 연대본부 요원으로 급편한 1개 소대로 증강된 제4중대를 출동시켰다. 07 : 00에 연대본부가 위치한 강릉비행장을 출발한 제4중대는 08 : 00에 대포동－247고지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대기하였다.

3시간이 경과한 11 : 00를 전후하여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전술 행군 대형으로 접근해 왔다. 이를 목격한 제4중대는 이들이 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린 후 4문의 박격포와 8정의 기관총으로 포격과 사격을 집중해 기선을 제압한 후 즉시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1개 소대가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4중대는 40명의 적을 사살하고 중기관총 1정과 소총 8정, 기관단총 3정

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80]

이러한 상황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등명동에 상륙한 적이 상상외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연대는 주민들로부터 안목(安木, 일명 見召洞) 앞바다에 적 선단이 몰려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적 주력의 역습과 우회, 그리고 새로운 적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연대는 57㎜ 대전차포중대 주력을 즉시 출동시켜 제4중대를 엄호하게 하였다.

연대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고 출동한 대전차포중대가 안목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적의 선발대가 상륙하고 있었다. 중대장 김찬호(金燦湖) 대위는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에게 고폭탄 사격을 퍼부어 이들을 격멸하고 한명을 생포하였다. 이후 대전차포중대는 접안을 시도하는 적 선단에 사격을 집중하여 이를 격퇴하는 동시에 연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화력을 증원하고, 사단 공병대대 제2중대가 제10연대에 배속, 투입됨으로써 적의 안목 상륙계획은 실패하였다.[81]

### (2) 옥계 전투

25일 이른 새벽 옥계면 현내리(縣內里)에서는 산성우리 강릉광업소 사무원 김인걸(金仁杰)이 북한군의 상륙 상황을 옥계지서에 전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묵호경비부에서는 해군수색대를 도직리에 파견했으나 북한군으로부터 기습 사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한 후 곧 옥계지서로 철수하였다.

한편, 밤새를 점령한 북한군은 05 : 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고개 남단 낙풍리(樂豊里) 뒷산의 215고지－157고지 기슭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더 이상 남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이는 삼척에 위치한 국군 제21연대의 강릉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2 : 00경 제21연대 제1대대 수색대가 옥계지서에 들어갔으나 이때는 이미 해군 수색대가 묵호로 복귀한 후였다. 이 무렵 제21연대 제1중대(중대장 梁輔 중위)가 망운산에서 그 북쪽의 233고지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1연대 제1대대 수색대는 옥계지서에서 적정을 설명 받은 후 13 : 00경 현내리

<상황도 6-6> 옥계 전투


금진리
등명동
945
SSS
낙풍리
현내리
옥계
1/21
도직리
망운산
목호
평능리
하평동
26일 강릉으로 이동
KANGWŎN-DO

뒷산(△120)을 거쳐 교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대열을 지어 남하하는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낙풍리에서 발견하고 급습하였다. 무방비상태에서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대항 한번 못해 보고 도주하였다. 이들은 도직리에 상륙하려다가 실패한 부대로서 등명동에서 심곡리-금진리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제945육전대의 일부 병력이었다.

첫 교전에서 승리한 제21연대 제1대대 수색대는 대대에 적정을 보고하기 위해 곧바로 북평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약 1시간 후인 14 : 00경 현내리에서는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이때 옥계지서 경찰관 9명과 30여 명의 대한청년단원들이 적의 공격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얼마 후 옥계지서가 적에게 피탈되었다. 이 무렵 옥계지서 남동쪽 1㎞ 지점인 233고지로 진출한 제21연대 제1중대가 이를 목격하고 60㎜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가하였다. 첫 탄부터 지서에 명중하여 이곳에 집결한 적을 강타하자, 적은 밤재로 철수하였다.[82]

제21연대 제1중대는 옥계지서가 불길에 휩싸이자 곧 233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중대장은 대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대대가 강릉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묵호로 철수하였다. 이곳에서 제1중대는 해군경비부의 요청에 따라 묵호 북쪽 1.2㎞에 있는 218고지에 산개하여 하룻밤을 지새우며 경비부 경계를 수행한 후 26일 백봉령을 넘어 임계리에서 연대 후발대에 합류하였다.[83]

### 3) 주요 조치

사단에는 적 상륙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어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았다. 1950년 3월에 만들어진 사단 방어계획에서 “해안선경비는 사단 정보참모 주관하에 경찰 및 청년방위대로 구성된 육상감시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묵호 해군경비부와 협조하여 어부 및 어선을 동원하여 주문진-강릉-묵호-삼척-포항에 이르는 해안선을 순항 경비케 하고 무전 및 등화신호로 육지와 연락을 유지하게 한다. 다만 해안선으로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는 사단예비대로 이를 격멸한다”는 정도로 해안선 방어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84] 따라서 정동진 등명동에 중기관총을

장비한 2개 대대 규모의 적이 상륙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선의 편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하여 전투부대를 분산 배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병력이 없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에게 상륙한 적을 저지,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0연대장은 우선 제4중대와 57미리 대전차포중대를 안목 지역으로 출동시켜 적의 상륙과 북상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사단은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사단통신 및 병기중대로부터 차출된 병력을 배속하여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사단은 공병대대의 전투편성이 끝나자 이 중 제2중대를 안목 지역에 투입하였다.

이 무렵 7번 도로를 따라 북상하던 적은 산두곡으로 우회하여 강릉을 향해 북진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은 적정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분석한 사단은 제10연대로 하여금 군선강을 따라 방어선을 편성하게 하고, 삼척의 제21연대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방어선을 고수하도록 조처하였다.

## 3. 군선강 방어선 전투

### 1) 군선강 방어선 형성

제21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군선강[85]에 방어선을 편성하여 적의 북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0연대장은 제21연대 제10중대(중대장 이규현 중위)[86]와 사단 예비대(공병대대 주축) 제2중대(중대장 이우팽 중위)가 연대에 배속되자 제3대대장 하병래 소령에게 이들을 통합지휘하여 안인리－모전리－언별리를 연한 선에 진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혼성 제3대대(대대장 하병래 소령)는 사단예비대대(공병대대 주축)의 제2중대가 안목을 확보하여 해안선을 경비하는 가운데 제4중대를 군선강 북안의 108고지(안인리 서남쪽 1.5㎞)에 배치하여 강릉에 이르는 주접근로를 차단

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 제10중대를 140고지(모전리 서남쪽 1.5㎞)－148고지(언별리 서북쪽 2㎞)에 배치하여 적의 상륙부대가 우회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게 하였다.

한편, 강릉을 출발한 제21연대 제10중대가 14 : 00 모전리에 도착하였을 무렵 강동지서 북쪽 고지로 1개소대 규모의 적이 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해 오자 제10중대는 즉각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격퇴하고 140고지－87고지를 연한 능선을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두에서 돌진하던 김제민(金悌民) 소위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18 : 00경 두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패배한 적이 2개중대 규모로 또다시 제21연대 제10중대 정면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공격 개시 1시간만인 19 : 00에 격퇴되었다. 이 무렵 계방산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이던 제21연대 제6중대가 대대장 조규영 소령의 지휘하에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87]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6중대를 언별리로 즉각 투입하는 한편, 대대장 조규영 소령에게 제10연대에서 복귀한 제10중대를 통합지휘하여 모전리－언별리를 연하는 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 : 00에 언별리로 진출한 조규영 소령은 제6중대를 우일선으로, 제10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제10연대 제3대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모전리－언별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10연대 제3대대장은 좌전방으로서 제4중대와 사단 예비대대(공병주축) 제2중대를, 제21연대 제2대대장은 그 우측에서 제6, 제10중대를 각각 지휘하게 됨으로써 강릉 남쪽에 대한 대비는 일단락되었다.

### 2) 제21연대의 군선강 방어선 이동

개전 당시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중령)는 제2대대 주력과 제10중대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해 진부리에 출동 중이었고, 제3대대의 제9, 제11중대가 산업시설 경비를 위해 장성－임계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1대대만이 건제를 유지하였으며, 제2대대의 제5, 제8중대, 제3대대의 제12중대만이 각각 대대본부에 남아 있었다.

제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25일 06 : 00가 조금 지나서 삼척경찰서로부터 적의 상륙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연대장은 미 군사고문관 캐슬러(George D. Kessler) 소령과 작전주임장교 김수철(金壽哲) 대위를 대동하고 해안선을 따라 묵호 북쪽의 노봉리(魯峰里)까지 나가 남하하는 적 선단을 확인하였다. 07 : 30에 연대본부로 돌아온 연대장은 57㎜ 대전차포중대를 해안선에 배치하는 한편, 북평에 위치한 제1대대에 상륙한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북평을 사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08 : 30에 북평 북쪽의 동해안에서 천곡리에 이르는 118고지－356고지－531고지를 연한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제1중대를 옥계쪽으로 추진시켜 망운산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적정을 탐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중대는 제1소대를 망운산에 배치하고, 주력을 옥계쪽으로 수색 전진시켰다. 15 : 00 제1중대가 도직리 부근 해안고지에 이르렀을 무렵 적 1개 중대 규모가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에 중대장 양보 중위는 병력을 그 자리에 차폐시키고 적을 200m 거리까지 접근시켜 일제히 사격을 가해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후속하던 적이 박격포 사격을 집중함으로써 제1중대는 망운산으로 철수한 후 이곳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10 : 00경 제21연대본부에는 사단장으로부터 “즉각 강릉으로 집결하라”는 전문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삼척광산지대와 각 공장의 차량을 징발하게 하는 한편, 제1대대장 박서권 소령에게 접적을 피하여 북평에 집결, 강릉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제3대대에는 ‘예하 중대를 삼척에 집결시켜 강릉으로의 출동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옥계 방면으로 진출한 후 통신이 유지되지 못한 제1중대를 제외하고[88] 연대장이 지휘하는 제1제대와 합류하였다.[89] 그리고 제3대대는 대대장 이창률 소령이 제9, 제11중대에 ‘민간차를 징발, 삼척으로 즉각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한편, 대대본부와 제12중대의 이동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날 저녁에야 명령을 받은 제11중대는 정선광산으로, 제9중대는 장성탄광으로 각각 장교를 보내어 차량을 징발하게 하고 분산된 각 소대를 중대본부로 집결시켰다.

이렇듯 각지에 흩어진 병력이 집결되고 민간차량 30대가 징발되어 기동력을



군선강과 군선교

확보하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우선 제1제대로서 제1대대, 57㎜ 대전차포중대와 함께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제3대대와 연대본부는 부연대장 김영로 중령이 지휘하였다.

19 : 00에 삼척을 출발한 제1제대는 북평에서 제1대대와 합류한 다음 백봉령의 험준한 산길을 넘어 임계리－삽당령－목계리－구산동으로 밤을 세워가며 강행군하여 26일 10 : 30에 강릉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후 군선강 방어진지에 투입되었다.[90]

### 3) 군선강 전투

25일 모전리 일대로 침투하려다가 실패한 적은 26일 02 : 00경 증강된 1개중대 규모로 모전리－언별리를 연한 국군의 방어정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근접전 끝에 06 : 00, 제21연대 제6, 제10중대는 이를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은 기관총 1정과 소총 8정, 그리고 기관단총 1정과 시체 10여

구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

그런데 10 : 30에 제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이 지휘하는 제21연대의 제1제대가 강릉으로 진출하자 사단장은 제10연대 제4중대와 사단 예비대대(공병주축) 제2중대의 작전 임무를 인수하여 연대장 지휘아래 적의 북상을 저지하고 강릉에 대한 측방위협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제3, 제5중대를 예비대로 강릉농업학교에 주둔시키고 연대지휘소를 운산리로 추진하여 제2, 제4, 제8중대로 하여금 제10연대 일부 병력의 진지를 인수, 안인리－모전리－언별리에 이르는 진지선을 재편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사단사령부에 대기 중인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운산리로 진출하자 조규영 소령이 지휘하는 제6, 제10중대는 포병의 지원하에 수색전을 전개하여 고덕봉(△781)－응봉산(△817)까지 진출하였다가 야간에 언별리－구정동에 이르는 능선으로 물러났다.

27일 사단의 주문진 공격계획에 따라 운산리에 위치한 연대장 김용배 중령과 제1대대장 박서권 소령이 강릉농업학교에서 대기 중이던 제3, 제5, 제7중대로 편성된 혼성 제1대대를 지휘하여 연곡천 주저항선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선강 지역의 작전지휘는 제2대대장 조규영 소령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제1대대 부대대장 최취성 대위가 지휘하는 제2, 제4, 제8중대가 안인리－무전리－언별리에 이르는 일대를 점령하고, 제6, 제10중대가 언별리－구정동에 이르는 능선을 각각 확보하여 북한의 제945육전대의 북상을 저지하게 되었다.

연곡천의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적은 강릉 협공을 위해 2개 중대 규모로 211고지(산두곡 남서쪽 1㎞)－266고지(언별리 동북쪽 1㎞)를 연한 능선 일대로 공격을 가하였다. 적은 아군의 제2, 제4, 제8중대와 대치한 채 120㎜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탐색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조규영 소령은 제6, 제10중대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해 금광리로 급진시켜 모전리－언별리를 연한 정면에 대한 증원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포병화력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2 : 00에 운산리로 추진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도로변에 포진

<상황도 6-7> 군선강 전투


945
SSS
(-)
945
SSS
정동진
해안교두보
대포동
4/10
안인리
4/21
2/21
군선강
10/21
(-)
6/21
(-)
언덕리
피래산
밤재
낙풍리
북동리
1/21
21 (28일 19:00 상륙 출발)
구산리
평촌동

하고 대대장 장경석 소령의 진두지휘 아래 산두곡－인장산(△132)－211고지－266고지 일대에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공세 기도가 무산된 듯 한 적은 더 이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91]

결국, 적의 남북협공 기도는 해안 상륙부대가 국군의 군선강 방어선를 뚫지 못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 4. 분석 및 평가

### 1) 전투준비태세

동해안은 청년방위대와 경찰에만 의존한 무방비상태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완만하여 도처에 적의 상륙이 가능한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이미 전쟁 발발 전부터 북한의 게릴라들이 해안을 통해 침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였다. 사단 방어계획에서 적의 상륙시 사단예비대로 하여금 적의 상륙을 저지한다고 하였으나 예비대가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38선 방어가 주임무인 제8사단은 26㎞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불과 2개 대대로 전담시키고 그 이외 부대는 산업시설 경계 및 후방지역 방어를 위하여 광활한 지역에 전개시키면서도 해안방어를 위한 부대배치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상륙을 허용하고 말았다.

###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적의 상륙사실이 사단에 보고됨과 동시에 사단의 초동단계 조치는 잘 이루어졌다. 사단장은 신속하게 제10연대에게 적 상륙부대의 상륙 및 북상 저지를 명

령하였으며, 명령을 받은 제10연대장은 제4중대와 대전차포 중대를 적이 상륙하는 지점에 즉각 투입해 기선을 제압하였다. 또한 방어에 유리한 군선강 지역을 확보하고, 삼척에서 북상한 제21연대를 보강 투입함으로써 적의 남북 협공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2) 정 보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완만하여 도처에 적의 상륙이 가능한 취약성을 안고 있었고, 게릴라들이 해안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주요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상륙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 (3) 기 동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제4중대와 대전차포 중대의 출동, 군선강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21연대의 즉각 배치 등 부대의 기동은 시기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삼척에 잔류하였던 제21연대 후발대의 기동에 있어서, 제3대대는 강릉으로의 이동로인 임계리에 위치한 제11중대를 삼척으로 이동시켰다가 또다시 임계리를 경유하여 강릉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출발시간이 지연되었다. 강릉에 이르는 최단 경로인 동해가도가 상륙한 적에 의하여 이미 차단된 이상 기동로는 백봉령－임계리－삽당령－구산동－강릉뿐인데, 제11중대를 삼척으로 복귀시킨 것은 분명히 기동계획에 착오를 범한 것이었다.

### (4) 화 력

제8사단은 동해안으로 적이 상륙하자 제18포병대대의 1개 포대를 강릉 남쪽 운산리에 위치시켜 보병부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제10연대의 57㎜ 대전차포중대는 적 제945육전대의 안목 상륙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적 상륙부대가 강릉으로 북상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아군의 군선강 방어선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적의 남북 협공 계획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 제 5 절 대관령 철수와 강릉 역습

## 1. 제8사단의 대관령 철수

### 1) 강릉 북쪽 방어부대의 철수

천마봉에서 주문진으로 공격하려던 제10연대 제2대대가 적의 선제공격으로 분산된 채 대관령으로 물러섬으로써 주저항선이 붕괴된데 이어 제21연대 제3대대의 공격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단은 일부병력의 엄호하에 난곡리－한밭선에서 일단 병력을 수습하였다. 즉 산대월리로 신속히 이동한 제5중대의 엄호하에 난곡리에서 재편한 제10연대 혼성 제3대대(대대장 하병래 소령)가 29고지(경포대 서북쪽 1㎞)－32고지(경포대 서쪽 1.5㎞)－88고지(저동리)－119고지(난곡리 서북쪽 1㎞)에,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대대장 박서권 소령)가 78고지(한밭 동쪽)－82고지(한밭 남쪽)에,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가 122고지(원통이 남쪽)－하유천－149고지에 각각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공병대대가 사단예비로서 강릉에 위치하였으며, 제18포병대대 주력과 제10, 제21연대의 57㎜ 대전차포중대가 오죽헌－난곡리 부근 도로변에 포진하여 포격을 계속하면서 적의 공세를 견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육군본부와의 통신두절로 전 전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강릉을 방어하기 위한 결전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한 후 사후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놓고 결심하지 못하다가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제10연대장과 제21연대장, 그리고 사단 참모가 긴급 소집되어 이루어진 작전회의에서는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고, 적정과 아군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승산 없

는 결전보다는 차라리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전투력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92]

이에 따라 사단은 14 : 00를 기해 잔류보급품 수송차량을 선두로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 연병장으로 이동한 제18포병대대 주력은 사격을 계속하면서 보병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아군의 철수를 눈치 챈 적은 갑자기 요란사격을 가하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의 포탄이 쏟아지자 철수 초기에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었던 예하 각급부대는 서로 앞 다투어 강릉을 빠져나가려고 하여 경강도로는 차량과 병사들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 철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우선 산대월리까지 진출하였던 제10연대 제5중대와 149고지를 점령하였던 제21연대 제11중대가 미처 철수명령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다가 뒤늦게 철수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철도관사지대에 있던 야전병원과 도립병원에 수용 중인 부상병 중 보행불능자에 대한 후송조치가 소홀하였던 점도 문제였다. 개전 당시 8개 사단 중에서 후방철수를 가장 빈틈없이 실시한 제8사단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실이 되었다.

제10연대 제5중대의 경우, 연대예비로서 강릉농업학교에 대기 중, 적의 공세로 주저항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연대장 고근홍 중령의 명령에 따라 08 : 00에 산대월리의 52고지로 후퇴하였다. 그곳에서 제5중대는 철수하는 혼성 제3대대를 엄호하다가 사단이 난곡리－하유천선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급편진지를 편성하자 전투전초로서 적의 공세를 견제하면서 적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연곡천선을 유린한 적이 공격을 재개할 무렵인 18 : 00까지 연대로부터의 철수명령이 없자 중대장은 독단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강릉의 사단사령부로 향한 제5중대는 이미 사단이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였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중대가 낙오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관령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구산동 부근에서 주민들로부터 아군이 삽당령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5중대장 김동증 대위는 대관령 방면이 이미 적에게 차단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임계리를 목표로 강행군을 시작하였다.[93]

한편, 하유천 부근의 149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21연대 제11중대는 무전기 고장으로 대대 또는 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밤늦게까지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이상히 여긴 중대장 맹보영 중위는 우인접인 제9중대로 연락병을 보내 상황 파악을 시도했으나 연락병으로부터 전해진 것은 이미 제9중대가 철수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철수명령이 없던 상황에서 중대장은 철수 결심을 망설이다가 다음날 02 : 00에 중대가 낙오된 채 고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제10연대 제5중대와 마찬가지로 구산동을 거쳐 임계리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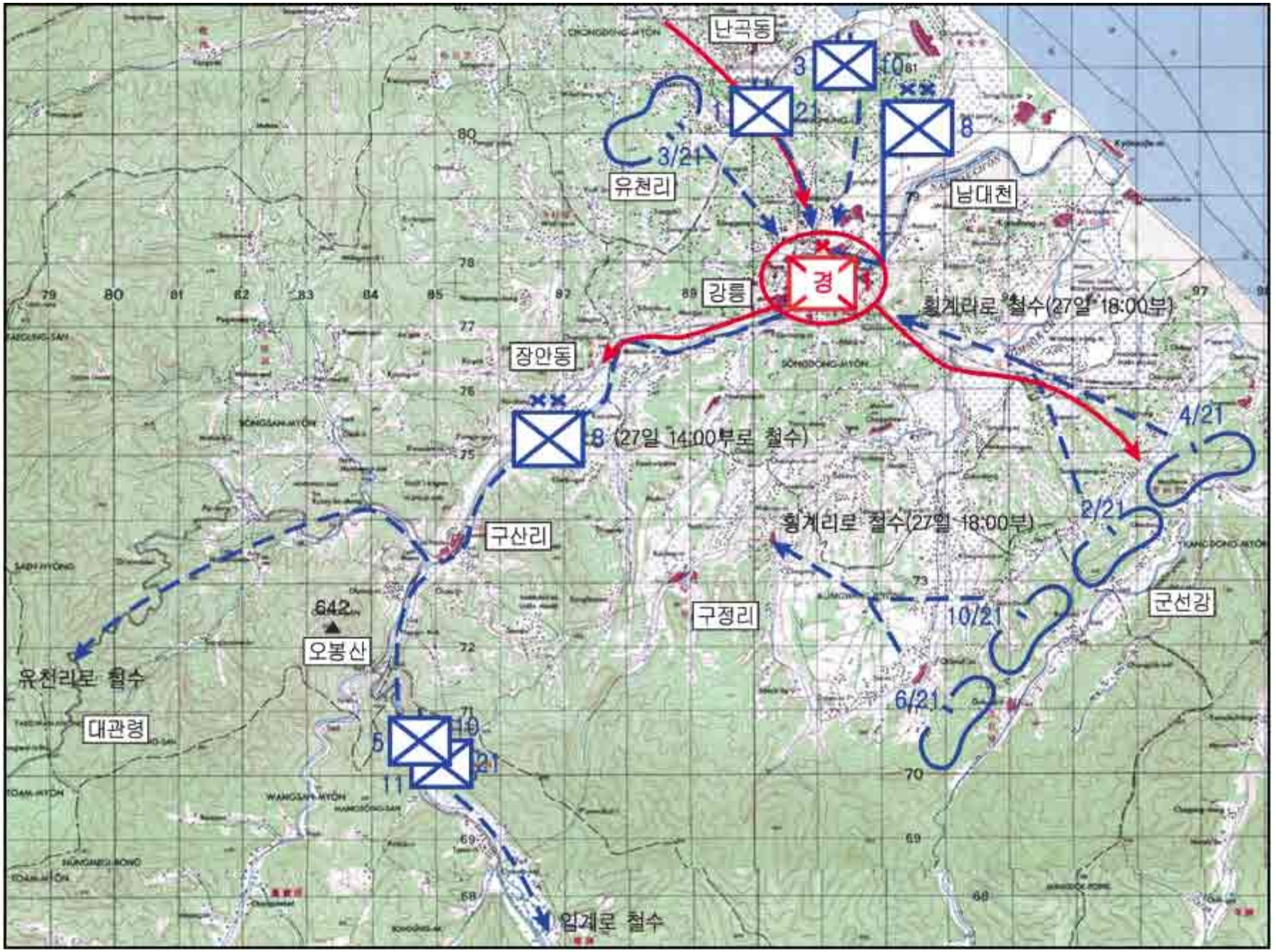
### 2) 군선강과 광원리 방어부대의 철수

군선강 방어선에서 적과 대치한 채 협공을 저지 중이던 제21연대의 혼성 제2대대는 사단주력이 철수 완료한 18 : 00경, 포병대대 정보참모 김천근 중위의 연락을 받고 대관령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21연대의 제2, 제4, 제8중대는 적이 이미 침입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을 우회하여 박월리(博月里)－장현리(長峴里)－제비리(濟飛里)－구산동에 이르는 논길을 따라 철수하고 제6, 제10 중대는 새재－마수리재를 넘어 대관령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운산리로 출동하여 제21연대의 혼성 제2대대를 지원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는 저녁때 정보참모 김천근 중위로부터 사단의 철수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제3포대를 직접 지휘하던 포병대대장 장경석 소령은 사단 작전참모 정진 소령과 상의하여 포병의 지원하에 보병부대가 먼저 철수하고, 그 후에 제3포대가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정을 파악할 수 없었던 장경석 포병대대장은 철수로의 선택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강릉 시내를 돌파해 대관령으로 철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3포대는 강릉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때 시내에 침입한 적이 소수였던 까닭인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제3포대는 시내를 횡단하여 무사히 대관령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95]

한편, 25일부터 줄곧 광원리 방어선을 고수하던 제10연대 제1대대는 연락장교




<상황도 6-8> 제8사단의 강릉 철수

편에 하달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18 : 00에 운두령을 거쳐 하진부리로 철수하였다가 유천리로 나가 분산되었던 주력과 합류하였다.

이처럼 사단 병력의 대부분이 대관령을 넘은 것을 확인한 사단은 사단사령부 및 제10연대를 유천리에, 제21연대를 횡계리에 집결시켜 재편성에 착수하였다.[96]

이 무렵 적은 소규모 정찰대만을 강릉 쪽으로 추진하다가 21 : 50에 1개 중대 규모의 선견대를 시내로 침투시켰으며, 28일 04 : 00부터 제1경비여단 주력이 강릉으로 진입하였다.[97]

## 2. 제8사단의 강릉 공격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사단이 비록 대관령 너머로 철수하였지만 낙오된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는 예상외로 건제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사기 또한 왕성하여 전투력이 건재함을 확인하자 강릉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98]

① 사단은 28일 08 : 00를 기하여 강릉을 공격한다.
② 제21연대는 주력으로서 강릉을 공격하라.
③ 제10연대는 일부병력으로 오봉산을 확보하면서 공격부대의 측방을 엄호하라.
④ 제18포병대대는 57㎜ 대전차포중대를 통합지휘하여 공격을 지원하라.

이와 같은 공격명령을 받은 제21연대장은 제2대대를 경강도로 북쪽 능선을 따라 강릉으로 진출시키고, 제1대대를 경포대로 우회시켜 서쪽과 북쪽에서 협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부동(釜洞) 부근까지 추진한 포병대대와 57㎜ 대전차포의 엄호하에 04 : 00에 횡계리에서 기동하여 08 : 00에 구산동의 공격 개시선까지 약진하였다.

이날 04 : 00에 강릉에 진입한 적은 아군의 역습에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어



제8사단의 강릉 공격 개시선

있지 않은 듯 침묵을 지키다가 아군의 포격이 집중되자 각종포를 응사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는 산발적인 적 경계부대의 저항을 격파하고 성산리를 거쳐 13 : 00에 강릉시내를 굽어보는 홍제동으로 돌진하여 66고지 일대를 확보하였다. 이때 1개대대 규모의 적이 120㎜ 박격포와 76㎜ 직사포를 집중하여 반격함으로써 피아간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고 제6중대 정면에서는 수류탄 투척전이 벌어진 끝에 적을 진전에서 저지하였다.

한편 좌일선으로서 속칭 맹쇄－매염새－감나무촌의 계곡을 따라 돌진한 제1대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경포대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주공인 제2대대가 집요한 적의 반격으로 혈전을 거듭하여 강릉 돌입의 시기가 지연되자 속칭 모삿골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고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원주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을 방문한 육본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으로부터 원주로의 철수명령을 받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비로소 좌인접인 제6사단을 비롯한 전 전선의 전황을 알고 무모한 공격으로 병력의 손실

을 자초하여 전투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전군의 전선재정비에 기여하는 것이 사단의 당면 임무라고 판단하고 “제21연대는 즉각 공격을 중지, 대관령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홍제동 일대에서 분전 중이던 제2대대는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축차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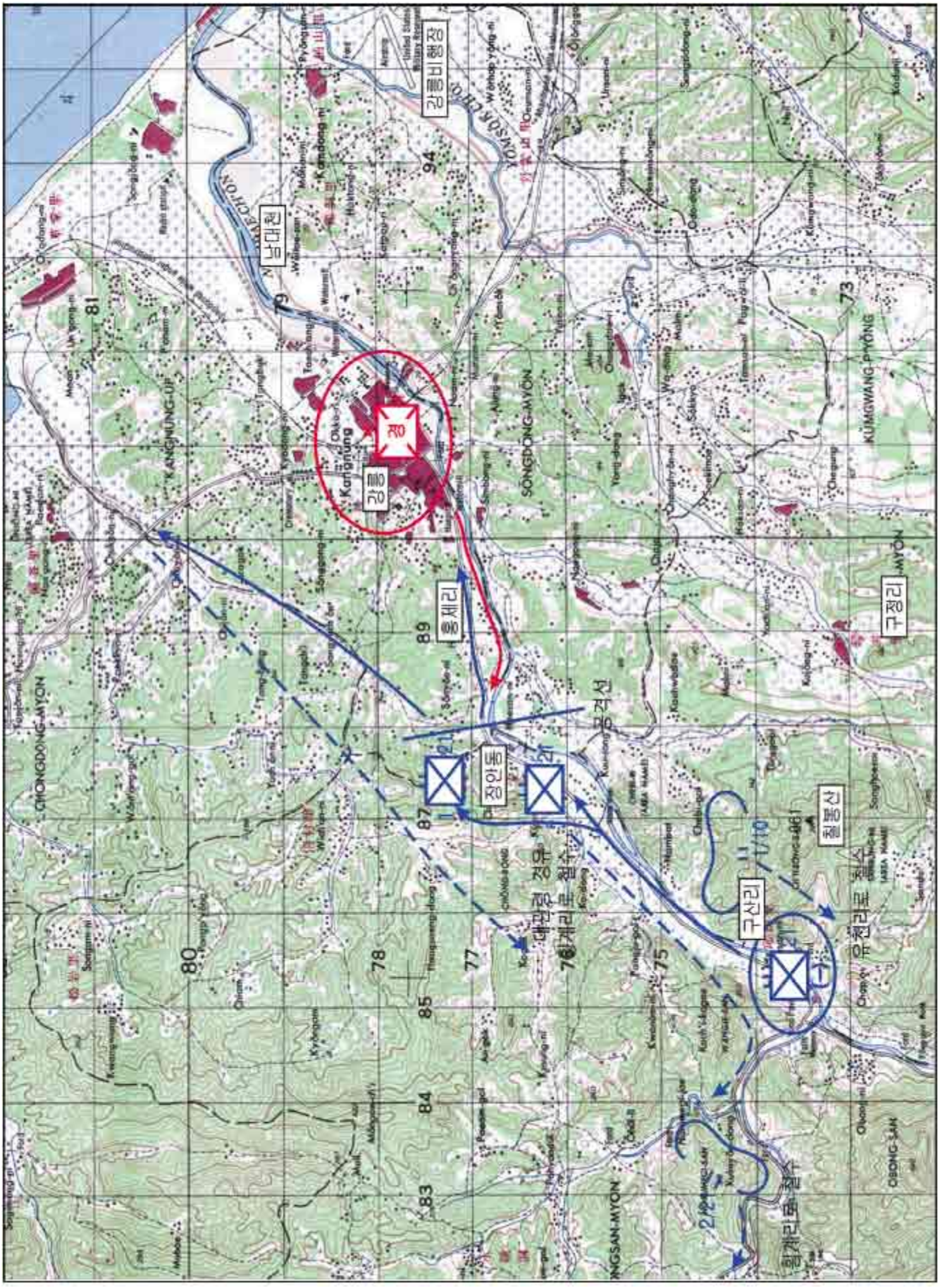
그러나 적이 박격포와 직사포사격을 집중하여 대대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반격하였기 때문에 제2대대는 171고지(관음리 북쪽)－151고지(관음리 북쪽 1.5㎞)로 물러설 무렵 치열한 포화에 휩싸여 고전하였다. 이 무렵 횡계리에 도착하였다가 연대장의 요청에 따라 급거 지원된 장갑차 3대가 돌진하면서 37㎜포와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자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171고지－151고지의 능선을 넘어 282고지－296고지－276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적은 SU-76 자주포 3대를 구산동 방면으로 즉각 투입시키고 반격을 재개하였다.

한편 제21연대 제1대대는 경포대까지 진격하여 속칭 모삿골 일대의 고지를 확보하고 제2대대의 강릉 돌입과 때를 같이하여 북쪽으로부터 협공을 위해 대기하던 중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중지하고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축차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강릉으로부터 출격한 적이 포격을 가하면서 퇴로를 차단하려 하자 제1대대는 제4중대(중대장 김광철 중위)를 엄호부대로 하여 난곡리－하유천－멍어치－보광리에 이르는 산악지대를 거쳐 이날 밤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엄호부대인 제4중대는 퇴로를 차단당하였다. 이에 일부병력은 중대장 김광철 중위의 진두지휘아래 기관총의 집중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퇴로를 확보하면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신영철 중위가 지휘하는 박격포소대와 김한영 중위가 지휘하는 기관총 제2소대는 적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낙오하였다.

제10연대 제1대대는 연대계획에 따라 08 : 00에 오봉산(△542)을 점령하고 개인호를 구축하는 한편 수색대를 경강도로에 추진시켜 적정을 탐색하면서 제21연대 제2대대의 측방을 엄호하였다. 그러나 적의 자주포가 진출한데 이어 제21연대가 철수하자 제10연대 제1대대는 이를 엄호하면서 축차로 물러서 주력과 합류하였다.

<상황도 6-9> 제8사단의 강릉 공격



한편, 전 전선에 걸쳐 전황이 점차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적 전차에 대적할 성능을 갖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갑차에 장비된 성능 좋은 무전기로서 통신유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각 사단에 1개 소대의 장갑차를 지원하였다.

동부지역에는 장갑대대 제1중대(중대장 박길용 대위)의 제3소대가 지원되었다. 제3소대는 26일 08 : 00에 장갑차 3대, 2½탄약차 1대, 3/4무전차 1대, 짚차 6대로 대오를 이루고 한남동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원주를 경유, 28일 14 : 00에 대관령 서쪽 횡계리에 도착하였다. 이때 강릉 공격에 나선 제21연대가 공격을 중지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하게 되자 사단장은 이를 엄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소대는 장갑차 3대를 강릉 방면으로 출동시켰다. 소대가 구산동을 거쳐 관음리에 도달하였을 무렵 제21연대 제2대대가 적의 포화 속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장갑차 소대는 산개하는 즉시 37㎜포와 Cal50 및 Cal30 기관총사격을 가해 제21연대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 3. 육군본부의 제천 철수 명령

제8사단은 개전당일인 25일 아침에 육본 작전국 교육과장 이치업 대령과 잠시 통화한 이래로 통신이 두절된 채 인접사단의 전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전분투하였다. 그런데 28일 14 : 00에 경찰 경비전화를 통하여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으로부터 “제8사단은 28일 중으로 원주로 철수하여 2곳을 확보할 것”이라는 육본의 작전지시가 전달되었다.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육본의 작전지시이니 제8사단은 즉각 원주로 이동하여 원주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사단이 지금 강릉을 공격중이고 접적중인데 어떻게 오늘 중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시간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다.

김종오 대령은 제6사단이 충주로 이동하니 무조건 오늘 중으로 원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명일 중으로 이동할 테니 1개 연대를 차출하여 원주를 확보하면서 제8사단의 이동을 엄호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김종오 대령은 이곳에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이 와 있으니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장창국 대령과 통화해 다음날까지 원주로 이동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나는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육본이 지금에 와서 후퇴하는 다른 사단의 전구를 인수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사단은 강릉을 탈환하고 38도선을 수복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오대산에서 유격전이라도 벌여 사단의 전투지대를 단독으로라도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육군본부의 작전지시에 순응키로 결심하였다. 그 이유는 사단이 담당한 전투지대의 고수도 중요하지만 전군이 철수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전선 정비를 위한 육군본부의 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병력손실로 전투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제21연대의 공격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원주로의 이동준비에 착수하였다.

제8사단은 6월 29일 06 : 00를 기하여 300대의 차량종대를 이루고 원주를 목표로 진부리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부대 이동의 경험이 없는 사단은 시속 5마일 안팎의 속도로 행군하였기 때문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차량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였다.

행군제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단장은 대화로 나아가 원주－횡성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로부터 그곳 상황을 확인하였던 바, 횡성이 적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원주까지의 이동거리와 행군속도를 감안한 끝에 사단이 원주에 도착하기 전에 적이 그곳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목적지를 제천으로 변경하였다.

# 제 6 절 분석 및 평가

##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동부지역 작전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릉 지역을 사수하고자 한 방어작전이었다. 38도선의 동부 해안지대를 담당한 제8사단은 사령부를 강릉에 두고, 예하 제10연대를 전방 38선 일대에, 그리고 제21연대를 후방에 배치하여 동부지역의 38선 경비와 오대산으로부터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유격대 및 잔존공비 소탕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26㎞에 이르는 38선상의 광정면을 1개 연대의 2개 대대가 경비하고, 주력은 강릉－오대산－임계－장성－북평－삼척 등지에 각각 분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사단은 사전에 마련한 방어계획에 의거한 전술전개의 겨를도 없이 육본과 좌인접인 제6사단과의 통신마저 두절된 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제8사단의 용전분투는 적측 자료에 잘 나타난다. 적은 동부지역 작전에 대한 분석에서 개전 당일 동덕리선까지 진출하려던 계획이 아군의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죽헌리－학산리, 강릉시가전, 군선강 유역 등에서 아군의 끈질긴 반격에 부딪혀 크게 고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아군의 용전분투로 인해 적은 당초 계획보다 5일을 지체한 후 삼척 점령이라는 제1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제8사단은 4일 간의 전투에서 731명의 손실을 입고 대관령을 경유 원주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단의 강릉공격은 중도에 철수로 전환하여 강릉 탈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술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의 신속한 남하를 방해하고, 평창－영월 선으로 병력을 분산투입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포항으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군 제8사단은 2개 연대를 공비토벌작전에 투입하여 전투력이 분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 혼전 속에서 적을 지연하였고 비교적 질서있는 철수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6월 29일의 병력은 6,135명이었으며 화포와 장비 등은 대부분 휴대하였다. 결론적으로 제8사단의 동부지역 작전은 개전 초기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동해가도를 통한 적의 부산 공격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전투준비태세

개전 당시 국군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하였듯이 1개 사단이 너무나 넓은 광정면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8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부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투력의 분산이 불가피하였다.

38선 방어가 주임무인 제8사단은 26㎞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불과 2개 대대로 전담시키고 그 이외 부대는 산업시설 경계 및 후방지역 방어를 위하여 광활한 지역에 전개시키면서도 해안방어를 위한 부대배치는 고려하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상륙을 허용하고 말았다. 부차적인 임무인 게릴라 소탕작전을 지나치게 중시한 관계로 주임무인 전방 및 해안 방어 임무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대배치를 하게 되어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전투력 집중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게릴라 소탕작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주임무인 정규전 수행을 고려하여 부대배치를 했어야만 했다.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의 집중 가능여부는 부대운용의 융통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비대를 확보해야만 한다. 더구나 방자는 공자에 비해 전투력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 요소의 최소한의 전투력은 예비로 할당

하여 부대운용의 융통성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38도선 방어를 담당한 제10연대는 전방에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보유하였지만, 예비대에서 3개 중대를 차출 전방부대에 배속시킴으로써 1개 중대 밖에 가용하지 않았으며, 이 1개 중대마저도 공비소탕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적이 주공으로 지향한 제7중대 지역에마저도 추가 전투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

부대의 건제 유지는 전투 간 소속감을 갖고 부대의 전통과 명예심, 상호간의 신뢰성, 원활한 지휘력 발휘를 보장함으로써 전투의지의 고양은 물론, 전투력 집중에 용이하다. 그러나 제10연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좌일선을 담당한 제1대대와 연대예비인 제3대대가 작전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이미 배속 받아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된 제1대대는 24일에 2개 중대를 강릉으로 출발시켰고, 25일 새벽에도 1개 중대를 또다시 출발시켰다. 이에 따라 6월 25일 현재 가용병력은 배속된 2개 중대와 예하 1개 중대인 반면에 강릉의 연대본부로 이동한 중대는 차량 기동한 제4중대 1개 중대 뿐이었다. 결국 제1대대와 제3대대는 모두 건제가 무너지고 병력이 분산된 채 전쟁을 맞은 것이다. 건제를 유지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면 좀더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고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강릉 지역에서 동해안을 방어하고 있던 제8사단장의 작전지휘는 건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단장은 전방의 징후가 심상치 않아 외출·외박을 자제하도록 하고, 군인 가족과 필요한 인원을 소개시키고, 물자를 소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개 연대만으로 동해안을 방어해야 하는 사단은 1개 연대를 강릉 북쪽, 나머지 연대를 삼척에 배치하여 방어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탐지한

북한군은 두 연대 사이의 정동진에 육전대를 미리 상륙시켜 두 연대를 분리한 다음 제1경비여단으로 하여금 강릉 북쪽의 연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제21연대를 내륙 통로를 통하여 북상시키고, 제10연대를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사단 병력을 보존하여 반격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침 아래 27일 14 : 00 사단 병력을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시킨 후, 28일 아침 제21연대로 하여금 강릉 탈환을 위한 반격을 명령하였다. 반격작전을 개시한 제21연대는 경포대까지 진출하였으나, 제6사단과의 통화로 원주로 철수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반격작전을 취소하고, 사단 병력을 유천리와 하진부리에 집결시켜 원주로 차량행군을 실시하였으나, 북한군이 이미 횡성에 진입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중간에 진로를 바꾸어 평창, 영월을 거쳐 7월 2일 제천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제8사단장은 전투가 하루, 이틀 한두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사단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면밀하게 취함으로써 시민과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였고, 차후에 전개된 중부전선에서의 지연전을 견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하였다. 우선 연곡천의 주저항선 편성에서 25일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혼성 예비대대를 좌일선으로 투입한데 이어 주문진으로부터 철수한 제10연대 제2대대와 광원리에서 이동한 제1대대 주력이 우일선으로서 판교리 일대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사단 혼성대대를 제10연대에 배속하지 않고 지휘를 이원화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가 연대장 지휘하에 공격차 연곡천에 투입되었을 때 동일지역인 주저항선상의 지휘계통이 3원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사단장이 진두지휘에 나섬으로써 형식상의 지휘계통은 단일화한 것이 되겠지만 동일한 작전 임무를 가진 사단 혼성대대는 제10연대에 배속되었어야 했다.

### 2) 정 보

제8사단은 전쟁 발발 전 적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를 획책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직접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적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전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

38선 경계지역에서는 남침 1개월 전부터 북한 병사들이 1개월 뒤에 보자고 말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개전 당일에는 내일 아침에 보자는 말까지 하였으며, 15일 전부터는 동해가도를 따라 차량들이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고 1주일 전에는 동해안으로 남하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1주일 이내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연대를 통해 사단에 보고되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다만 장병들의 외박·외출을 금하는 정도였다.

### 3) 기 동

개전 당일 38선 경비를 담당한 제10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가 좌일선인 제1대대와 교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는 강릉 남쪽 46㎞인 삼척에 위치하였는데 그나마도 5개 중대가 후방 경비 또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전 당일 가용병력은 제10연대 1개 중대와 제21연대 2개 중대 뿐이었다.

예비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주저항선인 연곡천 방어시 사단 공병대대는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여, 측방 위협 제거를 위해 배치된 공병 1개 중대를 차출 운용하다가 이를 철수로 오인한 병사들의 파상적인 철수로 주저항선이 맥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삼척에 잔류하였던 제21연대 후발대의 기동에 있어서, 제3대대는 강릉으로의 이동로인 임계리에 위치한 제11중대를 삼척으로 이동시켰다가 또다시 임계리를 경유하여 강릉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출발시간이 지연되어 주저항선이 무너질 무렵에야 연곡천선으로 진입하게 되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강릉에 이르는 최단 경로인 동해가도가 상륙한 적에 의하여 이미 차단된 이상 기동로는 백봉령－임계리－삽당령－구산동－강릉뿐인데, 제11중대를 삼척으로

복귀시킨 것은 분명히 이동계획에 착오를 범한 것이었다.

### 4) 화 력

제8사단은 정면 및 동해안으로 상륙한 적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자 제18포병대대의 2개 포대를 사천선에 위치시키고, 1개 포대를 강릉 남쪽 운산리에 위치시켜 보병부대를 지원하였다. 개전 당시 대대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6·25를 맞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전투에 임하였다. 또한 지휘관은 철수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번줄과 인식표를 땅에 묻으면서까지, 필사즉생의 일념으로 싸웠다. A포대 지휘통신 선임하사인 최서종 중사는 유선방차통을 기필코 찾아오겠다는 책임감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전우들의 투혼에 불을 지폈고, 관측병인 한명화 하사는 적이 몰려오는 적진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포탄을 유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심우택 일병은 포탄이 비 오듯 하는 포진지에서 포를 견인하고 나오다 전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포가 감자밭에 빠져서 못나오는 1번포와 3번포에 대해 장비거부 대책으로 타이어펑크 및 폐쇄기 공기를 제거하고 나온 점과, 당시 천마봉 일대 울창한 삼림의 지형여건을 활용, 순발신관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맞고 파열하게 함으로써 시한신관 효과를 얻도록 한 것 등 창의적인 포술을 발휘하였다.

무엇보다도 제18포병대대는 비교적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관측, 사격지휘, 전포, 측지, 통신 등 주특기 교육에 대한 체계가 서있지 않았던 포병 창설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초급장교들의 노력으로 팀훈련과 각종 사격제원의 준비, 그리고 각종 장비의 가동상태 등 준비성이 뛰어났다.

한편 제10연대의 57㎜ 대전차포중대는 적 제945육전대의 안목 상륙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적 상륙부대가 강릉으로 북상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아군의 군선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적의 남북 협공 계획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 5) 방 호

38도선 방어작전시 제2대대장은 전방 3개 중대 중 1개 중대로부터 후퇴 중이라는 무선보고를 받았을 뿐, 여타 중대는 무선통신이 되지 않아 다른 중대도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 및 아군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휘 조치함으로써 전투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

제10연대 제5중대장은 대대장과 통신이 두절되어 적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중대를 철수시켜 38도선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 6) 전투근무지원

강릉의 남녀 학생들이 동원되어 작렬하는 적 포탄 속을 뚫고 탄약을 운반하고 음료수와 빵을 나누어 주며 분전하는 제8사단 용사들을 지원하였다. 당시 탄약 운반을 위해 강릉의 남녀 학생까지 지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차량이었다. 탄약소대에 배당된 소수의 차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만한 탄약 소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사단장의 결심에 의해 행정서류 운반차까지 탄약 운반차량에 동원함으로써 탄약운반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한편, 공병대대는 해송천 부근의 목교와 화상천 부근의 교량을 적절한 시간에 폭파하여 적 자주포의 기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 주 (註)

1) 강원도, 『강원도사』(역사편), 1995, pp. 104-112.
2) 일명 '경강도로'라고도 한다. 당시 경강도로는 제8사단 작전 지역 내에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3) 강원도, 위의 책, pp. 158-16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 : 中·東部戰線篇』, 1982, pp. 191-193.
4) 1922년 중국 봉천에서 출생. 중국 남경중앙군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한 후 국민당군 소좌까지 진급. 광복 후 1946년 2월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중위로 임관하여, 1946년 11월 제1연대장, 1947년 12월 제1여단 참모장, 1948년 6월 제13연대장, 1948년 8월 제4연대장, 1948년 11월 제6여단 참모장, 1949년 1월 제2여단 참모장, 1949년 8월 제16연대장, 1949년 9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 등을 역임한 후 1950년 6월 20일 제8사단장에 부임. 사단장 부임 당시 계급은 대령이었으며, 1950년 9월 1일 준장으로 진급. 이후 제9사단장, 제7사단장, 제2훈련소장, 제5관구 사령관, 제1군 부사령관, 제3·5군단장, 육군 정보참모부장, 육군대학 총장을 거친 후 1962년 3월 육군 소장으로 예편. 예편 후 멕시코·터키·호주 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회의원 활동 중 1975년 12월 1일 사망(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pp. 342-343).
5)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上), 1995, p. 142.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75.
7) 북한군의 공격준비사격 시간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라주바예프보고서』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40분경부터 적 토치카에 대한 사격을 실시한 후에 여단 예하부대들이 공격으로 전환하였다"라고 하여 05 : 40을 공격준비사격 시간으로 기술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75). 반면에 국군 제1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낸 무선 교신 내용에 의하면, "6월 25일 05 : 00에 장리, 명지리, 잔교리 방면에서 적의 포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무선 교신 내용은 소련군사고문단 통역장교인 무르찐(Murzin) 중위가 국군의 무선 교신 내용을 도청해 기록한 것이다(「6월 25일 07 : 20, 어성전리의 중대장으로부터 대대장에게」, 『무르찐 보고서』, p. 4). 『라주바예프보고서』의 경우, '국군의 공격에 맞서 반격작전을 펼쳤다'라는 공산군측의 공식적인 전쟁 시나리오에 의거해 기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된 시간은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무르찐 보고서』의 내용은 방어자인 국군의 긴박한 전황보고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주바예프보고서』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8) 제1경비여단은 전쟁 직후 제8사단으로 증편,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전선에 투입된다.
9) 제5사단은 제2군단의 제2제대로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이 중 제10연대와 1개 포병대대, 1개 자주포포대가 제1경비여단에 배속되어 최초 동해안지역 공격에 투입되었다.
10) 1949년 5월에 남한에서 월북한 표무원(表武遠)과 강태무(姜太武)가 인솔하였다.
11) 제766부대는 8월 17~19일 포항지역에서 큰 손실을 입고 제12사단에 흡수된다(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1989, p. 38).
12) 기존 전사에서는 육전대의 부대 통상 명칭을 '549부대' 또는 '945부대'로 혼용하였다. 『한국전쟁사』 제1권에서는 '549부대'로, 『북괴군 특수부대』에서는 '945부대'로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소련군 총참모부의 *Zhurnal boevykh deistvii v Koree s 25 iiunia 1950 g. po 31 dekavria 1951 g.*(이

하 '조선에서의 전투일보')에 의하면, 동해안 지역 상륙부대로 참가한 육전대의 부대 통상 명칭은 '945부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2003, p. 47 참조). 한편, 제945육전대는 1950년 8월에 해체되어 제24여단(제249부대)에 통합된다(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p. 38).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290-291.

14) 오백룡(吳白龍, 1914~1984) : 1914년 함북 회령 출생.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 가담. 광복 직전에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참여. 1949년 12월 38경비 제1여단장 부임. 제8사단장 역임. 1958년 2월 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내무성 부상 겸 호위총국 국장. 1963년 민족보위성 부상. 1968년 7월 대장 진급, 12월 조선노동당 군사부 부장, 1969년 노농적위대 사령관. 197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80년 정치국 위원. 1984년 4월 6일 사망.

15) 오진우(吳振宇, 1917-1995) : 함남 북청 출신으로 소련 보병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6·25전쟁 당시 제766부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1954년 제3사단장, 1961년 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1969년 1월 군 수뇌부 숙청을 담당했으며, 그 공적으로 총참모장에 취임했다. 1976년 이후 19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지내는 등 1995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 있었다.

16) 제945육전대장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1951-52년 유격대 사령관으로 널리 알려진 길원팔(吉元八) 대좌가 육전대를 지휘한 것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17) 제1경비여단은 38선 경비 임무 이외에 국군 방어시설 탐지와 38선 일대 지형정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 국군 제8사단과 수시로 고의적인 충돌을 야기해 국군의 경계 상태 탐지 및 훈련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1경비여단은 게릴라들의 남파 및 북상 엄호 임무도 수행했다. 전쟁 발발전 이 지역에서는 양양의 인민유격대 훈련소를 통해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 2,400명이 총 11회에 걸쳐 남파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pp. 512-516).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174-175.

19) 위의 책, pp. 174-175.

20) 위의 책, pp. 157-158.

21) 제5사단은 그 전신이 중공군 제164사단이었다. 중공군 제164사단은 1948년 10월 장춘(長春) 함락 후 장춘에 주둔하고 있던 중 1949년 7월 하순 북한으로 입북하라는 중공군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당시 중공군 제164사단 부사단장이었던 김창덕(金昌德)의 지휘하에 한적(韓籍) 병사 7,500명이 1949년 8월 23일 회령을 거쳐 나남에 도착하였다. 중공군 제164사단은 포병연대 없이 3개 보병연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북 후 재편과정에서 화포 및 각종 장비와 병력 3,500명을 추가로 보충 받아 북한군 제5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사단 예하에는 제10, 제11, 제12연대가 있었다. 제5사단 병사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간 국공내전에서의 전투경험을 가진 비교적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사단은 소련의 전술교범에 의거해 사단공격 훈련을 마치고 평가회에서 북한 수뇌부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최강을 자랑하는 정예사단이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192-193; 장준익, 앞의 책, p. 456).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35. 제5사단 공병대대의 경우, 6월 20일 양양을 향해 나남을 출발했으며, 24일에 양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MA, RG 6, box 81, 「북한군 심문조서(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ATIS, 1950. 8. 25).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75.

24) 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pp. 229~231.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 174.
26)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장준익, 앞의 책, p. 120.
2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1, 1977, p. 193.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1982, pp. 196-198.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pp. 672-673.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195.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북한 괴뢰군의 남침』 2, p. 60.
32) 이때 제21연대의 1개 대대는 사단 예비로 강릉비행장에 주둔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3) 이 경우에는 제21연대장이 우일선 부대장이 된다.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197-198.
35) 위의 책, pp. 194-195.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p. 194-200.
37) 당시 제8사단장 이성가의 증언(1965. 3.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 145.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p. 174-175.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03.
41) 당시 제2대대장 조원영 소령 증언(1977. 3.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 202.
43) 「6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무르찐보고서』, p. 7.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 203.
45) 당시 제10중대 소대장 崔昌柱 증언, 당시 제7중대 소대장 金永俊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 202.
47) 당시 제5중대 제2소대장 이홍진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48) 제5중대는 당시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대대와 무선을 통한 연락이 불가능하였으며, 인접부대인 제6중대의 철수로 인해 유선마저도 유지되지 않았다. 이에 장교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퇴로가 이미 차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경강도로로 나가 강릉으로 진출하자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는 철갑령-송천을 거쳐 월정사를 목표로 후퇴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03).
49) 제1대대는 제9, 제11중대가 38도선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예하 각 중대는 소위 기관단총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 중에 있었다. 이 작전이 20일에 일단락되자 연대계획에 따라 26일부로 연대예비인 제3대대에 작전임무를 인계하기 위해 23일부터 교대준비에 착수하였다. 즉 제4중대는 선견대로서 24일에 이미 강릉으로 이동하였고, 제2중대는 제2대대에 배속 중인 제10중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두로봉-철갑령 일대를 수색하면서 주문진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그리고 제1중대는 이날 06:00에 개전사실도 모른 채 강릉을 목표로 광원리를 출발하였다. 다만, 대대예비인 제3중대만이 오대산에서 격멸전을 벌이고 있었다.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 204.
51) 당시 제1소대장 맹상도 소위의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52) 제11중대는 전쟁 발발 당시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유일하게 진지를 확보한 중대였다.
53) 당시 제1대대장 박치옥 증언(1966. 7.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54) 당시 제8사단 작전참모 정진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55) 당시 제8사단장 이성가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00.
57) 이는 당시 영월탄광에 일본산 신제품 트럭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릉 부근의 차량을 동원하였을 때의 시민들의 원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pp. 203-204.
59) 위의 책, pp. 208-214.
60) 위의 책, p. 215.
61) 제10연대 제2대대의 정면을 돌파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만월산(△628)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악지대로 우회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적의 후방침투를 우려하여 2개 중대를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즉각 출동시켰다.
62) 「09 : 00 제1대대장이 제10연대장에게」, 『무르찐 보고서』.
63) 당시 제1대대장 박치옥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박치옥 대대장은 갈천리 비둘마을에서 서면 면장으로부터 "새벽에 적의 기습을 받아 격전이 벌어지자 옷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주민들이 대피하였으며, 많은 수의 북한군이 계속 남하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64) 민경중 중위를 대대본부로 보낸 이후 박치옥 소령은 분산 철수 중인 20명의 병사들을 수습하여 때마침 후퇴한 어느 소위의 지휘아래 구룡령을 확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병력은 적의 포탄이 낙하하기 시작하고 많은 병력이 근접하자 흩어지고 말았다(당시 제1대대장 박치옥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p. 175-176. 개전 당일 동덕리 선까지 진출하기로 되어 있던 적이 공격을 계속하지 못한 아군의 적절한 부대배치와 공격이 주효했기 때문이었다. 국군이 예상외로 선전하자 적은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를 즉각 공격에 투입시켰다.
66) 행정 차량을 포탄운반차량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당시 탄약하사관이었던 이석권(李錫權) 상사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석권 상사는 군수품과 행정문서를 적재한 차량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때마침 연병장에 있던 사단장에게 달려가 탄약운반차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일개 하사관이 사단장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인 이 사건으로 이석권 상사는 헌병에 체포되어 총살에 처할 위기에 놓였으나 그의 우국충정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제18포병대대는 충분한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17).
67) 당시 제8사단장 이성가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68) 이에 앞서 제3대대는 26일 광원리에서 교대차 이동한 제1중대와 안인진에서 올라온 제4중대가 연곡천선으로 진입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 제2, 제4, 제12중대를 통합지휘하여 판교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69) 당시 제11중대장 이춘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70) 이 공격과 관련해 라주바예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월 27일 새벽 5시, 포병과 박격포가 짧은 시간 동안의 기습 사격을 실시한 후 보병이 적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적의 화력체계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보병은 몸을 숨긴 채 사격전을 전개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 176, p. 311).
71) 당시 제2대대장 조원영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72) 25일 대대와 통신이 두절된 채 진부리로 단독 철수한 제5중대는 26일 18 : 00에 강릉에 도착한 다음 연대예비로 전환되어 강릉농업학교에 대기중이었다가 산대월리로 진출하였다.

73) 육철식, 앞의 책, pp. 173-174.
74) 삼척 방면으로 이동한 병력은 이동중 진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편』, p. 216).
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 174.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205-206.
77) 제3대대는 8개월에 걸친 게릴라 소탕작전이 5월 초순에 일단락되자 제11중대(중대장 맹보영 중위)를 임계리에, 제9중대(중대장 최영구 중위)를 장성에 각각 위치시켜 탄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 경비와 잔존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194-195.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pp. 214~216.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pp. 216-217.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p. 217.
82) 현내리 전투는 비록 가벼운 교전이었으나 적을 7일간 밤재에 묶어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pp. 231-237).
83) 당시 제1중대장 양보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198-199.
85) 군선강은 만덕봉(萬德峰, △1,035)으로부터 강릉 남동쪽 12㎞ 지역을 북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강가에는 방어에 유리한 능선이 연결되어 있다.
86) 구산동—대관령—진부리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이던 제10중대는 '강릉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중대의 강릉 집결'이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13 : 00에 사령부에 도착한 후 14 : 00부로 제10연대에 배속되어 모전리에 진출하였다.
87) 제2대대는 10 : 30에 사단으로부터 '즉각 강릉에 집결하라'는 작전지시와 함께 6대의 GMC가 지원되었다. 대대장 조규영 소령은 연락이 유지되는 제6중대를 우선 강릉으로 진출시키고 제7중대에는 연락병을 보내 병력이 집결되는 즉시 강릉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 병력이 각 소대별로 분산된 제6중대는 16 : 00에 창동에 집결하는 즉시 식사를 끝내고 출발하여 18 : 00에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이때 시달된 사단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6중대는 20 : 00에 언별리로 진출하였다. 당시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는 개전사실도 모른채 게릴라 소탕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삼척의 대대본부에 있던 제5, 제8중대는 제1대대와 함께 강릉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11).
88) 당시 제1중대는 옥계방면으로 추진되어 망운산에 방어진지를 확보하고 적정을 탐색 중에 있었다. 제1대대장은 통신이 유지되지 못한 제1중대에 2명의 통신병을 보냈으나 끝내 제1중대와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89) 당시 제1중대장 양보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211-212, p. 219.
91) 위의 책, p. 229.
92) 이성가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93) 김동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94) 맹보영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95) 장경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록』.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편』, pp. 258-259.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p. 177.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233~234.



# 제7장 수도 서울 방어작전과 함락


| | |
|---|---|
| 제1절 | 창동-미아리-시가지 전투 |
| 제2절 | 정부의 철수와 북한군의 서울 점령 |
| 제3절 | 국군의 한강이남 철수 |
| 제4절 | 서울방어작전 종합 평가 |

# 제 1 절 창동—미아리—시가지 전투

## 1. 전투 개요

수도권 방어의 최후저지선인 창동—미아리 전투는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부터 서울이 함락되는 28일까지의 전투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전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및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와 북한군 제3·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1)간에 서울 점령을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전투이다.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와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가 의정부 함락 이후 긴급 설치되었다. 그러나 병력은 1개 연대 병력에도 못 미쳤고 화력도 105㎜ 곡사포 6문을 비롯하여 대전차포 8문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작전지역 내에는 서울—원산을 잇는 3번 도로와 경원선이 평행을 이루며 남북으로 이어졌다. 도로 동쪽에는 수락산(638고지)과 불암산(507고지)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태릉과 서울 동측 외곽에 이르고, 서쪽에는 도봉산(717고지)과 북한산(716고지)이 솟아 있고, 그 남쪽 끝은 중앙청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북악산(342고지)이 있었다. 동서의 양 고지군은 종격실을 이루면서 의정부 회랑을 둘러싸고 있어 방자(防者)가 이 양측 고지를 방어한다면 적의 보병과 전차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였다. 그러나 반대로 적이 이곳을 점령할 경우 방자는 한강 남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지세(地勢)였다.

이 지역의 기동로는 3번 도로 이외에도 동으로 퇴계원(서울 동북쪽 8㎞)에 이르는 312번 도로가 태릉을 통하여 서울로 이어지고, 서로는 벽제(서울 북서쪽 14㎞)에 이르러 1번 도로와 교차되며, 송추(서울 북쪽 13㎞)에서 310번 도로로 분기되어 구파발(서울 북서쪽 6㎞)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도로는 기계화부대의 접근이 양호한 도로망이었다.

또한 서울 남쪽에는 동·서를 관류하는 한강(하폭 1.6㎞)에는 2개의 인도교와 3개의 철교가 있어서 서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였다. 그 중 한강교와 3개의 철교는 서울 중심부와 직결된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그리고 광장동－천호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는 한강상의 주요 교량역할을 하였다.[1)]

창동－미아리 전투는 먼저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유재흥 준장이 1개 연대병력에 불과한 제2사단(-)과 제7사단(-)을 통합 지휘하여 창동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어 창동방어선이 붕괴된 27일부터는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과 제7사단장 겸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이 미아리 삼거리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책임지역을 분담하여 28일 새벽까지 서울 최후방어선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후 적이 서울시내로 진입하자 공병특공대와 수도경비사령부 잔류부대가 한강교가 폭파된 상황에서 서울 시가지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에서 국군은 대부분 개인 및 소부대 단위로 개인화기만을 휴대한 채 한강을 도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새로 설치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국군 후퇴 병력을 수습하여 혼성부대를 편성한 후 한강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 2. 북한군과 국군의 상황

### 1) 북한군 상황

#### (1) 공격부대 임무

북한군 남침공격계획에 의하면 의정부－포천 정면에서 서울을 공격하는 적 제4사단은 3번 도로에서 국군을 견제하고, 제3사단은 그 우익에서 43번 및 47도로를 따라 서울을 동측에서 포위하는 것이었다. 이때 제4사단의 좌익에서 제1사단이 개성－문산－서울에 이르는 1번 도로로 진출하여 서울 서측에서 국군을 양익

포위 하도록 하였다. 이때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1)은 2일차에 투입하여 신속히 한강교를 점령하여 한강이북의 국군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의정부－포천 지역 정면에서 공격하던 북한군은 제1군단 예하의 제4보병사단(적성－3번 도로 좌측)과 제3보병사단(제4보병사단 좌측지역－사직리),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으로 이들 부대는 전쟁개시 1일차에 동두천과 포천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3번 도로 및 43번 도로를 따라 계속 공격을 하여 국군 퇴로를 차단한 후 제2단계 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군 전투상황은 공격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6월 27일 북한군 제4사단은 서울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3번 도로를 따라 수유리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다. 제3사단은 서울 동측에서 공격하기 위해 43번 도로를 따라 광진구 화양동 부근까지 진출해 있었다. 제105전차여단(-1)은 서울 동북쪽 4㎞의 정릉 유원지 부근까지 진출하였다.[2] 또한 43번 도로로 기동했던 제107전차연대도 25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최초 47번 도로로 기동하였다가 도로의 유실로 역행군하여 다시 43번 도로로 기동했던 제109전차연대는 26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에 도착하였다. 3번 도로로 기동했던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도 국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27일 새벽에야 의정부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3]

이에 제105전차여단장은 제109전차연대에게 수유리를 최근임무계선으로 하고, 그 후 서울까지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임무를 부여하였다.[4] 그러나 김일성은 6월 27일 의정부 북쪽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제105전차여단(-)에게 한강교 점령 대신 중앙청을 비롯한 서대문형무소와 방송국 등 주요 시설들을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5] 이로써 제105전차여단의 임무는 최초 공격계획과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2) 전투 편성

의정부를 점령한 후 수도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 공격부대는 최초 그들

의 공격계획대로 2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1)이 의정부-서울 축선에 배치된 국군을 집중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최초 부대 편성대로 적 제4사단은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제3사단도 제7·제8·제9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제105전차여단(-)은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 제2대대가 한강교 대신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앙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주요 건물에 대한 점령임무를 받고 행동하였다.

이때 이 정면에 투입된 적 화력 및 전차는 보병 2개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병 18개 대대에 122㎜ 곡사포 24문, 76㎜ 곡사포 84문, 120㎜ 박격포 54문, 76㎜ 자주포 24문의 지원과 전차 93여 대의 지원을 받으며 서울 점령을 위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 2) 국군 상황

### (1) 의정부 함락 이후 육군본부 조치

육군본부 참모부장(김백일 대령)은 의정부가 함락되자 육본 내에서 엄선된 장교 100여 명으로 장교연대를 편성하고, 연대장에 공국진 중령을 임명하였다. 장교연대는 26일 21 : 00에 창동에 있는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로 출동하였다.[6] 그러나 무기 및 장비부족, 소대장급 이상 장교의 자질 부족, 그리고 낙오병으로 구성된 병사들로 인해 곧 해체되었다.[7]

육군본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최초 제5사단(사단장 이응준 소장)을 제1사단 방어지역인 문산 방면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에는 가용병력을 모두 서울 이북지역으로 출동시켰다. 이에 제15대대 제2대대(대대장 안광영 소령)와 제20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를 제20연대장(박기병 대령)에게 미아리의 구릉지대에 배치하여 창동 방어선의 종심을 보강하도록 하였다.[8] 또 가평에 출동했다가 복귀한 제8연대(연대장 서종철 중령) 1개 대대를 청량리 북쪽 143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26일 야간에 서울에 도착한 제16연대

제3대대(대대장 대리 최민섭 대위)도 창동선으로 직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병학교장(엄홍섭 중령)에게는 창동－미아리간의 교량에 대한 폭파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참 및 경리부대를 동원하여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육군본부는 26일 07 : 00부로 육본전방지휘소장에 미 지휘참모대학 유학 대기중인 강문봉 대령(전 작전국장)을 임명하였다. 전방지휘소는 의정부 전선 상황을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이 곳에 배치된 국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을 협조 및 통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9] 전방지휘소장에 임명된 강문봉 대령은 최초 공릉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휘소를 설치한 후 국군 사단의 전황파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창동에 있는 노해면지서로 지휘소를 옮겼다. 전방지휘소는 26일 17 : 00에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이곳에 사령부를 개설함으로써 함께 행동을 하게 되었다.

### (2) 전선 부대의 재편성

의정부에서 철수한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26일 19 : 00 육군본부 전방지휘소가 설치된 창동의 노해지서에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으로부터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 이로써 유재흥 사령관은 제2사단을 포함한 이 지역에 투입된 전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신망이 마비된 관계로 가용부대의 소재와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유재흥 사령관은 육군본부 연락장교단장 이용문 대령에게 각 연대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고 각 연대장을 지휘본부로 소집하도록 하였다.[10] 이에 따라 27일 04 : 00까지 지휘본부에 도착한 지휘관은 제5연대장(최창언 중령)과 제1연대장(함준호 대령) 뿐이었다. 한편 26일 21 : 00 창동에 도착한 장교연대장(공국진 중령)에게는 낙오병을 수집하여 부대를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27일 08 : 00경 유재흥 사령관이 파악한 창동 지역에 있던 아군 부대는 모두 5개 연대였다. 그러나 각 연대 병력은 300명에서 70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5개 연대라고는 하지만 실제 병력은 1개 연대에도 못 미쳤다. 이때 제1연대

(-)가 우이동(창동 서북쪽 4㎞)에 있었고, 제3연대(-)가 92고지(수유리)에, 제5연대(-), 제16연대(-)가 278고지(수락산 서남단)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 제25연대(-)는 백석천에서 철수한 후 우이동의 제1연대 근처에 집결해 있었다.[11]

한편 제9연대(연대장 윤춘근 중령)가 제1대대(대대장 유환박 소령)와 함께 26일 16 : 00 태릉으로 철수하였다. 생도대대는 26일 내촌에서 교전을 벌이던 중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태릉으로 철수하였다. 21 : 00경 사관학교에 복귀한 생도대대는 우선 1개 중대로써 93고지(당시는 92고지라 호칭)와 학교 주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게 한 후 재편성을 하였다. 제9연대 제1대대는 불암산(태릉 북쪽 3㎞) 동남쪽의 210고지를 점령하여 퇴계원 방향으로 공격이 예상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창동 방어선에 집결한 보병부대의 장비는 소화기뿐이었다. 다행히 포병학교장 대리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105㎜ 곡사포 6문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었다.[12]

## 3. 창동 방어선 전투

### 1) 방어선 형성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과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 강문봉 대령은 6월 27일 04 : 00에 백석천 저지선이 무너지고 04 : 30경 적 전차가 창동선까지 진출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었다. 05 : 00경 채병덕 총참모장이 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채병덕 총장은 의정부 탈환작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 역습의 발판이 될 백석천 저지선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고 유재흥 사령관에게 “창동선에서 적을 저지격파하고 공세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3]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선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유재흥 사령관은 수락산 서남단-우이동에 이르는 분지에 저지선을 편성할 것을 구상하고 예하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나는 의정부방면의 모든 사단 의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창동선에서 적을 저지 격퇴한 후, 공세로 이전하려 한다.
② 제5연대(-)는 제16연대를 통합하여 샘말－158고지 간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③ 제3연대(-)는 154고지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④ 제25연대(-)는 우이동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⑤ 포병학교 포병대대는 71고지 남단에서 사령부를 일반 지원하라.
⑥ 제1연대(-)는 사령부 예비가 되어 최초 71고지에 집결하여 역습하여 대비하라.
⑦ 공병학교(공병대)는 각부대의 공병을 통합하여 창동－미아리 간의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적 전차가 교량상에 이르면 폭파하라.[14]

이에 따라 각 부대는 책임지역에 부대를 전개하였다. 제25연대 제2대대는 우이동 남쪽 무명도로 서쪽 산기슭을 점령하고 소귀고개에서 출몰하는 북한군의 유격대의 침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제3연대(-)는 62고지 일대에, 제5연대(-)는 3번 도로 서쪽 구릉지대에, 제16연대(-)는 제5연대 우측의 3번 도로 동쪽 구릉지대를 점령하였다. 예비로 편성된 제1연대는 71고지에 집결하여 사령부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역습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병학교 포병대대는 교장대리 김계원 중령의 지휘하에 제2교도대대 105㎜ 6문을 71고지 남쪽에 배치하였다.[15] 제2사단과 제7사단 및 공병학교의 공병으로 혼합 편성된 공병대는 공병학교장(엄항섭 중령)의 지휘하에 교량파괴반을 편성하여 창동－미아리간의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적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26일 밤 창동에 도착한 육군본부 장교연대장(공국진 중령)은 유재흥 사령관에게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장교연대장은 제2대대(대대장 변응오 소령)를 3번 도로의 동측에, 제3대대(대대장 장호강 소령)를 그 서측에, 제1대대(대대장 진용곤 소령)를 중앙에 배치하여 낙오병을 흡수하여 부대편성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부연대장 신원식 소령에게는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16] 그러나 대부분의 낙오병은 비무장인 장교연대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총참모장은 낙오병을 전원 소속

부대로 인계하도록 하고, 장교연대는 해산시켜 사령부와 각 연대에 수명씩 배치하여 연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이용문 대령이 지휘하는 연락장교단에 통합시켰다.

이렇듯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의정부-서울간의 3번 도로와 도봉산 줄기를 동남으로 횡단하여 우이동에 이르는 무명도로에 중점을 두고 4개 연대를 일선으로 전개시켰다. 그리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하여 사령부 부근에 배치하여 창동방어선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병력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한 연대장이 다른 연대를 통합 지휘하는 등 지휘상의 혼선을 빚게 되었다. 또한 일선부대 장병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탄약의 재보급과 급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육군본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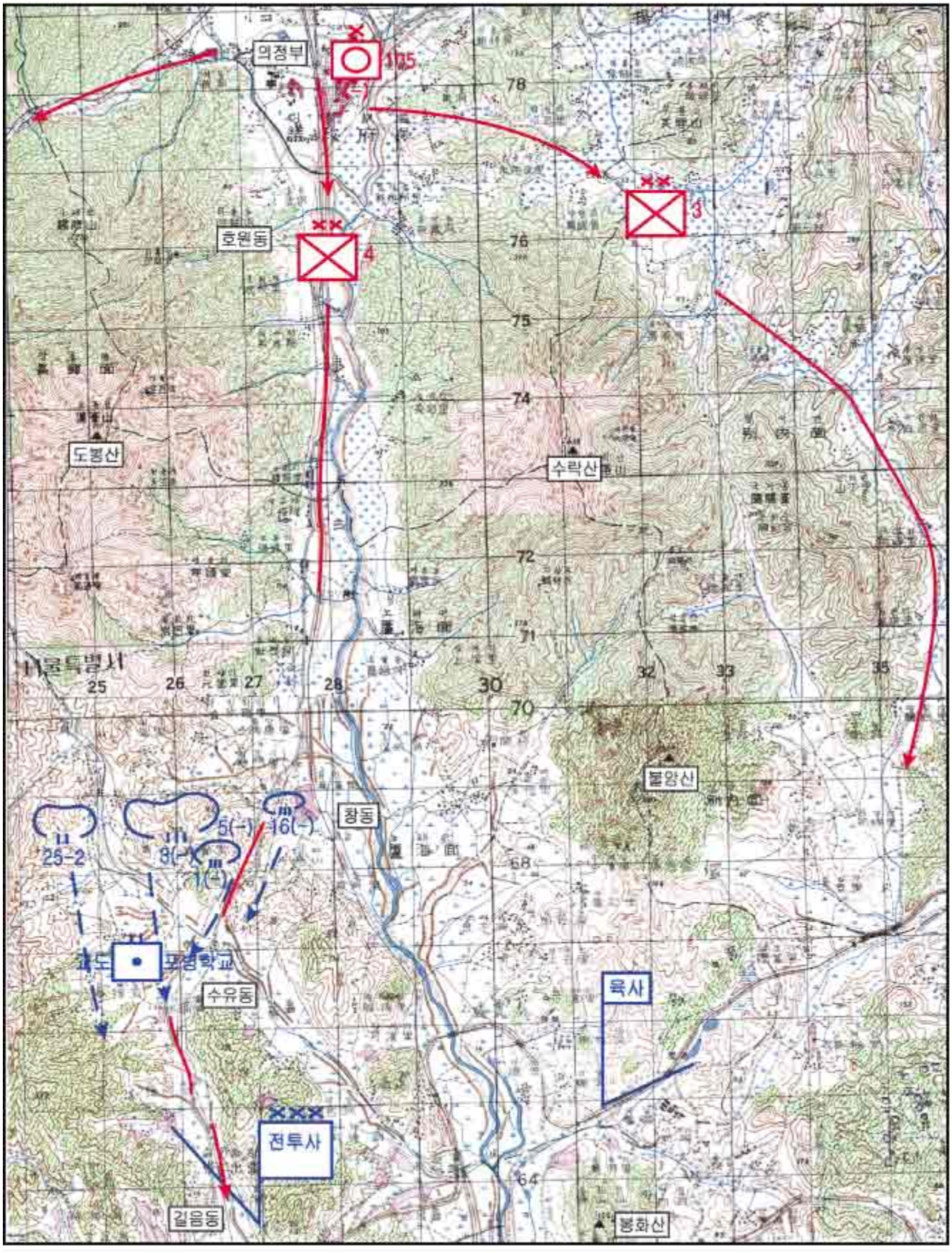
### 2) 전투 경과

26일 저녁 총참모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은 우선 적정을 수집할 목적으로 전투정찰대를 의정부 방향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7일 이른 새벽 국군 제25연대 낙오병을 주축으로 혼성 편성된 2개 중대 규모의 전투정찰대(제25연대 제3대대장이 지휘)를 적정 수색을 위해 파견하였다.

27일은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가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04 : 00시가 조금 지났는데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어두웠다. 이런 속에서 정찰대는 엉겁결에 수 미상의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는 성황당초등학교로 들어가고 말았다. 여기에서 불의의 사격을 받은 정찰대는 정찰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분산 철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투정찰대가 창동방어진지로 복귀하기도 전에 백석천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전차부대는 방어선 정면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하반신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개인호가 일렬로 연결된 창동 방어선은 북한군 포격에 매우 취약하였고 방어종심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진지에 배치된 국군 105㎜

<상황도 7-1> 창동 전투


의정부
105
3
4
호원동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창동
수유동
포병학교
육사
전투사
길음동
봉화산
25-2
5(-)
16(-)
8(-)
1(-)
서울특별시
25
26
27
28
30
32
33
35
78
76
75
74
72
71
70
68
64

곡사포 6문이 접근하는 북한군 전차부대 대열에 포격을 가하자 보병부대도 일제히 소총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보병과 전차와의 교전에서 대전차화기로 57㎜ 대전차포 5문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북한군 전차대열은 지난 이틀간의 전투에서도 그랬듯이 국군 포화에 관계없이 3번 도로를 따라 계속 남진하였다. 북한군 기세에 눌린 국군은 이때 얼마 남지 않은 실탄을 모두 사격해 버리고 하나 둘씩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창동 방어선이 붕괴될 무렵 국군 일선 전투부대 뒤에는 독전대와 헌병을 배치하여 병력철수를 통제하고 낙오병을 수용하여 전열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탄약과 급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각 부대와 연락이 유지되지 않자 각 부대는 분산철수하게 되었다.

전황을 주시하던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창동 방어선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각 부대를 철수시켜 미아리고개에서 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각 부대 연락장교에게 “미아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후 11 : 00에 사령부를 149고지(창동 남쪽 2㎞)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황의 급변으로 명령을 받은 연락장교들은 이를 해당부대에 전달하지 못하고 직접 사령관의 뒤를 따르게 되고 독전대와 낙오자통제선에 배치되었던 헌병들도 흩어지고 말았다.[17] 결국 창동 방어선에 배치된 일선 전투부대는 분대·소대·중대 단위로 그 후퇴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군은 북한군에게 결정적 피해도 주지 못한 채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

### 3) 전투 결과

창동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일선에 배치된 전투부대들도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국군 제5연대(-)는 불암산-태릉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그 좌우측에 배치된 국군 제16연대(-)와 제3연대(-)는 태릉·미아리·삼각산 등지로 분산되었다.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6문의 105㎜ 곡사포는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 대열을 분산시키고 진출을 둔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1

시간이 지나자 포탄이 떨어지고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자, 포차와 더불어 미아리고개로 철수하게 되었다.

71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연대(-)도 북한군이 포격을 개시할 무렵 연대장이 오봉산에서 철수중인 병력을 수습하려고, 연대 작전주임과 통신대장을 대동하고 우이동으로 향하던 중 수유리 부근에서 북한군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기습적인 사격을 받았다. 그 결과 연대장 함준호 대령과 호위헌병이 27일 11 : 30분 전사하였다.[18] 연대장이 전사한 얼마 후 제1연대 방어진지는 돌파되었고 연대는 부연대장 이휘권 중령이 지휘하여 미아리로 철수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역습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였던 창동 방어선이 힘없이 무너진 것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미아리－홍릉 선상에 후방에서 증원된 국군 제5사단(-) 2개 대대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8연대 1개 대대를 사전에 종심 배치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어 창동 방어선에서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미아리 방어선을 보강할 수 있었다. 태릉에는 국군 제9연대(-)와 사관학교 생도대대가 불암산－93고지 방어선에서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19]

한편 창동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149고지 서쪽 기슭(현 신일고등학교 부근)에서 진출을 멈춘 후, 전투정찰대를 파견하여 남쪽 일대의 국군 상황을 정찰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군은 의정부를 점령한 후 보여준 낮은 수준의 부대지휘와 포병의 혼잡스러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제3・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 예하부대들 간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즉, 각 사단 예하 포병 전부가 1개 도로로 몰려 혼잡한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소속 사단 보병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국군은 차후 방어진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6월 28일 새벽 선임 사단장들의 노력으로 포병의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며, 28일 미명을 기하여 포병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공격을 실시하게 되었다.[20]

반면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27일 12 : 00경 지휘소를 미아리고개로 이동하고 철수병력을 규합하여 미아리고개 좌우측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은 본격적으로 서울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 방어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 4. 미아리-회기동 방어선 전투

### 1) 방어선 형성

미아리-회기동 방어선 전투는 2개의 전투사령부가 방어책임지역을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제7사단장 겸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미아리고개 오른쪽 지역을 방어하기로 하였고, 제5사단장 겸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이응준 소장이 미아리고개 왼쪽지역을 방어하기로 합의하였다.[21]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6월 25일 08 : 00경 사단장 관사에서 육군본부로부터 온 긴급전문 한통을 받았다. "공산군이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했다. 제5사단은 12시까지 용산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22] 미아리로 출동하기 전까지 전남 광주에 사령부를 두고, 제15연대를 전주에, 제20연대를 송정리에, 독립대대(대대장 김종무 중령)를 함양에 두어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23]

전쟁이 발발하자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육군본부의 긴급출동명령에 따라 제15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를 전주에서 서울로 상경하도록 부연대장 조재미 중령에게 지시하였다.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 제3대대(대대장 박희동 소령)와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는 26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서울로 출동하였으나, 백운산(광양)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제2대대(대대장 이창구 소령)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 잔류대장으로 임명한 이승철 대위에게 "대대가 도착한 즉시 서울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24]

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26일 야간 특별열차 편으로 상경하여 27일 07 : 00 총참모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자, 총참모장은 사단장에게 "미아리로 가서 의정부정면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청량리 북쪽에 배치할 제8연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응준 소장은 참모장 박병권 대령, 정보참모 김용주 중령, 작전참모 문형태 중령을 대동하고 헌병대장 박

창록 대위와 함께 27일 10 : 00에 미아리에 도착하여 103고지를 전방지휘소로 정하고, 군수참모 서경택 소령에게는 제18연대(현 전쟁기념관)에 설치한 후방지휘소를 지휘하도록 하였다.[25]

한편 서울최후방어선이 전개될 미아리고개는 103고지에서부터 164고지로 연결된 능선이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 능선 북쪽 기슭 하단에는 정릉천이 동쪽으로 흐르며 3번 도로가 고개마루를 통과하여 서울로 이어져 있으므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이 고개 동쪽 2.5㎞ 지점의 143고지(회기동)는 경춘국도 및 경원선과 주변 일대의 저지대를 감제하는 중요지형이었다. 길음교(吉音橋)와 중랑교(中浪橋)는 북한군 전차의 진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애물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26]

수도 서울의 고수 여부를 결정짓게 될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은 대체로 27일 오후에 편성 완료하였다. 이 방어선상에 배치된 각 부대는 방어진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 방어를 위한 마지막 결전이 될지도 모를 전투에 대비하고



미아리삼거리 일대

있었다. 미아리 방어선에는 헌병사령부의 헌병과 각 사단 헌병으로 된 낙오자 통제선과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창동선에서 철수한 병력은 일단 여기에서 수용되어 식사를 한 다음 장교 3~4명에 사병 80~90명으로 임시중대를 편성하여 지정된 진지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16:00에는 방어선의 윤곽이 잡혔다. 그러나 총병력은 창동 방어선에서 철수한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를 비롯하여 제5사단 2개 대대, 제8연대 1개 대대 등 3,000명에 불과하였다.[27]

미아리고개 좌측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제5사단은 103고지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0연대 제1대대는 27일 오전 미아리 서쪽의 171고지 동쪽 일대에 배치되어 방어선을 편성한 후 창동 방어선에서 철수하는 국군을 엄호하였다. 제1연대(-)는 제20연대 제1대대 우측방지역인 길음교 북쪽 공동묘지 구릉지대에 배치되었다. 제1연대(-)는 2개 중대 병력을 주축으로 하여 각 부대 낙오병으로써 혼합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병력은 1개 대대 규모에도 못 미쳤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미아리고개(132고지) 일대에 배치되었다.

미아리고개 우측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7사단은 전술지휘소를 미아리고개 고개마루 동쪽에 있는 164고지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였다. 혼성연대[28]는 164고지 북동쪽 기슭(현 서라벌고등학교 뒷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제8연대 제2대대는 회기동 143고지 및 중랑교 남쪽 무명고지에 배치하였다. 제16연대(-)는 예비대로 돈암초등학교에 집결 보유하였다.[29] 지원화력으로는 포병학교 교도대대 소속의 105㎜ 곡사포 6문, 57㎜ 대전차포 8문, 81㎜ 박격포 15문으로, 57㎜ 대전차포 2문과 81㎜ 박격포 5문은 중랑교 일대에 배치하였고, 대전차포 8문은 미아리고개에 배치하였다. 길음교 폭파에는 공병학교 교도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과 교전 경험이 없는 국군 제5사단의 2개 대대와 제8연대의 1개 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3일간 계속된 패전의 충격과 혼성편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지휘체계의 문란, 그리고 굶주림과 탄약 부족 등으로 장병들의 투지가 크게 꺾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장병들은 전차공포증에 걸려 있었던 탓으로 그들에게 완강한 저항과 방어진지의 고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2) 전투 경과

### (1) 미아삼거리 및 미아리고개 전투

창동 방어선을 무너뜨린 적은 2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27일 17 : 00에 미아리 방어선으로 육박하였다. 그러나 그 좌측 전선에 배치된 제20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가 집중사격을 가하자 그들은 1대의 전차를 버린 채 도주하고 말았다. 제20연대 제1대대는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자 사기가 올랐다, 특히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105㎜ 곡사포(6문)가 계속 적 퇴로를 차단하였던 탓인지 일몰이 지난 후에도 다시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밤에 비가 오자 다른 날보다 일찍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 줄기도 점차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미아리 방어작전을 지휘하던 각급 지휘관들은 북한군이 개전 이래 한 번도 야간공격을 하지 않았고, 또 비가 세차게 오는 이날 밤은 전차기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간 경계태세가 느슨해졌다. 그 중에서도 길음교 폭파에 대한 준비와 폭약 도화장치의 점검이 소홀하였다.

북한군은 국군의 상황판단과는 달리 날이 저물자 곧 공격을 개시하여 미아삼거리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서울 시내에 침투한 북한군의 편의대가 도처에서 예광탄을 쏘아 올리면서 그들 본대와 교신하고 있었다. 미아삼거리 산기슭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는 4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방어정면에 있는 목교(木橋) 부근에 이르렀을 때, 다리를 파괴하도록 대기 중인 공병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폭약 장전기술이 미숙하였는지 다리 가운데에 구멍이 났을 뿐 파괴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북한군 전차 2대가 다리를 통과하고 3번째 전차가 다리위에 들어섰을 때 다리가 무너져 내리자 후속하던 전차대열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한 제1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는데, 뜻밖에도 북한군 전차대열에서 화염이 치솟고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불빛에 비쳐 목격되었다. 그런데 40여 대로 보였던 북한군 전차 가운데 진짜 전차는 5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트럭을 전차로 위장한 것들이었다. 이 짧은 교전에서 북한군은 국군 제1대대

의 기습적인 화력 집중과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큰 타격을 받은 듯 수많은 무기와 사상자들을 유기한 채 창동쪽으로 후퇴하였다.

얼마 후 다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은 전차의 화력으로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를 견제하면서 목교위에 빠져 있는 전차를 옆으로 밀어제치고 5~6대의 전차와 기마병을 포함한 수 미상의 보병부대가 대대 방어정면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한 차례의 전투를 치른 뒤 접적 없이 밤을 지새운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인 28일 아침 서울 시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총소리를 듣고서야 이미 서울에 북한군이 진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상급부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것과 미아리고개에 배치되었던 국군이 보이지 않은 상황을 종합 분석한 끝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 후 대대는 북한군과 가벼운 접전을 유지하면서 청량리-뚝섬-광나루를 거쳐 시흥으로 이동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수색을 경유 한강을 건너 수원에 집결하였다.

한편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의 방어정면을 통과한 북한군 전차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곧장 국군 제1연대(-) 방어정면을 통과하여 길음교 전방에서 일단 정지하였다. 교량을 파괴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길음교는 끝내 파괴되지 않았다. 길음교 일대에 지향된 국군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약 20분 동안 북한군 전차대열을 집중 공격하였다. 그러나 단 한 대의 전차도 파괴하지 못하였다.

국군의 포격이 멎자 길음교에 매복한 제1연대(-) 및 제15연대 제2대대 전차특공대가 2.36″로켓포를 쏘고, 김순(제15연대 제5중대장) 대위가 지휘하는 결사대가 전차에 육탄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김순 대위를 비롯한 여러 명의 대원이 북한군의 기총소사에 맞고 전사하였을 뿐이었다. 폭우 속에서 전개된 육박전이 20여 분간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저항은 눈에 띄게 약화되어 갔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북한군의 전차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던 길음교를 파괴하는데 실패한 것에 실망한 장병들이 전의를 잃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국군의 저항이 느슨해진 것을 포착한 북한군 전차는 다시 전진을 개시하여 미아리고개를 넘어 돈암동으로 진입하였다. 이때가 28일 01 : 00를 전후하

여 일어난 상황이었다.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에 진입한 것에 충격을 받은 국군은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철수 밖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미아리고개 일대에 배치된 모든 국군 부대는 건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분산되어 한강 이남의 노량진, 시흥, 수원, 김포반도, 광주 일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장병들이 방어진지에 남아 끝까지 저항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국지적인 시가전을 펼치면서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서 미아리고개에 배치된 국군 제16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는 28일 새벽 낙오병으로 편성된 1개 소대를 지휘하여 북한군 1개 소대를 격멸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 북한군 전차의 기총소사를 받아 병력이 흩어졌다. 이 때문에 철수시기를 놓친 최민섭 대위는 그 후 봉일천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 북한군 후방을 교란시키다가 서울 수복 후에 군에 복귀하였다.

### (2) 회기동의 143고지 전투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국군 제8연대(연대장 서종철 중령)는 홍천 북쪽의 38도선 경계진지를 국군 제2연대에 인계하고 서울로 이동한지 이틀 만에 6·25가 일어났다. 개전 당일 국군 제8연대 제1대대는 강태무·표무원 사건의 여파로 해체되다시피 하여 약간 명의 고참병을 기간으로 신병들로 재편성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제2연대와 부대교대를 하게 되자 연대 후발대로서 홍천에서 서울로 행군 중에 있었다. 제3대대는 진지교대를 먼저 끝내고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24일) 장충단(奬忠壇)[30]을 참배한 후 휴가명령을 받고 대대장 이하 전 장병이 각자 연고지로 떠났다.[31]

6월 25일 오전 국군 제8연대 제2대대는 수도경비사령부 작전명령에 따라 흑석동-노량진 일대의 한강변에 배치되었다. 이때 제8중대 제2소대장 강영환 중위는 한강교를 폭격하는 북한군 전투기에 중기관총으로 대공사격을 가하여 그 중 1대를 격추시켰다. 이 날 16:00경 철수명령을 받은 제8연대 제2대대는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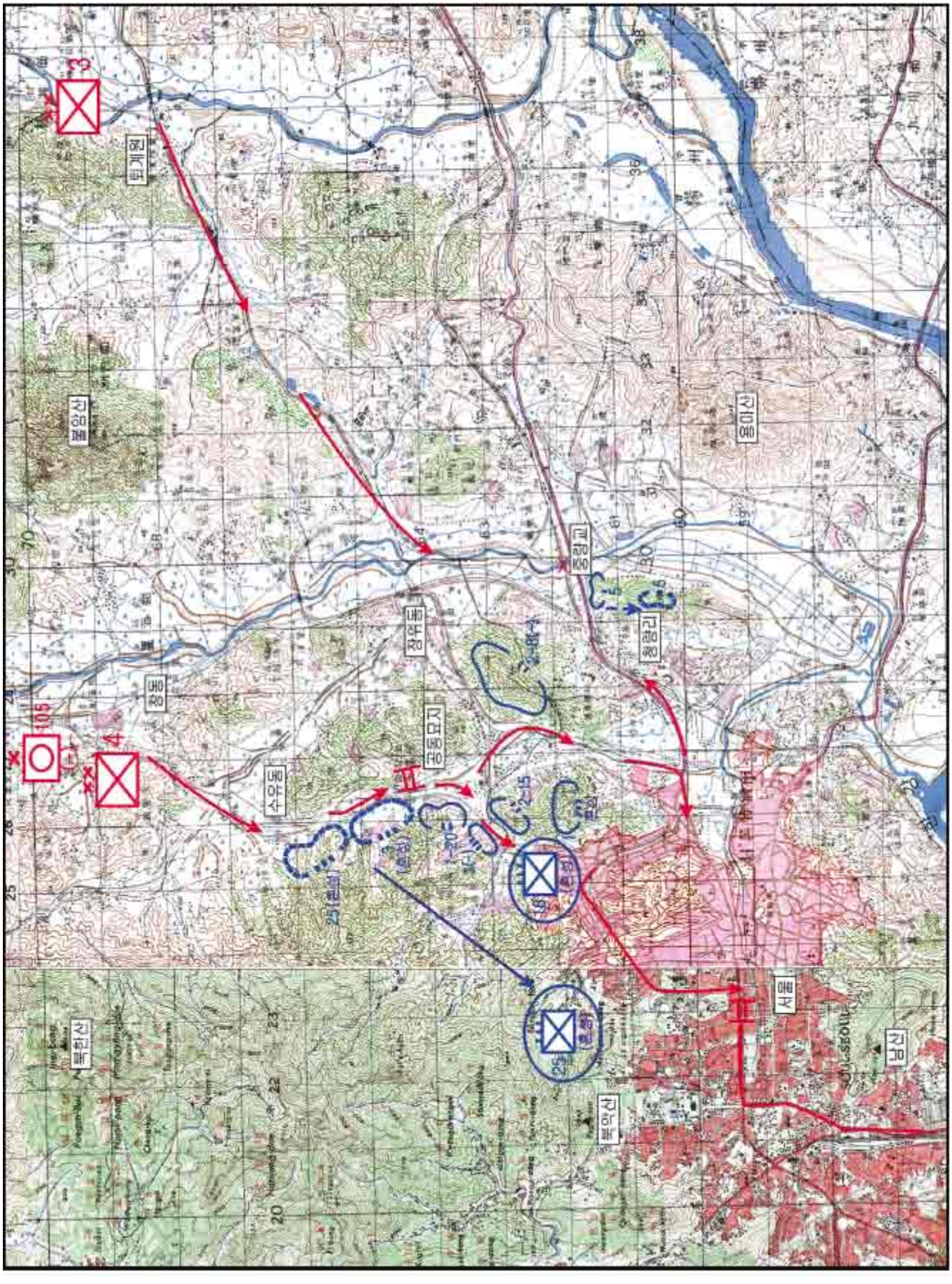
아침 26일 오후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연대장 지휘하에 경기도 가평으로 진출하였다.[32]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의정부가 함락되어 서울이 위급하게 된 전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날 밤에 제8연대(-)를 다시 서울로 복귀시켰다. 이처럼 제8연대 제2대대는 상급사령부의 무계획적인 운용으로 이틀간을 헛되이 보낸 뒤에야 비로소 회기동 일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다.

27일 오후 제2대대(대대장 고백규 소령)는 회기동 143고지(경희대학교 뒷산)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5중대를 중랑교 남쪽 무명고지에 추진 배치하였다. 그 때 대대와 연대 간의 통신수단은 연락장교를 운용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진지를 편성하는 동안 회기동 일대에서는 접적이 없었다. 대대는 이 기회에 전방에서 철수 중인 낙오병을 수습하는 한편, 피난민을 통제하면서 그들 속에 침투한 북한군의 편의대를 색출하는 데 힘쓴 끝에 30~40여 명을 색출하였다.

28일 이른 아침 제2대대장은 성동역 부근 철로상에 북한군 전차 3~4대가 서울쪽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을 관측하고 전투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얼마 후 북한군의 공격준비사격이 대대 방어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이미 서울 시내에 북한군이 속속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고 있는 제8연대 2대대뿐이었다.[33]

북한군의 공격은 약 10분 동안 계속된 공격준비사격이 끝난 직후 개시되었다. 국군 제8연대 제2대대는 세 차례에 걸친 그들의 파상공격을 진전에서 격멸하였다. 그러나 탄약이 바닥나고 연대에서 보낸 연락장교도 도착하지 않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탄약차량을 인솔하던 대대 보급관 방을룡 중위가 청량리에서 북한군 편의대로부터 습격을 받아 전사하고, 탄약차량은 파괴되었다. 이 상황은 그 차량에 동승한 병사 1명이 살아남아 143고지로 달려와서 보고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제2대대는 서울 시내 여러 군데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총성과 전차소리, 그리고 탄약차량의 피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상황도 7-2> 미아리-회기동 전투



종합 분석한 끝에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중량교 남쪽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5중대(중대장 안태갑 중위)의 방어정면에서는 28일 03 : 30경 중량교가 폭파[34]된 이후부터 줄곧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8일 11 : 00를 전후하여 철수를 개시한 제8연대 제2대대는 106고지(전농동) 일대에 재배치한 제5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뚝섬을 경유하여 15:30경 광나루로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작은 배 5~6척으로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한 대대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용인의 김량장(金良場)에 투입되었다.

### (3) 육군사관학교 및 제9연대(-)의 철수 상황

26일 밤 내촌에서 사관학교로 철수한 생도대대는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포천에서 철수한 국군 제9연대(-)도 사관학교에 집결하여 다음날인 27일 아침 사관학교장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갔다.[35] 그러나 의정부 및 창동 방어선에서 철수한 국군 제5연대(-)와 제16연대 제1대대는 태릉지구에 배치되지 않고 곧장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27일 아침 사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국군 제9연대(-)를 210고지(불암산 남쪽 2㎞)에, 생도대대를 93고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이어진 구릉지대(사관학교 전술훈련장, 일명 A, B, C, D, E, F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내촌-태릉 접근로를 따라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접적이 없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인 28일 이른 아침 북한군이 미아리고개를 거쳐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때 사관학교 일대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개 소대 규모로 보이는 북한군 정찰대가 국군 방어지역 전방에서 출몰하였으나 그들의 공격은 없었다. 반면 사관학교에서 서쪽으로 내다보이는 경원선상에서는 북한군의 대병력이 전술행군 대형으로 줄지어 남진하고 있었다. 사관학교장은 비록 육군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퇴로가 차단되기 전에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이 명령이 최전방에 배치

된 부대로 전달되기까지는 4시간이나 소요된 까닭으로 상당수의 사관생도들이 끝내 그 명령을 받지 못하여 철수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 포탄의 낙하 빈도가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관학교와 제9연대(-)는 망우리고개－용마산(龍馬山)을 거쳐 광나루로 철수하였다. 여기서 철수부대는 국군 제9연대(-)의 경계를 받으면서 먼저 한강을 도하한 사관학교 생도대대가 다시 한강 남쪽 강변에서 제9연대(-)의 도하를 엄호하는 방법으로 무사히 도하한 후, 수원으로 행군하여 부대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내촌－태릉 일대 전투에 투입된 사관생도 제1기생(7월 10일 대전에서 임관)은 262명 중 70명이, 제2기생(육군 종합학교 제1기 및 제2기로 입교)은 227명 중 82명이 각각 전사 또는 실종되는 큰 손실을 입었다.[36]

한편 태릉에서 철수하지 못한 사관생도 10여 명과 각 부대 사병 20여 명은 '호랑이부대'[37]를 편성하여 불암산에 거점을 두고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불암산 주지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부대원들은 유엔군이 반격할 때까지 지탱해내지 못하고 격멸되고 말았다.

### 3) 전투 결과

미아리 방어선은 27일 23 : 00가 지나면서 비가 점차 멎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투위치를 이탈한 병사들은 그 동안의 전장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기도 하였다. 이 무렵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총성이 울리면서 예광탄 불꽃이 상공을 누볐다. 이는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잠입한 것으로 보이는 적 유격대의 소행으로써 그들의 전투부대와 호응하기 위한 신호였다.

북한군은 이미 잠입시킨 유격대의 호응을 받아 24 : 00시를 전후하여 미아리를 급습하였다.[38] 북한군은 미아삼거리에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찰병의 유도를 받으면서 길음교로 진출하였다. 전차의 폭음에 놀란 병사들은 졸음에서 깨어나 적의 접근을 알리는 총성을 울렸고, 돈암동 전차종점에서 6문의 105㎜ 곡사포를 지휘한 김한주 중위는 이를 확인키 위한 조명탄을 발사하였다. 비와 안개

로 인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전차로 보이는 10여 대의 물체가 조명하에 나타나자, 고개 좌우측에 배치되었던 57㎜ 대전차포와 2.36″로켓포 및 기관총 등이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 실효는 없었다. 적 전차는 사격을 가하면서 고개를 넘어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가 28일 01:00경이었다.[39] 이를 확인한 장병들은 경악한 나머지 각개 분산하고 말았으며, 구릉지대에 배치된 대부분의 부대들도 날이 밝은 다음 적 보병부대의 공격을 받고 철수를 하게 되었다.

제8연대 제2대대는 회기동 일대에서 28일 13:00에 부대를 철수하여 광나루에서 나룻배 3척으로 한강을 건넜다. 이때가 19:00경이었다. 제1연대(연대장 이희권 중령)는 최초 미아리고개 우측의 164고지에 배치되었다가 적 전차가 서울에 침입한 뒤 각개 분산하여 한강을 도하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대대장 안광영 소령)는 미아리고개 입구에 해당하는 132고지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하였다.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은 삼양동에서 북악산(중앙청 뒷산)을 경유하여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넜다. 제20연대 제1대대는 뚝섬에서 한강변으로 나와 한강을 건넜다.

## 5. 한강교 폭파와 서울시가지 전투

### 1) 한강교 폭파

#### (1) 한강교 폭파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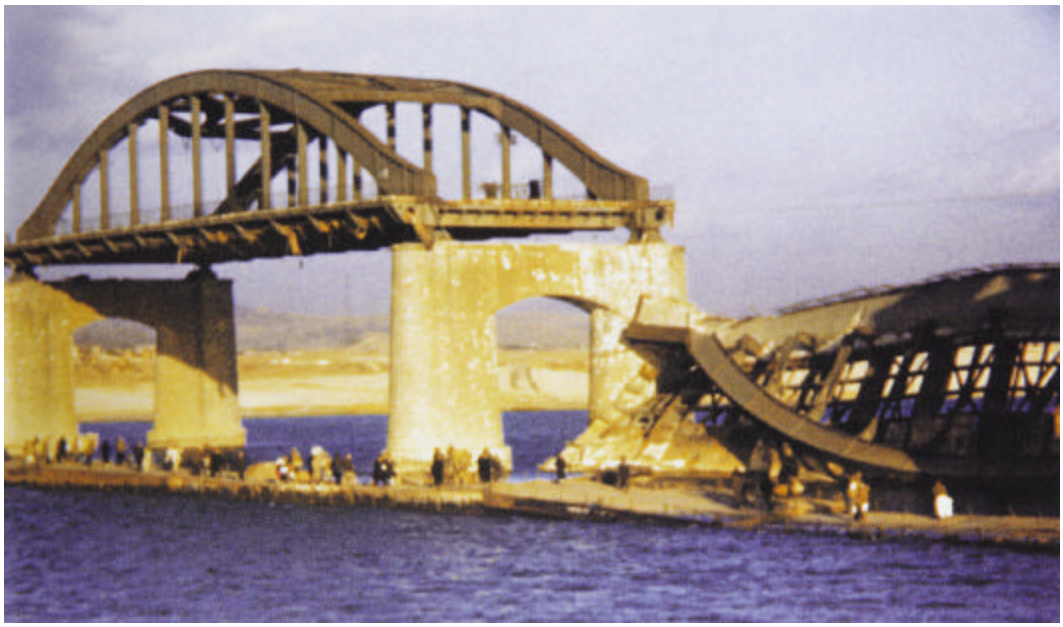
6월 27일 11:00에 채병덕 총장은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과 함께 한강교와 철교의 폭파계획을 발표하였다.[40] 한강교 폭파 계획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총참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폭파시간은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2시간 뒤에 한강상에 가설된 모든 교량을 폭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회의 진행 당시의 폭파시간은 북한군이 27일 14 : 00에 서울로 진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16 : 00에 폭파할 예정이었다.[41]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서울 시민의 피난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군부가 먼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시민과 서울 북쪽에서 전투중인 국군의 유일한 퇴로인 한강교를 조기에 폭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공병감은 그 시점까지 북한군 공격축선상의 임진강 철교, 신북대교 등 중요 교량을 파괴하지 못한 탓으로 작전에 미친 영향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한강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참모장의 명령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철수를 위해 도하용 단정(短艇) 18척을 한강대교 옆 백사장에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27일 12 : 00경 철수를 개시한 육군본부는 시흥의 육군보병학교로 이동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 군사고문단도 시흥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미 고문단 대리 라이트(William H. S. Wright) 대령은 미 극동군총사령관으로부터 "미 합참본부가 본관(맥아더 장군)에게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부여하였음으로 본관은 수원에 전방지휘연락장교단(ADCOM)을 파견 설치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 이어 그는 "곧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니 서울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육군본부에 통보하였다.[42] 이에 육군본부는 다시 서울을 고수하기로 결정하고 한강교 폭파를 연기시킨 다음 서울로 복귀하여 미아리－회기동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 (2) 한강교 폭파와 영향

6월 26일 한강교 폭파명령을 받은 공병감은 공병학교장 엄홍섭(嚴鴻燮) 중령에게 한강교 폭파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43] 이에 공병학교장은 남한강 파출소(노량진 한강대교 입구에 위치)에 폭파지휘소를 설치하고, 공병학교 폭파교관 황원회 중위 및 이창복 중위에게 폭파임무를 부여하였다. 한강대교 폭파는 황원회 중위, 경부선 철교(복선) 폭파는 이창복 중위, 경인선 철교(상・하행선) 폭파는 제1공병단 임홍순 중위에게 부여하였다. 폭파에 소요되는 폭약 7,000파운드를 수령한 이들



폭파된 한강대교(1950. 6. 28. 02 : 30)

교량 폭파조는 27일 12 : 00～15 : 30간에 3개 철교에 폭약장치를 완료하였다.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16 : 00경 시흥으로 철수했던 육군본부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되자 각 교량에 장치한 폭발물의 일부를 제거하여 차량 및 열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한강교 폭파 지휘계통은 총참모장－참모부장(김백일 대령)－공병감－공병학교장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병학교장을 비롯한 한강교 폭파담당 장교들은 다리를 파괴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아리 방어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될 무렵인 27일 23 : 30에 다시 폭파준비명령이 하달되자 교량 폭파조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제거했던 폭약을 다시 장전하게 되었다.

특히 28일 01 : 45을 전후하여 총참모장은 전방지휘소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돈암동에 북한군 전차가 진입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지체 없이 공병감에게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채병덕 총장은 공병감에게 “지금 적 전차가 시내와 들어와 돈암동을 지나서 동소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배치한

전차공격조는 그대로 두고 즉시 한강으로 가서 한강교를 폭파하라. 나는 이제 시흥을 걸쳐 수원으로 간다. 곧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44]

이에 공병감은 남한강 파출소에 대기 중인 공병학교장에게 "즉시 한강교를 폭파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한강대교상에는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피난 인파와 차량을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이 한강대교를 건넌 얼마 뒤에 폭파신호를 확인한 폭파 담당장교 세 사람은 도화선에 점화하였다. 수분 뒤에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기둥과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울려 퍼지면서 한강교는 절단되었다. 이때 시간은 6월 28일 02 : 30분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04 : 00에 광진교도 폭파되었다.[45] 그 결과 6월 30일 한강교 폭파 이후 국군은 1,318대의 차량을 버리고 한강을 건너게 되었다.[46]

그러나 경인상행선 철교와 경부선 철교는 불발로 그쳤으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책임을 통감한 이창복 중위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부선 철교 폭약장전 장소로 달려가서 뇌관을 갈아 끼우고 다시 점화하였다. 그렇지만 한 덩어리의 폭약만이 폭발하는데 그쳐 철교 일부분만 손상되었을 뿐 절단되지는 않았다. 파괴되지 않은 철교는 다음날인 29일 B-29중폭격기가 출격하여 폭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47]

한편 총참모장이 한강대교를 건널 즈음 육군본부에 도착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전방부대가 한강대교를 건넌 연후에 폭파시켜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참모부장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를 중지시키도록 명령하였다.[48] 그러나 그때는 육군본부와 폭파지휘소 간에 통신선이 가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전국장이 차량으로 폭파지휘소로 갔지만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교통이 소통되지 않아 그가 중지도(中之島)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한강대교는 폭파되었다.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인해 입은 피해는 인원이 500~800명에 달하고 차량은 50대에 이르렀다.[49]

이로써 서울 지역에 투입된 국군 5개 사단과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이로

<표 7-1> 한강교 폭파 이후 국군의 방치 차량 현황(1950. 6. 30 현재)[50]

| 구분 | 총계 | 1/4톤 | | | 3/4톤 | 1톤 트레라 | 1 1/2톤 | 2 1/2톤 |
|---|---|---|---|---|---|---|---|---|
| | | 소계 | 지프차 | 트레라 | | | | |
| 수량(대) | 1,318 | 533 | 354 | 179 | 125 | 410 | 65 | 185 |

말미암아 국군 총병력의 46%인 4만 4,000여 명의 병력이 흩어져 그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투 부대 및 전투지원부대의 모든 중장비와 공용화기는 한강이북 지역에 유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 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후 이촌동 한강대교 입구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한 것은 한강교가 폭파된 지 7시간 반이 지난 28일 10 : 00시를 조금 지나서였다.[51]

소련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전차는 최초 6월 28일 새벽 01 : 30분경에 서울로 들어왔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는 대부분 중앙청, 방송국, 교도소, 전신국 등 주요 시설물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한강교 점령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전차는 교량으로 가는 경로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동안 시가지를 배회하였으며, 겨우 교량에 진출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량에 폭약이 설치된 후였다. 그 결과 전차장은 교량을 건널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한강교는 국군에 의해 파괴되었다.[52] 이로써 북한군은 조기에 한강교를 점령하여 국군 퇴로를 차단한다는 공격계획상의 임무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 2) 서울시가지 전투

### (1) 장애물 설치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빠져들었을 무렵 육군본부는 중요지점에 차량과 기타 물체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도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또한 공병감에게 지시하여 전차특공조를 편성하여 혜화동으로 급파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

내 주요지점에는 수도경비사령부와 육군본부 장병들에 의해 적 전차의 진입에 대비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미아삼거리와 길음교, 그리고 돈암동 전차종점부근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와 육군본부 장병들은 창경원입구를 비롯하여 안국동, 종로입구, 광화문, 남대문, 삼각지 그리고 육군본부(용산우체국)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53]

바리케이드는 화물차량과 버스 등을 동원하여 도로를 가로질러서 정렬시킨 다음 차량바퀴의 공기를 빼고 주요부품을 제거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주위에 철조망 등을 쳐서 전차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청에서부터 서울역 앞까지는 전동차를 일렬로 세워 좌우의 통행을 막았다.

차량 장벽은 27일 22 : 00 이후부터 긴급 설치되었다.[54] 그러나 삼각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에만 1개 중대가 배치되었을 뿐 다른 곳에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 전차가 들어온 후에 부분적으로 배치되었다.

### (2) 북한군의 서울 진입과 시가지 전투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공병들로 전차특공조가 편성되었다. 육군본부는 적 전차에 의해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헌병사령관(대령 송요찬)으로부터 “적 전차가 시내에 돌입했다”는 보고를 받자, 김백일 참모부장은 공병감에게 “공병으로 전차폭파조를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1공병단 제1전투중대장(전유형 중위)이 지휘하는 전차폭파조가 편성되었다. 전차폭파조는 장교 3명과 사병 2명으로 편성되었고, 휴대 장비로는 50파운드 폭약뭉치 2개와 개인화기로 일제 99식 소총을 휴대하였다.[55]



서울 시내에 들어온 북한군 전차

전차폭파조는 창경원 앞에 구축된 바리케이드 옆에 매복하고 있었다. 28일 01 : 30 조금 지나서 전차폭파조는 북한군 전

차가 출현하여 바리케이드 앞에 정지하고 전차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사살하였다. 이때 폭약을 전차의 무한궤도 옆에 놓고 폭발시켰다. 이에 장애물로 세워둔 차량에 불길이 휩싸이면서 마치 전차도 파괴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적 전차는 오히려 기총소사를 가하면서 장애물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제 대항할 폭약마저 없어진 전차폭파조는 대기시킨 민용차량으로 경인상행선 철교를 통하여 노량진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수도경비사령부로부터 시가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8연대 제1대대[56]는 삼각지－마포 간에 제1중대와 제3중대를 배치하였다. 김상덕 중위가 지휘하는 1개 중대는 삼각지 일대 민간 건물과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아리에서 철수한 제18연대의 57㎜ 대전차포 1개 소대 2문은 소대장 유기천 중위 지휘 아래 연대 정문(현 전쟁기념관) 앞에 방열되어 있었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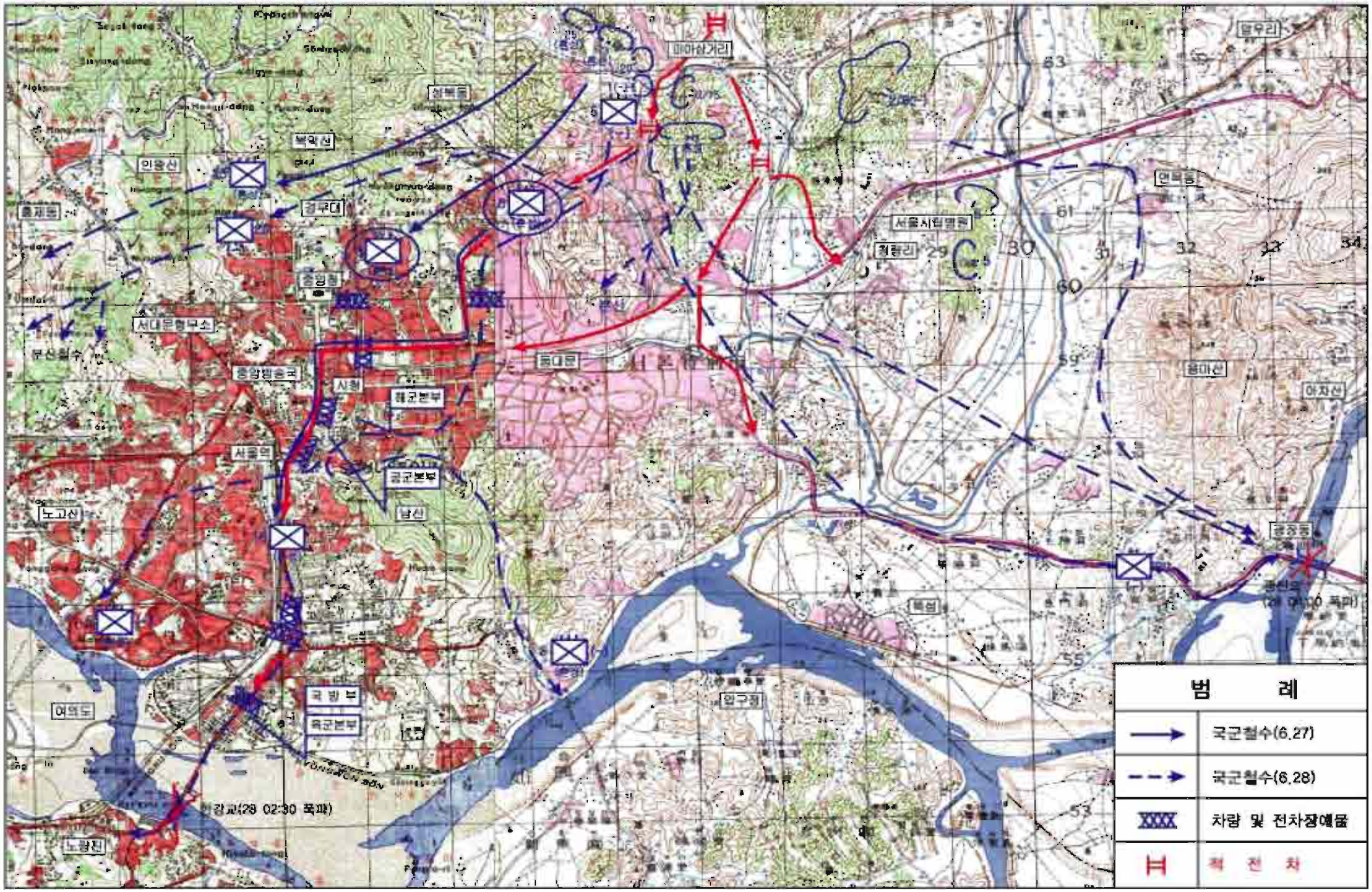
6월 28일 10 : 00를 전후하여 삼각지 로터리 2층 집에서 적정을 관측하던 소대원으로부터 북한군의 전차가 접근한다는 신호를 받은 소대장은 선두전차를 포격하여 명중시켰다. 그러나 그 전차는 잠간 동안 정지한 후 한강쪽으로 진출하였다. 두 번째 신호를 받은 소대장은 접근하는 2번 전차에 연속 4발을 사격하였다. 그러나 포탄에 맞은 전차는 잠시 주춤하더니 전차포를 사격하여 정문 옆에 세워둔 탄약차를 폭발시킨 뒤 역시 한강 쪽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북한군의 전차는 모두 10여 대였다. 57㎜ 대전차포의 사격이 무위로 끝난 것을 본 제1중대 제3소대장(강성탑 소위)은 준비해 둔 화염병과 수류탄을 전차대열에 던지면서 육탄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기관총의 일제사격을 받게 되어 전사자만 발생하므로 대원들을 일단 철수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소총으로 무장한 평복 차림의 30여 명이 트럭을 타고 나타났다. 수상하다고 직감한 중대장이 57㎜ 대전차포로 트럭을 파괴하고 확인하였더니 탑승한 전원이 북한군 편의대들이었다. 일전을 치른 중대는 점차로 증가되어 가는 북한군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퇴로가 차단되기 전에 철수를 개시하여 마포나루터에서 한강을 도하하였다.

한편 28일 아침 미아리 방어선에서 청량리로 철수한 제5연대 제3대대의 일부

<상황도 7-3> 서울시가지 전투


범 례
국군철수(6.27)
국군철수(6.28)
차량 및 전차장예품
적 전 차
미아삼거리
수유리
인왕산
북악산
경무대
중앙청
서대문형무소
사령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남산
노고산
여의도
국 방 부
육군본부
노량진
한강교(28 02:30 폭파)
동대문
청량리
서울시립병원
안복동
용마산
아차산
광진교
북쉼
한강교
63
61
60
59
55
53
30
29
32
31

병력도 북한군 전차 12대가 청량리역 앞을 통과하고, 그 후방 500~600m에서 그들의 보병부대가 후속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저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 안심한 듯 전차의 헤치를 열고 도로변에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면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다.

북한군에게 기습적인 일격을 가해 본때를 보여 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백복성 일등상사외 9명의 하사관(전원이 이등상사)이 민가에서 사복차림으로 변장한 후, 일제히 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전차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 결과 7대의 전차는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되어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정된 집결지에 모인 특공대원은 백복성 일등상사 이하 3명이었다. 나머지 7명 중 4명은 전차 공격시에 전사하고 3명은 끝내 실종되었다.[58]

이외에도 국군 장병들이 시내 곳곳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거나 그들의 통신과 보급 시설을 파괴하는 등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 소규모 교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28일 이른 아침 남산으로 올라간 참모학교 부교장 이용문(李龍文) 대령은 그곳에 모여든 낙오병들로 유격대를 편성하고, 백호부대라고 이름 붙여 유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교전이 거듭될수록 병력 손실이 증가되고, 게다가 탄약과 식량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저히 부대행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용문 대령은 유격대를 해체하고 각자 지하에 숨어 후일을 기약하였다. 그는 서울 수복 후 군에 복귀하였다.[59] 또한 청년방위대의 수도방위대고문이던 안병범(安秉範) 대령은 수도 서울이 실함되자 조국을 수호하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자결하였다.[60]

### 3) 서울 함락 이후 각급 부대의 철수 상황

6월 28일 01 : 00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되고 한강교가 폭파된 이후 서울 북쪽에 배치된 국군은 서울 외곽지대로 진출하여 광나루, 뚝섬, 마포, 행주, 이산포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하였다.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전에 한강을 도하한 부대는 제16연대(연대장 문용채 대령)의 일부병력 뿐이었다.[61]

광나루 일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 제9연대(-), 제8연대 제2대대(-), 제15연대 제2대대(-), 제16연대 제1대대(-)와 그 밖에 재경부대 일부병력이 이 나루터에서 나룻배와 급조도하용 기구를 이용하여 밤늦도록 도하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분산된 제1연대의 일부병력과 제3연대 제3대대(-), 제25연대(-), 제20연대 제1대대(-)와 육군본부 및 미 군사고문단, 그리고 여러 부대와 낙오병들은 뚝섬, 마포, 서빙고, 수색, 행주나루터에서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 한강을 건넜다. 그 결과 6월 30일 현재 한강교를 도하한 병력은 1만 2,382명에 불과하였다[62](<표 7-2> 참조).

그 중에서도 포병학교 김정희 중위가 지휘하는 제2교도대대 일부병력은 마포나루터에서 그곳까지 끌고 온 105㎜ 곡사포 3문과 포탄 500여 발을 그 부대 하

<표 7-2> 국군의 한강 도하상황 통계표(1950. 6. 30 현재)[63]

| 구 분 | 총 계 | | 한강교 폭파 이전 도하 | | 한강교 폭파 이후 도하 | | | | | | | |
|---|---|---|---|---|---|---|---|---|---|---|---|---|
| | | | | | 부대단위 (선박 이용) | | 개인별 (선박 이용) | | 부대단위 (수영) | | 개인별 (수영) | |
| | 교 | 사병 | 장교 | 사병 | 장교 | 사병 | 장교 | 사병 | 장교 | 사병 | 장교 | 사병 |
| 총 계 | 929 | 11,453 | 263 | 2,214 | 429 | 5,476 | 167 | 2,744 | 22 | 147 | 48 | 872 |
| 수도사단 | 101 | 1,673 | 24 | 455 | 61 | 768 | 16 | 404 | 2 | 20 | 3 | 92 |
| 제 1 사단 | 119 | 2,036 | 10 | 258 | 83 | 1,212 | 24 | 527 | 2 | 33 | 8 | 205 |
| 제 2 사단 | 70 | 1,127 | 8 | 159 | 37 | 499 | 16 | 427 | 0 | 10 | 6 | 90 |
| 제 3 사단 | 25 | 670 | 1 | 59 | 19 | 444 | 4 | 130 | 1 | 8 | 0 | 36 |
| 제 5 사단 | 51 | 1,060 | 11 | 123 | 37 | 646 | 3 | 230 | 1 | 13 | 3 | 95 |
| 제 6 사단 | 2 | 85 | 2 | 22 | 1 | 42 | 0 | 13 | 0 | 4 | 0 | 12 |
| 제 7 사단 | 79 | 1,626 | 21 | 282 | 37 | 755 | 16 | 464 | 2 | 21 | 3 | 104 |
| 제 8 사단 | 12 | 55 | 6 | 7 | 4 | 30 | 0 | 13 | 1 | 0 | 2 | 6 |
| 기갑연대 | 6 | 18 | 6 | 6 | 0 | 8 | 0 | 0 | 2 | 0 | 0 | 2 |
| 육군본부 직할부대 | 464 | 3,101 | 174 | 842 | 177 | 1,451 | 88 | 542 | 12 | 40 | 23 | 233 |

사관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의도로 도하시키는데 성공하였다.[64] 서부 및 중서부 전선에 투입된 105㎜ 곡사포 45문 중 한강을 도하한 것은 이 3문뿐이었다.[65]

그 밖에 한강대교 옆 백사장에 준비시켜 둔 공병단정과 절단되지 않은 철교를 통하여 상당수의 병력과 차량이 노량진으로 철수하였다. 그렇지만 이촌동 일대 한강변에 북한군 전차가 나타난 28일 10 : 00～11 : 00 이후에는 철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은 6월 28일 정오 무렵 서울을 점령하였고, 오후 4시 무렵에는 저항하던 국군을 완전 제압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후 북한군 제4사단은 문산에서 남쪽으로 후퇴하는 국군 병력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서북쪽 외곽에 저지선을 구축하였다.[66] 그러나 서울 서북쪽에서 북한군을 저지했던 국군 제1사단은 28일 오후 이미 한강교를 도하하였다.

## 6. 분석 및 평가

### 1) 지휘통제

창동－미아리 전투는 전력상 국군에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투였다.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인 유재흥 장군이 회고하듯이 당시 국군 전투력은 소진된 가운데 군 지휘체계의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유무선이 두절된 상태였다.[67] 따라서 국군은 경찰의 경비전화를 이용하거나 연락장교를 통해 연락을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전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의한 부대지휘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아간의 엄청난 전력상의 차이는 정신력으로 버티기에는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휘관은 작전 기간 중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대전반을 관측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가용한 참모요원과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부대를 지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투를 각급 지휘관은 전반적인 상

황에 대처하기보다는 국부적인 상황에 치중한 나머지 그들의 지휘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각개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몇몇 지휘관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육군을 총지휘했던 채병덕 소장도 의정부 정면의 전황 수습에만 급급하였다. 그는 이 곳을 빈번히 왕래하면서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한 후방부대들을 도착하는 대로 축차적으로 투입시킴으로써 전투력을 집중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지휘 및 참모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지휘에 많은 혼선을 낳게 하였다.

특히 한강교 폭파에 대해서는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없었다고는 하지만 폭파과정에서 서울방어전에 투입된 지휘관에게 만이라도 사전에 통고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국군의 인명 및 장비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2) 정 보

이 전투 간에는 계속 후퇴하면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한 관계로 적정을 수집할 수단이나 병력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각 방어선마다 적 전차에 대한 대책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 상황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일 수가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적정을 수집할 수 있는 부대나 정보기구가 없었다. 그나마 미아리지구 전투사령부에서는 적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수색대를 이용하여 수색활동을 한 벌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3) 기 동

이 전투 간에는 병력 부족 및 전선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된 관계로 병력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의정부 전투에서 패퇴한 국군의 각급 부대는 대부분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되었고, 부대 배치도 연대 단위 부대 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병력은 소규모 단위로 분할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전차를 앞세운 공격에 국군의 방어지대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지 방어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즉, 서울 중요 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전차폭파조를 운용하여 적을 잠시나마 지연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최초 국군이 수도서울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었다면 당연히 시가지 방어계획이 수립되고, 부대도 이에 따라 전개되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총참모장의 수도고수개념은 수도사수결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총참모장은 수도권외곽에서 적을 격퇴하는 것이 서울을 고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수도고수개념은 군사적인 것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빨리 시내 요소에 긴급 바리케이드를 치고 근본적인 방호 대책을 세웠더라면 적을 더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후퇴하는 국군의 손실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가지는 방자에게 유리한 장애물이 많고 또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장이기 때문에 주요거점단위 아니면 부분거점만이라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전투를 전개했어야 했다.

### 4) 화력 운용

창동－미아리 방어선 전투에서 포병화력은 포병학교 교도대대의 화포 6문뿐이었다. 이 6문의 화포는 미아리고개 전초전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용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포 3문을 한강 이남으로 도하시킨 것은 훌륭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 5) 방　호

이 전투 간에는 상황이 워낙 긴급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개인 방호를 위한 진지 구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은 대부분 적당한 엄폐물을 찾아 몸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부대에서는 미아

리 방어선에서 인근 주민을 동원하여 진지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이 예상외로 빨리 전개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전투근무지원

이 전투간에도 육군본부 차원의 탄약 및 보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사단은 자체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급식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애국부인회 등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급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투를 실시하고 있는 전방 부대까지는 차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 제 2 절 정부의 철수와 북한군의 서울 점령

## 1. 비상국회의 서울 사수 결의

### 1) 제6차 본회의와 긴급동의

전쟁 당일 개최하지 못했던 국회는 26일 11 : 00에 신익희 의장의 사회로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68]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 그리고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전황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적이 남침을 개시하였으나 국군은 후방 3개 사단을 투입, 역습을 감행하여 의정부를 탈환하고 적을 그 북쪽으로 격퇴하였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군의 고충은 명령이 없어서 38도선을 넘어 공세작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취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였다.

당시 초긴장상태에 있던 의원들은 이러한 낙관적인 보고로 인해 다소 안도하면서도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 요지를 보면, "①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군사비지출을 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② UN과 미 의회 그리고 미 대통령에게 메시지(Message)를 보낸다. ③ 38도선 지역에서 전투중인 군경과 주민을 격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파견한다. ④ 대미 무기대책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한다. ⑤ 물심양면으로 행정부에 호응하는 동시에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었다.[69]

이와 같이 결의한 국회는 13 : 00에 일단 정회하였다가 14 : 00에 다시 속개되었다.[70] 장택상 부의장의 사회로 비밀회의로 들어간 국회는 유엔과 미 의회 및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여 가결하였다. 또한 국회는 백상균 의원 외 11

명이 제안한 대미 무기구입대책위원회 조직안을 채택하여 가결한 다음 백상규과 지청천 등 10명을 그 위원으로 임명하고 16 : 00에 산회하였다.

### 2) 비상국회의 수도사수결의

국회는 27일 01 : 00에 다시 비상국회를 소집하였다.[71] 신익희 의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급히 달려온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으로 전황설명을 보고 받았다. 총참모장은 오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을 격퇴하여 수도를 사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서리 자격으로 전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정부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흥분한 의원들의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서 원세훈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였다.

의견은 서울을 사수하는 쪽과 철수하자는 쪽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국회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수도를 사수한다”는 수도사수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은 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경무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무대를 방문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서울을 떠났고 비상국무회의를 마친 각료들도 이미 흩어진 뒤였다. 이들은 27일 04 : 00 국회로 다시 돌아와 산회하였다.

이로써 비상국회의 비장한 수도사수결의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공백으로 정책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원인이 되어 210명의 의원 중에서 62명에 달하는 의원이 서울에 잔류하게 되어 국회의원 8명이 사망 또는 피살되었고, 27명이 납치 또는 행방불명되었다.[72]

## 2. 비상국무회의의 서울 철수 결정

북한군의 남침으로 정부가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11 : 00시였다. 이때 회의는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인 신성모가 주재하였

다.[73] 이 회의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전황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황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의정부 전선에 나가 있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복귀하면 전황을 다시 보고 받기로 하고 12 : 00시에 일단 산회하였다.

25일 14 : 00시에 재개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였다.[74] 이 자리에서 채병덕 총참모장은 "38도선 전역에 걸쳐 4만~5만명의 북한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남침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국군부대는 대전차포로 적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 중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침공은 그간에 그들이 벌여온 위장평화공세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므로 조급하게 자행한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보며 후방사단을 진출시켜 역습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이렇다 할 결의사항도 없이 15 : 30분에 산회하고 말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기고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공포의 특례에 관한 건)를 공포하였다. 이어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자를 엄중 처단하도록 하였다.[75]

그런데 대통령은 당시 헌법 제57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서 헌법 제64조에 의거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강행하지 않았다. 계엄법 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가 7월 8일에야 선포하였다.[76]

정부는 의정부가 함락된 26일 밤 경무대에서 또 다시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77]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고 전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도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전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안일하고 낙관적이어서 이범석 장군이 이를 가로 막고 "문제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냐, 서울주변에서의 저항을 계속하면서 지연전을 벌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서울에서 철수하여 천도할 수밖에 없으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급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범석 장군은

계속해서 “지금의 전황으로 보아 서울사수가 어렵다면 철수문제로 좁혀야 할 것이며, 시민에 대한 조치와 한강교폭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퇴장하였다. 이어서 발언한 장기영 체신부장관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싹이 움튼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남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민주주의의 싹이 죽지 않고 힘차게 뻗어갈 것이다”라고 하였다.[78]

국무위원들은 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의견은 서울 철수 쪽으로 기울어져 정부의 수원이동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철수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산회하였다. 정부는 서울 시민 철수는 고사하고, 소관부처의 철수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27일 아침부터 정오 무렵까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하였다.[79]

## 3. 행정 · 입법 · 사법부의 수원 이동

### 1) 행정부의 이동

행정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이동에 앞서 27일 02 : 00에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이기붕 서울시장과 조병옥(전 미국파견특사) 박사 등이 남하할 것을 강요하자 남행을 결심하였다. 대통령은 27일 03 : 00에 김장홍 총경 등 두 사람만을 대동하고 경무대를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갔다.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은 27일 04 : 00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12 : 30에 대구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로 열차를 돌려 16 : 30에 대전에 도착하여 충남지사 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전에 일단 머물게 된 대통령은 29일 무쵸 대사가 운전하는 차로 수원에 올라와 맥아더 원수를 영접하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다.[80] 그리고 다음날인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온 정일권 준장을 육군소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육군총참모장겸 3군총사령관으로 임

명하였다.[81]

전쟁 발발 당시 정부는 전시이동계획은 물론이고 비상대책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부처간의 의견도 달랐다. 실제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 의 발표와 치안국의 경찰 정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의 전황보고가 각각 달랐다.

27일 미명 비상국무회의에서 수원이동이 결정되었다.[82]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 유지에만 주안점을 두었을 뿐 실질적인 행정기능의 이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수원이동이 결정되어 이를 방송으로 보도하였을 때,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는 이를 수습하고자 '이동중지'를 다시 보도하면서 공무원들의 정상근무를 종용하여 각 부처는 행정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의 결의한 대로 27일 정오 무렵까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27일 15 : 00까지 수원 시청으로 이동(장관집결)을 한 정부는 이날로 대통령이 대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충남도청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국회의 이동

제7회 임시국회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공백상태에 수반하여 재소집을 위한 아무런 기약도 없이 27일 04 : 00에 산회를 한 후 국회의원들은 각자 행동에 들어갔다.[83] 최초 국회의원들은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전 체류를 계기로 대전지방법원에 입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의원들 상호간의 연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반수 성원을 이루지 못하여 국회를 개회하지 못한 채 간담회를 열어 전국(戰局) 수습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세의 악화로 말미암아 7월 14일에 행정부와 더불어 또 다시 대구로 이동한 입법부는 7월 21일부터 제8회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부의 기능을 되찾기에 이르렀다.[84]

### 3) 사법부의 이동

사법부는 25일 대법관을 비롯한 사무직원들은 라디오방송과 신문, 벽보를 통해 적의 전면남침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날을 보냈는데 다만 전황을 궁금히 여긴 일부의 사무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와 숙직과 자체경비를 담당하였다.

26일 09 : 00경 대법원에서는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전날에 대통령이 발포한 긴급명령 제1호에 따라 각급 법원의 일반 민사 및 형사재판을 26일 09 : 00를 기해 무기연기하고 긴급명령에 따른 특별범죄 재판에 만전을 기하도록 결의한 후 이를 긴급히 하달하였다. 그러나 전황의 추이를 알 길이 없었다. 이에 노용호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총무처장 전규홍과 연락을 유지케 하여 전황과 아울러 행정부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27일 아침 행정부의 수원이동이 통보되자 수일 전에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대법원장 김병노를 비롯한 5명의 대법관 전원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향하였다.[85]

그런데 이때 수원이동이 잠정적인 것으로서 요인만의 일시적인 대피지시로 알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에 대하여 조직적인 철수지시는 물론 주요문서(재판기록, 호적원본,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긴급조치도 강구하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일부의 법관과 사무직원들은 일반시민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27일 15 : 00를 전후하여 서울지법 수원지청에 도착한 대법원 일행은 대통령이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으로 또 다시 내려갔다.

이리하여 대전에 도착한 사법부는 28일부터 대전지법에 사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7월 13일 하달된 비전투부처의 남하방침에 따라서 사법부도 대전을 떠났다.[86] 이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일행은 열차로 부산으로 직행하였고, 사무직원들은 노용호 행정처장의 인솔하에 전주－순천－진주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임시수도가 대구에 머물게 됨으로써 다시 대구로 북상하여 행정부가 위치한 경북도청의 강당 한쪽에 사법부를 개설하게 되었다.

## 4. 북한군의 서울 점령

6월 28일 새벽 수도방위를 위한 국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자 북한 제1군단(군단장 중장 김웅)은 제105전차여단과 함께 그날 한강 북쪽의 도하점을 폐쇄하는 한편 시내의 주요기관을 장악하여 적화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제1단계 목표인 이른바 서울점령을 자축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28일 낮은 그대로 보내고, 그 뒤부터 한강도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부대전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4사단(사단장 소장 이권무)은 28일 새벽 5시 30분에 동북쪽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87] 그리고 28일 아침 8시 무렵 제18보병연대가 서울의 북쪽 변두리를 점령하였다. 이후 신촌 일대에 자리잡아 한강대교(인도교)에서 마포-서강에 이르는 여의도의 대안을 점령하여 장차 영등포에서 도하하고자 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사단장 소장 이영호)은 황급하게 퇴각하는 적 부대들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서울을 남쪽으로 우회하여 오후 4시 무렵 서울의 남쪽 변두리인 이촌동(현 이촌 2동 한강철교와 원효대교 사이)을 점령하였다.[88] 그 후 사단은 용산 일대에서 이촌동-한남동 사이의 강변에 병력을 배치하여 장차 신사동으로 지향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사단장 소장 방호산)은 개성일대를 점령한 후 김포반도로 진출하여 영등포 및 인천을 점령한 후 이곳에 머물다가 제4사단이 수원을 공격할 때 이를 후속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사단장 소장 최광)은 뒤늦게 수색 일대에 입성하였으나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제105전차여단은 28일 05 : 30분부터 서울 북동 및 동쪽으로부터 진입한 후 주로 방송국, 발전소, 우체국, 전신국 및 도시의 여타 행정기관들을 점령하였다. 이후 28일 4시 무렵 사단 주력이 서울의 북부와 중심지역을 점령하였다.[89]

이리하여 또 한번 한강선의 돌파에 선두가 된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은 각각 관측소를 남산과 와우산(105고지) 및 노고산(104고지)에 두고, 포병연대로 하

여금 남산 기슭과 신촌 일대에 방열하도록 하여 화력지원 태세를 갖추게 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북한군 사단장들은 서울에서 퇴각하는 국군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을 점령하지 않은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제105전차여단 예하부대들도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국군을 추격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군에게 한강의 남쪽 강변을 강화하고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90]

# 제 3 절 국군의 한강이남 철수

## 1. 최종적인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철수

### 1) 국방부와 육군본부 철수

북한군은 6월 26일 13 : 00경 의정부를 점령한 후 계속해서 국군의 방어선인 창동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수도 서울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개전 초기의 고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저지하고 역습하려는 작전지도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26일 심야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수원이동을 결정한 반면 비상국회에서는 “서울 고수”를 결의하는 등 난맥상을 이루었다. 심야국무회의에서 돌아온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이동을 통보하였다. 이어 27일 07 : 00에 국방수뇌회의를 소집하여 “정부는 철수하니 각 군은 각자의 양식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국군의 한강이남 철수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27일 14 : 00에 보좌관(중령 신동우)과 수명의 경호원과 함께 국방부를 출발하여 15 : 00 수원역에 도착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91] 그러나 채병덕 총참모장은 “비록 정부가 철수하더라도 군은 서울을 고수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창동선 뿐만 아니라 미아리선도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27일 11 : 00에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를 밝혔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회의가 끝나자 군의 서울 철수를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일선부대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13 : 00에 육군본부를 시흥으로 철수하였다.

육군본부가 철수하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미 군사고문단도 시흥으로 철수하게



한강을 도하하는 국군부대

되었다. 이들이 한강을 지날 무렵인 14 : 00에 맥아더 원수로부터 미 합참본부가 자기에게 미 군사고문단을 포함한 모든 주한 미군의 작전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과 그의 전방지휘소(ADCOM)를 파한중이라는 내용을 접수하게 되었다. 미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William H. S. Wright) 대령은 채병덕 소장에게 이를 알리고 서울에 복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도 힘을 얻어 다시 서울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다. 총참모장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에게 한강교 및 광진교의 폭파를 중지하게 하고 27일 18 : 00에는 육군본부가 있는 서울로 복귀를 완료하여 미아리선 방어에 전력하였다.

그러나 28일 01 : 45을 전후하여 총참모장은 돈암동에 북한군 전차가 진입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지체 없이 공병감에게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한강을 건너 시흥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을 동반하고 작전국장 일행을 뒤따라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강교 300m에 못 미쳐서 교량이 폭파되어 서빙고쪽으로 도하하였다.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정래혁과 공국진 중령과 함께 02 : 30경 한강교 폭파중지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강파출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량이 폭파되자 서빙고쪽에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도하하게 되었다.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은 군수국 요원과 함

께 05 : 00에 파괴되지 않은 철교를 이용하여 도하하였다.[92]

### 2)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철수

#### (1) 해군본부 철수

전쟁이 발발할 때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은 함정을 구입하기 위해 미국에 있던 관계로 해군사관학교장(김영철 대령)이 총참모장 대리 근무를 하고 있었다. 6월 25일 04 : 30에 김영철 대령이 있는 공관에 해군본부로부터 비상전화가 걸려왔다. 동해안의 옥계 방면에 적 게릴라부대를 태운 수송선단이 남하하여 상륙을 개시하고 있다는 정보였다.[93]

보고를 받은 김영철 대령이 직접 국방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북한의 전면남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방부에서는 26일 육·해·공군의 모든 정보와 상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해군이나 공군은 병력이나 무장면에서 적과의 전투가 곤란하니 유엔군이 참전할 때까지 우선 해군본부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 27일 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는 차량 100대에 분승하여 수원으로 이동하였다.[94]

당시 수원에는 옹진반도에서 철수한 백인엽 대령이 지휘한 제17연대가 있었다. 27일 밤 해군본부는 다시 수원을 출발하여 28일 대전에 도착하여 해군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6월 30일 김영철 대령은 미 대사관 해군무관과 회의차 다시 수원으로 출발하여 이곳에서 논의한 끝에 미 해군함정의 출동과 함께 한반도의 동서 해상 37도 이북은 유엔해군함대가 담당하고, 그 이남의 해역은 한국 해군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0일 23 : 00 미 극동함대의 한국 연락장교로부터 한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병력증편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전해 왔다. 7월 1일 08 : 00 이용운 중령은 부산에서 개최된 연합참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진해를 출발하였으며 해군본부는 함정의 피아식별을 위하여 갑판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하였다. 7월 2일에는 미 함정이 주문진과 강릉방면에 대대적인 함포사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이날 해군본부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작전지휘부내에 해군연락소를 신설하고 이날 진해 통제부사령관은 해운공사 선박을 징발하여 운용하였다.

### (2) 공군본부 철수

6월 26일 24 : 00에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장관실에서 3군 총참모장(해군은 김영철 대령이 대리 참석함) 소집하여 국방수뇌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27일 새벽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며 해공군은 육군의 작전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은 27일 12 : 00에 여의도기지에서 공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수뇌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공군의 행동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95]

① 비행단은 총참모장이 직접 지휘하며 전투요원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기간으로 하여 수원기지로 이동한다.
② 공군사관학교장은 항공기지사령부, 사관학교, 헌병대의 일부 병력으로써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기지를 방어한다.
③ 병원은 대구, 군산, 평택의 3개 기지에 야전병원을 설치하여 각군의 부상병을 치료한다.
④ 수송대(2½톤 트럭 16대 : 공군의 전보유대수)는 김포기지에 있는 T-6기 연료를 대구-대전-수원기지로 수송한다.
⑤ 비행단의 전투 및 야전병원 그리고 김포지구경비사령부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해부대장이 지휘하여 서울이남의 기지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27일 기밀서류를 정리 소각하고 이동준비를 진행하였다. 오후가 되면서 전세가 더욱 위급해지자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을 비롯한 본부참모들은 서울 시청에서 징발한 트럭(청소차) 10대에 병력과 식량을 싣고 27일 17 : 30에 본부를 출발하였다. 공군본부는 이날 20 : 00에 수원중학교에 도착하였고, 28일에는 한강교가 폭파되고 서울이 점령되는 등 전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므

로 공군본부는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즉, 공군본부는 28일 12 : 00에 수원을 출발하여 17 : 00에 대전에 도착한 다음 대전여자중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이동하는 각 부대를 정비하였다.

### 3) 미아리 사령부의 한강이남 철수

6월 27일 23 : 00부터 미아리 저지선의 전황이 적의 침입으로 급전되기에 이르자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은 전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참모장 박병권 대령을 육군본부에 급파하여 긴급 조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게도 전령을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없다"라는 요지의 보고에 접하게 되었으므로 정황이 다급해졌음을 판단하고, 각 부대에게 "곧 철수하여 노량진으로 집결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가 28일 01 : 00였다.[96]

이후 이응준 장군은 후사면에 있는 지휘소에 이르러 헌병참모 박창록 대위 및 사병 1명과 함께 지프차에 동승하여 그곳을 떠나 철수하였다. 철수 도중 그는 창경원입구에서 적 전차와 조우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왕십리 쪽으로 우회하여 시내를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육군본부에 도착한 시간은 총참모장이 떠난 직후인 02 : 00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상황을 알리고, 제7사단장이 전사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재흥 준장은 전날 밤인 27일 21 : 00에 대전차방어대책을 보고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로 총참모장을 찾았다.[97] 그러나 "육군본부는 곧 이동할 것이니 돌아가서 진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길로 전선으로 돌아와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앞서 육군본부에 파견된 제5사단 참모장 박병권 대령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원대로 복귀하는 도중 돈암동 전차종점에 들어온 전차 4대를 확인하고, 미아리 지휘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사단장이 철수한 뒤였다. 따라서 그는 정보참모 김용주 중령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와 이날 07 : 00 무렵에 육군본부 경유로 서빙고쪽에서 한강을 건넜다.[98]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참모부장 등이 총참모장의 한강 도하를 권유하고 있었다. 당시 연락임무를 띠고 전방에 나가 있던 강문봉 대령(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에 의하여 이미 말한 대로 "적의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다"라고 함으로써 한강교의 폭파가 임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백일 대령은 이때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이 그의 소속장병들과 함께 삼각지부근에 바리케이드용 차량장벽을 설치한 다음 복귀한 것을 확인하자 총참모장 수행원으로 그를 지명하고 뒷일은 자신이 맡을 것이니 출발하도록 하였다.[99]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총참모장이 육군본부를 떠난 지 30분 뒤에 그를 뒤따라 나섰으나 한강인도교 200m 못 미쳐서 동 교량이 폭파되어 도하지점을 찾아 헤매다가 날이 샐 무렵에 서빙고부근에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넜다.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도 05 : 00에 육군본부에 들렀다가 날이 샐 무렵 반파된 철교로 한강을 건넜다.[100]

## 2. 전선부대의 한강이남 철수

6월 28일 01 : 00 무렵 적 전차의 시내진입과 편의대의 침투로 철수하게 된 미아리 방어선의 각 부대는 적이 주요 지점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건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분산되어 한강 이남으로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02 : 30에 한강교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강선에 당도하지 않는 한 시내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노릇이었다.

따라서 전방부대들은 외곽지대를 빠져 광진교 일대와 마포 그리고 행주와 이산포 지역에서 민간 선박편으로 도강하여 서울과 한강이북지역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만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전에 이곳을 통과하여 철수한 부대는 제16연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비교적 건제를 유지하여 광나루 부근에서 도강할 수 있었던 부대로는 제8연대 제2대대(대대장 고백규 소령)와 제15연대의 제2대대

(대대장 안광영 소령), 그리고 제20연대의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로서 이 부대들은 대체로 병력의 50~80%선을 유지하고 있었다.[101]

그리고 시내를 통과하여 한강변으로 가는 도중에서 각개 분산되어 부대는 제1연대 일부병력이 성북경찰서 부근에서, 그리고 제20연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돈암동에서 각각 그 주력과 이탈하여 북악산쪽으로 향하였다. 또한 제3연대의 제3대대(대대장 김봉상 소령)는 안국동의 풍문여고에 집결하였다가 중앙청 앞에서, 그리고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 중령)의 일부 병력은 북악산 부근에 이르러 각개 분산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혼돈된 상황 속에 광진교 일대에는 태릉쪽을 경유하여 집결한 제9연대 제1대대(대대장 유환박 소령)와 제5연대 제2대대(대대장 차갑준 소령), 그리고 제16연대(연대장 문용채 대령) 일부 병력 및 육군사관학교(교장 이준식 준장) 등이 미아리 우측의 부대들과 합류하여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102]

한편 광진교는 28일 04 : 00에 폭파되었으므로 이 시간 이후는 모두 나룻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빙고 부근에는 육군본부를 위시하여 재경부대 잔류 병력들이 모여 들었으며 마포주변에는 미아리 서측방에 배치되었던 병력들이 이곳에서 도강을 시도하였다.[103]

당시 한강에는 광진교를 포함하여 5개의 교량이 있었으나 모두 폭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도하수단이 없었던 각 부대는 별 수 없이 민간인 나룻배나 급조한 부유물을 이용하여 도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개별적으로 행동한 장병들은 대안으로 건너간 나룻배들이 되돌아오지 않아 도강에 더욱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민간인 인파가 많았던 서빙고 부근이 더욱 심하였다.

한편 서울 시내의 각 종합병원에 임시 수용된 전상자에 대한 후송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전 직전인 6월 24일 현재 각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수도육군병원(대방동)에 152명, 제1육군병원(부평)에 518명, 제2육군병원(대전)에 200명, 제3육군병원에 129명, 제5육군병원에 277명 등으로 도합 1,276명이었다. 그러나 개전 3일 동안에 3,200명의 전상자를 내어 병원의 수용능력이 초과되었다. 이에 긴급대책으로 서울대학부속병원(종로), 서울위생병원(청량리),

서울적십자병원(서대문), 서울시립병원(을지로), 철도병원(용산) 등 시내 종합병원에 이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 각 병원에 수용된 전상자는 서울대학병원에 100명, 그 밖의 병원에 각 70명씩 수용되었다.[104]

28일 아침 북한군이 시내 도처에서 국군 낙오병을 색출하여 총살하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들은 그들 중의 한 부상장교는 거동이 가능한 80여 명의 부상장병을 지휘하여 병원 뒷산으로 올라가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전원이 전사하였다.[105] 병원에 남아 있던 중상자와 일반 환자들은 병원으로 진입한 북한군에 의해 전원 학살되었다.

## 3. 국군의 전선 조정과 한강방어준비

6월 28일 아침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국군의 도하과정을 살펴보면 의정부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주로 광나루와 뚝섬 그리고 한남동과 서빙고의 각 도선장과 마포 및 하중리(서강)나루터에서, 그리고 문산 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행주와 이산포 나루터에서 각각 어선이나 작은 목선 등을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수원으로 집결하였고, 뚝섬과 한남동 그리고 서빙고를 경유한 일부병력은 시흥과 수원으로 나누어졌다. 마포와 하중리 및 행주로 건넌 병력은 대부분 시흥으로 집결하였다.

이들 철수병력의 집결이 어느 정도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다. 28일 낮에 수원농업시험장에 새로운 지휘소를 개설한 육군본부는 시흥 육군참모학교에 김홍일 소장이 지휘하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부대의 건제와 병과를 따지지 않고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노량진부근에 투입함으로써 한강 방어선을 급편 방어하게 하였다.

6월 28일 오전 일부 군 수뇌와 함께 수원에 집결한 김홍일 소장은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으로부터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되어 28일 14 : 00에 시흥에

나타났다. 그는 보병학교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7사단 참모장 김종갑 대령을 참모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령부 참모진을 구성하여 한강 방어임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때 이미 보병학교에서 이날 새벽에 한강을 건너온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등이 그 곳에 낙오자수용소를 설치하여 노량진과 영등포쪽으로 강을 건너 서울-수원 도로를 따라 남하하던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이에 김홍일 소장은 육군본부 참모들을 수원에 있는 총참모장을 보좌하는 본연의 직책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사령부 요원으로써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간인을 동원하여 안양과 시흥의 두 곳에 취사장을 설치하고, 집결된 병력에 대한 재편을 병행하게 하는 가운데 유재흥 준장, 이종찬 대령, 임선하 대령을 지명하여 한강선의 방어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규모로 혼합 편성된 병력을 한강선으로 추진하여 전개하였다.

15 : 00를 전후하여 혼성제7사단(사단장 유재흥 준장)에는 혼성 2개 대대를, 혼성수도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에게는 기갑연대 장갑대대와 제8연대 1개 대대로써 사단의 기간을 삼도록 하였다. 혼성 제2사단(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소사 부근에 급편진지를 마련한 기갑연대 기병대대의 수용하에 말죽거리 일대에서 전열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 제 4 절 서울방어작전 종합 평가

## 1. 작전의 성격 및 결과

서울방어작전은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의 주요 핵심목표로서 북한군 제1군단과 국군이 수도 서울을 놓고 일대 공방전을 전개한 작전이다. 그러나 이 작전은 병력 및 화력면에서 열세인 국군이 그동안의 전투로 인한 피로도와 전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 결과 서울은 전차를 앞세운 적의 집중공격과 국군의 한강교 조기 폭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국군은 개인화기만을 휴대한 채 한강이남으로 개인 및 소부대 단위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의정부가 함락된 후 국군의 창동 및 미아리 전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정부－포천 정면의 국군은 26일 의정부 실함과 함께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패전 책임으로 사단장직에서 해임되고 대신 총참모장으로부터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제7사단 유재흥 준장이 서울 동부 및 북부 지역에 대한 방어책임을 지고, 제2사단(-)과 제7사단(-)을 통합 지휘하여 창동 방어선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27일 04 : 00 북한군이 창동 방어선을 기습 공격하자,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패퇴한 병력과 증원부대를 수습하여 그들의 남하를 저지하였으나, 지탱하지 못하고 27일 14 : 00 미아리－태릉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서울방어의 최후 저지선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태릉 방어선에서는 광주에서 뒤늦게 증원된 제5사단(-)과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들이 방어선을 형성하여 적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미아리 방어를 위해 육군본부에서는 26일 제5사단장 이응준 소

장을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이곳에 투입된 예하의 제15연대 제2대대, 제20연대 제1대대와 수도사단 제8연대 제2대대를 지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에 미아리 방어선은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과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이 정릉(171고지)－미아리－청량리(106고지)를 잇는 이른바 미아리 방어선을 형성하고, 3번 도로를 포함한 서측부대는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 겸 제5사단장인 이응준 소장이, 동측부대는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겸 제7사단장인 유재흥 준장이 각각 지휘하여 서울을 방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아리 방어선은 적의 강력한 보전포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아리 방어선은 28일 01 : 00 전차를 앞세운 적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돌파되었고, 병력은 분산되어 한강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28일 02 : 00에 적이 시내에 돌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채병덕 총참모장은 전방부대의 철수와 서울시민의 피난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육군본부 공병감 최창식 대령으로 하여금 한강교 폭파를 명령함으로써 02 : 30경 한강인도교를 비롯한 3개의 철교가 절단되었다.

6월 28일 아침,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한 후 국군의 한강 철수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의정부 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광나루와 뚝섬 그리고 한남동과 서빙고의 각 도선장과 마포 및 하중리(서강)나루터에서, 그리고 문산 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행주와 이산포 나루터에서 각각 부선이나 작은 목선 등을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 이때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수원으로 집결하고 뚝섬과 한남동 그리고 서빙고를 경유한 일부는 시흥과 수원으로 나누어졌으며 마포와 하중리 및 행주로 건넌 병력은 대부분 시흥으로 집결하였다. 이들 철수병력의 집결이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다. 이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 편성되어 한강선방어에 투입되었다.

## 2. 북한군의 서울 공격작전 분석

북한군 제4사단은 3번 도로를 따라 서울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수유리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고, 제3사단은 43번 도로를 따라 서울 동측에서 공격하기 위해 광진구 화양동 부근까지 진출해 있었다. 제105전차여단(-)은 서울 동북쪽 4㎞의 정릉 유원지 부근까지 진출하였다.[106] 제105전차여단(-) 중 43번 도로로 기동했던 제107전차연대는 25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47번 도로로 기동하다가 도로가 없어 다시 43번 도로로 기동로를 전환했던 제109전차연대는 26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에 도착하였다.

3번 도로로 기동했던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는 아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27일 새벽에야 의정부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107] 특히, 이때 제105전차여단장은 제109전차연대에게 수유리를 최근임무계선으로 하고, 그 후 서울까지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임무를 부여하였다.[108]

그러나 북한군은 소련고문단이 작성한 남침계획을 공격부대 지휘관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의정부 점령 이후 의정부 남쪽에서 제3·제4사단의 포병과 제105전차여단이 도로 우선권에 대한 상급부대에 대한 지침이 없이 기동한 관계로 도로의 혼선으로 계획된 기동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최초 고속기동부대로 전쟁 개시 2일차에 한강교 점령을 임무로 기동했던 제105전차여단에 대해서 6월 27일 김일성이 의정부 북쪽에서 서울로 진출하고 있는 제105전차여단(-)에게 한강교 점령 대신 중앙청을 비롯한 서대문형무소와 방송국 등 주요 시설들을 점령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커다란 전략적 실수를 하게 되었다.

제105전차여단(-)을 최초 계획대로 한강교로 신속히 기동시켜 한강교를 조기에 확보했다면 국군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적 타격을 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강교 폭파로 인해 도파장비가 없어 서울에서 지체하는 우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 3. 육군본부의 전쟁 지도 분석

육군본부는 이 작전간 전쟁지도면에서 커다란 실책을 범하였다. 육군본부 전방지휘소가 2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락 대책이 없어 총참모장은 계속 현장 지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고 전쟁 전반에 대한 적절한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개전 초기 군사경력자회의에서 제기되었던 한강 방어선 및 서울 고수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의 중대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감정적인 서울 사수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국군방어계획 상에도 서울함락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부대운용 및 편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한강 방어선으로부터 금강 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으로 연결되는 방어개념에 따라 육군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차선책으로라도 강구했어야 했다.

또한 한강교 폭파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도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부대에게 철수 시간을 미리 통보하여 전선부대의 국군이 주요 화기 및 장비를 휴대한 채 부대 건제를 유지한 조직적인 철수를 지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서울 북쪽에서 싸우고 있던 국군은 화포를 비롯하여 주요 장비 및 무기를 대부분 유기한 채 한강으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전선을 지휘하던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강교 폭파를 연기하려고 하였으나, 통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육군본부에서 한강교 폭파를 저지하려고 달려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한강교 국군 철수와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된 시간대로 한강교 폭파는 이루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 및 무기 손실을 입음으로써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한강방어선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의정부 지역에 대한 병력의 축차투입으로 인해 적이 시내로 진입하였을 때 시

가지 전투를 위한 병력이 부족하여 시가지 장애물인 바리케이드를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강선 방어를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始興地區戰鬪司令部)를 신속히 설치하여 한강이남으로 후퇴하는 국군 병력을 수습하여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했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 4. 전장 기능별 분석

창동－미아리 전투에 이어 전개된 서울시가지 전투는 전세가 국군에게 아주 불리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서울 방어에 투입된 국군은 2개 보병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었지만 실제 병력은 2개 연대에도 못 미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포병화력도 포병학교의 화포 6문이 전부였다. 또한 개전 이래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등장한 전차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겨우 교량폭파조의 길음교의 교량폭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다 전쟁 전반을 지도하는 육군본부는 전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흥으로 철수하였다가 다시 복귀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국군의 주력을 한강이북에 버려둔 채 한강교를 폭파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엄청난 전투력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개인 및 소부대 단위로 개인소총만을 휴대한 채 겨우 몸만 한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를 전장기능별로 나뉘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휘통제

창동 방어선 이후부터 전투를 지휘해 온 제7사단장(준장 유재흥)과 미아리 방어전부터 전투를 서울 사수를 위해 지휘해 온 제5사단장(소장 이응준)은 실병력이 1개 연대 병력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통신망과 연락장교를 통해 인

접 및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조기에 그나마도 두절이 됨으로써 인접 및 상급부대간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휴 병력이 발생하고, 단일전선에서 싸우는 아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참모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전방사령부와 적과 전투를 벌이는 전선이 서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따른 건전한 판단 및 결심을 하여 예하부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선을 지휘해야 할 사단장이 상급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가는 등 전선상의 지휘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통신수단이 전무한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지휘관의 행동이었다.

특히 전쟁지도부 역할을 한 육군본부가 끝까지 서울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거리가 먼 실제 행동은 군에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었고, 한강교 폭파와 연관된 지휘책임 문제는 군내의 상·하급자간의 상호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109)]

### 2) 정 보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국군은 적의 강요에 의한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적에 대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적에 대한 정보 및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전선이 안정되고 이를 수행할 특수부대가 있어야 했으나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다.

따라서 적에 관한 정보 및 첩보를 수집할 수색대나 정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역부족이었다. 특히 전투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선 구축에도 부족한 병력 때문에 병력이 차출하여 이를 수행할 여건은 더욱 아니었다. 결국 당시 급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군의 전선 지휘관은 후퇴하는 병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하여 적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 3) 기 동

국군은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백석천 전투에 이은 창동 방어선에서도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서울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에는 창동 방어선에 후퇴한 미아리 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와 광주에서 뒤늦게 북상한 제5사단(-)이 합동으로 미아리 삼거리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당시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에 투입된 국군은 외형상으로는 2개 사단이었으나 실 병력은 1개 연대 병력에도 못미쳤다.

그 결과 미아리－회기동 전투시에는 예비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적과 교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투 중 전선의 어느 한 곳이 뚫리게 되면 이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서 적이 길음교를 통하여 공격하자 국군 방어진지는 곧바로 뚫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군은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전투에서는 병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병력 절약이라든지 병력 집중과 같은 병력 운용은 이론상으로나 통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국군은 서울 방어작전간 대(對)기동면에서 볼 때, 국군은 불비한 전장환경 여건하에서도 대전차 대비책에 대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북한군의 남침 이후 국군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소련제 T-34전차였다. 충격력과 돌파력, 그리고 화력을 갖춘 채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적 전차 앞에서 이를 파괴할 무기가 없던 국군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국군은 대전차 무기인 57㎜ 대전차포 및 2.36″로켓포를 이용하여 적 전차를 파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차궤도를 집중하여 사격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었고 전차에 대한 측면공격도 훈련이 부족한 국군 장병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전 초기부터 적 전차에 대해서는 전차파괴를 위한 육탄공격조를 운용하거나 대전차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 전차를 무력화 내지는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전투에서도 국군은 대전차 방비책으로 교량폭파조를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용하지 못하였다. 물론 요충지에 대전차호를 비롯하여 대전차 방벽 및 도로대화구 등을 구축하여 적 전차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등의 대비계획이 있었으나 이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나 이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지 전투를 위해 국군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주요 교통중심지 및 길목에 적의 전차 및 차량의 접근을 차단 및 방해할 수 있는 바리케이드를 주요 길목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병력의 부족으로 바리케이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이용하여 국군은 적 전차의 기동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국군이 한강이남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였다.

### 4) 화력 운용

의정부 북방 전투를 통해 국군의 화력은 북한군의 화력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서울 최후저지선인 창동－미아리 전투에서 국군의 포병화력 및 지원은 105㎜ 및 57㎜ 대전차포 10여 문에 불과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군단 포병 1개 대대를 비롯하여 제3・제4사단 포병 8개 대대(76㎜와 122㎜ 야포) 및 박격포(61㎜・82㎜・120㎜) 수 백문으로 국군의 허술한 급편방어진지에 대해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포병학교 소속의 105㎜ 화포 6문과 대전차포 7문으로 제5사단(-)과 제7사단(-)을 화력 지원하였다. 따라서 적의 전투력을 파괴, 무력화, 제압하여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공격해 오는 적 전차 및 선두 도보부대에 대 한 공격이 전부였다. 그 결과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적의 공격속도가 빨라 진지변환에 따른 효과적인 포병사격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아리 방어선이 붕괴되고 적에 의한 철수를 강요당하는 긴박한 전선상황 속에서도 포병 간부들의 노력으로 105㎜ 야포 3문과 포탄 500발을 한강이

남으로 철수시켰다.

### 5) 방 호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서울 북쪽에서 이루어진 국군의 철수는 조직적인 철수가 되지 못하였다. 국군은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을 최후까지 저지하다가 다음으로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등의 전투 양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인원, 무기 및 장비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용전투력을 보존하여 작전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생존대책에는 지휘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창동－미아리 방어선에서도 국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개인 보호를 위한 엉성한 엄체호 구축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것마저도 시간이 없어 제대로 구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방어진지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한강교의 폭파로 인해 국군은 퇴로가 차단이후 철수하게 됨으로써 엄호부대도 없는 가운데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각개 분산하여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 및 무기피해를 입게 되었다.

### 6) 전투근무지원

개전 초기부터 국군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차량의 40% 입고에 따른 기동장비의 부족과 탄약 부족이었다. 전장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탄약의 부족은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는 국군에게는 악몽이었다. 또한 그나마 있는 탄약도 기동장비의 부족으로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투근무지원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전투간에서도 실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당시 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이 부족한 것이 그 첫째 원인이었고, 둘째는 있는 탄약마저도 차량이 없어 이를 전방까지 추진 보급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전선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전방 부대가 계속하여 탄약보충을 긴급 요청하였음에도 상급부대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다.

따라서 외박 또는 휴가에서 복귀한 병력을 전방으로 추진할 때도 차량이 없어 도보로 이동하였다. 또한 기차도 창동선까지만 운행되었기 때문에 병력 보충 및 탄약 추진 등을 비롯한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수송수단에는 처음부터 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주 (註)

1)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7), pp. 504-555.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서울 : 군인공제회, 2001), p. 165.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서울 : 군인공제회, 2001), pp. 13-14.
4) 위의 책, p. 15.
5) 『김일성선집』 제12권(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pp. 52-54;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 29.
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02, p. 504. 장교연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권총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비무장이었고, 소대장·중대장 및 참모장교는 각종 병과 장교로 구성되었고, 병사들도 대부분 낙오병이었다.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서울 : 삼화인쇄, 1985), p. 106.
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17.
9) 위의 책,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06.
1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02.
11) 제1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한태원 중령)를 제외한 각 대대가 동두천 북쪽에서 분산되었고, 제3연대 제1대대(대대장 임백진 소령)는 금오리에서 광릉으로 철수하여 27일 15 : 00에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건넜으며, 수유리에 집결한 연대 주력도 실병력 1개 대대에 미달하였다. 제5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가 보병학교 교도대로 파견 중 문산 방면으로 출동한데다, 제1대대(대대장 이정도 소령)의 소재도 묘연하였다. 제16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강태봉 중령)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제2대대는 백석천변에서 교전 중 대대장 김헌 중령이 부상으로 후송됨에 따라 병력이 분산되었고, 연대장 문용채 대령도 본대에서 이탈된 상태여서 제5연대장 최창언 중령이 이를 통합지휘하고 있었다. 제25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임익순 소령)가 안동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었으므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데다 백석천에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던 제2대대(대대장 대리 나희필 대위)가 창동으로 철수 중에 적 전차 사격을 받고 도봉산을 넘어 서대문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기갑연대 기병대대(대대장 장철부 소령)는 26일 10 : 00에 축석령에서 적 전차가 의정부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고, 태릉으로 철수한 후 명령에 의해 27일 15 : 00에 한남동에서 한강을 도하했다.
1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03.
13) 위의 책, p. 505.
14) 위의 책, p. 505.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10.
1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06.
17) 위의 책, pp. 511-512.
18) 위의 책, pp. 513-5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112-113; 유재흥, 『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서울 : 을유문화사, 1994), p. 130. 제1연대장과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작전주임과 통신대장, 그리고 운전병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북한군 포위망에

서 탈출할 수 있었다.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113-114.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 p. 302.

21) 이응준, 『이응준자서전 : 회고 90년, 1890-1981』(서울 : 삼아원색사, 1982), p. 279; 유재흥, 『격동의 세월』, pp. 131-132. 6월 26일 17 : 00 용산에 도착에 국군 제5사단(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육군본부로부터 "미아리에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미아리고개 좌측의 103고지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 병력은 제15연대 제2대대와 제20연대 제1대대 등 2개 대대뿐이었다. 창동방어선이 붕괴되자 제5사단장이 철수병력을 수습하며 방어진지 편성을 서두르고 있을 무렵 제7사단장 겸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이 현지에 도착하였다. 두 지휘관은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마지막 보루인 이 방어선의 작전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번 도로를 포함한 좌측 부대는 제5사단장이, 우측부대는 제7사단장이 각각 지휘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이응준, 『회고 90년, 1890-1981』, p. 278.

23) 이응준, 위의 책, p. 279.

2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516-517.

25) 국방부, 위의 책, p. 517.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115-116. 미아리고개는 현재 서울시로 편입되어 시가지로 발전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에 속하여 그 일대가 공동묘지였으며, 서울 동북교의 돈암동에서 고개 하나로 경계되어 있어, 속칭이를 미아리고개라 하였다. 고개의 북쪽에는 북한산을 수원으로 하는 정릉천이 동남으로 흘러 중랑천으로 유입되었다. 이 하천은 폭 30m에 양안이 3~4m의 단애를 이루고 있어 창동-미아리를 연결하는 길음교와 경춘가도상의 중랑교만 폭파한다면 대전차방벽으로 적격이었다.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116-117.

28) 혼성연대는 창동방어선에서 철수한 제3・제5・제16・제25연대 병력을 수습하여 편성한 연대로 실병력은 1개 대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배치는 각 연대 건제를 유지하여 배치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17).

29) 제16연대는 27일 저녁 미아리와 청량리 일대로 분산 철수한 제16연대 병력을 주축으로 하여 각 부대 낙오병으로 혼성편성된 부대이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17).

30) 6・25이전에는 공비토벌, 폭동진압, 38도선상의 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영현을 장충단에 봉안하고 있었으며, 국군 재경부대는 국경일과 부대행사 때마다 장충단을 참배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23).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p. 122-123.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 1950. 6. 26. 11 : 3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283-284.

3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523-524.

34) 중량교는 국군 제3사단 공병대대 소속 이종두 소위가 지휘하는 폭파조에 의해 폭파되었다.

3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29.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27.

37) 육군사관하교 생도들의 유격활동 상황은 호랑이부대원 중 유일하게 생환한 김원기(金元基) 생도에 의해 밝혀졌다(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29).

3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21.

3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21;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33; 소련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전차의 서울 진입 시간은 6월 28일 00 : 30분경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2], p. 16).

4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37.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증언(1977. 2. 27, 장충동 자택). 6·25당시 한강에는 이촌동-노량진 간에 한강대교(인도교)와 경부선(복선), 경인 상행선(단선), 경인하행선(단선)의 3개 철교 및 광나루에 있는 광진교(廣津橋) 등 5개의 교량이 가설되어 있었다.

4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37.

42) Roy E. Appleman, *U. 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GPO, 1986), p. 40.

4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38.

44) 위의 책, p. 545.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33.

46) 육군본부, 「한강도하상황 통계표 : 부표 2」, 『戰史』 제7집(대구 : 육군본부전사감실, 1952), p. 28.

4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46.

48) 위의 책, p. 546.

49) 위의 책, p. 547.

50) 육군본부, 「한강도하상황 통계표 : 부표 2」, p. 28.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35.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2], p. 16.

5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40.

54) 위의 책, p. 541.

55) 위의 책, p. 541.

56) 대대 집단 휴가로 복귀한 2개 중대 규모.

57) 김상덕·김완식, 『7일간의 한강방어』(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28-35.

5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542-543.

59) 조갑제, 『이용문 장군 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서울 : 샘터, 1988), pp. 115-11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549-550.

60) 육군본부, 『의장 안병범』(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9), pp. 287-33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549-550.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40.

62) 陸軍本部, 「漢江渡河狀況 統計表 : 附表 3」, 『戰史』 第7輯(대구 : 육군본부전사감실, 1952), p. 28.

63) 陸軍本部, 「漢江渡河狀況 統計表 : 附表 3」, p. 28.

64) 이때 나루터에 운집한 피난민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야포의 도하를 고집하는 장병들의 왕성한 책임감과 불타는 투지에 감동되어 숨겨 둔 나룻배를 제공하는가 하면 포탄을 운반하면서 야포를 도하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p. 141.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302.

67)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32.

6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2.

69) 위의 책, p. 613.

70) 위의 책, p. 613.

71) 위의 책, p. 613.

72) 위의 책, p. 614, p. 656.
7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1. 이때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 신성모, 외무부장관 이병직, 내무부장관 백성욱, 재무부장관 최순주, 법무부장관 이우익, 문교부장관 백영준, 농림부장관 윤영선, 상공부장관 김 훈, 보건부장관 구영숙, 사회부장관 이윤영, 문교부장관 김석관, 그리고 체신부장관 장기영이었다.
7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1.
75) 위의 책, p. 611, pp. 634-635.
76) 위의 책, p. 611.
77)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속의 大使館』(서울 : 한섬사, 1980), p. 40.
7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2.
79) 위의 책, p. 612.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보처장 명의로 "전황의 호전으로 정부 이동을 중지하였으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방송하였다.
8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p. 615-618.
81) 정일권, 『정일권회고록 :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 p. 3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8.
8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615.
83) 위의 책, p. 620.
84) 위의 책, p. 621.
85) 위의 책, p. 621.
86) 위의 책, p. 622.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1, p. 166.
88) 위의 책, p. 166.
89) 위의 책, p. 166.
90) 위의 책, pp. 166-167.
9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51. 해군총참모장대리 김영철 대령과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준장도 27일 07 : 00 국방부수뇌회의가 끝난 뒤 각군 부대에 돌아가 철수회의를 가진 후 14 : 00~17 : 00 사이에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9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51.
93) 위의 책, p. 799.
94) 위의 책, p. 799.
95) 위의 책, p. 809-810.
96) 이응준, 『회고 90년, 1890-1981』, pp. 280-28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50. 그러나 유재흥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량진으로 철수시간을 28일 03 : 00로 기술하고 있다(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33).
97)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32.
98) 이응준, 『회고 90년, 1890-1981』, p. 28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51.
9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51.
100) 유재흥, 『격동의 세월』, p. 135.
10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p. 548.
102) 위의 책, p. 549.
103) 위의 책, p. 549.
104) 위의 책, p. 549.

105) 부상자들은 입원 후송 당시 각각 자신의 무기와 탄약을 휴대한 채 후송되었다.
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보고서』1, p. 165.
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보고서』2, pp. 13-14.
108) 위의 책, p. 15.
109) 온창일,「한국군 지휘관의 리더쉽」,『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서울 : 정문사, 2001), p. 79.



# 제 8 장　초기 해·공군 작전


제 1 절　해군작전

제 2 절　공군작전

# 제 1 절 해군작전

## 1. 개 요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에 의해 정식 발족된 대한민국 해군은 1950년 5월 동·서해안의 해상경비에 임하는 제1정대와 제2정대에 함정을 증가 배치하는 한편 해상방위대를 삼척, 죽변, 강구, 감포 등에 배치하여 해상감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반 무장이나 병력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 해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해상작전에 돌입하였으나 해군본부는 육군본부와 함께 수원, 대전선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 해군은 각종 함정 30척과 80여 척의 보조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병력 또한 육전대를 포함하여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 33척과 6,956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었다.[1)]

그러나 해군본부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동·서해안에서는 해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의 수송선을 격퇴 및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남침정보를 입수한 해군은 즉시 각 정대사령관과 경비부사령관에게 동·서·남해안의 해상경비를 강화하여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함정을 격침하라는 비상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개전 당일 04:00경 YMS 509정은 동해안의 옥계와 삼척 등지에 상륙을 시도하는 적의 수송선단을 격퇴하였고, 당시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었던 PC 701함은 대한해협 근해에서 약 600여 명의 무장병력이 승선하여 남하중인 적의 대형수송선을 격침시켰다. 이 전투는 훈련만 거듭하던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성공시킨 단독해상작전으로 남해안에 상륙 침투를 기도하던 적의 게릴라부대

를 해상에서 격멸함으로써 그들의 후방교란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작전이었다.

서해안에서는 옹진반도 방어를 담당한 육군 제17연대가 6월 26일 옹진 부포에 고립되자 LST 801함이 파견되어 병력 1,050명과 군용물자를 인천까지 수송 지원하였다. 또한 YMS 502정은 강화 수로에서 40톤급의 적 수송선 2척을 격침시키는 한편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강화도 남단에 집결해 있던 적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대한민국 해군은 단독으로 전 해상을 봉쇄하던 중 6월 27일 유엔 해군함정이 출동하여 37도선 이북 해상을 봉쇄함에 따라 37도선 이남에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저녁에 트루먼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해군 및 공군지원을 결정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여한 미 해군과 영연방 해군은 북위 37도 이북의 동·서해안에서 봉쇄 및 연안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는 훈련을 실시하던 중 1개 대대를 진주에 파견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진주에 주둔한 해병대는 공비토벌임무와 병행하여 선무공작, 민심수습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12월 27일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는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로 전환되어 인천작전에 참여할 때까지 부여된 제주도내 치안확보와 해안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 2. 북한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의 상황

### 1) 북한 해군 상황

#### (1) 북한 해군의 창설과 확장

1945년 10월 하순 이후 각 보안대의 창설과 함께 북한의 동·서해안지대에는

북한 지역의 해상방위를 위한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 이어 1946년 7월에는 원산에 **수상보안대사령부가** 정식으로 설치되었고, 동·서해안에는 각각 1개 대 대규모의 동해 수상보안대와 서해 수상보안대가 발족되었다.

1946년 8월 **수상보안대사령부**는 동·서해안의 통제강화를 위해 평양으로 이동하여 확대되었고, 12월에는 해안경비대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또한 동해 수상보안대 예하에 속초, 장전, 서호진, 신포, 고저 등 수상보안지대 7개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동해 수상보안대는 **원산경비위수사령부**로, 서해 수상보안대는 진남포경비위수사령부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청진에는 **청진경비위수사령부가** 신설되었다.

해안경비대의 초기 간부 충원은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출신자로 이루어졌으나, 해상근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됨으로써 근무 중에 많은 기술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안경비대의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해안경비대 간부학교가 1947년 7월 8일 원산에서 창설되었다. 이곳에서는 항해와 기관, 함상포 및 해안포 등 해군의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북한 해군 군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해안경비대 간부학교 선발은 지방당원 또는 당 간부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고, 교도대에 입대시켜 사상교육과 제식교련, 전투훈련, 사격술 등을 연마시켰다. 이곳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은 1947년 5월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났고,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에는 612명으로 더욱 증가하였다.[2)]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에 따라 병력이 증가하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는 북한군 해군군관학교로 명칭을 개칭하고 청진시 신암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원산에는 훈련소만을 남겨두었다. 북한군 해군군관학교 초대 교장과 부교장에는 김광연 소장과 김원무 총좌가 임명되었으며, 예하에 성명 미상의 기술부교장과 군사부교장 그리고 후방부교장이 있었으며, 정치부교장은 소정철 총좌가 담당하였다.

또한 해군군관학교는 자체 내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하고 초대 소장에 김엽 중좌를 임명하였으며, 예하에 성명 미상의 후방부소장과 함께 서덕철 중좌가 교육부소장, 김명호 총위가 군사부소장, 그리고 김웅빈 대위가 정치부소장을 각각 담

당하였다. 기술훈련소는 1949년 9월에 제1기생 250명을 배출한데 이어 다음해 5월에는 제2기생 750명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북한군이 아닌 내무성 관할로 존속하고 있던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면서 북한군 해군으로 발족하였다.[3] 창군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규 해군으로 발족한 북한 해군은 청진기지에 제1위수사령부와 원산기지에 제2위수사령부, 그리고 진남포기지에 제3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해군군관학교와 기술훈련소 등을 총사령부 예하에 두었다.

전쟁을 앞둔 1950년 5월 1일에는 원산과 진남포에 각각 1개 대대규모로 육전대를 창설하였다. 그 중 원산기지에 있던 제2위수사령부 직속 육전대는 원산 송도에 1개 대대병력으로 원산기지의 경계임무를 수행해오다 남침 직후 남해여단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진남포기지의 제3위수사령부 직속의 육전대도 진남포기지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남침 직전에 북한군 제4보병사단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남침 직전의 북한 해군은 30여 척의 함정과 1만 5, 270명의 병력을 보유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 (2) 작전 개념

북한군은 한반도 전역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계획하고 수도 서울을 최단시간 내에 점령한 후 한강이남으로 신속히 전과를 확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여건하에서 전략작전을 진행하며, 동·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조기에 제압하고 부산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남한 전역을 해방함으로써 군사작전을 종결한다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4]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군의 중점은 지상군에 있었고, 강력한 근대적 공격무기로 단숨에 남한전역을 석권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6·25전쟁 개전초기 북한 해군의 작전개념은 해전이나 또는 지상군의 엄호포격 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상진격에 호응하여 적 후방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개전초기에 동·서·남해안의 주요 항구와 도시를 조기에 기습 점령하여 해두보를 확보하고 해안포

병의 대상륙 방어작전을 통해 미군의 상륙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함정세력이나 해군 정규군의 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습상륙을 표방한 수송선단과 육전대의 양성에 치중하였다.[5)]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북한 해군이 전쟁과정에서 수행한 최우선의 임무는 국군이 장악하고 있는 해안지역에 대한 전술적 상륙이었다. 상륙작전은 주로 전쟁의 제1단계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 상륙한 모든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전술적 규모였고,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고 있는 지상부대들과 연결작전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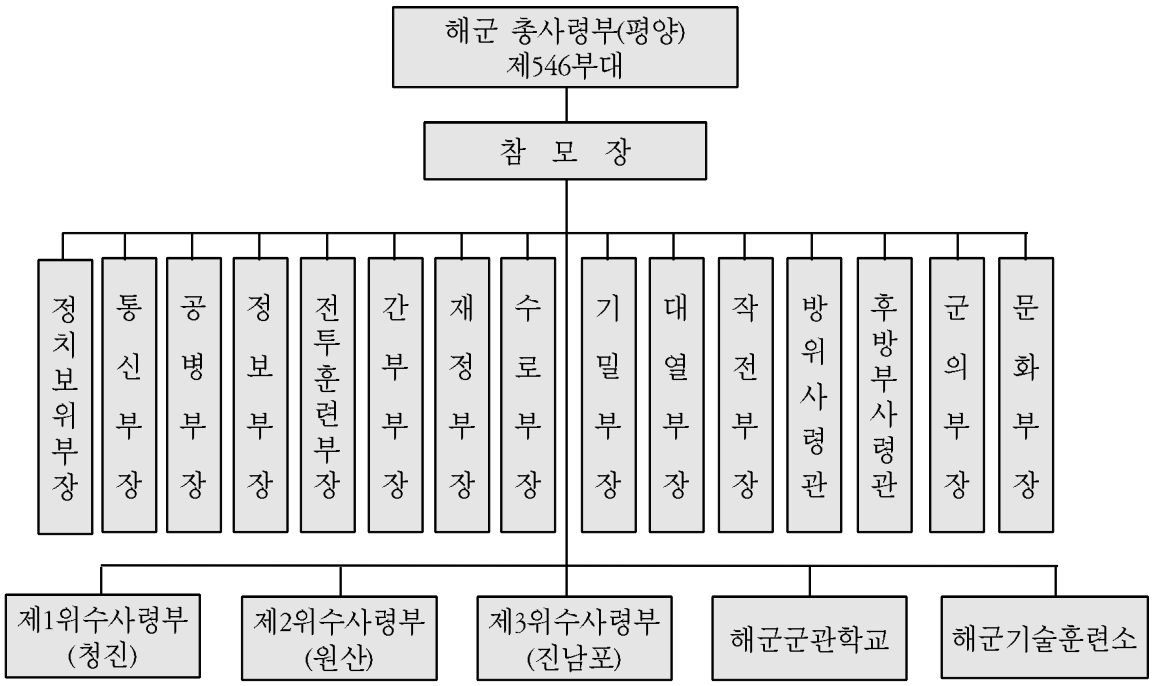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 해군은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작전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전쟁초기의 국군의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점차 해안방어작전의 수행으로 바뀌었다. 이는 소규모로 운용되던 북한 해군이 전쟁초기에 대부분의 전투함을 잃게 됨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므로 북한 해군은 차후의 해전을 위해 일반적인 수단과 어선 등을 운용하였으며, 또한 해상으로부터 예상되는 국군 및 유엔 해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해안방어를 더욱 강화하였다.[7)]

### (3) 부대 편성 및 운용

북한 해군은 평양에 위치한 해군총사령부와 청진, 원산, 진남포의 3개 기지, 그리고 청진과 유진의 해군군관학교와 해군기술학교로 편성되어 있었다. 해군총사령부에는 해군 부상을 겸하고 있는 해군총사령관과 이를 보좌하는 참모장이 있으며, 예하에는 수로・작전・전투훈련・정보・공병・통신・정치보위・재정・대열・간부・기밀・문화・방위・후방・군의(軍醫)의 15개 부서가 편제되어 있었다. 북한 해군의 부상 겸 해군총사령관은 친소련계인 한일무(韓一武) 중장[8)]이었고, 참모장은 김원무(金元武) 총좌가 맡고 있었다.

북한 해군은 1949년 8월 해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약 200명의 기간장교를 기반으로 하여 청진기지에서 발족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정대 편성에 주력하였다. 해군의 골격을 형성한 이들은 지리적인 사정으로 청진에 설치했던 중앙기지를 원산으로 이전하여 정대편성을 강화하였다.

<표 8-1> 북한 해군 총사령부 조직(1950. 6.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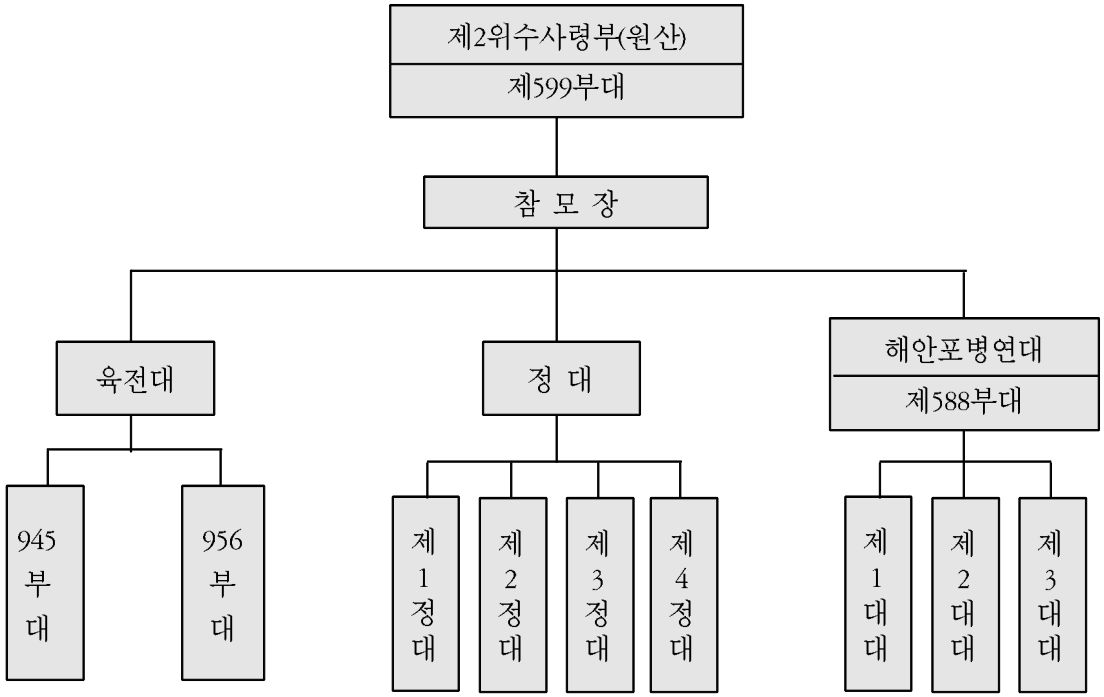



그리고 청진과 원산, 진남포기지에 각각의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는데, 청진기지는 제1위수사령부, 원산기지는 제2위수사령부, 진남포기지는 제3위수사령부로 명명되었다.[9] 각 기지 중에서 요충지대에는 각 파견대와 초소를 설치하여 해상 감시 및 방위에 주력하였다.

사실상 북한 해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제599부대로 지칭되었던 원산의 제2위수사령부는 4개 정대와 해안포병연대, 그리고 육전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대는 제1, 제2, 제3, 제4정대의 4개 정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제588부대로 통칭되며 해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해안포병연대는 3개 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육전대는 예하에 945부대와 956부대를 두고 있었다.

한편 6·25전쟁 개전 당시 북한 해군의 편성상 특징은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시와 평시 지휘체제의 변화였다. 북한군의 평시 지휘체제는 민족보위성을 최고 지휘기구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그 예하의 총

<표 8-2> 북한 해군 제599부대 조직(1950. 6. 25 현재)




참모부가 작전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해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는 민족보위성의 통제 하에 있으나 전시에는 총참모부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다.[10]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소련 해군의 운용개념에 따른 편성이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작전교리로서 소규모의 상륙부대를 편성해 육군의 진격에 발맞추어 적의 측후방에 상륙을 도모함으로써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상륙 또는 공정작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함정의 톤수는 적지만 속도가 빠른 어뢰정을 바탕으로 기습적 공격이 가능한 편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작전교리에 따라 북한 해군은 4개의 어뢰정대와 2개의 해군 육전대를 육성하였다.[11] 어뢰정대는 제1정대로부터 제4정대까지 편성되었고, 각 정대는 3~5정의 어뢰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연대급 규모인 2개의 해군 육전대는 '945부대'와 '956부대'라는 부대 통상명칭을 사용하였다.[12]

### (4) 병력 및 장비

북한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크고 작은 각종 선박을 입수하는 동시에 1949년 1월 김일성의 특명에 의해 진남포조선공장에서는 약 800톤급의 군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원산에서는 이순신호를 준공하는 등 군함 건조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해군은 6·25전쟁 개전 당시 어뢰정 및 경비정 30여 척과 보조선 80여 척을 포함하여 11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였다.[13]

북한 해군의 작전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어뢰정대는 제1정대로부터 제4정대까지 편성되었고, 총 14정의 어뢰정을 보유하였다. 각 정대의 어뢰정에는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 제1정대는 11호, 12호, 13호의 3정을, 제2정대는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의 5정을, 제3정대는 31호, 32호, 33호의 3정을, 그리고 제4정대는 41호, 42호, 43호의 3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4] 어뢰정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길이 42m, 폭 7.6m, 높이 7.2m, 배수량 280톤으로써 기동성을 보장하였으며, 승선인원은 40명 내외였다.[15]

또한 같은 시기에 북한 해군은 1만 5,57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6] 이들은 평양에 위치해 있던 총사령부에 1,000명, 제1위수사령부인 청진기지에 3,920명, 그리고 제2위수사령부인 원산기지에 4,750명과 제3위수사령부인 진남포에 5,000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군군관학교에 500명과 기타 관련 시설에도 400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함정과 병력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 해군은 보유 병력 중 정규해군의 비율이 낮고 대신에 전쟁 발발 직전에 모집한 육전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북한 해군이 해전이나 지상군에 대한 함포

<표 8-3> 북한 해군 병력현황

| 총사령부 | 제1위수사(청진) | 제2위수사(원산) | 제3위수사(진남포) | 군관학교 | 기타시설 | 합계 |
|---|---|---|---|---|---|---|
| 1,000 | 3,920 | 4,750 | 5,000 | 500 | 400 | 15,570 |

<표 8-4> 북한 해군 제599군부대 각 구분대 조직통계(1950. 3. 24현재)[17]

| 구 분 | 군관 | 하사관 | 전사 | 계 |
|---|---|---|---|---|
| 기 지 본 부 | 29 | 18 | 21 | 68 |
| 통 신 지 구 | 26 | 40 | 194 | 260 |
| 기지경비중대 | 2 | 20 | 204 | 226 |
| 기지경리소대 | 1 | 5 | 42 | 48 |
| 제 1 정 대 | 17 | 31 | 26 | 74 |
| 제 2 정 대 | | | | 73[18] |
| 제 3 정 대 | 18 | 43 | 36 | 97 |
| 제 4 정 대 | 4 | 15 | 1 | 20 |
| 기지소방대 | 2 | | 14 | 16 |
| 평 화 호 | 9 | 12 | 35 | 56 |
| 수 로 부 | 8 | 9 | 8 | 25 |
| 협 주 단 | 4 | | 63 | 67 |
| 건조위원회 | 11 | | | 11 |
| 건 설 중 대 | 5 | 3 | 63 | 71 |
| 기지함선수리소 | 7 | 1 | 46 | 54 |
| 합 계 | 143 | 197 | 753 | 1,166 |

사격 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군의 지상진격에 호응하여 아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려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함정은 남포호와 같은 1,780톤의 대형수송선도 있었으나, 250~280톤급의 어뢰정 14척만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30~40톤급의 소형선박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조선은 지방민이 어업에 이용하던 선박에 불과하였다.[19]

## 2) 대한민국 해군 상황

### (1)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과 발전

조선해안경비대는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의해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단행하였다.[20] 국군조직법에 이어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된 국방부 직제령에 의거 해군의 개편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해군기구의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르면, 해군 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군의 해상작전을 통할하고, 예하부대·학교·함대를 지휘 감독하며, 군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다.[21]

초대 해군총참모장으로는 해군 준장 손원일(孫元一)이 임명되었고, 해안경비대 총사령부는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다. 해군총사령부는 12월 15일 해군본부로 기구개편을 단행하면서 해군총참모장 밑에 참모부장을 두고 5국 5감실 체제로 편성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 호군국과 병기·의무·헌병·법무·감찰감실이었다. 그리고 해군본부 예하부대에 대한 편성은 해안경비대의 기구 및 편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8월 31일 인사교육국 신편으로부터 시작된 해군본부의 조직편성은 다음해 4월 1일 호군국(護軍局)과 헌병감실의 편성을 완료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일부 조직의 신설 및 개편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총참모장 밑에 두었던 참모부장을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세분하고, 작전참모부장 아래에는 작전국, 함정국, 정보감실, 병기감실을 두었으며, 행정참모부장 밑에는 인사국, 경리국, 호군국, 교육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헌병감실, 정훈감실, 시설감실, 의무감실, 총무실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1인 체제로 운용되던 참모부장을 2인 체제로 증원하고, 인사교육국은 인사국과 교육감실로 분리하였으며, 그리고 정훈감실, 시설감실, 통신감실, 총무실을 신설함으로써 각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모든 해군부대는 각종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되었다.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7호로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과 대통령령 제88호에 의한 해병대령, 그리고 5월 7일 대통령령 제100호를 근거로 한 해군기지설치령과 6월 25일 대통령령 제135호의 통제부직제령 및 대통령령 제136호의 경비부직제령, 또한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2호로 바탕으로 한 해군기지법 등은 해당 부대의 설치를 위한 관련 법규였다.[22]

<표 8-5> 경비기지별 육상 및 해상경비구역 현황

| 구 분 | 육상구역 | 해상구역 |
|---|---|---|
| 인천 | 경기도, 서울시 | 경기도의 해상 |
| 군산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해상 |
| 목포 | 전라남도의 장성군, 담양군, 광주부, 광산군, 화순군, 나주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목포부,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 | 전라남도의 영광군, 함평군, 목포부,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의 해상 |
| 여수 | 전라남도의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순천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군 | 전라남도의 광양군, 여수군, 순천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의 해상 |
| 제주 | 제주도 | 제주도의 해상 |
| 부산 |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 해상 |
| 포항 |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 해상 |
| 묵호 | 강원도 | 강원도의 해상 |

1949년 5월 7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100호 해군기지설치령 제6조에 의한 경비기지의 병사(兵事)에 관한 육상구역 및 해상경비구역을 살펴보면 <표 8-5>와 같다.

대한민국 해군은 1949년 2월 14일 해상경비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대(艇隊)를 설치하였다.[23] 이어 4월 15일에는 인천에 제2해군병원이 설치되었다가 5월 15일부로 인천해군병원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6월 1일 해군은 진해특설기지를 진해통제부로 개편하는 한편 각 해군기지도 해군경비부로 개편하였다.[24]

해군의 본산인 진해특설기지에는 통제부가 설치되어 사령장관이 취임하였으며, 통제부 예하에는 진해해군병원, 조함창, 항해·기관·통신·공작·경리·위생학교 등 6개 학교가 편성되었다.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구역의 방어를 위하여 진해만 해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와 출사(出師)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안경비대 이후 해군기지로 사용되던 목포·포항·묵호 등 각 기지에 설치된 경비부에도 경비부사령관이 임명되어 부대를 지휘하였다.[25] 경비부사령관은 육상과 해상으로 경비책임구역을 확정하여 맥아더 라인 내 불법선박의 침입방지 등 연안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해군은 194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군본부 예하에 진해통제부를 비롯하여 인천경비부, 목포경비부, 묵호경비부, 부산기지, 군산기지, 포항기지, 제1정대, 제2정대, 제3정대, 훈련정대, 해군사관학교, 인천해군병원, 해병대를 두게 되었으며, 다음해 4월 15에는 부산기지와 포항기지를 해체하여 부산경비부와 포항경비부를 창설하였다.

한편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고유명사로 된 함정명칭은 1948년 8월 30일부로 숫자로 된 번호명칭이 추가 제정됨으로써 병행 사용하게 되었는데, LCI와 YO 함정은 100단위, JMS 함정은 300단위, 그리고 YMS 함정은 500단위가 부여되었다.

당시 해군의 보유 함정은 대부분이 소해정이었고, 함정에는 함포나 주요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조를 요청했으나 단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 없었다. 이에 1949년 6월 해군은 자체적으로 함정건조기금 갹출위원회를 결성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10월 17일 미국으로부터 구잠함(驅潛艦) 1척을 구입하였다.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입항한 구잠함은 4월 27일 백두산호(제701함)로 명명되었다. 이어 5월에는 제702함, 제703함, 제704함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나, 이들 함정은 전쟁발발 이후인 7월 14일 진해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해군은 함포를 장비한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전쟁초기에 기함이 되어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해권을 담당하였다.[26]

### (2) 작전 개념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으로 공식 발족된 해군이 표방한 해안경비와 해상수호 임무는 해군작전의 목표 및 방침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적 게릴라의 기습상륙에 대비하는 해상경비와 해상봉쇄, 병력 및 물자수송 지원을

위한 해상수송 및 상륙작전 지원, 그리고 소해 및 정탐작전에 주력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 해군은 전세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군의 후방에 병력을 상륙시키거나 해안선을 따라 보급수송과 정보수색을 실시하는 북한 해군의 활동을 해상경비와 특정 해역에 대한 일정기간의 엄격한 봉쇄작전을 통해 저지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병력 및 보급물자 수송과 함께 주요 수로 및 항구 부근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와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정을 탐지하는 정찰임무도 부여받았다.[27]

이에 따라 해군은 적의 기습에 대해 "급속한 시일 내에 적의 해상병력을 섬멸하고, 상륙작전을 분쇄하며, 그리고 제해권의 완전장악과 육군과의 협동작전을 전개한다. 그리고 해안연도의 적진지, 보급로 및 시설을 파괴하고, 해상경비 및 해안봉쇄작전을 전개하면서 도서작전 및 해상수송로를 확보하는 한편 유엔 해군과의 공동작전을 실시한다"[28]는 비상조치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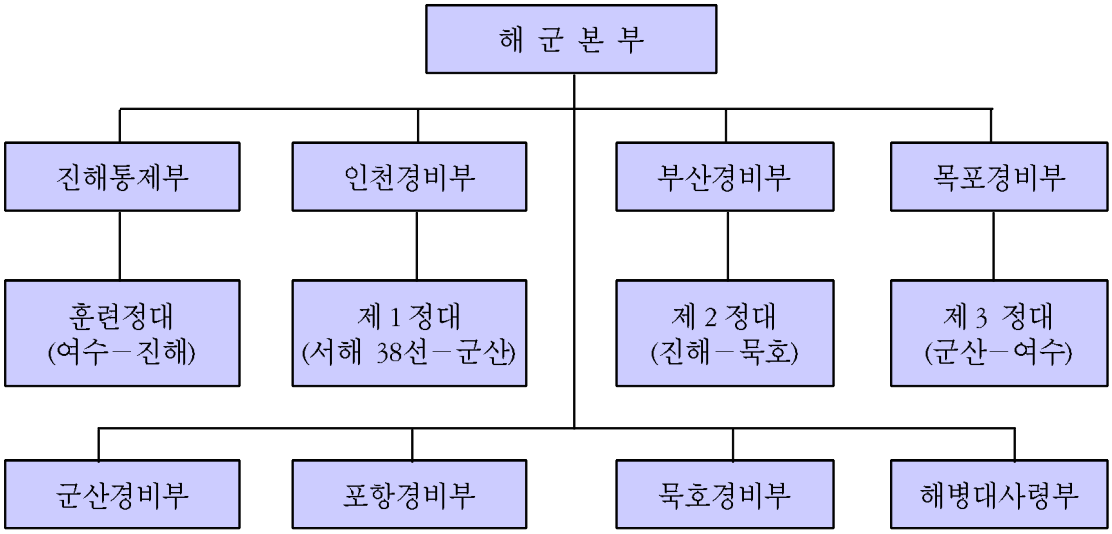
### (3) 부대편성 및 운용

6·25전쟁 직전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본부 예하에 1개 통제부, 6개 경비부 및 4개 정대, 그리고 해병대의 편성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안방어 및 보급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군본부는 참모총장 아래에 작전과 행정의 2인 참모부장(參謀副長)과 5국 10감실로 편성되어 있었다.[29]

진해해군통제부는 대통령령 제100호 해군기지 설치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1949년 6월 1일부로 진해특설기지가 승격됨으로써 설치되었다.[30] 군항구역의 방어, 경비 및 출사준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통제부는 인사, 정보, 법무참모실과 작전·통신·교육·경리부, 그리고 헌병대, 의무실, 진해병원, 각 병과학교, 해군공창, 군악대와 예속함정 및 훈련정대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인원은 장교 283명, 준위 35명, 사병 947명 등 1,215명이었다.[31]

한편 진해특설기지의 진해통제부 승격과 아울러 동·서·남해안에 설치되었던 8개의 해군기지 중 진해와 제주기지를 제외한 6개 기지가 경비부로 개편되었다.[32]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해 목포, 묵호, 군산, 포항, 부산에 경비부가 설치되어

<표 8-6> 6·25전쟁 직전의 대한민국 해군 편성




경비기지구역 및 담당경비구역의 방어와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33]

각 경비부별 설치일자는 인천, 목포, 묵호경비부가 1949년 6월 1일에, 부산과 포항, 군산경비부가 1950년 4월 15일 해군기지 설치령에 따라 기지에서 경비부로 승격되었다.[34] 전쟁발발 이후 묵호경비부는 해본작편명 제7호(1950. 7. 18)에 의거 포항경비부에 통합되어 합동대적작전을 수행하였다.[35]

한편 대한민국 해군은 1949년 2월 14일 해역 방위를 담당할 정대(艇隊)를 동·서·남해안의 주요 기지에 설치하였는데, 인천기지에 제1정대, 부산기지에 제2정대, 목포기지에 제3정대, 그리고 진해기지에 훈련정대를 설치하였다.[36]

유해거 중령이 사령으로 있는 제1정대는 서해 38도선으로부터 군산(북위 36도 20분)에 이르는 해역의 방위를 담당하며, 예하에 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충남 중령의 제2정대는 동해 38도선으로부터 진해(동경 129도)에 이르는 해역의 방위를 담당하며, 7척의 함정으로 정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정긍모 대령의 제3정대는 군산(북위 36도 20분)으로부터 여수(동경 127도 05분)의 해역 방위를 위해 6척의 함정을, 그리고 PC 701함을 비롯한 8척의 함정으로 편성된 훈련정대는 여수(동경 127도 05분)에서 진해(동경 129도)에 이르는 해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표 8-7> 대한민국 해군 주요 직위자(6·25개전 직전)

| 직 책 | 계급 | 성 명 | 비고 | 직 책 | 계급 | 성 명 | 비고 |
|---|---|---|---|---|---|---|---|
| 해군총참모장 | 소장 | 손원일(孫元一) | 미국출장 | 헌병감 | 소령 | 김태숙(金泰淑) | |
| 총참모장대리 | 대령 | 김영철(金永哲) | | 총무실장 | 대위 | 이축진(李軸鎭) | |
| 인사국장 | 대령 | 김일병(金一秉) | | 진해통제부사령장관 | 대령 | 김성삼(金省三) | |
| 작전국장 | 중령 | 박옥규(朴沃圭) | 미국출장 | 진해통제부참모장 | 중령 | 김석범(金錫範) | |
| 작전국장대리 | 소령 | 김용호(金龍虎) | | 인천경비부사령관 | 중령 | 유해거(柳海巨) | |
| 경리국장 | 중령 | 김경선(金慶善) | | 군산경비부사령관 | 소령 | 김종기(金鍾淇) | |
| 함정국장 | 중령 | 이종우(李鍾玗) | | 목포경비부사령관 | 대령 | 정긍모(鄭兢謨) | |
| 감찰감 | 소령 | 정동호(鄭東浩) | | 부산경비부사령관 | 중령 | 민영구(閔泳玖) | |
| 법무감 | 소령 | 오응선(吳應善) | | 포항경비부사령관 | 중령 | 남상휘(南相徽) | |
| 교육감 | 중령 | 최용남(崔龍男) | | 묵호경비부사령관 | 중령 | 김두찬(金斗燦) | |
| 정훈감 | 문관 | 안흥국(安興國) | | 제1정대사령 | 중령 | 유해거(柳海巨) | 겸무 |
| 정보감 | 소령 | 함명수(咸明洙) | | 제2정대사령 | 중령 | 김충남(金忠男) | |
| 통신감 | 소령 | 한득순(韓得淳) | | 제3정대사령 | 대령 | 정긍모(鄭兢謨) | 겸무 |
| 병기감 | 소령 | 이우룡(李雨龍) | | 훈련정대사령 | 소령 | 양해경(梁海卿) | |
| 시설감 | 중령 | 김극인(金極寅) | | 해군사관학교장 | 대령 | 김장훈(金長勳) | |
| 의무감 | 중령 | 박양원(朴良元) | | 해군조함청장 | 중령 | 권태춘(權泰春) | |

개전 당시 해군의 주요 보직 현황은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을 비롯하여 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 인사국장 김일병 대령, 작전국장 박옥규 중령, 경리국장 김경선 중령, 함정국장 이종우 대령 등 <표 8-7>과 같다.

### (4) 병력 및 장비

1950년 6월 25일 개전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6,956명의 병력과 총 33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군 육상병력 4,638명,[37] 해군 해상병력 1,077명[38]으로 해군병력이 5,715명이며, 해병대 병력 1,241명[39]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해군 육상병력의 지역별 배치현황은 서울의 해군본부 594명, 진해통제부 2,830명, 여수 206명, 인천경비부 195명, 부산경비부 209명, 목포경비부 139명, 묵호경비부 195명, 포항경비부 209명, 그리고 군산경비부

<표 8-8> 6·25전쟁 직전의 해군 병력 현황[40]

| 지역 | 부대명 | 해군병력 | | 해병대병력 | 비고 |
|---|---|---|---|---|---|
| | | 육상 | 해상 | | |
| 서 울 | 본 부 | 594 | | | 훈련정대<br>여수 : 4척<br>진해 : 4척 |
| 진 해 | 통 제 부 | 2,830 | | | |
| | 훈련정대 | | 206 | | |
| 여 수 | 목포수영 | 206 | | | |
| 인 천 | 인천경비부 | 195 | | | |
| | 제 1 정대 | | 360 | | |
| 부 산 | 부산경비부 | 209 | | | |
| | 제 2 정대 | | 280 | | |
| 목 포 | 목포경비부 | 139 | | | |
| | 제 3 정대 | | 231 | | |
| 묵 호 | 묵호경비부 | 195 | | | |
| 포 항 | 포항경비부 | 209 | | | |
| 군 산 | 군산경비부 | 61 | | | |
| 제 주 | 해 병 대 | | | 1,241 | |
| 계 | | 4,638 | 1,077 | 1,241 | |
| | | 6,956 | | | |

<표 8-9> 6·25전쟁 직전의 해군함정 배치세력 현황

| 정 대 | 지 역 | 함 형 | 함 정 명 | | 계 |
|---|---|---|---|---|---|
| | | | 선 체 번 호 | 형별 | |
| 제1정대 | 인 천 | JMS | 302, 307 | 2 | 7 |
| | | AMS | 501, 502, 503, 513 | 4 | |
| | | PG | 313 | 1 | |
| 제2정대 | 부 산 | JMS | 304, 305, 306 | 3 | 7 |
| | | AMS | 506, 509, 510, 516 | 4 | |
| 제3정대 | 목 포 | JMS | 301, 303, 309, 310 | 4 | 6 |
| | | AMS | 505, 514 | 2 | |
| 훈련정대 | 여 수 | LCI | 105 | 1 | 8 |
| | | AMS | 504, 507, 512 | 3 | |
| | 진 해 | AMS | 515, 518 | 5 | |
| | | JMS | 308 | 1 | |
| | | PC | 701 | 1 | |
| 기타함정 | 진 해 | LST | 801 | 1 | 5 |
| | | AKL | 901 | 1 | |
| | | YO | 106 | 1 | |
| | | GB | 21, 22 | 2 | |
| 총 함 정 수 | | | | 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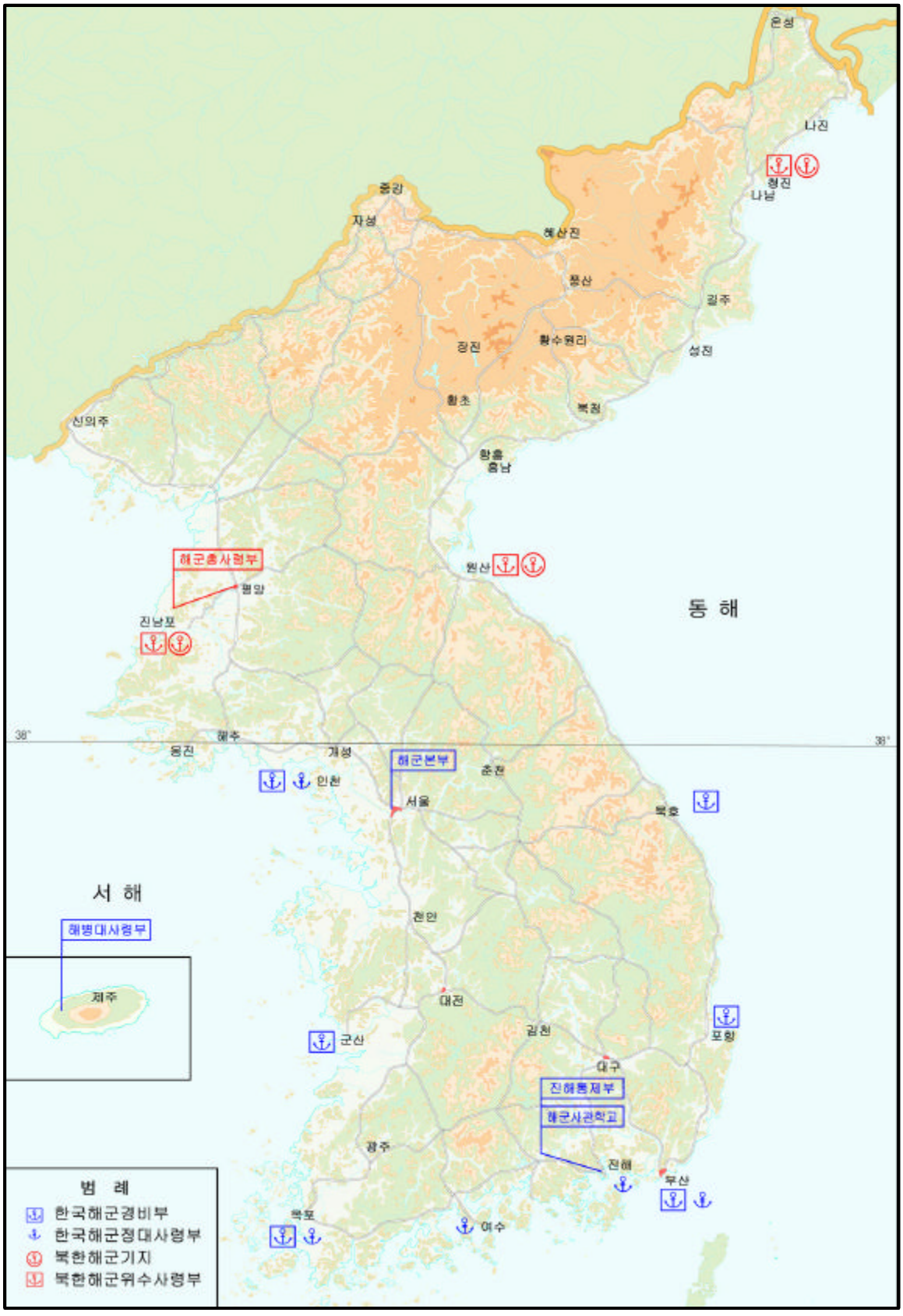
<표 8-10>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세력[41]

| 구분 | 종별 | 제원 | | | | | 장비(포) | | | | | | 비고 |
|---|---|---|---|---|---|---|---|---|---|---|---|---|---|
| | | 총톤수(톤) | 선장(척) | 선폭(척) | 마력 | 속력(노트) | 20㎜ | 37㎜ | 40㎜ | 50㎜ | 57㎜ | 3″ | |
| 301 | JMS | 150 | 127 | 18.5 | 800 | 10 | 1 | | 1 | 2 | | | |
| 302 | JMS | 150 | 127 | 18.5 | 800 | 11 | 1 | | 1 | 2 | | | |
| 303 | JMS | 181 | 127 | 18.5 | 800 | 9 | | 1 | | 2 | | | |
| 304 | JMS | 180 | 127 | 18.5 | 800 | 9 | | 1 | | 2 | | | |
| 305 | JMS | 180 | 127 | 18.5 | 800 | 10 | | 1 | | 2 | | | 6월 29일 침몰 |
| 306 | JMS | 184 | 127 | 18.5 | 800 | 10 | | 1 | | 2 | | | |
| 307 | JMS | 181 | 127 | 18.5 | 800 | 11 | | 1 | | 2 | | | |
| 308 | JMS | 150 | 127 | 18.5 | 800 | 12 | | 1 | | 2 | | | |
| 309 | JMS | 150 | 127 | 18.5 | 800 | 10 | | 1 | | 2 | | | |
| 310 | JMS | 181 | 127 | 18.5 | 800 | 11 | | 1 | | 2 | | | |
| 313 | PG | 300 | 152 | 22.4 | 800 | 12 | | 1 | | 2 | | | |
| 501 | YMS | 260.3 | 136 | 24.6 | 1,000 | 12 | | 1 | | 2 | | | |
| 502 | YMS | 260.3 | 136 | 24.6 | 1,000 | 12 | | 1 | | 2 | | | |
| 503 | YMS | 260.3 | 136 | 24.6 | 1,000 | 11 | | 1 | | 2 | | | |
| 504 | YMS | 260.3 | 136 | 24.6 | 1,000 | 10 | | | | 2 | | | |
| 505 | YMS | 260.3 | 136 | 24.6 | 1,000 | 9 | | | | 2 | | | |
| 506 | YMS | 260.3 | 136 | 24.6 | 1,000 | 9 | | 1 | | 2 | | | |
| 507 | YMS | 260.3 | 136 | 24.6 | 1,000 | 12 | | 1 | | 2 | | | |
| 509 | YMS | 260.3 | 136 | 24.6 | 1,000 | 9 | | 1 | | 2 | | | |

61명 등 모두 4,638명이었다.

반면에 해군 해상병력은 진해 훈련정대에 206명, 인천 제1정대에 360명, 부산 제2정대에 280명, 그리고 목포의 제3정대에 231명 등 총 1,077명이 각 정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상황도 8-1> 남북한 해군 배치도



한편 개전 직전 대한민국 해군은 33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함형별로 구분하면 PC와 PG 각 1척, AMS 15척, JMS 10척 등 27척의 전투 및 경비함과 수송선 2척, 유조정 1척, 상륙정 1척, 항만정 2척 등 6척의 지원함정이었다.

각 정대별 함정의 배치세력을 살펴보면, 인천의 제1정대는 JMS 302정, 307정, PG 313정과 AMS 501정, 502정, 503정, 513정 등 7척을, 부산의 제2정대는 JMS 304정, 305정, 306정과 AMS 506정, 509정, 510정, 516정 등 7척을, 그리고 목포의 제3정대는 JMS 301정, 303정, 309정, 310정과 AMS 505정, 514정 등 6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해와 여수의 훈련정대는 JMS 308정과 AMS 504정, 507정, 512정, 515정, 518정, PC 701정, LCI 105정 등 8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타 LST 801정, AKL 901정, YO 106정 및 항만정 GB 21정과 22정은 진해통제부에 소속되어 있었다.[42] 대부분 소해정인 이들 경비함정은 4개 정대로 나뉘어 기지에서 대기하거나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 3. 개전 초기의 해군작전

### 1) 북한 해군의 초기 작전

개전초기 북한 해군의 주요 임무는 국군의 후방지역에 대한 전술적 상륙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4 : 00를 전후하여 북한 해군의 육전대인 945부대의 일부 병력들은 766부대와 함께 어뢰정대의 엄호를 받으며 강릉과 삼척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들은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삼척의 제21연대 사이에 상륙하여 강릉 지역에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후 국군 제10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고 있는 북한군 제5사단과 협동작전으로 국군의 주력을 포위·격멸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삼척 지역에는 빨치산부대를 상륙시켜 국군의 후방지역에서 빨치산운동을 전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43]

북한 해군은 이외에도 서해안 및 남해안의 주요 항구를 조기에 점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해군은 개전 당일 무장수송선에 600여 명의 무장게릴라를 승선시켜 남해안의 주요 지역에 침투시키기 위해 대한해협을 항진하였으나, 한국 해군 PC 701함에 의해 대한해협 근해에서 격침되었다. 또한 그들은 6월 27일 저녁에 3,000여 명의 병력을 서해안의 비안도에 상륙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44] 이는 개전 초기 동·서·남해안의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상륙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45]

### 2) 한국 해군의 초기작전

#### (1) 개전 초기 해군본부의 조치

1950년 6월 25일 04:30 손원일 제독을 대신하여 총참모장직을 수행하던 김영철 대령은 동해안의 옥계해상에서 적의 게릴라부대가 수송선단에 편승 남하하여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이어 국방부를 통해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해군본부는 6월 25일 09:00를 기해 해군본부 작명갑 제48호로써 예하 모든 기지 및 정대에 비상경계 돌입과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2정대 사령 김충남 중령에게 예하의 모든 함정을 지휘하여 동해경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상륙을 기도중인 적 선박을 포착·섬멸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1정대 사령 유해거 중령에게도 예하의 모든 함정을 지휘하여 서해안 경비를 강화하고, LST 801함을 부포(釜浦)로 보내 육군 제17연대의 철수수송에 임할 것과 민간선박의 출입을 엄금하고, 적성 선박 또는 적성으로 인정되는 선박은 나포하거나 격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각 함정은 암호를 규정하여 피아의 식별을 정확히 할 것 등을 시달하였다.[46]

이후 해군은 각종 정보와 상황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종합판단에 따라 해군본부를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7일 10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수원으로 철수한 해군본부는 정세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하

달받았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는 1950년 6월 27일 04 : 00에 소수의 병력으로 전투사령부를 본부 내에 설치하였고, 07 : 00에는 해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진해통제부사령장관 김성삼 대령에게 일임하였다. 작전지휘권을 부여받은 통제부사령장관은 작전부장에 이상렬 대령, 작전참모로 이용운 중령, 보좌로 이영우 대위를 각각 임명하여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본작명으로 동·서·남해안의 작전을 지휘하였다.[47]

일련의 조치를 취한 해군본부는 전선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수원으로부터 철수를 단행하여 다음날 16 : 00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장병을 진해로 이송하였고, 따라서 대전의 해군본부에는 103명의 소수 장병들만 잔류하였다. 이어 1950년 7월 1일에는 해군본부를 해군작전본부로 개편하여 유엔해군과의 협동작전 수행에 돌입하였다.

### (2) 해군의 초기작전

#### ① YMS 509정의 옥계 전투

1950년 6월 25일 새벽[48] 북한군의 지상남침과 함께 동해상에서도 함정을 동원한 남침이 시작되었다. 이 함정에는 옥계와 삼척 및 임원리 등에 상륙하기 위해 성진과 흥남을 출발한 제766부대원들이 승선하고 있었다. 제766부대는 갑산과 회령에서 양성된 정규군이 아닌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집단이었다.

제766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을 촉진하기 위해 강릉의 국군 제8사단의 배후를 교란하는 한편 삼척 주둔 제8사단 제21연대의 강릉지원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6월 25일 새벽 이들은 무장수송선 1척과 PT정 4척의 호위 아래 발동선 30척으로 구성된 상륙선단을 이끌고 정동진 방향으로부터 금진 및 옥계 해상에 출현하여 즉각적으로 상륙을 개시하였다.[49]

한편 대한민국 해군은 부산의 제2정대 소속 소해정 6척이 동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지상에서는 38도선 중심으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해상은 별다른 징후가 없었으므로 제2정대는 1척의 경비정으로 묵호와 주문진간

을 경비하였다. 그리고 묵호경비부는 강릉으로부터 묵호에 이르는 각 해안에 해상감시소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6월 24일 묵호해상을 경비하고 있던 JMS 304정은 경비임무를 YMS 509정에 인계하고 부산의 제2정대사령부로 귀항하고 있었으며, YMS 509정은 이날 경비출동기간 중에 필요한 식료품 적재를 위해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한편 6월 25일 04 : 00 동해상의 해로를 따라 남하한 북한군 제766부대는 옥계해안에 대한 상륙을 개시하고 있었다. 옥계 지역의 해안초소로부터 적의 상륙을 보고받은 묵호경비부 사령관 김두찬(金斗燦) 중령은 해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YMS 509정의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의 해상경비체계는 항구에 정박 중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경비임무를 인수받은 YMS 509정도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승조원 모두는 육상 외출에서 복귀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25일 05 : 00 YMS 509정은 해군본부로부터 "긴급 출동 지시, 북한수송선단이 남침하여 옥계해안에 상륙중임. YMS 509정은 긴급 출동하여 격침할 것"의 긴급전문을 접수하였다. 긴급출동명령을 받은 509정은 06 : 00에 묵호항을 출항하여 북상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선체가 40°씩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의 항해였다.

2시간의 항해 후 YMS 509정은 안개 속에서 아군의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발광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상대 선박은 응신을 하지 않았다. YMS 509정은 즉시 전투배치에 들어간 채 발광신호를 보내며 상대 선박에 1㎞까지 접근해 갔다. 그러자 상대 선박은 YMS 509정에 포격을 가하였다.

상대선박이 적선임을 파악한 YMS 509정장의 즉각적인 포격 지시에 따라 37㎜포와 중기관총이 응사를 시작함으로써 조용하던 아침바다에 치열한 포성이 진동하였다. 적선은 갑판에 40㎜ 2연장 기관포로 무장한 PGM(砲艦)으로 509정보다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마스트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어 있었다.[50]

YMS 509정 포 요원들은 조준장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파도에 따라 선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에 정조준으로 사격함으로써 37㎜포는 정확하게 적의 철

판에 명중하였다. 약 50분에 걸쳐 계속된 교전으로 적선은 화력과 속도가 미약해지자 북으로 도주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YMS 509정도 선수(船首)에 적 포탄 1발이 명중되었으나 목선으로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YMS 509정은 피격된 선체의 긴급수리를 위해 묵호로 귀항하여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교전해역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미 상륙을 완료한 후였고, 해안선에는 적의 발동선 3~4척만이 있었다.

이날 15 : 00에 YMS 509정은 옥계 북쪽 3㎞ 지점에서 상륙중인 적을 발견하고 근거리까지 접근, 포격을 가하였다. 이때 적은 실시중인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산속으로 분산 도주한 후 약 15분 후부터 박격포사격을 가해 왔다. 이어 17 : 30에 YMS 509정은 해안선에 있던 적 상륙정 1척을 완파하고, 다른 발동선 1척을 노획하여 묵호항으로 입항한 다음 묵호경비부에 인계하였다.

YMS 509정이 옥계 전투에서 기록한 전과 및 손실은 적 PGM 1척을 격퇴시킨 것을 비롯해 1척의 상륙정을 격파하고 1척을 노획한 것에 반해 YMS 509정은 함수부분의 피격으로 일부 손실을 보았으나 즉시 보수를 완료할 정도의 경미한 손실이었다.[51]

② 대한해협 전투

6·25전쟁 발발 2개월을 앞두고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 전 장병과 국민의 성금으로 전투함을 구입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자 현대식 장비와 무장을 갖춘 PC 701함은 4월 10일 진해에 입항한 후 국내의 주요 항구를 순방하며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6월 24일 진해항으로 귀항하였다.

오랜 기간의 순항을 마친 701함의 승무원들은 주말을 맞아 대부분이 외출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6월 25일 10 : 00경 통제부사령장관 김성삼(金省三) 대령은 정박 중인 701함을 방문하여 당직사관 김종식 소위에게 다음과 같은 해군본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진해통제부사령장관은 701함을 기함으로 예속 함정 2척을 동해에 급파하라.
701함장은 통제부사령장관으로부터 YMS 512정과 518정을 인수 지휘하여 즉시 동

해안으로 출동, 제2정대사령과 협력하여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을 포착하는 대로 격침하라.[52]

사령장관은 이 작명을 토대로 직접 701함의 출동준비를 지휘하였다. 12 : 00에 모든 출동태세를 완료한 제701함장 최용남(崔龍男) 중령은 통제부사령장관에게 출항준비 완료를 보고하고 사령장관으로부터 상세한 작전상의 주의사항을 지시받았다.

1950년 6월 25일 15 : 00 마침내 701함은 YMS 512정을 지휘하여 진해항을 출항하였다. 그리고 518정에 대해서는 보급물자 적재가 완료되는 즉시 출항하도록 지시하고 512정과 단종진을 형성하여 동해로 항진하였다.

해전 경험도 없이 훈련에만 주력하였던 701함 대원들은 18 : 30 부산앞 오륙도 등대를 좌현정횡 2㎞로 보면서 침로 045°로 북상하였다. 19 : 30에 1차 변침을 통해 028°로 북상하던 701함은 20 : 12에 방위 045°, 거리 약 7㎞되는 수평선상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다. 701함은 즉시 변침하여 최대속도로 접근하면서 후속하는 512정에 급속도로 북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보급품 적재를




제701함(백두산호) 전경

완료한 518정은 7㎞ 후방에서 북상하고 있었다.

701함장 최용남 중령은 최대의 속도로 정체불명의 선박에 접근하도록 명령하였다. 수평선상의 검은 연기에 다가가자 괴선박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함장은 전투배치 명령을 하달하였다. 괴선박은 국적과 선명도 표시하지 않은 채 침로 180°, 속도 10노트로 남하하고 있었다.

21 : 30 701함은 북위 35도 15분, 동경 129도 31분의 위치에 도달하여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는 괴선박의 선체를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 701함은 괴선박을 방위 110°, 거리 3㎞로 유지하고 남하하면서 국기를 게양할 것과 국적을 제시할 것, 그리고 출항지와 출항시간 및 목적항을 제시할 것을 국제발광신호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30분에 걸쳐 계속된 요구에도 괴선박은 응답이 없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성국의 선박임을 의심한 701함장은 재확인을 위해 접근하면서 정지명령을 수차에 걸쳐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적선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701함은 15노트의 속도로 적선에 접근해 신호등으로 조명을 시작하였다. 국기와 선명도 표시되지 않은 선박의 갑판 뒤쪽에는 중기관총 2정과 수병복을 착용한 수많은 무장 세력이 승선해 있었다.[53]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북한 정규해군 및 육전대의 복장으로 인해 북한의 선박임을 재확신한 701함장은 즉각 적선으로부터 이탈하여 "확인된 선박은 북한의 1,000톤급 수송함정이며, 약 600명의 북한군이 승선한 채 남하 중에 있음.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군본부에 타전 보고하였다.

곧이어 명령을 기다리던 701함에 해군본부의 적선을 나포하라는 회신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항해중인 선박을 나포하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선을 영해 안으로 유도하는 작전을 실시하여 약 6㎞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더 이상의 유도가 불가능해지자 701함은 다시 해군본부에 상황을 타전 보고하였다. 약 3분 후 해군본부는 회신을 통해 적선 격침임무를 701함에 하달하였고, 모든 승조원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적선을 최초로 발견할 당시의 해상상태는 옅은 안개로 인해 시정거리는 2~3㎞에 불과하였고, 전투에 돌입할 무렵에는 지속적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선의 정확한 위치확인에 어려움이 따랐다.

6월 26일 00 : 30에 701함은 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30분의 위치에 적선 좌현 3㎞의 거리를 두고 3″주포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포술장 유용림(劉龍林) 중위의 사격개시 명령과 함께 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적함의 돛대를 통과하여 좌현해상에 떨어져 물기둥이 치솟았다. 갑작스러운 포격을 받은 적함은 급선회를 시작하였고, 701함은 1㎞까지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계속하였다. 후속하던 YMS 518정도 701함의 좌현 후미 1㎞ 위치에서 37㎜포로 사격을 개시하자 적함은 57㎜포와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등으로 대항하여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701함이 보유한 3″주포는 최대사정거리가 1만 4,600야드, 즉 7.5마일로 미국에서 도입해 올 때 하와이에서 특별히 장치한 것으로 포탄은 350발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포탄이 비싸다는 이유로 출전할 때까지 실탄사격을 전혀 해보지 않아 그 위력을 알 수가 없었다.

실탄사격의 경험이 전무한 포 요원들은 처음으로 개시하는 포함사격에 열을 올렸다. 701함은 1㎞까지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계속하였다. 함장도 포술장을 대신하여 직접 주포사격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701함의 포격 속에서도 명중탄을 얻어맞은 적함은 남하를 기도하였다. 701함의 포격은 마침내 적함의 중앙하부에 명중하였고, 적함은 좌현 난간이 해면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기관실의 보일러 폭발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이때 적함으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발광신호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신호는 조준사격이 어려운 심야의 상황에서 적함의 위치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었고, 701함은 정조준을 통해 최후의 1발을 명중시켰다.

적함은 기울어져가고 침수로 인해 흘수는 낮아져 갔다. 그러나 이때 35발의 포탄을 쏘아댄 701함의 3″주포가 고장을 일으켰다. 격발장치의 고장으로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알아차린 적함은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였다.

적함과는 약 1,0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적함은 침몰되어 가는 와중에도 발악적으로 접근하여 400m까지 다가왔다. 적탄이 701함의 선체에 집중되는 순간 적함의 후갑판에 장치된 포가 701함의 조타실 중앙하부를 포격하였다. 조

타수 김창학(金昌學) 삼등병조는 파편상을 입은 채 끝까지 키를 잡고 있었으며, 주포 전화수 김춘배 삼등병조 역시 다리관통상을 입고도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김종식 소위도 적탄의 파편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치열한 포격전이 끝날 무렵 적함은 침몰되어 갔으며, 6월 26일 01 : 25 완전 침몰과 함께 승선하고 있던 600여 명의 무장 병력도 수장되었다. 조타실에 포격을 당했던 701함은 다행히도 함정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701함은 4시간에 걸쳐 전투해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떠한 물표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05 : 45경 포항을 향해 항진하였다.

701함의 대한해협 전투승전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놓여있던 부산항의 안전을 확보한 전략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부산은 군수물자와 증원 병력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항구였으며, 따라서 북한 무장 게릴라 600명이 부산항을 점령하였더라면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54]

대한해협 전투를 비롯한 동해안의 해전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에 직면한 북한 해군은 더 이상 그들의 작전방침인 무장 게릴라 병력의 상륙지원을 실시하지 못하고 서해안에 산재한 도서지역 침투로 선회하였다. 이 전투에서 701함은 1,000톤급의 적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한편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무장 게릴라병력 600명을 익사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701함은 적의 포격으로 조타실 일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2명이 전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55]

③ 묵호경비부의 육상 전투

6월 25일 03 : 00 동해안의 묵호항 북쪽 9㎞ 지점의 옥계지서에는 금진에 적이 상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당시 북한군은 험준한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는 지상부대의 진격속도를 가속화하고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금진－옥계 부근에 1,800명의 병력을 기습 상륙시켜 산성리 흑연광산에 집결시키는 한편 삼척에 80명과 죽변에 약 500명 등 약 600명의 게릴라를 상륙 침투시켰다.[56]

적 게릴라의 상륙사실을 보고받은 묵호경비부사령관 김두찬 중령은 정보대원

을 비상소집하였다. 그는 집결한 13명의 정보대원 중 4명이 한복으로 변복하고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옥계지구에 잠입하도록 지시하였다. 05 : 00경 상륙을 끝낸 북한군은 옥계초등학교에 집결하여 대오를 갖추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묵호경비부사령관은 30분 후 김봉출(金鳳出) 병조장을 비롯한 15명을 수색대로 편성하여 급파하는 한편 07 : 00에는 종덕술(鐘德述) 중위의 지휘 아래 60명을 옥계와 금진으로 출동시켰다.[57]

당시 옥계지구에는 수시로 침투해오는 북한유격대의 침투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소규모의 경찰초소만이 운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북한군의 대거상륙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군수색대는 옥계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산등성이에 잠입한 후 그곳에서 옥계청년단원 30~40명과 합세하였다. 해군수색대는 적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들이 옥계초등학교에 집결을 완료하자 37㎜포로 포격을 시작하였다. 옥계청년단의 협조를 받으며 포격전을 전개하는 도중 군관 1명과 병사 3명으로 편성된 북한군 수색대가 아군이 집결하고 있는 산등성이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해군수색대는 적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사방에서 집중사격을 가해 사살하고, 이들이 휴대하고 있던 소련제 권총 1정과 다발총 1정, 그리고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이와 같이 해군수색대의 공격을 받은 적의 상륙군이 전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해군수색대도 육군 및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아군은 경찰 50명과 무기로는 CAR, 일제 38식 소총 그리고 M1 소총과 60㎜ 박격포 3문이었고, 해군도 CAR, 경기관총 2정, 60㎜ 박격포 2문, 37㎜ 대전차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적은 소련제 소총과 중·경기관총은 물론 120㎜ 박격포 등 미리 계획된 제반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아군의 소규모 화력으로 장기간 전쟁준비를 해 온 적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실탄은 점점 소멸되어 갔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군은 해군본부에 병력과 화력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지 않았다.

북한군의 박격포격이 점점 치열해짐으로써 아군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철수는 해군이 먼저 이동한 후 육군과 경찰이 후속하기로 하였다. 실탄이 바닥난 해군은 묵호항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로 하고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신속하게 철수를 시작하였다. 동해안의 도로를 따라 철수를 시작한 우리 해군은 도직리에 이르러 적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윤응기(尹應基) 이등병조는 33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는 경기관총을 둘러맨 채 철수대열에서 이탈하여 낮은 포복으로 추격해 오는 적진을 향하였다. 그는 2개의 탄통을 휴대한 수병 1명과 함께 인근 숲 속으로 들어가 매복하였다. 적이 100m 전방까지 접근하자 그는 기관총사격을 개시하였고, 휴대한 실탄이 바닥날 때까지 사격을 집중하였다. 산발적으로 응사를 하던 적은 33구의 시체와 부상자를 남겨둔 채 분산 퇴각하였다.[58] 6월 25일 18 : 30 도직리를 출발한 해군은 경비부 방위를 위해 21 : 00 묵호경비부에 귀대하였다.

한편 묵호경비부는 경비부 방어를 위한 전투태세에 돌입하여 주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삼척 및 북평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병력이 제8사단과 함께 이미 철수한 후였으므로 묵호경비부 병력은 전력의 공백상태에 직면하였다.

육군 제8사단의 철수로 인해 묵호경비부의 모든 병력은 6월 26일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LST 문산호 및 옹진호에 무기, 차량 및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포항으로 철수하였다. 묵호경비부의 철수는 묵호지구 주민들, 특히 국민회를 비롯한 각 기관의 간부 및 청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옥계지구에서 전투중인 아군을 위해 부녀자를 동원,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하고 전사자 매장까지 담당하였다.

6월 26일 07 : 00 묵호경비부가 철수한 묵호에는 운수국과 읍사무소, 어업조합만이 남아 긴급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좌익분자의 활동이 극심해지자 시민들은 긴급대책으로 자위대를 편성하여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였다.

이 무렵 묵호경비부 사수를 위해 남아 있던 13명의 해군 병사들이 묵호외곽에서 방어전을 펼침으로써 적은 경비부가 철수한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6월 30일에서야 적은 대규모의 병력과 화력으로 무장한 채 묵호에 진입하였다.

한편 묵호경비부 예하의 주문진파견대는 6월 25일 07 : 00에 북한군 60명을 승선시킨 60톤급의 적 발동선 1척을 발견하였다. 즉시 파견대장을 비롯한 3명의 대원은 보급선에 편승하여 적선을 공격,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59] 이후 주문진파견대는 철수하는 제8사단을 따라 7월 1일 포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죽변파견대 임원리분견대는 경찰부대와 협동으로 임원리에 상륙한 400명의 적 게릴라와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인해 후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후포파견대에 편입되어 후포파견대와 함께 주민을 포항 방면으로 피난시키고 7월 1일 죽변에서 적 10명을 사살하고 치안유지에 주력하였으나 7월 5일 북한군의 대대적인 침투로 인하여 철수를 개시하였다.[60]

삼척파견대는 개전 당일 평소와 같이 민간선박을 이용하여 연안경비를 하던 중 19 : 00 묵호경비부로 복귀하여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묵호경비부 및 예하의 각 파견대는 모두 철수하여 포항경비부에 예속되었다.

④ JMS 305정 침몰사건

한편 묵호경비부는 포항으로 철수한 후 별다른 전과도 없이 철수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경비부가 철수한 직후에도 묵호에서는 해군의 지원을 받은 청년대원들이 적에 맞서고 있었다. 묵호경비부는 다시 묵호로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LST 문산호에 직사포를 비롯한 제반 무장을 갖추었다. 문산호에는 묵호경비부의 주력이 아직도 승선한 채 대기 중에 있었다.

출정준비를 마친 문산호는 제2정대 함정들의 호위를 받으며 묵호를 향해 출항하였다. 이때 제2정대 함정들은 편대당 3척으로 이루어진 2개 편대를 편성하여 문산호를 호위하였다. 제1편대는 제2정대사령관인 김충남(金忠男) 중령이 지휘하고, 장지수(張志洙) 소령의 516정이 선두에 섰으며, 제2편대는 510정의 이경원(李鯨源) 소령이 지휘하였다.

이때 제2정대는 옥계해안에 출몰하는 적 함정과 상륙을 시도하는 적 게릴라부대를 격파하는 것과 묵호경비부의 복귀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임무를 수행[61]하

기 위해 예하의 YMS 506정, 510, 516정과 JMS 304정, 305정, 그리고 LST를 출동시켰다.

묵호경비부 병력의 복귀지원 임무를 완료한 정대사령관 김충남 중령은 516정에 승선하여 304정 및 305정과 함께 묵호 근해를 경비하였으며, 510정과 506정, 509정은 임원 근해에 대한 경비에 나섰다.

경비항해를 계속하던 6월 29일 03 : 45에 YMS 510정은 미 해군함정의 함포사격 광경을 목격하였다. 포탄은 점차로 아군 함정의 주변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JMS 305정은 이러한 함포세례를 받으며 516정과 506정을 후속하였다. 506정은 미 해군함정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자 해안선 방향으로 급선회하였으나 305정은 물기둥으로 인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포탄은 계속하여 305정의 주위에 떨어졌고, 305정은 37㎜포로 응사하였다. 미 해군 경순양함의 레이다(Direct Radar Control)에 의한 정확한 사격이 주위에 집중되자 305정은 함포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응사하면서 지그재그 항해로 피하였다.

당시 516정에 있던 정대사령관 김충남 중령은 305정에 해안선 가까이로 피항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였다. 30분간 계속된 미 함정의 포격으로 305정은 37㎜포가 파괴되고 기관실과 선수에 명중되어 510정의 예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침몰하였다. 당시 305정의 포격위치는 북위 37도 25분 10초, 동경 129도 16분 20초였다.

당시 모든 승조원들은 함포사격을 가한 함정이 소련 함정일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며 해안선에 드러난 함정은 미국의 경순양함인 「주노」함(U. S. S Juneau)이었다. 발광신호로 대한민국 해군임을 밝히고 태극기를 게양하자 미 함정은 정중한 사과와 동시에 각종 보급품을 지원하였고, 또한 고장수리와 격침된 305정의 생존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 사건은 37°이북에 있는 선박은 소련 또는 북한 함정이니 모두 다 격침시키라는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북한 함정이 묵호근해까지 남하한 줄 알고 포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 오인 함포사격으로 JMS 305정은 선체 침몰과 함께 8명의 전사와 전상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⑤ 육군 제17연대 수송작전

육군 제17연대는 옹진 7㎞ 전방인 38도선을 경계로 좌측에 제1대대와 우측에 제3대대를 배치하고, 옹진반도 중앙의 광산에 제2대대가 예비대로써 연대본부와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옹진반도는 방어정면이 57㎞에 달하고 38도선으로 인해 육지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은 해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군수지원 역시 해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작전지역도 한정되어 있었다.

북한군 남침시 제17연대의 작전계획은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하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62] 즉, 작산(鵲山)지대를 확보함으로써 강령을 장악하고 최후의 경우에는 부포항을 사수하여 증원 병력을 기다려 적을 반격하거나 또는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포항에서 연대병력을 인천 방면으로 해상 철수하는 것이었다.[63]

1950년 6월 중순경부터 해주 태탄지구에서 북한군의 병력이동이 잦아지더니 6월 25일 04:00를 전후로 제1대대의 자동지구와 제3대대의 작산 일대에 적의 포탄이 집중되면서, 남침이 시작되었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육군 제17독립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육군본부에 보고하자 국방부는 해군본부에 제17연대의 수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해군총참모장 대리인 김영철 대령은 "긴급 수송지시 : 6월 25일 14:00에 LST 1척을 부포에 급파하여 육군 제17연대의 병력을 인천으로 수송하라"는 작전명령을 제1정대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64] 이에 따라 인천의 제1정대사령관 유해거(柳海巨) 중령은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LST 801함에 출동을 명령하였다. 17:00 801함은 인천항을 출항하여 6시간의 항해 끝에 부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때 육군 제17연대장 백인엽(白仁燁) 대령은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기만작전을 사용하였다.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전조등을 켠 채 옹진읍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6일 미명에는 중기동 일대에 배치되었던 제17연대의 주력부대가 부포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대대장은 제12중대장 정규한 대위에게 엄호를 명령하였다.

한편 부포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LST 801함은 해수면관계로 인해 부두에 접안이 불가능하자 연대 병력이 부포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외항에서 머물렀다. 다음날 10 : 00 제17연대 병력이 부포에 도착함에 따라 801함은 해안에 접안하여 제1대대 및 연대본부 병력을 승선시킨 다음 15 : 00에 부포항을 출항하였다.

그러나 연대 주력을 실은 LST 801함이 부포항을 출항할 순간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801함에 승선하지 않았다. 연대장은 외야리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에 대항하고 있는 정규한 대위의 일부 병력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연대장과 일행을 남겨두고 부포항을 출항한 LST 801함은 이러한 사실을 해군본부에 타전 보고하였고, 이는 곧바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도 통보되었다.

적지에 남겨진 부대원들을 걱정하며 자결을 결심했던 연대장은 포병대대장 박정호 소령의 제지와 설득으로 6월 27일 전마선을 타고 연평도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전황을 보고받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해군 제1정대사령관 유해거 중령에게 백인엽 대령 일행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정대사령관은 JMS 302정과 307정을 연평도로 출동시켜 백인엽 대령 일행을 구출하였으며, 또한 각각 분산되어 연평도로 철수하였던 연대의 일부 병력들도 JMS 302정과 307정에 분승하여 무사히 철수하였다.

한편 외야리에서 철수병력에 대한 엄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한 대위 일행 40여 명도 부포 근해에서 어선을 만나 연평도로 철수하였으며, 연대장이 승선하였던 JMS 307정에 구출되어 27일 04 : 00에 모두 인천에 도착하였다.

### 3) 미국 해군의 초기작전

#### (1) 참전 배경과 극동해군 상황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을 보고받은 트루먼(Harry S. Trueman) 미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의 만찬 회의를 통해 전쟁 개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해군과 공군지원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미 제7함대는 미 극동해

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극동해역의 영국함정들도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당시 극동해군은 광대한 활동범위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극동해군사령관 휘하에는 약간의 전투함을 보유한 제96기동부대(Task Force 96, Naval Forces, Japan)와 상륙부대를 핵심전력으로 하는 제90기동부대(Task Force 90, Amphibious Force, Far East)가 있었다.

조이(C. T. Joy) 제독의 제96기동부대는 히긴스(J. M. Higgins) 제독이 지휘하는 지원전대(Task Group 96.5, Support Group)와 숄다이스(D. V. Shouldice) 소령의 소해전대(Task Group 96.6, Minesweeping Group)로 편성되었으며, 지원전대 예하에는 알란(Halle C. Allan) 대령이 지휘하는 제91구축함분대(Destroyer Division 91)가 4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었다.[65]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 해군의 경순양함 주노(Juneau)함이 6월 28일 한국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이어 6월 29일에는 유엔의 대한군사원조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함대[66]가, 다음날엔 오스트레일리아 함정이 유엔해군의 일원으로 도착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의 총참모장을 대신하고 있던 김영철 대령은 한국해역에 유엔함대 소속의 함정이 속속 도착하자 6월 30일 수원에서 미 해군무관을 만나 해상작전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북위 37도 이남에서의 봉쇄 및 연안작전은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으로부터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해군이 담당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함대를 제96.7기동전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유엔해군은 37도 이북의 동·서해상 작전을 담당하였는데, 37도 이북의 동해안은 히긴스 미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제96.5기동전대가, 서해안은 앤드류스 영국 해군 소장의 제96.8기동전대가 담당하였다.[67]

### (2) 개전초기의 해상작전

북한군의 침공 당일 무쵸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인들에게 신속히 한국을 떠날 것을 명하고, 극동해군사령관은 히긴스(J. M. Higgins) 제독에게 맨스필드(Mansfield)

함과 드 헤븐(De Haven)함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부터 미국시민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7일 미국인들은 2척의 구축함에 승선하여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이후 미 해군은 상호 방위원조계획(MDAP)에 따라 한국에 대한 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작전에 돌입하였다. 작전은 6월 27일 아침 조이 제독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서전트 케슬리호(Sergeant Keathley)와 카디널 오코넬(Cardinal O'Connell)호에 의해 실행되었다.[68]

현지 시각 6월 26일 저녁, 한국군이 38도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최대한의 해군 및 공군지원이 결정되자 조이 제독은 작전명령 5-50으로 한국전쟁에서 해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아울러 한국지원전대(South Korea Support Group)로 주노(Juneau)함과 제91구축함분대의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96.5기동전대를 지정하였다.

제96.5기동전대는 일본의 사세보를 기지로 하여 한국연안의 해역을 초계하면서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 침공해오는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것, 우군에 대한 함포지원, 철수작전 및 군수물자 수송선박 엄호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중요 목표지역으로 통영으로부터 울산에 이르는 해안과 인근 도서를 보호하고 삼척으로부터 강릉에 이르는 동해안의 경계를 담당하였다.[69]

극동해군의 작명이 하달된 6월 27일 저녁 기동전대의 기함인 주노함은 북한군이 거제도에 상륙했다는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사세보항을 출항하였다. 서해에서는 드 헤븐함이 철수 미국인 제1진을 호송하고 있었으며, 맨스필드함은 제2진 호송을 위해 인천항에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날 거제도 지역과 울산 지역의 상황을 확인한 주노함은 저녁 무렵 적에게 피탈당한 삼척-강릉간 해역을 초계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 6월 29일 02 : 03 주노함은 북위 37도 25분 해상에서 2개의 함정군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포격을 개시하여 그 중 1척을 격침시켰다. 그러나 이 함정은 적선이 아닌 북위 37도 이남으로 철수하지 못한 한국 해군의 JMS 305정이었다.

주노함은 이날 23 : 11에 최초의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한국 해군대위의 조언

을 받으며 묵호에 진입한 북한군에 대해 30분간의 정밀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에는 5″포 감응신관 16발과 대공 보통탄 400여 발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북한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려던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 4. 분석 및 평가

### 1) YMS 509정의 옥계 전투

북한의 해상침공은 북한 지상군의 전면 남침과 때를 같이 하여 동해안으로 침공하는 제5사단의 남진속도를 촉진하고 국군 제8사단의 배후교란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적이 옥계, 삼척, 울진 방면으로 상륙을 기도한 것은 당시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 잠거한 게릴라와 연결하고, 국군 제8사단의 배후를 교란하여 우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국군의 고립 및 후방교란을 기도하는 적의 해상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측방 해상경계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아울러 옥계 전투는 개전 초기 대한민국 해군의 미비한 경비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YMS 509정만이 38선 근해에서 경비를 담당하였고, 509정도 묵호항에 정박 중에 있었다. 또한 509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함정이 인근 해역에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YMS 509정의 옥계 전투는 접적지역에서는 철저한 경비태세의 유지와 편대경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 2) PC 701함의 대한해협 전투

대한해협 전투는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성공시킨 단독 해상작전으로서 남해안에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게릴라부대를 격멸하여 후방교란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하여 적이 남해안 상륙에 성공하였다면 개전초기 전황은 급변할 수 있었다. 특히 대

한민국에서 군수물자와 병력이 입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인 부산은 당시 거의 무방비상태였기 때문에 남해안에 상륙을 기도하는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PC 701함은 진해에 입항한 이후 고가의 포탄으로 인해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전투에 앞서 이러한 훈련이 수반되었다면 주포의 고장과 701함의 피해 없이 신속하게 전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사격 및 야간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또한 701함은 당시 야간시정이 불량하고 레이더가 노후한 관계로 사격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함으로써 조타실에 명중탄을 맞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교전시에는 최선의 기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 3) 묵호경비부 철수와 JMS 305정 침몰사건

묵호경비부 조기철수와 JMS 305정의 침몰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적 게릴라부대의 상륙에 대항하여 묵호경비부가 육군과 경찰, 청년단원들과 합동으로 작전한 점은 합동작전의 선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묵호를 사수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철수함으로써 묵호지구를 공백상태로 만들었다. 따라서 묵호경비부는 조기철수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제2정대의 호송을 받으며 묵호로 북상, 미 함정으로부터 적선으로 오인 받아 피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 시점은 미 함정이 최초로 한국 동해안에 출동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사전에 우리 해군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통신연락 수단마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작전상의 과오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연합작전에서 상호 정보교환과 상호 방해방지책 마련은 전술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제 2 절 공군작전

## 1. 작전 개요

전쟁발발 직전 북한 공군의 전력은 2,800명의 병력과 YAK-9, IL-10기를 포함한 항공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 공군은 1,897명의 병력에 연락임무용 및 훈련기 수준의 L-4/5기 12대와 T-6기 10대 등 총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개전 초 북한 공군은 한국 공군의 주요 작전기지 폭격 도로 · 철도 · 조차장 등 교통시설 파괴, 국군의 집결 및 예비대 접근 차단, 북한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을 작전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하에 북한 공군은 개전 첫날부터 용산역과 서울공작창 등의 주요 교통시설과 김포 · 여의도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공격에 의해 6월 25일, 미 항공수송단(MATS) 소속 C-54수송기와 한국 공군의 T-6기 1대가 각각 파손 당하였다. 6월 27일 미 공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제공권을 장악할 때까지 남한의 주요 비행장 및 시설물들에 대한 북한 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에 비해 경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한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를 동원해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육군병기창에서 시험제작한 국산 폭탄을 이용해 북한군 주공(主攻)이 지향된 연천, 동두천 방면으로 출격하여 적군을 공격함으로써 국군 지상군의 후퇴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군에 대한 공격작전도 6월 27일, 보유한 폭탄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 항공기는 정찰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6월 27일 저녁에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공군은 차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기

지를 폐쇄하고 비행단을 비롯해 김포기지 주둔부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켰다.

## 2. 북한 공군 및 한국 공군 상황

### 1) 북한 공군 상황

북한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발족한 신의주항공대로 출발하였다.[70] 신의주항공대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항공학교 출신인 이활(李闊)과 중국 비행학교 출신인 왕연(王連)이 중심이 되어 소련 점령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창설된 준군사 조직이었다. 신의주항공대는 조종, 정비, 통신 등 3개 교육대를 조직하고, 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1945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비행교육을 시작하였다.[71]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공군 소좌 막시노프를 초대 고문관으로 임명하고 북한 공군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막시노프 소좌는 북한의 각 비행장에 방치된 일본군 비행기 중 사용이 가능한 95식 고등연습기를 모아 신의주항공대에 인계하였다.

이와 같이 항공대 양성의 기초를 마련한 신의주항공대는 1946년 1월에 제1기생 80명이 3개월 간의 교육을 마쳤고, 2월 23일에는 제2기생 160명이 입교하였다. 그 동안 일본, 중국, 만주, 소련으로부터 귀국한 항공관계자들이 입대하여 인원이 400명에 이르게 되자 훈련장소와 경비관계로 1946년 5월에 신의주에서 평양비행장으로 이동하여 평양학원에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신의주항공대는 군사조직의 평양학원 항공중대로 변모하였다.[72]

1947년 5월 17일 인민집단군 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평양학원 내의 항공중대는 항공과와 비행대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48년 2월 8일 북한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자 평양학원에 소속된 비행대대는 제25비행연대로 개편되었으며, 비행연대는 습격기대대, 추격기대대, 교도대대, 후방지원대대로 편성되었다. 제25비행연대는 1948년 10월에 소련으로부터 평양비행장을 인수하였으며, 12월에 북한에서

철수하는 소련군으로부터 IL-10, YAK-9전투기와 PO-2항공기를 인수하였다.

1949년 초 이미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 방침을 확고히 한 북한 지도부는 북한군의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49년 3월 북한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은 북한군의 전력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한대표단이 평양으로 귀환한 후 북한군 전력증강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가 협의하여 마련한 북한군 전력증강 계획에 의하면, 1949년 9월에 공군 편성을 완료하고 각각 43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전폭기 및 전투기 연대로 구성된 항공사단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73]

이러한 계획하에 북한군은 1949년 9월에 공군의 기본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 북한 공군은 Yak-9 전투기 24대, IL-10 저공습격기 24대, 전투·훈련기(Yak & IL) 18대, Yak-18 훈련기 8대 등 총 74대의 비행기를 보유했으며, 26명의 비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150명의 비행사가 전시를 대비해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10월까지 전투기 조종이 가능한 비행사 50명이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74] 이들 조종사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키예프(Kiev)와 모스크바 근교의 제2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았다.

이렇듯 장비증강과 병력증가가 이루어지자 1949년 12월에 제25비행연대는 항공사단으로 증편되었다. 항공사단은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었고, 연대 예하에 각각 3개 비행대대가 있었다. 그리고 공병대대는 3개 중대로 조직되어 주요 항공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평양비행장, 습격기연대는 연포 및 평강기지,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기지, 교도연대는 연포기지 등에 각각 배치되었다. 사단장에 왕연, 비행부사단장에 이활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공군은 항공사단의 창설과 항공인력의 양성을 시도하는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항공기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특히 1950년 4월부터는 IL-10, Yak-9 등 약 60대를 새로 소련에서 지원을 받아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배치하였다. 또한 6월 18일 남침 공격을 일주일 앞두고는 소련에서 연포비행장에 IL-10 60대를 소련군조종사들이 직접 몰고 와서 인도해 주었다.[75]

<표 8-11> 개전 당시 북한 공군 주요 항공기의 전술·기술 제원[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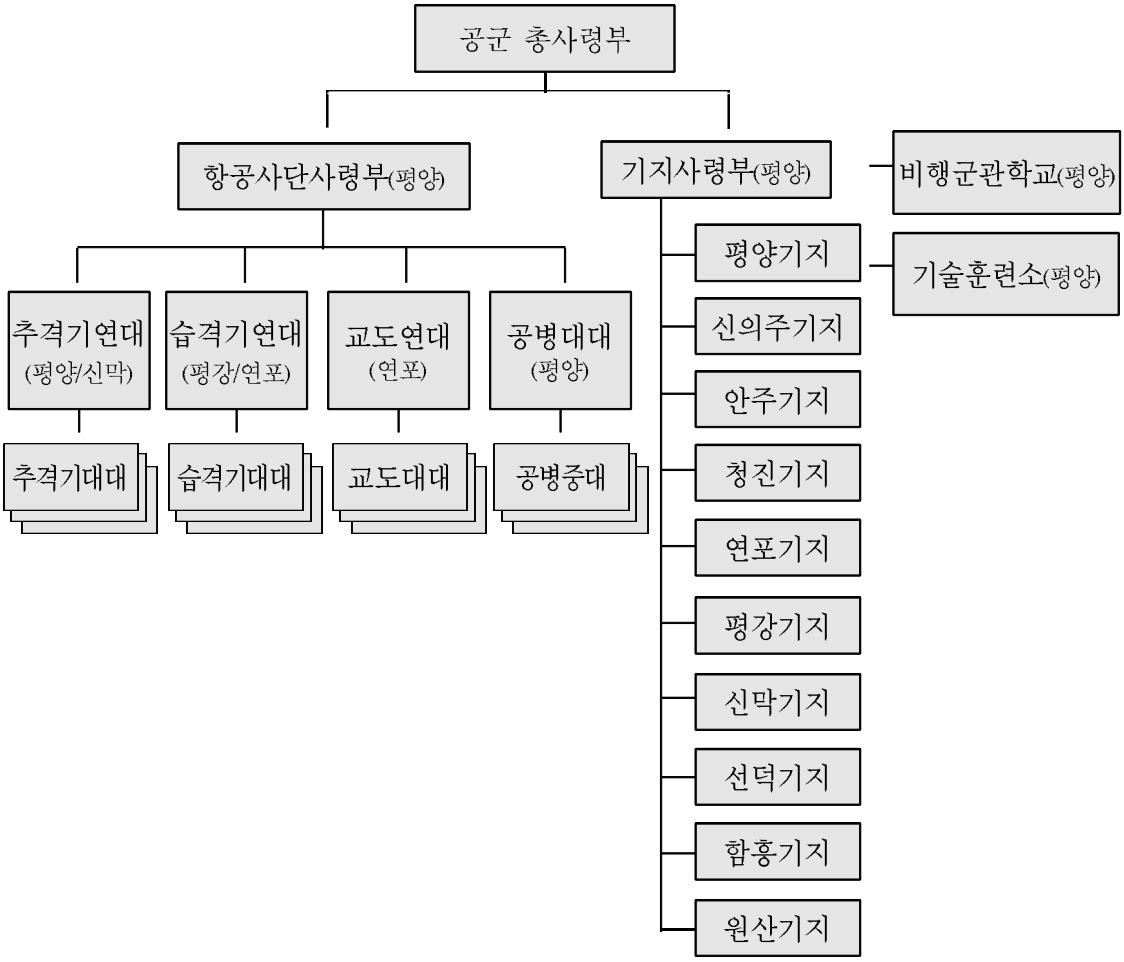
| 항공기종 | 최대속력 (㎞/h) | 항속거리 (㎞) | 상승한도 (m) | 무장 |
|---|---|---|---|---|
| Yak-9 | 698 | 925 | 11,500 | • 기관포 : 1 × 23㎜<br>• 기관총 : 2 × 12.7㎜ |
| LA-9 | 690 | 1,735 | 10,800 | • 기관포 : 4 × 23㎜ |
| LA-11 | 674 | 2,300 | 10,250 | • 기관포 : 3 × 23㎜ |
| IL-10 | 507 | 1,000 | 7,5000 | • 기관포 : 4 × 23㎜, 1 × 30㎜<br>• 폭탄(로케트) : 400 ~ 600㎏ |
| TU-2 | 547 | 2,100 | 9,500 | • 기관포 : 2 × 20㎜<br>• 기관총 : 3 × 12.7㎜<br>• 폭탄(로케트) : 1000 ~ 3000㎏ |

1950년 6월 25일 현재 북한공군의 전력은 2,8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29대 등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다.[77] <표 8-11>은 개전 당시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전술·기술 제원이다.

전쟁발발 직전 북한 공군의 전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평양비행장에 항공사단사령부와 추격기연대본부, 연포기지에 습격기연대본부, 선덕기지에 교도연대본부가 있었으며, 신막기지에 추격기연대의 1개 대대, 평강기지에 습격기연대 1개 대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78] 그리고 평양의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 평양, 신의주, 안주, 청진, 연포, 평강, 신막, 선덕, 함흥, 원산 등 10개 기지가 운영되고 있었다.[79]

북한 공군의 전력은 훈련기와 연락기만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공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군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훈련된 조종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전 직전 훈련된 조종사는 약 80명으로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비해 훈련된 조종사가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80] 또한 북한의 항공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항속거리가 짧아 200마일의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IL-10기만이 한반도 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81]

<표 8-12> 북한 공군 편성




## 2) 한국 공군 상황

한국 공군은 1946년 8월 10일 민간단체로 결성된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를 토대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전부터 항공계에 종사해 왔던 항공인들이 뜻을 모아 조직된 한국항공건설협회는 항공부대 창설을 위해 미 군정청과 교섭하였다. 이에 미 군정 당국은 장차 조선경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락기나 경비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미국식 훈련을 위해 항공계 지도급 인사들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할 것을 권유하였다.[82]

미 군정의 제의에 대해 항공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분분하였으나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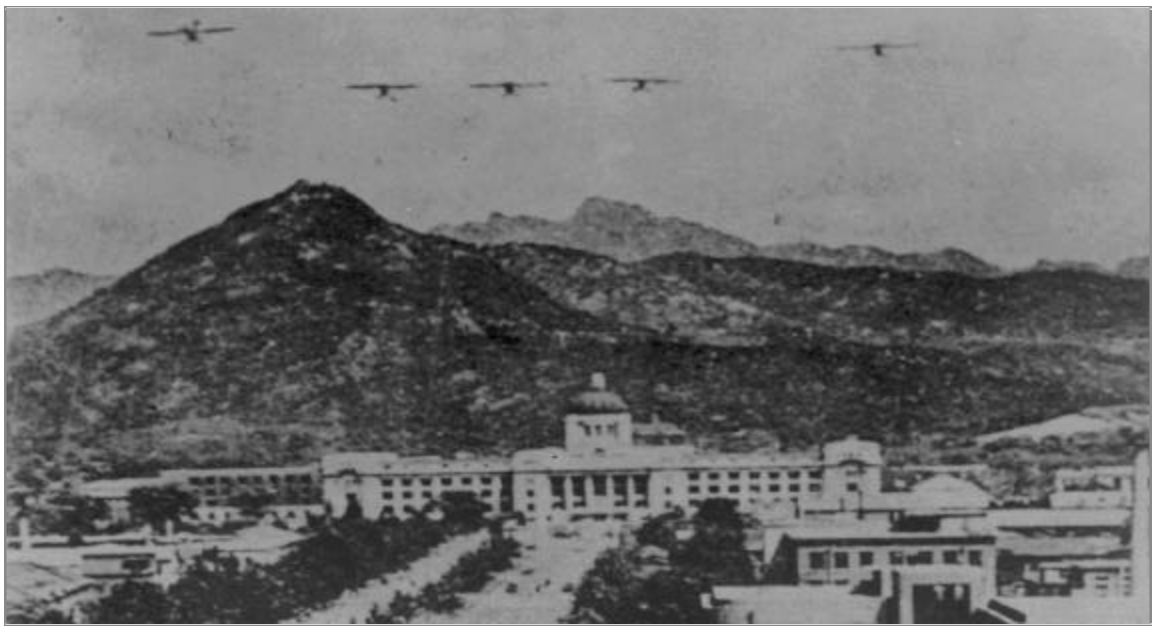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4월 1일 최용덕(崔用德), 장덕창(張德昌), 이영무(李英茂), 박범집(朴範集), 김정렬(金貞烈), 이근석(李根晳), 김영환(金英煥) 등 7명의 건설협회 간부들이 경기도 수색에 있는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였다. 이들은 약 1개월간의 미군식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경기도 태릉에 있던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주 간의 장교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5월 14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통위부에서는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수색에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항공부대는 전력 확장에 전력을 기울여 7월 12일에는 항공계 유경험자들 중에서 78명을 선발하여 항공병 1기생으로 입대시켰다. 항공병력이 확충되자 1948년 7월 27일 항공부대는 부대 명칭을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고 경기도 수색에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의 육군부대로 이동하였다. 이후 항공기지부대는 9월 1일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항공기지부대는 1948년 9월 13일 공군 최초로 주한 미 제7사단 비행대로부터 L-4연락기 10대를 인수하였고, 아울러 항공기지부대는 육군항공기지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여의도기지)와 기지부대(김포기지)를 새로 창설하고, 비행부대장에 김정렬 대위, 기지부대장에 장덕창 대위, 사령부 참모장에 박범집 대위가 각각 임명되었다.[83] 육군 항공기지사령부는 1948년 9월 15일 태극마크가 그려진 L-4연락기 10대로 역사상 최초의 서울 상공 전시비행(展示飛行)을 실시하였다.

한편, 1948년 10월 19일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84] 비행부대장인 김정렬 대위 등 19명이 L-4연락기 10대로 10여 일 동안 공중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85] 그러나 작전에 참가한 L-4연락기가 짧은 항속거리로 인해 작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L-4연락기보다 항속거리가 다소 긴 L-5연락기의 추가 공급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미군은 1948년 12월까지 L-5연락기 10대를 한국에 인도함으로써, 육군항공기지사령부는 총 20대의 L-4/5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86]

1948년 12월 1일 육군항공기지사령부는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육군항



1948년 9월 15일 L-4연락기 10대의 서울 상공 전시비행 모습

공사령부는 1949년 1월 14일에 항공간부장교 양성을 위해 김포에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여자항공교육대를 설치하여 여자항공병을 양성하였다. 1949년 9월 5일에는 육군항공기지사령부 산하에 신병교육대를 창설하여 공군 병사 육성을 본격화하였다.[87]

이렇듯 공군력 확장의 기반이 마련되자 공군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49년 10월 1일 1,100명의 병력과 20대의 L-4/5기의 전력을 가지고 공군이 정식으로 육군에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88]

공군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예하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미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로, 육군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으로, 육군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육군항공사령부의 의무처가 공군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보급창이 신설되었다.

1949년 12월 17일에는 공군본부 청사를 서울 용산 소재의 국방부 별관에서 중구 회현동으로 이동하고, 비행부대의 증편에 따른 항공작전지원과 유사시의 기

동성 유지를 고려하여 김포와 여의도기지 이외에 수원, 군산, 광주, 대구, 제주에 기지부대를 파견하여 기지를 관할하게 하였다.[89]

이와는 별도로 항공사령부는 여·순 10·19사건의 경험과 북한의 공군력 증강을 감안하여 정부에 항공기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주한 미대사관과 미군사고문단에 항공기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군을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갖춘 군대로서보다는 38선을 경계하는데 필요한 방위군 정도로 육성한다는 정책에 입각하여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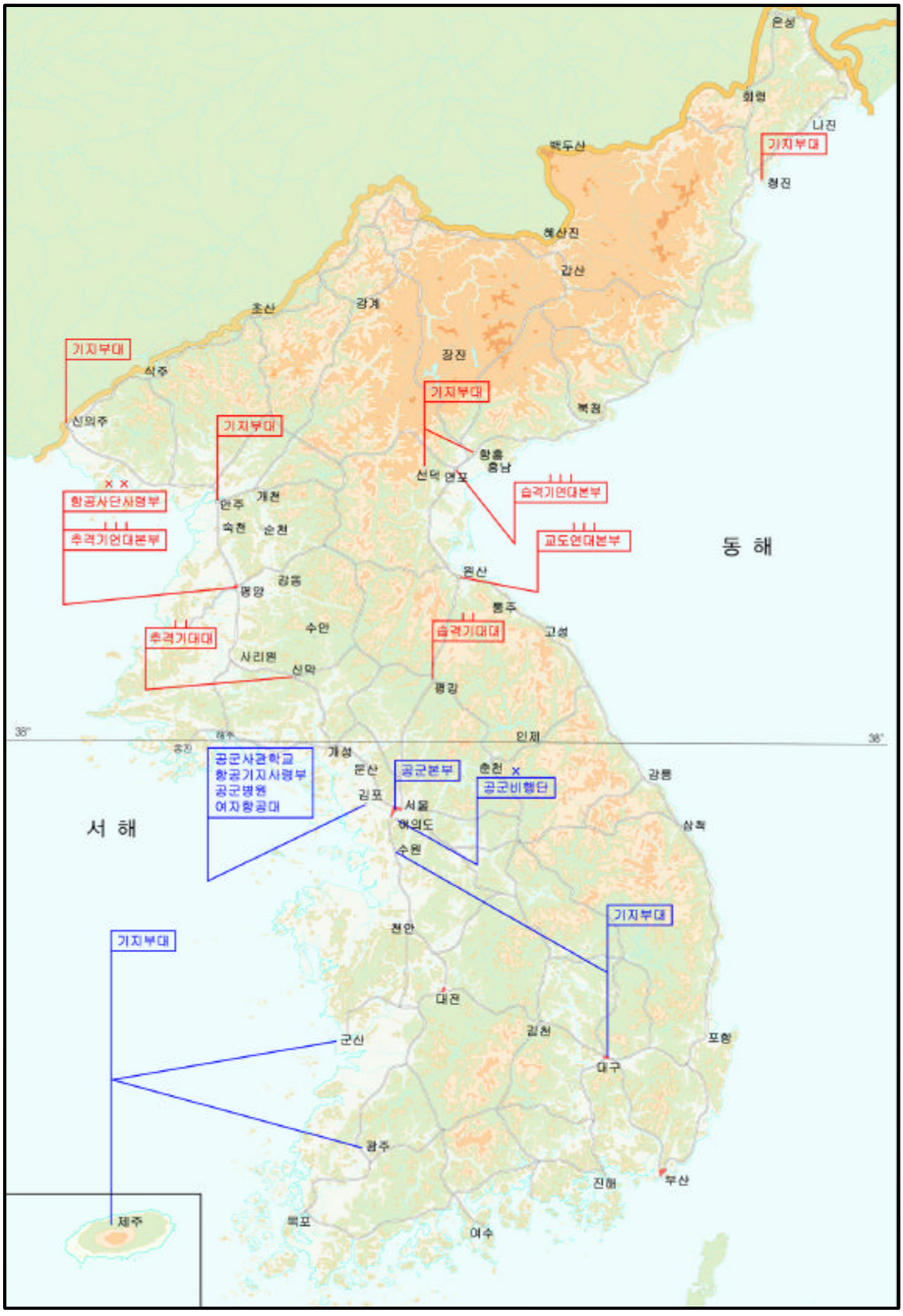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자력으로 항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항공기헌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부는 모금한 3억 5,000만원으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T-6항공기 10대와 0.5″기관총 20정, 실탄 5,000발, 1년분 부속품 3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무기를 구입하였다.[90]

이러한 전력증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 공군의 전력은 병력 1,897명과 경항공기 22대(L-4 8대, L-5 4대, T-6 10대)를 보유하였을 뿐 전투기는 한대도 없었다.



여의도기지 활주로에 정렬한 10대의 T-6건국기

<상황도 8-2> 남북한 공군부대 배치도(1950년 6월 현재)



병력구성을 보면 장교 245명, 장교후보생 85명, 하사관 및 병 1,567명 등 1,897명이었다.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는 102명으로서, 이 중 42명이 작전분야에, 나머지 60명이 행정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 102명은 비행기 부족으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작전 분야에 근무하던 42명의 조종사 중 30명은 L-4, L-5기만을 조종하게 되어 있었으며, 고등훈련기인 T-6기는 12명의 조종사에 한하여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국민의 헌납금으로 구입한 귀중한 비행기를 훈련 중 파손할 우려가 있어 숙련된 조종사에게만 조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91]

비록 열세한 전력이었지만 공군은 전쟁발발 전 지상군의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어 실전경험을 쌓았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비행부대장 김정렬 대위 지휘하에 10대의 L-4항공기가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찰, 긴급연락, 지휘관 수송, 삐라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순 10·19사건 가담자들이 산청, 화개, 구례 등 지리산지구를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자 비행부대의 L-형 항공기 5대(L-4 3대, L-5 2대)가 1948년 12월 19일부터 1950년 1월 5일까지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비행부대는 1949년 1월 24일 제주도에 L-5연락기 6대를 출동시켜 4월 14일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 당시 비행부대는 육군병기창에서 시험제작한 국산폭탄(15kg)을 공중에서 손으로 투하하거나 육군용 2.36″로켓포를 장착하여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1949년 2월 12일 태백산지구에서 활동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L-5항공기가 출동하였고, 5월 26일에는 옹진지구의 남·북한 무력충돌사건에 L-4/5항공기가 출동하여 정찰, 삐라살포, 지휘관수송, 부상병과 약품 수송 등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창군 초창기의 한국 공군은 L-형 항공기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체계적인 비행훈련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에 참가하였고, 이들 합동작전에서 공군은 경비행기를 이용해 최대한 지상군을 지원하였다.[92] 이러한 공군의 초기 작전은 6·25전쟁 초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 3. 전투경과

### 1) 북한 공군의 초기작전

북한 공군의 주요 임무는 남한의 여의도·김포·수원비행장 등 주요 군사시설과 도로·철도·조차장 등 교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으며, 국군의 집결 및 예비대의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 지상군을 근접항공지원 하는 것이었다.[93] 이러한 임무를 부여 받은 북한 공군은 지상군과 해군이 전면 남침공격을 개시한지 약 8시간 후인 11 : 30경 YAK전투기 2대를 김포와 여의도비행장 정찰을 위해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작전을 개시하였다.[94] 북한공군의 작전이 지상군 및 해군에 비해 늦은 것은 25일 오전의 기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서울 상공은 기상이 불량하여 항공기가 작전하기에 부적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공군의 항공기들은 정오경 날씨가 맑게 게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95]

북한 공군이 최초로 공격을 시작한 것은 12 : 00경으로, 이때 YAK전투기 4대가 용산 상공에 나타나 용산역과 서울 공작창(工作廠), 기관사 운전사무소, 통신소 등에 기총공격을 가하였으며, 용산역 앞에 있는 교통부 소속 육운국(陸運局) 청사에도 기총사격과 폭탄을 투하하였다.[96] 그리고 17 : 00경에는 4대의 YAK전투기가 나타나 그 중 2대가 김포비행장의 관제탑과 연료저장소 등에 기총공격을 가하여 관제탑 일부와 스탠다드사의 진공정유트럭을 파괴하고, 수리 중이던 미 항공수송단(MATS) 소속 C-54수송기의 엔진과 한쪽 날개를 크게 파손시켰다. 또 다른 4대의 YAK전투기는 여의도기지 격납고에 있던 한국 공군 T-6건국기 10대를 공격하여 그 중 1대(109호기)를 파손시켰다. 이후에도 북한 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어 19 : 00경 6대의 YAK전투기가 김포비행장을 또다시 공격하여 C-54수송기를 완전히 파괴하였다.[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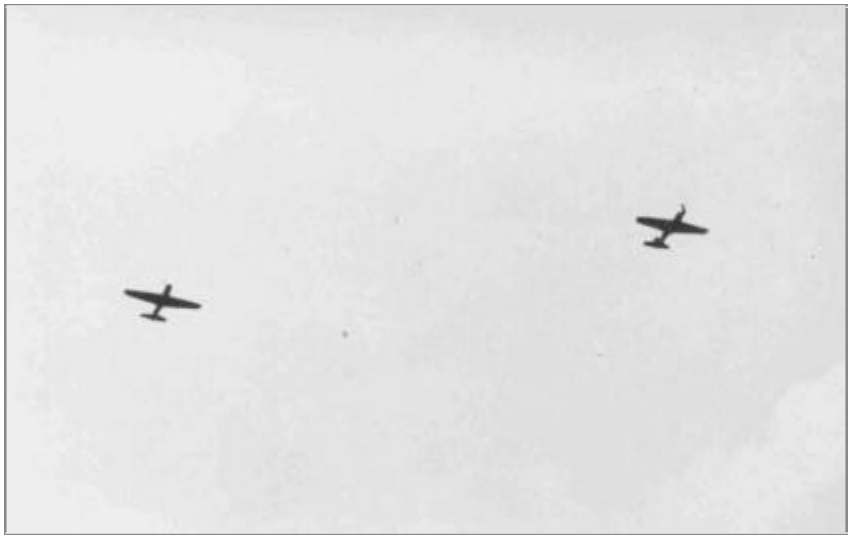
6월 26일에는 YAK기 4대가 3차에 걸쳐 김포비행장과 여의도비행장을 공격하고, 영등포역과 한강 남쪽 일대에 기총공격을 가했으며, 수색역을 공격하여 군용열차와 창고를 소각했다. 13 : 00경에는 북한 항공기들이 주한미국인 후송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공군의 F-82기 2대를 위협하기도 하였다.[98]

이러한 북한 공군의 비행장과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공격은 6월 27일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이 무렵 북한의 전투기들은 후송작전을 엄호하는 미 공군 전투기들과의 공중전도 전개하였다. 이날 정오경 5대의 YAK전투기가 김포기지에서 공수작전을 수행 중이던 C-54수송기를 공습하였으며, 오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8대의 IL-10기가 김포기지를 공격했다.[99] 또한 13 : 55경에는 인천항에서 주한미국인 철수작전을 수행 중이던 노르웨이 상선 레인홀트(Rainholt)호를 공격하기 위해 YAK전투기 2대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6월 28일는 13 : 30경 YAK기 4대가 수원비행장에 착륙 중이던 미 제68전천후 요격대대 소속 F-82전투기와 B-26폭격기를 공격하여 피해를 주었고, 18 : 30에는 6대의 YAK기가 수원비행장 상공에 나타나 미 제22공수비행대대 소속 C-54수송기 1대를 파괴하였다.[100]

이와 같이 북한 공군은 개전 이래 연일 각 비행장과 주요 철도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주한미국인 수송작전에 참가한 미 공군기들과의 공중전도 전개하였다. 비록 개전 초기 북한 공군의 공격이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지상군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특히 6월 27일부터 미 공군이



1950년 6월 25일 서울 상공에 출현한 YAK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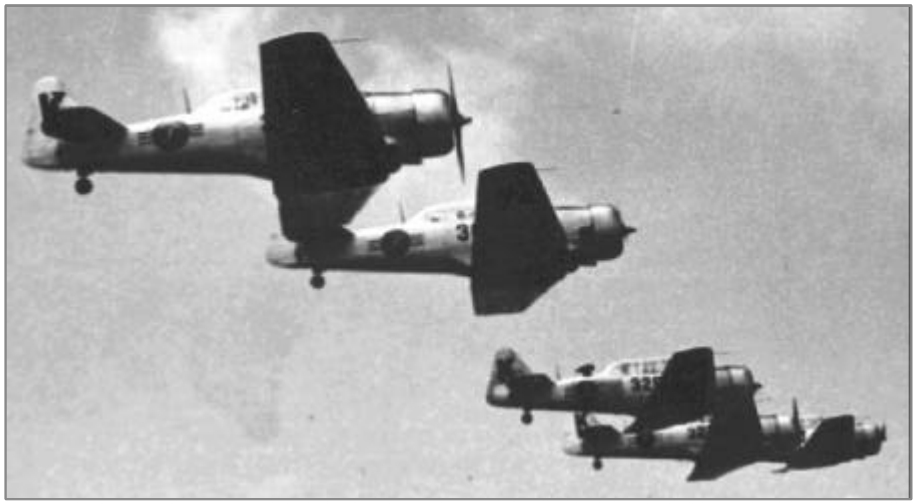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제공권을 장악하자 북한 공군은 전술을 바꾸어 미 전투기들이 목표상공에서 사라지면 공격을 감행하는 소위 '공중 게릴라전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도 미 공군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밀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01]

## 2) 한국 공군의 작전

### (1) 한국 공군의 초기 항공작전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보고되자 한국공군은 여의도기지 내에 공군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는 장병들을 모아 대공사격반, 대공감시반, 비행반, 정비반, 연락반, 수송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하여 신속히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더불어 공군본부는 전황을 분석한 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 항공기를 동원해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은 T-6기 10대를 3개 편대로 편성하여 개성, 문산 방면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방면, 그리고 춘천 방면으로 적정을 살피기 위해 출격시켰다. 북한군의 남하와 집결 상황을 정찰하고 돌아온 T-6기 편대는 육군병기창에서 인수한 30파운드 국산폭탄(15kg) 2~3개를 모든 항공기에



전선으로 출격하는
T-6건국기 편대

싣고 18 : 00에 여의도기지를 이륙하여 해주, 개성, 동두천, 포천 방면으로 출격하였다.[102]

T-6기 편대는 200피트의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후방석에 동승한 관측사가 폭탄을 손으로 들고 목측(目測)으로 북한군의 전차와 차량행렬에 투하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제1차 세계대전 초기의 공중 공격전술이었지만 당시 L-형 및 T-6기만을 보유한 한국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날 출격에서 돌아온 후 공군비행단은 폭탄을 손으로 투하하는 것이 비효과적임을 인식하고 T-6기 양 날개에 8개의 폭탄걸이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L-형 항공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103]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T-6기는 8개의 폭탄을 장착하고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과 포천으로 출격하여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L-4/5기도 후방석의 관측사가 2개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출격하여 저공비행으로 산간계곡을 비행하며 동두천 방면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한편 T-6기로 출격하던 한국 조종사 중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10명의 조종사가 6월 26일 오후에 F-51전폭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발함으로써 6월 27일부터는 사전에 T-6기를 타보지 않은 L-형 항공기 조종사들이 간단한 지상교육만 받고 출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104] 특히 이날 06 : 00경에는 "임진강 철교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차단되지 않았으면 차단해 달라"는 육군측의 요청에 따라 T-6기(제103호)가 8개의 폭탄을 장착하고 문산 방면

<표 8-13> T-6 및 L-형 항공기 출격 현황(1950. 6. 25~6. 27)

| 구 분 | L-4 | | L-5 | | T-6 | |
|---|---|---|---|---|---|---|
| | 출격 회수 | 폭탄투하수 | 출격 회수 | 폭탄투하수 | 출격회수 | 폭탄투하수 |
| 출격작전 | 35회 | 70발 | 10회 | 25발 | 28회 | 179발 |
| 정찰 및 연락 | 정찰 | 연락 | 정찰 | 연락 | 정찰 | 연락 |
| | 120회 | 45회 | 17회 | 5회 | 28회 | 6회 |

으로 출격하였다. 이 공격은 비록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상군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105]

이러한 한국 공군의 작전도 6월 27일에 274개의 국산폭탄 전량이 소모됨으로써 전투출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 항공기는 정찰작전으로 전환하여 전황을 육·해·공군합동작전지휘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저녁에 북한 지상군이 서울 미아리 부근까지 침입하여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19 : 00에 공군비행단은 여의도기지를 폐쇄하고 수원기지로 이동하였다.

개전 초 3일 간의 항공작전에서 한국 공군은 L-4연락기가 35회, L-5연락기가 10회, T-6기가 28회 출격하였다. <표 8－13>은 T-6기 및 L4/5항공기의 출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찰 및 연락작전에서 T-6 및 L-4/5항공기는 정찰임무 165회와 연락임무 56회를 수행하였다.[106]

### (2) F-51전폭기 인수 조종사 일본 파견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인 6월 26일 오전에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은 북한군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날 저녁 이승만 대통령은 무쵸 주한미대사에게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과 로켓포를 장착한 F-51기를 대구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투기 지원 요청은 무쵸 대사를 통해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와 미 국무성에 전달되었다.[107]

이에 대해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mayer) 극동공군사령관이 곧 방문할 것이므로 이때 전투기 지원문제를 협의하라고 회신하였다. F-51 전폭기 인수문제는 6월 26일 미 극동공군사령부 참모들이 내한(來韓)하여 김정렬 총참모장과 협의하였고, 이 협의에서 양국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의 수만큼 F-51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미 극동공군은 한국 공군에 10대의 F-51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108]

당시 한국 공군의 조종사 수는 64명이었으나,[109] 인수 조종사로는 비행시간과

전투경험을 고려하여 기종 전환 훈련 없이도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들이 선발되었다. 이때 선발된 조종사는 이근석 대령, 김영환 중령, 장성환 중령, 김신 중령,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중위, 이상수 중위, 김성룡 중위, 장동출 중위 등이었다.[110]

이들은 F-51전폭기를 인수하기 위해 6월 26일 19 : 00에 C-47수송기 편으로 일본 규슈(九州) 이다즈께(板付) 미 공군기지를 향해 출발하였다.[111]

### (3) 한국 공군의 전시편성과 부대이동

6월 26일 심야부터 27일 새벽까지 신성모 국방장관은 3군 총참모장을 소집하여 국방부 수뇌회의를 개최하였다.[112] 이 군수뇌부회의에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지원이 '긴급탄약 지원 조치'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였다.[113]

① 육군은 패전이 계속되는 경우 게릴라 작전으로 전환하여 최후까지 항전한다.
② 해군과 공군은 지상군 작전에 협력한다.

이러한 결정은 유엔군의 참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병력과 장비가 월등히 우세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김정렬 공군총참모장은 국방부 수뇌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공군의 작전방침을 수립하고자 6월 27일 오후 여의도기지에서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시편성과 부대이동에 따르는 행동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14]

① 비행단은 전투요원인 조종사, 정비사를 기간으로 편성하되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수원으로 후퇴한다.
② 공군사관학교 교장은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헌병대의 일부 병력으로 김포기지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반도를 방어한다.
③ 공군병원은 평택, 군산, 대구기지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각 군의 부상병을 치

료한다.

④ 비행단의 전투요원, 공군병원의 야전병원 요원, 김포기지경비사령부를 제외한 각 부대는 서울 이남의 기지로 이동한다.

⑤ 재무감은 공군의 가용예산을 한국은행에서 인출하여 각 부대에 할당한다.

⑥ 트럭 16대는 김포기지에 있는 휘발유를 수원, 대전, 대구기지로 수송한다.

⑦ 총참모장은 비행단을 직접 지휘한다.

이러한 결정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비행부대가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과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후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김포기지경비사령부 편성은 공군사관학교 교장인 최용덕(崔用德) 준장의 김포기지 사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재무감 이왈준(李曰駿) 소령은 한국은행에서 공군 예산을 수령하여 비행단과 각 부대에 할당하였다.[115]

이와 같은 공군본부의 방침에 따라 공군의 각 부대는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17호에 의거해 6월 27일 저녁부터 수원기지로 이동을 시작하였다.[116]

공군본부의 경우, 인사국장 한용현(韓鏞顯) 중령과 작전국장 장지량(張志良) 소령의 지휘하에 공군본부 전 병력이 서울시청에서 징발한 짚차 1대와 트럭 10대에 휘발유 80드럼을 싣고 6월 27일 17 : 00에 중구 회현동의 공군본부를 출발하여 20 : 00에 수원중학교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공군본부는 대구와 평택기지로 수송할 휘발유 500드럼을 화차에 싣고 수원역을 출발해 17 : 00에 대전역에 도착하였다. 대전에 도착한 공군본부 병력은 대전여자중학교에 본부를 설치하였다.[117]

여의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비행단은 단장 이근석 대령이 F-51전폭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이 비행단을 직접 지휘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T-6기 1대를 제외한 비행단의 전 항공기는 6월 27일 19 : 30에 여의도기지를 이륙하여 수원기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정비사를 비롯한 후방요원들은 16대의 트럭을 이용해 김영재(金英哉) 소령의 지휘하에 19 : 30에 여의도기지를 출발하여 22 : 00에 수원중학교에 도착하였다.

수원기지로 이동한 비행단은 여의도기지 철수시 미 군사고문단 소속 L-5연락기 2대가 여의도기지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6월 28일 19 : 00에 연락기

철수를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당시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선진(具仙鎭) 소위와 나창준(羅昌俊) 이등상사, 이기협(李基浹) 이등상사, 권중화(權重華) 이등상사 등이 2대의 L-4기에 분승하여 적의 대공포를 무릅쓰고 여의도기지에 착륙해 2대의 미군 L-5기를 몰고 무사히 수원기지로 돌아왔다. 2대의 L-5기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돌려 주었다.[118]

한편 6월 28일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L-4/5기와 T-6기를 분리하여 작전하기로 결정하였다. L-4/5기는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의 지휘하에 계속 수원기지에서 정찰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T-6기는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 지휘하에 대구기지로 이동한 다음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8일 11 : 00에 T-6기 9대가 대구비행장으로 향했다.[119]

그러나 대구비행장으로 향하던 T-6기들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총참모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전비행장에 착륙하였으며, 대구에 착륙한 총참모장도 곧이어 전달된 대전 이동 전문에 따라 대구에서 대전으로 돌아왔다.

T-6기들이 대전에 집결한 사이에 박범집 대령이 지휘하는 L-4/5기는 수원비행장에서 6월 30일까지 정찰 및 연락작전을 수행하던 중, 7월 1일 북한군이 한강을 도하하자 대전비행장으로 철수하여 T-6기 부대와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공군본부와 비행단이 대전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공군 지상부대도 부대 이동을 개시하였다. 개전 초기 김포기지에는 공군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보급창, 헌병대, 여자항공대, 공군병원이 주둔하고 있었다. 김포기지 방어를 위하여 공군사관학교 교장 최용덕(崔用德) 준장은 김포기지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공군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헌병대의 일부 병력 375명으로 2개 중대를 편성하였다.[120]

부대편성을 완료한 최용덕 준장은 6월 27일 오후 김포기지를 출발하여 김포읍으로 이동하였다. 김포읍으로 이동한 최용덕 준장은 육군측과 협의하여 사령부를 김포초등학교에 설치한 다음 병력을 김포읍 남쪽에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6월 28일 08 : 00부터 맹렬한 포격을 시작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최용덕 준장은 전황을 확인하고자 공군본부와 육군 김포지구전투사령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

부 철수하였음을 확인하고 28일 저녁에 공군 병력을 수원기지로 철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군병원은 지휘관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구, 군산, 평택의 야전병원 설치를 위해 열차편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부대편성에서 제외된 잔류 병력은 부대별로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잔류 병력인 1기 사관생도들은 6월 27일 저녁에 시흥을 경유하여 수원에 도착하였으며, 헌병대는 김포기지를 경비하다가 6월 28일 수원으로 이동하였다.[121]

### 3) 미 공군의 초기 항공작전

#### (1) 미 극동공군의 편성과 임무

1947년 9월 18일 육군에서 정식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조직과 지휘체계를 갖게 된 미 공군은 창설 당시 공군본부 산하에 전략공군사령부, 전술공군사령부, 방공사령부, 군수사령부, 공수사령부, 공군대학교, 보링기지사령부, 항공지상시험사령부, 훈련사령부, 알래스카사령부, 카라비안사령부, 제7공군, 극동공군, 유럽공군 등 총 14개의 주요사령부를 두고 있었다.[122]

이 중 6·25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령부는 극동공군이었다. 미 극동공군은 1944년 6월 15일 호주 브리스밴(Brisbane)에서 창설되어 뉴우기니, 필리핀 등을 거쳐 1945년 9월에 사령부를 도쿄로 옮겼다.[123] 전쟁 발발 당시 극동공군은 총 30개의 전투비행대대(Squadron)를 보유하였는데, 이는 미 공군의 총 48개 비행단(Wing) 중 9개의 비행단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력은 당시 미 본토를 떠나 해외에 파견된 미 공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였다.[124]

극동공군의 편제는 전술부대인 제5공군, 제13공군, 제20공군과 후방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로 이루어졌다. 전쟁 발발 당시 극동공군의 주력으로 패트리지(Earle E. Patridge) 소장이 지휘하는 제5공군은 일본 나고야에 사령부를 두고 일본 본토 방어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으며, 터너(Howard H. Turner) 소장이 지휘하는 제13공군은 필리핀 루존 섬(Luzon Island)의 클라크(Clark) 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필리핀 지역의 방위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킨케이드(Alvan L. Kincaid) 소장

이 지휘하는 제20공군은 일본 오끼나와(沖繩) 카데나(嘉手納)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오끼나와와 마리아나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도일(Doyle) 준장이 지휘하는 군수사령부는 다치가와(立川)에 주둔하고 있었다.

미 극동공군의 주력부대인 미제5공군은 6개의 전투폭격대대, 2개의 전천후전투비행대대, 3개의 전투요격대대, 2개의 폭격대대, 2개의 공수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와쿠니(岩國)기지의 호주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를 편입한 상태였다.[125] 제13공군은 4개의 전투요격대대와 3개의 폭격대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20공군은 3개의 폭격대대와 1개의 공수대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5월 31일 현재, 미 극동공군 보유 전력은 총 1,172대로서 B-26경폭격기 73대, B-29중폭격기 27대, F-51전투기 47대, F-80전투기 504대, F-82전투기 42대, 수송기 179대, 정찰기 48대, 기타 항공기 25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126]

미 극동공군의 임무는 일본 본토, 유구(琉球) 열도, 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하는 지역과 필리핀에 있는 미군시설을 공중 방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임무 이외에 미 극동공군에는 육·해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공중지원을 제공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127]

미 극동공군은 원래 한국에 대한 방위임무는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외국인을 공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주한외국인을 철수시키는 해군 수송함을 공중 엄호하는 것과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철수작전에 필요한 지상목표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임무는 1950년 3월 1일 미 제8군이 발표한 주한미국인 철수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 (2) 주한 미국인 철수작전

전쟁 발발 당시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미국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동경으로 귀환 도중에 있었으며,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소장이 사령관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제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 소장은 11 : 30 경 제5공군의 전 지휘관들에게 공중수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미 제8군의 주한미국인 철수계획에 의하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이다즈께(板付) 기지에 있는 제8전폭비행단에게 공중수송과 해상수송의 전투기 엄호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또 다찌가와(立川)에 있는 미 제374수송단의 수송기 통제권을 미 제8전폭비행단에서 인수받게 되어 있었다.

패트리지 소장의 지시와 주한미국인 철수계획에 의거하여 제8전폭비행대장 프라이스(John M. Price) 대령은 F-80, F-82전투기와 B-26경폭격기 10대, C-54수송기 12대, C-47수송기 3대로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128)]

한편 주한미대사 무쵸(John I. Muccio)는 6월 25일 저녁에 한국사태가 위태롭다는 것을 맥아더 장군에게 알리고, 서울과 인천 지역의 미국인 부녀자들을 우선 후송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무쵸 대사는 몇 척의 상선(商船)이 인천항에 기항(寄港)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6월 26일 아침에 일본 후쿠오카(福岡)로 향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6월 26일 00 : 45 미 극동공군 작전참모부장 크랍(Jarred V. Carbb) 준장은 페트리지 소장에게 "미 극동공군은 인천항에 기항 중인 선박이 주한미국인을 싣고 한국 수역을 빠져 나올 때까지 전투기로 엄호하라"는 맥아더 극동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했다.

제4전천후요격대대의 F-82전투기 2대를 추가로 지원받은 제8전폭비행대대의 프라이스 대령은 주한미국인 수송작전에 사용할 C-54수송기를 이다즈께 기지에서 아시야(蘆屋)기지로 이동시켰다[129)]

6월 26일 아침 패트리지 소장은 철수작전에 관한 토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아침에 들어온 정보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 보고에 의하면 서울 근방에서 적의 전차와 보병에 대항하는 한국군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춘천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했으며, 동해안에 상륙한 적 유격대를 격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가 있자 패트리지 소장은 C-54수송기를 원기지인 다찌가와로 복귀시켜 평상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인 철수작전 계획은 일단 철회되었지만, 25일 아침부터 인천항에서는 상선을 이용한 주한미국인 철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미 제5공군은 F-82전투기들을 출격시켜 해상 철수작전을 엄호하게 하였다. F-82전투기들은 인천 상공과 부평의 육군지원사령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을 엄호하였다.

미 공군 전투기들의 엄호하에 노르웨이 상선 레인홀트(Reinholt)호는 682명의 주한미국인을 싣고 16 : 30에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레인홀트호의 출항과 동시에 F-82전투기들이 교대로 공중 엄호에 나섰으며, 6월 27일부터는 항속거리가 긴 B-26경폭기가 F-82를 대신해 호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무쵸 대사는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을 2차, 가능하면 3차까지도 상선으로 후송하고 싶어 했으나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무쵸 대사는 맥아더 장군에게 긴급 공중후송을 요청하였으며, 맥아더 장군은 미 극동공군에 공군후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였다. 패트리지 장군은 공수작전에 실질적인 전투행위가 필요함을 예상하고 미 제5공군에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해도 허용하지 말라"는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130]

수송명령을 받은 미 8전폭비행대대장 프라이스 대령은 제374공수비행단에서 2대, 극동군수사령부와 극동공군기지단에서 11대 등 총 13대의 C-54수송기를 차출하였다. 미 제5공군에서는 고마끼(小牧) 기지에서 훈련 중인 제48전폭비행전대 제9폭격대대를 27일 아침까지 이다즈께(板付)기지로 이동하여 공중엄호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공수준비가 완료되자 27일 06 : 00에 첫 번째 C-54수송기가 F-82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으로 향했다.

맥아더 사령부의 참모들은 공중후송 인원이 375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 공수작전으로 공수된 인원은 6월 29일까지 총 851명이었다.[131]

### (3) 공중전 및 후방차단작전

미 극동공군이 주한미국인 철수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6월 27일, 미 C-54수송

기를 격추하기 위한 북한 공군의 공격이 있었다. 12 : 00경 5대의 YAK전투기가 김포기지에 출현해 C-54수송기의 공중엄호를 위해 초계비행 중이던 5대의 F-82 전투기와 교전을 벌였다. 교전 결과 미 공군 전투기들은 YAK전투기 3대를 격추시킴으로써 6 • 25전쟁 중 공중전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였다.

북한 공군의 공격은 오후에도 계속되었는데, 2차에 걸쳐 8대의 IL-10전투기가 김포기지에서 공수작전 중이던 미 수송기에 대해 공격을 가해왔다. F-80전투기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응전하여 4대의 IL-10기를 격추하였다. 이 전투는 미 공군 제트전투기가 공중전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132]

한편 6월 27일, 맥아더 극동사령관은 "한국전쟁에서 승리 여부는 국민과 군대의 사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공군의 즉각적인 출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패트리지 소장은 괌에 있는 제20공군 소속 제19폭격전대를 오끼나와의 카데나기지로 이동시키는 한편 B-26경폭격기 2개 대대, F-80전투기 4개 대대, F-82전투기 2개 대대의 출격을 명령하였다.[133]

6월 28일, 기상상태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RF-80정찰기가 이다즈께기지를 이륙하여 목표 지역에서 정찰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한 후 07 : 30에 12대의 B-26경폭격기들이 아시야 기지를 이륙하여 서울 북쪽에 있는 문산역을 폭격하고 수차에 걸쳐 철도와 도로차단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괌에서 카데나기지로 이동한 미 제19폭격대대의 B-29중폭격기 4대가 이날 오후 늦게 한국으로 출격하여 2대가 서울-가평 간, 2대가 서울-의정부 간 도로 및 철도를 따라 비행하며 공격했다.[134] 이것은 전략폭격기의 이례적인 운영이었지만 적에게 '무력시위'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 4. 분석 및 평가

### 1) 제공작전

제공작전의 목표는 공중(空中)·공간(空間)에서 공중우세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있다. 제공작전은 우군의 활동을 보호하고, 기타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공중환경을 보장하는 반면, 적에게는 공중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공작전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공권의 획득에 있으며 이는 근접항공지원작전의 효과를 증대시켜 육·해군의 원활한 작전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공중우세를 위하여 적의 공군력을 격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상에 있는 적의 공군력을 파괴하는 대공공격(對空攻擊)이다.

북한 공군은 최초 5일간 그들의 주공격 목표를 비행장 파괴에 두고 여의도기지와 김포기지, 그리고 수원기지에 대한 대공공격을 수차례 시도하여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군은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아군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 공군이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훈련된 조종사의 부족 때문이었다. 개전 직전 북한 공군의 훈련된 조종사 수는 약 80명으로 가용할 수 있는 항공기에 비해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북한의 항공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항속거리가 짧아 전투행동반경이 제한되었다. 그 결과 북한 공군은 개전 초기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육·해군의 작전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미 공군이 참전한 후 북한 공군은 불과 일주일 만에 공중과 지상에서 완전히 제압되었다.

반면에, 한국 공군은 개전 초기에 제공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 공군도 개전 후 3일 동안 대공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 2) 근접항공지원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은 우군의 육·해군에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육·해군의 작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장지역의 공중우세가 필수적이다. 개전 초기 한국 공군은 항공력의 절대적인 열세하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다.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은 6월 2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를 동원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6월 27일 한국 공군은 보유하고 있던 폭탄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7월 2일 F-51전폭기 10대를 인수하여 투입하기 전까지 항공정찰과 연락, 그리고 전단 살포 등 감시 및 정찰작전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북한 공군은 남하하는 지상군을 일부 지원했지만 항공기를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 3) 전장항공차단작전

전장항공차단의 목표는 화력지원 협조선 내외에 산재해 있는 적의 후방대대를 공격하여 적군의 증강과 재보급 및 기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전투지역내의 적군을 고립시키려는데 있다.

6·25전쟁에서 아군의 첫 전장항공차단작전은 6월 28일 미 제5공군의 F-80전폭기가 문산 철도조차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제19폭격기대대 소속의 B-29폭격기 4대가 서울과 가평간, 그리고 서울과 의정부간의 도로 및 철도를 따라 비행하면서 폭격목표를 찾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개전 초기 미 공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장항공차단작전은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 4) 항공후방차단작전

개전 초기 북한 공군은 도로 및 철도, 조차장 등 교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

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례로 아(我) 지상군은 6월 25일에 기관차 30량, 객차 300량, 화차 850량을 동원하고, 6월 26일에는 1,000량의 정기 운행 열차 이외에 60개의 임시열차를 동원하여 병력과 보급물자를 수송하였다.

# 주 (註)

1) 해군본부, 『해군 30년사, 1945~1975』, 1978, p. 21.
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 오비기획, 2002), p. 20.
3)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 1981, p. 127.
4)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 분석』, 1970, p. 63.
5)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p. 37-38;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2003), pp. 52-53.
6)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p. 298.
7)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298.
8) 소련에 거주하다 해방 후 입북하여 1948년 3월 북노당 중앙위원 및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임명되고, 같은 해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위촉되었다. 1950년 전쟁 이전에 민족보위성 부상 겸 해군국장에 오르면서 개전 당시에는 해군총참모장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1956년 4월 공군사령관을 거쳐 1958년부터 약 3년간 몽고주재 대사를 지냈다.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p. 457.
9) 1950년 6월 북한 해군은 평양의 해군총사령부에 546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청진의 제1위수사령부를 597부대, 원산의 제2위수사령부를 599부대, 진남포의 제3위수사령부를 594부대로 각각 개칭하였다. 해군본부, 『해군 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p. 36, 40.
10)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2003), p. 49.
11)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전쟁 전투일보」, p. 2.
12)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전쟁 전투일보」, p. 2.
13)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36.
14) 조선인민군 제599부대 제4정대, 「전투보고서」(1950. 7. 2~7. 5);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년 5월 1일~9월 28일),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2003, 육군사관학교), p. 42 재인용.
15) 각 어뢰정에는 고유의 선명(船名)이 부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제3정대 1호정은 승리호, 2호정은 민주호, 3호정은 해방호로 통칭되었다. 조선인민군 제599부대 제3정대, 「각 정 함선 전투성능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SN 876.
16) 북한 해군의 병력수에 관해 소련군 총참모부는 1만명을,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는 1만 297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전쟁 전투일보」, p. 2와 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 20을 참조할 것.
17) 조선인민군 제599군부대, 「각 구분대 조직통계표」(1950. 3.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문서.
18) 1950년 3월 24일자 제599군부대의 「각 구분대 조직통계표」에는 제2정대의 인원현황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에 명기된 제2정대의 인원은 1950년 5월 7일자 「총직일관일지」 상에 기록된 총원을 차용하였음. 조선인민군 제599군부대, 「총직일관일지」(1950. 5.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No. HD00881.
19)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 1977, p. 769.
20) 국방부, 『국방관계법령 및 예규집』 제1집, 1950, pp. 115-119.
21)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 개정 대통령령 제814호, 1953. 7. 28).

22)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p. 25.
23) 해본편발 제1호(1949. 2. 14)로서 예하 함정을 3개 정대 및 1개 훈련정대로 편성함을 요지로 하고 있다.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p. 1-3.
24) 해군본부, 『海軍30年史 1945~1975』, 1978, p. 16.
25) 해군본부 전사감실, 『대한민국해군사』 (행정편), 1954, p. 56.
26) 해군본부, 『해군30년사 1945~1975』, 1978, p. 20.
27)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p. 23-32.
28)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19.
29) 국방부, 『國防史, 1950. 6~1961. 5』, 1987, p. 130.
30) 해군본부, 「해군편명 제4호」(1949. 6. 1).
31)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p. 4-1.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p. 207.
33) 각 경비부는 총무·작전·경리·의무의 4개 과와 헌병대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인원은 장교 27명과 준위 5명, 사병 140명 등 172명으로 이루어졌다.
34)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pp. 4-1, 5-1, 6-1, 7-1, 9-1, 10-1, 11-1.
35)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p. 701.
36) 해군본부, 「해본편발 제1호」(1949. 2.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p. 211.
37)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 1950, p. 7;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p. 75.
38)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
39)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p. 74; 해병대사령부 작전교육국, 『해병사』 제3집, 1958, p. 31.
40)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p. 74.
41)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길이 단위 1척은 0.303m로써 JMS함은 길이 약 38m, 폭 5.6m이며, YMS함은 길이 약 41m, 폭 7.5m였다. 표에 표시된 함정세력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일부이다.
42)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p. 7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존안자료 함적부』.
43)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p. 298-2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74.
44) 소련군 감청장교 뮬찐(Murzin) 중위, 「감청보고서」, p. 28.
45)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권(2003, 육군사관학교), pp. 52-53.
46) 해군본부, 「작명갑 제48호」(1950. 6. 25).
47) 해군본부, 『해군사 제1집(작전 편)』 1954, p. 44.
48) 북한 게릴라부대의 상륙시간은 각 사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해군본부에서 발간한 작전경과보고서에는 05 : 00에 동해안 금진 및 옥계에 출현으로, 당시 동해안의 경비를 담당했던 국군 제8보병사단 제21연대의 전투상보에는 06 : 00에 상륙으로, 그리고 1977년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에는 03 : 00에 출현하여 03 : 30~04 : 00에 해안상륙을 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각 사료를 종합해 볼 때, 북한 게릴라의 옥계해안 상륙시점은 개전 당일 04 : 00 전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9)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집, 2001, p. 6.

50)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605.
51) 국방부,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개정판), 1977, p. 773.
52) 해군본부, 「작전명령 갑 제49호」(1950. 6. 2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p. 8.
53) 당시에 파악된 적선의 성능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총톤수 : 1,000톤급 수송선, 기관 : 증기기관, 외장 : 마스트 2개(선수 및 중앙부), 주갑판 및 중갑판, 속력 : 10-12노트, 장비 : 57㎜포 1문, 37㎜포 혹은 기관포 1문, 중경기 2~4정, 선장(船長) 및 선폭 : 230척(70m), 30척(9m), 기재물 : 선창 내는 알 수 없으나 갑판상에는 무기, 탄약, 식량 등을 만재함,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p. 19.
54)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D.C. : U.S. GPO, 1962), p. 51.
5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p. 20.
56)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5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603.
57)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p. 9.
58)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51.
59)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52.
60)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 6~1951. 6)』, 2001, p. 52.
61)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개정판), 1977, p. 786.
62) 이는 육본의 옹진방어계획 중 제3단계 작전이다. 참고로 제1, 2단계 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작전은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시 북한군에게 손실을 가하며 분계선을 고수하는 것이며, 제2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국부적으로 38선 이남으로 침공시 이들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을 지탱하는 것이었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북한 괴뢰군의 남침』 2, 1968, p. 58.
64)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개정판), 1977, p. 793.
65) 제96가동부대의 함정은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우수하였으나, 5″이상의 포를 장비한 함정은 1척도 없었다. 지원전대의 기함인 쥬노(Juneau)함의 경우 배수량 6,000톤, 속력 33노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였으나, 함포는 5″양용포 16문을 탑재하는 수준이었고, 구축함분대의 4척의 구축함도 배수량 2,200톤, 속력 35노트의 성능을 보유하였으나 5″포 6문을 탑재하고 있었다.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58.
66) 당시 앤드류스(Sir W. G. Andrewes) 제독이 지휘하는 영연방 해군력은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1만 3,000톤급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함과 6″포를 장비한 순양함 자메이카함 및 벨파스트함, 그리고 3척의 구축함과 4척의 프리킷함이 함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67)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76.
68)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68.
69)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68.
70) 신의주 항공대의 시발은 1945년 9월부터였고, 1945년 10월 25일은 신의주항공대 제1기생의 입대일을 기준한 것이다.
71) 창설 당시 신의주항공대는 일본비행학교 출신 20명과 중국비행학교 출신 10명, 기타 만주군 및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자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신의주항공대 창설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p. 288 참조.
72) 공군본부 정보국, 『北傀空軍』, 1951, pp. 24-25.

73) 대한민국 외무부, 『1950-1953년 한국전쟁사 문서자료집』 제2권, pp. 17-18.
74) 『1950-1953년 한국전쟁사 문서자료집』 제1권, p. 66; 전현수,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630 재인용.
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294-195.
76) 아바꾸모프 베・에스, 「북한의 하늘에서」, 『항공연감』, 1980, p. 18; 전현수, 위의 논문, p. 631 재인용.
77) 북한 공군 전력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1991년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사』 제1집(증보판)에는 북한의 항공기 보유대수를 198대, 병력을 2,200명(소련 내에서 양성된 인원 제외)으로 기술하고 있다(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p. 64-65). 그리고 미 공군의 공식 전사기록에는 "개전 초 북한 공군은 132대의 전투기와 병력 2,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록한다(Robert F.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한국전쟁에서의 미 공군 전략』, 행림출판사, p. 97). 이 두 가지의 경우, 기록의 출처는 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을 심문하여 얻은 정보들로 신뢰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공산측에서 생산된 자료일 것이다. 물론 공산측 자료라고 해서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며, 또 자료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 참전 소련 조종사 아바꾸모프의 수기에 의하면, 1950년 6월 현재 북한 공군은 239대의 비행기를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아바꾸모프 베・에스, 「북한의 하늘에서」, 『항공연감』, 1980, pp. 1-16; 전현수, 앞의 논문, p. 630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 국방성이 발간한 전사에도 전쟁발발 당시 항공기는 239대, 총 병력은 2,829명으로 기술하고 있다(러시아 국방성,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오비기획, p. 19). 그러나 전쟁 당시에 소련군 극동방면군 사령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7월 31일까지 전황의 전개를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조선에서의 전투일지』에는 총 병력 2,800명, 항공기 226대로 밝히고 있다(「조선에서의 전투일지」,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39, 목록 133, 문서철 2830). 이 글에서는 전쟁 당시에 생산된 문서라는 점과 공군은 물론 지상군 및 해군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조선에서의 전투일지』를 활용하였다.
78) 공군본부 정보국, 『北傀空軍』, 1951, p. 36.
79) 북한의 비행장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건설된 것이지만, 이 중 몇 개는 전쟁발발 직전에 북한이 건설한 것이다. 일본군이 건설한 평양, 신의주, 원산, 연포비행장은 완전 포장된 활주로와 수리창, 유지고(油脂庫)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새로 건설된 신막비행장도 제반 비행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미 공군대학,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956).
8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8.
81) 공군본부, 『UN공군사』, 1975, p. 19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pp. 357-358. 공군 창설을 추진하여 오던 항공계 지도급 인사들은 1946년 9월에 통위부장 유동열(柳東悅)과 항공부대 창설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통위부 정보국장 김영환(金英煥) 부위에게 미 고문관 프라이스 대령을 만나 항공부대 창설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48년 3월에 미군정 당국은 조선경비대 예하에 경비행기부대를 창설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항공인 3명을 고문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항공계 지도자들은 이를 수락했으나 미군정 당국은 고문 추천을 번의(翻意)하면서 "항공계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 일본군이나 중국군에서 종사한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미식훈련(美式訓練)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의하였다(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p. 42-43).
8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1962, p. 63쪽; 국방부, 『국방부사』 제1권, 1954, p. 30; 공군본부, 『6・

25전쟁증언록』, 2002, pp. 57-58; 항공부대 창설 및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357-360 참조.

84) 여·순 10·19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451-475 참조.

85) 공군본부, 『공군25년사 1948-1972』, p. 13.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p. 589.

87) 공군본부, 『공군발전약사』, 1954, p. 4.

88) 공군 창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385-386 참조.

8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 50.

90)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57.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p. 626.

92)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p. 53-54.

93) 「인민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전투계획 일람표」. 이 명령서에서는 항공대의 임무로 "아군의 행군지구와 가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한다. 적의 군사시설 역전을 파괴한다. 적의 집결과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한다. 적의 도로를 파괴하며 집결을 불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94) 북한 공군기의 서울 상공 출현 시간은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공군본부가 발간한 『공군사』에는 오전 10시경으로 기록하고 있다(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07) 그러나 당시 주한미대사 무쵸(Muccio)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는 "25일 오전 11시 35분 북한군 전투기 2대가 김포비행장을 정찰한 후 폭격이나 기총소사 없이 사라졌다"고 하였으며(「From Muccio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71), 미 공군사에는 "13 : 15경 야크전투기 2대가 서울과 김포비행장을 저공비행했으나 공격은 하지 않고 북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p. 9). 이 글에서는 무쵸 대사의 전문 내용을 근거로 했다.

9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p. 9.

9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 107.

97) 「From Muccio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7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 9.

98) 조선중앙통신사,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1955, p. 86; p. 11.

9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 107.

100) 공군본부, 『UN공군사(상)』, 1975. 9. 30, pp. 30-31.

101)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73.

102) 공군본부, 『6·25전쟁증언록』, 2002, pp. 129-146.

10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 110.

104)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83 .

105) 공군본부, 『6·25전쟁증언록』, 2002, pp. 135-136. 육군의 요청에 따라 06 : 00경 비행단장 대리인 박범집 대령의 명령에 따라 김두만 중위가 정비사 윤근섭(尹根燮) 중위와 함께 임진강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 출격하였다.

10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p. 110-111.

107) FRUS 1950, pp. 147-148.

108) 공군본부, 『6·25전쟁증언록』, 2002, p. 224.

109) 이 수치는 조종흉장을 받은 조종사들의 인원이다. 공군본부일반명령 제3호, 1950. 5. 4

110)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91.

111) 공군본부, 『6·25전쟁증언록』, 2002, pp. 226-230.
112) 이 자리에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도미 중이던 손원일 제독을 대리해 김영철 대령,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준장 등이 참석하였다.
1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68, p. 227.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68, pp. 294-295.
115)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80.
116) 공본작전명령 제17호. "공군본부는 6월 27일 24:00까지 수원으로 이동하고 헌병대, 보급창, 공군병원은 각개 전진하여 28일 24:00까지 수원에 집결하라."
117)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p. 80.
118) 공군본부, 『6·25전쟁증언록』, p. 173.
119) 공군본부, 『航空戰史(韓國戰爭)』, 1989. 6. 15, p. 83.
120) 참모장에 홍윤범(洪允範) 소령, 제1중대장에 김규철(金圭徹) 중위, 제2중대장 김상학(金相鶴) 소위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무기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MI소총 26정과 일본 99식 소총이 전부였다.
12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p. 118-119.
122) Alfred Goldberg editor,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07-1957, D. Van Nostrand Company, 1957, p. 108.
123) 미 극동공군은 1945년 12월 6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Air Command United States Army)로 재편되어 태평양상의 모든 공군조직들을 지휘하였다. 그 후 1947년 1월 1일 다시 극동공군으로 환원되었다.
12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S Air Force, 1983, p. 58.
125) 한국전 발발 당시 제13공군은 루존섬(Luzon Island) 클라크(Clark)기지에 제18전투폭격비행단(제12, 제44, 제67폭격대대)과 제21공수대대, 제6204사진지도제작비행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20공군은 오끼나와 나하(Naha)기지에 제51요격비행단(제16, 제25, 제26요격대대)과 제4전천후전투비행대대, 가데나기지에 제31사진정찰대대, 괌 안델슨(Andelson)기지에 제19폭격비행단(제28, 제30, 제93폭격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2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 1975, p. 25.
12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 2.
12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p. 5-7.
12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 5.
13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 9.
131) 공군본부, 『UN공군사 (상)』, 1975, p. 30.
13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0, pp. 12-13.
133) 공군본부, 『UN공군사 (상)』, 1975. 9. 30, p. 31.
13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pp. 27-28.



# 제9장 총 평

| | |
|---|---|
| 제1절 | 준비태세 측면 |
| 제2절 | 전쟁지도 측면 |
| 제3절 | 작전 및 전술적 측면 |

#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 1. 북한군의 공격준비태세

북한군은 국군이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에 따라 방어형 군대를 지향하고 있을 때 남침을 위해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국의 동의 및 협조하에 전쟁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북한군은 남침계획 단계에서부터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가며 인민해방전쟁 완수를 위해 3단계 작전에 의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38선에서 수원－원주－삼척선에 이르는 종심 90㎞를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제1단계 진출선에서 전주－대구－포항선에 이르는 종심 180㎞를 14일 만에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제3단계작전은 제2단계 진출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종심 80㎞를 10여일 만에 완수한 후 한 달 만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제1단계 작전개념 면에서 북한군은 제1단계 작전 목표인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 이북의 국군 주력을 격멸하기 위해 최상의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군은 2차에 걸친 양익포위(한강 이북과 이남)와 고속기동부대(제105전차여단과 제603모터싸이클연대)를 통해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2중·3중으로 차단하여 제1단계 작전에서 승세를 완전히 굳힌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강 이북의 국군의 전선을 양단시킬 차단부대를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는 현 작전지역에 밝은 제1·3경비여단에 1개 보병연대를 각각 배속시켜 옹진반도와 강릉 지역을 점령한 후 그 곳에서 점령 및 위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병력운용 면에서도 공격제대를 2개 제대 및 전략예비로 편성하고, 작전목표

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속기동부대, 산악침투부대, 차단부대, 상륙부대 등 작전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총 10개 사단, 2개 경비여단, 2개 고속기동부대 중 1제대로 6개 사단 및 2개 경비여단을 두었고, 2제대로 3개 사단을 두었다. 고속기동부대로는 제1군단에서 운용되는 제105전차여단과 제2군단 지역에서 운용되는 제603모터싸이클연대를 두었다. 그리고 국군의 전선을 동서로 분리하는 차단부대로는 제2군단의 2제대로 편성된 제5사단과 해안 상륙부대로는 제766유격부대와 해군 육전대인 제549육전대를 보유했다.

작전통제 면에서도 북한군 총참모부는 계획단계에서 주공지역에 운용되는 부대에는 비교적 협소한 정면인 20㎞를 부여하였고, 조공부대에 대해서는 보통 40㎞ 이상의 광정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최초 공격사단 및 여단급 부대에는 최근임무계선과 차후임무계선 및 1일차 진출목표를 부여하여 작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부대운영을 계획단계부터 부대를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기까지 사전 치밀한 공격 시나리오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작성된 남침공격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부대를 38도선으로 전개하고, 공격에 앞서 사단별로 국군의 방어태세를 확인하기 정찰명령을 하달한 후, 최종적으로 전투명령을 하달하여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 전쟁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공격계획은 작전목표 측면에서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 격멸”이라는 두 가지로 아주 간명하게 압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울 점령을 위해 제1군단에 의해 한강 이북에서 1차 양익포위를 하고,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서로 협조된 공격하에 한강 이남에서 다시 한번 2차 양익포위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군을 격멸하기 위해 2일차 고속기동부대를 통해 한강교 조기 점령과 수원 이남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2일차에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되는 1개 보병사단이 국군 전선을 동서로 양단하여 국군이 서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 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산악침투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가운데, 7번

국도를 따라 지상군이 북에서 남으로 공격하고, 강릉 남쪽에서 해상으로 상륙한 상륙부대가 남에서 북으로 국군을 협공하여 완전 격멸하고자 하였다.

전쟁직전 북한군의 전력은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였다. 북한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직전의 총 병력이 19만 8,380명에 달함으로써 국군의 10만 5,752명에 비하여 2 : 1로 우세하였다. 또한 전방방어지역에서의 축선별 피아 병력 비율도 주공방향인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은 1 : 6.7이었고, 개성－문산－서울 축선은 1 : 2.2였다. 조공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은 1 : 3.6이었고, 양양－강릉 축선은 1 : 2.2로 북한군이 훨씬 우세하였다.

특히 화력 면에서 북한군은 122㎜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728문의 곡사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105㎜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120㎜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81㎜ 박격포와 60㎜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화포의 사거리면에서 북한군이 국군에 비해 훨씬 긴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었다. 국군 105㎜ 곡사포의 사거리가 6,500m인데 비해 북한군의 122㎜ 곡사포는 11,710m, 76㎜ 곡사포는 9,000m, 76㎜ 자주포는 11,260m, 76㎜ 평사포는 13,090m로 국군의 화포에 비해 사거리가 1.5~2배가 넘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최초 진지변환 없이도 국군의 예비대가 위치한 후방 깊숙이 포병화력지원을 할 수 있었다.

북한군 사단 전투편성의 특징은 국군의 경(輕) 보병사단에 비해 중(中) 보병사단이라는 것이다. 북한군 사단은 보병 3개 연대에 3개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포병연대 외에도 보병연대에도 76㎜ 1개 포대가 편제되어 있고, 사단 직할부대로 수송대대, 병기대대, 공병대대, 정찰중대를 보유함으로써 독자적인 통합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결국 북한군 1개 보병사단의 전투력은 국군 2개 사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연대급 이상 간부들은 대부분 중공군 및 조선의용군 출신이거나, 김일성과 함께 하바로브스크에서 멀리 떨어진 바크에 위치한 소련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제88특별여단의 출신들이 대부분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북한군 사단장급 이상 간부들은 국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30대였다. 먼저

제88여단 출신들 중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내각수상 김일성은 38세였고,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50세이며, 총참모장 강건, 공군사령관 왕연, 제2군단장 김광협, 제1사단장 최광, 제2사단장 이청송, 제105전차여단장 유경수, 제13사단장 최용진, 제15사단장 박성철, 제3경비여단장 최현 등은 모두 30대였다. 또한 팔로군 및 조선의용군 출신 간부들도 포병사령관 무정(45세)을 제외하고, 제1군단장 김웅, 제5사단장 김창덕, 제6사단장 방호산, 제12사단장 전우 등도 모두 30대였다. 이들 북한군 간부들은 연령이 말해주듯, 대부분 대부대 지휘경험이 없는 소련 및 중공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한 비정규전 부대의 빨치산 출신들이었다.

북한군 지휘부와 소련 군사고문단은 전체작전을 신속히 완료하는데 있어 고속기동부대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고속기동부대를 배치하면서 중요 작전, 목표, 지형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한 뒤 보유하고 있던 제105전차여단은 서울을 향한 회랑 지역인 포천－의정부－서울, 일동－서파－퇴계원－서울 축선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도로사정을 고려하여 제1사단, 제3사단, 제4사단 지역에 제203전차연대, 제107 및 제109전차연대를 운용하였고, 개성을 공격하는 제6사단 지역에는 별도로 1개 독립전차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홍천을 거쳐 수원 지역에서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603모터싸이클연대를 2일차에 홍천에서 투입하고자 하였다.

제1단계 작전 간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에게 주어진 “둘째 날 아침부터 서울에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라는 임무는 1단계 작전에서 차후단계로 중단 없이 넘어가기 위해 국군이 한강교를 파괴하기 전에 이를 신속히 점령한다는 작전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련의 도하작전교리에 대부대가 도하작전을 예견할 경우 전차부대가 기습적으로 적의 교량을 조기에 장악한다는 교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군은 전쟁 직전 치밀한 공격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6월 25일 여명을 기해 남침을 감행하였다.

## 2. 국군의 방어준비태세

6·25전쟁 전야의 국군의 방위 준비태세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최악의 상황, 그 자체였다. 국군 방위 준비태세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안보관계 국무위원 및 군 수뇌부로 구성될 전시내각이나 전쟁지도부에 대한 편성 및 운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전쟁 상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통합방위계획이나 이를 기초로 한 국가차원의 동원 및 전쟁연습은 정부수립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국군 방어계획의 수립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시 일자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불과 3개월에 작성된 관계로 예하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를 이해하고 부대에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고, 전방 사단에서는 방어계획에 의거 적의 공격에 대비한 진지구축 등 충분한 방어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 당일부터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한 육군총참모장의 임무 및 지휘 폭이 너무 광범위했다. 그 결과 육군총참모장은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상황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육군총참모장은 전쟁 발발 후 국무회의 비상회의·비상국회·군 원로회의·군 수뇌회의·국방수뇌회의 등 정부·국회·국방부회의 참석, 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선 지도방문,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8개 사단에 대한 직접 지휘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그 임무가 너무 많고 부담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총참모장은 자신의 고유임무인 전선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지휘 결심을 하여 전선의 각 부대에 지시해야 될 적시적절한 지휘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전쟁 불과 1개월 전에 단행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폭 인사, 주요 지휘관의 교육파견, 전쟁 전야 재경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장교구락부 개관 축하 회식 및 부대별 평균 1/3에 달하는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조치, 그리고 38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방 사단 연대급 부대에 대한 전후방 교체는 가장 중요한 개전 초동단계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연되거나 무시됨으로써 초전 효율적인 즉응태세에 막대한 혼선을 불러왔다.

육군 사단의 기동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입고 조치와 적 전차 및 항공기에 대한 대응 수단 부재는 탄약 등 보급 지원에 차질을 가져 왔고,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의 소련제 전차에 대한 공포증까지 수반함으로써 아군의 초기 작전에 막대한 차질과 혼란을 가져왔다.

공비토벌로 인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미실시, 정확한 대북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의 정확한 남침 의도 및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안일하게 대처한 군 수뇌부의 판단 능력 결여가 전쟁을 불러왔다. 이와 같이 전쟁 직전 국군이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모든 결함 및 문제점이 전쟁 발발 당일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국가정책차원에서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실질적인 비상계획과 구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사작전과 대외관계 및 국내정치 등 제 요인을 적절히 조화시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체계화된 안보정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남침 당시 군 최고통수권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의 군사문제를 보좌하는 사람은 신성모 국방장관이었으나, 불행히도 이들은 군사문제에 어두워 전쟁지도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민간인 철수계획이나 국가동원 계획 등 비상계획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혼란 상황은 극에 달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였으며 간혹 전달되는 전선의 상황이 위급하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들 뿐이었으나, 적절한 대책을 짜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의와 협의를 거듭할 따름이었다. 대책을 결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었으나 그는 군사 분야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지도는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쟁대비차원에서 조기경보체제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훈련을 가장해 기동함으로써 남침 조기경보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우리 첩보원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촬영한 T-34 전차의 사진과 전방부대의 전쟁임박 상황보고마저도 '북한군의 부대교체 징후' 정도로 판단하는 등 지극히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말았다.

6월 23일 24 : 00시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바 있던 군 수뇌부는 일요일(25일) 북한군의 전면 침공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월 25일 07시로부터, 국군지휘부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작전지도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이 전 전선에 걸친 전면남침이란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사실을 곧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많은 혼란을 유발하였다. 남침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그것도 '국군이 격퇴하고 추격 중'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보도를 전하였다.

이 기간동안 국군수뇌부는 전쟁 전 대비와 전략, 전술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채 총장은 작전명령 85호를 하달하여 후방사단의 이동을 지시하고, 서울 지역에 위치한 모든 학교 및 부대병력의 집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춘천의 제6사단 및 강릉의 제8사단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옹진반도의 제17연대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즈음, 6월 25일 12시경, 북한군 야크 전투기는 용산과 김포 부근에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서울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으나, 13시경, "북한군의 전면침공을 받아 이를 격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요지의 국방부 담화문에 서울시민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육군본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침공으로 빚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채 총장은 당시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적의 침공은 전면남침이 아니라 붙잡힌 공비 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곧 남쪽의 부대를 집중하여 적을 공격할 것이다"고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채 총장은 의정부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전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이렇듯 전쟁지도 측면에서 아군은 준비태세 미비, 지휘계통의 혼선, 적극적 고려와 조치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남침초기 방어전투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공격이 개시된 직후부터 철수하는 28일 야간까지의 전투이다. 이 전투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고 미 지상군을 한국전선에 파병하기까지 북한군 주력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강선 이북에서 거의 육탄으로 싸우다시피 한 혈전이었다.

전쟁초기에 국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육군본부의 작전지도 실패와 부적절한 제조치를 꼽을 수 있다. 6·25를 전후하여 우리 군 수뇌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자초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밖에도 방어종심 증가를 위한 지연진지, 대전차 격멸지대 또는 장애물지대 등 방어작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인 야전축성 등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전방 4개 사단 지휘관의 재량으로 예비진지를 준비한 것이 개전 초기전투에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한국군의 초기작전 실패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절대적인 전투력 열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 전투력 열세는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의 효과적인 운용 등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피아의 현저한 전투력 격차는 그 어떤 요소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영역이다. 개전 당일 오전 중 대부분의 38선 진지가 돌파되고 3일 만에 서울을 포기하기까지 국군의 필사적인 저지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무엇보다도 병력, 장비, 훈련 및 전투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전투력이 현저히 열세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현대전 수행에 있어 필수 장비인 전차와 전투기 및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적 전차와 항공

기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으로서의 대전차지뢰 운용 미숙, 고사포를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었다.

반면 북한군은 전투 및 전략차원에서 양익포위에 의해 국군을 격멸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공격시 국군 방어병력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산악지형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국군이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북한군은 통신장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투간 상급부대에서 예하부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간부들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초 임무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전선 상황이 바뀌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급부대 지시가 없으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게 되었다.

## 1. 서부전선

서부전선에서 아군은 국군 제17연대가 적을 저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해상 철수하였으며, 국군 제1사단이 1개 전차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1,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임진강을 연한 주저항선과 봉일천 일대의 최후저항선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그 결과 국군은 중과부적으로 수도권 일원에서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조기에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초전부터 연이은 패배로 전의를 잃어 가던 국군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방어선에서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효과적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고 적이 도하한 후에도 문산 일대에서 부대정비를 하지 않으면 작전을 속개할 수 없을 정도로 출혈을 강요하였다. 사단은 열세한 전력으로 적을 4일간 한강 북쪽에서 지연시킴으로써 그들의 작전기도를 무력화하는데 성

공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남하속도를 격감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육본의 시의 적절한 조처로 예기치 않은 적의 측면 침공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 부대는 건제가 무시된 급편부대였으나 한강과 운유산 일대의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서부지역작전을 담당하였던 옹진반도의 국군 제17연대, 개성－문산 지구의 국군 제1사단, 김포지구의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우세한 적의 공격을 맞이하여 효과적으로 적을 방어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초기전투에서 아군은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도 제17연대가 옹진북쪽으로 역습을 실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국군 제1사단이 문산 북쪽과 봉일천 방어선에서 각각 역습을 실시하여 적에게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였다.

## 2. 중서부전선

중서부전선의 제7사단이 주저항선 방어에 실패하자 육본은 수도경비사령부와 제2사단과 심지어 육사 생도까지 축차 투입하여 서울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육본은 26일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되어 급기야 수도서울이 직접 위협받게 됨에 따라 최후방어선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관문인 중서부지역 전선이 붕괴되자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다. 육군은 의정부 전선이 붕괴되자 초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일선 병력이 모두 분산되고, 가용한 예비병력이 없게 되자 육군본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장교연대를 긴급 편성하여 창동으로 파견되었고,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이 육군본부 전방지휘소를 창동에 개설하는 등의 조치는 시기적으로는 비교적 빨랐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작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신 두절로 각 연대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26일 밤 수습된 전투병력은 1개 연대를 넘지 못했고, 이러한 병력으로는 창동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지휘체계의 혼란과 병력의 절대 부족으로 26일 밤까지 조직적인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의 주요 핵심목표로서 북한군 제1군단과 국군이 수도 서울을 놓고 일대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병력 및 화력면에서 열세인 국군이 그동안의 전투로 인한 피로도와 전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 결과 서울은 전차를 앞세운 적의 집중공격과 국군의 한강교 조기 폭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국군은 개인화기만을 휴대한 채 한강 이남으로 개인 및 소부대 단위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남침계획을 공격부대 지휘관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의정부 점령 이후 제3・제4사단의 포병과 제105전차여단이 도로 우선권에 대한 상급부대에 대한 지침이 없이 기동한 관계로 도로이용의 혼선으로 계획된 기동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6월 27일 김일성이 의정부 북쪽에서 서울로 진출하고 있는 제105전차여단(-)에게 한강교 점령 대신 중앙청을 비롯한 서대문형무소와 방송국 등 주요 시설들을 점령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커다란 전략적 실수를 범하였다.

## 3. 중동부전선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2개 사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적의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유도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공세적인 방어행동을 취함으로써 적을 성공적으로 지지하였다. 기동부대와 포병의 진지준비 및 운용이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방어준비에 소양강, 원창고개, 말고개 등 지형을 적절

히 이용하였다.

제7연대 대전차중대 심일 중위를 비롯한 결사대 6명의 적 자주포 파괴, 제19연대 육탄 10용사 등의 공세행동은 전장의 마찰로 작용되어 적 부대를 격멸하고 적 지휘관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군은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의 진출이 3일간 저지됨으로써 수원 방향으로 크게 우회하여 서울 지역에 투입된 아군의 퇴로와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던 최초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는 적 전술의 특징인 유생역량 섬멸보다 춘천이라는 지역 확보에 중점을 둔 결과 춘천은 탈취하였으나, 남침계획 수행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다.

이와 반대로, 국군 제6사단은 춘천을 3일간 고수하여 북한군 제2사단에 의한 한강 이남에서의 포위기동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이북에 집중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여 7월 3일까지 6일간 한강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춘천 및 홍천지구에서의 선전은 단순히 춘천이나 홍천이라는 특정한 전투지역에서의 승리라는 차원을 넘어 북한의 전쟁계획 자체를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6·25전쟁 초기의 가장 중요한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북한군은 전투 및 전략차원에서 양익포위에 의해 국군을 격멸하고자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공격시 국군 방어병력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산악지형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국군이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북한군은 개전초기 적을 경시하여 전술원칙을 무시한 채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화천-춘천 축선의 공격을 담당한 제2사단과 인제-홍천 축선을 제12사단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손쉽게 38도선 돌파에 성공한 적은 아군의 전투 능력을 경시함으로써 소양강 도하작전과 말고개 돌파작전시 전투대형이 아닌 행군대형의 종대 파상공격을 실시, 아군의 화망에 포착되어 많은 인명손실을 불러왔다.

## 4. 동부전선

동부전선을 담당한 제8사단은 26㎞에 이르는 38선상의 광정면을 1개 연대의 2개 대대가 경비하고, 주력은 강릉－오대산－임계－장성－북평－삼척 등지에 각각 분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사단은 사전에 마련한 방어계획에 의거한 전술전개의 겨를도 없이 육본 및 좌인접 제6사단과의 통신마저 두절된 채 고군분투하였다.

적은 개전 당일 동덕리 선까지 진출하려던 계획이 아군의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으며, 또한 죽헌리－학산리, 강릉시가전, 군선강 유역 등에서 아군의 끈질긴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적은 국군 제8사단의 용전분투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5일이나 지체한 후 삼척을 점령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대관령을 경유 원주로 철수하였으나,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의 신속한 남하를 방해하고, 평창－영월 선으로 병력을 분산투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포항으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더구나 국군 제8사단은 전투력이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 혼전 속에서 적을 지연하였고 비교적 질서있는 철수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제8사단 작전은 개전 초기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미 해군이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적의 동해가도를 통한 부산 공격 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 5. 해　군

북한의 해상침공은 북한 지상군의 전면 남침과 때를 같이하여 동해안으로 침

공하는 제5사단의 남진속도를 촉진하고 국군 제8사단의 배후교란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적이 옥계, 삼척, 울진 방면으로 상륙을 기도한 것은 당시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 은거중인 게릴라와 연결하고, 국군 제8사단의 배후를 교란하여 증원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국군의 고립 및 후방교란을 기도하는 적의 해상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측방 해상경계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묵호경비부 조기철수와 JMS 305정의 격침은 아 해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적 게릴라부대의 상륙에 대항하여 묵호경비부가 육군과 경찰, 청년단원들과 합동으로 작전한 점은 합동작전의 선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묵호를 사수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철수함으로써 묵호지구를 공백상태화 하였다. 이로 인해 묵호경비부는 조기철수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제2정대의 호송을 받으며 묵호로 북상, 미 함정으로부터 적선으로 오인 받아 피격을 당하게 되었다.

305정이 격침될 때 미 함정이 최초로 한국 동해안에 출동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사전에 아 해군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통신연락 수단마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연합작전에서 상호 정보교환과 상호 방해방지책의 마련은 전술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대한해협전투는 아 해군이 최초로 성공시킨 단독 해상작전으로서 남해안에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게릴라부대를 격멸하여 후방교란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작전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하여 적이 남해안 상륙에 성공하였다면 개전초기 전황은 급변하였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군수물자와 병력이 입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인 부산은 당시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남해안에 상륙을 기도하는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6. 공 군

한국 공군은 초전 3일간의 항공작전에서 총 123회(L-4 35회, L-5연락기 10회, T-6건국기 28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초전 3일간의 한국 공군의 항공작전은 열세한 공군력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조국수호를 위해 맨주먹으로라도 싸워 이기고 말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싸운 작전이었다.

개전 초 적의 기습공격을 받을 당시, 한국 공군은 적기의 공습에 대처할 대공화기는 겨우 기관총 3정 뿐이었다. 그리고 6월 25일 한국 공군이 기지방어를 강화하고자 육군병기창에서 4정의 기관총(Cal-50)을 인수하여 총 7정의 기관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김포비행장 주변 참호와 선유봉(김포가도, 52고지)과 여의도기지 서쪽 양말산에 각각 배치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였으나 적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 대공화력이 미약했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 초기에 기동성이 가장 큰 항공력을 전격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대의 전과를 올리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북한 공군은 18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적은 미국의 참전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공작전에 결정적인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 극동공군의 상선 및 C-54수송기를 이용한 주한미국인 철수작전에서 북한 공군기가 이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다. 그러나 6월 26일에 YAK전투기 2대가 F-82전투기에 의해 격추되고, 6월 27일에는 IL-10전투기 4대가 F-80전투기에 의해 격추됨으로써 미 극동공군의 주한미국인 철수작전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6월 29일 맥아더 원수가 전황을 시찰하기 위해 F-80전투기와 F-51전투기들이 공중 엄호하는 가운데 C-54전용기를 타고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여 미 극동공군 전방지휘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YAK전투기가 수원비행장을 공격했다. 이

때 수원비행장 상공을 초계하고 있던 F-51전투기가 이들을 요격하여 적기 4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 공군은 공격전술을 변경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아군 지역 내에 대공감시원을 침투시켜 국군의 상황에 따라 전투기의 공격을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 부 록

1. 연 표
2. 국군 작전명령
3. 북한군 전투명령

# 1. 연 표

| 연 도 | 구 분 | 사 건 내 용 |
|---|---|---|
| 1950. 6. 25 (일) | 국 내 | • 미명에 북한군 38선 전역 11개소에서 일제히 월경 침공<br>• 정동진·임원진에 적 제945육전대, 제766부대 상륙<br>• 옹진반도의 국군, 전략상 후퇴<br>• 의정부 북쪽에서 격전<br>• 채병덕 총참모장, 적 지상군 4~5만명, 전차 약 94대 침공했다고 발표<br>• 적의 선두 소부대, 임진강을 건너 남하<br>• 적은 춘천을 공격<br>• 오후, 적기 여의도비행장 공격과 동시에 김포비행장 폭격<br>• 서울 상공에 적기 출현, 기총소사<br>• 국무회의 긴급대책 강구<br>• 신성모 총리서리, 미국에 무기원조 요청<br>• UN 한국위원회, 심야방송으로 북한측에 정전요구 |
| | 국 제 | • 미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남침한 책임은 소련에 있다고 담화발표<br>• 미국은 UN총장에게 긴급안보회의 개최를 요청<br>• 주미 한국대사, 긴급 무기요청을 위해 국무성 방문<br>• 미국정부, 맥아더 장군에게 대한 무기원조를 명령<br>• 존슨 미 국방장관은 「만약 소련이 적에게 실질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미국은 주저없이 출격할 용의가 있다」고 연설<br>• UN안보리, 「적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는 미국결의안 채택(9대0, 소련 불참, 유고슬라비아 기권). |
| 1950. 6. 26 (월) | | • 국군, 전 전선에 걸쳐 반격<br>• 국군, 삼척 상륙 적군을 포위, 섬멸전 전개<br>• 적, 문산 점령 의정부에 도달<br>• 한국 해군, 적의 1,000톤급 수송선을 동해안에서 격침 |

| 연 도 | 구 분 | 사 건 내 용 |
|---|---|---|
| 1950. 6. 26 (월) | 국 내 | • 적기 2대, 김포비행장 재폭격<br>• 적기, 여의도비행장 재폭격<br>• 서울 상공에서 공중전<br>• 적 옹진반도 대부분을 점령<br>• 한국내 거주 미·영 부녀자 총철수 |
| | 국 제 | • 장총통, 이대통령에게 반공의 입장을 취하여 한국정부를 절대 지지함을 표시하는 전문발송<br>• 맥아더원수, 일본정부에 공산당紙인 「적기」 정간 명령<br>• 미 양원 5천만 달러 한국 추가경제원조안 가결 |
| 1950. 6. 27 (화) | 국 내 | • 극동 미 해·공군 38도선 이남에서 국군옹호 전투중<br>• 무기 및 군수물자는 항공 선박으로 수송중<br>• 적 수색 점령<br>• 미 전투기, 적 부대공격<br>• 적, 의정부를 통과 서울로 진격중<br>• 적, 춘천점령 소양강 도하<br>• 적, 강릉을 점령<br>• 미 전투기, 소련제 야크형 전투기 1대 격추<br>• 적, 인천항 부근에 상륙기도<br>• 북한에 총동원령<br>• 23 : 00 이대통령,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가 있을 것이므로 국민은 총궐기하라고 특별방송<br>• 정부, 대전으로 천도<br>• UN 한국위원회, 도쿄로 이전 |
| | 국 제 | • 미, UN에 적 제재(한국에 무력원조) 명령을 발할 것을 요청<br>• 미 제안(군사제재)을 UN 안보리가 가결<br>(찬성 7, 반대 1, 기권 2)<br>• 미 국무성이 맥아더원수를 한국작전의 최고사령관에 임명<br>• 미, 각서로 적의 철수를 소련에 요청<br>• 미, 한국거주 미국인의 철수를 명령 |

| 연 도 | 구 분 | 사 건 내 용 |
|---|---|---|
| 1950. 6. 28<br>(수) | 국 내 | • 국군, 한강 남안으로 후퇴<br>• 적, 서울지역 침입 개시<br>• 적, 홍천 점령<br>• 미 전투기 수원에 집결, 미극동군 전방지휘연락단(ADCOM) 수원에 설치<br>• 김포비행장 부근에서 적과 격전<br>• 적기, 수원비행장 폭격<br>• 미 F-80전투기와 B-26폭격기 500톤의 폭탄을 탑재하고 전선에 출격<br>• 미 공군, 적 전차대 및 보병부대를 폭격<br>• 미 제트기 등 80대, 직접 전투에 참가<br>• 국군 02 : 30 한강인도교 및 철교폭파<br>• 육군본부, 수원에 이동 |
| | 국 제 | • 필리핀, 한국에 파병 용의가 있음을 UN에 통고<br>• 극동 수역의 영국함대, 미군 지휘하에 행동<br>• 미 제7함대, 대만해협에서 행동 중이라고 발표<br>•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미 기동함대 전반을 극동방면에 출동하도록 명령<br>• 영 처칠 전수상, 한국전쟁에 대한 태도는 침략이라고 비난방송 |
| 1950. 6. 29<br>(목) | 국 내 | • 국군,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고 미 공군과 긴밀한 연락<br>• 맥아더 원수, 전선 시찰을 위해 내한<br>• B-29폭격기 평양을 처음 폭격<br>• 미 항공모함이 한국해협에서 적 상륙을 경계<br>• 미 해군부대가 북한을 동서 양쪽에서 함포사격 |
| | 국 제 | • UN 안보리, 적의 남침에 대항하는 국군을 지원하도록 세계 각국에 요청할 것을 결정<br>• 인도 정부, UN의 대한 결의를 지지<br>• 미 상원, 한국에 대하여 경제원조로 1억 달러 지출 가결<br>• 벨기에, 대한 원조를 UN에 통고 |

# 2. 국군 작전명령

## 1. 陸 本 作 命

**부록 제1호**

作戰命令 第57號 1950. 4. 21

1. 北韓傀儡軍 및 南韓 各地區에서 蠢動中인 殘餘 共匪들은 5월 1일을 前後하여 南韓侵入과 暴動惹起를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5월 1일 前後에 있어서 不穩事件 發生에 對備하여 待機態勢 및 警戒態勢에 突入하려함.
3. 가. 各部隊長은 下記에 依하여 待機態勢 및 警戒態勢를 實施하라.
   나. 各師團長은 各管內 警察局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管內巡察을 徹底히하라.
   다. 首都警備司令官 및 憲兵司令官은 首都地區의 巡察을 徹底히 하라.
   라. 實施要領은 從前과 同一함.
   마. 實施期間
      (1) 待機態勢期間 : 4. 27 12. 00~5. 3 12. 00
      (2) 警戒態勢期間 : 4. 29 24. 00~5. 2 12. 00
   바. 各師團長은 待機, 警戒態勢 實施間 每日 08. 00 現在 管內의 異常有無를 每日 10. 00부터 12. 00間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2호**

作戰命令 第63號 1950. 5. 1

1. 38°線 第6, 第8師團 管下 正面의 共匪는 지난 3월 27일 侵入한 遊擊隊의 全滅에부를 探知코자 近日에 와서는 發聲機로 大規模의 虛僞宣傳으로 我側 軍民을 眩惑케 하고 있음.
2. 軍은 政訓工作隊를 該地區에 急派하여 對北 政訓工作과 啓蒙으로써 敵의 敗類眞相을 指彈하려함.
3. 가. 陸本政訓監은 第6, 第8師團에 政訓工作隊를 各 1個小隊씩 5월 2일 부터 5월 22일까지 派遣하라.
   나. 第6, 第8師團長은 前記 政訓工作隊를 指揮하여 管內 將兵 및 民間에 대하여 慰問宣撫工作과 對北 政訓工作에 萬全을 期하라.
4. 行政事項
   가. 補給
   (1) 兵站
      (가) 糧秣 : 政訓工作隊長은 兵站監으로 부터 携帶食糧(건빵)을 1人當 20包씩(計 600包) 受領하라.
      (나) 被服
         ㄱ. 政訓工作隊長은 個人裝備 및 被服 一切를 휴대하라.
         ㄴ. 工作用 腐木 其他는 現地部隊長으로부터 借用 使用하라.

(2) 兵器 :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政訓工作隊에게 兵器(拳銃, 칼빈小銃 M1小銃)을 貸與하라.

나. 後送 및 醫療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醫療를 擔當하라.

다. 勤務

(1)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警備를 擔當하라.

(2) 第6, 第8師團長은 工作隊 宿營에 關하여 指示하라.

라. 輸送

(1) 輸送은 個人出張 樣式으로 하되 政訓工作隊長은 鐵道割引券을 陸本高級副官에게 申請하라.

(2)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수먹輸送을 擔當하라.

5.

가. 財政

(1) 政訓工作隊長은 個人出張에 의거 旅費를 申請하라.

(2) 宣傳費는 政訓監室 宣傳費로서 申請하라.

---

부록 제 3 호

作戰命令 第67號 1950. 5. 8

1. 北韓傀儡軍은 最近 國內에 侵犯한 態勢를 取하고 있으며 國內에 潛伏蠢動中의 殘餘 共匪는 5월 30일 總選擧實施를 期하여 騷動을 惹起코저 企圖中임.

2. 軍은 待機 및 警戒態勢를 實施하여 國內警備에 萬全을 期하려함.

3.

가. 各部隊長은 5.9. 12.00부터 5.27 12.00까지 待機態勢를 取하고 5.27. 12.00 부터 6.2 12.00까지 警戒態勢를 實施하여 管內 警備에 萬全을 期하라.

나. 各部隊長은 非常 召集 및 非常出動에 萬全을 期하라.

다. 各師團長은 管內 警察局과 緊密한 連絡下에 管內 警戒巡察에 徹底를 期하라.

라. 首都警備司令官 및 憲兵司令官은 首都地區 警戒巡察을 徹底히 하라.

마. 第1, 第7, 第6, 第8師團長 및 第17聯隊長은 管下 38°線 警備兵力의 增加와 警戒巡察을 徹底히 하고 이에 대한 計劃表를 5월 13일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바. 首都警備司令官 및 第2, 第3, 第5師團長은 警戒實施計劃書를 5월 13일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사. 各部隊長은 特히 管內 刑務所로부터 不穩事件 發生에 對備하여 援助를 求할時는 陸本의 指示가 없어도 積極 協助하라.

아. 各部隊長은 每日 10.00부터 12.00까지 管內의 異常有無를 報告하라.

자. 其他 實施要領은 從前과 同一함.

4. 以下 省略

---

부록 제 4 호

作戰命令 第68號 1950. 5. 25

1. 省略

2. 軍은 一部 警戒態勢 實施期間을 變更하여 國內警備를 強化하려함.

3. 第1, 第7, 第6, 第8師團 및 獨立機甲聯隊, 第17聯隊는 陸本作命 第67號에 의한 警戒態勢를 下記에

의거 實施하라.

가. 突入日時 5.24. 24.00

나. 解除日時 6.2. 12.00

다. 其他 細部事項은 陸本作命 第67號에 의거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 5 호**

作戰命令 第70號 1950. 5. 29

1. 省略

2. 軍은 非常警戒中 一部地區에 特別警戒를 實施하려함

3. 第1師團長은 隷下 砲兵 1個中隊를 開城에 派遣하여 1950. 5. 28. 22.00부터 6. 2. 12.00까지 特別警戒에 萬全을 期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 6 호**

一般命令(陸) 第43號 1950. 6. 1

1. 1950. 1. 6부 國本 一般命令(陸) 제1호 및 1950. 1. 20부 國本一般命令(陸) 제7호 2項에 의거하여 歩兵第7師團에 編入된 歩兵第3聯隊를 1950. 6. 15. 0時부로 歩兵第7師團으로 부터 解編하고 同日同時부터 首都警備司令部에 編入한다.

2. 1949. 6. 20부 陸本一般命令 제17호에 의거 歩兵第2師團에 編入된 歩兵第25聯隊를 1950. 6. 15. 0時부로 歩兵第2師團으로 부터 解編하고 同日同時부로 歩兵第7師團에 編入과 同時에 其 駐屯地를 京畿道 金浦里로 한다.

---

**부록 제 7 호**

作戰命令 第74號 1950. 6. 5

1. 省略

2.

가. 軍은 一部 陸軍學校의 移動 및 陸軍將校 俱樂部를 設置하려함.

나. 將校俱樂部 設置에 關하여는 別途 一般命令으로 示達함.

3.

가. 陸軍憲兵司令官은 隷下 富平派遣隊를 富平 美軍敎會 建物로 6.13. 12.00까지 移動完了하고 現建物은 陸軍經理學校長에게 引繼하라.

나. 陸軍經理學校長은 6.13. 12.00까지 經理學校를 富平으로 移動하여 가項의 兵舍建物을 引受 收容하고 現建物은 陸軍參謀學校長에게 引繼하라.

다. 陸軍參謀學校長은 前記兵舍를 引受하여 6.13. 12.00까지 移動, 收容하고 現建物은 陸本厚生監에게 引繼하라.

라. 陸本厚生監은 前記 兵舍建物을 引受하여 陸軍將校 俱樂部 設置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마. 陸軍參謀學校 移動後 舊建物의 警備는 首都警備司令官이 擔當하라.

바. 現在 服務中인 各學校의 警備兵力은 部隊移動과 同時에 併同하여 移動하라.

사. 兵舍建物의 引受引繼는 陸本工兵監의 立會下에 實施하라.

---

부록 제 8 호

作戰命令 第78號 1950. 6. 11

1. 北韓傀儡集團은 南北總選擧의 美名下에 謀略的 各種工作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此 工作을 粉粹하기 위하여 6.11.16.00부터 別命이 있을때까지 非常警戒 態勢에 突入하려함.
3.
   가. 第1, 第6, 第7, 第8師團長 및 第17聯隊長은 管下의 非常警戒態勢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特히 何人을 莫論하고 38°線을 往來하는 者는 逮捕하고 不應하면 發砲하라.
   나. 首都警備司令官, 第2師團長, 機甲聯隊長 및 砲兵學校長은 別命이 있을때까지 警戒態勢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다. 前記 各部隊長은 交通網은 勿論 南北秘密 道路 封鎖에는 特別措置를 강구하는 同時에 情報蒐集 및 夜間警戒에 萬全을 期하라.
   라. 前記 各部隊長은 異常이 있을때는 最短時間에 報告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 9 호

作戰命令 第79호 1950. 6. 13

1.
   가. 敵情 省略
   나. (1) 步兵第2師團 第25聯隊는 溫陽에 位置하여 訓練中에 있음
   (2) 步兵第7師團, 兵器整備中隊는 龍山 首都警備司令部 所屬 兵舍建物에 駐屯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함.
3.
   가. 第2師團長은 隷下 第25聯隊를 6.20.12.00까지 議政府로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1) 第7師團長은 前項의 配屬兵力을 統合指揮하라.
   (2) 第7師團長은 隷下 兵器整備中隊를 6.24 12.00까지 議政府로 移動完了하고 龍山 舊建物은 首都警備司令官에게 引繼하라.
   (3) 首都警備司令官은 前記 建物을 引受 使用하라.
4. 行政事項(別途 行政命令에 依함)

---

부록 제10호

作戰命令 第83號 1950. 6. 25. 06. 00

1. 北韓傀儡軍은 25.04.00를 期하여 38°線 全域에 걸쳐 南侵을 恣行하였음.
2. 軍은 25.06.00를 期하여 非常事態에 突入함.
3. 軍은 休暇, 外泊, 外出 및 敎育을 一切 中止함
   가. 各 부대장은 休暇 外泊, 外出중인 장병을 緊急召集하여 出動態勢를 갖추라.
   나. 各 학교장은 同時부로 피교육자(장교)를 原隊復歸조치하라.

부록 제11호

作戰命令 第84호 1950. 6. 25 12. 00

(口頭命令 : 同일 08. 00

1. 敵은 38°線 全正面 및 東海岸에 進攻을 開始하였음.
2. 軍은 豫備師團을 서울地區에 集結하려 함.
3.

가. 第2師團

第2師團은 旣히 第7師團에 配屬中인 第25聯隊를 統合指揮하여 1個大隊를 安東에 殘置하고 師團全兵力 및 第25聯隊를 旣히 下達한 作命과 같이 서울에 即時移動하라.

나. 第3師團

師團工兵隊, 通信隊 및 第22聯隊를 集結하여 師團參謀長 引率下에 即時 서울에 移動하라.

다. 第5師團

第5師團은 第15聯隊의 1個大隊(南原) 및 第20聯隊의 1個大隊(白雲山)를 殘置하고 其他의 全兵力을 集結하여 直時 서울에 移動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12호

作戰命令 第85號 1950. 6. 25 14. 20

(口頭命令 : 同일 11. 00)

1. 敵은 38°線一帶에 亘하여 南侵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 集結하려 함.
3.

가. 首都警備司令官은 隷下 第3聯隊를 議政府로 即時 移動시켜 第7師團에게 配屬하라.

나. 第7師團長은 가項의 第3聯隊를 統合指揮하라.

다. 陸軍步兵學校長 및 陸軍士官學校長은 隷下 敎導大隊 및 士官候補生(生徒)隊를 即時 龍山國民學校로 移動시켜 陸軍中領 俞海濬(現在步校)의 指揮를 받도록하라.

라. 陸軍中領 俞海濬은 다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即時 서울特別部隊를 編成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13호

作戰命令 第86號 1950. 6. 25. 15. 20

1. 敵은 38°線一帶에 亘하여 南侵을 開始하였음.
2. 軍은 裏津 兵力을 撤退하려 함.
3.

가. 第17聯隊長은 百方手段으로써 抵抗을 繼續하여 敵을 阻止하고 事態最惡할에 이르면 釜浦에 到着한 船舶에 依하여 서울에 撤收하되 時期는 別命함.

나. 首都警備司令官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行政事項

제17聯隊에 關한 事項

가. 제17聯隊長은 情勢가 許하는限 各種裝備 補給品 1切를 携行 撤收하라.

나. 撤收 順序는 아래와 같다.

(1) 武器, (2) 彈藥 (3) 車輛, (4) 揮發油, (5) 其他軍需品, (兵站, 工兵, 醫務, 通信)

(6) 人員(戰病傷者 包含)

다. 제17聯隊長은 撤收時 後送 不可能한 全裝備, 補給品 및 施設 一切를 徹底히 破壞하여 敵에 入手 또는 利用되지 않게하라.

라. 제17聯隊長은 下記 船舶을 利用 撤收하라.

| 船舶 | 釜山到着時間 | 備考 |
|---|---|---|
| 海軍 801 號 | 25.19.00 到着豫定 | |
| 丹陽號 | 26.04.00 到着豫定 | |
| 三桑汽船所屬 2 隻 | 25.11.00 到着豫定 | |

마. 제17聯隊長은 上記 船舶以外에 船舶이 所要되면 無線으로 連絡하라.

바. 輕迫警戒는 自隊에서 擔當하며 特히 對空監視에 대하여 萬全을 期하라.

사. 憲兵司令官은 憲兵 20名을 25.19.00까지 仁川埠頭에 派遣하여 仁川憲兵隊長과 協議하여 丹陽號 및 其他 船舶에 便乘 警備를 擔當케 하라.

5. 通信連絡은 從前과 同一함.

---

부록 제14호

作戰命令 第87號 1950.6.25.16.00

1. 敵은 38°線一帶 및 東海岸地區에 南侵을 開始하였음.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여 함.

3.

가. 陸軍機甲聯隊長은 隷下 機甲大隊에서 2個小隊를 即時 金浦에 派遣하여 漢江 下流 西岸 및 金浦半島의 警戒搜索에 徹底를 期하라.

나. 陸軍機甲聯隊長 및 陸軍砲兵學校長은 隷下 兵力을 別紙 附錄에 依하여 即時 各各 配屬하라.

다. 第1. 第6. 第7, 第8師團長은 나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搜索·및 警戒 任務에 萬全을 期하라.

4. 以下省略

△ 附錄

| 配屬兵力 | 駐屯地 | 配屬先 | 備考 |
|---|---|---|---|
| 裝甲 1 個 小隊 | 水色 | 第 1 師團 | |
| 裝甲 1 個 小隊 | 議政府 | 第 7 師團 | |
| 裝甲 1 個 小隊 | 春川 | 第 6 師團 | |
| 裝甲 1 個 小隊 | 江陵 | 第 8 師團 | |
| 對戰車砲 1 個 中隊 | 水色 | 第 1 師團 | |
| 對戰車砲 1 個 中隊 | 加平 | 第 6 師團 | |
| 對戰車砲 2 個 中隊 | 議政府 | 第 7 師團 | |

부록 제15호

作戰命令 第89號 1950. 6. 25 16. 40

1.
가. 敵은 今日 早朝 38°線一帶 및 東海岸地區에 侵攻하여 왔음
나. (1) 38°線 各部隊는 現在 侵攻한 敵과 38°線 以南 3km 線上에서 激戰中임.
(2) 各 豫備師團의 一部兵力은 서울에 集結中임.
2. 軍은 一部 戰鬪司令部 設置 및 戰鬪地境을 變更하여 南侵한 敵과 呼應하여 蠢動할 殘存共匪를 徹底히 掃蕩하려 함.
3. 陸本作命 第84號에 依한 第2. 第3. 第5師團의 서울地區 集結地는 別紙附錄과 같음.
4. 以下省略

△ 別紙 제 3
1. 제2師團 倉洞
2. 제5師團 龍山
3. 제3師團 서울龍山
(陸本作命 제84호에 依하여 서울에 移動하는 兵力의 集結地)

---

부록 제16호

作戰命令 第90號 190. 6. 25. 20. 30
(口頭命令 : 同일 12. 00

1.
가. 敵은 依然히 38°線一帶 및 東海岸에서 侵攻을 繼續中임.
나. 警察 1個大隊는 陸本에 配屬되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함.
3. 陸軍士官學校長은 隷下 生徒隊로써 1個大隊를 編成하는 同時에 警察 1個大隊를 統合指揮하여 372高地(1021-1668)~330高地(1022~1667) 線上에 移動하여 南侵한 敵을 擊滅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17호

作戰命令 第91號 1950. 6. 26. 08. 00
(口頭命令 : 同일 01. 00

1. 省略
2. 가. 軍은 議政府 正面에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38°線에 壓迫하려 함.
나. 空軍은 此 攻擊을 支援함.
다. 第7師團 및 第2師團의 戰鬪地境은 現 第1, 第9聯隊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3. 가. 第2師團은 6. 26. 08. 00 現在 接敵線으로 부터 第9聯隊를 超越하여 議政府~抱川에 連하는 道路를 中心으로 하여 當面한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確保하라.
나. 第7師團은 6. 26 08. 00 現在의 接敵線으로 부터 第1聯隊를 超越하여 議政府, 東豆川, 道路를 中心으로하여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確保하라.
다. 第2師團이 超越 前進後 第9聯隊는 原隊에 復歸하라.
4. 以下 省略

부록 제18호

作戰命令 第93號 1950. 6. 26. 08. 00

1. 旣히 下達한 情報報告와 大差없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集結하여 狀況에 相應하는 態勢를 取하려 함.
3. 가. 第3師團
   (1) 第3師團長은 第23聯隊의 對戰車砲中隊를 車輛 및 彈藥을 携行하여 即時 서울에 集結케 하라.
   (2) 第23聯隊의 1個 大隊를 議項에, 2個 大隊를 釜山에 集結시켜(馬山大隊는 釜山에 移動集結) 隨時 依命 移動할 수 있도록 하라.
   나. 湖南戰鬪司令部
   (1) 第15聯隊 1個大隊 및 第20聯隊 1個 大隊를 光州에 即時 集結하여 常時 出動 可能토록 汽車에 乘車 待機시키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19호

作戰命令 第94號 1950. 6. 26. 11. 30
(口頭命令 25일 12. 00)

1. 가.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임.
   나. 第6師團은 春川地區 第2師團은 抱川地區에서 今朝 攻擊에 移轉하였음.
2. 軍은 現在 狀況에 依據 一部兵力을 移動하려 함.
3. 가. 首都警備司令官은 隷下 第8聯隊를 第6師團長에게 配屬하여 加平에 移動케 하라(25일 口頭命令으로 旣下達)
   나. 陸軍機甲部隊長은 隷下 1個 騎馬中隊를 即時 第6師團長에게 配屬하여 加平에 移動케 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20호

作戰命令 第95號 1950. 6. 27. 01. 00

1.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 移動하려 함.
3. 가. 陸軍砲兵學校長은 隷下 105mm 砲兵 1個 大隊를 即時 蒲阿里(1002—1650)로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7師團長은 가項의 砲兵을 統合 指揮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21호

作戰命令 第96號 1950. 6. 26. 10. 00
(口頭命令 : 25. 17. 00

1.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에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 함.
3. 가. 首都警備司令官은 隷下 第18聯隊를 即時 議政府에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7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 指揮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22호

作戰命令 第97號 1950. 6. 27. 10. 00

1. 敵의 一部는 金浦半島 地區에 上陸하였으며 繼續하여 上陸을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金浦半島地區에 上陸한 敵을 擊滅하려 함.
3. 가. 金浦地區 警備部隊長은 別紙 軍隊區分에 依據 隷下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敵을 金浦 西北地區에서 殲滅하라.

나. 各 關係部隊長은 即時 別紙 軍隊區分에 依한 兵力을 即時 金浦로 移動하라.

4. 以下 省略

※ 別紙 軍隊區分

金浦地區警備隊長 陸軍大領 桂仁珠

第22聯隊 1個 大隊(龍山)
陸軍報國大隊 1個 中隊(永登浦)
南山學校(金浦)
工兵學校(金浦)
第12聯隊 1個 大隊(金浦地區 後退兵力)
搜索 2個小隊 및 大隊本部(金浦)
徒步中隊(靑玉里) } 第6師團 配屬을 解除
搜索 1個 小隊(加平) }

---

부록 제23호

作戰命令 第98號 1950. 6. 27. 17. 00
(口頭命令 : 26. 06. 00)

1. 敵은 依然히 侵攻을 繼續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함.
3. 가. 第5師團長은 現在 光州에 駐屯하고 있는 師團司令部 以下 光州駐屯兵力을 即時 서울로 移動하라.

나. 湖南地區 戰鬪司令官은 第15聯隊 1個大隊 및 第20聯隊 1個大隊를 即時 서울로 移動케 하라.

다. 各部隊長은 龍山 到着後 別命時까지 待機하고 連絡將校를 陸本作戰局에 差出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24호

作戰命令(別) 第1號 1950. 6. 29 19. 00

1. 仁川市에 暴動이 發生되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仁川에 急派하려함.
3.

가. 混成第5師團은 隷下 第20聯隊의 完全 1個中隊를 即時 仁川에 派遣하여 仁川地區 警備에 萬全을 期하라.

나. 仁川地區 警備 實施上 特히 京畿道 警察局과 緊密하게 協同하라.

4. 行政事項

가. 輸送은 自隊에서 擔當하라

나. 移動間 對空 및 地上 警戒의 萬全을 期하라.

다. 其他는 別途 指示에 依하여 實施하라.

5. 連絡은 主로 有線을 利用하고 無線 및 傳令을 兼用하라.

---

부록 제25호

作戰命令 第18號 1950. 7. 3

1. 敵은 軍前面 및 側方에서 壓迫을 加하여 我一線 師團은 逐次 戰場을 縮少하는 中임

2.

가. 軍은 聯合軍의 戰鬪加入을 爲한 時間餘裕를 얻기 위하여 D日 H時부터 遲延戰을 實施하여 平澤까지 撤退함.

나. 撤退開始의 時日은 別命함.

3.

가. 始興地區 戰鬪司令官은 下記의 一般線에 逐次的인 收容陣地를 占領하면서 兵力을 烏山에 集結하라.

但 各 收容陣地에 있어서의 支撐時間은 最少時間으로 함.

第1收容陣地 : 東秀庵~忠勳府~安養里線(首都師團)

第2收容陣地 : 道藏洞~軍浦~帽洛山에 이르는線(第2師團)

第3收容陣地 : 月岩里~彌勒洞~上光敎里에 이르는 線(第3師團)

第4收容陣地 : 西屯里~八達山~水原의 線(第5師團)

第5收容陣地 : 驛村~散井里~機山里의 線(第7師團)

나. 第1師團長은 始興地區 部隊가 第3收容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기 까지 手段을 다하여 豊德川 東西의 線을 確保하고 이후 下記에 依하여 烏山에 集結하라.

使用道路

豊德川~新葛里~烏山에 이르는線, 大略下記 地帶의 收容陣地를 占領하여 時間을 獲得하면서 兵力을 完全히 新集結地에 收容하라.

收容陣地

제 1 : 133高地~三街里~校洞의 線

제 2 : 161高地~月匡洞의 線

제 3 : 東鶴山~水泉里~185高地

다. 始興地區司令官은 前記 第5收容陣地.

第3師團은 第3收容陣地에 있어서 主力이 烏山에 이르기까지 此 陣地를 確保하라.

라. 烏山에 이르면 先發將校의 指示에 의하여 所定의 集結地에 部隊를 移動하여 이후의 行動을 準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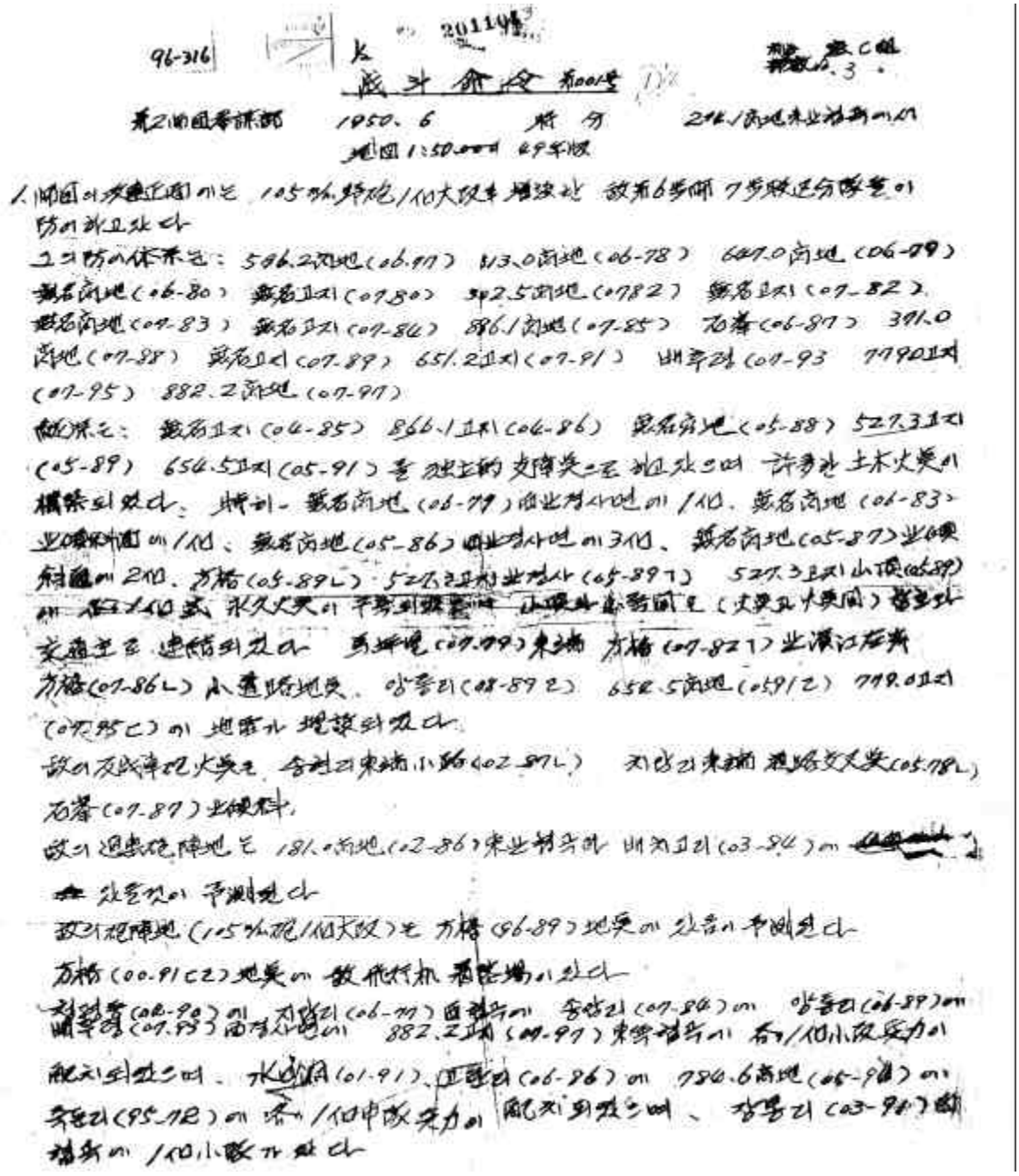
마. 工兵監은 別途 指示에 依하여 所定時間에 水原~烏山間의 道路破壞를 實施하라.

4. 行政事項 省略

5. 가, 通信監은 直接 附與한 命에 의하여 通信網(有線, 無線)을 架設하라.

나. 新指揮所의 位置는 烏山邑事務所임.

# 3. 북한군 전투명령



96-316

戰斗命令 第001號

第2梯團參謀部 1950. 6 附分 地圖 1:50,000 69年版

1. 梯團의 攻擊正面에는 105高地/1仁大坡를 擊破한 敵第6步師 7步兵連分隊들이 防衛하고 있다.

그들 防衛体系는: 596.2高地(06-77) 813.0高地(06-78) 627.0高地(06-79) 無名高地(06-80) 無名고지(07-80) 392.5高地(07-82) 無名고지(07-82) 無名高地(07-83) 無名고지(07-84) 886.1高地(07-85) 石峯(06-87) 391.0高地(07-88) 無名고지(07-89) 651.2고지(07-91) 배꽃리(08-93) 779.0고지(07-95) 882.2高地(07-97)

陣地는: 無名고지(06-85) 866.1고지(06-86) 無名高地(05-88) 527.3고지(05-89) 656.5고지(05-91)를 連結한 支障물로 되어있으며 許多한 土木火器이 構築되었다. 特히 無名高地(06-79)西北斜斜면에 1門, 無名高地(06-83) 北側斜面에 1門, 無名高地(05-86) 西北斜斜면에 3門, 無名高地(05-87) 北側斜面에 2門, 方格(05-89上) 527.3고지西北斜面(05-89下) 527.3고지山頂(05-89)에 各1門式 永久火点이 구축되어있으며 山頂北側斜面은 (火点과 火点間) 塹壕로 交通호로 連結되었다. 馬峴嶺(09-99)東南端 方格(07-82下) 北漢江右岸 方格(07-86上)에 小道路地点, 앙동리(08-89上) 658.5高地(05-91上) 779.0고지(07-95上)에 地雷가 埋設되었다.

敵의 反戰車砲火点은 舍洞리東南端小路(02-87上) 지동리東南端 道路交叉点(05-78上) 石峯(07-87)北側에.

敵의 迫擊砲陣地는 18人高地(02-86)東北斜斜면 배꽃고지(03-84)에 [redacted] 있을것이 予測된다.

敵의 砲陣地(105高砲/1仁大坡)는 方格(96-89)地点에 있을것이 予測된다.

方格(00-91C2)地点에 敵飛行机 着陸場이 있다.

[illegible] 지동리(06-77) 回谷리에 송암리(07-84)에 앙동리(06-89)에 배꽃리(07-93) 西方산록에 882.2고지(09-97) 東南斜斜에 各1門小砲兵力이 配치되었으며, 水[illegible](01-91), 고동리(06-86)에 796.6高地(06-98)에 죽동리(95-12)에 各1門中砲兵力이 配치되었으며, 장동리(03-94)에 1門小砲가 있다.

攻撃視所モ 521.0高地(07-91
無名高地(01-75)ニ在リ
敵ノ戦区予備隊モ 春川ニ約1個大隊ノ兵力ニ在リ

2. 本師団モ 882.2高地(07-79) ヨリ右(07-84 ヒョンゴ(07-81) 馬坪里(07-09)
間ニ在リ 敵ノ防御ヲ突破シ 主ヲ以テ春川ヲ撃滅スルニ 毎山峰ヲ占領シ 右ヨリ
(05-76) 松峴里(06-82) 453.0高地(06-88) 634.0高地(06-90) 新坪里
(04-96) ヲ占領シ右翼ヲ 最近任務ヲ以テ 新寺里(00-74) 院洞里(99-86) 西上里
(01-86) 123.1高地(01-87) 新昌里(00-88) 新北里(99-89) 昌村里(00-91)
東田里(00-93) 屯子峰(00-96) ヲ占領シ 最後任務ヲ以テ 竹峴里(95-92)
春川方向ニ主攻撃ヲ 当日末迄ニ 本地域ヲ占領確保スルニ 当リ攻撃ヲ拡大シ
金山里(91-66) 加平(89-69) 水峴里(96-80) 方向ニ迅速ニ進出セヨ
作戦区域ハ 戦斗序列ヲ以テ 1950、6 22、18.00迄ニ 出発陣地ニ
進出セヨ 特別命令ニ依ル

3. 右翼ハ 第3梯団ヲ 竹峴里(09-40) ヨリ 鳳峴里(08-66) 下加平(06-52) 3.6粁
北方(07-57)間ヲ 敵ノ防御ヲ突破シ 新坪里( ) ヲ経テ 昭陽
江東方向ニ主攻撃セヨ
東方ノ分界線ハ 鳳峴里(09-81) 方格高地(05-76) 909.6高地(90-60)
水峴里ヲ 除外ス 我ガ主ナル地域ヲ本師団ニ包含ス
連接友隊ハ 本師団ニ責任ヲ
左翼ハ 第12梯団ヲ 昌村里(08-99) ヨリ 屯子里(06-07) 竹洞ヲ(07-16)ヲ
昌村里(07-22)間ニ 敵ノ防御ヲ突破シ 高村 元平 加平方向ニ
攻撃セヨ
東方ノ分界線ハ 昌村里(08-99) 92.0高地(01-96) 春川、馬山里(05-71)
竹村(41-62) ヲ経テ 昌村里(08-99)ヲ除外ス 我ガ地域ヲ 第12梯団ニ
包含シ 連接友隊ハ 第12梯団長ノ責任ヲ

4. 決心ヲ示ス 主攻ヲ 右翼 302.0高地(07-81) 無名高地(09-20) ヨリ 北漢江沿岸
春川行政通方向ニ指向シ 敵ノ火点ヲ 迂回シ 主ヲ以テ 左翼ヨリ 龍頭
山ヲ経テ 春川ヲ突破シ 無名高地(峯) ヲ占領セヨ 左右隣接部隊ハ 昭陽
春川ニ於ケル 敵ヲ 完全ニ包囲消滅セヨ
戦斗序列ヲ 2梯団ノ 梯形ヲ以テ 右翼ニ 第6梯団 左翼ニ第4梯団 6梯団後方ニ

第17步联营 配合对敌人

5 第6步联营 及武申纪大队2中队、土炭大队2中队从黄坪里(08.79)、
星光果 611.3高地(09.84)附近从敌防御要点突破后 302.5高地(07.82)
无名高地(07.82) 无名高地(07.83) 826.1高地(07.85) 外号(06-87)
391.0高地(07.88) 无名高地(07.89)的敌火炮 予以消灭 完全消灭
后 西山营 占领要地 最近任务为 龙泉岩(07.76) 龙湾里(04.83)
653.0高地(06.88)等 人3大队主力 包围消灭北山营 占领界限等 营主力
次后任务为 仁寿里(00.76) 新寺里(99-84) 大谷里(01.86) 1231高地
(01.87) 仁安里(00.88) 新北里(98.83)等 人3大队为 包围消灭北山营
继续前进时 主攻方向之主. 业溪洞 左右 迂路至 前进时 各步里小路至
时时 安定里方向之至 前进梯次

第2大队主 647.0高地(06.79) 对敌时的敌主 敌炮 消灭后 安定里 方向
方向之至 攻击此点

联队的战斗指导 炮联队2.3大队、组动炮大队为支援此点

6. 第4步联营 土炭大队1中队 及武申大队1中队为 391.1高地(07.88)
附近(08.99)附近的 敌防御要点 突破此点
529.2高地(05.89) 业溪洞附近 653高地(05.91) 明平岭(07.93) 979.0
五指(07.95) 882.2高地(07.97) 业溪洞附近的敌主 火炮等 完全消灭后
每高地(山脊)等 占领后 最近任务为 653.0高地(06.90) 凤坪里
(06-96)等 占领此点 次后任务为 安定里(00.91) 龙湾里(00.93)
五指里( )等 占领后 加等 攻击重点为大队 右等迂回至 左等小路至
此时 春川至包围之势 整顿

左的分界线为 师团分界线以内 右的分界线为 575.3高地(10.87) 外号
(08.87) 653.0高地(05.88) 123.0高地(02.89) 龙湾里(09.88)
迂路分歧点(95.88)等以内 外号 123.0高地外 653.0以西除外 其他
一切地点等为 第4步联营包含此点

迂回支撑点为 第4步联营长的责任此点 联队的战斗为 炮兵联队第2大队
为支援此点

第17步联营 师团第2梯队至 第6步联营的后续时(1~2K)前进 以后

20110부

8. 砲 兵:

砲兵射击准备完了는 1950. 6. 22. 20.00까지이다

准备射击期限은 30分间이다

任 務:

ㄱ. 가까운 縱深과 防御 一線에 있는 敵火点과 火器를 鎭压한다

ㄴ. 敵의 521.0高地(07-91) 無名고지(06-91) 無名高地(0858'L) 無名高地(01-95)에서 監視를 不許한다

ㄷ. 直射砲와 迫擊陣地에 있는 砲를은 527高地(05-89) 無名高地(05-87) 無名고지(05-86) 無名高地(06-83) 無名高地(06-79)에 있는 永久火点을 鎭压한다에서 土木火点을은 破壞한다

ㄹ. 181.0高地(02-86) 東北斜面, 배치리(03-86)에 있는 迫擊砲陣地를 壓倒하며 敵의 右翼 치라리(05-78L)에 있는 戰車砲陣地를 진압한다

ㅁ. 敵의 予備隊와 와 地雷埋設地帶를 通한 通路를 打開한다

突擊支援時:

ㄱ. 步兵과 自動砲의 突擊을 集次集中射擊으로 支援한다

ㄴ. 正面과 側面에서 敵反突擊隊 出現을 不許한다

ㄷ. 春川에 있는 敵砲陣地를 鎭压한다

縱深戰斗時:

ㄱ. 步兵과 自動砲의 突擊을 集次集中射擊으로 援護한다에서, 再生하는 目標와 保障한다에서 새로 發見되는 目標를은 壓倒한다

ㄴ. 春川方向으로 敵予備隊의 接近을 不許하며 戰車, 裝甲車出現을 不許한다

ㄷ. 步兵과 自動砲로 하여금 迅速히 界線을 고수할 保障한다

ㄹ. 第2梯隊의 戰斗進入을 保障한다

ㅁ. 敵의 退路로 南方退却을 不許한다

9. 工兵: 砲兵任務와 같이 함을 볼 수

ㄱ. 突擊準備 確保하며 步兵의 橫保으로 攻擊을 保障한다

ㄴ. 屈曲里(07-86)로부터 內走(10-85) 552.0高地(09-85)間의 牛馬車가 通過할 수 있는 敵障碍를 開設한다

ㄷ. 方走리(14-96) 373.5高地(13-95) [illegible] 766.0高地(09-93)

"ㅂ"지점과 그 부근 부락에 통할 수 있는 종의 路를 開設할 것
ㄹ. 上面의 敎는 地雷堆設을 打開할 것
ㅁ. 敵陣地의 機關銃 · 自動砲의 前進을 보장할 것

10. 敎導大隊, 反戰車砲大隊은 나의 予備隊로 予定하며 敎導大隊는 第一步兵의 引率路의 前進하며 이의 側面 및 後方警戒任務가 있을 予備隊 指揮官은 敎導大隊長이다. 나의 指示에 依하여 戰車 및 加勢할 步兵을 投入할 것
11. 師團反戰車砲兵隊는 反戰車砲大隊, 工兵大隊, 步兵大隊의 中隊, 自動砲大隊로 編制하며 그 指揮官은 自動砲大隊長으로 指揮한다.
任務는 나의 指示에 依하며 主時로 戰車를 出發地 準備할 것
ㄴ. 第一目標(00.90) 占領時(00.95)까지 師團前方에는 反戰車活動을 不許할 것
ㄷ. 右側方에는 反戰車의 接近을 不許할 것
ㄹ. 主攻方向大隊는 最近任務完遂時 / 個中隊를 戰車에 加入시킬 때에 攻擊
最近任務完遂時 大隊는 戰車에 加入할 準備를 完了할 것

12. 防空對策은 師團高射機關銃小隊의 兵力 20%로 保持하되 師團의 戰鬪序列을 明示할 것
師團參謀部, 砲兵隊는 第6步兵高射機關銃小隊 A2, 3分隊가 明示할 것이며
後方은 1個步兵高射機關銃小隊 3, 4分隊로써 防空할 것
師團中央防空監視所哨所는 552.0高地(09.85)이며

哨所 No 40~43　第6步兵 No 44~47　第4步兵 No 48~51
第1步兵 No 52~55　砲兵 No 56~59

信号는 : 敵機發見 --- 無電 B22, 電話 空中, 信号彈 赤色連發

ㄴ. 反戰車對策은 敵의 一切의 反戰車火器를 封殺할 것
信号는 : 無電 A12, 電話 戰車, 信号彈 青色連發

13. 師團交換所의 彈丸供給量은 車內에 三日, 後方集積所에 五日
16. 信号는 別紙 信号一覽表에 依
17. 나의 指揮所는 1950. 6. 22. 24:00 現在 680.0高地(08.81)地點에 있다

爲完了後 ㄴ. 攻擊開始後 ㄷ. 最近, 最後任務完了時, 日日任務完了時 報告할 것

20110[illegible]

己. 其他는 ~~警時生~~ 報告之時机에 1次式 各种 緊急事故之 報告 ~~之~~ 次

口. 各回報告는 每日 2次式 計到 第1次는 6時, 第2次는 18時 正刻에 提出 ~~之~~ 次

17 此의 代理人 : 第一代理人 參謀長

第二代理人 6旅團長

「共1部作成
1. 1. 地本
2. 2. 第1中
其他 部队
執金 洙
10. 6. 22」

第2步 印



# 참 고 문 헌

##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 1) 國文 1次 資料

改正 大統領令 第814號, 1953. 7. 28.
空軍本部職制令, 1949. 10. 1.
國軍組織法, 1948. 11. 3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職制令, 1948. 12. 7.
國防部特命綴, 1949~1950.
國本一般命令(陸), 1949. 12. 17.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將校 任官序列名簿
將校 自歷表

### 2) 國文 公刊資料

강원도, 『江原道史 : 역사편』, 강원일보사, 1995.
공군본부 정보국, 『북괴 공군』, 1951.
空軍本部, 『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第1卷, 1954.
空軍本部, 『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공군본부,『UN공군사』, 1975.
공군분부,『6·25전쟁 증언록』, 1989.
國防軍史硏究所,『한국전쟁』(상), 1995.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建軍史』, 2002.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20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198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中東部戰線篇』, 19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국방사』 제1집, 19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1], 1977.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1년지』, 1951.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1954.
內務部治安局,『한국경찰사』, 1973.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1969.
陸軍本部,『북괴군 특수부대』, 1989.
陸軍士官學校,『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보병 제6사단,『청성역사(1948. 6. 14~1977. 12. 31)』, 1978.
보병 제7사단사령부,『칠성약사, 1949. 6. 10~1969. 12. 31』, 1970.
육군교육사령부,『전장기능별 운용개념(개념530)』, 2005(미발행).
육군대학,『북괴군 공격전술』, 197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연대 전투상보」, 제42권, 1986.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전장사례연구(1)』, 1983.
육군본부, 교육참고 7-7-2『전장사례연구(2)』, 1985.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전장사례연구(3)』, 1987.
육군본부, 교육참고 7-7-8『전장사례연구(4)』, 1988.
陸軍本部,『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육군본부,『戰史』 제7집, 1952.
육군본부,『한국전쟁 재조명』, 199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제53권 1987.
육군사관학교,『강원도 화천군·춘천시 군사유적 : 지표조사보고서』제8집, 2001.
육군포병학교,『포병학교 발자취』, 1963.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교학사, 198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존안자료 함적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1954.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1978.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제1집, 2002.
해군본부,『해군편제사』제1권, 1970.
海兵隊司令部作戰敎育局,『海兵史』제3집, 1958.

### 3) 國文 證言 및 回顧錄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김상덕·김완식,『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박경석,『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유성철,「나의 증언」(10),『한국일보』, 1990.
유재흥,『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4.
유현종,『백마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의장 안병범』, 1989.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李應俊,『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李亨根,『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임부택,『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임부택,『압록강아 말해다오』, 인물연구소, 1974.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丁一權,『丁一權回顧錄 : 6·25秘錄 戰爭과 休戰』, 東亞日報社, 1986.
조갑제,『이용문 장군 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한 신,『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 4) 北韓 1次 史料 및 公刊資料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연합통신자료실(1992. 8. 29).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 5. 1～9. 28).
조선인민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1001호」(1950. 6. 22).
조선인민군 제599군부대, 「각 구분대 조직통계표」(1950. 3. 24).
조선인민군 제599군부대, 『총직일관일지』(1950. 5. 7).
조선인민군 제599부대 제4정대, 「전투보고서(1950. 7. 2～7. 5)」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 5) 國外 資料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Ⅰ(1948-195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2권, 200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1990
大韓民國 外務部, 『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 (1-4권), 1994.
徐東九 譯, 『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

## 2. 2次 資料 및 單行本

### 1) 國內資料

국토통일원, 『북괴 인물』, 1971.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7.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1998.
임 은, 『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 김일성 정전』, 한국양서, 1982.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戰爭記念事業會, 『韓國戰爭史』 1-6, 1991～199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199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1973.
韓豹頊, 『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 3) 國外 資料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 Y. : The Free Press, 1968.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Truman, Harry S., *Memoirs* :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미 공군대학,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956.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역, 『스탈린』 세경사, 1993.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 속의 대사관』, 한섬사, 1980.

# 찾아보기

## ㄱ


91고지 192
93고지 642, 656
918고지 575
가납리 337
가랑산 301, 344, 351, 355
가래모기 460, 472
가래묵나루 464
가리산 35, 426
가마골 454, 468
가마봉 504
가양리 346
가여울 108
가일현 449
가좌리 291
가좌미 24, 120
가평 13, 23, 32, 36, 424, 431, 476
간파리 316, 317
갈천리 582
감나무촌 617
감악산 130, 133, 211, 301
갑곶 245, 254
갑둔리 38, 520, 557
갑산 42
강건 14, 15, 40, 47, 422, 782
강근휘 569
강녕포 248, 250, 253, 254
강동정치학원 559
강령 107, 116, 124, 135, 136, 139, 141, 146, 148, 157, 167
강릉 9, 553, 557, 564, 683, 781, 792
강릉농업학교 578, 608
강릉동 184
강릉비행장 564, 569
강릉상고 578
강리 25, 118
강문봉 70, 397, 641, 660, 686, 689, 789
강문헌 262
강성탑 664
강성태 92
강영환 653
강영훈 70, 686
강원채 325, 334
강은덕 146
강응설 569, 570
강정리 121
강창남 166
강창리 424
강태무 653
강태민 258
강태봉 300, 372
강화 111, 244
개석동 207, 210, 212
개성 13, 18, 23, 46, 55, 61, 90, 108, 112, 116, 127, 135, 169, 171, 175, 183, 200, 296, 679, 781, 789
개성반도 117
개영정리 25
개풍(토성) 118
개풍군 170
개화산 237, 248
객현리 291
거례리 449
거사리 350
건단리 28, 294
건설국 82
검불리 573
겉고개 254
경무대 71, 675
경반리 478
경부선 659
경성전기 90
경안리 483
경운산 443

경원선 88, 375
경윤호 600
경의선 88, 196, 197, 659
경찰국 82
경춘선 88
경포대 592, 612
경향신문 74
계관촌 424
계류리 28, 293
계명산 35, 123, 136, 425, 432, 497
계방산 549, 550, 582
계방천 567, 586
계양산 258
계인주 244, 248, 250, 259
계중수 422
고광도 336
고근홍 561, 562, 577, 579, 584
고남리 118
고남준 318
고덕봉 608
고동절 297, 298
고두산리 23, 25, 117, 118, 119
고랑포 26, 55, 61, 108, 112, 119, 122, 128, 132, 171, 172, 199, 203, 208, 215
고랑포지서 86
고령리 119
고림현 131
고막리 254
고백규 299, 654, 686
고사리 560
고수령(고시락고개) 442, 476
고시복 431, 505
고양 336
고임현 202, 227
고적치 574
고척리 25, 118
고탄리 453
고한조 131, 132, 200, 201
곡릉천 171
공국진 397, 641, 643, 682
공병학교 111
공수전리 38, 549, 557, 569
관대리 429, 494, 519
광나루 652, 667
광릉 344, 393
광원리 440, 563, 569, 570
광장동 638
광주산맥 345
광진교 661
광탄 216, 337, 524
광평 345
광화문 663
교동 603
교육국 82
교통부 88
구룡령 582
구산동 117, 597, 614, 616
구암 172, 484
구용서 91, 92
구의 83
구정리 176
구파발 238, 385, 637
구화리 7, 9, 61, 112, 116
국무부 78
국무회의 65, 69
국방부 64, 97
국사동 41
국사봉(527m) 61, 117, 123, 136, 302, 389
군산 8, 9
군선강 597
권종 360
귀둔리 38, 519, 549, 557, 569
극동군사령부 77, 79
근화동 465, 468
금강 방어선 693
금곡리 24, 120, 132
금량장 36
금릉리 120
금병리 117
금병산 474, 483
금산리 458, 466
금오리 24, 292, 301, 328, 351, 362
금은 92
금진리 603
금천 7, 9, 42, 112, 171
금촌 26, 120, 121, 215, 219, 227
금파리 132, 207
금화봉 350
기사문리 38, 440, 549, 557, 569
기산리 388
기지리 293
긴급명령 제1호 72, 84, 85, 678
긴급명령 제2호 85, 91
길원팔 598
길음교 649, 650, 694, 696
길주 42

김강 422
김계원 320, 352, 375, 642, 643, 646
김광순 251, 262
김광철 618
김광협 15, 16, 32, 47, 420, 422, 556, 782
김교석 147
김기태 192
김낙홍 212
김덕보 89
김덕수 367
김덕준 228
김동근 202, 228
김동명 432
김동빈 194
김동증 569, 613
김두열 175
김두의 161
김립 421
김만익 290, 291, 358
김명환 334
김묵 563
김백일 63, 64, 66, 70, 158, 319, 387, 455, 472, 501, 640, 660, 661, 682, 685, 686, 689
김병노 84, 678
김병종 290, 291
김병진 493, 533
김병화 132, 194, 202, 216, 228
김병휘 297, 298, 312, 375, 658, 687
김봉건 201
김봉문 422, 556
김봉상 298, 299, 363, 367, 368, 687
김봉용 314, 322, 333
김봉율 14
김삼룡 97, 786
김상덕 664
김상룡 432
김상흥 454
김석관 89
김석원 67
김성 431, 440, 461, 534
김성규 367
김성빈 599
김수철 606
김순 652
김순기 569, 573
김양춘 114, 115
김영로 607
김영석 223, 224
김영선 183
김영수 14
김영철 67, 70, 372, 385, 683, 684
김옥경 154, 157
김옥산 208
김용배 432, 446, 456, 463, 561, 562, 599
김용운 581
김용주 648, 685
김운한 461
김웅 14, 15, 16, 23, 48, 114, 115, 290, 291, 422, 679, 782
김원길 127
김윤식 422
김응용 132, 194, 213, 214
김익렬 129, 130, 131, 174, 179, 199, 207, 214, 226, 227, 232, 239
김인걸 601
김인태 258
김일 14
김일기 358
김일성 3, 5, 6, 15, 47, 57, 88
김일하 193
김일환 70, 93
김장홍 71, 676
김재명 131, 200, 202, 227
김재욱 16, 114, 115, 291
김점곤 131, 215
김정규 453
김정렬 67, 70, 119, 684
김정희 668
김제민 605
김종갑 297, 298, 312, 317, 318, 331, 338, 689
김종무 648
김종상 308
김종수 432, 446, 450, 532
김종오 287, 299, 303, 414, 431, 447, 464, 472, 501, 524
김종윤 126
김주태 358
김주형 493, 510, 518, 525, 533
김준 577, 581
김진권 207
김진위 208, 214, 226, 232, 131
김진형 91
김찬호 583, 601

김창덕 15, 16, 48, 421, 556, 782
김창배 248
김창봉 290, 291, 356
김책 15
김천근 614
김철수 214
김철순 364
김촌성 258, 259
김충구 159
김태련 290, 291
김태원 142
김포 13, 23, 57, 59, 96, 111, 118, 244, 789
김포경비사령부 250
김포공항 66
김포반도 108, 244, 305, 337, 653
김포지구전투사령부 60, 111
김풍익 299, 320, 352, 371, 409
김학두 515
김학석 368
김학인 14
김한덕 433, 457
김한영 618
김한주 314, 315, 322, 640, 648, 651, 687
김헌 300, 376, 385, 409
김현경 363, 368, 409
김현수 70, 74, 76, 163
김호 235
김호경 145, 146
김홍규 391
김홍일 67, 229, 236, 688, 689
김홍주 235
김화 41, 423, 444
김황목 297, 307, 314, 325, 331, 333
김황봉 210
김후진 114, 115
김희제 142, 145
김희준 156, 157
김희태 125, 126, 140, 145
까치봉 62
까치산(鵲山, 350m) 123

ㄴ

나공성 127
나구정 골짜기 506
나남 41, 42
낙동강 방어선 693
난곡리 589, 592, 612
남대문 663
남대천 567
남백봉 520
남북협상 74
남산 248
남산학교 111, 248
남애리 574, 579
남전리 490
남천 172
남천동 295
남천점 42
남포 42
내리 319, 352, 362
내린천 491, 519, 550, 557
내무부 87
내무성 18
내무장관 81, 85
내삼포리 35, 495
내안흥 316, 322, 325
내촌 297, 356, 382, 449, 509, 656, 657
내평리 34, 425, 454
내현리 38, 549, 557, 569
내후동 505
냉정리 158
노경억 126
노고산 679
노동리 31, 117, 582, 590
노량진 83, 248, 653, 664, 669
노병렬 385
노봉리 606
노용호 678
노재현 131, 132, 208, 242
노해면지서 338
녹달산 123, 136
녹번리 231
녹양동 321, 333, 334
녹음방송 76
농림부 93, 94
능곡 234, 385

ㄷ

다리고(Joseph R. Darigo) 184
달명산 136
당포리 493, 502
대곡리 35, 425, 450, 469
대관령 553, 567
대구 8, 9, 779
대궁산 599

대덕산 186, 189
대룡리 25, 118
대룡산 35, 474
대목리 560
대성호 160
대원리 23, 117, 119, 132, 172, 179
대전 9
대전지법 85
대전차기동예비대 445
대전철도국 90
대치리 564, 569, 573
대통령「긴급명령」제1호 81
대통령령 제377호 72
대포동 597, 600
대한금융조합연합회 93
대한청년단 123, 165
대현 83
대화 553, 621
덕고개 471
덕산리 119
덕소리 37, 425
덕정 21, 325, 334
덕현리 199, 208, 209, 210
도감포 308
도내리 230
도락산 334, 335
도봉산 385, 637
도선장 111
도악산 226
도장동 121
도직리 601, 603, 606
도평리 24, 294
도하리 335
돈암동 657, 660, 682
돈암초등학교 87
돌고개(신망리) 291
동거리 227
동곡동 127
동덕리 38, 582, 583
동두천 13, 283, 284, 293, 296, 301, 305, 307, 321, 332, 403, 441
동막동 321
동산리 37, 557
동이리 292, 308
동판리 191, 193
두락산 123, 127, 140, 145
두로봉 549, 569
두매동 186
둔전동 220
드럼라이트(E. F. Drumwright) 76
등명동 597, 601, 603
딱별단 123, 165
뚝섬 83, 652, 667

## ㄹ

라이트(William H. S. Wright) 659, 682
라주바예프 7, 406
로크웰 193

## ㅁ

마곡리 119
마노진나루 496
마명리 294
마산리 9, 28, 294
마소오 117
마수리재 614
마장리 291
마적산 454
마전리 291
마지리 28, 132, 291
마차산 130, 133, 301, 305, 319, 321, 332
마평리 423, 425, 444
마포 667
마포장 62
마현 127, 149, 150
막례리 117
막은골 466
막장골 445, 496
만덕봉 597
만세교 349, 350, 351, 403, 405
만월산 574
말고개 413, 490
망령산 471
망우리고개 657
망운산 601, 606
매내미 484
매봉 216, 443, 476
매염새 617
맥아더 59, 79, 659, 676, 682, 794
맴내 477
맹보영 614
명덕리 362
명륜동 183
명봉산 228
명지리 564, 569, 571, 573, 574
모전리 604, 605

모종촌 523
모진교 414, 423, 435, 444, 448, 534
모택동 3, 5
목동리 443, 476
목포 8, 9
무봉리 28, 293
무이산 350
무정 14, 15
무초 72, 74, 77, 79, 676
무학초등학교 87
묵호경비부 601
문래동 251
문산 21, 26, 46, 112, 119, 127, 128, 130, 135, 169, 198, 200, 219, 223, 296, 387, 789
문산천 171, 216, 224
문용채 298, 300, 372, 667, 687
문정식 493
문주산 248, 254
문형태 648
미 군사고문단(KMAG) 141
미 대사관 77
미 합동참모본부 79
미노리 580
미아리 219, 637, 638, 647, 651, 691
민경중 582
민기식 197, 229, 251
민병권 432, 457
민복기 65
민족보위성 14, 16, 40, 422

## ㅂ

바실리예프 3
박경동 202
박관영 179
박광윤 246
박광혁 432, 457
박구서 186
박기병 198, 648
박기성 298, 300, 374
박기순 350
박길남 14
박길용 250, 620
박남표 298, 299
박노규 432, 533
박도경 262
박무열 250
박병권 648, 685
박서권 562, 600, 606
박석고개 207
박석권 574, 582
박성철 15, 16, 47, 782
박송파 421
박승희 290, 291
박영순 14
박영철(북한 대위) 61
박용실 195
박월리 614
박응규 387
박일우 18
박임항 577
박정덕 422, 556
박정서 387
박정채 431, 468
박정호 126, 140, 154, 155, 156
박주근 432, 457, 470, 510
박주용 158, 159, 162
박준수 510
박준희 126
박찬긍 313
박창암 61, 304, 346
박충치 232
박치옥 562, 569, 582, 588
박헌영 6, 7
박형수 186
박희동 132, 198, 215, 219, 232, 648
박희현 92
발산리 33, 34, 427, 453
밤재 597
방내리 583, 584, 589
방대산 523
방동리 494
방부유 387
방원철 251
방축골 334
방호산 15, 48, 114, 172, 245, 679, 782
배운용 297, 298
배천 172
배치고개 450
백골단 123, 165
백낙준 65
백남권 300
백남원 211, 213
백문 246
백복성 667
백봉령 590, 597, 603
백석교 372
백석동 225
백석천 376, 382, 398, 401, 642, 696

백석포 127
백석현 118, 119
백선엽 127, 131, 172, 193, 197, 214, 219, 229, 239, 246, 249, 287, 299, 303
백성욱 81
백운대 333
백운산 198, 648
백원담 180
백인엽 123, 126, 133, 139, 141, 150, 156, 163, 164, 166, 683
백천 61, 116, 129, 130, 175
백태신 297, 298, 338
백호부대 667
버림말 579
벌말 352, 354
범수동 294
법원리 216, 219
벽제 216, 238, 637
벽제관 170
변암동 335
변응오 643
보건부 87
보광리 618
보국대대 61, 111, 252, 341
보납산 482
보도연맹 83
보병학교 65, 111, 248
보산교 321
보산리 315, 321
복골 509
복두암 293
복룡산 569
본자일 369
봉루리 195
봉서리 133
봉암리 221, 223, 307, 314, 318, 322, 325, 332, 334
봉양리 332
봉의산 435, 442, 457, 469
봉일천 107, 111, 127, 130, 169, 170, 195, 214, 215, 216, 219, 224
봉일천초등학교 223
봉파산 237
봉황동 564, 599
부곡동 24, 292
부귀대 444, 445
부동(釜洞) 616
부산 8, 9, 793
부소현 34, 425, 427, 492, 497, 558
부암리 141, 152
부용산 443, 453
부창리 456
부평 261
부평리 388, 445
부포 136, 270
부포항 107, 108, 124, 135, 136, 142, 155, 157
북만세 352
북분리 569, 573
북악산 658
북창 506
북평 561, 564, 597, 599, 606, 792
북한강 413, 443
불국사 301
불암산 334, 398, 637, 642, 646
브라운 141, 147, 164
블레어 하우스 77
비둘기고지 183
비둘마을 582
비봉산 176, 179
비상 국무회의 68, 81, 674
비암리 337
빈구현 146
빈철현 299, 300, 370

## ㅅ

3번 도로 333, 338
33고지 584
34고지 583
35고지 583
36고지 583
39고지 573
307번 도로 219
316번 도로 328, 333
325고지 573
325번 도로 346, 389
330고지 389, 517
352고지 574
354고지(고왕산) 120
356고지 606
357고지 211
358고지(까치산) 117
371고지 512
372고지 389
43번 도로 338, 345, 346
44고지 250
47번 도로 328
421고지 123

429고지(충무고지) 127
482고지 38, 557
488고지(송악산) 119
사곶 159, 161
사내동 189
사농동 458, 466
사동(은동) 117
사리원(沙里院) 41, 116, 172
사명산 34, 427
사미천 171, 190
사법부 84
사세청 92
사암리 485
사이구라미 581, 583, 589
사직리 297, 302, 345
사창동 120
사창리 443
사천 23, 117, 119, 171, 563, 567, 590
사천선 579
사천초등학교 581
사치리 502
사현(모래재) 484
사회국 82
산대월리 589, 613
산두곡 598
산정리 41
산직동 119
삼각지 663
삼마치 486, 523
삼송리 336, 337
삼양동 658
삼척 8, 12, 22, 32, 440, 561, 564, 598, 779, 792
삼천리 456
삼팔교 350
삽당령 590, 597
상공부 90
상구라미 581, 583, 589
상금오 371
상대전리 306
상도리 118
상마장리 481
상색리 482
상서림 574
상송암리 449, 450
상수내리 494
상수리 334
상패리 322, 333
새말 513
새재 614
서경택 649
서대문형무소 639
서라벌고등학교 650
서림리 550, 569, 574, 582
서부동 470
서북청년단 123, 165, 565
서빙고 364
서상리 424, 459
서세성 223
서울 18, 26, 36, 46, 48, 128, 171, 283, 637, 781, 782
서울공작창 57
서울대학교 87
서울대학부속병원 87, 687
서울시경찰대대 344
서울시립병원 87, 688
서울역 89
서울위생병원 687
서울적십자병원 687
서울지법 수원지청 84
서원 459
서종철 299, 640, 653
서파 28, 48, 283, 345, 362, 782
석계리 148, 149
석곶리 121
석교리 580, 581, 590, 591
석대동 582
석둔리 497
석류포 111, 253
석방동 227
석병산 549
석사리 35, 426, 475, 484, 501
석산 14
석장리 424
석천리 117
석포(백석리) 179, 191
석포(연안) 238
석현리 337
선곡리(신망리) 41, 291
선내지리 294, 345
선덕 19
선수리 560
선암리 333
선유봉 794
선제타격작전계획 4
선화초등학교 163
성동리 26, 119, 120
성산리 506, 508, 517, 617
성일영 350
성황당초등학교 644
소강동 139
소사 261
소양강 413, 469, 566

소요산 301, 321, 332
속초 598
손관도 387, 388
손성겸 70
손영을 258, 262
손원일 683
손응삼 422
손창술 127
송광보 432, 446, 458
송내리 332
송라사 584
송성삼 331
송악산 172, 179, 180, 184
송영환 346
송요찬 663
송우교 364
송우리 317, 328
송인상 91
송인율 387, 389
송정리 198
송추 333, 637
송현리(옥산포) 37, 457
송호림 125, 127, 140, 150, 157, 159, 160, 162
송호성 67
수대산 광산 136
수도경비사령부 283, 285, 317, 441, 492
수도경찰국 389
수도육군병원 687
수락산 334, 376, 637, 642
수리봉 453
수색동 235
수안보 490
수원 8, 12, 18, 22, 32, 34, 414, 426, 427, 653, 688, 779
수유리 642, 647, 692
수인리 445
수택리 24, 294
순천 678
스미르노프 3
스탈린 3, 5, 6, 11
시룬고개 443
시변리 183
시암리 246
시흥 653, 688
시흥지구전투사령부 638
신곡교 338
신기리 24, 120
신남 495
신당리 443
신대 353, 354
신대선 562, 577, 578
신동우 62, 681
신릉동 31, 117
신림고개 524
신막 19
신망리 27, 41, 291, 292
신북대교 355, 359, 403
신북리 459
신사리 120
신산리 26, 119, 121, 216
신선균 126, 127
신선동 227
신성모 57, 62, 67, 69, 71, 95, 156, 674, 676, 681
신안주 19
신언국 363
신영철 618
신원식 643
신읍리 293
신의주 42, 172
신익희 673, 674
신재근 318
신천 308
신촌 부락 375
신태원 160
신팔리 293
신평리(만세교) 346
신포리 443
신풍리 34, 426, 498
신현조 209, 212, 225
신현홍 131, 184, 249
신흥동 333
심곡리 603
심언봉 258
심일 459, 472

## O

1번 도로 215, 219
106고지(전농동) 656
107고지 234, 261
108고지 604
109고지 590
111고지 234
112고지(고랑포) 190, 191
116고지 590
118고지 606
119고지 128
128고지 456
131고지 370
134고지 367
138고지 237
140고지 605

143고지(경희대학교) 654, 649, 653
148고지 605
149고지 646
151고지 618
155고지 368, 374
156고지 590
157고지 335, 601
158고지 301, 475
160고지 350
164고지 414, 437, 447, 459, 532
171고지(관음리) 618
173고지 308, 579
178고지 364
180고지 254
183고지 571
188고지 570
192고지 589
28고지 583
202고지 374
204고지 308
205고지 333
207고지 589, 590
208고지 128, 350, 352, 369, 372
211고지 608
215고지 601
217고지 458
219고지 354, 355, 358
233고지 601, 603
247고지 600
260고지 579
277고지(동거리) 225
286고지 571
287고지 349, 350
294고지 571
299고지 332
59고지 190, 579
63고지 258, 259
64고지 202
65고지 590
66고지 617
531고지 606
535고지 24, 292
554고지 574
628고지 24
675고지(감악산) 293
아곡동 186, 191
아랫다무리고개 498
안격호 421
안광영 640, 658, 687
안국동 663
안기섭 141
안동엽 140
안동훈 569
안목 583, 597, 601
안민일 299, 302, 321, 332, 337
안백성 290, 291
안병범 667
안영호 385
안용학 432, 457
안인진 553, 583, 597, 604
안제휘 126
안태갑 656
안흥리 317, 321, 322
애치슨 5, 77
앵무봉 216
야미리 41, 293
약수동 312
양곡비상대책위원회 93
양구 7, 13, 448, 495
양국진 70, 682
양명동 159
양문리 302, 346, 349
양보 601, 606
양양 41, 559, 567, 781
양원 107, 117, 124, 135, 141, 146, 148
양원리 307, 308, 312
양익포위 441, 528
양재일 454, 468
양중교 350
양중호 455
양지리 294, 295
양지촌 579
양통고개 444, 449
양통리 432
양평 36
어구촌 502, 505
어론리 413, 432, 490, 498
어룡동 358, 364
어룡리 27, 119, 120
어성전리 563, 574
언별리 553, 604
엄수동 520, 523
엄항섭 643
엄홍섭 641
여수 8, 9
여순 10·19사건 83
여의도 57
여의도기지 59
여주 34, 35
역골 464
역내리 35, 426
역도하 487

연곡천 440, 550, 553, 563, 567, 579, 580
연근산 159
연백 128, 135
연백지구 108, 169
연안 7, 9, 13, 23, 55, 114, 117, 122, 127, 129, 172, 304, 305
연평도 156
연포 19
연합신문 66, 141, 163
연합통신 74
연화동 561, 564, 569, 570, 571
염창동 236
염하 253
염하변 248
영등포 111, 118, 248
영월 792
영정포 111, 128, 237, 245
영진리 582, 584
영평 293, 345
예성강 41, 170, 171
예성강 철교 128, 169, 171
오금동 316, 322
오대산 549, 561, 563, 792
오백룡 15, 16, 556
오봉산 334, 618
오산리 228, 337
오음리 120
오익경 126, 140, 147, 151, 152, 157
오장동 356
오정석 581
오제도 83
오죽헌 592, 612
오진우 15, 16, 557, 598
오창근 299, 300
오현리 27
옥계 597, 598, 683, 793
옥교동 227
옥녀봉 481
옥산포 458
옥정리 333, 362
온양 375
올미 466
옹진 61, 114, 116, 122, 136, 139, 270
옹진광산 123
옹진반도 18, 55, 57, 85, 96, 136, 683
옹진읍 108, 135
와룡대 23, 41, 117, 119
와우산 679
왕규익 408
왕방산 353
왕연 14, 15, 47, 782
왕휘 422, 556
용마산 657
용미리 227
용산 66, 96, 198
용산곡 219
용산골 215
용산리 435, 437, 453
용산역 57, 89
용산초등학교 197
용암리 325, 328, 331, 335, 393
용호도 159, 160, 161
우교붕 599
우두산 414, 435, 437, 442
우드(Walter G. Wood, Jr.) 78
우병옥 261
우이동 331, 642
우탄리 569, 575, 588
우현 180
운니산 490
운두령 563, 564, 588, 616
운산리 608, 614
운악산 24, 294
운유산 111, 244, 255, 260, 263
운천 13, 304
울진 793
원대리 38, 520, 549, 557, 569
원룡산 128
원산 19, 42, 283, 491, 559
원세훈 674
원수봉 358
원일전리 37, 557
원주 8, 12, 18, 21, 32, 35, 45, 414, 427, 431, 433, 523, 558, 565, 621, 779
원창고개 442, 474, 483, 535
원천리 41, 423
원평 294
위전리 219, 220, 230
유경수 15, 16, 47, 290, 291, 782
유기천 664
유동리 28, 293
유동열 67
유선 559
유성철 3, 6, 14

유승열 258
유신 14, 16, 114, 115, 290, 29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6, 80
유엔 한국위원단 78, 79
유엔사무총장(트리브그 리) 77, 78
유의준 298, 300, 372
유재성 131, 132, 186, 190, 192, 213, 226, 232, 235
유재흥 211, 283, 296, 298, 300, 306, 312, 317, 326, 327, 328, 345, 376, 398, 638, 641, 642, 669, 685, 689, 690, 691, 694
유정리 346
유중수 212, 214
유진오 86
유창훈 155
유천리 591, 616
유해준 66, 132, 194, 197, 202, 213, 228, 232, 386
유환박 297, 298, 354, 642, 687
유흥수 129, 174, 249
육군공병학교 342
육군본부 663
육군사관학교 656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 287
육근수 562, 577, 581
육본 작명 제97호 258
육사교도대 227
육운국 57
윤기열 234
윤병준 358
윤수용 448
윤영모 297, 298, 313, 318
윤영선 89, 93
윤재연 385
윤종한 146, 161
윤종호 315
윤천봉 131, 132, 203, 212, 225, 227, 232
윤춘근 297, 298, 301, 345, 351, 355, 398, 642
윤태일 258
윤태현 599
율곡리 132
율동 121
율정리 325
은골 234
은동 127
은파산(283m) 123, 136
음성 31
음양리 497
음현리 389
읍저리 117
응봉 599
응봉산 35, 492, 608
응호 573, 579
의정부 27, 48, 175, 218, 219, 283, 291, 292, 296, 305, 403, 781, 782
이권무 15, 16, 290, 291, 679
이규삼 297, 298, 351, 355, 360
이규현 599, 600
이근석 59
이금열 458
이기붕 676
이남구 577, 580, 581
이남호 432, 446
이동교리 374
이동화 14
이림 14
이무중 131, 175, 194
이민 115
이방남 15, 16
이범석 67, 675
이병형 337
이봉근 368
이산포 170, 231, 236, 667
이상근 298, 299, 319, 351, 364, 374
이상한 318
이상환 374
이석권 632
이선근 64, 70, 72
이선도 221, 222
이성 562
이성가 287, 431, 550, 577, 612
이성진 422
이성호 421
이세호 297, 298, 302, 313, 317, 318, 338
이소 578
이승만 6, 59, 67, 71, 79, 87, 95, 676
이승우 388
이승준 252
이시영 661
이신국 186
이영규 297, 298, 304, 312, 313, 338

이영배 202
이영호 15, 16, 290, 291, 679
이용 194, 227
이용구 581
이용문 641, 667
이우팽 581
이운산 432, 520
이원근 186
이원성 422
이원엽 387
이원장 300
이은석 313
이응준 198, 640, 648, 661, 685, 690, 693
이의명 297, 298, 307, 308, 334
이익성 16
이인호 346, 350
이재현 160, 354
이정도 298, 300, 370
이정선 368
이종근 186, 191
이종찬 64, 129, 174, 249, 319, 659, 689
이주영 83
이주하 97, 786
이준모 578
이준식 319, 387, 687
이준학 387
이창구 648
이창권 114, 115
이창률 562, 599, 606
이창복 659, 661
이창수 356
이천리 120
이철원 75, 76, 297, 298, 346, 355, 359
이청송 15, 16, 47, 421, 782
이청천 67
이촌동 669, 679
이춘배 251
이춘섭 562, 577
이치녕 91
이치업 63, 64, 578, 620
이학구 422
이한종 477
이현진 299
이형근 300, 319, 326, 328, 344, 369, 375
이형석 65
이훈 432, 493
이희권 298, 318, 331, 658
인구리 563, 570, 573
인도교 638
인람리 450, 534
인성관 432, 446, 478
인장산 610
인제 17, 34, 287, 414, 558, 560, 781
인천경찰서 163
인천도립병원 87
인태식 92
일동 48, 283, 345, 382, 782
일반명령 제43호 363
일영리 337
일월봉 193
임계 792
임계리 565, 590
임백진 298, 299, 363, 364, 368, 376
임병직 72, 77
임부택 432, 445, 458
임원석 202, 227, 228
임원진 441, 550
임윤선 355
임익순 297, 298, 375
임진강 128, 129, 170, 171, 189, 191, 216
임진강 철교 128, 171, 173
임진강방어선 227, 788
임진교 108, 169, 271
임충식 226, 298, 299, 319, 320, 327, 334, 336
임해 16, 420
임헌덕 189
임호리 573
임훈근 160
임흥순 659
입암리 333

## ㅈ

자남산 180
자은리 490, 498
자일동 370
자주포 420, 428, 438
자하리 191, 208
작명 제84호 65
작산 31, 124, 136
작산동(까치산) 31, 117
작은말고개 506
작전명령 갑 제18호 58
작전명령 제85호 363, 786
잔교리 550, 561, 567, 570

장경근 70
장경석 563, 580, 610, 614
장교덕 290, 291
장근술 201
장기영 676
장단 119, 120, 186
장단선 27
장덕수 211, 213
장도영 62, 70, 124, 198, 448, 682
장두철 193
장릉산(146고지) 260
장리 564, 569, 571
장림 254, 255, 260
장면 72, 77, 78
장복 421
장사원 523
장석윤 81
장성 565, 792
장세풍 371, 409
장송우 367
장승거리(만세교) 293, 294, 350, 368
장영문 251, 255
장자동 350
장재동 435, 450
장재만 189
장창국 63, 70, 197, 524, 617, 661, 682
장촌리 41, 423
장춘권 226, 299, 334, 336
장충단공원 250
장치은 131, 133, 195, 196, 222
장파리 171, 199, 208
장현리 28, 291, 614
장호강 643
재경부대장회의 658
재무국 82
저동리 612
저울골 466
적목리 431, 432, 449, 527, 566
적성 127, 171, 199, 297, 302, 307, 441
적암 307, 308
전곡 304, 307
전규홍 678
전남식 214
전면식 246
전문석 421
전방지휘연락장교단(ADCOM) 80, 659, 682
전병갑 421
전성호 129, 184, 194, 215, 246
전순기 297, 298, 346, 350
전술지휘소(TACC) 212
전시수송본부 88, 89, 90
전우 15, 16, 48, 422, 782
전우영 155
전원이 667
전유형 663
전자열 246
전주 678, 779
전호인 600
정규한 126
정기백 461
정동진 441, 550, 598
정라진 599
정래혁 682
정릉 691
정릉천 649
정보국장 62
정세웅 189
정순기 584
정영홍 131, 200, 203, 227
정원하 577, 581
정일권 676
정자동 573
정족산 561, 563, 564, 569, 570, 574, 582
정진 562, 577, 614
정찰명령 제1호 43
정훈국 66, 73, 88
정훈국장 73
제1경비여단 441
제1(인천)함대 58
제1육군병원 687
제2육군병원 687
제2함대 58, 59
제2차 블레어 하우스 80
제3경비여단 107, 135, 171
제3(목포)함대 58
제7함대 79
제603모터사이클연대 21, 45, 419, 425, 491, 782
제766유격부대 19, 20, 21, 32, 45
제801함(김옥경) 155
제945육전대 18, 20, 38, 441, 549, 597
제비리 614
제천 553
조강리 248, 253
조개리 588

조관 114, 115, 421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73
조규영 562, 599, 605
조기백 175
조남철 374
조달진 515
조만식 129, 180
조병옥 676
조병운 62
조봉 575
조봉암 674
조선의용군 47, 782
조선전사 6
조선전업 83, 90
조선중앙통신사 164
조암 299, 320, 362, 387
조운학 299, 370
조원영 562, 569, 570, 573, 579, 584, 588
조정련 493
조지훈 86
조철권 186
조흥만 156
종심진지 435
종현산 24, 292, 302, 307
주문진 21, 38, 557, 564, 568, 579, 683
주석균 93
주월리(신망리) 120
죽교리 153, 167
죽리 571
죽전리 424
죽천 116, 136
죽헌리 792
중기동 151, 153, 167
중랑교 649
중앙방송(KBS) 65, 72, 75, 78
중앙전화국 90
중앙청 68, 89, 637
중지도 661
중화초등학교 185
증원부대 283
지경리 38, 557
지내리 435, 437, 453
지리산 648
지병학 422
지세강 126, 127
지암리 444, 476
지행리 318
지현리 362
직동고개 338
진남포 19, 291
진다리 520
진동리 557
진목리 389
진봉산 128
진부리 564, 575
진용곤 643
진주 678
진흑동 440, 527, 550, 561, 563, 566, 574

ㅊ

71고지 647
72고지 259
73고지 244
73고지선 111
78고지 590
764고지(계명산) 442, 490
769고지 575
799고지 582
차갑준 298, 300, 327, 328, 369, 687
차광전 299, 300, 370
차규헌 358
차균섭 557
차재돈 374
창경원 685
창동 287, 305, 332, 338, 376, 637, 696
창동 방어선 332, 396
창동리 117
창동파출소 336
창막동 426
창만리 216
채병덕 57, 58, 62, 67, 70, 71, 128, 130, 157, 173, 197, 199, 236, 285, 317, 319, 327, 375, 386, 641, 642, 674, 681, 688, 691
채수용 518
천간 507
천곡리 606
천마봉 568, 584
천마산(60고지) 255
천병규 91
천보산맥 345
천보암 370
천전리 437, 468
천정리 444, 450
천주산 301, 344, 351, 355
천호동 638
철갑령 569
철도병원 87, 688
철원 7, 9, 41, 781
철정리 509

청단 55, 117, 127, 128, 130, 172, 199
청도리 588
청량리 463, 468, 536, 648, 652, 691
청룡반도 176, 179, 238
청산리 312
청진 19
청평리 33, 34, 424, 425, 427, 444, 450
청학리 294
초동 123
초성리 28, 291, 297, 302, 307, 308, 315
초성리고개 306
초전치 574
초촌교 308
촉대봉 476
최갑석 461
최갑중 562, 563, 577, 578
최경록 129, 131, 173, 193, 200, 227, 230, 239
최광 15, 47, 114, 172, 199, 679, 782
최규관 355
최규하 93
최근화 570
최기덕 66, 74, 141, 163
최대명 207, 214, 232, 234
최동안 524
최면호 574, 577
최명세 422
최민섭 641, 653
최병순 132, 195, 219, 222, 236
최복수 248, 250, 260, 262
최석용 360
최성원 390
최세인 297, 298, 302, 313
최순주 91, 92
최아립 422
최영구 600
최영규 388
최영수 457
최영희 131, 194, 198, 231, 648
최용건 14, 15, 40, 782
최용덕 250, 259
최용진 15, 16, 47, 782
최우식 290, 291
최원 14
최원겸 195
최율석 115, 290, 291
최인 14, 16, 420, 422
최인덕 290, 291
최일영 200, 234
최재균 214
최재명 387
최창식 691
최창언 299, 300, 319, 370, 398, 641
최춘삼 354, 358
최춘정 308, 312
최취성 608
최학순 422
최학훈 495
최현 15, 16, 47, 114, 115, 116, 139, 782
최희택 422
추곡리 35, 41, 423, 425, 450, 469
추동리 302, 345, 346
추전리 450
추형섭 141
축석령 301, 318, 328, 335, 368, 369, 370
춘천 13, 18, 23, 32, 34, 36, 41, 287, 413, 433, 565, 781, 791
춘천사범학교 471, 489, 535
충무고지(△429) 123, 136
충주 523
취야 107, 135, 136, 147
치마산 149
치악산 176
치안명령 제26호 81, 85

ㅋ

캐슬러 606
큰말고개 506
큰바골 517

ㅌ

탄장 354
탄장선 353
태릉 197, 334, 344, 657
태백산 549
태봉산 364
태탄 117, 127, 139
토끼고지 145, 146
토현리 117
통일인민정부 4
통진 111, 118, 119, 245, 249

퇴계원 48, 283, 382, 637, 782
퇴곡리 38, 557

## ㅍ

82고지 590
85고지 193
87고지 605
88고지 584
89고지 589, 590
823고지 350
파평산 128, 170, 195, 199, 215, 239
판교리 591
판서 148
팔당 483
팔로군 47, 782
평강 19, 42
평양 19, 42
평창 792
포천 13, 48, 283, 284, 297, 320, 441, 782
포항 8, 9, 779
표무원 653
품걸리 426
풍덕리 118, 119

## ㅎ

하남리 38, 519, 557
하남종 477
하답 490, 519
하바로브스크 781
하번천리 483
하범수 252
하병래 562, 569, 583, 604
하상도 477
하서림 574
하수내리 35, 425, 492
하우스먼(James W. Hausman) 65
하월천리 574
하유천 592, 612
하조강리 119
하진부리 599, 616
하천장애물 488, 535
하천전리 35, 426, 469
하추리 519, 549, 557, 569
하패리 291, 333
하평 13
학곡리 470
학담 308
학산리 792
한강교 13, 48, 76, 284, 441, 639, 660
한강대교(인도교) 661, 667, 679
한계리 460, 506
한계초등학교 507
한근호 234
한기동 117
한남동 249
한밭 612
한보석 175
한서한 164
한순엽 131
한순화 131, 179, 180, 237, 246, 253, 254
한신 299, 336
한용현 684
한인성 191
한일래 114, 115, 139
한일무 14, 15
한점인 90
한탄강 308
한태원 297, 298, 302, 307, 318, 325, 331,333
한표옥 78
한혁 127, 145
한흥 126
함병선 432, 493
함성렬 126, 127
함준호 297, 301, 307, 313, 327, 331, 641, 647
함흥 19, 41, 423, 444
항동 335
해군 LST-801함 154, 157
해군 YMS-513함 162
해룡산 302
해송천 567, 573
해주 19, 57, 74, 125, 136, 156
해주진공설 163
해촌 121
행정리 589
행주 170, 236, 667
행주산성 170
향동 38, 557, 582
향호리 573
허필은 297, 298
허헌 351
현계용 374
현내리 601
현리 413, 431, 519, 557
현파 421, 430
현학봉 114, 115

호(虎)부대 332, 657
호원동 297, 385
호원리 376
혼성대대 331
홍릉 647
홍완기 235
홍은식 86
홍적령(홍지기고개) 435, 442, 476
홍제동 617
홍천 9, 17, 21, 31, 35, 45, 48, 74, 413, 431, 558, 565, 781, 791
홍천초등학교 471
화방촌 308
화산리 176
화상천 553, 567, 570, 573
화석동 132, 207
화악산 443, 476
화양강 486, 491, 506, 519
화양동 692
화천 7, 13, 41, 42, 46, 448, 781, 791
황규면 75
황규설 202, 228
황기상 600
황동화 422, 495
황방리 312, 316, 322
황병산 549
황석 114, 115
황의선 251
황인흡 581
회기동 649, 653
회령 42
회암령 362, 374
횡계리 616
횡성 482, 518, 558
후평리 465, 469
후포 28, 293
희락사 350

A

AFP특보 164

B

B-29중폭격기 661

C

C-54수송기 794

F

F-51전투기(Mustang) 59, 795

J

JMS 305정 793

L

L-4 794
L-5연락기 794
L형 항공기 59

S

SCR-506 195
SU-76 자주포 453, 458, 512, 528

T

T-34 전차 371, 696, 785
T-6건국기 59, 794

U

UN 75
UN군 68
UN한국위원단 164

Y

YAK 전투기 57, 59, 794

# 6·25전쟁사 편찬 자문위원

| 성 명 | 직 책 |
|---|---|
| 백 선 엽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
| 최 영 희 | (전) 국방부장관 |
| 박 경 석 |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
| 이 성 호 | (전) 해군참모총장 |
| 정 용 근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
| 장 지 량 | (전) 공군참모총장 |
| 김 동 호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
| 소 진 철 | 원광대학교 교수 |
| 안 용 현 | (전) 전사편찬위원회 책임위원 |
| 온 창 일 | 한국전쟁학회장 |
| 유 재 갑 | 경기대학교 교수 |
| 이 종 학 | 서라벌군사연구소장 |
| 정 석 균 | 군사편찬연구소 전문위원 |
| 한 용 원 | 교원대학교 교수 |

□ **집 필 자** 양 영 조 전쟁사1부장 남 정 옥 선임연구원
손 규 석 선임연구원 박 동 찬 연 구 원

□ **전문위원** 중령 서 규 화 중령 김 주 흠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 문 위 원 정 용 근 자 문 위 원

□ **감 수** 유 재 갑 교수(경기대학교) 온 창 일 교수(육군사관학교)
송 요 태 교수(3사관학교) 강 정 현 교수(해군대학)
김 광 수 교수(육군사관학교) 이 명 환 교수(공군사관학교)
석 영 준 교수(육군대학)

□ **지도 그래픽** 양 승 용

**6 · 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년 12월 5일 인쇄
2005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 울 시 용 산 구 이 태 원 로 2 9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서 울 인 쇄 정 보 산 업 협 동 조 합